총서 《불멸의 향도》중 장편소설 《예지》는 1960년대말 낡은 사상잔재와 도식화된 창조방법으로 우리 문학예술이 겪고있던 진통과 곡절의 근본원인을 명철하게 밝혀주시고 문학예술혁명을 일으켜 20세기 문예부흥의 새 시대를 안아오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비범한 예지와 령도의 현명성을 감명깊게 형상하고있다.

소설은 평범한 한 영화연출가가 고심하여 만든 한편의 영화에서 우리 문학예술이 안고있는 심각한 결함을 대번에 통찰하시고 그 원인을 혁명적문학예술이 뿌리 박아야 할 전통문제에서 찾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천리혜안의 예지와 높은 안목,창조의 영재로서의 위대한 풍모를 깊이있는 철학적묘사와 생동한 생활세부,등장인물들의 독특한 성격속에 진실하게 보여주고있다.

소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의 문학예술이 뿌리 박아야 할 전통을 어버이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몸소 창작지도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에서 찾으시고 《꽃파는 처녀》를 영화로 옮기는 과정을 통하여 영화혁명,영화를 창조하는 인간들의 사상혁명을 일으키시는 실재한 사실을 감동깊은 이야기속에 형상하고있다.

작품은 지하철도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는 장면들을 통하여 어버이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를 다 돌보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를 폭넓게 펼쳐 보여주고있으며 가극창조를 비롯한 문학예술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을 일으켜나가는 이야기를 통하여 **김정일**동지이시야말로 천재적예지와 탁월한 령도로 이 땅우에 주체의 혁명적문학예술의 대화원을 꽃피우시고 뜨거운 인간적감화력으로 문화인들을 한품에 안아 끝까지 운명을 보살펴주시는 위대한 스승,자애로운 어버이이시라는것을 감명깊게 형상하고있다.

소설은 짙은 서정과 생활과 성격의 진실성,작품 전반에 구현된 생동성과 철학적깊이로 하여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을 격조높이 구가하고있다.

편집부

주요 인물

최승진	영화연출가
로영무	영화연출가
박경섭	당중앙위원회 과장
서영림	문화성 부상
주영도	촬영소 당비서
리명선	촬영소 로배우
미 혜	촬영소 분장사(리명선의 딸)
강철룡	부연출
한기석	부연출
강세룡	건설위원회 부위원장(강철룡의 형)
배명준	건설위원회 설계담당 부국장
윤 희	최승진의 안해
박성녀	로영무의 안해
손영실	예술영화 《꽃파는 처녀》의 주인공

우리자신보다 더
우리는 그대를 믿노라, 당이여！
그대가 우리를
우리보다 더 믿고 사랑했기에

우리자신보다 더
우리는 그대를 아끼노라, 당이여！
우리의 숨결이 그대 숨결에 닿아있고
우리의 혈맥이
그대의 심장으로 뛰고있기에…

— 서정시 《우리 당》중에서 —

제 1 장

1

방안도 부엌간도 대낮처럼 환했다.

윤희는 단란한 가정살림의 아늑한 고요를 한껏 즐기며 동자질을 하다가 저도 모르게 마음이 끌려 천정의 형광등을 빤히 쳐다보았다.

반년전만 하여도 대통로들과 대동강유보도의 가로등이나 동상과 기념비들의 장명등으로 켜져 수도의 야경에 운치를 돋구던 형광등불빛은 어느새 대도시를 은백색의 휘황찬란한 불빛바다로 만들고 시가유축의 영화예술인아빠트에까지 들어와 그의 집부엌도 이렇게 밝아진것이다.

하루가 다르게 변모되는 조국이 보내주는 그 희한한 불빛은 윤희의 가슴속에 한가득 흘러들어 마음의 구석구석을 환히 밝혀주는듯했다.

그는 행복감에 겨워 미소를 머금고는 가볍게 돌아치며 동자질을 계속하였다. 둥실한 어깨며 청춘이 약동하는 봉긋한 젖가슴의 선이 그대로 드러나게 몸을 감싼 연한 미색세타에 흰 모직양복치마를 받쳐입고 그우에 하얀 앞치마를 두른 그 녀자는 아직 생활의 쓴맛 단맛에 때묻지 않은 새색시같았다.

윤희는 희고 매출한 손으로 늪밥가마꽉지를 약간 쳐들고 머리를 갸웃하며 확 피여오르는 밥김냄새를 맡아보고는 얼른 손을 귀에 가져갔다. 얼굴에 끼얹힌 밥김때문인지 볼에 연한 홍조가 피여올랐다.

그는 인차 돌아서서 랭장고문을 열고 파며 닭알, 고기 등을 조리대의 칼도마우에 꺼내놓았다. 그것은 시사회와 최종합평회를 마치고 돌아올 남편을 기쁘게 해주려고 낮에 식료상점에 가서 사온것들이였다. 윤희는 연출실의 다른 연출가들이나 배우들도 축하하자고 밀려들수 있다고 생각하여 그런 경우 남편이 옹색을 당하지

않도록 술과 맥주도 몇병 사왔는데 그것으로 모자라지 않을가싶은 불안도 없지 않아 두손을 앞치마속에 감추고 오도카니 서서 찬장안에 세워둔 병들을 눈어림으로 세여보았다. 그러다가 갑자기 질풍처럼 휩쓸어드는 불길한 생각에 입술이 파랗게 질리였다.

지난밤 남편은 거의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밤 2시경 윤희가 잠결에 까닭없이 가슴이 서늘해져 서재로 황황히 올라가니 남편은 어스름속에서 피우지도 않던 담배를 피우며 침대머리에 앉아있었다. 왜 주무시지 않는가고 묻자 놀라서 그를 쳐다보며 어서 내려가 자라고만 일렀다. 윤희는 그런 남편을 어둠속에 홀로 둬두고 자기만 내려가 잘수 없었다. 남편의 성공과 기쁨은 그의 성공이고 기쁨이였으며 남편의 실패와 번민은 그의 실패, 그의 번민으로 되여야 했다. 남편의 모든것이 그의것이였다.

윤희는 가늘게 새여나오는 한숨과 함께 남편앞에 쪼그리고 앉아 그의 한손을 꼭 잡아쥐여 자기 가슴앞으로 끌어왔다.

최승진은 안해에게 손을 맡긴채 한숨섞인 나직한 목소리로 영화연출이란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직업같지만 사실은 세상에서 속을 제일 많이 썩이는 고달픈 직업인것 같다고, 나이를 먹을수록 그것을 더 느끼게 된다고 했다.

《한 예술가가 자기 경지를 개척해나가자면 한평생 쉬임없이 땅을 뚜지는 근면한 농군처럼 말이요, 하루도 쉬임없이 탐구에 탐구를 계속해야 되오. 그러자니 모든 인간적인 욕망을 희생시켜야 하거든. 나를 보라구. 이번 작품을 걷어안은 다음 언제 한번 당신과 살뜰한 시간을 지낸적이 있나, 극장이나 식당에 한번 같이 간 일이 있나. 창조하는건 예술이지만 개인생활은 전혀 예술적이 아니란 말이요. 당신한테야 내가 얼마나 재미없는 남편이겠소.》

윤희는 어리광부리듯 남편의 손을 뿌리치고는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그런 소리 말아요. 고생이 락이란 말도 있지 않아요.》

《고생이 락이라…》

《한가지 물어도 좋아요？》

《음…》

《그럼 어째 젊어서 이런 고생스러운 길에 들어섰어요? 세상에 하많은 직업가운데서 어째서 이런 길에…》
《그건 좀 복잡하고 심중한 문제요. 후에 죄다 이야기해주지.》
《또 한가지… 이런 길에 들어선걸 지금에 와서 후회하게 되나요?》
《아니 여태까지 단 한번도 후회한적은 없소. 그저 당신이 곁에 오니 마음이 좀 약해져 하소연했을뿐이요. 다른 사람에겐 한번도 고생타령을 한적이 없소.》
《여보, 솔직히 말씀해줘요. 이번 작품이 자신 없어요?》
최승진은 1년남짓하게 걸려 다부작 광폭예술영화 《광풍》을 창작하였다. 문화성과 촬영소는 영화예술계의 한 기둥이라고도 할수 있는 그의 재능과 능력을 믿고 막대한 자금과 물자를 투자하고 유능한 인민배우, 공훈배우들을 다 들이밀고 수백수천의 찬조출연인원들과 군중들을 동원했었다. 촬영이 시작되자 중앙의 신문과 방송기자들이 찾아왔었고 영화계의 여론은 이 영화제작이 우리 나라 영화사에 하나의 사변으로 기록될것이라고 했다.
최승진은 시름겨운 한숨을 내쉬였다.
《글쎄 뭐라고 할가… 나는 오늘밤 다시 영화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장면한장면 죄다 더듬어봤소. 어떤 대목은 두번 세번…》
《그럼 잘됐는지 못됐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자기가 낳아키운 자식을 밉게 보는 어머니가 있소? 연출가도 누구나 다 그렇단말이요. 게다가 나는 남달리 주관이 센 사람이 아니요. 시사회를 앞둔 지금에 와서는 내 감각, 내 판단을 전혀 믿을수 없게 되였소.》
《어제 부연출아저씨가 와서 잘됐다고 하던데요. 신경이 너무 날카로워졌어요. 쉬라요. 다 잊고 푹 쉬라요.》
윤희는 지난밤 그토록 불안해하던 남편의 말들이 떠오르자 다리맥이 풀려 두손으로 볼을 싸쥐고 오도카니 앉아만있었다.
출입문쪽에서 손기척소리가 나는것 같더니 문이 열리며 시원한 목소리가 울려왔다.
《아니 이 집이 왜 이렇게 조용한가?》

이웃현관에 사는 연출가 로영무의 안해가 투명한 비닐보자기에 푸르싱싱한 부루를 싸들고 들어왔다.

윤희는 반색을 하며 달려나가고싶었으나 인차 마음을 돌릴수 없어 그저 어정쩡한 얼굴로 일어섰을뿐이다.

박성녀는 그의 얼굴빛을 흘깃 훔쳐보고는 비닐보자기의 부루를 구석쪽의 소랭이에 말없이 쏟아놓았다. 그리고는 막내동생이나 며느리의 집에라도 온듯 대견해하는 눈빛으로 부엌안을 둘러보더니 혀를 찼다.

《알뜰하게는 거두었구나. 저 찬장안엔 저게 뭔가? 에이구 술에다 맥주병까지. 원 손두 크구나. 온실농장에 있는 친척이 저걸 보내왔길래 승진선생 생각이 나서 가져왔어. 혼자 지낼 때 우리 집에 와 자주 식사했는데 시원한 부루쌈을 얼마나 좋아하던지 그 생각이 나서… 이 겨울철엔 저것두 귀한게라구. 내가 다 손질했으니 한번 찬물에 헤워 밥상에 올려놓으라구.》

인정미 도는 그의 말투며 푸르싱싱한 부루에서 풍기는 싱그러운 기운으로 부엌간에 생활의 화기가 한결 더 도는듯했다.

윤희는 못내 고마와 무슨 말을 할지 몰라 그저 《아니,정말…》하고 입안의 소리를 몇마디 하였다.

《내 오기전까지 무슨 생각을 했나?》

《그저 공연히…》

《영화걱정을 했지?》

《…》

《어쩐지 그러는것 같아 동무나 해줄가 하고 낮에 두번 찾아왔댔는데 없더구만.》

《식료상점에랑 갔댔어요.》

《음…》

성녀는 남정들처럼 부엌간으로 들어오는 문턱에 턱 걸터앉더니 어조를 훈시조로 바꾸어 말했다.

《이거 보라구. 내가 우리 령감하구 30년을 같이 살면서 터득한 인생철학이란게 뭔지 아나? 안팎이 다 영화풍에 춤을 추다가는 집안이 망태기가 된다는거네. 망태기가 돼. 저 령감이 글쎄 왜정때

이팔청춘에 꽃같은 나를 맞아들여서는 첫날밤에 한다는 소리가 영화를 하자면 세가지 각오를 가져야 한다는거야. 굶어죽을 각오, 페병에 걸려 앓아죽을 각오, 매맞아죽을 각오, 하하하… 이렇게 세가지 죽을 각오를 꼽는데 제가 무슨 대연출가라도 될것처럼 그 기상이 얼마나 대단하겠어. 이 머저리는 그때 그 기상에 놀라 눈이 화등잔만해져서 숨을 죽이고 그 세가지 각오를 하나하나 캐여물어봤지. 왜 굶어죽어야 하는가? 영화가 안되면 수입이 없으니 입에 풀칠도 할수 없다는거야. 왜 페병에 걸려야 하는가? 생활이 고달프고 가난하니 몸이 약해져 페병에 걸리기 일쑤라면서 라운규선생도 페병에 죽었다는게 아니겠어. 왜 맞아죽어야 하는가? 영화에 민족적색채가 진하게 풍긴다든가 독립사상이라도 좀 내비치면 사상범으로 몰려 경찰에 잡혀가 뭇매를 맞을수 있다는거야. 휴― 그 소리가 가슴에 못으로 박혔어. 그 소릴 들은 다음부터 신세가 고달파질 때마다 영화를 버리고 하다못해 리발소를 차리든지 넝마장사를 하던지 살아갈 궁리를 하자고 울며불며 애걸복걸했지만 끝내 저 령감을 영화에서 떼내지 못했지… 광복직후엔 또 뭐라구 했는지 아나? 집안일에서 내 손을 빌자는 생각은 아예 싹 걷어치우라는거야. 자기한테 남편이 있거니 하는 생각일랑 싹 없애구 혼자 사는 녀자처럼 집안일을 맡아달라는거야. 그때만 해도 한창 젊은 나이이고 시샘도 좀 할 때라 광복이 돼서 신수가 좀 훤해지니 어떤 바람쟁이년한테 정분이 난게구나 이런 옥생각이 덜컥 들어 왕왕 울면서 들이댔지. 어느년한테 정분이 났는가? 그게 어느년인가? 이름을 대라구 야단을 치니까 저 령감이 하는 소리가 정 이름을 알고싶으면 대주겠다면서 자기가 정분이 난 그 녀자 이름은 〈영화〉라는게 아니겠나. 예나 지금이나 자기 첫째 사랑은 영화구 당신은 두번째다 하구는 이 조건을 받아들이지 못하겠으면 아무데나 가고싶은데로 가라구 으르는게거든. 두번째 사랑… 그 소릴 들으니 정말 기막히구 섧더구만. 그래서 그땐 더러 응석도 부릴 때라 눈물을 한말이나 쥐짰어.》

풍상고초의 흔적이 력연한 성녀의 얼굴에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성녀는 치마자락을 들어 그 눈물을 닦고는 허거프게 웃었다.

《저 아바이도 그땐 측은한 생각이 들었던지 나를 꼭 안아주

며 이렇게 달래였어.

〈여보, 나라에서 남사당패나 다름없던 우리 영화인들을 지금 얼마나 잘 보살펴주고있소. 이젠 끼니걱정이야 아주 잊게 되지 않았소. 정말 채심해서 장군님 은덕에 보답해야겠소. 이제는 영화창작에 몸과 마음을 깡그리 바쳐야겠소. 내 그래서 한 소리니 너무 섭섭해 마오.〉 이런 말까지 듣고보니 남편이 있거니 생각지 말라던 저 아바이 말이 전혀 그른건 아니더란 말이우. 다른 집들을 봐두 정말 진짜배기 예술가의 안사람은 다 두번째 사랑이라니까. 진짜예술가의 첫째 사랑은 예술… 예술이야. 이런 판에 안사람까지 예술에 맘이 팔려 속을 썩이면 집안일은 망태기야. 예술인집두 사람 사는 집인데 살아가는 걱정이 왜 없겠나. 그 걱정을 다 도맡아서 집안살림살이도 알뜰하게 꾸려나가구 아이들도 잘 키우구 해서 바깥분들이 예술밖에 다른 잔걱정에 맘을 쓰지 않게 하는게 예술을 돕는게 아니겠나. 아무 기업소에나 후방부가 있는것처럼 우린 후방부, 후방부서야. 이보라구. 천하에 영화처럼 아이들로부터 늙은이에 이르기까지 온 세상 사람들 말밥에 오르고 시비에 걸리는게 어디 있겠나. 영화 한편이 나오면 며칠새에 소문이 짜 돌고 눈이 있어 볼줄 아는 사람들은 다 한마디씩 한다니까. 어느 연출가가 만들었다, 어느 배우가 잘한다 못한다, 어느 배우네 집에 어떤 흉측한 일이 생겼다. 늘 이런 시비와 칭찬과 비난 속에 사는게 우리지. 한번은 우리 아바이가 졸작영화를 냈는데 글쎄 그 영화가 돌아간 온 나라 각처에서 비난이 터져올랐어. 함북도와 량강도, 자강도 산골에서까지 비판편지가 올라왔는데 우리는 1년이상이나 그런 편지를 받았다니까. 이러니 세상앞에 자기를 다 드러내놓고 사는게나 같지. 그래서 난 밖에 나가서는 언행을 여간 조심하게 되지 않아. 한평생 그랬지… 가만 내가 왜 이렇게 넉두리질만 하고 앉았어?》

성녀는 움쭉 일어나 팔을 걷어붙이고 동자질을 한참 도와주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윤희는 밖에까지 따라나가 그를 바래웠다. 현관의 외등밑에서 헤여질 때 성녀는 그의 환한 모습에 눈이 부신듯 우습강스럽게 실눈을 짓고는 아래우를 훑어보고 정답아 잔등을 쓸어만져주었다.

《아이구, 그렇게 차리니 새색시같구나. 밝은색으로 입으니 나이에도 어울리구 보기 좋은데 뭐가 무서워 나들이나갈 때는 늘 어두운 색으로 입고 다니나?》

윤희는 자기와 남편 나이의 차이를 느끼게 되여 머리를 다소곳이 숙이고말았다.

2

윤희는 그 어떤 수치심같은 감정에 사로잡혀 총총히 층계를 뛰여올라갔다. 어찌하여 자기 일생은 이렇게 운명지어졌는가? 그는 처녀시절 동무들이 시가 갈 때면 수집은 마음으로 자기도 저들처럼 나이 두세살 우의 상대의 품에 안기게 되리라, 이 세상 하늘밑 어디에선가 그런 상대가 매일아침 세면도 몸단장도 하고 일터에서 구슬땀을 뿌리며 일하거나 어느 학당에서 머리를 싸매고 공부하고있을것이라고 믿어의심치 않았었다.

무릇 녀성들이 처녀시절에 다 그러하듯이 윤희는 행복에 대한 끝없는 공상으로 마냥 가슴이 부풀어있었으며 자기 용모와 성품, 자질로 보아 그렇게 못될 까닭이 없다고 남몰래 생각했으며 한껏 행복해질 자신이 있었다. 동무들은 리상적인 남성과의 결혼이야말로 녀성의 행복의 기초라고 말들 했으며 윤희도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꿈에도 한번 생각해본적 없는 상대, 나이 썩 우이고 게다가 희귀한 직업에 개인생활이 불우한 사람에게 끌리게 되다니… 이름있는 영화연출가의 생활이 담보해줄수 있는 괜찮은 생활조건때문인가. 그의 명예를 후광으로 삼아 동년배들한테 돋보여보자는 어리석은 허영심때문인가. 생활에서 늘 쓸쓸한 구석이 엿보인 그에 대한 동정심때문이였던가?

영화연출가 최승진… 그 비슷한 사람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본적이 없는 윤희는 자기와 그의 결합을 늘 사랑이란 원래 년령차이나 속된 여론의 비난쯤에는 귀도 기울이지 않는 크고 열광적인

감정이기때문이라고 자기 위안해왔었는데 그것이 과연 진실인지 아닌지 알수 없었다. 그저 분명한것은 자기가 영화계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더라면 최승진이라는 사람을 알수도 없었을것이라는것이였다. 그를 영화계로 떠민것은 려객사업소 지령원인 사촌오빠와 몇해전 교원으로 있던 인민학교(당시)의 교장이였다. 배우처럼 잘생긴 사촌오빠는 보기 드문 영화광이였다. 그는 평양시내 모든 영화관들의 영화상영일람표를 매달 수첩에 적어놓고 어느 영화나 빠짐없이 보았고 누구를 설복하거나 비판할 때에도 영화의 내용을 빌어 열을 내서 장광설을 늘어놓았다. 한마디로 말하여 그는 영화라면 오금을 못쓰는 위인이였다.

어디서 무슨 좋은 영화를 돌린다는 소문만 들어도 전화를 거듭 걸어 알아보고는 장난군아이들처럼 직원들의 눈을 피해 몰래 사업소를 빠져나가 보고와서야 안착되여 다시 손에 일을 잡는것이였다. 그래서 직장에서 비판무대에 오른적도 한두번 있었다. 어떤 비판이나 봉변도 그의 영화열을 식혀낼수 없었다. 그는 영화와 아주 인연을 끊어버리겠다고 결의도 하고 진심으로 속다짐하여 자중하고있을 때에도 시내의 어느 맥주집에서 얼굴을 익힌 한 촬영소 배우와의 편지거래는 몰래 가지였다. 그는 촬영소의 한 말석배우와 안면을 익힌것을 무상의 행복으로 여겨서 그에게서 짤막한 회답편지라도 받으면 사랑의 편지를 받은 총각처럼 흥분하였으며 그것을 책상서랍에 넣어두고 남몰래 거듭거듭 읽어보는것이였다. 그리고는 자기 생활의 무미건조함과 자신의 번민에 대하여, 최근 나온 작품에 대한 소감과 영화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토로하는 장문의 편지를 써보내였다.

영화에 대한 그의 이런 열중은 아무한테도 고백 안했지만 자기가 영화예술인,더 까밝히면 영화배우의 천분을 타고났다고 믿는데서 오는것이였다. 한번은 시내의 게시판들에 영화배우모집광고가 나붙었는데 그는 즉시 안면있는 그 배우에게 편지를 띄웠으나 회답이 없었다. 그래서 아무런 예비지식도 없이 며칠 휴가를 받아가지고 몰래 촬영소로 배우시험치러 갔다.

눈치빠른 윤희는 오빠의 휴가목적과 행처를 인차 알아냈는데 그

는 자기의 리상세계에 가서 어떤 랭대와 모욕이라도 당하고 왔는지 얼굴빛이 거멓게 질리고 기상이 험해져서 별치 않은 일을 가지고도 식구들에게 역증을 터뜨렸으며 한달이 지나가도록 영화소리는 입밖에도 내지 않았다.

바틈한 키에 성미가 내성적이고 근엄하게 생긴 윤희네 학교 교장은 진지한 영화애호가였고 누구의 인정도 받지 못하는 영화평론가였다. 그는 어떤 일이 있어도 새로 나온 영화를 선참으로 보았으며 그 영화에 대한 제나름의 견해를 세워놓고야 안착되여 일하는 사람이였다. 그뿐아니라 거의 모든 영화에 대한 자기 소감과 론평을 써서 영화예술사에 보내군하였다. 그러나 야속하게도 편집부는 단 한편의 그의 글도 실어주지 않았으며 의견을 보내주어 고맙다는 회답편지조차 보내주지 않았다.

어느날 한 녀교원의 결혼식에 모인 교원들이 취중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영화이야기를 꺼냈는데 그는 침울한 얼굴로 잠자코 듣고있다가 촬영소가 인민대중의 반영을 외면하고있기때문에 현실주제의 문제작을 내지 못한다고 하며 긴 한숨을 내쉬였다. 뒤자리에 앉은 젊은 교원들은 그 소리를 듣고 《동 끼호떼야… 동 끼호떼…》 하고 귀속말로 수군거리며 키득거렸다. 그때 윤희는 남자교원들의 어깨너머로 교장을 측은하게 지켜보았다. 그후 교원들속에서 돌아가는 말은 그가 영화에 원망을 품고 아예 인연을 끊은것 같다고도 하고 그런것이 아니라 무슨 궁냥에서인지 퇴근해 집에 가서 독학으로 영화연출공부를 한다고도 하였다. 영화는 그를 외면했으나 영화에 대한 그의 열정은 짝사랑처럼 눈물겹도록 뜨겁고 검질긴것이였다. 영화에 대한 교장의 이런 짝사랑과 사촌오빠의 열광이 윤희의 운명에 심각한 영향을 주리라고는 그 자신은 물론 어느 누구도 짐작조차 하지 못하였는데 그야말로 뜻밖의 일이 생겼다. 그해 봄날 학교옆 좁은 골목길에서 영화를 촬영하게 되였던것이다. 봄볕에 얼굴이 가맣게 탄 부연출 한기석이 교장을 찾아들어와 찬조출연할 인원이 필요한데 인물이 말쑥한 녀교원 한명과 학생 5,6명을 골라달라고 부탁하였다. 그 순간을 계기로 음성화되였던 교장의 영화열이 밖으로 터져올랐다. 그는 한평생 기다렸

던 귀인을 만나기라도 한듯 뛰여일어나 부연출의 손을 덥석 잡아흔들었으며 그자리에서 구역교육과에 전화를 걸어 허가를 얻은 다음 영화촬영을 보장하기 위한 교원협의회까지 열고 찬조출연인원들을 선발하였다. 녀교원들중에서는 윤희가 뽑히고 2학년과 3학년에서 각각 3명의 아이들이 불리워왔다. 교장의 영화열에 천진한 아이들의 호기심까지 겹치여 온 학교가 영화의 회오리바람속에 들어 대경사를 만난듯 떠들고 웃어대고 설레였다.

찬조출연자들이 촬영한 장면은 간단한것이였다. 학교에서 쫓겨난 녀선생과 아이들이 뒤골목길의 어느 울담밑에 아무렇게나 쓰러져 쪽잠이 든 왜정때의 장면이였다. 촬영은 날이 어둡자 시작되였다. 윤희는 부연출이 시키는대로 헐어빠진 치마저고리를 갈아입고 누데기같은 옷차림의 두 아이를 량옆에 꼭 끼고 울담밑에 쪼그리고 앉아 쪽잠이 든 시늉을 했고 다른 아이들도 그옆에 붙어누웠다.

학교공부가 끝난지 오랜데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골목길에 몰켜든 숱한 아이들이 왁짝 끓어번지는 가운데 교장이 지리교수용 지시봉을 휘저으며 촬영장소둘레를 왔다갔다하면서 아이들이 밀려나오지 않게 엄하게 단속을 하는가 하면 떠들지만 말고 예술이 어떻게 창조되는가 잘 봐두라고 이르기도 했다.

조명빛이 눈부시게 비쳐들고 름름하고 의젓하게 생긴 중년의 연출가가 다가와서 찬조출연자들의 자태를 살피더니 무엇을 봤는지 아연해지는듯한 기색이였다. 그는 직업적이 아닌듯한 눈길로 윤희를 빤히 여겨보다가 홱 돌아서 담배를 피워물고 몇모금 성급히 빨았다. 윤희는 심상치 않은 그 거동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윽고 연출가는 촬영을 시작하자고 하였다. 그가 최승진이였다.

촬영은 일분도 걸리지 않아 끝났다.

윤희가 의상을 바치러 갔을 때 촬영기옆에서 교장과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있던 부연출이 촬영이 아주 잘됐다고 칭찬하고는 명상적인 눈으로 그를 지켜보더니 연출가의 주목을 끈 개성적인 미모를 가진 동무가 이런 구석진 학교에 묻혀있기는 아깝다고 했다. 그리고 웬일인지 한숨을 내쉬였다. 교육자의 영예감에 가슴이 부풀어있던 윤희는 그런 말이며 한숨소리에 모욕감이 들어 반발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으나 자제하며 머리를 다소곳이 숙이고 돌아섰다. 그러나 그 한마디 말은 교장에게서 놀라운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갈증만난 사람이 물그릇에 매달리듯이 부연출의 팔목을 덥석 잡으며 그럼 저 선생을 촬영소에 보내면 배우로 받아주겠는가고 물었다. 이튿날 교장은 당자의 의향은 물어도 보지 않고 사촌오빠를 찾아와 의논하고 구역교육과에 뛰여갔으며 사촌오빠는 땀을 철철 흘리며 촬영소에 두세번 다녀왔는데 분명 그들은 자신들의 성취 못한 소원을 윤희를 통해서라도 실현해보고싶은 심정인것 같았다. 한달반후 구역에서 윤희를 촬영소에 보내여도 좋다는 지시가 내려오자 그는 얼굴이 해쓱하게 질려 안가겠다고 버티였다. 그러자 사촌오빠는 처음에는 천하에 이런 바보가 어디 있느냐는듯 흰자위가 다 드러나도록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았으며 다음에는 며칠을 두고 열기띤 목소리로 설복하였다. 교장도 같은 설복을 하였다. 그의 설복에 의하면 교원은 한학급의 학생들을 상대로 교육을 하지만 영화배우는 온 나라 인민들,아니 온 세계의 수백만 사람들에게 고상한 인륜도덕과 사회적정의를 가르치고 연기의 매혹적인 감화력으로 량심과 선행,영웅성의 본보기를 보여주는 교사이라는것이고 사람들을 가르친다는 의미에서는 영화배우와 교원은 동업자나 다름없다는것이였다. 그리고 구석진 구역의 이름없던 이 학교에서 영화배우가 배출된다면 그것은 우리 학교의 영예이고 구역의 자랑이라고 했다. 그 절절한 말에 윤희는 그만 마음이 움직이고말았다.

한달후 그는 촬영소 배우단에 입직하였고 몇달간의 배우수업과정에 자신에게 영화배우로서의 남다른 소질이 없다는것을 깨닫게 되였으며 거기에 어려서부터 앓던 관절염이 도져 편집실로 옮겨앉게 되였다. 편집원들은 모두 녀성들이고 내내 편집기앞에 앉아있었지만 돌아가는 소리에 여간 민감하지 않아 촬영소와 그 가족들속에서 벌어진 이런저런 소식들과 풍문들이 모두 편집실에 흘러들었으며 총장과 부총장들,연출가와 촬영가,배우들에 대한 인물평도 종종 입에 올랐다. 그들은 연출가 최승진에 대하여서는 남다른 존경과 동정심을 가지고 이따금 이야기했는데 연출가들가운데서 녀성을 제일 존중하는것이 그라는것이였다. 특히 영화화면에는

한번 얼굴도 내밀어보지 못하고 뒤에서 묵묵히 영화제작에 헌신하는 《뒤스타프》의 녀성들에 대하여는 극진히 보살펴준다는것이였다. 방안으로 들어갈 때에는 손수 문을 열어 자기네를 먼저 들여보내고 따라들어간다느니 층계나 길에서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것을 띄여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꼭 들어다준다느니… 이러루한 소행에 대한 이야기들이였다. 그리고 영화창조사업에 그처럼 진지하고 심각하고 헌신적으로 대하는 예술가는 드물것이라는것이였다. 그는 새 영화제작에 접하면 리발과 목욕을 새로 하고 배우작업을 하게 되거나 편집원과 나란히 앉아 영화편집을 하게 되면 의례히 옷에 향수를 연하게 치고 나온다고 하였다. 안해가 사망한 다음에도 그 습성에 구김살이 가지 않아 덞었거나 구겨진 옷을 입고 배우들앞에 나타난것을 보지 못했노라고 했다.

부인이 사망하다니! 윤희는 웬일인지 가슴에 아픔을 느끼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들은 연출가 최승진의 예술적개성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면 흔히 로영무라는 연출가와 비교하여 이야기하군하였다. 그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로영무가 버들방천곁을 유유히 감도는 시내물의 서정적인 흐름이라면 최승진은 천길나락으로 떨어지는 폭포였다. 로영무가 고요하고 깊은 호수라면 최승진은 격랑을 일으키는 바다였다. 로영무가 후끈한 화기를 은근히 풍겨주는 화독이라면 최승진은 불찌를 날리며 활활 타오르는 우등불, 로영무가 따스한 보슬비라면 최승진은 시원한 소나기였다.

편집실의 녀성들은 예술적개성이 판판 다른 그 두사람이 거의 30년간 한번 금이 간 일도 없이 우정을 유지해오고있는데 그것이 사실일가 아니면 영화계에서의 자기들의 위치와 체면때문에 감정을 깊이 묻어두고 사는것일가 하고 궁금해도 하였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하여 최승진의 인간미와 인격을 알게 된 윤희는 마음속으로 그를 존경하여 복도나 촬영소구내길에서 어찌다 마주치게 되면 머리를 약간 숙여 인사하고 옆으로 피해서 지나치군하였다. 그런데 어느날 윤희가 최승진이와 어기고 몇걸음인가 걸어가다가 얼결에 뒤돌아보니 그가 쓸쓸하고 괴로운 얼굴을 외로 돌리는것이였다. 자기 뒤모습을 몰래 지켜본 눈치였다. 어째 저럴가？

두렵기도 하고 가슴이 활랑거리며 볼이 확 달아올랐다. 그후에도 같은 일이 몇번인가 거듭되였다. 어느날 최승진이 편집실에 들어와 편집실장아주머니와 나란히 앉아 신진연출가가 촬영현지에서 찍어보낸 필림을 편집해주다가 급한 볼일이 생겨 밖으로 나갔다. 편집실장아주머니가 편집대우에 널려진 필림을 정리하고 걸상에 걸려있는 그의 양복저고리를 벗겨 옷걸개에 걸려다가 두번째 단추가 다 떨어지게 된것을 보고 윤희더러 바느실이 있으면 달아주라고 이르고는 어디로인가 나가버렸다.

편집실에는 윤희 혼자뿐이였다. 그는 마음에 썩 내키지 않았으나 양복저고리를 들어안았다. 그가 단추를 다시 떨어지지 않게 단단히 달고 입으로 실을 막 물어끊는데 최승진이 들어왔다. 윤희는 대뜸 얼굴이 발개져 그에게 양복저고리를 황황히 내밀며 입속말로 중얼거렸다.

《단추가 떨어져서…》

최승진은 빼앗듯이 양복저고리를 나꾸채서 어깨에 활 걸치더니 노한 얼굴로 그를 보며 나무리였다.

《시키지도 않는 일을… 다시는 이러지 마오!》

그리고는 문을 닫고 나가버렸다.

윤희는 놀라서 크게 뜬 눈으로 그가 사라진 문쪽만 지켜보며 파랗게 질린 입술을 바들바들 떨었다.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고 저러는가. 《뒤스타프》의 녀성들을 그토록 존중한다던 사람이 나한테만은 왜 저렇게 무례하고 몰인정하고 가혹한가.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이런 일이 있은후 최승진은 윤희만 보게 되면 외면하거나 먼발치에서부터 피하여가는것이였다. 그때마다 윤희는 가슴에 고드름이 달리고 그 어떤 반발심이 쇠꼬챙이처럼 솟구쳐올라 견딜수 없었다. 그는 단 둘이 조용히 만날 기회만 생기면 내놓고 따져보리라 별러왔다. 이제는 연출가 최승진의 명성이나 나이따위는 문제로도 되지 않았다. 그러나 복잡하고 분망한 생활의 흐름속에서 그런 기회는 좀처럼 마련되지 않았고 그대신 넉달후 최승진이 출장간 다음 그의 집에서 생긴 뜻밖의 화재로 하여 행인지 불행인지 모든 수수께끼가 한꺼번에 풀리고말았다. 그날 윤희는 시내의 백화점에 갔다오다가 영화예술인아빠트의 어느 집 창문에서

시꺼먼 연기가 꾸역꾸역 피여나오는것을 보고 흠칫 놀라 걸음을 멈추었다. 누군가 《불이다— 화재요—》 하고 새되게 부르짖는 소리가 가슴을 선뜩 에이였다. 윤희는 모든것을 잊고 현관쪽으로 달려가 물바께쯔며 소랭이들을 들고 모여든 아낙네들과 한데 어울려 불이 난 집으로 뛰여들어갔다.

화재는 세대주가 쓰는 방에서 일었는데 때마침 달려온 아낙네들이 휘뿌리는 물벼락에 인차 꺼지고말았다. 동네아낙네들이 숨이 턱에 닿아 헐썩거리면서 구석쪽에 서있는 이쁘장하면서도 당돌하게 생긴 처녀애에게 욕설도 퍼붓고 혀를 차며 여러가지 동정의 말들도 하였다. 처녀애는 올롱해진 눈으로 그들을 쳐다보며 변명도 하고 맹꽁이같은 대답질도 하였다. 윤희는 그 오가는 소리들속에서 이것이 연출가 최승진의 집이며 처녀애가 그의 딸이란것을 알았다. 화재는 처녀애가 아버지의 옷을 다린 다음 다리미의 전기를 끄는것을 잊고 그냥 쪽잠이 들었기때문에 생긴것이였다. 동네아낙네들이 다 돌아간 다음에도 윤희는 웬일인지 발이 떨어지지 않아 처녀애를 도와 방을 치웠다. 걸레로 방바닥의 물을 훔치던 처녀애가 책상밑에 떨어진 자그마한 사진액틀을 들어 팔소매로 몇번인가 닦더니 그것을 탁상등밑에 세워놓으면서 아버지가 적적하면 들여다보는건데 이것만 못쓰게 만들었다면 집에서 쫓겨날번했다고 혼자소리로 종알거렸다.

윤희가 사진쪽에 눈길을 돌리자 책상우를 닦던 처녀애는 그에게 경계의 눈길을 흘깃 던지였다.

《보지 말아요. 이건 아버지 비밀이야요.》

《응?… 비밀?》

윤희의 놀라움과 호기심에 처녀애는 좀 우쭐해졌는지 어른들한테는 한두가지 비밀이 있는건데 자기는 아버지의 비밀을 다 안다고 자랑했다.

《글쎄 들어봐요. 한번은 아버지 오랜 친구인 작가선생님이 와서 아버지하고 밤깊도록 술을 마시며 하는 얘기를 엿들었는데 이녀자가 우리 아버지 첫 애인하고 거의 같이 생겼다나요. 첫사랑은 깨지기 쉽고 그대신 영원히 잊혀지지 않으니까요.…》

그 처녀애는 제법 인생의 신비와 고뇌를 죄다 꿰들고있기라도

한듯 이마에 보일듯말듯 주름살까지 지으며 한숨을 호- 내쉬였다.
윤희는 처녀애의 머리우로 그 사진을 바라보다가 그만 아연해져 비명을 지를번했다. 그것은 람루한 옷차림의 두 소년을 량옆에 꽉 껴안고 뒤골목의 울담밑에 기대여 쪽잠이 든 녀교원의 사진이였다. 비참상이 강조되도록 분장을 진하게 했던탓인지 처녀애는 사진속의 녀교원이 자기앞에 서있다는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것 같았다.
정신없이 합숙으로 달려온 윤희는 며칠밤을 뜬눈으로 지새웠다. 가슴을 부여안고 소리없이 울기도 하였다. 여기를 떠나 어딘가 멀리로 도망쳐가 숨어버리고도싶고 미지의 그 첫 애인을 대신하여 그에게 위안과 기쁨도 주고 힘도 보태주고싶었다.
모순되는 감정과 번민의 모대김속에 두석달이 지나갔다. 최승진은 날이 갈수록 그를 점점 더 멀리하려고 애썼으며 윤희의 다감한 감정은 그 인위적인 거리감에서 자기를 귀중히 여겨주며 아껴주려는 불같은 마음을 날날이 느낄수 있었다. 그 인간됨됨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수 없었다. 그래서 괴로운 마음을 더는 참을수 없게 되였다.
윤희는 옛 교장을 찾아가 상대의 이름만은 밝히지 않고 그사이 있은 모든 사연을 다 털어놓고 자기 심정까지 고백하였다.
교장은 담배를 연거퍼 피우며 그의 이야기를 다 듣고나서 천장의 한점을 지켜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였다.
《이건 신중한 운명문제요！… 론리로는 설명할수 없는 문제지…》
그리고는 그 상대가 누구인가고 따져물었다.
윤희의 대답을 듣자 교장은 소스라쳐 놀라며 그를 돋보는 눈길로 이윽토록 지켜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방안을 거닐었다.
《최승진이！… 공훈예술가… 그야 인민들속에 널리 알려진 예술가가 아니요. 나는 그가 만든 영화들을 죄다 보았소. 크고 뜨거운 심장을 지닌 사람만이, 아름답고 고상한 정신을 소유한 예술가만이 그런 작품을 창조할수 있소. 나는 그의 인간됨됨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소. 그리고 애정에 그쯤한 년령차이가 무슨 대수겠소. 예술가에겐 영원한 청춘이 필요한것이고 두 운명의 결합이 영화창조에 리로울것도 자명한 리치요. 그리고 또… 진실로 애정에 기초한 결합이라면 개명한 현대인들중에는 비난하거나 시비할 사람도 별로 없을것

이요. 그러나… 그러나 일생의 문제인것만큼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오. 오빠하고도 의논하고 부모님들의 의사도 거역해서는 안되오.》

교장은 결국 대답을 회피하는것이였다.

사촌오빠는 그의 이야기를 듣자 펄쩍 놀라며 애초에 너를 촬영소에 보낸것이 잘못이였다고 하였다. 그리고는 촌에 있는 아버지, 어머니가 이 일을 알면 당장 달려와 머리끄뎅이를 잡아 집으로 끌어갈것이라 했다.

그는 얼굴빛이 대뜸 사나와져 씨근거리며 최승진에게 입에 담지 못할 험악한 욕설을 퍼부어대기 시작하였다.

《흉측한놈, 남의 집 딸을 어떻게 꾀였으면 이지경이 됐는가. 우리를 얕보고 수작질을 했겠지. 어디 보자! 예로부터 영화인들의 생활이 복잡하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이럴줄은 몰랐다. 내 다시는 영화를 안보겠다.》

윤희는 얼굴이 해쓱하게 질려 항변하였다.

《오빠, 그런 사람이 아니예요. 정말이예요. 아니예요!》

《듣기 싫다!》

교장의 회피와 오빠의 험구는 역작용을 놀아 그의 가슴속에서 최승진에 대한 감정을 활활 타번지게 하였다. 윤희는 부모와 친척들의 반대로 결혼은 못해도 그를 존경하는 예술가로서 지성껏 도우리라 속다짐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결심한 이상 누구의 눈치를 볼것도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무렵 공교롭게도 최승진이 시름시름 앓다가 구역병원에 입원하였다. 위궤양이라고 하였다.

윤희는 매주 일요일마다 병원으로 찾아가 병문안하였는데 하루는 신선한 과일을 사들고 들어가다가 병원 정문에서 사촌오빠와 마주치게 되였다. 성미 드센 그가 최승진에게 무슨 행패질이라도 하고 나오는 길이 아닌가싶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런데 오빠는 사람들이 보지 않는 담장밑으로 윤희를 끌고가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최승진을 만나고나오는 길이라면서 《사람은 점잖더구나…》 하고 말하였다.

윤희는 그 한마디에 설음이 터져올라 오빠의 손을 으스러지게

틀어잡으며 눈물을 한껏 쏟았다.

오빠는 가슴이 꺼지도록 한숨을 내쉬고는 주먹으로 공기를 내리쳤다.

《에익, 나두 모르겠다!》

그는 그날로 교장선생을 찾아가 밤새껏 의논하였으며 며칠뒤에는 둘이서 교외농촌의 부모님들을 찾아갔다. 그들은 무슨 감언리설로 풍습에 완고한 늙은이들을 설복시켰는지 반승낙을 받아가지고 왔으며 최승진이까지 만났다. 최승진이 부모님들을 찾아가 옛 풍습대로 방바닥에 엎드려 큰절을 할 때 윤희는 쏟아지는 눈물을 막을길 없어 외로 돌아서 흑흑 느껴울었다.

윤희는 남다른 결혼생활이 시작되면서부터 최승진을 점점 더 깊이 리해하게 되였으며 이전에는 상상도 할수 없었던 많은것을 새롭게 느끼게 되였다. 우선 그는 결혼전에 자신이 은근히 두려워했고 부모들과 처녀동무들이 말없는 가운데 우려했던 나이차이를 생활에서 왕왕 잊어먹게 되거나 전혀 느낄수 없었던것이다. 신기한 일같았지만 따져보면 그 까닭이 명백했다. 남편이 된 최승진, 그 사람에게는 20대 청춘시절의 열정과 기백이 그대로 살아 약동하고 있었으며 지어는 10대전의 동심까지 넋속에 살아남아 숨쉬고있었다. 그래서 윤희는 남편을 통하여 명성높은 예술가, 중년의 사려깊은 남성만을 느낀것이 아니라 무분별한 열정이 굼틀거리는 청춘시절의 그, 순박하고 천진란만한 철부지시절의 그까지 느끼였으니 부부생활은 권태와 무미건조함을 몰랐고 때때로 허리부러지는듯한 웃음을 터쳐 이웃들의 호기심을 자아내게도 되였다.

최승진은 젊은 안해의 과거생활뿐아니라 남들의 과거와 현재 생활에 대하여서도 저속한 호기심을 내비치는 때가 전혀 없었다. 그래서 윤희도 남편의 지난 생활을 캐고들려 하지 않았으며 자기와 모색이 비슷하다는 그의 첫 애인에 대하여서도 이따금 호기심이 동했으나 묻지 않았다. 먼 동해의 농촌에 사는 최승진의 친척들은 대체로 그에 대해 노여움이나 원망을 품고있었다. 그가 친척들의 대사에 한번 얼굴을 내민적이 없고 그만한 지체에 있으면서 동생벌되는 아이들에게조차 전혀 관심을 돌려주지 않는다는것이였다. 그

런 노여움이 담긴 편지가 날아들면 남편은 얼굴이 어둑해져서 자책감에 잠기다가도 쓸쓸한 미소를 머금었다.

《아마 고향에서는 나를 무슨 대통령이나 대신쯤으로 여기는것 같소. 영화자막에 이름 석자가 크게 나니까… 우리 한번 어떻게나 휴가를 내여 고향에 가보자구.》

그때마다 윤희는 얼굴빛이 심각해져서 자기가 채심해서 고향 친척들에게 편지라도 자주 써야 하겠다고 생각했다.

그 시절 영화인들의 부정한 생활에 대하여 항간에 돌아간 이런 저런 풍설과는 달리 최승진에게는 막역하게 친근한 녀자동무란 한명도 없었다. 집으로 찾아오거나 그와 생활적인 뉴대를 가지고있는 친구들이란 모두 촬영가나 배우, 작가나 미술가들뿐이였다. 직업상의 동료들, 사업상의 동지들뿐이였다. 그들은 만나기만 하면 영화나 자매예술에 대한 이야기와 떠들썩한 론쟁들을 벌리였고 그러다가도 새 인공위성의 발사와 같은 충격적인 소식이 날아들면 미래의 인간생활, 미래의 영화에 대하여 공상하면서 21세기나 22세기에 가서 영화보다 더 앞선 새 예술형식이 나타나겠는지는 모르겠지만 영화가 발생발전한 20세기에 소설이나 회화예술이 생명력을 잃지 않았던것처럼 먼 미래에 과학문명이 아무리 발전하여도 영화예술의 생명력은 영원할것이라고들 하였다.

남편 최승진은 서둘러서 사는 사람같았다. 그는 한편의 영화를 만들면서 두개, 세개의 영화창작을 공상하였으며 조국의 모든 부문에서 벌어지는 사변들을 영화화하고싶어했다. 로동자들의 생활, 농민들의 생활, 인테리들의 생활… 조국애, 영웅주의, 동지애, 륜리도덕 문제에 대하여서도 탐구해나갔다. 작가들은 자기 체질에 맞는 제재만을 골라잡아 영화를 만드는 로영무에 대해서는 까다로운 미식가라고 하였으며 제재에 관계없이 모든것을 영화로 만들어보고싶어하는 불면불휴의 정열가 최승진에 대하여는 식성이 좋은 대식가라고 롱조로 말하였다.

이러한 사람과의 결혼이 윤희에게 차례진 행복의 기초였다. 그는 이 기초우에 행복의 탑을 높이 쌓아올려 한껏 행복해지고싶었다. 처녀시절의 공상대로 뛰여나게 행복한 녀성이 되고싶었다.

3

부나비들처럼 날아돌며 내리는 눈송이들이 외등들의 밝은 불빛에 유난히 반짝이는데 그 눈을 맞으며 촬영소정문에서 쏟아져나오는 사람들은 여느날의 퇴근시간과는 달리 하나같이 열기와 흥분에 떠서 떠들며 웃고 찬탄의 말들을 주고받으면서 활기에 넘쳐있었다. 그들은 쌍쌍이 짝을 지어 혹은 여럿이 떼를 지어 나오며 입김을 훌훌 날리면서 서로 가로채며 떠들어대는가 하면 명상적인 눈으로 하늘을 쳐다보며 상쾌하게 내리는 눈을 즐기기도 했다.

언제나와도 같이 정문앞의 큰길가에는 지나가던 행인 여럿이 몰켜서서 황홀한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어느 영화에서 낯을 익힌 배우를 찾아보았는지 시무룩 웃기도 하고 자기들에게 기쁨과 교훈을 주고 인생의 진리를 깨우쳐주는 그들을 존경과 선망의 눈빛으로 오래 지켜보았다.

그러나 그 행인들은 영화예술의 창조자들인 저들도 알곡이나 남새를 생산하거나 기계나 양말, 우산같은것을 만들어내는 자기네와 다름없이 한평생 근면하고 정직하게 일해야 되는 정신문화의 근로자들이고 영화제작의 그 세계가 아무리 희한한데라고 해도 사회의 한부분인 이상 일반사회의 갖가지 생활정서와 감정, 욕구, 공정과 부정, 량심과 비량심의 대결과 투쟁, 세태생활의 온갖 행복과 고뇌가 비껴들지 않을수 없으리라는데 대하여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것 같았다.

정문에서 계속 쏟아져나오는 사람들은 방금전에 끝난 광폭예술영화 《광풍》시사회에서 받은 충격때문에 흥분과 감격에 떠서 끝없이 심정들을 토로하는것이였다.

《정말 감동됐어!》

《영화가 끝나고 불이 켜진 다음에도 나는 일어나지 못했어. 확실히 대작이요.》

《이보라구, 이제는 우리 영화도 소리치게 됐네.》

《언니, 불이 켜지고 모두 일어나서 박수를 쳐줄 때 최승진연출가 얼굴을 여겨봤어요? 여기저기에 머리를 숙여 답례하는 그 겸손한 모습, 수집은 미소. 아이, 얼마나 우아하고 매력적인지…》

시간이 퍼그나 지나 사람들이 다 퇴근해나온 다음 고요가 깃든 정문으로 두사람의 그림자가 가지런히 걸어나왔다. 한사람은 키가 훤칠하고 언제인가 페결핵이라도 앓은듯 가슴이 꺼져들어가보이고 과묵하며 진중한 인상이고 다른 사람은 보기 좋은 중키에 름름하게 잘 생기고 중절모까지 써 인품이 준수하고 어지간히 세련된 모습이였다. 로영무와 최승진이였다.

그들은 외투주머니에 두손을 찌르고 묵묵히 걸어나왔다. 정문을 벗어나자 최승진이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쳐다보았다.

《허, 눈이 좀 오겠는걸.》

《오겠소…》

《이런 밤엔 한대포 하고 끝없이 걸었으면 좋겠구만. 로형, 어디 조용한 식당같은데 가지 않겠소?》

《…》

로영무는 무슨 생각에 골똘했는지 아무런 대꾸도 없이 눈길을 아래로 떨구었다. 모자가 없는 그의 머리에 눈송이들이 하얗게 앉았다.

《가자구, 아무데나… 눈까지 오겠다, 얼마나 정서적인 밤이요.》

《…》

《어디 속이라도 말째오?》

《아니… 아니요.》

이때 정문안쪽에서 웬 처녀가 로영무를 찾으며 바람같이 달려나왔다. 분장미술가 장미혜였다.

처녀는 얼굴에 웃음을 가득 담고 로영무를 쳐다보며 웬 털모자를 내밀었다.

《이게 연출가동지 모자가 아니예요?》

《음?》

《시사실에 연출가동지 앉았던 의자밑에 떨어진걸 영사원아바이가… 몹시 흥분했던게지요? 아바이 말이 연출가동지가 시사회에 참가했다가 모자까지 잊고나간 일은 첫일이라나요. 호호호…》

처녀는 명절기분이 되여 두 연출가를 향해 밝게 웃다가 로영무의 얼굴에서 무엇인가 심상치 않은 기색을 느꼈는지 인차 얼굴색이 달라졌다.

로영무는 처녀가 어떻게 물러났는지 몰랐다. 그는 이 털모자를 통하여 남한테 내비쳐서는 안될 마음속의 부정한 비밀이 들켜나기라도 한듯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 그래서 그 털모자를 머리우에 올려놓지 못하고 손에 쥔채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무슨 정신에 모자까지 잊고 나왔던가? 가슴이 저려나고 몹시 당황해졌던것만은 사실이였다. 시사실에서 터져오른 박수소리가 지금도 폭풍처럼 휩쓸어들며 자기 존재를 지푸래기처럼 아득한 공간으로 날려보내는것 같았다. 그는 영화가 그토록 찬사를 받을만큼은 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연출가의 나래치는 환상이 그려놓은 현란하기도 하고 서정적이기도 하고 거창하기도 한 화폭들속에 비진실, 허위, 과장된 그 무엇이 숨어있는듯했다. 화면들이 바람처럼 눈앞을 휘휘 날아지나갈 때마다 캄캄한 어둠속에서 일어나는 무언의 흥분과 감탄의 회오리속에서 그의 리성은 취해버린 감각을 흔들어깨우며 아니다! 아니다! 하고 몇번인가 속삭여주었었다.

불이 켜지고 모두 일어나 최승진에게 박수갈채를 보낼 때 그는 일어나지 못했다. 식은땀에 젖어 그냥 앉아있었다. 그러다가 자기에게로 쏠리는 몇사람의 눈길을 느끼고 황황히 일어나 아무런 의미도 담기지 않은 박수를 기계적으로 쳤다.

(왜 그랬던가? 모두가 좋다는데 나는 왜 이런가? 나는 왜 모든 사람들처럼 흥분하고 감탄하지 못하는가. 예술을 하면서 한평생 경계해온 그것이 이리처럼 날카로운 이발로 내 량심을 물어뜯어 태를 쳐놓았단 말인가? 최승진은 내가 아니다. 그의 사랑이 내 사랑이 아니고 그의 죽음이 내 죽음이 아닌것처럼 그의 성공이 내 성공일수는 없다. 이런 악명높은 론리에 량심과 리성이 썩어문드러졌단 말인가? 아, 예술가를 비렬한으로, 추물로 만드는 악마중의 악마여…)

눈을 맞으며 천천히 걸음을 옮겨가던 로영무는 최승진이 자기를 여겨보는것 같아 고개를 돌렸다.

눈을 하얗게 뒤집어쓴 최승진은 의아한 눈길로 그를 지켜보며

걸음을 멈추었다.

《작품이 맘에 안드오? 그러면 그렇다고 터놓고 말해주오!》

로영무는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 아니요. 좋소, 대단히 좋소. 이제 사회에 나가 돌아가면 인민들속에서 큰 반향이 일어날게요.》

《그럴가?》

《…》

《그렇다면 오늘저녁 기분이 왜 그렇소? 내가 풋내기들처럼 박수갈채에 떠서 경박하게 논게 아니요?》

《아니 여보, 무슨 그런 소릴 다 하오.》

그러자 최승진은 잠시 머리를 숙이고 말이 없었다. 자기 성공을 함께 기뻐해주지 않을뿐아니라 오늘 저녁의 자기 기분마저도 외면한다고 섭섭하게 여기는것 같았다.

그들은 영화예술인아빠트앞에서 여느때와 다름없이 인사말을 나누고 헤여졌지만 어딘지 모르게 서로 서먹한 감을 느꼈다. 한평생의 우정에 눈에 띄지 않는 금이 가기 시작한듯하였다.

벗이 자기네 현관으로 사라진 뒤에도 로영무는 마음이 무거워 흩날리는 눈발속에 그냥 서서 불빛이 밝은 그의 집 창문을 쳐다보았다.

문득 새로운 생각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아니다. 내가 그의 성공을 기뻐하지 못하는것은 그 어떤 추악한 감정때문이 아니다. 내 감각때문이다. 로둔해진 감각때문에 남들처럼 느끼지 못했던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자 더러운 협의의 멍에에서 벗어난듯 마음이 한결 개운해졌으나 인차 다른 괴로움, 로쇠에 대한 자각이 마음을 무겁게 눌렀다.

로영무는 허연 입김을 내불며 한숨을 길게 내쉬였다.

(만약 나한테서 연출가로서 가져야 할 감각이 다 무뎌졌다면 남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손가락질을 당하기전에 물러나자. 젊은 동무들한테 자리를 내주고 다른 직무에 옮겨앉던지 어떻게 해야 하지 않을가… 예술이라는 세계엔 종신대통령제 비슷한따위는 없으니까…)

로영무의 안해 성녀는 눈을 하얗게 뒤집어쓰고 어깨가 축 처져

들어온 남편의 가방을 받아서 복도에 얼른 내려놓고는 손바닥으로 그의 어깨며 가슴팍, 잔등을 걸싸게 툭툭 쳐서 눈을 말끔히 털어주었다.

성녀는 남편의 상심한 얼굴을 흘깃흘깃 훔쳐보면서도 안팎이 다 영화바람에 춤을 추어서는 안된다는 제나름의 생활계률을 지켜 아무 말도 묻지 않았을뿐아니라 완전히 둔감하고 무지한 아낙네처럼 태평스러운 얼굴이였다. 그러한 무관심에 습관된 로영무는 아무말없이 방에 들어가 안해가 들여온 밥상에 마주앉았다. 성녀는 밥상곁에 까치다리를 하고 웅크리고앉아 남편이 수저를 놀리는것을 지켜보다가 김치보시기를 가리키며 새 독에서 꺼내온것인데 맛이 어떤가 좀 보라고 하였다.

로영무는 그 말에 응할대신 눈길을 들어 안해의 머리를 여겨보았다. 거기에는 인생의 서리가 애처로운듯 조심스럽게 내려앉아 희끗희끗한 오리들이 반짝이고있었다.

《내 머리에 뭐가 묻었수?》

성녀는 머리에 손을 올렸다.

로영무는 서글픔이 스민 다정한 미소를 지어보였다.

《당신도 이제는 늙어가오. 천상 늙지 않을것 같더니.》

《원 새삼스럽게…》

《헝, 칠흑같던 머리칼이였댔는데…》

《이젠 흰오리들이 많아졌지요?》

그 한오리한오리가 어째 세였는지 잘 아는 로영무는 말없이 머리만 끄덕여보였다.

《어떤이들은 보기 싫다고 염색이랑 하지만 나는 그러고싶지 않아요. 사람이 늙어가고 영생하지 못하는거야 어쩔수 없는 숙명이라는데 물감칠을 해서 나이를 감추어서는 뭘하우. 나는 오히려 오리오리 센 머리를 사람들한테 뻐젓이 자랑하며 다니고싶어요. 나는 한 예술가를 세상에 내세우느라고 한평생 궂은일마른일 가리지 않았다, 옛날엔 눈물을 랭수마시듯하면서 살아왔다 하고 말이예요. 우리 오랜 예술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는 햇병아리들이 우리 주름살과 백발을 무심히 보지 않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로영무는 허구프게 웃었다.

《허허… 당신은 언제봐야 락천가에 시인이라니까. 처녀때 이 거지류랑배우한테 오지 않고 시를 썼더라면 괜찮은 시인이 됐을거요.》

《그렇게 웃지 말아요. 내 말이 어디 그른데가 있어요? 여보, 우리 겉은 늙어도 속은 시퍼래있자요. 당신은 더욱 그래요. 아까 들어오는걸 보니 맥이 다 빠진 령감같더라니까요. 가슴이 철렁했더랬어요. 당신은 연출가가 아닌가요? 좀 걸멋도 부리고 사치한 생각이랑 하라요. 내가 예전처럼 함부로 트집이랑 걸지 않을테니까. 아까 저녁녘에 승진선생댁에 가봤는데 부엌이랑 복도랑 방이랑 모두 새롭게 꾸려놓았는데 어찌나 정신이 드는지… 오늘 시사회가 있다고 술, 맥주까지 사다 찬장에 넣어두고 기다리지 않겠어요. 덜된 훈시는 잔뜩 하고 왔지만 우리 옛적 생각이 나면서 부러운 생각도 없지 않더라니깐요.》

《부럽더란 말이요? 욕심두… 우리 인생우에는 벌써 황혼이 비낀것 같소. 아름다운 황혼인지 어둑한겐지 모르겠지만… 한 예술가에겐 한시대만 차례진다는 말이 무슨 소린가 했더니 이제야 그 뜻을 알게 된것 같소. 나에게 차례진 시대는 광복직후부터 전후복구건설시기까지인것 같소. 천리마시대가 시작되면서 나는 벌써 낡아지기 시작했소. 예술가로서의 내 생명은 분명히 끝나가오. 그래서 기회를 봐서 자리를 내놓고 다른데 물러앉을가 하는 생각도 없지 않소.》

안해는 눈이 휘둥그래져 남편을 쳐다보았다.

《여보, 당신 오늘저녁 어떻게 된 일이예요? 왜 맥빠진 소리만 해요. 예술을 그만두면 당신이 이 사회에서 무슨 일을 할수 있나요? 못 하나 제대로 박을줄 모르는 당신이…》

《그런 걱정은 마우. 예전에 술주정뱅이 늙은 배우 한사람이 인생말년에야 자기 무능을 깨닫고 친구한테 직업을 바꿀 생각인데 배운 재간이 없다구 하소연했다우. 그때 그 친구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는가 하니 사람으로 나서 일거리를 찾지 못한다는건 말이 안된다, 정 재간이 없으면 우체통옆에 혀를 내밀고 앉아있게나. 그럼 편지부치는이들이 자네 혀바닥에 우표를 적셔 봉투에 붙일수 있지 않나. … 이랬다우. 허허허…》

로영무는 눈물이 그렁하여 껄껄 웃고 안해는 침통한 얼굴로 남

편을 지켜만 보았다.

이때 출입문쪽에서 손기척소리가 다급히 울렸다.

도발적인데가 있는 울림소리였다.

《강고민이예요…》 하고 안해가 속삭이고는 움쭉 일어나 달려가더니 반기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이구, 이런 날에 외투도 없이…》

복도에서 헐썩거리는 숨소리가 다가오더니 안해의 뒤를 따라 강철룡이 방에 들어섰다. 머리에 눈을 하얗게 들쓴 그는 속이 뒤틀린듯한 기색이였는데 열기가 번뜩이는 눈으로 로영무를 보며 헤식은 미소를 머금었다.

《요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승진연출가네 집에 다 모였는데…》

로영무는 얼떠름해져 부연출을 쳐다보았고 성녀가 대꾸했다.

《그래요？》

《예— 그 집은 경사지요. 작품이 절찬을 받았으니까 연출실에서 다 오구 촬영가, 배우들도 여러명 찾아왔습니다.》

《여보, 왜 그냥 앉아있어요. 누구보다도 제일먼저 달려가야할 당신이… 그 집에서 이상하게 여기겠어요.》

로영무는 안해의 재촉에 역증까지는 아니지만 어지간히 불쾌한 얼굴로 뇌까렸다.

《됐소, 무슨 큰변이 났다고 야단이요？ 가면 될거 아닌가.》

성녀는 젊은 부연출에게 끌려가다싶이 출입문밖으로 나서는 남편의 뒤모습을 지켜보다가 문을 조용히 닫고 한숨을 내쉬였다. 남편이 측은하게 여겨져서였다.

×

밖에서는 여전히 눈송이들이 날리고있었다. 불빛이 환한 최승진이네 집 창문들에서는 떠드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앞에서 결패스럽게 걸어가던 강철룡이 갑자기 뚝 멎어섰다.

《연출가동지, 좀 생각해보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거칠었다.

《왜 그랬습니까?》

《무얼?》

《저 작품이야 처음에 연출가동지가 맡은게 아닙니까. 해보지도 않고 왜 내놓았습니까? 그냥 했더라면… 에익, 분해요.》

그것은 사실이였다. 그때 로영무는 영화문학을 연구하고 연출대본을 쓰다가 몇가지 아리숭한 문제점에 봉착하였다. 그는 펜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다. 그 문제점들이란 정치적으로 이렇게저렇게도 해석될수 있는것들이거나 새롭고 대담한 형상적시도인듯도 하였다. 영화문학작가에게 불안감을 고백하고 고치도록 설복해볼것인가. 그가 설복에 응하지 않으면 크게 론쟁을 벌릴것인가… 영화의 방대한 규모와 영화제작에 투입될 막대한 자금과 자재,인원들이 떠오르자 가슴이 움츠러들었다. 그는 며칠 망설이며 번민하다가 자기 예술적개성에 전혀 맞지 않는다는 그럴듯한 미명하에 작품을 내놓겠다고 예술위원회에 제기하였다. 그때 그의 희한한 제기는 예술위원들에게 수긍되였을뿐아니라 탐욕을 모르는 순결하고 량심적인 예술가의 선행으로 인정되였으며 작품은 며칠후 최승진에게로 넘어갔다. 최승진이 작품을 완성하여 절찬을 받고있는 지금 그 일을 상기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는데 그의 방조자인 이 젊은 부연출만은 자기 성과를 남한테 빼앗긴것 같아 분해하는것이였다.

눈은 하염없이 흩날리고 불만의 소리는 계속되였다.

《가슴에 피가 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연출가동지를 나무랄겁니다.》

《나무란다?… 그러라지. 허허허…》

《연출가동진 위선자입니까 뭡니까. 웃음이 나와요?》

《그 심정이 리해되는 점도 없지 않지만 너무 지나쳐. 남이 성공했을 때 그런 감정을 품으면 못쓰네. 자극을 받아 분발하는건 좋지만 그러면 안되지. 그건 리기적인… 속물근성이야.》

《그러니까… 제가… 질투한다고 생각합니까? 오늘밤엔 제발 저를 건드리지 마십시오. 제가 분해하는건 바로 연출가동지 소심성때문입니다. 언젠가 연출가동지는 한 작가의 말을 빌어 아주 좋은 말을 해줬습니다.… 예술적착상이란 번개와도 같은것인데 번개는

주저와 소심성을 모른다고… 그 말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소심해졌습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실패… 사회적비난… 그게 두렵다면야 한걸음도 전진할수 없지요. 그리고…》

로영무는 노기가 번뜩이는 눈으로 젊은이를 쏘아보았다.

《왜 말을 끊어? 속을 더… 더… 털어놓으라구.》

강철룡은 숨을 거칠게 몰아쉬였다.

《좋습니다. 그 소심성을 버리지 못한다면 저는 연출가동지밑에서 부연출을 못하겠습니다.》

로영무는 갑자기 너털웃음을 터뜨렸다.

《핫하하… 대단하군, 대단해. … 이 친구야, 성공이 그렇게 조급해나나?》

로영무는 이 청년을 여간 사랑하지 않았다.

강철룡은 제대군인출신으로서 아직 미혼이였으며 연극영화대학 통신학부 졸업반이였는데 향학열이 높고 정의감이 강한 청년이였다. 그는 세계적인 예술가들을 남몰래 경쟁대상자로 삼고 그들의 재능과 지성을 따라잡거나 앞설 목표를 세우고 자신에게 비상한 요구성을 제기하며 학습하고 탐구하였다. 그는 생활비의 적지 않은 부분을 바쳐 신간도서들을 사들여 탐독하였는데 그 독서범위는 대단히 넓어 문학예술뿐아니라 력사, 지리, 정치경제학, 철학, 심리학, 생물학, 법학까지를 포괄하고있었다. 독서에 체계성이 약한것이 결함이지만 기억력과 리해력이 뛰여나 읽은 책들속에서 중요한 내용들은 거의다 머리속에 넣고있었다. 그는 남들이 습관과 타성에 의하여 범상하게 여기는 문제에 대해서까지 의문을 제기하여 공연한 론쟁을 불러일으켜 사람들의 눈에 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그리고 머리에는 책에서 본 잡다한 격언들과 명언들이 가득차있어 일상생활과 예술론쟁들에서 그것들을 함부로 내휘두르는 인용벽때문에 동료들속에서 조롱을 당할 때도 더러 있었다. 그러나 그런 조롱쯤에는 끄떡하지 않았다. 그는 사색형의 인간이면서도 양순하지 않고 대바르며 드센데도 있는 청년이였다. 연출가들은 자기가 작성한 연출대본에 의견을 제일 많이 내고 쩍하면 왕청같은 수정안을 들고나와 공연한 론쟁을 불러일으켜 제작단을 소란하게

만드는 그를 대체로 좋아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여러가지 별명이 붙어다녔다. 강철학, 강고민, 강개탄…

4

로영무는 강철룡을 데리고 아빠트둘레를 한바퀴 걸어 돈 다음에야 최승진의 집으로 들어갔다.

출입문을 열고 집안에 들어선 그들은 향긋하면서도 씁쓸한 술 냄새와 담배연기, 후끈한 화기에 휩싸여버렸다. 서재쪽에서 즐거운 말소리들과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다반에 빈 접시들을 담아들고 나오던 윤희가 깜짝 놀라며 손에 든것을 얼른 복도에 내려놓고 달려나와 반겨 웃으며 인사하였다. 남편의 성공에서 오는 행복감과 누가 억지다짐으로 권하는 술 몇잔을 받아마신때문인지 그 녀자의 얼굴에는 홍조가 타올랐다.

《오셨구만요. 정말 고마와요. 어서… 어서 들어가세요. 아이, 모두 얼마나 기다렸다구요.》

주부의 말소리를 듣고 부연출 한기석이 달려나왔다. 취흥에 얼굴이 벌겋게 상기된 그는 로영무의 팔을 끼고 서재쪽으로 이끌며 섭섭한 소리를 했다.

《아니 어째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제일먼저 달려와야 할 연출가동지가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주빈자리가 비여있으니 영 분위기가 생기지 않았는데…》

서재에는 두리반상 두개가 가지런히 놓였는데 상마다 술병과 맥주병, 안주접시들이 푸짐하게 차려져 흥취를 돋구었다. 상둘레에 둘러앉은 연출가들과 촬영가들, 몇명의 배우들은 로영무가 방에 들어서자 모두 반색을 하며 한마디씩 떠들썩하게 인사말을 하였다. 영화음악을 담당했던 가극단 작곡가 고일명이만이 로영무와 사돈간이여서 체면을 차리는지 그저 빙긋이 웃어보이며 눈인사를 보낼뿐이였다. 두사람은 오래전부터 가까운 친구지간이였는데 자기

딸을 고일명의 아들한테 준다음부터 로영무는 웬일인지 그를 좀 멀리하게 되였다.

그래서 그의 눈인사에 머리만 끄덕여보이는데 상좌에 앉아있는 최승진이 일어나기까지 하며 로영무를 자기 곁으로 불렀다. 그때 한기석이 무슨 기염을 토하든가 객기라도 부리고싶은지 최승진을 눌러앉히고 좌중을 둘러보며 소리쳤다.

《좀 조용들 하시오. 자, 자, 정숙—》

최승진의 밑에서 내내 부연출을 담당해오는 그는 이 집에서 망년회가 열린다든지 무슨 대사가 생기면 스스로 집행자, 사회자의 역을 맡아나서군했었는데 오늘저녁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안주상에서 큼직한 사과 한알을 쥐여올려 훅훅 불어보더니 그것을 로영무의 입앞으로 쑥 내밀며 제법 세련된 방송기자의 말투로 자기 소개를 하였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앙방송 기자입니다.》

영문을 몰라 눈을 내리뜨고 코밑에 들어온 사과만 지켜보던 로영무가 모든것을 즉시 깨닫고 웃어보이며 그의 너스레를 너그럽게 받아들였다.

《호, 그렇습니까. 이거 정말 반갑습니다.》

《이 눈오는 날에 먼길을 걸어오신것 같은데 아바이는 어디서 왔습니까?》

《저요? 예— 저는 황철 용광로 로장이올시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무슨 볼일로…》

《예… 다름아니라 여러분들이 좋은 영화를 만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황철로동계급들을 대표해서 축하하러 왔습니다.》

그러자 한기석은 사과를 자기 입앞으로 가져온다음 좌중을 향하여 환희에 넘쳐 소리쳤다.

《여러분, 영화예술인동지들, 여러분을 축하하기 위하여 황철에서 불원천리하고 여기까지 달려온 황철로동계급의 대표를 열렬히 환영합시다!》

손님들은 한때 재치있는 배우였던 로영무의 림기응변의 연기술에 감탄하면서 모두 좋아라 웃어대며 박수를 쳤다. 그중에서도

제일 기뻐하는것이 최승진이였다. 그는 박수를 치다가 로영무에게 곁으로 오라고 손짓하였다. 로영무가 그의 곁에 자리를 잡자 한기석은 어디에 자리를 잡을지 몰라 두리번거리는 강철룡의 입앞에 사과를 내밀었다.

《동무도 어딘가 먼곳에서 오신것 같은데요? 2.8비날론에서 왔는가요? 성진제강에서 왔는가요?》

강철룡이 그 사과를 움켜쥐려고 했다. 한기석은 사과를 자기 입앞으로 도로 가져가며 흐뭇한 얼굴로 말했다.

《마이크를 자기 손에 쥐고 말하자는걸 보니 이 동무는 할 이야기가 많은것 같습니다. 그 소원을 존중하여 마이크를 넘겨주겠습니다.》

강철룡은 그가 넘겨주는 사과를 받아쥐고는 아무 소리 없이 촬영가들속에 끼여앉더니 그것을 맛스럽게 씹어먹기 시작했다.

《여,여,이게 무슨 비예술적인 행동인가!》

그는 애써 웃어보이려고 하며 말투를 롱조로 돌렸다.

《저 친구 마이크를 저렇게 맛스럽게 먹는걸 보니 쇠붙이를 먹구사는 불가사리구만,불가사리가 분명해. 허허… 아무리 그렇기로서니 남의 마이크를 씹어먹는건 무슨 심보인가? 여,강개탄,정말 개탄할 일인걸.》

강철룡은 아무런 대꾸도 없이 볼이 불룩해져 사과를 씹으며 능청스러운 눈으로 상대를 흘금흘금 훔쳐보았는데 그 눈길은 이렇게 말하는듯했다.

(불가사리구 심보구 나는 우선 속이 출출해서 먹고부터 봐야겠네.)

그 익살에 손님들은 박수까지 치며 웃어대고 최승진은 저 친구 저런 괴짜였던가 하고 새삼스러운 눈으로 그를 지켜보면서 빙그레 웃었다.

로영무만은 웃지 못하였다. 오늘저녁의 그의 심상치 않은 기분상태를 알고있었기때문이다. 로영무는 젊은이의 익살밑에 선의아닌 그 무슨 심보가 깔려있는것 같고 또 그것을 모두가 느끼기만 하면 흥겨운 자리가 잡쳐지지나 않을가 하는 불안감도 없지 않아 화제를 딴데로 돌리려고 애썼다.

그는 자기 보기에도 최승진이네 제작단이 이번 작품을 맡아가지고 이전의 어느 작품때보다도 마음고생을 많이 한것 같다고 말하

였다. 그러자 모두 그의 말에 긍정하게 되여 화제가 그 방향에로 줄달음쳐나갔다.

한기석이 신명이 나서 말을 제일 많이 하였다. 그는 이젠 다 옛말로 되였다고 하면서 처음 제작단예산액이 백여만원이상으로 나왔을 때 창조경험이 많고 심장이 큰 연출가동지도 그 엄청난 액수에 속이 질려 아닌게아니라 얼굴색이 어둑해졌댔는데 그때 함께 운명을 걸고 연출가의 가슴을 내리누르는 짐에 어깨를 들이밀기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였다고 하며 회심의 모두숨을 내쉬였다.

고일명이 도드라질사한 이마를 번들거리며 그를 돌아보았다.

《매우 교훈적인 이야기요. 연출가의 예술적신념이 이번 작품을 성공시켰소. 어떤 사람들은 어느 행정간부가 소심성과 로파심으로부터 몇마디 해도 인차 속이 흔들려 그의 견해에 숙어드는데 그런 위인들은 절대 문제작을 낼수 없소. 시내에서 전차를 갈아타는것처럼 그렇게 헐하게 자기 견해로부터 남의 견해로 옮겨타는 그런 졸장부들은 안돼. 절대 안되오. 예술적 신념과 재능… 이건 성공의 비결이요!》

《옳습니다!》

한기석은 환성을 질렀다.

최승진은 지나간 일들을 더듬는듯 눈을 지그시 내리뜨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있었다. 강철룡은 곁에서 권하는 고뿌를 받아 맥주를 욕심스럽게 들이키고는 이글거리는 눈으로 안주접시들을 둘러보았다.

로영무는 저도 모르게 강철룡에게서 한기석에게로, 다시 그에게서 강철룡에게로 눈길을 돌리게 되였다. 두 청년은 겉모습이 풍기는 인상부터가 판판 달랐다. 한기석이 비옥한 땅에서 곧게 자라오른 뽀뿌라나무라면 강철룡은 척박한 산비탈 바람받이에서 간신히 자라오른 가둑나무였다. 명성이 높은 예술가의 가정에서 나서 사회의 혜택과 가정의 유족하고 문화적인 환경속에서 구김살없이 자라난 한기석은 우선 겉모습부터가 부모들의 미모를 물려받아 인상좋은 훤한 미남인데다가 괜찮은 문화적소양과 예술적소질까지 겸비하고있어 부연출가들속에서는 단연 뛰여난 존재였다.

강철룡의 경우는 그와 사정이 전혀 달랐다. 그의 부모들은 두

메산골의 농민이였는데 아버지는 일찌기 세상을 떠났었다. 그는 어머니의 눈물겨운 보살핌속에서 초중까지 다니다가 전쟁이 일어나 군대에 나갔었는데 그때까지 기차나 살아있는 작가나 예술가를 만나본적이 한번도 없었다고 했다. 그는 전선부대들에서 목소리가 좋은덕에 예술소조공연에 뽑혔는데 그것이 계기로 되여 그리고 꾸준한 노력과 활동에 의하여 영화촬영소에까지 오게 되였다. 때문에 그의 소박한 지식과 문화적소양에는 무지의 공간이 많았으며 자신도 그것을 촬영소생활에서 시시각각으로 느꼈다. 그러나 주눅이 들대신 원대한 포부를 안고 공부하고있는 청년이다. 그는 일찌기 군대에서 공병부문의 대좌로 있다가 제대되였으며 현재는 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있는 형네 집에 얹혀살았다.

한기석과 강철룡… 두 청년은 여간 다정한 사이가 아니였으나 이따금 별치 않은 일을 가지고 발끈해져서 론쟁을 벌리였으며 그러다가는 크게 웃으며 합의점에 도달하는가 하면 한동안 서먹하게 지내는 때도 있었다. 그러는 과정에 그들의 우정은 더 깊어지는듯했다.

최승진이 로영무의 팔을 건드리며 맥주를 권하였다.

《로형, 무슨 생각을 그렇게 골똘히 하오?》

《아니 그저 좀… 저 기석이하구 철룡이를 보라구. 얼마나 개성이 판이한가?》

《하긴 그래… 한 친구는 사과를 마이크로 내밀었는데 다른 친구는 그것을 넙적 받아 먹어치웠거든. 허허… 괴짜야. 나는 저 친구들을 보면서 우리가 늘 고심하는 작중인물의 개성화에 대해 생각한적이 있네. 저런 뚜렷한 대조만이 개성화를 용이하게 하겠구나 하구말이요.》

최승진이 가늘게 쪼프린 명상적인 눈으로 아래상에서 떠들어대는 친구들쪽을 여겨보는데 한기석이 무엇을 느꼈는지 이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연출가동지, 어째 상좌에선 여기 이야기에 어울리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수군거립니까. 이거 정말 재미가 적습니다.》

한기석은 벌써 어지간히 취기가 올라 얼굴이며 목까지 벌개졌다.

《아니 여보, 그렇게 보지 마오. 우리끼리 별로 이야기한건 없

소. 저마끔 제 생각에 잠기다나니.》

《여기선 연출가동지 흉을 좀 봤습니다. 흉을… 평소엔 사람이 좋다가도 일단 촬영에 들어가면 폭군이 된다구요. 저 바다가 장면을 촬영하던 때 일이 생각납니까?》

최승진의 눈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그는 무엇인가 불쾌한 일을 더듬는것 같았다.

한기석은 신명이 나서 계속했다.

《시체로 되여 바다가에 널려진 사람들이 파도가 소리치며 밀려들 때마다 숨을 쉰다고, 물을 내뿜는다고 세번네번 다시 촬영할 때 인정사정을 모르는 그 〈다시!〉라는 소리가 정말 죽으라는 소리보다 더 싫었습니다.》

《그랬을거요. 어떤 땐 예술적계발로는 안될 때가 있거든. 그래서 억지다짐으로 그런 강요를 하게 되지. 그건 다 자기 무능을 스스로 드러내보이는 바보짓이요.》

한기석이 싱그레 웃으며 머리를 설레설레 저었다.

《연출가동지, 안되겠습니다. 정말 안되겠습니다.… 너무 고지식합니다. 이런 기쁜 날에 흉을 봤을게 뭡니까? 연출가동지가 연출을 시작해서 영화를 몇편이나 만들었는가 꼽아보다가 연출가동지 예술년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나한테 무슨 년조라고 할게야 있나?》

《그러지 말고 언제부터 어떻게 영화를 시작했는지 그 이야기나 들려주십시오. 언제 물어봐야 이야기를 안했는데 오늘이야 기쁜 날이 아닙니까. 한턱 쓰는셈치고… 후에 내가 혹시 연출가동지를 회상하여 무슨 글이라도 쓰게 될지 압니까. 인간, 예술가로서의 연출가동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최승진은 혼자라면 몰라도 로영무까지 곁에 앉아있으니 더욱 어색해졌다.

《시시한 소리 말구 마시기나 하게.》

《아― 그러지 마십시오.》

《겸손이 아니라 사실상 나한테는 회상이라고 할만한 이야기거리가 없네.》

로영무가 입을 열었다.

《피끓는 호기심이 탐험가 마젤란을 낳았다는 소리도 있다는데 막무가내로 그래서는 저 친구들을 당해내지 못할것 같구만… 내가 좀 이야기할가… 승진연출가가 영화예술에 뜻을 둔건 기석동무랑 밥상밑에서 기여다니던 그 시절 이야기일지도 몰라. 말하자면 왜정때지. 조선영화의 선구자라고 할수 있는 라운규선생이 비명에 요절하자… 그 요절은 일제의 민족문화말살정책밑에 신음하던 우리 조선예술인들의 운명을 상징하는 그런 비참한 죽음이였어. 선생이 없자 청년영화인들은 마음속의 기둥을 잃은거나 같은 신세로 되여 산지사방으로 흩어져버렸네. 개중에는 혹시 일본에 건너가면 영화예술의 기법이라도 배울수 있지 않을가 하는 일루의 희망을 품고 파도사나운 현해탄을 건너간 청년들도 있었는데 승진연출가도 그런 청년들중의 한사람이라고 할수 있네.》

로영무는 이런 이야기를 꺼냄으로써 후날 자기 벗을 얼마나 어려운 처지에 빠뜨리게 되겠는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으므로 취흥에 떠서 이야기를 계속했다.

《일본 도꾜에 있는 일본대학이라고 하는 사립대학의 예술과에 겨우 입학해서 고학을 했지… 가만 그 대학이 도꾜 어디에 있었다구 했더라?》 하고 로영무가 최승진을 돌아보자 그는 괴로운 회억에 잠긴듯 이마살을 찌프리고 눈을 지그시 내리감은채 나직이 뇌이였다.

《대학 본교사는 도꾜 간다구에 있었구… 예술과는 이께부꾸로에서 지상철도로 샤꾸지공원행 전동차를 타고 한참 가서 에고다… 에고다라는 교외의 음침한 거리에 있었지…》

그의 목소리는 신음소리처럼 들리였다.

그는 갑자기 열물같이 쓰거운것이 목구멍에서 치밀어오르는듯 입술을 이그러뜨렸다.

《돈이 없어 고학을 하자니 별의별 고생을 다 했소. 다다미 석장짜리방을 세내서 자취하면서 신문배달, 우유배달, 요꼬하마항에 나가 화물선에서 석탄을 부리는 일… 그때 돈으로 200원이 넘는 엄청난 수업료를 학교 서무과에 물지 않으면 제적당하니까 별수 없었지. 그 시절에 읽은 한 조선시인의 시가 생각나.

먹었는가 묻지 말라
굶었는가는 더욱 묻지 말라
나는 코끼리처럼 말이 없다

내 신세가 바로 그랬네. 어떤 때는 3전짜리 설렁탕도 사먹지 못했으니까. 나중에는 인분청소부노릇도 하고 제일 치사한 얼음장사,말하자면 얼음세부판매라는것까지 하게 됐네. 얼음세부판매라는게 어떻게 하는건지 아는 사람이 없을거네. 바위같은 얼음덩이를 도매상한테서 넘겨받아가지고 그걸 톱으로 잘게 켜네. 벽돌장만큼 혹은 더 작게… 그다음 그것들을 니야까라는 손수레에 싣고 음식점이나 매춘가의 창녀들한테 파는거네.

도매상한테서 넘겨받을 때 도꾜의 그날 기온에 따라 운반도중 더위에 얼음이 얼마나 녹아내리겠는가 타산해서 그 감모량을 정하고 그만큼 값을 내려주는데 손수레를 끌고 빨리 달려 운반시간을 단축하는데서 리익금이 나오는셈이지. 결국 내 다리가 얼마나 빨리 놀려지는가에 달려있네. 굼뜨게 달린다든지 교통순사한테 잡히거나 인파속에 들어 어물대다가는 얼음이 다 녹아 밑지는판이요. 그래서 도꾜의 그 무서운 불볕밑에서 매일 땀으로 미역을 감으며 신쥬꾸거리,아사꾸사거리로 죽기내기로 뛰여갔지. 한푼이라도 더 벌자구… 광복후에 여기 촬영소에서 첫 체육경기대회가 있었을 때 나는 남자 3천메터경기에서 일등을 했는데 응원하던 동무들이 모두 달려들어 나를 공중에 들어올리고나서 너무 대견하고 희한하여 내 딴딴한 다리를 주물러보며 이전에 륙상선수로 지낸적이 있었는가고 물었네. 나는 겉으로는 웃어댔지만 속에선 눈물이… 피눈물이 떨어졌네… 얼음장사이야기를 더 하면 한번은 내 얼음을 산 음식점에서 소동이 벌어졌네. 손님이 받아놓은 빙수그릇속에 떠있는 얼음덩이안에 죽은 벌레가 얼어붙어있었거든.

이튿날 얼음을 팔러 다시 찾아가자 음식점주인놈이 짐승처럼 사나와져 손수레를 뒤엎어놓고 발길질로 얼음을 산지사방으로 차버리고 뭇매질을 하면서 어제부터 소문이 거리에 쫙 퍼져 손님들이 오

지 않아 문을 닫게 됐다고 하며 손해배상을 하라고 을러멨소. 내 얼굴은 피투성이가 됐네. 그때의 치욕감을 무슨 말로 말해야 될지. 아하 참… 그러루한 일이 있을적마다 고향으로 돌아오고싶었지만 이… 이 가슴에서 타번지는 향학열때문에 또다시 얼음수레를 끌거나 신문배달노릇을 하게 됐지. 그때 일본에서는 돈만 있으면 공부하기 헐했거든. 출판업이 괜찮게 발전해서 책방들이 즐비하게 늘어선 서점가에 나가면 없는 책이 없었네. 호화장정의 세계문학전집들, 예술, 철학, 종교, 경제학… 돈만 있으면 아무 책이나 다 살수 있었지. 나는 맑스주의서적도 거기서 사서 읽었소. 아마 그 시기 우리 고학생들을 통해 숱한 맑스주의서적들이 조선으로 건너왔을거요. 대학의 교수진도 그만하면 강한 편이였고…》

《그랬습니까.》

한기석의 눈이 휘둥그래졌다.

《일본에는 일찌기 세계 각종 사상조류들과 예술조류들이 다 들어와있었네.》

한기석이 조용히 한숨을 내쉬였다.

《우리 세대는 안되겠습니다. 본것도 적고 체험도 적고… 한 음악평론가는 이렇게 썼더군요. 교향곡의 심각한 극성은 작곡가자신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체험했거나 상상한 심리정서적드라마의 표현이다… 연출가동지가 만든 작품들에 극성이 그처럼 강한 비결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우리한테는 그런 체험이 없지요. 우리 사회제도에서야 어디 그런 체험을 할래야 할수 있습니까. 우리는 안되겠어요.》

최승진이 머리를 천천히 가로저었다.

《아니… 아니… 그건 공연한 개탄이지. 위험한 생각이요. 불행한 인생체험에만 극성이 있는건 아니요. 행복한 체험에도 심각한 심리정서적인 극이 있소.》

한기석이 갑자기 저가락을 빈 접시우에 던지였다.

《연출가동지! 이러나저러나간에 당신들은 영화예술이란 이 길에 들어서서 다 대성을 했단말입니다. 이제는 일가견을 이루고 세상이 다 아는 작품들을 수태 만들지 않았습니까!》

국수대접들이 놓인 다반을 들고 문지방을 넘어서던 윤희가 무슨 언쟁이라도 생기지 않았는가싶어 주춤 멎어서며 놀란 눈으로 한기석을 지켜보았다.

《우리는 도대체 뭡니까. 언제까지 의상궤짝이나 메고다녀야 합니까? 연출가동지네 세대는 벌써 20대에 작품들을 맡아 연출했고 자기 영화들을 통하여 세상에 다 알려졌습니다. 물론 준비된 자질과도 관계되겠지만… 그때 우리 나라에 연출가가 통털어 두세명밖에 없는 사정과도 관계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수많은 연출가들이 과학원 원사들처럼 관록을 가지고 자리에 틀고앉아있기때문에 새싹은 솟아날 틈새기가 없습니다. 내 말이 틀립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선배연출가들은 우리 후대들을 생각해줘야 합니다. 솔직히 터놓고 말하면 예술위원회앞에서 우리 기량을 보증해주면 우리한테도 작품을 맡겨줄게 아닙니까. 이 철룡이만 봐두 그렇습니다.》

한기석은 철룡의 어깨에 손을 다정하게 얹고는 말을 계속했다.

《부연출을 몇년이나 했습니까. 강철룡이가 왜 강고민이 됐겠습니까?》

최승진은 한손으로 방바닥을 짚고 몸을 뒤로 젖힐사하며 껄껄 웃었다.

《이거 공격이 대단하군. 약속하오, 약속하지. 그런 보증은 언제든지 서줄수 있소.》

그 말에 신명이 난 한기석이 맥주고뿌를 번쩍 쳐들었다. 그의 손등으로 맥주거품이 흘러내렸다.

《자, 그럼 그 약속을 위해！》

그들은 떠들썩하게 마셨다.

로영무는 취기가 벌겋게 오른 얼굴에 흐뭇한 미소를 머금고 좌중을 둘러보았다.

《여기에서 우리 영화를 가지고 외국에 나가본 사람은 승진연출가하고 나밖에 없는것 같은데 영화란 국경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조국의 명예를 걸머지게 된단말이요. 외국관객들은 한편의 영화를 통하여 그 민족의 사상감정과 정신미, 풍습, 지어는 국력까지 느끼네. 외국에 나간 한편의 영화는 분명히 그 민족의 사상감정

의 사절이나 다름없지…》

식성이 좋은 친구들까지 안주를 집는것을 잊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재작년 모스크바영화축전때 일이요. 축전장소인 한 영화관에서 우리 예술영화를 상영했는데 필림 서너권이 돌아간다음부터 관객들이 하나 둘 일어나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소. 그러다가 여기저기에서 여러명씩 움쭉움쭉 일어나 통로를 따라 우르르 밀려나갔소. 영화가 다 끝나고 불이 켜졌을 때 나는 얼굴을 들수 없었소. 몸이 식은땀에 젖어있었소. 조국과 우리 민족정신, 우리 사상감정이 외면과 배척을 당한것 같으면서 정말 죽고싶도록 괴로웠소. 정신없이 복도로 나왔는데 무테안경을 코등에 걸고 재빛 수염이 텁수룩한녀석이 사람들속을 비집고 나한테로 다가와 례절바르게 인사하고는 자기 소개를 했소. 프랑스연출가라고… 그리고는 〈당신네 나라는 맑은 아침의 나라로 세상에 알려졌는데 오늘 은막에서 보니 비도 자주 오고 하늘도 늘 흐려있는 아주 어둑한 나라이군요.〉하면서 이죽거렸소. 최신형의 영사기에 우리 필림을 걸고 돌리니 낮은 현상수준이 그대로 드러나 은막에 비쳐진 화면이 비가 오는것처럼 보였던거요. 나는 그자의 비양까지 받자 모욕감과 울분이 터져올라 저도 모르게 주먹을 부르쥐였소. 통역원이 내 팔을 붙잡지 않았다면 무슨 일이 생겼을지 모르오. 나는 사실 이 수치스러운 일을 이때까지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했댔소.》

한기석이와 몇몇 사람들이 한꺼번에 소리쳤다.

《축전에 나갑시다!》

《나갑시다!》

《봉창을 합시다!》

《〈광풍〉으로 사나운 바람을 일으킵시다!》

그 무슨 괴로움이라도 묵새기고있는듯 한손으로 이마를 싸쥔채 잠자코 앉아있던 철룡이 열기가 이글거리는 눈으로 최승진을 지켜보면서 퉁명스럽게 말했다.

《연출가동지, 무엄한 소리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번 영화에서 주인공의 연기는 과장됐습니다. 때문에 오늘 터져오른 박수

갈채에 비하면 영화가 좀 손색이 있습니다.》
로영무가 난처한 얼굴로 그를 돌아보며 저가락을 상에 내려놓았다.
그는 나직하게 핀잔의 소리를 하였다.
《그건 무슨 소린가…》
순간에 좌석의 공기가 식어버린듯하였다. 모두 아연해진 얼굴로 성공한 연출가며 불손한 도발자를 번갈아 돌아보는가운데 최승진이 선배의 아량으로 너그러운 미소를 지었다.
《고맙소. … 처음 비판의 목소리를 들어보는군. 헛허허…》
한기석이 그의 뒤덜미를 잡고 흔들어대며 껄껄 웃어댔다.
《강고민… 과시 강고민이야, 하하하… 이런 강짜니까 미혜가… 미혜가 속이 탈수밖에…》
철룡은 불꽃이 펑긋 이는 눈으로 돌아보며 기석의 손을 뒤덜미에서 홱 치워버렸다. 그바람에 빈 맥주병이 넘어져 방바닥에 딩굴었다.
그때 윤희가 국수그릇들을 들고 들어오지 않았다면 무슨 일이 생겼을지 모른다.

5

최승진의 집에서 나온 강철룡은 전차정류소쪽으로 곧바로 걸어나갔다. 흩날리는 눈송이들이 화끈거리는 얼굴을 산뜻산뜻 스치였다.
한기석이 뒤따라와 그의 팔을 끼였다.
《여 철룡이, 성났댔는가. 그쯤한 롱담에… 졸장부야, 천하에 졸장부라니까. 동무가 술좌석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소릴 하니까 아닌밤중에 홍두깨같이… 분위기를 돌리자구 그랬어. 정 용서안되면 내 눈판에 엎드려 절을 하지, 절을…》
술에 잔뜩 취한 한기석은 비틀거리면서 눈길에 엎드리려고 했다.
철룡은 그를 끌어올리며 언짢게 소리쳤다.
《자, 자, 빨리 가자구!》
둘은 서로 붙안고 걸어갔다.

《철룡이, 그래두 나만한 벗이 없는줄 알라구. 이자 오면서 보니까 미혜네 집에 아직 불이 꺼지지 않았더군. 동무가 승진연출가네 집에 왔다가 들리지 않을가 해서 기다리는지도 몰라.》

철룡은 얼결에 뒤를 돌아보았다. 우중충한 아빠트의 모든 창문들에 어둠이 서려있었으나 유독 최승진이네와 장미혜네 창문들에서만 불빛이 환히 흘러나오고있었다.

《가라구, 가. 오늘밤에 아예 결판을 내라구, 결판을… 어머니도 없겠다, 남아장부가 한번 마음먹으면 다지 그냥 질질 끌기만 하겠나.》

철룡은 취기때문인지 미혜가 못견디게 그리워났다. 처녀의 윤이 흐르는 머리칼, 그윽하게 빛나면서도 쌀쌀한 빛이 서려도는듯한 동실한 눈, 맑은 웃음소리… 모든것이 그리워났다.

《발동이 안걸리는 모양인데 자, 내가 불도젤이 돼서 떠밀어주지.》

한기석은 철룡의 배에 머리를 박고 기운껏 떠밀었다.

《부르릉…》

철룡이 문을 여니 미혜는 기겁한 얼굴로 주춤 물러서기까지 했다.

《아니…》

그리고는 들어오라는 소리도 없이 홱 돌아서 세면장쪽으로 가버렸다.

철룡은 어정쩡해서 문밖에 서있다가 제발로 들어갔다.

그는 미혜의 방 창곁의 책상앞에 마주앉아 처녀가 들어오기만 기다렸다.

그러나 미혜는 들어오지 않았다.

세면장쪽에서는 수도물이 흘러내리는 소리와 빨래질소리만 계속 들려왔다. 수도물이 흘러내리는 그 소리가 물이 아니라 시간이 철철 흘러버리는 소리로 들렸다.

미혜의 어머니가 병치료때문에 강서료양소로 떠나가자 그는 될수록 처녀만 사는 이 집으로 자주 찾아오지 않으려고 했다. 동네사람들속에서 미혜의 얼굴을 깎아내릴수도 있고 또 방종한놈팽이처럼 보호자가 없는 공간을 노리는 소행인것 같아서였다. 그의 자존심이 잦은 방문을 허용하지 않았다.

철룡은 비로소 누구의 몇마디 소리에 속이 흔들려 여태 지켜

온 절제를 허물고 이런 밤중에 그것도 술냄새를 풍기며 찾아온것이 어리석게 생각되였다. 미혜도 그래서 불쾌해진것이 분명했다. 서가에 가쯘하게 꽂혀있는 책들과 원탁우에 나란히 놓인 분장도안들, 화분밑에 깐 정갈한 꽃수받치개, 알른거리는 장판… 방안의 모든것들이 자기 예술을 사랑하고 성품이 단정한 처녀의 정신적면모를 보여주는듯하였다.

철룡은 미혜가 들어오지 않는것이 전혀 고깝지 않았다. 오히려 자책감이 들며 기다리는 사이에 머리가 맑아지는듯하였다.

그는 마음같아서는 일어서 나오고싶었으나 그럴수도 없어 앞벽에 붙어있는 사진액틀을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액틀속의 약간 퇴색한 사진에서는 한창시절의 아름다운 녀배우 리명선이 사내아이처럼 머리를 빤빤히 깎은 딸 미혜를 안고 행복한 미소를 머금고있었다. 그것은 미혜의 백날사진이였다.

제대군인의 순박한 열정으로 사랑에 빠진 철룡이 처녀를 따라 이 집으로 처음 찾아왔을 때 미혜는 그 사진을 가리키며 이건 어머니, 이건 장미혜동지라고 웃으며 말하였다. 그리고는 이렇게 덧붙였다.

《사람들이 저보고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분장실에서 나서 분장실에서 자랐다고 해요. 호호호… 아무데서나 생활적이 못된다고 그러지요. 그러나 저만큼 생활을 사랑하고 생활적인 녀자도 드물거예요.》

철룡에게는 그 말이 여간 재미나고 뜻깊게 들리지 않았다. 어릴적에는 물론 군대복무기간 영화에 그토록 마음이 팔려있으면서도 이름난 녀배우 리명선의 딸과 운명적인 인연이 맺어지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철룡은 그날 이 방에 처음 들어서서 자기가 성장한 농민가정과는 너무나도 판이한 생활체취에 가슴을 울렁거리며 이것저것 둘러보았다. 리명선의 손때가 배여있는듯한 양복장들이며 삼면거울이 붙은 크고 번쩍거리는 경대, 품위있는 무늬가 그려진 창가림, 방구석에 세워진 무희의 목각상… 보는것마다가 예술적향기를 풍기고있어 저도 모르게 주눅이 들었었다.

강철룡은 군대에 복무할 때 련대의 젊은 군관들이 결혼식을 한다든지 그들에게로 약혼녀가 찾아온 날이면 자기에게도 언제인가는 저런 날이 올것이며 그리고 절대 범상하지 않고 어떤 비상한 인

연을 통해서만 사랑이라고 하는 신비로운 감정이 움틀것이라고 공상했었다.

그러나 미혜와의 관계에서는 전혀 비상한 사연이란 없었다. 있었다면 일상적인 사업속에서 한가지 우스운 일이 있었고 그것이 계기로 되여 뜻밖의 감정이 싹튼것 같았다.

그는 부연출로 배치되여 1년이 지나 력사물주제의 작품을 형상하는 한 제작단에 미혜와 함께 망라되여 일한적이 있었다. 그때까지 철룡의 눈에 비쳐진 미혜는 그저 한 분장사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고 개성적인 미모로 하여 연출가들이 탐나하지만 배우의 성공과 관련된 그 어떤 유혹에도 끌리지 않고 고집스럽게 자기 직무를 지키고있는 처녀였다.

제작단은 실내촬영장에서 몇장면을 찍고 곧 력사유적들이 많은 개성으로 가서 야외촬영을 계속하였다. 어느날 미혜가 촬영을 앞두고 선비의 수염을 잃어버렸다고 얼굴이 새까매져 돌아갔다. 온 제작단이 떨쳐나서 려관방들이며 야외촬영장들을 샅샅이 뒤졌으나 그 수염은 나타나지 않았다. 선비역을 맡은 배우는 억울한 혐의를 뒤집어쓴 사람처럼 얼굴이 벌개져서 자기는 촬영이 끝난 다음 수염을 분장사한테 바쳤노라고 우겨댔다.

미혜는 그것을 받았다거나 받지 않았다거나 하는 소리도 없이 그저 울상이 되여 돌아갔다. 사람들은 안타까운나머지 그까짓 수염이야 하나 제꺽 새롭게 만들면 되지 않느냐고 처녀를 위로하였다.

미혜는 그 소리를 분장미술에 대한 홀시로 받아들였던지 발끈해졌다. 창작이 계렬식생산인줄 아느냐고 쏘아붙이면서… 무슨 수를 써도 잃어버린것과 꼭 같은 수염은 절대 만들어낼수 없다는것이였다. 그것은 보통수염도 아니고 좌천되여 초야에 묻혀버린 절개굳센 량반의 고결한 성품과 그 허전한 인생의 슬픔을 표현하는 형상세부이기때문에 자기가 한달동안이나 고심하여 창작한것이라고 하면서 눈물까지 보였다.

사람들은 여러가지로 방도를 모색하다가 개성에 작중인물인 선비와 비슷한 용모의 로인들이 있을수 있는데 그들을 잘 설득하여 수염 몇오리씩 잘라오자는 안을 내놓았다.

제작단장은 모두 정신들이 있는가, 구습에 완고한 이 지방에서는 절대 그렇게 할수 없다고 엄하게 꾸짖었다.

제작단은 촬영을 중지하는가 마는가 하는 난처한 궁지에 빠졌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 철룡은 그 수염이 자기 호주머니에 들어있는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그제야 이틀전일이 생각났다.

선비역을 맡은 배우가 점심시간에 촬영장곁의 간이식당에서 숟가락질하기 거치장스러운 수염을 식탁에 떼놓고 식사하고는 그냥 나갔는데 그것을 호주머니에 집어넣었던것이다.

철룡은 그때 작품의 전반적인 조화와는 관계없이 자기에게 대사화면을 몇개 더 달라고 요구하는 주인공배우와의 론쟁때문에 신경이 곤두서서 그 일을 까마득히 잊었던것이다.

수염을 분장사에게 넘겨준 다음 연출가는 기쁜김에 철룡의 어깨를 툭 치며 공연히 처녀를 울렸다고 하면서 과시 강고민이라고 웃어댔다.

철룡은 처녀에게 여간 미안하지 않았다. 그래서 영화촬영의 전기간 그를 극진히 보살펴주고 도와주었다. 영화가 세상에 나간 다음 그는 신수사납게도 여름감기에 걸려 합숙에 누워있게 되였다.

어느날 생각지도 않았던 미혜가 문병와서 반시간가량 앉아있다 갔는데 밤에 그는 오래도록 잠들지 못하였다.

한달후 그들은 남다른 사이로 되였다. 그때 철룡에게는 사랑이란 누구도 없는데서 둘이 함께 있고싶은 감정이고 욕망이였다. 그래서 휴일이나 명절날이면 처녀를 끌고 사람들의 눈을 멀리 피하여 교외의 숲속을 돌아다녔다. 미혜는 까다롭게 굴지 않고 순순히 응하였다.

늦어서 첫 사랑을 체험하는 제대군인의 끝없는 열정과 처녀의 순진하고 장난기 심한 마음은 한데 어울려져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별의별 환락을 다 궁리해냈다. 철룡이 까마득한 살구나무로 기여올라가 가지를 마구 흔들어 열매를 털면 처녀는 밑에서 좋아라 손벽을 치며 돌아치면서 그것들을 주어모았다. 《선물찾기》를 시작하여 철룡이 수풀속을 돌아치다가 나리꽃 한송이를 꺾어가지고 뛰여가서 처녀에게 선물로 내밀면 미혜는 등뒤에 감추었던 밥알꽃송이를 보란듯이 내미는것이였다. 철룡이 싸리버섯을 내밀면 처녀는 어느새 어디서 땄는지 참나무버섯을 내밀었다. 철룡이 돌쪼

각을 내밀면 미혜는 모래 한줌을 내밀었다. 나리꽃과 밥알꽃, 싸리버섯과 참나무버섯, 돌쪼각과 모래 한줌… 보지 않고도 맞아 떨어지는 이런 류사한 일치가 너무 신기하고 기뻐서 행복감에 한껏 도취된 둘은 풀밭에 가지런히 누워 나무가지들사이로 파란 하늘을 쳐다보며 미래를 공상하였다.

공상속에 그려지는 그들의 미래는 영화연출가와 분장예술가의 조화로운 가정이였으며 보람찬 창조생활이였다.

철룡은 공상에 잠겼다가도 아이들처럼 천진란만해져 힘살이 꿈틀거리는 팔뚝자랑을 했고 미혜는 살결고운 팔에 도드라진 두개의 우두자리를 보이며 자기 몸에는 이 두개의 상처밖에는 없다고 자랑하였다. 때로는 공연한 트집을 걸어 다투기도 하였다. 때로는 예술적인 문제를 가지고 열이 나서 론쟁도 하였다.

철룡은 미혜와의 공통점을 하나라도 더 만들기 위하여 미술사를 부지런히 공부했고 미혜는 철룡의 마음에 더 들려고 그의 식성에 따라 매운 음식도 꺼려하지 않고 먹다가는 입을 싸쥐고 맴돌이쳤다. 철룡은 그것이 재미나서 큰소리로 웃어댔고 미혜는 그런다고 주먹으로 그의 잔등을 콩당콩당 때렸다.

철룡은 언제인가 유럽의 한 시인이 사랑의 열정을 이기지 못하여 거목의 뿌리를 활화산의 분화구에 잠그었다가 활활 불붙는 그 뿌리를 붓으로 삼아 저 하늘에 가득 《내 그대를 사랑하노라》고 써놓고싶다고 노래한 시를 읽고 너무 표현이 과장되였다고 비난한적이 있었는데 지금에는 그 심정이 어느정도 리해되였다. 그는 하늘에는 글을 써놓고싶지 않았지만 땅에는 사랑의 표적을 남기고싶었다.

그래서 미혜가 무척 좋아했고 그 시절 어느 식료상점에나 흔해빠졌던 칼피스를 여러병 사들고 길을 떠났으며 그것을 마시고는 빈병을 땅속에 깊이 박아넣으면서 미혜더러 20년이나 30년이 지나 이 자리에 다시 찾아와서 오늘을 추억하자고 했다.

한번은 처녀가 입김이 느껴질 정도로 가까이 다가서서 그의 눈을 빤히 들여다보며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고 물었다.

철룡은 그 물음에 당황해져 잠시 망설이다가 기지있게 대답했다. 미혜가 이슬로 될수 있다면 그를 늘 눈에 넣고다니겠노라고…

처녀는 전률이 오는듯 몸을 떨며 한번 이슬이 되여봤으면… 하고 탄식했다.

빈병은 모란봉의 숲속에도 대성산 기슭에도 장수산 중턱에도 묻혔다. 그렇게 병들을 묻고나면 그 산들이 모두 사랑의 증견자,사랑의 기념비로 느껴졌으며 그 산들이 허물어져 없어지지 않는 한 자기네 사랑의 약속도 허물어지지 않으리라는 믿음이 가슴에 바위처럼 들어앉는것이였다.…

침대우에 가지런히 놓여있는 검은 남자장갑이 눈길을 끌었다. 무척 눈에 익은 장갑이였으나 누가 저런것을 끼고다니던지 생각나지 않았다.

이때 미혜가 들어왔다. 처녀는 세타소매를 팔굽까지 걷어올려 시뻘겋게 드러난 팔에서 물기를 털며 방으로 들어와 침대에 걸터앉았다. 비릿한 빨래비누냄새가 풍겨왔다. 처녀는 빨래를 성급하게 한탓인지 발갛게 홍조가 타오른 얼굴로 숨소리를 쌔근거리며 그를 쳐다보았다.

《미안해요.… 나는 묵은 빨래를 둬두고는 잠도 못자요. 그리고 처벌이였어요. 밤늦게 술마시고 찾아온… 정신이 좀 맑아졌어요?》

철룡은 웃으며 머리를 끄덕였다.

《오늘저녁 승진연출가동지네 집에 모였다지요? 잘 놀았어요?》

《괜찮았소.》

《전 촬영때문에 남아있었는데 모두 퇴근한 다음 박경섭동지로부터 부총장동지한테 전화가 왔어요. 수령님께서 영화가 좋다는데 어서 보고싶다고 하셨대요. 얼마나 좋을가… 그런데 얼굴이 왜 그래요?》

《내 얼굴이 어떤가?》

(저건 한기석의 장갑이다. 틀림없어. 그의 장갑이 어떻게 여기 와있는가?)

촉기빠른 미혜는 그의 눈길이 흘깃 갔던데를 돌아보더니 그 장갑을 쥐여들어 무릎우에 올려놓으며 한기석의 장갑이라고 했다.

《코가 터져 손가락이 나오게 됐어요. 기워주자고 가져왔어요.》

철룡은 언제부터 그렇게 가까와졌느냐고 묻자다가 처녀의 기분을 상하게 할가봐 그만두었다.

《한가지 물어보면 솔직히 말하겠소？》
《내가 언제 솔직하지 않은적이 있어요？》
《기석동무한테 무슨 소릴 한적이 있소？》
《아니… 무슨 소린데요？》
《나한테 무슨 불만이 있다거나 속이 탄다거나 그러루한…》
《그가 뭐라고 해요？》
《그저 그러루한 소리요.》
《어마나, 그래서 이 밤중에 찾아왔군요. 호호호… 어린애처럼… 언제 철이 들가… 자기가 이전에 나한테 말하구서… 맑은 호수를 보면 누구나 돌이나 흙덩이 같은걸 던져보고싶어 못견딘다고… 어떻게 흐려지는가, 어떻게 파문이 이는가 보고싶어서… 깊이가 얼마나 되는가 알고싶어서… 그래서 자그마한 흙덩이를 던졌겠는데 뭘 그래요.》
철룡은 어줍게 웃었다.
《아니, 그래 온건 아니요.》
처녀는 눈을 곱게 흘기였다.
《철룡동무… 기석오빠하고 사이좋게 지내요. 엄마하고 그의 아버지하고 옛날부터 아는 사이였고 부모들의 그 인연때문에 우리도 좀 가까와요. 약간… 가까이 지내겠어요？… 싫어요？… 싫으면 좋도록 해요.》
《싫고 좋고가 있는가. 같은 부서, 같은 부연출인데… 우린 가까운 사이요.》
《그래도 싫어하는것 같은데요… 좋아요. 우리는 국가들의 관계처럼 벗의 원쑤는 나의 원쑤다, 벗의 벗은 나의 벗이다, 이런 어마어마한 련대성의 부담을 지지 말자요. 개인들사이에 그런다는건 좀 별스럽지 않아요？》
《아니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미혜가 좋아하면 그만큼 우리들 사이는 멀어지오.》
《아이, 꽉자다…》
미혜는 무릎우의 장갑을 침대머리쪽으로 던져버리고는 탄력있게 일어나 그에게로 다가왔다.
처녀는 한손으로 책상모서리를 짚고 비스듬히 서서 그의 얼굴

을 들여다보았다. 습관된 체취가 뭉클 안겨들었다.
《철룡동무…》 처녀는 살뜰한 정을 담아 나직이 속삭였다.
《어째 나를 산속으로만 끌고다녀요?》
《그게 싫소?》
《싫은건 아니지만 남들이 다 하는것처럼 하고싶어요.》
《남들이?…》
《어째 집에 가자는 소리는 한번도 안해요?… 남들이 다 하는것을…》
(남들이… 남들이… 남들은 어떻게 하는가. 사랑다음에는 약혼… 다음엔 결혼… 가정…)
《형님이랑 형수님한테랑 인사도 하고 얼굴도 익히구싶어요.》
그것은 기다리고 기다리면서도 두려워했던것이였다. 행복감에 가슴이 터지는듯했다. 그리고 그만큼 불안감이 엄습해들었다.
철룡은 의자를 뒤로 밀어버리고는 벌떡 일어섰다. 굽실굽실 흘러내린 처녀의 윤나는 머리가 가까이에서 향기를 풍겼다.
《우리 집에 가고싶어?》
미혜는 머리를 끄덕였다.
《걱정말아요. … 얌전하게 굴게요.》
철룡은 처녀의 따뜻한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때 출입문이 열리고 미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자느냐?》
둘은 화닥 놀라 물러섰다. 미혜는 황황히 복도로 뛰여나갔다.
《아이, 엄마, 어떻게 이런 밤중에?…》
《료양소에서 여기로 오는 차편이 있어서 떠났다.》
《거기 약수가 맞아요?》
《모르겠다. 꼴을 보려마.》
《얼굴이 좀 좋아진것 같은데요.》
《좋아지긴…》
미혜가 무엇이라고 귀속말로 속삭이는것 같더니 걸어들어오는 발자국소리가 났다.
보통아낙네들의 나들이차림처럼 수수한 치마저고리를 입은 리

명선이 방안에 꼿꼿이 서있는 철룡을 들여다보았다. 그는 놀라운 기색을 애써 감추면서 총각의 인사에 린색한 미소로써 대답했다.

《너무 늦었구만…》

그리고는 아무말없이 문앞을 지나 웃방으로 들어갔다. 미혜가 따라들어가 소곤소곤 변명하는 소리가 나더니 리명선의 신경질적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리해한다. 리해해…》

《승진아저씨 작품이 시사회에서 대절찬을 받았어요. 그래서 연출실에서랑 그 집에 다 모였더랬어요. 축하하러…》

《그래?… 그렇게 걸작이냐? 아유— 이제야 우리 영화계에 별이 드는 모양이구나… 료양소에서는 이제 돌아가면 사직해서 년로보장에 넘어가자고 마음먹었더랬는데…》

《엄마, 이런 때 왜 사직하겠어요. 그런 생각 말아요.》

철룡은 그자리에 엉거주춤 서서 등골에 식은땀을 느끼며 모녀의 이야기를 듣고있었다.

6

이튿날 아침, 수령님께 《광풍》을 올렸다는 소문이 온 촬영소안에 쫙 퍼졌으며 모든 사람들이 당중앙위원회로부터 기쁜 소식이 오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그날, 그 이튿날도 소식이 없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촬영소의 공기는 긴장되여갔다. 사흘째 되는날에도 감감 소식이 없자 마음이 누긋하지 못한 사람들은 벌써 불안감을 드러내놓고 여러가지 억측들을 하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들은 아마 위대한 수령님께서 다른 중대한 사업때문에 아직 영화를 보시지 못했으리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말하기까지 하였다.

총장과 당비서는 당중앙위원회에서 영화부문을 맡아보고있는 박경섭의 방에 자주 전화하였는데 그는 방에 없고 지도원이 나와 좀

기다리라는 한가지 대답만 되풀이하였다.

그래서 총장,당비서를 비롯한 촬영소의 적지 않은 일군들과 예술인들은 모두 번열이라도 나는듯 목단추를 끄르는가 하면 넥타이끈을 늦추고 담배를 피우며 방안을 서성거리기도 하고 자동차소리만 나도 긴장된 눈빛으로 창밖을 내다보군하였다.

연출실의 공기는 부연출 한기석이 부산을 피우는바람에 더욱 긴장해졌다. 그는 진정을 못하고 교환실에 당중앙위원회에나 문화성으로부터 전화가 온것이 없는가 알아보기도 하고 부총장실에 뛰여갔다와서 아직 아무런 소식도 없는것 같다고 전하였다.

최승진은 자기 부연출이 그러거나말거나 개의치 않고 안락의자에 몸을 깊숙이 파묻고 앉아 연출대본을 펼쳐들고 한장면한장면 검토해나갔다. 그는 때로는 눈을 지그시 내리감고 재간있게 생긴 두툼한 손으로 턱을 만지작거리며 무슨 생각을 집요하게 쫓기도 하고 때로는 허공의 한점을 멍하니 지켜보다가 소리없는 한숨을 조용히 내쉬기도 하였다.

로영무는 로숙한 예술가의 감각과 관록있는 경험자의 촉감으로 벌써 모든것을 짐작하고있는듯 안정이 깃든 침착한 얼굴로 자기일을 묵묵히 해나갔는데 어떤 때는 그것이 집단에 대한 랭담성으로 보여지기까지 하였다. 한기석에게는 물론 강철룡에게까지 그의 침착성이 언짢아졌다.

로영무도 마음속으로는 불안하지 않을수 없었으나 작품이 나간 뒤의 이와 같은 불안감을 작가나 예술집단의 숙명으로 받아들이고있는것이였다. 그의 생각에 의하면 이런 불안감은 작품에 쏟아부은 작자의 열정과 노력,그의 책임감,량심,나아가서는 재능에 상당히 정비례되는것이였다. 참된 재능을 지니지 못한 작자는 이런 불안감의 남모르는 고뇌를 모르고 살며 예술창조를 자기 공명이나 립신양명,치부의 수단으로 리용하는 자본사회의 돈벌이예술가들한테는 매소부의 철면피성만 있을뿐 불안감이란 있을수 없는것이였다. 그는 성실한 예술가의 이런 불안감은 그의 인격을 형성시켜준다고도 생각했다. 지금 로영무는 그래서 참고 기다리면서 이 긴장된 시간에 침착하게 앉아 연출대본을 검토하고있는 최승진에게

격려와 동정의 눈길을 이따금 보내는것이였다.

최승진에게는 연출대본의 글줄들이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촬영과정에 있었던 이러저러한 일들만 착잡하게 눈앞에 어른거리였다. 창조의 열정으로 충만된 배우들과 찬조출연자들이 추위에 우들우들 떨며 바다물로 뛰여들어가 《시체》들로 되여 파도우에 떠오르던 일, 항구의 창고들을 휩쓰는 불길… 촬영가가 실감있는 장면을 촬영하려고 연기와 불길속으로 뛰여다니던 일, 군마에서 날아떨어진 《기마경찰》이 다리를 상하여 병원에 실려가던 일, 촬영을 위하여 렬차의 차량들을 밀어오던 일… 거리로 물결쳐나오던 수천명의 군중들… 문득 위대한 수령님께서 정치위원들을 데리고 촬영소에 나와 정치위원회를 여시여 영화문제를 토의하시였던 일이 떠올랐다. 그때 최승진은 난생처음으로 정치위원회에 방청으로 참가하였는데 회의가 끝난 다음 수령님께서는 그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며 좋은 영화를 만들어달라고 고무하여주시였다. 만약 수령님께서 영화를 보시였다면 자막에서 연출자가 누구이라는것을 인차 알아보시였을지도 모른다. 눈굽이 저려났다.

사흘이 지나도 소식이 없자 촬영소의 예술부서들에서 영화의 성공에 대한 아리숭한 의혹과 함께 개별적인 형상세부들을 두고 이런저런 불만의 소리들이 돌아가기 시작했다. 주인공의 성격이 너무 왈패처럼 그려졌다느니 로동청년인 주인공이 일본에서 건너온 인테리출신 공산주의자한테서 교양받는것이 어딘지 모르게 부자연스럽다느니… 의견은 구구했다.

무슨 볼일로인가 미술실에 갔다온 강철룡이 흥분된 얼굴로 방에 들어와 몇몇 미술가들이 영화가 총체적인 인상에서 조선맛이 적게 난다고 했다는 소리를 전했다.

《화면구도와 촬영각도! 편집기교에서 조선식이 아닌것이 많다는거요.》

한기석이 의자를 소리나게 밀어놓으며 뛰쳐일어나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누가 그러던가? 도대체 누가 그런 소릴 해? 무얼 좀 새롭게 시도하면 인차 저렇게 나오니 어떻게 전진하겠는가? 동문 그런

소리를 듣고도 가만있었소?》

강철룡이 그가 밀어놓은 의자에 앉으며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건 미감문제요. 그렇게 느껴진다고 우려하는데 내가 무슨 소리를 하겠는가.》

《조선사람이 연출하고 조선사람이 촬영하고 조선사람들이 연기를 했는데 뭐가 조선식이 아니란 말인가. 내 미술실의 그 사이비 민족주의자들하구 좀 론쟁해봐야겠소.》

한기석은 미술실로 떠나려고 했다.

《기석이!》

최승진이 미소어린 얼굴로 그를 돌아보며 앉으라고 손짓했다.

《뭘 흥분해서 그러는가. 다 들어두라구.》

그는 매우 여유있는 몸가짐이였다.

7

정원에 덮인 눈이 오후의 따스한 해빛을 눈부시게 반사하였다. 겨우내 검푸른 빛이 더 싱싱해진듯한 정원수들에서 새들이 우짖고 그 우듬지들과 가지들에서 눅눅해진 눈덩이들이 부슬부슬 날아떨어지며 청신한 기운을 풍겼다.

현관앞에 서있는 칠흑색의 승용차곁에서 나이지숙한 부관장이 초조한 낯빛으로 팔목시계를 들여다보더니 정원길을 걷고계시는 두분쪽을 바라보며 한숨을 조용히 내쉬였다.

며칠전 서부지구의 탄전들을 현지지도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곧 수도의 지하철도건설장들을 돌아보실 계획이였다. 지하철도건설은 수령님께서 매우 깊은 관심을 돌리시는 건설대상이였다. 그이께서는 일찌기 수도의 교통문제를 풀기 위하여 지하철도건설을 발기하고 그 건설과정을 친히 지도해오시였는데 이 겨울에는 귀가 얼어드는 추운 날씨에 뻐스정류소에 줄을 선 시민들을 띄여보면 여느때없이 가슴아파하시며 지하철도건설을 다그쳐야 하겠다고

거듭 간곡히 강조하시였던것이다.

년세가 드실수록 인민들에 대한 사랑이 더 지극해지고 인민들의 불편을 보고 참지 못하며 그것을 풀기 위해 점점 왕성해지는 정력으로 사업하는 그이시였다. 그런데 계획한 날자에 지하철도건설장으로 나가지 못하였으며 오늘도 떠났으나 깊은 심려에 잠겨 시간이 가는줄도 모르신다.

이 모든것이 광폭예술영화 《광풍》때문이였다.

방한모를 쓰시고 외투를 입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근엄한 안색으로 천천히 걸음을 떼시였으며 반솜외투를 입으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두손을 앞에 모아쥐고 심각한 얼굴로 곁에서 걸음을 옮기시였다.

《오늘 아침 다시 봤는데 영화가 아주 잘못되였습니다!》

수령님의 우렁우렁한 음성이 정원공기를 흔들었다.

《좀 너그럽게 봐주자고 여러모로 생각해봤지만 별수 없습니다. 원칙적인 문제가 다 잘못되였거든, 원칙적인 문제가… 주인공이 로동계급인데 어째 저렇게 형상했는지. 처음부터 마감까지 왈패, 싸움군이요. 주먹깨나 쓰고 완력이 센 사람이 혁명가로 되는것처럼 그렸거든. 중산층에 속하는 인테리녀성을 터무니없이 변절시켜 타락의 시궁창에 구겨박은것도 잘못입니다. 영화에서는 공산주의 사조가 일본에서 건너와 보급된것처럼 그렸는데 우리 혁명력사에 대한 이런 외곡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내 생각에는 로동계급의 형상… 로동계급이 이끌어나가야 하는 중산층문제… 혁명사상의 보급문제… 이런 원칙적문제들이 잘못 설정되고 잘못 처리되였습니다. 원작과 영화문학의 결함때문이겠지만 연출가가 우리 인민들의 사상감정에 맞지 않게 영화형상을 했기때문에 작품이 더 망쳐졌습니다. 어떤 대목에서는 서양영화를 보는것 같습니다. … 촬영소동무들은 다 좋다고 했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런것 같지도 않습니다. 이상해서 지난밤 알아보니 근본적인 결함은 짚어내지 못했지만 주인공의 연기형상 등 여러가지 문제에서 의견들이 적지 않습니다.》

《연출가를 잘 도와서 영화를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최승진동무는 좋은 영화를 많이 만든 동무가 아닙니까. 얼마전에도 그가 만든 예술영

화를 보고 잘 만들었다고 칭찬해주었는데… 참 아쉽게 되였거든…》

《우리 나라에서 제일 크다고 할수 있는 연출가입니다. 공로 있는 동무입니다.》

《그런 동무가 왜 갑자기 이런 영화를 만들게 되였습니까? 문화성에서 잘 도와주지 못한것 같습니다. 문화성에서 누가 이 영화제작에 관계했습니까?》

《서영림부상이라고 합니다.》

《서영림부상이?》

《당중앙위원회에서 영화부문을 맡은 박경섭동무는 그때 중앙당학교 재직반에 가있었지만 대본을 보고 서부상에게 의견을 줬는데 서부상이 그 의견을 소홀히 대한것 같습니다.》

수령님께서는 뒤짐을 지고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가시였다.

《지난밤에는 광복직후의 일들이 생각나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작가,예술인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여 문학예술인대오를 꾸렸댔습니다. 그때 그들의 처지란 참 기막혔지. 그들에게 옷도 해입히고 식량사정이 매우 어려워 우리는 잡곡밥을 먹으면서도 예술인들에게는 백미 한가마니 혹은 두가마니씩 보내주었소. 우리가 어떻게 키워온 예술인들이요. 비록 창작에서 엄중한 과오를 범했지만 그들을 아껴야 하오. 빨리 과오를 시정하도록 당에서 잘 보살펴줘야 하겠습니다.》

《수령님!》 하고 **김정일**동지께서는 타는듯한 눈길로 그이를 우러러 쳐다보시였다.

《너무 걱정 마십시오. 제가 책임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이윽고 수령님께서 타신 승용차는 현관앞을 떠나 정원길로 서서히 미끄러져나갔다.

키높이 자란 정원수들의 우듬지에서 새들이 날아오르고 눈가루들이 폭포수의 비말처럼 뽀얗게 흩어지면서 날아내렸다.

은빛으로 반짝거리는 눈가루들의 장막저쪽에 승용차의 자태가 사라지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심각한 안색으로 팔목시계를 보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이 아침에도 영화때문에 계획된 시간에 지하철도건설장으로 떠나시지 못하고 45분남짓 지체하게 되시였다.

45분！ 잃어진 이 45분을 무엇으로 보상한단말인가！ 이 지체된 시간때문에 이제는 빈틈없이 맞물린 하루사업들이 일정보다 45분씩 혹은 조금씩 드티여지게 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심각한 의혹이 가슴에 엄습해들어 고요가 깃든 정원길에 그냥 서계시였다. 어떻게 당정책에 심히 어긋나는 그런 문제들이 작품에 설정되였고 그것들이 누구한테도 걸리지 않고 무난히 통과되여 영화로 형상될수 있었는지 그리고 영화가 나오자 모두 희세의 걸작이 나온것처럼 그토록 떠들게 되였는지… 이것은 한 연출가, 한편의 영화작품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것 같았다. 영화예술, 더나아가서 문학예술전반에 좋지 못한 바람이 분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지시였다. 그이께서는 이 문제를 두고 그날 생각을 거듭하시다가 깊은 밤중에 촬영소로 나가시였다. 당직을 서던 한 일군이 황황히 달려나와 인사를 드리고 총장동지랑 무슨 소식이 있겠는가 속을 태우며 기다리다가 방금전에 퇴근하였다고 말씀드렸다.

눈이 내렸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누구도 불러내지 말며 동무도 들어가 근무를 서라고 이르시고는 정적이 고즈넉이 깃든 촬영소뜨락으로 천천히 걸어들어가시였다. 날아내리는 함박눈송이들이 그이의 얼굴을 산뜻산뜻 스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광복직후 여기 양말공장자리에 촬영소를 꾸려주신 일이며 힘들게 시간을 내여 영화예술인들을 만나주신 일, 친히 정치위원들을 거느리시고 촬영소에 나와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확대회의를 열고 영화예술발전의 앞길을 밝혀주신 일들이 가슴뜨겁게 안겨왔다.

눈은 하염없이 내렸다.

그날밤 **김정일**동지께서는 끝없는 생각에 잠겨 회의가 열렸던 건물앞을 오래도록 거니시였다. 눈속에 찍히는 그이의 발자국마다에 무거운 마음이 가득가득 고이는듯하였다.

×

이튿날 아침 **김정일**동지께서는 전화로 박경섭을 부르시였다.

이윽고 출입문이 열리며 박경섭이 아니라 며칠전에 방한모를 부탁한 재정경리부의 젊은 일군이 들어왔다.

그는 너부죽한 얼굴에 어줍은 미소를 그리며 다가와 손에 들고온 로인용털모자를 응접탁모서리에 올려놓았다.

《일전에 부탁하신건데 아무리 골라봐야 이것이 제일 나은것 같습니다.》

그것은 재빛이 연하게 도는 양털모자였다.

《고맙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털모자를 들어올려 부드러운 귀덮개털을 쓸어만져보시였다.

《로인들이 쓰면 풍채도 있어보이고 아주 뜨뜻하겠습니다.》

《그런데 맵시가 좀…》

《추위속에서 맵시를 보겠습니까. 수고했습니다.》

그 일군은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는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방에서 나갔다.

그이께서는 올겨울 여느때없이 백두산의 장엄한 설경이 그리워나고 백두밀림의 사적지들도 돌아보고싶어 어떻게나 여가를 내여 그쪽으로 가시려고 은근히 설레이는 가슴으로 그 차비를 하시였던것이다.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대한 그이의 그리움은 때없이 찾아드는 뜨거운 감정이였다. 털모자는 일찌기 그이와 가까와진 청봉숙영지의 사적지관리원아바이한테 선물로 가져갈것이다.

그 관리원아바이는 옛날 리명수목재소 로동자였는데 한때 항일유격대의 로획물자를 지고 깊은 후방밀영에까지 갔다온 일이 있는 로인이였다. 몇해전 로인은 청봉을 찾으신 그이의 손을 잡고 자기는 이 사적지를 지키다가 여기 가까이에 묻히는것이 소원이라고 하였는데 그 말이 인상에 남아 잊지 못하시는 백두밀림의 이름없는 초병이였다.

(영화때문에 또 미루게 됐군…)

그이께서는 아쉬운 마음으로 털모자를 서류장속에 넣어두시였다.

박경섭이 들어왔다.

키가 보기 좋게 크고 용모가 준수한 그는 부르신까닭을 벌써 짐작한듯 긴장된 얼굴로 인사를 드렸다.

당중앙위원회에서 여러해 사업한 그의 행동거지에는 나무랄데가 없고 세련된 당일군의 단정한 기품이 느껴졌다.

박경섭은 지난 세월 가난탓에 문학예술의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으나 광복후 군대에서 군중문화사업을 한 일도 있고 사회예술단체들에서 조연출을 걸쳐 연출가, 예술지도일군으로 성장하여 다년간 사업했으며 진지한 독학으로 영화는 물론 문학예술의 모든 부문에 조예가 있는 일군이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일찍부터 그를 깊이 믿으시였으며 그도 또한 그이께 충성다하려고 애써왔었다.

그이께서는 박경섭이와 응접탁을 사이에 두고 마주앉아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촬영소에서는 요새 무엇을 하고있습니까?》

박경섭은 여전히 긴장된 얼굴로 대답하였다.

《두개 제작단이 전쟁물과 반간첩물 영화를 찍고있습니다. 〈광풍〉을 만든 제작단은… 그 동무들뿐만아니라 총장, 부총장들, 온 촬영소가 수령님의 교시를 기다리고있습니다.》

《영화예술인들속에서 요새 그 영화에 대한 다른 반영은 없습니까?》

《주인공의 형상이 과장돼서 진실하지 못하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어째 모두 그처럼 환성을 올렸습니까?》

《형상수법에서 보지 못하던것들이 있고 또… 연출가에 대한 환상이 크게 작용한것 같습니다.》

《음…》

김정일동지께서는 머리를 무겁게 끄덕이시였다.

《수령님께서 영화를 보셨습니다.》

《보셨습니까?》

박경섭은 순간에 얼굴빛이 밝아지며 몸을 움쭉 앞으로 내밀기

까지 하였다.

《수령님 의견도 우리하고 같습니다.》

그이께서 수령님의 교시를 전달하시였다.

박경섭은 사업수첩을 펼치고 속필로 받아썼다. 그의 이마와 코등에 어느덧 식은땀이 내배였다.

교시의 구절구절들은 영화의 본질적인 결함을 밝혀내며 준절한 경종의 울림처럼 그의 가슴을 뒤흔들었다.

박경섭은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눈에 물기가 떨었다.

《제가 일을 쓰게 못했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영화예술인들이 아니라 마치도 자신이 실책을 범하신듯 괴로운 안색으로 앉으라고 손짓하시였다.

《눈물을 흘리며 참회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경섭동무도 아다싶이 우리 수령님께서야 언제나 예술인들이 만든 작품들을 얼마나 너그럽게 보아주시였습니까. 좀 잘되여도 크게 치하해주시며… 그런데 이번에는 너무 결함이 엄중하기때문에 이렇게 지적하시며 깊이 우려하셨습니다. 이 영화의 결함들이 시사하는 문제들은 모두 보통것이 아닙니다. 심상치 않은 정치적, 사상적, 예술조류상의 배경이 엿보이기때문에 우려되는것입니다.》

박경섭은 심각한 눈빛으로 그이를 우러러 쳐다보았다.

《어떻게 이런 영화가 나올수 있었는가,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밝혀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병집을 수술하고 영화예술을 구원할수 있습니다. 동무는 우선 촬영소에 나가서 수령님의 교시를 전달해야 하겠습니다.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료해사업은 촬영소당조직에 철저히 의거해서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예…》

박경섭은 목안에 재가 찬듯하여 가까스로 대답하였다.

촬영소로 정신없이 달려나간 박경섭은 시사실에 총장, 부총장들, 예술부서와 기술부서들의 책임자들과 《광풍》제작단 창조성원들을 모아놓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전달하였다. 장내는 물을 뿌린듯 조용했다.

교시전달이 끝나고 박경섭이 교시사본을 서류봉투에 넣는데도 사람들은 자리에 얼어붙은듯 움직이지 못하고 그만을 지켜보았다. 난감해진 눈, 자책의 빛이 어린 눈, 의혹에 찬 눈, 의문이 타오르는 눈, 눈, 눈…

객석복판쯤에 로영무와 나란히 앉아있는 최승진이만은 고개를 떨구고있었다.

박경섭은 연탁을 떠나 통로를 따라서 그에게로 다가갔다.

《승진동무!》

최승진은 얼굴을 들고 흐려진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그의 관자노리로 한가닥의 땀발이 흘러내리고있었다.

《총장실로 갑시다.》

《예?》

《총장실에 가서 좀 이야기합시다.》

최승진은 그 말이 마치도 구원의 소리이기도 한듯 반사적으로 일어났다.

박경섭이 그를 데리고 통로를 따라 걸어나오자 갑자기 사람들이 의자소리를 요란하게 내며 일어나서 통로쪽으로 우르르 밀려나왔다. 수군거리는 소리, 핀잔의 소리, 짜증내는 소리… 박경섭에게는 그 소리들이 모두 언짢게 들렸고 고개를 수긏하고 따라나오는 최승진에게 동정이 갔다.

총장실로는 총장과 당비서만 따라들어왔다.

모두 응접탁둘레에 자리를 잡자 박경섭은 곁에 앉은 최승진에게 부드럽게 일렀다.

《이런 때일수록 의지를 가져야 하오. 창조사업에서 엄중한 과오를 범했지만… 과오야 고치면 되지 않겠소. 고치자면 우선 과오의 원인을 똑똑히 찾아야겠소.》

최승진은 고개를 떨군채 말이 없었다.

《용기를 내야 하오. 용기를 내서 과오의 원인을 찾아내고 대담하게 고쳐야 하오.》

최승진은 마른침을 삼켰다. 응접탁을 사이에 두고 마주앉은 주영도비서가 눈을 쪼프릴사하고 그를 지켜보며 한손으로 억세게

생긴 턱을 슬슬 쓸어만지고있었다. 그러다가 갑갑증이 나는듯 몸을 뒤로 젖힐사하며 주먹으로 응접탁가녁을 조용히 다독이였다.

박경섭은 그를 흘깃 돌아보고는 말을 이었다.

《**김정일**동지께서도 몹시 심려하고계시오.》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최승진은 갈린 목소리로 겨우 말하였다.

박경섭은 당장 그에게 무엇을 더 캐여묻고싶지 않았다. 그래서 먼저 교시를 깊이 연구하라고 이르고는 방에서 내보내였다.

최승진이 밖에 나오니 현관앞에서 로영무와 마주서서 수군수군 이야기를 나누던 리명선이 어깨에 걸친 밤빛 머리수건자락을 날리며 달려와 손을 꽉 잡아쥐였다.

《승진동무, 너무 상심말아요.》

최승진이 고맙다고 머리를 숙여보이고 발걸음을 떼려는데 리명선은 그의 손을 놓아주지 않았다.

영화예술에 한생을 바친 녀배우의 파리한 얼굴에 경련이 이는듯하였다.

《총장실에 들어가니 뭐라고 그래요?》

《…》

《료양소에서 돌아오니 미혜가 명작이라고 떠들어 이제야 우리 동네에 별이 드는가 했는데 아이참, 기막혀… 곁에선 모두 눈들이 멀었던가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 작품을 봐줬더라면 이렇게야 뒤집히겠어요?》

로영무를 빗대놓고 하는 소리 같았다.

로영무는 얼굴이 벌개져서 먼 하늘가만 덤덤히 바라보고있었다.

《아니… 아닙니다. 다 제탓입니다.》

그 녀자의 눈에 물기가 핑 돌았다.

그날도 최승진은 로영무와 나란히 퇴근하였다.

정문을 벗어나자 최승진은 무서운 의혹에 사로잡혔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생겼는가? 시사회때 모두가 영화가 좋다고 열광적인 박수갈채를 보내지 않았는가. 나는 그렇다치고 사람들이 모두 도깨비한테 홀렸거나 무슨 열병에라도 걸려 미친사람처

럼 건전한 리성을 다 잃고 판단력도 죄다 마비되였단말인가. 총장은?… 부총장들은?… 시사회때 터져올랐던 박수갈채소리가 먼 지평선으로 사라지는 바람의 울부짖음소리처럼 아리숭하게 들려오고 피로움에 뛰노는 심장의 박동소리가 머리속에 쿵쿵 메아리쳤다. 막연한 수치감에 얼굴이 화끈거렸다. 자기 집에서 차렸던 주연, 행복감에 도취되였던 안해, 성공자의 의젓한 자세로 늘어놓았던 추억담… 아,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나는 어리석어 그랬다치고 사람들은 왜 그토록 몰랐는가고 묻고싶었다. 절찬의 상상봉에서 참패의 나락으로 굴러떨어진 그는 이 모든것이 꿈만 같기도 했다.

로영무는 외투주머니에 두손을 찌르고 그림자처럼 말없이 따라오고있었다.

《시사회때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소?》

최승진이 문득 걸음을 멈추며 물었다.

《…》

로영무는 슬픔에 젖은듯한 음울한 눈으로 그를 지켜보다가 어딘가 다른데로 눈길을 돌렸다.

《전혀 결함을 느끼지 못했댔소?》

《…》

로영무는 대답을 못했다. 대답을 못하는지 회피하는지 알수 없었다.

최승진은 그 누구에게 향한것인지도 알수 없는 원망과 울분으로 가슴이 끓어번졌다.

그는 목소리가 떨렸다.

《그때 어째서… 어째 이 작품을 내놓았댔소? 그때 무엇인가 느낀게 아니요? 로형이 그때 몇마디만 일러줬다면… 내가 아무리 교만한 놈팽이라도 그 의견이야 소홀히 대했겠소.》

《이모저모로 죄송하네.》

그 소리가 야멸차게 들렸다. 한생의 우정을 배신한 비량심의 넉두리처럼 들렸다.

《좋소!》

그는 주먹으로 공기를 내리치고는 어디라없이 결패스럽게 걸

어나갔다. 이마로 흘러내린 머리칼이 눈앞에 흩날렸다.

뒤에서 동지도 벗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목소리가 다급히 울렸다.

《여보게! 승진이… 승진이!》

그는 자기 마음에 휘감겨드는 그 부르짖음소리를 뿌리쳐버리듯 활개를 세차게 저으며 어둠속으로 걸어나갔다. 걷다가 뛰였다. 눈에 덮인 들판이 바다처럼 설레이며 달려오는듯했다. 귀전에 울리는 바람의 비명소리… 기겁하여 비켜서는듯한 나무와 전주… 발길에 채워 날아오른 눈가루들이 가슴노리를 적시였다. 낮에 시사실에서 본 사람들의 표정들이 언뜻언뜻 떠올랐다. 시사회때 그처럼 열광적인 박수갈채를 보냈던 그들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듯 랭랭한 얼굴로 그를 외면했다. 분명히 그랬다. 기술부문의 어떤 일군은 수첩을 옆에 끼고 온화한 얼굴로 옆을 지나갔는데 그 표정은 자기네가 예술인들의 뒤전으로 밀려나 늘 빛없이 지내지만 이런 경란이 없어 살기는 괜찮다고 말하는듯했다. …

최승진은 걸음을 멈추었다. 허허벌판에 한동안 말뚝처럼 서있던 그는 갑자기 고개를 떨구며 소리없이 흐느꼈다.

(아, 나는 이렇게 고독한 인간이였던가. …)

그는 눈우에 쓰러져 가슴을 쥐여뜯으며 뒤채기였다. 그러다가 얼마후 번듯하게 누워 멍한 얼굴로 하늘을 쳐다보았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했다.

하늘도 그 하늘이고 별들도 예나 다름없는 그 별들이였다.

제 2 장

1

살을 저며내는듯한 맵짠 바람속에서 예술인들은 머리칼이며 목도리자락이며 옷깃을 날리며 부업작업을 하고있었다.

촬영소의 뒤동산에 펼쳐진 과수원과 근처의 협동농장포전결에 있는 남새밭이 영화예술인들의 식생활에 괜찮은 보탬을 주는 부업밭이였는데 이때까지 그것을 가꾸는것은 부업경리의 혜택을 제일 많이 입는 예술인들이 아니라 후방부서와 기술부서의 종업원들이였다. 그러나 그들은 이에 대하여 한번도 이상하게 여긴적이 없었다. 예술부서들의 예술창조사업을 뒤에서 보장해주는것이 자기들의 본분이라는 관념에 오래동안 젖어있었기때문이다.

그런데 며칠째 연출실과 배우단을 비롯한 예술부서의 유명짜한 연출가나 촬영가, 배우들이 몸에 붙지 않는 작업복을 입고 밀려나와 흙을 져나르고 퇴비들을 메여나르게 되자 그 무던한 근로자들의 심리에 뜻밖의 파문이 일었다. 그들은 우선 저들이 제발 좋은 영화만 만들어줍시사 하고 이때까지 힘들게 부업농사를 지어 철에 따라 갖가지 남새며 과일들을 섬겨바치고 별의별 지성을 다해왔는데 그것이 모두 허사였구나 하는 생각과 아울러 가슴가슴에 분한 마음이 차올랐던것이다. 그래서 성미가 마른 어떤 사람은 이때까지 호강을 했으니 이제는 두엄도 좀 주물러보라고 그들을 본체만체하였으나 적지 않은 사람들은 참 안됐다고 여기며 앞을 다투어 그들의 일손을 도와나섰다.

헌 작업복을 팽팽하게 껴입은 최승진은 삽을 들고 작업장에 나선 첫순간부터 자기에게 쏠리는 종업원들의 시선에서 그 모든 심리를 읽을수 있었다.

마음이 괴로왔다. 자기탓에 모두 종업원들의 눈총까지 받게 되였다고 생각하니 사람들을 쳐다볼 면목도 없었다. 그래서 눈길을 떨구고 사람들뒤에 우두커니 서있다가 작업지시에 순순히 응하였다.

연출실에서는 인원을 세개의 조로 나누어 한조는 양지쪽 산비탈에서 언 땅껍질을 벗기고 부식토용흙을 파냈으며 다른 한조는 그 흙을 과수밭에 운반해다가 장방형으로 무져놓고 세번째 조는 두엄물을 날라다가 그우에 뿌렸다.

최승진은 로영무와 함께 흙을 파내는 조에 속하여 삽으로 산비탈의 눈을 대충 치고는 언 땅을 파제끼였다. 땅은 눈속에 묻혀있은탓에 얼마 얼지 않았다. 그는 물씬 풍겨오르는 땅김을 한껏 들이키며 발로 눌러 삽날을 깊이 박아 검고 누누한 흙을 푹푹 파올려 옆에 두두룩하게 무져놓았다. 그리고는 헐썩거리며 뛰여다니는 운반조의 질통이나 들것에 맞춤하게 담아주군하였다.

맵짠 바람이 얼굴을 스칠 때마다 눈안이 아릿해지며 앞이 어른어른 흐려졌다. 그는 자주 손등으로 눈물을 빗씻고는 다시 삽질을 하였다. 허리가 끊어져나가는듯 아파났다. 손등이 벌겋게 얼어들고 손가락들이 꽛꽛해졌다. 손과 손을 어기갈라 비비고는 삽질을 계속하였다.

로영무도 허리가 아픈지 삽자루를 짚고 엉거주춤 서서 숨을 돌리다가 그를 돌아보았다.

무슨 말인가 건네고싶어하는것 같았다.

최승진은 못본척하고 삽질만 계속했다.

이 며칠사이 그하고 스스럼없는 말을 주고받아본적이 없었다. 한생의 벗이였던 그가 지금은 자기와 운명도 다르고 인연도 아주 먼 사람으로 느껴진다.

《승진동무, 들어가라구.》

최승진은 그 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예술부서들에서 영화에 대한 불만의 소리들이 흘러나올 때 배포유한 태도를 유지하고있었지만 속은 은근히 켕기였는데 수령님의 교시를 전달받자 눈앞이 아뜩해지며 자기가 심각한 과오를 범하였다는것을 비로소 깨달았다.

주먹으로 가슴을 두드리고싶었다.

그후 연출실에서는 하나같이 작품의 결함을 랭혹하게 비판하였다. 시사회가 있은 날 축하하러 집에 찾아왔던 사람들까지도… 쌀쌀하게 외면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마치도 촬영소의 명예와 영화예술을 망쳐놓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그런 죄행을 저지른듯이… 그것이 억울하고 분했다.

최승진은 《광풍》의 영화문학을 읽었을 때 로동계급인 주인공의 거치른 성격에 매혹되였으며 중산층의 인테리녀성을 타락시킨것도 새롭고 대담한 설정이라고 생각하였으며 극성이 아주 강한 영화를 만들수 있다고 흥분하였다.

그는 세계적인 명작을 만들고싶었다. 광폭예술영화 《광풍》으로 프랑스와 이딸리아 등 이른바 《문명국》들의 영화들을 누르고 조선영화예술의 위용을 세계만방에 떨치고싶었다.

불같은 경쟁의식에 사로잡힌 그는 침식을 거의 잊다싶이하며 형상작업에 몰두하였다.

하지만 오늘은 어느 누구도 그런 진심을 알아주지 않는다. 자기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있는 로영무마저도 그런 소리 한마디 입밖에 내지 않는다. 너무도 야속했다. 노여웠고 분했다.… 사람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니며 자신이 그런 진심을 하소하고싶은 생각도 없지 않았으나 그것은 부질없고 어리석은 일인것 같았다.

그는 고독감에 신음하였다.

끼니마다 밥이 아니라 재를 씹는것 같았다.

안해의 다심한 위로도 그 고독감을 덜어주지 못하였다.

윤희는 그보다 더 속이 너르고 대범한 녀자인것 같았다. 처음에는 얼굴이 파랗게 질려 눈물도 짓지 못하였는데 인차 웃는 얼굴이 되여 세상에는 별의별 큰 과오를 범하고도 그것을 용감하게 고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뭘 그렇게 심하게 생각하느냐고 하면서 더 상냥스럽게 굴었다. 저녁마다 식사를 몇숟가락 들지 못하면 밥상곁에 지켜앉았다가 반주를 따라주며 조금만 더 들라고 하면서 항간에 돌아가는 우스운 이야기랑도 도란도란 하여주었다. 아침 출근시간에는 사람들을 만나기 면구스러워 남들보다 좀 일찌기

집을 나서는 그를 따라나와 가방을 들고 멀리까지 바래워주었다. 윤희가 눈물겹도록 고마왔다.

그는 젊은 안해의 갸륵한 지성에 마음의 의지가 되면서도 그런 지성에 량심이 더 저려났다.

차거운 바람이 얼굴을 스치였다.

(아, 오늘에 와서 누가… 누가 내 진심을 알아주겠는가! …)

그는 자기한테서 아끼고싶은것이 없었다. 자기 육체도 한껏 학대하고 기운도 마구 탕진하고싶었다. 그래서 정신없이 삽질하였다.

갑자기 뇌리를 무엇이 후려치는듯한 느낌과 함께 눈앞이 캄캄해지고 그 어두운 공간속에서 노란 반점들이 부나비들처럼 날아돌았다.

그는 손등으로 눈을 비비적거리고 누구들인가 달려와서 앞에 내려놓는 들것에 흙을 퍼담았다.

《챠, 손잡이에 흙을 뿌리면 어쩝니까?》 힐난조의 목소리이다.

눈을 슴벅거리며 여겨보니 회색작업복차림의 한기석이 벗어쥔 로동장갑으로 들것채에 뿌려진 흙을 신경질적으로 털어내고있었다.

최승진은 자기앞에서 늘 곰상스럽게 굴던 그한테서 거치른 소리를 듣자 아연해졌다.

그의 짝패인 강철룡이 다가와서 삽자루를 잡았다.

《주십시오. 제가 담겠습니다.》

《괜찮소, 괜찮소.》

최승진은 그를 뿌리치고 기운껏 삽질을 하였다. 그는 눈을 똑바로 뜨고 들것을 겨냥하여 흙을 뿌려던졌다. 삽날에서 뿌리워나간 흙은 희부연 김같은것을 날리며 들것으로 어김없이 날아떨어졌다.

한기석과 강철룡이 들것을 들고 떠나가자 그는 삽을 세워짚고 괴로운 눈빛으로 뚱기적거리며 걸어가는 그들의 뒤모습을 지켜보았다. 뒤에 선 철룡은 끄떡없이 걸어갔으나 앞에 선 한기석은 힘에 부치는지 자주 비칠거린다. 흙을 똑바로 담으라고 소리친 그의 힐난조의 목소리가 그냥 가슴속에서 메아리치는듯하였다. 한기석은 요새 그의 곁으로 가까이 오지 않았다. 승진을 돌아보는 눈길에서는 원망의 빛이 느껴졌다. 이따금 건네는 말에서도 쌀쌀한 기

운이 풍겼다. 작품의 참패는 전도유망하고 포부가 원대하며 지향성이 강한 그에게 큰 타격으로 되였을것이다. 그러니 피끓는 가슴에 어찌 원망이 사품치지 않겠는가.

최승진은 그의 말을 탓한데 대하여 인차 수치심을 느꼈다.

그가 시름겨운 한숨을 내쉬고 삽질을 다시 시작하려는데 주영도비서가 작업장에 나타났다.

흑곤색작업복저고리를 양복우에 걸친 그는 작업장에 한벌 깔려 일하고있는 예술인들과 종업원들을 둘러보다가 연출실에서 흙을 파내는데로 성큼성큼 걸어왔다.

최승진과 로영무를 비롯한 몇명의 연출가들과 부연출들이 그에게 인사를 하자 주영도는 《수고들 합니다!》 하고 걸걸한 목소리로 대답하였다. 그리고는 최승진과 로영무가 서툴게 뚜져놓은 흙구뎅이를 살펴보고는 너그럽게 웃어보였다.

《허, 이건 군대들의 개인전호같습니다. 좀 넓게 파야 일하기도 헐하지 않겠습니까.》

그는 눈속에 꽂혀있는 괭이를 들고와서 눈어림으로 흙구뎅이 둘레를 살펴보더니 손바닥에 침을 뱉어 썩썩 문질렀다. 그리고는 제일 굳게 얼어붙은데부터 내리찍기 시작했다.

그의 괭이질솜씨는 여간 걸싸고 재치있는것이 아니였다. 그는 괭이날끝으로 언 땅바닥을 톡톡 건드려 밑에 돌같은것이 없는가 가늠해보고는 괭이를 머리우에 높이 쳐들었다가 힘껏 내리찍군하였는데 몇번 안찍어 기와장만한 언땅쪼각이 떨어져나왔다. 그가 끙끙 힘을 주며 괭이를 내리찍을 때마다 그 울림에 딛고선 땅바닥이 떨리고 어떤 때는 괭이날이 돌쪼각같은데 부딪쳐 부시라도 치는듯 불꽃이 날리였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들고 한기석이와 강철룡이도 달려와서 그의 괭이질솜씨를 구경하였다.

주영도는 자기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드는것이 기쁜듯 벌겋게 상기된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더 기운차게 언땅을 내리찍었다. 괭이날이 땅에 꽂힐 때마다 흙덩어리들이 뿌려나 둘러선 사람들의 바지가랭이를 치기도 하였다. 사람들은 그의 일솜씨에 경탄하여 게걸

음으로 주춤주춤 자리를 옮겨가며 지켜보았고 강철룡이 삽으로 흙버력들을 긁어냈다.

주영도는 심하게 언데를 다 뚜져놓은다음 괭이를 한 부연출에게 넘겨주고는 손수건을 꺼내여 불깃하게 상기되고 땀이 축축히 내밴 이마며 굵직한 목덜미를 훔치였다.

한기석이 눈을 빛내이며 그의 얼굴을 쳐다보다가 나직이 물었다.

《힘들지 않습니까? 야— 정말…》

《이따위것도 일이요? 한창시절에 로동할 때는 불앞에서 온종일 쇠메를 휘둘러두 힘든줄 몰랐소. 오래간만에 땀을 뽑으니 속이 다 시원해지는군. 육체로동만큼 신선한게 없다니까. 예술가들도 드문드문 육체로동에 참가하는게 좋소. 그래야 몸도 건강해지구 사상도 건전해지구… 모두 로동경험이라군 전혀 없는데다가 사회로동에도 잘 참가하지 않지. 그러니까 로동계급의 감정을 어떻게 알수 있겠소. 순 머리속으로 꾸미다나니 로동계급을 모욕하는 작품까지 만들어내게 되지 않았소? 기석동무 괭이질이랑 좀 해봤는가?》

《대학때 보통강호안공사에 나가 한달쯤 해봤습니다.》

《한달? 한달을 해가지구야 무슨 일을 손에 익히겠소. 로영무아바이는 전에 이런 궂은일에 손을 적셔봤습니까?》

오랜 예술가에게 《아바이》라는 농민투의 존칭을 붙이니 아리숭한 부조화와 함께 그 존재자체가 우습강스럽게 여겨졌다. 그래서 강철룡이를 비롯한 젊은 부연출들이 빙그레 웃는데 로영무는 허리를 펴며 진중한 얼굴로 그를 돌아보면서 공손히 대답했다.

《예… 예전에 서울서 고생할 때 좀 해봤습니다.》

《그거야 어느 고망년 얘기입니까. 듣기엔 댁에서 다리미를 고치거나 벽에 모다구를 박는 일까지 아주머니가 도맡아한다던데요.》

《아니 원 그건 공연한 소리우다.》

로영무는 어느덧 어조를 바꾸어 어리무던한 농사군과 같은 말투로 이야기하였다.

《모르겠는데요, 허허허…》

최승진은 퍼렇게 질린 얼굴로 사람들뒤에 서있었다.

주영도는 무슨 말을 건네려는듯 그쪽을 돌아보았으나 아무 소

리도 없이 그냥 발걸음을 옮겨 웃쪽의 작업장으로 걸어갔다.

최승진은 그런 외면이 자기 운명을 암시해주는듯싶어 가슴이 서늘하게 식어들었다.

×

부업경리작업장들을 다 돌아보고 자기 사무실로 돌아온 주영도는 작업복저고리를 벗어 구석쪽의 옷걸이에 걸어놓고는 응접탁에 마주 앉아 담배를 피워물었다. 모든 예술인들이 부업작업에 떨쳐나서 열성스럽게 일하는것을 보고나니 마음이 좀 가벼워졌다.

그는 촬영소가 사상예술적으로 엄중한 결함이 있는 영화를 만들어낸데 대하여 자기도 응당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당적인 추궁과 비판을 받을 각오도 되여있었다. 왜냐하면 그 영화의 제작자들이 거의 다 자기 당단체의 당원들이며 그들의 과오는 곧 자기 사업에서의 빈틈을 말해주기때문이였다.

그는 몹시 괴롭고 불안하였다. 오늘 당중앙위원회가 폭로비판하고있는 사상사업부문의 엄중한 과오와 영화의 결함이 깊이 련관되여있다는것을 깨달았으며 사상사업부문에 류포된 그릇된 경향이 촬영소의 예술창조사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는것을 깨달았기때문이다.

그런데 한가지 사실이 경계심을 불러일으켰다. 총장,부총장들,예술인들은 어떻게 되여 그런 작품이 모든 단위의 합평회들에서 통과될수 있었고 여러차례의 예술위원회들에서 지지를 받았고 나가서는 시사회에서 그토록 절찬을 받았는가 하는 문제에서 자기 비판적립장에 철저히 서지 못하고 그 책임을 우에만 미는것이였다. 당사상사업부문의 일부 그릇된 사람들이 머리를 180도 돌리라,혁명전통의 폭을 넓히라,전형성에 대하여 새롭게 인식하라고 하기때문에 그것이 당적인 요구인줄로 알고 맹목적으로 추종했다는것이였다.

주영도는 이 문제를 두고 깊이 생각해봤다. 우에서 그릇된 바람이 분것은 사실이지만 예술인들한테 사상적병집이 없으면 그토록

흔들렸겠는가. 평소에 그처럼 지능적이고 다감하고 예민한 예술인들은 갑자기 모두 어리숙한 둔자나 바보로 되여버린듯 멋을 모르고 맹종했다는 식으로 자기비판하는것이였다.

이런 요령에 부아가 난 주영도는 이번에는 그들의 사상적병집을 송두리채 드러내여 수술해버리리라 마음먹고 담화에서 자기사상감정을 철저히 검토할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자기 속을 다 털어놓고 만족스럽게 자기비판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는 가슴이 끓어번졌다. 예술인들이란 천하에 다루기 말째고 매끄러운 족속들로 여겨졌다.

주영도는 한생을 살아오면서 어느 한 시절,지어는 누구나 그 나이에 사랑에 빠지면 다 시인이 된다는 청춘시절에조차 예술의 어느 부문과도 자기 운명을 결부시켜 생각해본적이 없었다.

그의 리력서 경력란에는 로동생활경력과 당일군경력밖에 적혀있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가 원쑤들에게 피살된 다음 국가의 방조만 받을수 없어 직장에 나가 일하던 어머니가 앓아눕자 학교공부를 그만두고 아버지가 다니던 제강소에 들어갔다. 아버지의 동료들인 오랜 로동자들은 그를 무척 아끼고 사랑해주었다. 그는 거기서 게으름을 모르고 비지땀을 흘리며 일한 덕에 자기 앞처리를 하는 끌끌한 로동자로 자라났으며 아버지 동료들의 보증으로 입당하였다. 그다음엔 세포위원장을 거쳐 부문당위원장으로 사업했고 도당학교를 마치고 다시 제강소로 돌아와 직장분초급당위원장으로 일했다. 나라의 사회주의개조가 심화되고 도처에서 반혁명이 준동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도당과 당중앙위원회의 지도그루빠에 망라되여 함북도와 황해도를 비롯한 여러 지방들에 파견되였다. 그 파견지들에서 그는 계급적원쑤들에 대한 불같은 증오심을 품고 격동적인 연설과 갖가지 창발적인 활동으로 인민들을 궐기시켜 반혁명분자들을 적발폭로하였으며 그자들과 암암리에 결탁된 종파분자들의 죄행을 날날이 폭로분쇄하였다. 그 과정에 그는 계급적원칙이 강하고 당에 매우 충직한 일군으로 인정받게 되였다. 그후 그는 평양시당의 한 부서에 배치되여 종파분자들의 사상여독을 청산하기 위

한 투쟁을 벌려오다가 뜻밖에도 당중앙위원회의 소환으로 영화촬영소에 배치되였다. 그는 예술과 전혀 인연이 없는 자기에 대한 이런 배치에서 당의 의도를 민감하게 느끼고 조금도 당황함이 없이 자신만만하게 일을 시작했다.

그는 우선 촬영소안에서 반당종파분자들의 사상여독을 깨끗이 청산하고 당조직을 철저히 꾸리고 당조직의 전투력을 높이는데 모를 박고 사업했다.

주영도는 촬영소에 와서 사업하면서 문화성이 소집한 회의나 강습같은데 자주 참가하게 되였는데 거기에서 다른 예술단체들의 당일군들과도 친교를 맺게 되였으며 그들과 자기를 슬그머니 비교해보기도 했다. 그들은 대체로 언제인가는 직접 예술을 했거나 예술행정기관같은데서 사업한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였다. 특히 당중앙위원회에서 영화부문을 맡아보는 박경섭이같은 사람은 인민군대에서 군중문화사업을 한 경험도 있었고 예술지도일군으로 있은 사람으로서 오랜 예술인들과도 스스럼없이 지내는 사이였다.

어느 예술단체에서 오래동안 당사업을 했다는 한 일군은 예술인들이란 다감하고 량심적이면서도 생각이 복잡하고 그런가 하면 매우 단순하고 헐한데도 있으며 반면에 개중에는 시기질투,소총명이 강하고 남의 흠을 입에 올려 조롱하는 못된 버릇을 가진 작자들도 있다고 하면서 우스운 일화까지 이야기하였다.

그 이야기에 의하면 어느 문학예술기관의 행정지도원에게 한 예술인이 요즘 새로 나온 《로메오와 쥴리에트》를 읽어봤는가고 물었는데 그는 그것이 두 작품의 이름인줄로 알고 아직 못읽었다고 하면서 이달에 로메오를 읽고 다음달쯤에 가서 쥴리에트를 읽을가 한다고 대답했다는것이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예술인들속에 굉장한 소문으로 퍼져 웃음을 자아냈기때문에 그 지도원이 한동안 사업상 위신이 서지 않았다고 했다.

주영도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매우 불쾌하여 퉁명스럽게 말했다.

《그런걸 가만 놔둬? 예전에 우리 공장에두 예술인들이 드문드문 내려와 공연이랑 했는데 후라이스반과 바이스를 모르는 친구들이 태반이였소. 그래도 로동계급들은 비웃지 않았소. 모르면

친절하게 대줬지…》

그는 이런 일화랑 들으면서 형성된 선입견이 있어 당기층조직을 튼튼히 꾸리고 당원들의 당조직생활을 강화하는데 전념하면서도 혹시 자기가 예술인들의 말밥에 오르지 않는가 마음을 쓸 때도 간혹 있어 모르는 일에는 절대 비치지 않았다. 그리하여 예술창조사업은 총장, 부총장들에게 맡겨버리고 관여하지 않았다. 새 영화가 제작될 때마다 제작단에서 등사한 연출대본을 가져왔으나 대충 훑어볼뿐 깊이 따져보며 읽지 않았으며 예술위원회에는 거의 참가한적이 없었다. 그러지 않고 예술창조사업과 작품의 내용에도 깊이 파고들어갔더라면 당정책에서 어긋나는 문제들은 바로잡아줄수 있지 않았을가싶으면서 모진 후회로 가슴이 쓰려났다.

그는 이번 기회에 자신의 사업상 결점도 고치고 예술인들의 사상적병집도 철저히 수술해버리리라 잡도리를 단단히 하였다.

그러나 예술인들은 그의 의도에 성실하게 응해나서는것 같지 않았다. 그래서 담화하고나면 가슴이 오히려 더 답답하고 무거워지군 하였다.

출입문쪽에서 손기척소리가 부드럽게 울렸다.

《들어오시오. ―》

작업복차림의 한기석이 들어섰다. 그는 자책에 잠긴 공손하면서도 몹시 흥분된 얼굴이였는데 갑자기 찾아온것을 어떻게 여길가 불안해하는듯 공연한 눈치를 살피면서 안쪽으로 선뜻 들어오지 못하고 문앞에서 쭈밋거렸다.

《자, 여기 와서 앉소. 어서…》

그는 응접탁가까이로 다가와서도 권하는 의자에 인차 앉지 못하고 몹시 송구스러워했다.

《앉으라는데…》

한기석은 의자에 조용히 앉았다.

주영도는 매번 찾아와서 행동이 이렇게 조심스러운 그의 긴장된 마음을 풀어주려고 너그럽게 웃어보이며 먼저 말을 건네였다.

《부업경리작업을 해보니 어떻소？ 모두 좋아하오？》

《예…》

《의견이 있는 동무들이 없는가？》

《없습니다. 모두 밖에 나와 일을 하니 머리가 시원해져 좋다고 합니다.》

《사람은 로동을 해야 되오. 로동을…》

《저는 정말 이때까지 똑바로 살지 못했습니다. 연출가의 말이면 다 옳은줄 알고 그저 시키는대로 했습니다. 이번 영화가 이렇게 된데는 제 책임도 적지 않습니다.》

주영도는 얼굴빛이 신중해졌다.

《동무들이야 새 세대들인데 그래서야 안되지…》

《정말 가슴이 터지는것 같습니다. 요새 모두 다른데서 불어온 바람에 말려들어 저런 영화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문제를 그렇게만 볼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상적으로 철저하면 그런 바람에 흔들렸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한테… 구체적으로는 연출가한테 낡은 사상이 잔뜩 남아있기때문에 그런 바람에 적극 호응해나섰고 저런 영화까지 만들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자기한테서부터 결함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영도는 그의 말이 여간 반갑지 않았다.

《그렇소. 그래…》

《연출가의 낡은 사상이 영화를 저지경으로 만들어놓았는데 전 이때까지 그걸 느끼지 못했습니다.》

한기석의 눈에 자책의 눈물같은것이 번뜩거렸다.

《동무 생각에는 최승진연출가한테는 어떤 색갈의 낡은 사상이 많은것 같소？》

《시사회가 있은 날 연출가를 축하한답시고 모두 그의 집에 모여들어 술판을 벌린 일이 있습니다.》

《술판을？》

《거기서 저마끔 최승진연출가를 천재로, 대가로 추켜올렸는데 그 자리에서 이야기된 소리들을 생각하면 정말 어이없습니다.》

《무슨 소리들을 했소？》

주영도는 열기에 이글거리는 눈으로 그를 지켜보았다.

《승진연출가는 왜정때 일본에 가서 고학하던 추억담을 잔뜩 늘

어놓으면서 자본주의문화를 은근히 동경하는 소리랑 탕탕 했습니다. 일본은 출판업이 발전했다, 없는 책이 없다, 교수진영이 어떻다, 맑스주의서적들이 조선으로 많이 건너와 보급되였다. … 이따위 소리들을 하면서 우리 문화에 대한 허무감을 은근히 풍겼습니다.》

주영도는 너무 기막혀 큰소리도 치지 못하였다.

《거기에 누구누구 있었소?》

《연출실은 거의 다 모이구 배우들도 두세명 왔댔습니다.》

《영화를 사회에 내보내기전에 술판부터 벌리다니, 틀려먹었소. 케케묵은 낡은 악습이요.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정신상태를 알수 있단 말이요. 사상상태를… 지금이 어느땐데 자본주의문명을 동경하는가.》

한기석은 고개를 숙이고있었다.

《그러구두 오늘까지 나한테 와서 이런 문제를 이야기해준 동무가 하나도 없었소. 늦게나마 동무가 말해주어 그런 영화를 만들어낸 원인을… 근본원인을 밝혀낼 실머리를 잡게 됐소. 원인이 없는 결과란 있을수 없단말이요.》

《제가 너무 흥분해서 과장했을수 있습니다. 다른 동무들과도 담화해주십시오. 전 정말 이번 기회에 연출가동지 사상을 고쳐주고싶어서… 진심으로 고쳐주고싶어서…》

《알겠소. 다른 할 말은 없소?》

《예…》

《가보오.》

주영도는 그를 문앞에까지 바래웠다.

한기석은 문손잡이를 잡았다가 무슨 새로운 생각이 떠오른듯 괴로운 눈빛으로 주영도를 쳐다보았다.

《할 얘기가 있으면 더 하오.》

그는 무엇인가 말할듯말듯 망설이더니 한숨을 내쉬였다.

《가서 더 생각해보겠습니다.》

《언제나 좋으니 할 얘기가 있으면 또 찾아오오.》

그가 나가자 주영도는 방복판으로 천천히 들어와 한자리에 못박힌듯 오래도록 서있었다. 분격에 가슴이 후둑후둑 뛰였다.

최승진… 예술의 사상성에 대하여 번지르르한 말을 누구보다도 많이 하던 그가 속은 이렇게 썩은 인간이였던가. 로동계급을 모독하고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이 일본에서 건너온것처럼 영화를 만든게 우연한 일이 아니다.

그는 담배가치를 꺼내 입에 물고 성냥을 득 그었는데 그 불꼬리가 바르르 떨었다.

2

이튿날부터 연출실의 연출가들과 부연출들이 차례로 당위원회로 불리워가 주영도비서와 담화하고 돌아왔다.

연출실의 공기는 긴장되였다.

담화는 오후 부업경리작업에 사람들이 동원된 시간에 주로 하였다.

로영무는 이러한 때 속된 호기심이 발동되여 무엇인가 알아내자고 가볍게 돌아치는 사람이 아니였다.

그는 담화를 하고 나온 부연출들에게 한마디도 묻지 않았으나 그들의 심각하고 불안해진 낯색이며 자기들끼리 짤막하게 주고받는 말들을 통하여 주영도비서가 몹시 안타까와하면서 연출가들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을 찾아내고있으며 최승진을 진심으로 건져주기 위하여 그의 사업과 생활을 전면적으로 료해하고있음을 어렴풋이 느낄수 있었다.

한기석은 웬일인지 불리워가지 않았지만 누구보다도 불안해하였으며 담화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였다.

그는 퇴근할 때에는 최승진의 곁에서 가지런히 걸으며 요즘 수도의 실내경기장들에서 벌어지는 롱구와 배구 경기소식을 이야기해주는가 하면 문학계의 소식이며 백화점과 상점들에 새로 나타난 상품들의 질과 형태미에 대하여도 말하였다. 그의 이런 행동은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생사운명을 같이하여야 하는 연출가

와 부연출의 의리를 생각케 하였다.

왜서인지 강철룡은 담화에 부르지 않았다. 그는 몹시 의아해하며 여러가지 의혹을 품기도 하였다. 그래서 질통에 묵묵히 흙을 담아주는 로영무에게 내놓고 이런 소리를 하는것이였다.

《어째 나는 부르지 않을가요? 나한테서는 들을 소리가 없다고 보는게지요?》

《무얼 복잡하게 생각하나. 이제 부르겠지.》

《나하구 담화하면 나는 다 터놓고 말하겠습니다. 다 털어놓겠습니다.》

《뭘 털어놓겠다는건가?》

《뭔가구요? 연출가동지는 보지 않았습니까? 시사회때 그처럼 박수를 치며 환성을 지르던 사람들이 단 한순간의 자책이나 번민도 없이 방향을 홱 돌려 이번에는 작품과 연출가한테 별별 사상감투를 다 뒤집어씌우자고 접어든다면 이거야말로 비인간적인, 비량심적인 행위가 아닙니까. 낡은 사상이야 폭로비판해야 하지만 과장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사람이 없을것 같습니까. 모두 담화에서 무슨 소리를 했는지 정말 불안합니다.》

그는 입안까지 쓰거워나는듯 눈우에 침을 탁 뱉았다.

《이번 일은 최승진연출가 혼자서 책임질 문제가 아닙니다. 박수갈채를 보낸 사람들이 다 책임져야 합니다. 물론 저도 례외가 아닙니다. 다 책임져야 한다는 소리는 누구도 책임 안진다는 소리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승진연출가 혼자 책임질 문제가 아닙니다. 응당 가책을 느끼고 책임을 누구보다도 더 져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가운데 그 책임에서 슬그머니 발을 뽑고 자기는 벌써부터 일이 이렇게 되리라는걸 짐작했다는듯이 가장해나서는 작자들이 있다면 이거야말로 슬픈 일이 아닙니까? 모두 자기비판해야 됩니다.》

《동무는 누굴 념두에 두고 그런 소릴 하오?》

《누구누구라고 짚을순 없지만 돌아가는 공기속에서 그런걸 느낍니다. 승진연출가는 오늘 점심에도 몇숟갈 뜨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말라터졌습니다. 에—참 교훈입니다. 심각한 교훈

입니다.》
얼마후 로영무가 부업작업에서 돌아와 쉬는데 무슨 볼일로 밖에 나갔다가 들어온 철룡이 배우단에서 누가 찾아왔노라고 일러주었다.
오후의 해빛이 부드럽게 흘러드는 복도의 창문가에 리명선이 서있었다.
젊은 시절의 미모가 느껴지는 그 녀자의 얼굴에는 상심과 좌절의 그늘이 비껴있었다.
리명선은 고운 눈을 크게 치뜨며 곁에 온 로영무를 쳐다보았다.
《승진동무가 방에 있어요?》
《있소.》
《로선생은 곁에서 뭘 했어요?》
《뭘 말이요?》
《뭐라니요, 시사회가 있은 날 승진동무네 집에 모여서 무슨 소릴 했어요? 모두 정신들이 있어요? 승진동문 왜정때… 그 사회에서 무슨 덕을 입은게 있다고 일본이 어떻고 문화가 어떻고 그런 소릴 했어요?》
로영무는 술좌석에서 최승진이 한 말이 어렴풋이 떠올라 가슴이 선뜩 얼어들었으나 말은 다르게 나갔다.
《그건 무슨 소리요?》
《우리 배우단에서 두 동무가 당위원회에 불리워갔는데 비서동지가 확인해보더래요. 그런 발언을 한게 사실인가 아닌가…》
로영무는 얼굴빛이 컴컴해져 조용히 한숨을 내쉬였다.
《그런 소리를 한것 같소.》
《참 한심해요.》
《그때는 술기운에 스쳐버렸댔는데 그걸 누가 문제시해서 반영했군.》
《모두 각성됐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수 있어요. 곁에 있으면서 그런 소릴 하는걸 어째 쥐여박지 못했어요. 정말 한심해요.》
《그때는 분위기가 그렇게 안됐지.》
《문화성에선 서영림부상이 호되게 비판을 받았대요. 우리 영

화때문에…》

《서부상이？》

《해임될것 같다는 소리도 있어요.》

그리고 리명선은 괴롭게 눈을 내리깔며 보일듯말듯 머리를 저었다.

《아이참… 영화… 영화… 우리 영화계처럼 일이 안되는 동네가 어디 있겠어요. 이제는 영화라는 소리만 들어도 진절머리가 나요. 료양소에서 돌아와 다시 기운을 내여 배우생활을 계속할가 했댔는데 이렇게 되니 아주 정이 떨어졌어요. 깨끗이 그만두고 나가겠어요.》

《나가다니？》

《년로보장에 넘겠어요.》

《뭐요？… 이런 때 그러면 그거야 도피가… 도피가 아니요！》

《도피고 뭐고 난 견디지 못하겠어요. 몸이 약한데다가 신경이… 신경이 견디지 못하겠어요.》

그 녀자의 속눈섭에 이슬기가 어렸다.

《진정하오！》

《승진동무한테 자기비판을 잘하라고 이르세요. 우리야 광복직후부터 영화예술을 같이 해오지 않았나요.》

로영무는 우애에 넘친 그 간절한 부탁에 가슴이 찌르르 저려들었다. 리명선은 목도리자락으로 눈가를 훔치고는 말없이 돌아서 복도가녁을 따라 총총히 걸어갔다.

강철룡은 그 이튿날 오후에 당위원회로 불리워갔는데 방에서 나가는 그의 눈에 열기가 이글거렸다. 그는 두시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로영무는 몹시 불안해졌다. 흥분이 지나쳐 격해지면 어떻게 탈선할지 알수 없는 철룡이였다. 그는 안절부절 못하며 그를 기다리다가 옆방의 최승진을 찾아갔다. 자기 마음이 이럴진대 일을 저질러놓은 그는 지금 심경이 어느 지경에 이르렀을가 하는 생각이 들며 위로도 해주고 말동무라도 해주고싶었다.

최승진은 방에 없었다. 읽던 책과 연출대본이 펼쳐진채로 책

상우에 놓여있었다. 옷걸개에 외투가 걸려있는것을 보니 잠간 자리를 뜬것 같았다. 담배연기가 서린 탁한 방안공기에 숨이 막히는것 같았다.

로영무가 환기를 시켜주려고 소창문을 여는데 복도쪽에서 다급한 발자국소리가 나더니 출입문이 벌컥 열리며 강철룡이 뛰여들었다.

그는 눈을 사납게 번뜩이며 로영무를 지켜보았다.

《솔직히 말하시오!》 거의 명령조의 거치른 소리였다.

로영무는 그 험한 기상에 가슴이 떨렸다.

《왜 이러나?》

《저 작품을 맡았다가 도로 내놓을 때… 그때 어째 내놓았습니까?》

《뭐라구?》

《내 기억에 의하면 그때 개성에 맞지 않는다고 내놓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사실인가 아닌가 그것만 말하시오!》

그 부르짖음소리는 창끝이 되여 량심을 사정없이 찌르는듯하였다. 로영무는 곁에 놓인 의자에 맥없이 주저앉았다.

《누가 뭐라던가?》 그는 당황해진 눈으로 젊은이를 쳐다보았다.

《사실인가 아닌가 그것만 말하십시오. 난 이때까지 연출가동지를 량심적인 예술가로 존경해왔습니다.》

《존경해왔다니 고맙긴 하지만 그건 공연한 존경이였어. … 사실을 말하겠네. 개성에 맞지 않는다고 한건 구실이였어.》

《예?》

《작품이 마음에 안들었어. 정치적으로 까리까리하고 불안한데가 여러군데 있었지. 자신없어 내놓았네.》

《그렇다면 승진연출가가 작품을 맡은다음 그걸 솔직히 말해줬습니까?》

《말해주지 못했네. 이렇게 엄중한 과오가 빚어질줄은 몰랐어. 정말 몰랐어. 내 말을 믿어달라구. 그 시사회때도 불만이 있었는데 말해주지 못했네. 터져오르는 박수갈채에 눌리구 또 남의 성과를

깎는것 같아 그랬어. 지금에 와서는 고의적으로 그랬다구 해도 할 소리가 없게 됐네. 아, 철룡이, 난 그래서 괴로웠네. …》

《당신들은 모두 어떤 인간들입니까?》

철룡은 절망적으로 부르짖고는 의자에 걸터앉아 고개를 숙이였다. 가쁜숨을 몰아쉬였다.

《연출가동지, 당비서동지한테 가서 죄다 고백하십시오. 불러야 찾아가겠습니까?》

《가지… 가겠네.》

《지금 연출가동지한테 어떤 문제가 제기됐는지 압니까? 최승진연출가를 한평생 시기해와서 자기 벗을 함정에 빠뜨려넣자고 작품의 결함을 느꼈지만 침묵을 지켜왔는지도 모른다는것입니다!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줘 고맙네.》

로영무는 울분과 노여움에 우들우들 떨며 일어나 출입문을 열고 복도로 나가려다가 기겁하여 주춤 뒤로 물러섰다. 문밖에 최승진이 서있었던것이다. 그는 이미전에 문밖에 와서 안에서 하는 소리들을 죄다 엿들었는지 피기가 가신 얼굴로 그들을 들여다보다가 차겁게 웃어보이고는 안으로 들어왔다.

《어디 갔댔소?》 하고 로영무가 창황중에 물었다.

《밖에 좀…》

그리고는 말없이 방구석에 가서 책상우의 책과 연출대본을 접어 겨드랑이에 끼였다가 도로 놓고 외투를 입었다.

로영무와 강철룡은 입이 얼어붙어 무슨 말도 건넬수 없었다.

최승진은 그들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돌아서 밖으로 나가 이야기를 계속하라는듯 문까지 조용히 닫아주었다.

그의 발자국이 멀어지자 강철룡이 휘파람같은 소리로 속삭였다.

《다 들은게 아닙니까?》

《…》

《어디로 저렇게 갈가요?》

《…》

로영무는 아연해져 그냥 서있고 강철룡이 창문쪽으로 달려가 밖

을 내다보았다.

《아니 어떻게 된게 아닙니까? 왜… 왜 걸음이 저렇습니까?》

로영무는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다. 촬영소마당에 나선 최승진이 어디로 가는지 허둥허둥 발걸음을 옮겨가고있었다. 외투자락이 바람에 날렸다. 그는 눈먼사람처럼 한팔을 앞으로 내뻗치고 더듬더듬 걸어나가다가 비칠거렸다.

로영무와 강철룡이 밖으로 달려나갔을 때 어디서 뛰여왔는지 리명선이 눈판에 쓰러진 최승진을 안아일으키고있었다.

《승진동무, 승진동무— 안보여요? 전혀 안보여요?—》

《아… 캄캄하오.》

《언제부터 이랬어요?》

《며칠전부터 좀 이상했는데 이자 갑자기…》

리명선은 눈이 휘둥그래져 황황히 다가오는 로영무와 강철룡을 향해 울음섞인 목소리로 부르짖었다.

《사람이 이지경이 되는걸 모두 몰랐어요? 정말 한심해요!》

강철룡이 최승진을 업고 진료소쪽으로 뛰여갔다.

리명선은 비감에 젖은 얼굴로 눈물이 그렁하여 그들쪽을 바라보다가 외투호주머니에서 털실장갑을 꺼내 눈언저리를 닦았다. 장갑에 묻어나왔는지 웬 종이장이 로영무의 발치쪽으로 날아왔다.

로영무가 그것을 얼른 쥐여들어보니 공인과 명판도장이 찍힌 퇴직서였다.

《아니, 이게 뭐요?》 그는 놀라서 물었다.

《년로보장에…》

《정말 그만두려오?》

《떠나겠어요. 아주 떠나겠어요!》

《아니 한생을 영화예술에 바쳤는데 이렇게 훌 떠난단 말이요?》

《제 말년은 실패예요.》

그리고는 장갑으로 입을 막았는데 늙었으나 아직 아름다움을 잃지 않은 눈에 눈물이 끓어올랐다.

로영무는 그를 붙잡으려는듯 한손을 내밀며 큰소리로 부르짖었다.

《명선동무!》

그 녀자는 대답없이 홱 돌아서 경리부쪽으로 걸음을 다그쳤다. 촬영소마당을 휩쓰는 눈보라의 뽀얀 안개가 그 녀자에게 휘감기며 아츠럽게 울부짖었다.

로영무는 눈물이 그렁하여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눈바람이 얼굴을 후려쳐 헉 느끼였다.

×

주영도의 방은 예술단체 당비서의 방치고는 너무나 검소하게 꾸려졌다. 책상과 전화기, 탁상일력, 응접탁, 그 량옆에 놓인 낡은 포의자 여러개, 좌우벽에 붙여놓은 둔탁한 구식안락의자 두개, 구석쪽의 원탁, 그우에 놓은 보온병과 고뿌 두개… 창턱에 화분도 놓이지 않았고 벽에는 풍경화 한점 걸려있지 않았다. 사업에 필요한것만 있고 사업에 필요없는것은 방주인의 요구에 의하여 치워버린듯하였다. 단지 탁상일력곁에 놓인 주먹만한 크기의 황동잉크단지만은 사치와 담을 쌓은 이 방에서 좀 유난스러운 존재였다. 그것은 물동이모양으로 정교하게 깎아만든것인데 꼭지가 달린 뚜껑까지 덮여있었다. 언제나 퇴색함이 없이 윤이 번쩍이는것으로 보아 방주인의 애용품임에 틀림없었다.

박경섭은 그것을 한번 만져본적도 없지만 사람들의 말을 통하여 밑굽에 《주물세포 1963》이라고 새겨져있다는것을 알고있었다. 주영도가 여기로 배치되여왔을 때 그의 고향 제강소의 주물직장세포에서는 자기네가 손을 들어 입당시킨 당원이 나라의 이름있는 한 촬영소 당비서로 된것을 주물로동자들의 경사로 받아들였으며 그 잉크단지를 만들어보내는것으로 축하의 인사를 표시했던것이다.

주영도비서가 인차 온다는 기요원의 말을 듣고 주인이 없는 방에 들어온 박경섭은 손님용 안락의자에 앉아서 가슴속에서 사품

치는 격정을 지그시 누르며 방안의 비품들을 이것저것 둘러보았다. 어디에서나 만만치 않은 당일군인 주영도의 체취가 느껴졌다.

오늘 박경섭은 주영도가 올려보낸 지난 시기 예술인들의 사상상태에 대한 자료를 **김정일**동지께 보고드리기전에 자신이 다시 확인해보고싶어 촬영소에 내려왔다. 주영도가 보고한 자료들은 최승진을 비롯한 영화예술인들이 사상사업부문에 불어친 좋지 못한 바람에 마지 못해 말려든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호응해나서 《광풍》과 같은 영화를 만들었다는것을 론박할 여지없이 증명하고있었으며 사상사업부문의 일부 사람들이 그 영화의 보급을 통하여 문학예술부문에서 180도방향전환의 선풍을 일으키려고 시도한것 같다는 암시까지 던지고있었다.

박경섭은 그 보고에 공감하면서도 최승진과 로영무를 비롯한 개별적예술인들의 자료들은 너무 과장된것 같으면서 믿음이 잘 가지 않았다. 그는 자료의 일부 실례들이 부정되기를 은근히 바라면서 오전과 오후 여러 예술인들을 만나 담화해보았는데 결과는 모든 자료들이 사실에 기초하고있으며 과장되였거나 외곡된 실례들이 거의 없다는것을 보여주었다.

그는 마음이 여간 무겁지 않았다. 게다가 연출가들에게 영화창작에서 범한 과오의 원인을 검토한다든지 그 시정대책을 토론하게 할대신 그들을 부업경리작업에 동원시키고있으며 최승진이 쓰러진것,오랜 녀배우인 리명선을 해임시켜 내보낸 사실까지 알게 되니 분노로 가슴이 끓어번졌다. 그는 주영도를 만나기만 하면 좋지 못한 소리가 터져나올것 같아 자신을 다잡고있었다.

박경섭은 지난날에도 이 방에서 주영도와 심각한 이야기를 나눈적이 여러번 있었는데 재작년 리명선의 해임문제가 제기되였을 때 주고받은 말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그때 박경섭은 지방에 출장갔다와서 촬영소에 나왔다가 리명선의 문제를 알게 되였었다.

주영도는 리명선이 이제는 늙어 연기력을 완전히 상실했기때문에 벌써 10여년간 영화에 출연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년로보장에 넘기겠다고 했다. 박경섭은 그가 보통배우들과는 달리 일찍부터

우리 인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녀배우이고 또 남반부에서 우리를 찾아온 녀성인것만큼 그냥 둬두고 신인배우양성사업같은것을 맡기자고 설복하였다.

그런데 오늘 그 오랜 녀배우를 끝내 내보내고말았다. 본인이 사직을 청원했다지만 이처럼 깊은 고려없이 제꺽 내보낸데는 무엇인가 미심쩍은데가 있는듯했다.

박경섭이 안락의자에 몸을 묻은채 눈을 내리뜨고있는데 출입문쪽에서 손기척소리가 났다.

《예― 들어오시오.》

장미혜가 들어왔다. 방금 그의 어머니에 대하여 생각하던 박경섭은 생활의 우연한 일치에 놀라 처녀를 빤히 지켜보았다.

미혜는 이쁘장하면서도 시원하게 생긴 얼굴에 수집은 미소를 담고 문설주곁에서 머뭇거렸다.

《오, 미혜동무구만…》

《비서동지가 계신가 해서…》

《인차 들어올게요. 자, 여기 앉아 나하구 이야기랑 하면서 기다리자구. 어머니는 집에서 뭘하오?》

미혜는 눈을 내리뜨고 몇순간 말이 없다가 나직이 속삭이였다.

《그저 있어요.》

《그저?…》

《보기 딱해서 병원에 다니든지 마을돌이라도 다니라니까 왈칵 성을 내지 않겠어요. 경로동직장에 나갈테니 걱정말라고…》

《어머니 스스로가 나가고싶어 사직을 신청했다면서?》

《…》

《사전에 동무하고는 토론이 있었나?》

《전 반대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본인이 제기한다고 촬영소에서 이렇게 훌 내보낼줄은 몰랐어요.》

미혜의 눈에 눈물이 어렸다. 그 눈물에서 집단에 대한 갸륵한 믿음을 읽을수 있어 가슴이 미여지는듯했다. 그는 미간을 찌프릴사하고 손끝으로 안락의자팔걸이를 조용히 다독이였다.

《엄마야… 엄마야… 오래동안 출연 못해서 미안한 생각도 있

고 또 신경도 약해져서 그런 제기를 할수도 있지 않아요. 죄다… 저한테 죄다 말씀해줘요. 어째 이렇게 꺼리낌없이 내보내요?》

《?…》

《엄마한테 다른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어요?》

《무슨 문제?…》

《엄마가 나간 다음 이상한 여론이 돌아요. 지난 생활에서 애매한점들이 많아 내보낸것 같다는 말까지 있어요.》

광복후 미군정이나 그 괴뢰놈들은 왜정때부터 인민들속에 널리 알려진 리명선을 회유하려고 공연이나 초대연 같은데 자주 초청했지만 그는 미군정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편에 서서 예술활동을 힘차게 벌렸으며 체포령이 내리자 북반부로 넘어왔다. 때문에 당에서는 처음부터 그를 굳게 믿었으며 극진히 보살펴주었다.

《갑자기 촬영소에서 나갔으니까 그런 소리도 생긴것 같은데 공연한 신경을 쓰지 말라구. 내 비서동무한테 다시 알아는 보겠지만…》

《저도 처음엔 그렇게 믿었는데…》

미혜는 약간 응석기를 풍기며 말했다.

이때 주영도가 들어와서 이야기는 중단되고 미혜는 얼굴이 붉어져 황황히 물러갔다.

주영도가 미혜더러 이야기를 계속하라고 했으나 처녀는 이따가 오겠다고 하면서 문밖으로 사라졌다.

《어머니문제때문에 왔을겁니다. 요새는 사람들이 너무 민감해서 야단이거든요. 허허… 어제는 건설위원회 강세룡부위원장까지 저한테 직접 전화로 문의해왔습니다. 그런 유명한 녀배우를 왜 내보냈는가구…》

《아니, 그 량반이 여기에 무슨 상관이게?》

《모릅니까?》

《?…》

《우리 부연출 강철룡동무 형입니다.》

《그런데?》

《철룡동무하구 저 처녀가 남다른 사이지요. 언제 그렇게 됐

는지…》

《그렇소?》

박경섭은 얼굴빛이 신중해졌다.

《그렇군… 그러니 물어볼수 있지… 그래 뭐라고 대답해줬소?》

《사실대로 말해줬습니다.》

《다른 원인은 없었소?》

《예?》

《미혜동무는 어머니의 지나간 생활에서 믿을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 내보내지 않았는가 알아보자구 찾아왔더군. 여론이 좀 있는것 같소. 나도 말해줬지만 한번 담화해보는게 좋겠소.》

《제편에서 소원해서 내보냈는데 모두 이런단말입니다. 철룡동무 형도 곱씹어 묻길래 내 말이 믿어지지 않으면 문화성에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덩지가 큰 사람이 원…》

《내보내지 말걸 그랬소. 본인이야 병때문에 오래동안 배역도 맡지 못하니까 죄송스러워 그럴수 있지 않소.》

《좀 설복해봤는데 그것때문만은 아닙니다. 이제는 면목도 없고 영화를 계속할 용기도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나가겠다고 그냥 고집했습니다.》

《좀더 설복해볼걸 그랬소. 사람문제인데 신중해야지…》

《우리가 오랜 예술인들을 적게 보살펴줬습니까. 그랬더니 이제는… 최승진동무를 보십시오. 이번에 알게 됐는데 〈광풍〉의 영화문학을 보고 배우단에서 제일 지지해나선건 저 명선동무입니다. 이제부터는 낡은 사회의 때가 묻지 않은… 우리 사회에서 자라난 깨끗하고 젊은 예술인들한테 관심을 더 돌리고 그들을 앞에 내세워야겠습니다. 좋은 동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영도는 응접탁결의 의자에 앉더니 울기오른 얼굴로 화제를 바꾸었다.

《병원에 알아봤는데 승진동무는 시신경위축이 왔답니다. 체질이 다혈질이거나 신경이 약한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너무 긴장되면 그런 증상이 생길수 있는데 며칠 푹 쉬면 인차 나을수 있답니다. 약골이지요.》

박경섭은 몸을 뒤로 젖혀 안락의자등받이에 기대며 시름겨운 한숨을 내쉬였다.

《가책이 클테니까… 그런데 어째 연출실이 몽땅 부업경리작업에 동원되였소? 잘못된 작품을 고칠 대책이랑 연구하고 토론해야 될게 아니요.》

《오후 한두시간씩 동원됩니다.》

《한두시간이라도 그렇지. 누가 그렇게 지시했소. 동무가 그랬소?》

《그 동무들이 자발적으로 나왔습니다.》

《자발적으로?》

《예… 영화를 잘 만들자면 연출가들부터 로동계급화해야 합니다. 그러지 못했기때문에 로동계급을 모독하는 작품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박경섭은 그의 소박한 견해에 다소 아연해졌다.

《로동계급화시키는데 이런 방법밖에 없소? 진짜 로동계급화시키자면 어느 큰 공장에 보내든가 해야지 이게 뭐요. 동무는 그래 예술인들이 거름을 메고 다니는게 보기 좋소? 잘된 일같지 않소. 누가 보면 뭐라고 하겠소?》

《여기 자주 참관오는 외국인들이 뭐라고 할가봐 그게 걱정이 돼서 그럽니까?》

《아니요. 그건 부차적인 문제요. 그 동무들이 작업하면서 무슨 생각을 할것 같소? 과연 그래서 로동계급화되겠는가 하는거요.》

주영도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앉음새를 바로가지며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예술인들한테 궂은일을 좀 시키는게 그렇게 가슴아픕니까? 당과 정부의 간부들도 농촌에 나가면 농민들과 한데 어울려 퇴비도 내고 밭김도 매지 않습니까. 실무능력이 높다고 누구누구가 없으면 영화를 못만들것처럼 생각하면서 무원칙하게 비호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원칙하게 비호하다니… 그건 무슨 소리요?》

주영도는 눈을 내리떴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영화의 결함을 고치도록 연출가를 따뜻하게 도와주자고, 수령님께서 광복직후부터 키워오신 예술인들을 아껴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셨소. 그런데 동문 여기서 어떻게 하고있소. 촬영소공기가 왜 이렇소?》

《당에서 그냥 아껴주고 사랑해주니 응석이 들었는지 저 사람들이 아주 배은망덕해졌습니다. 이번에는 어자어자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제 말을 마감까지 들어주십시오. 요 며칠사이에 연출실동무들과 담화해봤습니다. 제가 이미 보고했지만 최승진동무는 광복직후에 청산했어야 할 일제사상잔재를 그대로 가지고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한심합니까. 왜놈들의 대학에서 부르죠아교육을 받던 때를 얼마나 그리워했으면 쩍하면 술판을 벌려놓고 젊은 부연출들에게 자본주의 문화와 생활양식을 선전했겠습니까. 그런 영화를 만든게 우연치 않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를 은근히 동정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폭로된걸 보면 아주 능동적이고 의식적입니다.》

박경섭은 참지 못하고 그의 말을 중단시켰다.

《그게 사실이요?》

《사실입니다. 촬영에 들어가기 며칠전에 서영림부상이 차를 타고 부랴부랴 내려와서 교시에서 지적된 한두가지 설정을 바꾸라고 했는데 전혀 접수하지 않았습니다. 모욕적인 언사로 부상동지의견을 일축해버렸답니다. 틀에 박힌 낡은 사고방법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야 어쩌는수 있습니까. 더구나 성품이 유순한 부상동지야… 노여움이 들어 올라가고말았답니다. 무슨 배심으로 무엇을 믿고 그랬는가는 불을 보듯이 명백합니다. 당일군한테 감정이 금물이라고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나는 동정이 안갑니다. 좀 거름도 내면서 땀을 흘려봐야 합니다. 입에 들어가는 낟알이 어떻게 생기는가도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여보, 너무 이러지 마오. 우리한테도 책임이 있지 않소.》

《그렇긴 하지만 마음 무던한 부상동지를 모욕한걸 생각하면… 공훈예술가요 뭐요 하면서 아껴주고 취줬더니 잔뜩 코대만 살아서…》

주영도는 분격에 눈을 사납게 번뜩이였다.
《지금 그 사람이 집에 들어가 누운데 대해서도 반영이 아주 좋지 못합니다. 일을 잔뜩 저질러놓고는 반성할대신 도피해서 나자빠졌다구…》
박경섭은 너무 아연해져 할말을 찾지 못했다.
《저 로영무란 사람이 승승장구하는 최승진을 시기해서 그 작품의 결함을 벌써부터 느끼고있었지만 한마디 말해주지 않아 그를 함정에 빠뜨려놓은것만 보십시오. 어떤 인간들입니까.》
…들판을 휩쓰는 눈보라의 갈기가 차창을 후려칠 때마다 승용차가 안개속에 묻히는듯 시야가 부옇게 흐려지군하였다. 박경섭은 암담한 얼굴로 앞쪽만 내다보고있었다. 차바퀴들에 패워 들쑹날쑹해진 험한 눈길이 넘실넘실 파도치며 차체밑으로 흘러들었다.
주영도의 방에서 마감으로 오간 날카로운 말들이 뇌리에 그냥 메아리쳤다.
《비판을 잘하지 않으면 그땐 용단을 내려야 합니다. 젊은 동무들을 다 못쓰게 만들수 있습니다.》
《용단을 내릴 땐 내리더라도 연출가들한테 거름생산을 시키는 저 놀음은 그만두오. 당장 그만두오!》
《예?…》
《내가 책임지겠소!》
박경섭은 목안이 칼칼하게 말라들어 마른침을 거듭 삼키였다. 최승진과 로영무한테 제기된 문제들이 하나하나 떠오르며 가슴이 분격과 울분으로 설설 끓어번졌다.
박경섭은 그들을 광복직후부터 알고있었다. 한때 그들밑에서 배우로 생활한적도 있었다. 전쟁시기에는 정치공작대로 함께 서울로 나가 문화인들과의 사업을 한적도 있었으며 어려운 후퇴의 길도 함께 걸었었다. 그의 집 사진첩에는 각이한 시기 그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여러장 붙어있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오랜 지우가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하고있는것을 은근히 자랑으로 여기는것 같았으며 억울한 일이 생겼거나 창작상의 난문제가 생기면 스스럼없이 집에까지 찾아와서 흉금을 터놓고 말하고 조언을 청하였다. 박경섭은

누구보다도 그들을 믿어왔으며 은근히 원심도 써주었다. 주영도한테 종합된 문제들이 모두 사실이라면 그들은 이때까지 앞에서는 당과 외교를 하며 살았고 뒤에서는 당을 속이고 딴 사상감정을 가지고 살아온것이 아닌가.

박경섭은 우선 자기자신이 속아왔다는 생각에 가슴이 떨렸다.

(아, 얼마나 기막힌 일인가. 제기된 문제들이 모두 사실인 이상 주영도동무가 용단을 내려 무슨 조치를 취하자고 주장하면 나는 반대할수 없게 되였다. 그는 끝까지 파보자고 할것이다. 이제 또 무슨 문제가 터져나올지 모른다. … **김정일**동지께 무엇이라고 보고드리는가. … 아무리 립장이 난처해도 진실을… 오직 진실만을 보고드려야 한다. 무엇을 감춘다는건 크나큰 죄악이다. …)

박경섭은 등골에 식은땀이 내배는것을 느끼며 눈을 지그시 내리감았다. 교외의 눈길을 힘겨웁게 굴러가던 낡은 승용차는 휩쓸어드는 눈보라의 뽀얀 안개속에 잠겨들었다.

3

박경섭은 그 이튿날로 영화예술부문에 대한 료해자료를 문건으로 작성하여 **김정일**동지께 올리고는 가슴태우며 그이의 부르심을 기다렸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기별이 없었다.

박경섭은 그 까닭을 너무나도 잘 알고있었다.

그이께서는 요즘 사상사업에서 나타난 결함들을 가셔내고 선전선동사업의 방향을 하나하나 바로잡아가는 일에 정력과 시간을 깡그리 바치고계시였다. 거의 매일이다싶이 중대한 협의회들이 열리고 당보와 정부기관지를 비롯한 중앙급 신문들의 책임일군들과 출판, 방송, 각 도당의 선전부문 책임일군들이 그이의 부르심을 받고 찾아와 대기실에서 흥분된 얼굴로 차례를 기다렸다. 그이를 찾아오는것은 선전일군들만이 아니였다. 당학교와 고등교육부문 일군들,

외교일군들, 철도일군, 보위성과 사회안전성의 장령들도 찾아왔다.

이런 형편에서 성미가 누긋하지 못하고 팔팔한 박경섭은 빈틈없이 맞물린 접견시간들의 틈새기를 찾아내려고 그이의 집무실곁에 있는 대기실로 자주 드나들게 되였다.

사흘째되는날 오후에는 대기실이 비여있었다.

곁에서 그이의 사업을 보좌하고있는 젊은 일군이 박경섭을 반겨맞아 의자를 권하며 지금 건설위원회 강세룡부위원장이 안에 들어가있는데 인차 나올것이라고 하였다.

박경섭이 의자에 앉아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데 집무실의 두꺼운 출입문이 소리없이 열리며 **김정일**동지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울려나왔다.

《헛허허… 부위원장동무는 언제나 문제없다는건데 가봅시다. 가서 보고 확정합시다!》

활기와 정력이 넘친 그 음성이 아늑한 대기실의 공기를 흔들고 얼굴이 벌겋게 상기된 강세룡부위원장이 우람한 몸집을 가볍게 움직여 걸어나오고 그보다 나이 좀 들어보이는 배명준부국장이 설계도면두루말이같은것을 안고 따라나왔다.

그들을 앞세우고 환한 얼굴로 나오시던 **김정일**동지께서는 의자에서 일어나 꿋꿋이 서있는 박경섭을 띄여보고 멎어서시였다.

《너무 기다리게 해서 미안합니다. 지하철도건설장에 갔다와서 만납시다. 어쨌든 건설이야 내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갔다와서 인차 동무를 부르겠습니다.》

《예…》

그이께서 복도로 통한 문쪽으로 걸음을 옮기시자 강세룡이 박경섭에게 눈인사를 하고는 그것으로써도 모자라는지 성큼 다가와서 그의 손을 꽉 잡아쥐고 귀속말을 하였다.

《이거 이모저모로 죄송합니다. 제 동생도 촬영소에 있습니다. 철룡이라구 부연출입니다. 한번 인사하러 찾아간다는것이… 그애가 탐탁치 못해서…》

우람한 몸집때문인지 그의 언동에는 어딘지 모르게 상대를 누르는데가 있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문을 열고 복도로 나서다가 박경섭을 다시 돌아보시였다.

그이의 얼굴에는 미소가 어려있었지만 눈길에서는 심려의 빛이 엿보였다.

그이께서는 지난밤에도 영화예술인들에 대한 자료를 두번,세번 거듭 읽어보시였으며 지금 박경섭의 심중이 어떠하리라는것을 환히 알고계셨지만 그를 만나주실수 없었다.

며칠전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하철도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고는 지하철도를 단선이 아니라 복선으로 확장할데 대하여 교시하시였으며 그 복선설계가 완성된것만큼 검토하여 한시바삐 수령님께 올려야 했던것이다. 영화예술도 중요하지만 수령님께서 깊은 관심을 돌리고계시는 건설대상인 지하철도문제는 한순간도 미룰수 없는것이였다.

그이께서는 강세룡과 배명준을 데리고 곧 지하철도건설장으로 나가시였다. 장재대기슭에 삼각추형으로 높이 솟은 버럭산곁 현장지휘부막사앞에서 몸매 다부진 장령이 그이일행을 기다리고있었다. 장령은 지하철도건설에 동원된 공병부대의 지휘관이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정중하게 거수경례를 붙이고 다가오는 장령에게 보고는 그만두라고 손짓하시고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였다.

지휘부안에 들어가 장령이 드리는 작업복을 우에 걸치고 안전모까지 쓰신 **김정일**동지께서는 곧 그의 안내를 받아 인차를 타시고 아득히 깊은 지하의 도갱속으로 내려가시였다. 동행하는 강세룡과 배명준은 밑으로부터 불어올라오는 후끈한 바람의 울부짖음속에서 인차가 덜커덩거리며 몸부림칠 때마다 무슨 불상사라도 생길것 같아 가슴이 조마조마해져 차칸의 바닥이며 천반을 살피였다.

지상은 겨울이나 지하는 여름같았다. 후끈한 공기,천반에서 무시로 떨어지는 석수방울들,질쩍거리는 도갱바닥… 지하의 건설장은 말그대로 시가전이 한창인 밤거리를 련상시켰다. 도갱을 따라 줄줄이 켜진 작업등들의 불그스름한 불빛밑에서 뛰여가고 뛰여오는 건설자들,웨침소리,호각소리,공기압축기의 동음,기관총을 쏘아대는듯한 착암기소리,배풍기소리… 초연과 돌가루로 부옇게 흐려진

탁한 공기는 그 착잡한 소음에 전률하고 먼 막장쪽에서 발파소리가 둔중하게 울릴 때마다 천반에서 돌가루가 부슬부슬 날아떨어졌다.

장령은 그이를 옹위하듯 곁에 바싹 붙어서 걸어가고 공병출신이고 지하건설의 능수인 강세룡은 지상에서보다 걸음이 더 자유로와진듯 앞에서 성큼성큼 걸어가며 공사정형을 설명하였다. 배명준은 조심성이 지나쳐 굴바닥만 굽어보며 더듬더듬 걸음을 옮기다나니 자주 뒤에 떨어지군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침착한 눈길로 도갱의 물기 즐벅한 암벽이며 울퉁불퉁한 천반을 살펴보시면서 강세룡의 설명에 귀를 기울이시였다.

《암석층이 좀 좋지 못하지만 건설자들이 이제는 경험을 쌓았기때문에 문제없습니다. 복선공사에서는 굴진속도를 부쩍 높일수 있습니다.》

《경험은 쌓았지만 어렵기는 어렵겠습니다. 건설자들의 기세는 대단히 좋은것 같은데 동무들이 기술적으로 잘 도와주어 굴진속도를 계속 높이도록 해야겠습니다.》

언제 따라왔는지 배명준이 숨을 헐썩거리며 한마디 끼여들었다.

《건설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정대가 말이 아닙니다. 얼마 안가서 뭉턱뭉턱 닳아진답니다. 성강에서 나오는 고강도 특수강을 좀 돌려서 정대를 생산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걸 가지고는 어방도 없습니다.》

《특수강이요?》

《예…》

강세룡이 그에게 언짢은 눈길을 흘깃 던졌다가 주먹으로 담벽을 뚝뚝 두드렸다.

《전쟁때 우리 공병들은 농민들의 보통괭이를 가지고도 갱도를 잘 팠습니다. 정대는 무디는 족족 제꺽제꺽 벼려주면 문제없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한손을 허리에 올리며 껄껄 웃으시였다.

《부위원장동무는 그저 문제없다는건데 지금이야 우리 중공업이 갖가지 특수강을 얼마든지 생산해내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이 문제는 좀 알아봅시다.》

그이께서는 여러 구간의 도갱굴진현장을 돌아보고 처음에 출발한 현장지휘부로 돌아와 복선설계도면을 재검토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두팔을 벌려 설계도면이 펼쳐진 탁자가녁을 짚고 설계의 부분들을 주의깊이 살펴보시고 강세룡과 배명준 그리고 공병장령은 탁자맞은편에 가지런히 서서 도면을 굽어보았다. 위험을 무릅쓰고 지하의 건설장을 여러번 찾으신 그이께는 설계의 선들과 점들과 기호들이 기하학적의미만을 띠는것이 아니였다. 고도로 추상화된 그것들은 지하건설자들이 비지땀을 흘리며 뚫고나가는 웅장한 기본갱도의 구간들과 보조갱도의 구간들을 표시하고있었으며 이제 투입될 방대한 로력과 건설자재들의 질과 량을 암시하는 것이였다.

《설계는 괜찮게 된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대한 로력과 자재가 들것 같습니다.》 하고 그이께서 시름겨운 안색으로 말씀하시였다.

강세룡이 나직이 말했다.

《예… 그렇습니다.》

《지상에서의 건설사업처럼 지하건설에서도 기계화의 비중을 훨씬 높여야 하겠습니다. 지하건설에 필요한 기계들을 더 많이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복선공사라는 새로운 과제가 제기됐는데 군인건설자들의 사기는 어떻습니까?》

신중한 얼굴로 설계도를 들여다보던 장령이 차렷자세를 취하며 대답하였다.

《괜찮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그를 흘깃 돌아보고는 가볍게 웃으시였다.

《괜찮다는걸 보니 어렵게 생각하는 동무들이 있는게지요? 그럴수 있습니다. 단선로선으로 계획하고 굴을 뚫어나가던것이 복선으로 하게 됐으니 작업량이 거의 두배나 는셈입니다. 처음부터 공사를 다시 시작하는거나 같지요. 그러니 실지 지하에서 돌가루를 들이키며 석수의 소나기를 맞으며 일하는 군인건설자들 립장에서 생각해보면 어려운 과업입니다. 공기가 좋고 해빛이 밝은 지상에서

도랑같은것을 파나가는것도 헐한 일이 아닌데 지하에서야 더 말할게 있습니까. 때문에 기계화의 비중을 높여야겠습니다.》

강세룡은 생각에 잠겨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

그이의 말씀을 수첩에 받아적던 강세룡이 눈길을 들었을 때 그이께서는 다시 허리를 굽히고 설계도면을 들여다보시였다.

《오늘 보니 겨울인데도 석수가 많이 흘러나오던데 이 복선로선근처에 물주머니들이 없습니까? 지질학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대동강밑은 석회암지대여서 물이 제멋대로 흘러들어 물주머니들이 있을수 있다는데.》

강세룡의 옆에 서있던 설계담당부국장 배명준이 등을 굽힐사한채 대답했다.

《예, 그렇습니다.》

《지질조사는 철저히 했겠지요?》

《예, 해당부문에서 제공한 지질자료들에 기초해서 다시 확인해보고 설계했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손끝으로 응접탁가녁을 조용히 다독이며 생각에 잠기시였다. 그이의 눈길은 거듭 설계도의 갱도들을 더듬어나가시였다.

《방수대책을 취하고 착공하겠습니다.》 하고 강세룡이 그이의 근심을 덜어드리려는듯 말씀드렸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눈길을 들어 두사람을 둘러보시였다.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강세룡이 벙글써 웃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설계를 채택할 때 부국장동무한테 여러번 따져도 보고 다짐도 받았습니다.》

배명준이 어줍게 웃어보였으나 눈구석에 긴장한 빛이 어리였다.

《부국장동무, 어떻습니까. 자신이 있습니까?》

《예… 현재까지 작성된 지층도에 의하면 복선로선가까이에 큰 물주머니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물주머니들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입니까?》

《지각의 움직임과 지층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물리적작용들입니다. 지각의 운동이나 석회암에 대한 물의 부단한 용해작용에 의해서 작은 물주머니들이 합쳐져 큰 물주머니로 될수도 있고 지층이 내리누르는 어마어마한 압력에 작은 물주머니들이 큰 물주머니와 합쳐질수도 있고 또 왕청같은데 새 물주머니들이 생겨날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물주머니들을 계속 감시하면서 굴을 뚫어나가는것이 안전합니다. 지금 있는 지층도는 6년전에 작성된것입니다. 물론 그사이 지층에서 이렇다할 변화가 안생겼을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그이께서는 머리를 끄덕이시였다.

이때 강세룡이 배심좋은 얼굴로 말씀드렸다.

《지구의 나이로 볼 때 6년이란 한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사이 변화가 생겼으면 얼마나 생겼겠습니까. 제가 기술자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이런 공연한 불안론에 자꾸 빠지다간 공사를 맘놓고 진척시킬수 없습니다.》

《다시 지층조사를 해봐서 나쁠거야 없지 않습니까. 착공준비를 하면서 한쪽으로 지층조사를 하는게 좋겠습니다. 최대의 안전도를 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설계도는 괜찮게 된것만큼 수령님께 올려봅시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장령을 건너다보시였다.

《설계가 비준되면 그다음에는 모든것이 지하에서 직접 굴을 뚫어나가는 군인건설자들에게 달려있습니다. 애로되는 문제가 있으면 서슴지 말고 제기하십시오. 지하건설자들을 위하여서는 무엇이나 아끼지 않겠습니다.》

장령은 무엇인가 제기하려다가 망설이는듯 눈길을 아래로 숙이였다.

《우리 동무들과 토론해서 종합적으로 제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저… 한가지… 대원들의 사기를 부쩍 높이게 예술단이나 좋은 영화 같은걸 이따금 보내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정치일군들속에

서 자주 제기됐는데 이때까지 씨원하게 풀어주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이의 음성이 무겁게 울리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설계도를 생각깊은 눈으로 다시 굽어보시였다. 건설은 평양의 지하에서만 벌어지고있는것이 아니였다. 온 나라가 사회주의건설로 들끓고있었다. 김철과 무산광산, 검덕광산과 황철, 강선, 전국의 산과 들에서… 이러한 때 혁명적인 문학예술작품들이 수많이 창작되여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근로자들을 혁명적앙양에로 불러일으켜준다면 얼마나 좋으랴. 그러나 예술은 하루가 다르게 비약하고있는 현실의 뒤꼬리를 겨우 따라가고있는 형편이며 앞장에 서야 할 영화는 엄중한 병집을 드러내여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동무들한테 보여줄만한 새 영화가 없습니다. 앞으로 예술인들을 여기로 보내 공연도 하고 건설자들과 한데 어울려 일도 해보게 할가 생각하는데 오면 동무들의 투쟁모습을 다 보여주십시오.》

《예…》

그이의 괴로운 심중을 알리없는 공병장령은 그쯤한 말씀에도 기쁨을 감출수 없어 입가에 미소를 그리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그 미소를 보니 가슴이 더 쓰려나시였다.

그날저녁 무거운 마음으로 집무실에 돌아오신 그이께서는 탁상등의 환한 불빛밑에서 박경섭이 올려보낸 자료를 한장한장 번지며 영화예술인들의 사상상태를 다시 가늠해보시였다. 자료의 글줄들을 읽어나가시는 그이의 얼굴에 실망과 분노, 개탄과 련민의 착잡한 빛이 엇바뀌여 스쳐지나갔다. 때로는 글줄밑에 성급히 밑줄을 긋고 때로는 주먹으로 책상을 다독이기도 하시던 그이께서는 문득 자리에서 일어나 방안을 왔다갔다 거니시였다.

(현실은 어디로 내달리는데 이들은 어떤 시궁창에 빠져있는가. 사상상태… 정신상태가 이러니 그런 영화를 만들수밖에… 최승진이… 로영무… 저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

영화문제는 결국 그 창조자에 대한 문제, 인간문제였다.

응접실로 통하는 출입문쪽에서 손기척소리가 났다.

그이께서 응대를 하시자 한 젊은 일군이 들어왔다.

그는 박경섭에 대하여 무엇인가 좋지 못한 소리를 하는것 같은데 깊은 사색에 잠기시였던 그이께서는 그 말을 똑똑히 분간해들으실수 없었다.

《박경섭동무가 어쨌다는거요?》

그 일군은 망설이다가 가까스로 대답했다.

《촬영소에 나가 예술인들이 자발적으로 떨쳐나서 부업작업을 하는것을 중지시키고 예술인들의 로동계급화에 대하여 경솔한 발언을 한것 같습니다.》

《그건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촬영소 당단체에서 납득이 안되여 문의해왔습니다.》

그이께서는 저으기 놀라시였다.

4

층계의 계단들이 세차게 물결치며 흘러내리는듯하였다. 정신없이 층계를 따라 걸음을 다그치던 박경섭은 발이 계단턱에 걸채여 앞으로 넘어질번하였다. 파란 섬광이 눈앞에 튀고 순간에 식은땀이 이마에 내배였다.

그는 마음을 다잡으려고 멎어서서 숨을 돌리였다. 가슴이 쿵쿵 뛰고 눈앞이 어둑하게 흐려지는듯했다.

웃쪽에서 내려오던 풍채좋은 사람이 앞을 막아서며 인사를 하였다.

《안녕하십니까?》 떨리는 목소리이다.

박경섭은 그제야 문화성의 서영림부상을 알아보았다. 이마가 훤하게 벗어진 부상은 도수높은 안경알속에서 물기어린 눈을 번쩍이고있었다.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

《그때 제가 철저해서 강하게 요구했더라면 영화의 결함을 한

결 가셔낼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저한테 책임이 큽니다. 저는 자격이 없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자 말씀드렸습니다.》

《방에 계십니까?》

《예…》

부상은 안경을 벗어쥐며 고개를 약간 숙여보이고 맥없는 걸음으로 그의 옆을 스쳐지나갔다.

박경섭은 가슴이 저려들어 그의 뒤모습을 지켜보았다.

서영림은 활동가형의 일군이 아니라 부상이라는 직분에는 어울리지 않는 서재형의 인간이였다. 일찌기 그는 예술부문 대학들에서 미학과 세계예술사를 강의한적도 있어 예술일반에 대한 해박한 지식의 소유자였으며 예술리론의 전문가로서 문화성에 없어서는 안될 존재였다. 그는 근시였으나 《매눈》이라는 별호가 붙어다녔다. 그것은 대학들의 교재심의에서 필자의 파오를 빠짐없이 잡아내였고 력사물작품의 시연회같은데서 민속학적인 착오를 놓침없이 집어냈기때문이다. 그래서 고집이 센 연출가들도 성미가 유순한 그를 은근히 두려워했다. 그는 성에 근무한지 10년이 지났으나 학자풍의 체취가 가셔지지 않았고 타고난 선량성과 단순성때문에 성실성이 덜한 사람들한테 곧잘 속히웠으며 아래일군들을 휘여잡지 못하여 무원칙한 호인이라는 비난도 자주 들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서늘한 눈길로 박경섭을 맞이하시였다.

《동무가 촬영소에 나가 예술인들의 부업경리작업을 중지시켰습니까?》

나직하면서도 엄한 음성이 집무실의 공기를 흔들었다.

《예…》

《왜 그랬습니까?》

박경섭은 숙였던 얼굴을 들었다.

《여느때같으면 저는 아무 말도 안했겠습니다. 영화가 잘못돼서 고심하고있는 때 모두 그런 일을 하는걸 보니 정말 솔직히 말씀드려 속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로동계급의 사상감정을 알게하려고 그런 일을 시킨다기에 인테리로동계급화에 대한 당의 방

침을 비속화하는것 같아서 중지시켰습니다.》

《수령님께서는 예술인들을 따뜻하게 도와주어 영화를 잘 고치도록 하라고 하셨는데 주영도동무는 거기서 어떤판을 벌렸습니까. 낡은 사업방법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소박하다고 할가 단순하다고 할가 … 정신세계가 단순하지 않은 예술인들이 육체로동에 참가시킨다고 즉시 혁명화될것 같습니까. 전에도 말했지만 예술창조과정이 곧 혁명화과정으로 되게 해야 합니다. 창작실천과 혁명화를 위한 투쟁을 절대 분리시키지 말고 통일적으로 밀고나가야 합니다. 좀 앉으십시오. …》

박경섭이 응접탁결의 포의자에 조심스럽게 자리를 잡자 그이께서는 책상에 마주앉아 자료묶음을 쳐들어보이시였다.

《여기에 적혀있는게 모두 사실입니까?》

《예…》

《사실이란 말입니까? 나는 믿어지지 않아 몇번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영화예술인들의 어지러운 사상상태가 사실이 아니기를 못내 바라신 그이의 심정이 가슴에 마쳐와 박경섭은 죄송스럽게 눈길을 떨구었다.

《저도 처음엔 믿어지지 않아 보고드리기전에 촬영소에 내려가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거의 모두 사실입니다.》

그 고백이 한가닥의 기대선마저 끊어버린듯 **김정일**동지의 얼굴에 실망의 그늘이 비끼였다.

《사실이란 말이지요. …》 그이께서는 입속말로 조용히 뇌이시였다.

방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러니까 왜놈문화를 숭상했고 자본주의생활양식을 동경했다는거겠소. … 이번 영화의 과오에 놀라 사태를 너무 과장하고있는게 아닙니까? 촬영소 당비서가 어떤 동무입니까?》

주영도에 대하여 몰라서 물으시는것 같지 않아 박경섭은 잠자코 서있었다.

《인테리들속에서 사업해본 경험이 전혀 없는 동무가 아닙

니까?》

《그렇습니다.》

그이께서 생각깊은 안색으로 머리를 조용히 끄덕이시였다.

《그럴수 있겠습니다. … 그러나 문제를 보는 각도만은 옳습니다. 예리한데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식이 아닌 잡사상을 가지고 있었기때문에 좋지 못한 바람이 불자 흔들렸고 그래서 영화가 그렇게 된것이 아닙니까. 예술작품이란 창작가의 사상감정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습니다.》

《…》

박경섭은 목안이 말라드는듯하였다.

《이전에도 최승진동무에 대해 이런 문제들이 제기된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째 갑자기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제기됩니까?》

《영화가 잘못된것을 계기로 폭발적으로…》

《모두 옳지 않습니다. 최승진동무가 승승장구할 때에는 그한테 환상을 잔뜩 가지고 천재로,대가로 추켜올리더니 영화가 비판되고 형세가 기울어지니 이번에는 별의별 흠을 다 들춰낸단말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동지관계입니까. 나는 이러는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를 제때제때에 비판했더라면 이렇게야 곪았겠습니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주영도동무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박경섭은 목이 꽉 메여 마른침을 삼킨다음에야 가까스로 입을 열었다.

《그를 그냥 둬두면 젊은 동무들을 다 망칠수 있다고 하면서 용단을 내리자고 합니다.》

《용단을?…》

박경섭은 어떻게 자리에서 일어섰는지 몰랐다.

《저는 주영도동무의 의견에 동의할수 없습니다! 자료에 종합된 엄중한 문제들이 사실이긴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일면적인것입니다. 일면적입니다. 승진동무의 사상정신상태 전모는 아

닙니다. 결함만 긁어모았습니다.》
박경섭의 목소리는 의분에 떨리였다.
《저는 오래 지내봐서 그 동무를 잘 압니다. 전쟁때 후퇴의 길도 같이 걸었습니다. 반혁명과의 투쟁도 같이 해왔습니다. 언제나 당에 충실하려고 애썼습니다. 저한테 일제통치시기 식민지예술인으로서 갖은 천대와 멸시, 탄압을 받아온 이야기를 하면서 치를 떨던 동무입니다. 과거의 피눈물나는 체험으로부터 공화국의 품속에서 예술활동을 하는것을 어느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생각하는 동무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소리들을 하게 됐습니까?》
《그건… 그건 어디까지나 그의 일시적인 기분이지 본심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영도동무가 종합한 자료들은 모두 그가 한 잡소리들입니다. 말과 관계되는것들입니다.》
《말이라구요? 말은 사상의 표현이 아닙니까? 말은 곧 사상이고 감정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그의 눈에 눈물이 괴였다. 그는 몇순간 말을 못하고 우들우들 떨기만 하였다.
《지내보면… 그는 영화를 해보자는 이 한가지 생각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 동무한테 영화밖에는 아무런 생활도 없습니다. 주영도동무는 그의 부정면만 자료로 묶었습니다. 긍정면은 너무 적게 언급했습니다.》
《사실이 그렇다면 어째 시정시켜주지 못하고 그가 제기한 자료를 그냥 나한테 올려보냈습니까?》
박경섭은 고개를 숙이고 대답을 망설이였다.
《승진동무와 저는 이전에 아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언제나 원칙적이여야 하는 당일군으로서 무슨 오해를 당하는것이 두려웠습니다.》
《주영도동무한테?…》
《…그리고 그의 긍정면에 대해선 직접 말씀드리고싶었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몹시 지치신듯 몸을 뒤로 젖혀 안락의자등

받이에 머리를 기대며 눈을 조용히 내리감으시였다.

방안에 또다시 침묵이 흘렀다.

《주영도동무가 용단을 내리자는건 해임시켜버리자는것입니까?…》

《…》

《그렇게 한다… 그렇게… 자료를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수 있겠습니다. 그의 문건이 어디에 있습니까. 승진동무 리력문건이…》

박경섭은 2시간후 두툼한 문건철을 가져왔다. 그것은 각이한 시기에 최승진이 자필로 써서 제출한 리력문건철이였다. 누구도 관심을 가지고 번져보지 않아 어떤 종이가장자리들은 누렇게 색이 바래였으나 안에는 구겨졌거나 보풀 하나 인데가 없었으며 생생하게 간직되여있는 글줄들에서는 먹즙냄새까지 연하게 풍겨나오는듯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밤깊도록 그가 쓴 자서전 한장한장을 읽어나가시였다. 그이께서는 가난한 소작농이였던 최승진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넉가래같은 손들을 마음속으로 쓸어만져보시였으며 가냘픈 소년의 발자취를 따라 산촌의 오솔길도 더듬으시였고 향학열에 불타는 열혈청년이 건너간 현해탄의 거치른 물결도 눈앞에 그려보시였다. 그이께서는 최승진이 각이한 시기에 써낸 자서전들을 모조리 읽어나가시였는데 어떤 글줄들은 분격을 안고, 어떤 구절들은 환희를 안고 두번, 세번 거듭 읽어보시였다.

《나는 왜말로 말을 했고 왜놈들이 쓴 책들을 탐독했다. 장군님께서 나라를 찾아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왜놈이 다 되였을지도 모른다.》

《그 시절 제일 참기 어려운것은 배고픈것이였다.》

《나는 조선사람으로 태여난것을 부끄럽게 생각한적도 있었다.》

《큰 나라의 문화와 예술을 숭상하는 사상은 나의 뇌리에 뿌리깊이 박혀있었다.》

《나는 예술로 겨레의 울분을 표현하고싶었다.》

《절망끝에 타락한 생활도 하였다.》

《뒤에서는 미군의 포성이 우리를 쫓아오고있었다. 나는 부상당한 다리를 끌고 충주에서 강계까지 걸어들어갔다.》

《종파분자들이 당중앙위원회를 전복하려고 시도했다는 소식

을 들은날 나는 잠들수 없었다.》

…

어느덧 창문에는 새벽어스름이 비꼈다.

리력문건철을 덮고나신 그이의 눈앞에는 한 인간의 우여곡절 많은 일생과 복잡한 사상감정의 력사가 떠올랐다. 각이한 시대가 년륜처럼 그려넣은 밝은것과 어두운것, 깨끗한것과 어지러운것으로 착잡하게 얼룩진 한 예술가의 심혼이 어렴풋이 들여다보이는듯했다. 그것들은 세상을 휩쓰는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조류들에 끌려 어떤 때는 어둡고 어지러운것만, 다른 때는 깨끗하고 밝은것만 한데 합쳐지거나 뒤섞여져 밖으로 슴배여나왔을것이다. 《광풍》의 엄중한 결함에는 그의 그릇된 사상감정과 인생관과 미학관이 고스란히 반영되여있다. 그의 심혼속에 깊이 숨어있던 어둡고 어지러운것들이 한꺼번에 터져올라 그런 형상들을 빚어내고 채색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여 이렇게 한꺼번에?… 그것은 60년대를 진동하며 세계를 휩쓴 이런저런 사상조류와 예술조류에 현혹되여 더우기는 우리 사상사업에 일시 불어친 좋지 못한 바람에 끌렸기때문이다. 이렇게 보는것이 백번 정당할것이다. 그때 그의 생활적인 심리는 어떠했겠는가? 정치가도 사상가도 아니고 예술가인 그의 경우에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롭고 놀라운 형상을 창조하여 소문을 내고 이름을 떨치자는 공명심이 크게 작용했을지도 모른다.

《새 사조》의 선각자로, 총아로 되고싶었는가, 력사상에는 순수한 열정과 공명심때문에 정의냐, 부정의냐 가려보지 못하고 과오의 길에 뛰여들어 후세의 규탄을 받은 재사들이 얼마나 많았는가, 재능아들은 다 이렇게 어리석은가?… 그가 이전에는 어떤 작품들을 만들었던가…

그이께서는 끝없이 자문자답하며 방안을 거니시였다.… 어떤 작품을 만들었는가. 좋은 작품이 많다. 아주 많다. 그래서 인민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지 않았는가. 국가는 그에게 공훈예술가의 명예칭호를 주었다. 그것은 정당한 평가였다. 문득 그이의 상념속에서 그 무슨 변화가 일어났다. 최승진의 부정면이 줄어들고 지어는 그것이 하찮게까지 여겨지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자신의 그런 느낌에 놀라신듯 걸음을 뚝 멈추시였다. 그이의 눈이 그윽하게 빛났다.

(저 자료에 있는것들은 그의 사상의 전부일수 없다. 그럼 저것들은 무엇인가? 지난 세월이 남겨놓은 흔적, 낡은 사상의 잔재일뿐이다. 잔재다! 우리 당과 공화국이 그에게 얼마나 큰 혜택을 주고 얼마나 많은것을 주었는가. 우리가 준것이 더 강하지 낡은 사회가 남긴 흔적이 더 강하겠는가. 그는 우리 사회의 품속에서 20여년동안 예술생활을 하였다. 우리 사상과 우리 정책의 강력한 견인력과 감화력이 저쯤한 흔적, 잔재를 이겨내지 못하겠는가!)

그이께서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시였다. 동시에 심한 피곤을 느끼시였다.

창문에 어린 희붐한 새벽빛을 보신 그이께서는 안락의자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기시였다.

×

하지만 이튿날 오후 박경섭이 숨이 턱에 닿아 찾아와서 드린 보고는 그이의 마음을 송두리채 뒤번져놓았다. 어제만해도 최승진을 그처럼 옹호했던 박경섭은 분개한 나머지 얼굴이 시퍼렇게 질려 그에게 속히웠다고 부들부들 떨며 놀라운 사실을 보고하는것이였다.

《최승진동무가 버린 녀성이 딸과 함께 어느 먼 지방의 산골에 살고있다는것이 폭로되였습니다. 로영무동무는 그것을 알고도 이때까지 사람들을 속이면서 덮어주었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너무 아연해지고 손맥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으시였다.

《어디서 나온 소리요?》

《주영도동무가 통보해왔습니다.》

《아 참, 얼마나 복잡한 사람인가… 어째 이런 문제들이 자꾸 터져나오오?… 그가 과연 그런 인간인가…》

김정일동지께서는 쓰거운 환멸감을 참기 어려우신듯 그를 외

면하고는 한동안 말씀이 없으시였다.

《떼버리겠습니다!》

《…》

《속히웠습니다.》

《너무 서두르지는 마오. 마지막으로 동무가 직접 내려가서 한번 다시 확인해보고 생각해봅시다.》

담담하면서도 서늘한 음성이였다.

그날 최승진의 사생활에 대한 료해담화는 주영도의 방에서 진행되였는데 때마침 터진 눈바람이 창유리들을 후려치는바람에 방안은 어둑하고 을씨년스러웠다.

박경섭의 질문을 받은 로영무는 흰자위가 다 드러나도록 눈을 크게 뜨고 턱을 덜덜 떨면서 그를 지켜봤는데 그 기상이란 매우 무서운것이였다.

《뭐라구요?… 버린 녀자라구요?… 버렸다구요?》

그는 우들우들 떨면서 같은 말을 되풀이하였다.

박경섭의 곁에 앉은 주영도가 핀잔조로 그를 나무람하였다.

《료해해서 사람을 건져주자는건데 왜 이럽니까? 흥분하지 말고 차근차근 말해보십시오. 그 녀자는 이름이 무엇이고 어디에 살고있는가, 딸은 몇살이고 이름이 무엇인가… 어째 그런 비인간적인 사실을 덮어주었습니까?…》

로영무는 갑자기 헉 하고 숨을 들이긋더니 얼굴을 숙이며 한손으로 가슴을 움켜잡았다.

《로동무, 어디가 괴롭소?》 하고 박경섭이 놀라서 엉거주춤 일어섰으나 주영도는 끄떡없이 그를 지켜보며 소리쳤다.

《이러지 마시오. 정 말하기 괴로우면 주소와 성명이라도 대주십시오.》

《덮어… 덮어준건… 사실이…지…만…》

로영무는 쥐여짜내는듯한 소리로 얼버무리다가 몸을 서서히 옆으로 기울이면서 의자를 붙잡았다.

로쇠한 심장이 모진 충격을 이겨내지 못하는것 같았다.

담화는 중단되였다.

5

그날 로영무는 심장발작이 가라앉자 인차 집으로 돌아와 자리에 누웠는데 온밤 잠들지 못하였다.

이따금 거리로 지나가는 자동차의 불빛에 창문살 그림자가 길게 늘어나며 천정으로 서서히 기여가군하였다.

침대에 반듯이 누워있는 로영무는 멍한 눈으로 천정을 쳐다보다가 길게 한숨을 내쉬였다.

(이제는 다 드러나겠구나… 이 일을 어찌는가… 저 젊은 색시는 어떻게 나올것인가…)

머리가 희끗희끗해지도록 한번도 배신을 몰랐던 그들의 우정은 아득한 옛시절, 류랑극단의 처량한 사연속에서 움튼것이였다.

30년대말의 황혼속에 세상이 더욱 어두워져갈 때 동해가 어느 소란한 포구에 《예우극단》(예우—예술의 벗)이라고 자칭하는 한 류랑극단이 초라한 행장을 풀고 한달째 묵고있었다.

애국문화운동의 여파인지, 미지의 다른 원인때문인지 한때 세상에 갑자기 회오리친 연극바람은 도처에서 크고작은 소인극단들을 수많이 발족시켰다. 그것들은 처음에는 자기고장에서 공연하다가 담도 커지고 돈도 생겨 군계와 도계를 넘어, 지어는 국경을 넘어 멀리 만주광야에까지 나가 돌아쳤는데 먼 려로의 갖가지 수난속에 인차 망해버려 고향으로 고스란히 돌아갔거나 산지사방으로 흩어져버리기도 하고 쇠진해진 패끼리 하나로 합쳐 다시 징소리를 울리며 떠돌아다니기도 했다.

그 당시에 와서는 일제의 민족문화말살책동과 자금난, 궁핍, 막연한 지향으로 하여 거의 모두 자취를 감추었으며 남아있는것들이란 류랑걸식의 무리나 다름없었는데 《예우극단》도 그런 무리중의 하나였다.

예우란 극단 단장 강성우의 예명이였다.

극단성원은 15명밖에 안되였는데 다시 재기하여 세상을 들썩하게 한다는 예우의 호기에 찬 소리에 속아 때가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였다. 개중에는 류랑의 길에서 겪게 되는 희로애락의 랑만과 방랑인의 야릇한 애수에 인이 배겨 떠나지 못하는축들도 있었다. 그들의 대부분은 류랑의 길에서 서로 만나 사귀고 형제처럼 가까와진 까닭에 그 의리를 저버릴수 없어 시작도 끝도 모르는 길을 따라다니는것이였다. 왜 연극에 뛰여들었는가, 왜 그토록 신명이 나서 연기를 하느냐고 물으면 그것을 표현의 본능과 결부시켜 의사표시, 감정토로의 열망때문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그저 가슴에 쌓인 울분을 터뜨려 울고 소리치면 구경군들도 같이 눈물을 쏟는데 그러고나면 속이 후련해지고 또 가는곳마다에서 만사람의 환대를 받게 되기때문에 그 재미에 연극을 한다는것이였다.

예우는 조선팔도를 돌아다닌 광대의 후예였는데 한때 곡마단을 따라다니며 기합술도 놀았다는 사람이였다. 그는 무식하여 우륵이나 김삿갓, 쉑스피어가 누구인지는 잘 몰랐지만 무서운 연극애호가였다. 화술이 좋고 흉내내는 재간이 비상하여 그것을 밑천으로 감독을 겸하고 경리까지 맡아보았으며 이따금 효과사노릇도 하였다. 그는 체구가 우람하고 주먹이 드세였는데 완력이 정의보다 더 은을 내는 세월이여서 그 덕에 극단을 손아귀에 넣었는지도 모른다. 사실상 그는 한 패당의 우두머리격으로 놀았다. 밥값이 떨어져 단원들이 모두 의기소침해지면 《떡메로 내 배를 두드리면 될거 아니야!》 하고 소리치며 벌겋게 피진 눈을 부라리였다. 그것은 빈소리가 아니였다. 사실 참기 어렵게 궁색해지면 장마당같은데서 사람들을 모아놓고는 유리병을 깨뜨려 땅바닥에 깐 다음 예우가 웃도리를 훌렁 벗고 그우에 누웠으며 단원들이 떡메로 그의 배에 올려놓은 석판을 내리쳤다. 얼마후 그가 껄껄 웃으며 털고일어나면 사람들은 유리쪼각들이 배긴 시뻘건 잔등을 보며 혀를 차다가 한 단원이 내민 밀짚모자에 호주머니의 푼전을 털어넣어주었던것이다. 그런 일은 이따금 있었다.

로영무는 조감독이고 배우에 조명사를 겸하고있었는데 연극창

조와 공연뿐아니라 모든 일상생활에서 예우를 떠받들어나갔으며 그의 비위에 맞추려고 하였다. 그가 예술에 조예가 깊거나 지능이 높아서가 아니였다. 그의 호기와 배심과 완력이 아니고는 극단을 단합시켜 이끌어나갈수 없었기때문이다. 로영무는 극단에서 그의 오른팔이였으며 그림자처럼 되여있었다.

예우극단은 포구의 루추한 려인숙에 거처를 정하고 한달째 재기할 준비를 갖추고있었다. 예우와 로영무를 비롯한 몇사람은 려인숙의 어둑한 뒤골방에서 각본을 꾸미느라고 머리를 짜냈으며 나머지 예술의 벗들은 나루에 나가 정어리를 배에서 염장터까지 날라들이는 일을 하며 밥값을 벌기에 바빴다. 각본은 좀처럼 잘 꾸며지지 않았다. 그래서 밤에 낮을 이어 열을 올려 토론도 하고 언쟁도 하였다. 예우는 속이 상하여 줄담배를 피우다가는 이따금 방구석에 세워둔채로 있는 단기를 돌아보며 한숨을 쉬였다. 한때 도소재지의 하늘에도 펄럭인적있는 단기의 푸른 삼각기폭은 담배연기속에 후줄근하게 드리워있었는데 어느 명필이 거기에 일필휘지로 휘갈겨 써준 《예우》라는 두 글자도 그들을 지켜보며 한숨을 짓는듯했다. 그런데 어느날 뜻밖의 희소식이 날아들었다.

금강산의 어느 암자에 와서 은둔생활을 하며 병치료를 받던 한 극작가가 얼마전에 별세하였는데 그 미망인이 남편의 유고를 팔 의향을 표시했다는것이였다.

단장은 너무 기뻐 무릎을 철썩 내리치고는 로영무더러 당장 찾아가서 흥정해보라고 했다. 그는 각본이 괜찮으면 값을 후하게 치르더라도 사오라고 하며 자기 회중시계를 떼주었다. 그리고 극단이 초라하게 보이면 저쪽에서 얕보고 터무니없이 값을 높이 부를수 있다고 하며 그닥 낡지 않은 자기 파나마모까지 꺼내주었다. 150리길을 단숨에 걸어 금강산암자에 이른 로영무를 맞이한것은 슬픔에 젖은 아름다운 미망인이 아니라 헐어빠진 학생복에 베감투를 쓴 끌끌한 청년이였다. 암자의 아담한 방에 안내된 로영무는 의젓하게 앉아 파나마모자로 부채질을 하며 찾아온 사유를 말하였다. 청년은 작고한 극작가의 제자노라고 자기 소개를 하고는 최승진이라 불러달라고 하였다. 그리고 스승의 미망인은 외동딸과 함께 며칠전

서울 친정으로 떠나가고 뒤치닥거리를 하기 위하여 자기만 여기에 홀로 남았노라고 하였다. 그의 말에 의하면 고인이 병치료를 받으며 여러군데서 돈을 많이 빌려쓴데다가 또 장례비도 꾸어썼기때문에 미망인이 그 채무를 벗자고 빈한한 가산을 다 팔았고 나중에는 유고까지 팔 생각을 했다는것이였다. 최승진은 스승의 유고를 내놓으며 재능을 알아못보는 세상이라고 탄식하였는데 그의 눈에 핑 어리는 물기가 로영무의 가슴을 찔렀다. 로영무는 유고를 주의깊이 두번이나 읽었다. 한 어부의 딸이 아버지가 풍랑을 만나 바다에서 죽은 다음 선주놈의 작간으로 빚값에 몸이 팔려 일본으로 끌려가다가 도망쳐 선주놈을 복수하고 바다물에 뛰여들어 투신자살했다는 이야기를 2막 4장으로 엮은 중막물이였다. 세상에 흔히 있는 이야기를 담은것인데 작가의 재능으로 하여 등장인물들의 성격이 뚜렷하게 두드러지고 갈등이 첨예하며 어촌의 생활세태가 순수한 향토적인 정서로 생동하게 그려져있었다.

흥정은 로영무가 말없이 회중시계를 상대편의 손에 쥐여주고 최승진이 얼굴이 벌개지며 그것을 호주머니에 밀어넣는것으로써 끝났다. 밤이 깊어 혼자 떠나기 싫은데다가 최승진이 자꾸 자고 가라고 해서 로영무는 암자에서 하루밤 묵기로 마음먹고 그와 나란히 누웠다. 심산의 괴괴한 정적을 흔드는 산골 물소리에 잠들지 못한 두 청년은 서로 자신을 소개하며 끝없는 이야기를 나누게 되였다.

최승진이 영무라는 그 이름에 깊은 뜻이 담겨져있는것 같다고 하며 그것이 본명인가 아니면 예명인가고 묻자 손님은 솔직히 말해주었다. 세상의 비운속에 자기 가슴에도 영원히 가실줄 모르는 안개가 끼였는데 그래서 예명을 영원한 안개,영무라고 지었노라고… 그러자 그도 세상에 살판치는 악에 지지 말고 계속 이기며 나가라고 작고한 스승이 자기를 승진이라고 불러주었노라 말하였다.

이야기가 오고가는 과정에 두 청년사이에는 애틋한 정이 통하였고 로영무는 이 청년이 연극에 아주 조예가 깊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알아보니 일본에 건너가 고학으로 영화를 공부하다가 학비벌이가 너무 고달파 단념하고 돌아온 청년이였다. 뜻이 꺾이운 최승진은 원산에서 일정한 일자리도 없이 전전하면서 부두에서 품

팔이로동도 하고 가정교사노릇도 하면서 입에 풀칠이나 하고있는 가궁한 처지였다. 그는 예우극단에 호기심을 가지고 이것저것 물어보다가 새벽녘에는 자기를 받아줄수 없느냐고 물었다.

로영무는 모색이 남아답게 준수하고 지식도 있고 기품도 단정해보이는 청년이 무척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단장과 의논하고 극단에 받도록 힘써주겠노라고 하며 같이 손잡고 연극을 해보자고 그의 손을 굳게 잡아주었다.

각본은 단장의 마음에도 들었다. 각본이 생기자 의기저상되였던 극단에 생기와 활력이 되살아났다. 예우는 곰팽이 낄 지경이였던 단기를 꺼내 려인숙 지붕우에 높다랗게 띄우고 연극창조를 시작했다. 그들이 려인숙의 길다란 밥상에 둘러앉아 탁상훈련을 하는데 최승진이 찾아왔다. 예우는 그를 여간 반갑게 맞이하지 않았다. 그에게 무대감독자리를 주고 그의 입단을 축하하여 한상 차리기까지 하여 모두 눅거리 탁배기에 얼근히 취하기까지 했다. 그가 극단에 들어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여러가지 심상치 않은 일들이 생겼다. 그는 예우가 만들어놓은 과장된 연기들을 모두 류랑극단의 구습이요, 시대에 뒤떨어진 신파기라고 비난하고 사실주의적연기체계를 세워야 한다면서 등장인물들의 연기를 하나하나 고쳐놓기 시작했다. 예우는 자존심이 상하여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햇병아리같은 녀석이 무엇을 안다고 지껄이는가, 그 《사실주의》인지 뭔지 하는건 고추가루를 치지 않은 국수나 물을 탄 술처럼 슴슴한것이라고 하면서 너털웃음을 웃어댔다.

로영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예우가 그 성미에 최승진을 훌 내쫓을수도 있고 옥신각신 론쟁이 커지면 제편에서 시끄럽다고 어느 곡마단같은데로 떠나가버릴수도 있는것이였다. 그는 너희들이 내 말을 안들으면 떠나가버리겠다고 으른적이 한두번이 아니였다. 예우가 없으면 극단은 흩어지고만다.

그는 최승진을 조용한데로 끌어내여 제발 예우의 자존심을 너무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사정하였다.

고학생활에서 터득한것인지 교제술이 어지간히 있고 신축성도 있는 최승진은 예우를 잘 구슬려 노여움을 가라앉히고는 신파기

가 지내 세지 않은 대목들은 그대로 살려두었다.

예우는 흐뭇해졌고 다시 성수가 나서 장치물들을 만든다, 소도구, 대도구들을 장만한다, 어업조합 어부들속에서 찬조출연자들을 모집해온다 열이 올라 뛰여다녔다. 예우가 고안해낸 1막 1장의 무대장치는 그 사실성과 생동성으로 하여 놀랄만한것이였다. 막이 열리면 배경에서는 푸른 바다가 철썩이는데 십여명의 람루한 옷차림의 어부들이 바다가에 한줄로 늘어서서 어부가를 처량하게 부르며 그물을 끌어올리는 장면이 펼쳐진다. 예우는 그 그물에 종이로 만든 가짜고기가 아니라 펄펄 뛰는 진짜 바다물고기가 걸려올라오게 하자고, 이런게 진짜배기 《사실주의》라고 흥이 나서 주장하였다. 로영무와 최승진은 그것이 자연주의적인것이라고 여겨져 마음에 썩 내키지 않았으나 동감을 표시했다.

보름후, 포구와 린근어촌의 여기저기에 어업조합창고에서 예우극단이 연극 《포구의 눈물(부제—철썩이는 파도)》을 공연한다는 광고가 나붙었다. 첫 공연이 시작되는날 정오, 근처의 중학교 악대가 나팔을 불며 거리를 돌아다녔는데 악대의 앞에서는 높다란 고깔모자를 쓴 로영무가 단기를 높이 추켜들고 걸었고 그뒤에서 가슴에 꽃송이를 붙인 여러명의 배우들이 징과 북을 치며 걸어갔다. 그 배우들에게 옹위되여 걸어가는 예우는 거리로 달려나온 구경군들에게 파나마모를 벗어 흔들어보이면서 흐뭇한 미소를 머금었다. 온 거리가 들썩해졌다.

공연이 시작될 시간이 다가오자 어업조합창고앞은 사람들이 밀려들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극장》안은 표를 먼저 사고 들어온 사람들로 립추의 여지가 없었다.

막이 열리고 무대가 서서히 밝아지며 배경에 푸른 바다가 펼쳐지고 갈매기 울음소리, 기슭을 들부시는 파도소리가 울려나오자 관중들은 갑자기 기침들을 깇으며 술렁거리다가 숨을 죽이는듯 잠잠해졌다. 바다기슭에 한줄로 늘어서서 그물을 당기는 어부들의 구성진 노래소리가 장내를 뒤흔들었다.

어이차 어이차

그물을 당기세 어이차
오복이네 새색시 어이차
청어만 찾는다 어이차

어이차 어이차
그물을 당기세 어이차
세거리집 할머니 어이차
청어만 달란다 어이차

어이차 어이차
그물을 당기세 어이차
…

그물에 달려올라오는 산 청어들이 푸들쩍거리며 은빛을 뿌리자 장내에는 야— 야— 탄성이 터져올랐다.

어부의 딸 진주가 아버지를 삼켜버린 바다를 향하여 초혼의 부르짖음소리를 터칠 때와 그가 빚값에 끌려갈 때 관중들은 여기저기서 흐느껴울었다. 그리고 도망쳐온 진주가 어업회사 사장놈의 집에 불을 지를 때에는 모두 일어나 환성을 터뜨리며 박수갈채를 보냈으며 그가 사장놈의 졸개들에게 쫓기다가 바다물에 몸을 던질 때는 너무 기막혀 가슴도 두드리고 얼굴을 싸쥐고 울음을 터뜨렸다. 공연은 성공적이였다. 로영무는 그것이 자기와 최승진이 새로운 연기체계를 조심스럽게 도입한 결과라고 생각했으나 예우는 그물에 산 청어를 걸어놓은 효과가 커서 관중들을 처음부터 틀어쥘수 있었다고 만족해하였다. 공연에 대한 소문은 삽시에 널리 퍼져서 백여리밖에서도 관객들이 모여들었다.

예우의 호주머니속으로는 구리돈과 종이돈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날아들었다. 한달후 극단은 서울로 올라갔는데 예우의 주장으로 크게 짠 나무통에 바다물과 함께 청어를 넣어가지고 떠나갔다.

그들이 탄 렬차가 경원선에 들어서서 서울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을 때 최승진은 차창밖으로 흘러가는 산천을 바라보며 의미

심장한 말을 하였다.

쉑스피어도 자기의 비극들을 지방공연에서 세련시켜가지고 런던으로 쳐들어갔다고…

서울은 시골에서 올라온 극단을 쌀쌀하게 랭대하여 누구도 예술의 벗들에게 극장을 내여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구석진 뒤골목의 소학교 강당을 간신히 빌어 첫 공연의 막을 올렸다.

무대가 밝아지고 바다기슭에 한줄로 늘어서 그물을 당기는 어부들의 구성진 노래가 장내를 뒤흔들었다.

어이차 어이차
그물을 당기세 어이차
…

노래가락에 맞추어 욱욱 기운을 쓰는 어부들의 손에 끌려올라오는 그물속에서 싱싱하게 산 청어들이 푸들쩍거리며 비린내를 풍기자 시원한 바다바람이 장내에 회오리치는듯했다. 바다생선이라고는 좀처럼 입에 대보지 못하는 서울 뒤골목의 빈민들인 관중은 너무 희한하여 모두 목을 빼들고 무대를 바라보는가 하면 엉거주춤 일어서기까지 했다.… 첫 공연에서 청어 여러마리를 죽였다. 그러나 이 엉뚱한 공연소식은 이튿날로 서울장안에 파다하게 퍼졌다. 청어를 거의 다 죽인 나흘만에야 예술의 벗들은 본정통에 자리잡은 한 이류극장의 무대를 빌릴수 있었다. 거만한 극장측은 호기심과 시골사람들을 보면 조롱하고싶어 못견디는 대처 시정배들의 얄궂은 심보로 그런 혜택을 베풀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관중은 편견을 모르고 공정하여 막이 내린 다음에도 떠날줄 모르고 오래도록 박수갈채를 보내였다. 관객들이 다 나간 다음 무대를 거두며 바삐 돌아치던 로영무는 최승진이 웬 처녀와 무대뒤에 마주서있는것을 보고 눈이 휘둥그래져 주춤거렸다. 극단생활을 통하여 녀성들과의 접촉에 습관되였지만 그처럼 놀라게 된것은 처녀가 인상적인 미모를 가졌기때문만은 아니였다. 그들이 너무 가까이 마주서서 주위분위기는 까마득히 잊고 이야기에 열중하고있었기때문이였다. 산뜻

한 쎄라복차림의 그 처녀는 손에 말아쥔 잡지끝으로 입을 가리우고 무엇인가 조용조용 속삭이고 최승진은 심중한 눈빛으로 들으며 머리를 끄덕이고있었다.

로영무가 돌아서려는데 최승진이 그를 불러세우고는 처녀를 소개해주었다. 처녀는 《포구의 눈물》을 유고로 남긴 그 극작가의 외동딸인데 이름은 정은주라고 하였다. 처녀는 반겨웃으며 공연에서 아버지의 넋과 숨결을 느꼈다고 머리를 깊이 숙여 감사를 표시하였는데 그 행동거지가 여간 세련되고 우아하지 않았다. 처녀한테서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부드럽게 해주는듯한 청신하고 유순한 그 무엇이 풍기였다.

그날밤 려관방에 누워서 최승진은 정은주와 자기는 이미부터 사랑하는 사이였다고 고백하였다. 로영무는 이때까지 내내 스스럼없이 지내오면서도 그런 사연을 비밀에 붙이고 한마디 해주지 않은 벗에 대하여 은근히 노엽게 생각했다. 최승진은 잠자코 있는 친구에게 처녀는 며칠전 어머니마저 사망하여 의지할데 없는 신세가 되였다면서 그를 데리고 떠났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그 소리를 듣자 로영무는 노여움이 가뭇없이 사라지고 련민이 북받쳐 이튿날 예우에게 그들의 사연을 이야기하였다.

예우는 그날 정은주를 만나보고 얼굴이 컴컴하게 질려 담배만 연거퍼 피우다가 저런 녀자가 들어오면 집안이 무사치 못해 하고 입안의 소리로 중얼거렸다. 로영무한테는 그 소리가 인생풍파를 다 겪은 사람의 선견지명처럼 느껴지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예우는 한숨을 내쉬더니 담배꽁초를 땅바닥에 내동댕이치며 젠장 모르겠다, 데리고 떠나자고 하였다.

극단은 남하하여 령남지방을 순회하면서 공연하였다. 그 길에서 최승진과 정은주의 사랑은 나날이 깊어졌는데 범상치 않은 일도 더러 생겼다. 그것은 예우가 극단의 다른 녀배우들보다 정은주를 드러내놓고 편애하기 시작한것이였다. 예우는 각본을 필사할 일이 생겨도 정은주를 불러시켰고 그의 화술련습도 자기가 직접 맡아서 보아주었다. 그에게 배역은 주지 않고 려관교섭이나 극장교섭을 갈 때마다 늘 데리고 다녔는데 아마 그런 가인을 옆에 세워놓고 말

하면 극단의 풍격도 올라가고 자기 지체도 돋보이게 된다고 여기는 것 같았다. 교섭상대들은 정은주에게 정신이 팔렸는지 까다롭게 굴지 않고 헐하게 응해나서군하였다.

단장은 어느 고을 식당에서 그들을 위하여 약혼식을 차려주었으며 그자리에서 말없이 술을 지독하게 마시고는 쓸쓸한 얼굴로 밖에 나가 오래동안 혼자 앉아있었다.

정을 붙일 보금자리도 없이 끝없는 방랑의 길을 헤매는 자기 신세가 갑자기 슬퍼진 모양이였다. 완력가이고 성미가 드센 예우가 그런 감상적인 기분을 드러낸것은 첫 일이였다.

그후 극단안에 심상치 않은 마찰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최승진이 무엇때문인지 예우를 하찮게 얕보면서 무대형상문제에서는 단장의 의견을 전혀 존중하지 않았을뿐아니라 사람들앞에서 내놓고 반대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단장은 여느 사람들앞에서보다 정은주가 있는데서 그런 반대에 부딪치면 참을수 없는 모욕을 당한듯 얼굴이 퍼렇게 질려 험한 눈으로 그를 노려보며 부들부들 떨었다.

그러나 이튿날에는 아무 일도 없었던듯 또다시 새 공연지를 향해 정처없는 길을 떠나갔다. 그들은 거리에서 거리로, 시골에서 시골로 옮겨가며 공연을 계속했다. 비록 산 청어 대신 나무를 깎아 만들고 그우에 은지를 붙인 가짜청어를 썼지만 그사이 배우들의 연기술이 늘어 공연은 점점 잘되여갔고 관중들의 반향도 컸다. 예우극단의 징소리는 령남땅의 크고작은 도시들과 산촌들을 찾아다니며 끊임없이 울리였고 공연을 보고난 사람들은 가슴들에 맺히고 쌓인 원한을 터쳐 어느 원쑤놈을 복수하기라도 한듯 속이 후련해져 기뻐하는가 하면 자기네가 당한 억울한 일들이 상기되여 흐느껴 울면서 공연을 보았다. 그래서 어디서나 예술의 벗들을 옛날의 농민군이나 의적떼처럼 반겨맞아 환대했으며 그들이 다른 고장으로 옮길 때면 장치물들과 대도구, 소도구와 의상 궤짝들을 지고 따라나서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였다.

예우극단이 어느 번창한 도시에 들어서자 그곳 경찰서장이 단장을 불러 너희들은 어디서 떠났는데 어디까지 갈 작정이냐고 따져 물었다. 단장은 그때 어느 신파극의 대사가 머리에 번개친것인지

벙긋 웃어보이고는 죽은 백성들의 령혼속에서 떠나 산 백성들의 마음속으로 가는길이라고 했다. 미신을 믿는 서장은 자기앞에 버티고 서있는 이 거인이 과연 이 세상의 사람인가싶어 부릅뜬 눈으로 이윽토록 지켜보다가 황황히 상급의 명령을 전달하였다. 연극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라,어부의 딸은 빚을 갚기 위해 일본에 돈벌이 가는것으로 할것,사장의 집에 불을 지르게 할것이 아니라 많이 벌어온 돈을 악한에게 도적맞히고 절망끝에 투신자살하게 할것,어느고장에 가거나 주재소에 공연신청을 내고 립회순사의 참석하에서만 공연할수 있다,이상 명령을 어길 때에는 제국의 치안유지법으로 너희들을 다스린다.

경찰이 제시한 수정안은 도급에 있는 어느 우둔한 관리의 고안이거나 권력에 매수된 서푼짜리 어용작가의 즉흥적인 착상임에 틀림없었다.

6

각본이 고쳐지자 민심의 외면을 당해 관객이 없어지고 극단은 밥벌이도 못하게 되였다.

류랑민의 떼처럼 행색이 후줄근해진 예술의 벗들은 락동강가의 어느 읍거리에 이르러 숙소를 정하려고 려관과 려인숙들을 찾아다니였으나 어디에서도 자리가 없다면서 받아주지 않았다.

예우가 궁리끝에 정은주를 데리고 교섭에 나섰다. 그는 읍거리에서 1류급이라는 2층집려관으로 찾아갔다.

그 려관주인은 키가 훤칠하고 강마른 얼굴에 은테안경을 낀 작자였는데 예우의 사정말을 들으며 은주에게 몇번인가 눈길을 돌리더니 극단을 받아주었다. 그런데 단장은 그날밤 울화병때문인지 덜컹 앓아눕게 되였다. 극단은 려관에서 묵으면서 그의 병이 낫기를 기다리는수밖에 없었다.

하루는 어느놈이 그의 트렁크를 마스고 얼마 안되는 극단의 자

금 전액을 털어갔다. 예우는 주먹으로 방바닥을 내리치며 어느놈 작간이냐고 절망적으로 부르짖었고 단원들의 얼굴에는 순간에 암담한 그늘이 비꼈다. 그들은 신경이 날카로와져 서로 의심하기 시작했다. 단원들은 결백성을 인정받기 위하여 두셋씩 짝을 무어 서로 호주머니들을 뒤지고 짐들을 털어보는 구차스러운 놀음을 벌렸다. 로영무와 최승진,정은주도 한짝이 되여 같은 놀음을 했다. 자신의 결백성이 증명되자 최승진은 로영무를 조용한데로 끌어내여 단장이 의심스럽지 않느냐고 물었다. 로영무는 얼굴이 컴컴해져 대답을 못하였다.

당장 려관비를 낼 돈이 없었다. 그래서 눅거리 려인숙으로 옮겨가려는데 려관주인이 나타났다.

그는 예우에게 자기 려관에서 이런 수치스러운 사건이 생긴것만큼 자기에게도 일정한 책임이 있다고 하며 려인숙으로 옮겨갈것 없이 숙식비는 후에 물기로 하고 그냥 있어달라고 하였다. 그리고는 자기도 소시적에 연예에 바람이 나 소인연극에도 관여해본적이 있어 전혀 문외한이 아니고 예술가의 생활고가 어떤것이라는것쯤은 다소 리해하고있다고 했다. 그 호의를 받아들여 려관에 그냥 눌러앉아 어물어물 뭉개는 사이에 열흘이 지나갔다. 려관비만해도 엄청난 량으로 루적되였다.

수건으로 머리를 질끈 동이고 누워 끙끙 앓음소리만 내던 단장은 벌떡 일어나 외상밥을 더는 먹을수 없다고 하며 어서 떠나 공연을 시작하자고 했다. 극단이 떠나려고 행장을 꾸릴 때 단장은 려관주인을 만나 보름안으로 빚진 돈을 송금해주겠노라고 다짐하였다. 려관주인은 안경알을 번뜩이며 상냥하게 웃어보였다. 그리고는 기왕 서로 안면을 익힌 사이인데 이번에는 자기가 신세를 좀 질수 없겠느냐고 하였다. 그는 자기 려관에 일손이 딸려 그러는데 두사람이면 더욱 좋고 안되면 한사람이라도 남겨두고 갔으면 좋겠다고 하며 너무 궂은일은 시키지 않겠다고 했다. 인질을 남겨두고 가라는 소리라는것을 인차 알아차린 예우는 기막혀서 마른 입만 쩝쩝 다시였다.

려관주인은 단장의 침묵을 동의로 여긴다는듯 한걸음 더 내짚

어 남자보다도 부엌일도 할수 있고 장부정리도 할수 있는 녀자를 남겨두었으면 더욱 감사하겠다고 하였다. 그런 적임자는 정은주밖에 없었다. 다른 녀자들은 모두 역을 맡고있어 떨궈두면 공연을 할수 없었다.

단장은 최승진의 량해부터 구하고싶었는지 제일먼저 그에게 려관측의 요구를 이야기하고는 에둘러서 역이 없는 녀자를 떨궈둘수밖에 없게 되였다고 하였다. 최승진은 대뜸 얼굴빛이 해쓱해지며 구원이라도 청하는듯 로영무를 돌아보았다. 로영무는 눈길을 아래로 떨구었다. 단장의 설명을 듣자 당자인 정은주는 자기밖에 남을 사람이 없다는것을 인차 깨닫고 제 입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기까지 하였다. 그는 홀몸으로 려관에 남는것을 께름하게 생각하는 눈치는 전혀 보이지 않았고 아버지의 작품을 공연해주었고 자기를 받아들여 보살펴준 극단을 위해 비로소 한몫 맡아하게 되였다고 마음속으로 은근히 기뻐하는것 같았다.

극단은 마을에서 마을로 옮겨가며 공연하였으나 어디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했으며 관객은 나날이 줄어들었다.

예우는 말이 적어졌으며 내내 무슨 궁리엔가 골똘하다가 하루는 로영무한테 아무리 생각해봐야 려관주인이 의심스럽다, 그놈이 돈을 훔친것 같은데 단서를 잡을수 없다면서 단숨을 거칠게 몰아쉬였다. 그러다가 울화병으로 또다시 앓아눕게 되였다.

최승진은 려관에 두고온 정은주때문에 몹시 불안해하였으며 날이 갈수록 초조해져 어서 돈을 벌자면 모험이기는 하지만 원각본대로 공연을 하는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예우를 길가의 초라한 려인숙에 남겨두고 극단을 이끌고 경찰의 눈이 덜 미치는 먼 산간마을들을 찾아다니며 공연하였다.

어느날밤 그들은 농민들이 꾸려놓은 야외가설무대에서 공연하였다. 무대좌우앞과 량옆에 광솔불을 황황 피워 조명으로 삼고 객석 여기저기에 모기불을 피워놓고 하는 공연이였지만 무대앞에 빼곡이 모여앉은 백여명 관중들과의 호흡이 너무 잘 맞아 배우들은 동해기슭 포구에서의 첫 공연때와 같은 생신한 열정과 흥분으로 연기를 하였다.

어느놈이 밀고한것인지 바스라지는 말울음소리와 함께 4명의 기마경찰이 어둠속에서 날아나와 관중석으로 뛰여들었다. 놈들은 군도를 뽑아 위협적으로 휘두르며 사람들을 짓밟아버릴 기세로 돌아쳤다. 서슬푸른 군도날이 번개불처럼 번뜩이였다. 사람들은 날뛰는 군마들의 발통에 짓밟히고 칼에 찔리울가봐 질겁하여 아우성치며 어둠속으로 흩어졌다. 경찰들은 말에서 내려 무대로 뛰여오르더니 미처 피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거나 얼이 나가 엉거주춤 얼어붙어 서있는 배우들을 칼등으로 후려치고 발길로 걷어차서 꼬꾸라뜨리였다. 그리고는 무대에 불을 질렀다. 수천리 이동공연의 길에서 마를대로 마른 장치물들은 화약처럼 불길을 끌어당겼다. 시뻘건 불길에 휩싸인 무대가 하나의 커다란 우등불처럼 활활 불타오르고있을 때 상관인듯한 경찰놈이 한켠에 몰켜서 부들부들 떨고있는 배우들쪽을 향해 조감독과 무대감독이 어느놈이냐고 소리쳤다. 로영무와 최승진이 나서자 놈은 그들에게 수갑을 채웠다.

자정이 지나 주재소에까지 끌려간 그들은 짐승우리처럼 짚검불이 푹신하게 깔린 구류장에 떠밀려 들어갔다. 둘은 절망에 빠져 악취풍기는 짚검불속에 구겨박혀 버스럭거리지도 못했다. 그런데 사이벽 저쪽에서 웬 사람의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귀에 익은 예우의 신음소리였다.

이튿날아침 경관 두놈이 들어와 그들을 심문하였다. 예우의 경력과 각본의 출처,공연활동에 대하여 이것저것 따져묻고는 신수가 멀쩡한놈들이 제 죽을줄도 모르고 단장놈이 시킨다고 해서 그따위 불온연극을 공연했다고 주먹으로 따귀를 후려쳤다. 로영무와 최승진은 처음에는 얼떠름해져 얻어맞기만 하다가 놈의 말로 미루어보아 진상이 이렇게 전도된데는 무슨 까닭이 있는것 같아 사실대로 말했다. 단장은 처음부터 경찰의 요구에 순응하려 했고 그가 앓아누운 기회를 타서 자기들이 원각본대로 공연했다고… 그러자 한놈이 옆방으로 갔다. 사이벽을 통해 예우의 함성이 울려왔다.… 그건 거짓말이다. 나는 감독이고 그 애들은 내가 시킨대로 했을 뿐이다. 죄없는 애들을 때리지 말라! 그가 어찌나 확신적으로 부르짖었는지 옆방에 갔던놈은 돌아와서 악에 받쳐 로영무와 최승

진의 머리칼을 움켜잡고 마구 흔들어대며 다시 살인범을 두둔하겠는가고 소리쳤다.

로영무는 살인범이라는 소리에 가슴이 선뜩 얼어들었다. 예우가 살인을 했다면 죽은자는 누구이며 그가 왜 이런짓을 했을가. 그는 최승진이와 함께 밤새워 의논해봤지만 도무지 갈피를 잡을수 없었다. 그저 가슴만 화들화들 떨릴뿐이였다.

놈들은 심심풀이나 하는듯 이따금 어슬렁어슬렁 걸어들어와 로영무와 최승진에게 뭇매를 안기였으며 사흘후에는 그들을 끌어내여 옆방에 떠밀어넣었다.

예우는 벽기둥에 비끄러매인채 짚검불우에 두다리를 퍼더버리고 앉아있었다. 그의 얼굴은 시퍼렇게 멍이 들고 퉁퉁 부어오른데다가 피투성이까지 되였고 옷은 험상궂게 찢어져 벌겋게 피진 살이 드러나보였다. 그는 눈을 지그시 내리뜬채 아무리 불러도 응대를 안했는데 밤이 깊어서야 물기가 번들거리는 눈으로 두 젊은이를 돌아보며 왜 내 말을 안듣고 제멋대로 놀았는가고 나무람하며 한숨을 내쉬였다. …

《너희들은 인차 놓아줄게다. 너희들은 나를 신파쟁이고 사실주의를 모른다고 비웃었댔지. 망할자식들… 이제 인간세상에 나가면 인차 벌이를 바꾸라구. 예술을 하면 망해. 아직 미련이 있어 흩어지지 않는 애들이 있으면 내 말을 전해. 다 흩어져 제 고향으로 가라구… 그리구 어디 가서나 누구 가슴에든 연극바람을 불어넣지 말라구 이르게… 나는 너희들을 얼려 끌고다니면서 숱한 고생을 시켰구 신세를 망쳐놓은데다 살인까지 쳤으니 죽어 마땅하다.》

《어째 그랬습니까, 누구를 죽였습니까?》 하고 최승진이 울음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예우는 고개를 떨구고 대답을 안했다. 아무리 물어도 입을 굳게 닫아매고있었다.

닷새가 지나 놈들은 그들을 놓아주었다.

그들은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겨 문쪽으로 나오다가 다시 돌아서 예우에게로 달려갔다.

예우는 눈을 내리뜨고 비감에 젖은 석쉼한 목소리로 일렀다.

《그 려관에 들리지 말구 곧장 고향으로 돌아가게. 내가 손을 댄건 그 안경쟁이 려관주인놈이야. 승진이는 남아답게 그 계집하구 헤여져. 내 말을 알아듣겠나?》

로영무는 순간에 어떤 배신이 있었는지 가늠되였다. 가슴이 벌컥 뒤집혀지는듯하였다. 그는 눈을 크게 뜨고 최승진을 돌아보았다.

벗은 얼굴이 퍼렇게 질려 부들부들 떨었다. 그는 눈물을 뿌리며 부르짖었다.

《은주… 은주가 어쨌다는겁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예우는 거칠게 소리쳤다.

《왜 계집처럼 눈물을 보여! 망할자식, 나는 할 소리를 다 했어. 가라! 썩 물러가!》

제정신이 아닌 최승진은 홱 돌아서 복도로 달려나갔다. 예우는 사실을 까밝혀 말하기 괴로와 그토록 험하게 소리친것 같았다.

로영무는 머리를 깊이 숙여 그에게 절을 하고 돌아섰다. 그가 복도를 따라 허둥지둥 걸어나오는데 뒤쪽에서 황소울음같은 노래소리가 터져올랐다.

어이차 어이차
그물을 당기세 어이차
오복이네 새색시 어이차
…

그것은 노래가 아니라 영별의 통곡소리였다.

로영무와 최승진은 사흘동안 걸어서 은주가 인질로 잡혀있던 려관으로 찾아갔다. 최승진이 예우의 말을 따르지 않고 은주를 꼭 만나 진상을 알아봐야 하겠다고 우겼던것이다.

그들은 울담밖에 숨어서 처녀가 밖으로 나오기만을 기다렸다. 하루종일 기다려도 처녀는 나타나지 않았다. 려관은 문을 닫아버린것 같았다.

어슬녘에 부엌에서 일하는 할머니가 어디 갔다가 들어오다가 그들을 띄여보고 와뜰 놀라며 멎어섰다.

로파는 종주먹으로 승진의 가슴을 치며 왜 이제야 왔는가고 하면서 눈물부터 앞세웠다. 그리고 기막힌 이야기를 하였다. 계약된 날자가 지나 열흘이 가고 보름이 지나도록 사람도 오지 않고 돈도 부쳐오지 않고 무슨 기별조차 없게 되자 처녀는 몹시 불안해져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때가 많았다. 려관주인은 년장자의 아량과 친절을 보이며 처녀에게 자주 위로의 말을 하였다. 처녀는 마음속으로 고맙게 여기는것 같았고 낯선고장, 낯선 사람들속에 자기를 홀로 남겨두고 떠나간후 소식조차 감감한 승진이와 극단을 은근히 원망하는것 같았다.

려관주인은 처녀를 2층 자기 방에 불러올려 장부책을 같이 정리하며 밤늦도록 이야기도 나누었는데 로파는 미심쩍은 생각이 들어 이따금 밤고양이처럼 살금살금 주인방문앞에 다가가 안에서 나는 소리를 엿들었다.

주인은 떠나간후 감감 무소식인 극단에 사기군, 협잡군 놈팽이들이라고 험담을 퍼붓고는 이렇게 덧붙였다. 내 돈 몇푼때문에 이러는게 아니요. 그까짓 몇푼 안되는 숙식비를 못받는다고 우리 려관이 망하겠는가. 돈을 물기 싫으면 그만두더라도 사람이야 찾아가야 할게 아닌가. 은주양을 남겨두는것으로 나를 속이고는 아주 가버린게 가증스럽단 말이요. 어디에 수소문해봐도 그자들의 종적을 찾을길 없소. 아마 다른 도로 넘어간것 같소. 악당들, 돈 몇푼과 사람을 바꾸다니… 처녀는 주인의 그런 소리를 듣다가는 참지를 못하고 한숨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너무 그렇게 험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이제 소식이 있을게라고… 그러면 주인은 너털웃음을 웃었다. 내가 우리 려관에 무슨 악극단이요, 무슨 극단이요, 곡마단이요 하는 놈팽이들을 적게 쳐봤다고… 다 같구 같소. 애잡짤한 류행가나 련애극으로 행실이 방정하던 유부녀들 가슴을 싱숭생숭하게 만들어 가정불화나 일으키구 처녀들을 꾀여 신세를 망쳐놓는게 그 패당들이 하는짓이란말이요. 남사당패같은 그것들이 지나간뒤에 추문이 생기지 않는 고을이 있는가. 그것들은 하나같이 믿을만한 족속이 못되오. 은주양이 서울서 그것들을 따라 떠난건 정말 경솔한 행동이였소. 아마 부모님들이 생존해계셨더라면 한사

코 말렸을게요… 그리고 주인은 지난 때 이렇게 된 경우 인질로 남은 녀자를 음식집이나 술집에 팔아넘기는 일도 있었다고 하면서 그렇게 한 사람들을 비난하였다. 주인은 권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마음을 돌려 서울로 올라가든지 여기서 살아갈 마련을 하든지 하오. 내가 주선해드리겠소. 만약 서울로 올라갈 의향이면 로자도 드리겠소… 은주는 대답을 안했다.

로파는 여기까지 엿듣고 문밖에서 물러났다. 그날밤 은주는 로파곁에 누워 오래도록 몸을 뒤채기며 잠들지 못했다. 다음날 그 다음날 밤에도 처녀는 2층으로 불리워올라갔다. 그후부터는 불리워도 올라가고 제발로도 찾아올라갔다. 어느날 밤 로파는 어지러운 꿈에 시달리다가 가슴을 찢어발기는듯한 흐느낌소리에 놀라 눈을 뜨니 은주가 곁에 엎드려 흐느낌소리를 삼키고있었다. 무슨 일인가고 아무리 어깨를 흔들며 물어봐도 대답을 안했다.

이튿날 새벽녘에 로파는 잠결에 가슴이 선뜩하여 눈을 떴다. 바람처럼 문짬으로 새여들어왔는지 웬 사나이의 그림자가 그를 굽어보고있었다. 떠나간후로 소식이 감감하던 극단의 단장이였다. 예우는 살기가 번뜩이는 눈으로 은주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다. 곁에 있는 은주의 잠자리가 비여있었다. 로파는 화들화들 떨며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예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주인은 방에 있는가고 묻고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홱 돌아서 복도로 뛰여나갔다. 로파는 심상치 않은 그 기상에 기겁하여 따라나가 그의 팔을 붙잡으며 어디로 가느냐고 물었다. 예우는 로파를 와락 뿌리쳐버렸다. 복도바닥에 나동그라진 로파는 2층쪽으로 사라지는 발자욱소리를 들으며 절망적으로 널마루를 허비면서 덜덜 떨었다. 이윽고 2층에서 미닫이문이 열렸다닫기는 소리가 나더니 온 려관이 교교한 정적속에 잠겨들었다. 로파는 밤고양이처럼 2층으로 살금살금 기여올라가 불빛이 새여나오는 주인방의 문짬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예우가 잠옷바람인 주인의 멱살을 틀어쥐고 벽쪽으로 밀고가며 훔친 돈을 내놓으라고 회파람같은 소리로 을렀다. 주인은 얼굴이 백지장처럼 되여 부들부들 떨며 훔치지 않았노라고 발명질을 하였다. 처녀는 반대쪽 벽에 붙어서서 바들바들 떨고있었는데 예우가 칼

쥔 손을 번쩍 쳐들자 몸을 날려 그의 팔에 매달렸다. 그가 분김에 살인죄를 짓지 않도록 말리자고 그랬는지,주인을 동정해서 그랬는지… 어쨌든 예우는 그바람에 주인의 멱살을 놓았고 험하게 이그러진 얼굴로 처녀를 돌아보았다. 가련한 처녀는 그의 눈총을 이기지 못하여 뒤걸음질쳤고 예우한테서는 화냥년이라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그 순간에 주인이 장우의 꽃병을 들어 예우의 뒤통수를 향해 뿌려던지며 강도야! 하고 소리쳤다. 멱따는듯한 그 소리가 려관을 들었다놓았다. 로파는 층계를 정신없이 뛰여내려오며 사람 살리라고 새된 소리를 질렀다. 얼마후 방들에서 옷을 대충 주어입고 뛰여나온 손님들이 2층으로 우르르 밀려올라갔을 때 로파도 그들속에 끼여있었다. 미닫이문 한짝이 떨어져 넘어진 방바닥에 주인만 너부러져있었는데 놈의 가슴노리에 칼이 박혀있었다. 로파가 늘 닦아놓군하던 과일칼이였다. 자개무늬 아롱진 그 칼자루가 보일듯말듯 떠는듯한 느낌을 받은것은 몇순간이 지난 뒤였다.… 놈은 인차 병원에 실려갔고 사처에 수사망이 무시무시하게 펼쳐진 가운데 순사며 형사들이 려관으로 달려들어 조사를 들이댔다. 로파는 입을 굳게 닫아버렸다. 흉측한놈을 징벌한 의로운 사람을 돕고싶었고 불쌍한 처녀한테도 죄가 돌아가게 하고싶지 않아서였다. 한데 그날 중낮이 되여 읍내에는 새벽녘에 웬 처녀가 락동강 기슭의 매바위에서 강물에 떨어져들어갔다는 소문이 쫙 퍼졌고 사흘뒤에는 예우가 어느 시골길에서 경찰에 잡혔다는 소식까지 날아들었다. 그래서 험악한 세상은 처녀에게 살인공모혐의까지 뒤집어씌웠고 항간의 입빠른 사람들이 퍼붓는 온갖 험담과 욕설에 그의 순결은 걸레짝처럼 어지러워졌다.

날자를 따져보니 그것은 예우가 병이 도져 길가의 려인숙에 떨어진 며칠후에 일어난 일이였다. 로파는 그 새벽 은주가 어째 락동강으로 곧장 달려나가 강물에 몸을 던졌는가 까밝혀 말하지 않았다. 그저 마음이 약한게 속히웠지 하고 눈물을 쏟으며 주인놈은 빚찔리워 숨이 되붙을것 같은데 그것을 알면 원귀로 된 처녀의 령혼이 언젠가는 려관으로 다시 찾아올것이라고 했다.

얼이 나가 락동강 기슭으로 달려나간 그들은 아직도 처녀의 마

지막 비명이 날아도는듯한 매바위에 올라서서 하염없이 강물만 굽어보았다. 깎아지른듯한 바위벼랑밑에서 검푸른 물결이 소용돌이치며 흘러내려가고있었다. 태고연한 적막속에서 물소리만 구슬프게 주절거리는데 허리를 구부정하고 강심을 넋없이 굽어보던 최승진이 갑자기 새된 소리를 내질렀다.

《저게… 아, 저게 뭐요?》

그 순간 로영무도 물속에서 허연 그림자가 뒤채기는것을 보았다.

《은주-》

최승진은 비명비슷한 소리를 터뜨리며 강물속으로 날아들어갔다. 이윽고 사품치는 물속에서 떠오른것은 시신이 아니라 물때오른 누데기였다. 어느 상류의 빨래터에서 떠내려온것인듯싶었다. 최승진은 한번 물우에 솟구쳐올랐다가 절망으로 심장마비가 온듯 밑으로 맥없이 가라앉으며 물살에 둥둥 떠내려갔다.

로영무에게 끌려 물가로 나온 그는 자기를 놓아달라고, 락동강 700리기슭을 다 뒤져서라도 은주의 시신을 찾아 묻어주고 떠나겠노라고 울부짖었다. …

56년 8월 어느날 로영무가 점심시간이 되여 집으로 나가는데 촬영소정문 접수실모퉁이에서 가냘프고 가무잡잡한 처녀애가 달려나와 공손히 인사를 하고는 로영무선생님이 아닌가고 물었다. 영화에 자주 출연하여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는데 습관된 그였지만 처녀애의 촌티흐르는 모색이며 그 어떤 애끓는 갈망으로 타는듯한 눈을 보고는 무심히 지나칠수 없었다. 처녀애는 은밀한 사연이라도 안고온듯 경계하는 눈빛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흘깃 돌아보고는 정은주라고 아느냐고, 정은주가 자기 엄마라고 하였다.

일찌기 락동강에 뛰여들어 세상을 하직한줄로만 알았던 옛 류랑극단의 가인, 정은주의 딸이 이렇게 찾아온것으로 보아 그 엄마도 어디엔가 이 하늘밑에 살아있지 않을가싶은 예감에 로영무는 주춤 뒤로 물러서기까지 했다.

처녀애는 눈물을 방울방울 흘리며 최승진선생님을 꼭 만나보고싶은데 도와달라고 했다. 그때 최승진은 현지촬영에 나가고 없었다. 그러한 사정보다도 다른 위구심이 무섭게 가슴을 틀어잡아 로

영무는 처녀애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다. 내내 독신으로 지내다가 갓 결혼한 최승진의 가정에 이 일이 알려지면 어떤 일이 생길지 알수 없어서였다. 그는 최승진이 어떤 위인이라는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있었다. 최승진은 온 심혼을 바쳐 사랑했고 자기를 헤여날길 없는 비탄에 빠뜨렸던 그 존재가 이 하늘밑에 살아 숨쉬고있다는것을 알기만 하면 모든것을 뿌리치고 달려갈것이였다. 그의 가정파탄은 불을 보듯이 명백했다.

그는 밀물처럼 밀려드는 옛추억으로 가슴이 못견디게 쓰려나 이것저것 두서없이 물어보다가 승진이와 은주가 약혼했던 해와 처녀애의 나이를 마음속으로 몰래 맞추어보았다. 처녀애는 그 비참한 사건이 있은 때로부터 여러해 지난후에 출생한것으로 보아 승진의 딸이 아닌것이 분명하였다. 그 사실이 로영무에게는 웬일인지 섭섭하게도 여겨지고 다행으로도 생각되였으며 락동강에 몸을 던졌던 그 수난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수 있었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숨이 지지 않은채 물결에 휘말려 떠내려가다가 가까운 기슭에 붙어 어떤 귀인의 손에 구원될수도 있고 노를 저어가던 나루배의 사공이 건져올렸을수도 있었으리라고 상상하니 신비적인 기적을 곧잘 창조해내는 생활의 우연에 의하여 살아날수도 있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정은주에게 이런 딸이 있는것으로 보아 그후 어떤 대상과 혼인이 이루어졌거나 모종의 정사가 있었으리라고 생각하니 시기심비슷한 이상야릇한 감정에 가슴이 쓰려났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순 우연의 도움으로 (그는 이렇게 생각하고싶었다.) 승진의 자리에 들어서서 이애의 아버지로 될수 있었던 사람은 과연 어떤 위인일가…

정은주의 딸 수옥은 로영무네 집에서 하루 쉬면서 그 집 식구들과 가정분위기에 다소 친숙해진 다음에야 좀 기를 펴며 활발해지는것 같았다. 이틀이 지난 다음 로영무는 밤에 조용한 서재에서 나어린 손님과 다시 마주앉아 이야기를 도란도란 나누게 되였다. 처녀애는 이번에는 자기고장에 많이 피는 갖가지 메꽃이며 엄마가 방역준의로 일하는 목장형편 등에 대하여 졸졸 이야기하였다. 그 이야기는 작은 가슴에서 명주실처럼 조심조심 풀려나오는듯했고 인생

의 로숙한 경험자는 그 실끝을 꼭 잡고 당겼다늦췄다 하면서 이야기의 실꾸리를 살살 풀어내여 모든것을 알아내였다.

처녀애는 자기 엄마와 이름있는 연출가 최승진과의 사이에 심상치 않은 사연이 있다는것을 일찍부터 알고있었다.

엄마는 일상생활에서 영화구경을 싫어했는데 한번은 학교마당에서 최승진의 이름이 자막에 나오는 예술영화를 보다가 도중에 집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쓰고 서럽게 울었다. 그리고 딸이 방안을 장식하느라고 찬장유리안이며 사이문에 붙여놓은 영화예술인들의 사진중에서 유독 최승진의 사진만 뜯어서 부엌아궁이에 밀어넣었던것이다. 처녀애가 이런 단서를 쥐고있으나 아무것도 모르는것을 보면 정은주는 자기 개인생활에 대하여 딸한테 입을 굳게 다물고있는것이 분명했다.

로영무는 예우극단의 파멸까지만 이야기해주고 그 시절 최승진과 정은주가 남다른 사이였을수 있다고 애매하게 말하면서 이제 다 크면 엄마가 자세한 이야기를 해줄것이라고 덧붙였다.

《선생님… 그러니까 저는… 누구 딸인가요? 그것만 솔직히 말씀해줘요.》

자기를 지켜보는 처녀애의 구슬프고 애끓는 눈길에서 로영무는 그가 이름있는 연출가의 딸이 되고싶은 엉뚱한 허영심때문에 찾아온것이 아니라는것을 느낄수 있었다. 어느 모로 보나 수옥은 아버지를 찾자는 자식의 본능뿐아니라 가정환경이 불행할수록 자기 신원을 똑똑히 밝혀놓고싶어하는 시체청년들 공통의 심리와 자각으로 찾아온것이였다.

아니라고 대답하면 더 난처한 질문들이 나올것 같았다. 로영무는 담배연기로 앞에 연막을 치고 무엇이라고 대답할것인가 궁리하다가 말머리를 돌려 엄마의 생활에 대하여 두루 물어보았다.

이튿날 로영무가 퇴근하여 집에 돌아오니 수옥이가 없었다.

안해는 낮에 저자보러 간 사이 문짬에 쪽지편지를 끼워놓고 없어졌다고 했다. 도망치듯이 가버린것이였다. 단정하면서도 각이 진 글씨로 또박또박 쓴 그 쪽지에는 인사도 없이 떠나는것을 용서하라는 말이 적히고 놀라운 구절이 있었다. 《선생님은 까놓고 말씀

하지 않았지만 저는 다 알게 되였어요. 제가 그 선생 딸이 아니라는것도 엄마 잘못으로 그 선생과 헤여지게 되였다는것도 그리고 또 엄마의 잘못으로 제가 이 세상에 태여났다는것도…》

그날 로영무는 저도 모르게 최승진의 집으로 정신없이 달려가게 되였다.

화창한 날이였다.

최승진은 안해와 어깨를 붙이다싶이 가지런히 서서 자기네 보금자리인 집앞의 꽃밭에 물을 주고있었다.

둘은 무슨 재미나는 이야기를 하는것인지 물을 주다가는 서로 돌아보며 밝게 웃었고 그러다가는 꿀벌이 날아든것인지 허리를 구부정하고 꽃밭속을 들여다보느라고 먼발치에 벗이 와 서있는것을 느끼지 못하였다.

로영무는 단층집의 열려진 뙤창안에서 흐느적이는 연분홍색 휘장쪽에 시선을 돌려 생각깊은 눈으로 그것을 이윽토록 바라보다가 돌아섰다. 남편이 어느 녀배우를 편애하여 각별한 관심을 돌려준다는 따위의 소리만 들어도 얼굴색이 달라지는 그의 안해의 발작도 두려웠고 옛 약혼녀가 살아있다는것만 알면 어떤 가정불화도 마다하지 않고 당장 달려갈수 있는 승진의 불같은 심장도 두려웠지만 무엇보다도 자기자신이 남의 집 부부싸움의 말밥에 오르는것이 싫었다. 그리고 자기가 경솔하게 처신하여 벗의 가정에 불화라도 생겨 여론화되면 지체있는 사람이 그따위 중재자노릇을 했다고 사회적인 비난을 받을것 같았다.

로영무는 집에 돌아와 안해와 장시간 의논하였다. 안해는 그의 이야기를 듣고 펄쩍 놀라며 가까운 사이에 어찌 그런 일을 알려주지 않을수 있는가고 하였다. 로영무는 그가 이 일을 알면 지금 촬영중인 영화창작에 엄중한 손실을 줄수 있다는 말로 안해를 우선 눅잦혀놓고 앞으로 적절한 기회가 생기면 알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둘만 아는 비밀로 묻어주자고 설복하였다.

7년이 지나서 수옥이한테서 긴 편지가 왔다. 그는 지난날의 철없는 소행에 대하여 사과하고는 자기가 교원대학을 졸업하고 인민학교교원이 되였으며 얼마전에 결혼까지 하였다고 알렸다. 그

리고 결혼식전날밤에 어머니가 한평생 숨겨온 자신의 수난에 대하여 죄다 털어놓고 이야기해주었다고 썼다.

《저는 어머니를 붙안고 거듭거듭 용서를 빌며 울었어요. 어머니도 울었어요. 선생님,저의 아버지로 되신분은 어머니를 구원해준 사공의 아들이였어요. 아버지는 왜놈들한테 징용으로 끌려갔다가 객사했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가 요새 시름시름 앓고있는데 자기들의 생활에서 걱정이 있다면 그뿐이라고 하소연비슷하게 썼다.

수옥은 셈이 들어 자신의 인격과 리성에 제약되였는지 그때 예우극단이 약속된 기간에 돌아왔다면 어머니가 그런 불행에 빠지지 않았을것이며 일생의 운명도 달라졌을것이라는 말은 전혀 쓰지 않았다. 그후에는 소식이 없었다.

…

박경섭과 주영도가 최승진이 버린 녀성에 대하여 갑자기 물었을 때 로영무는 놀라움과 울분과 한꺼번에 소용돌이쳐오르는 추억때문에 비명이라도 터치고싶었다. 그리고 난생처음으로 심장이 비틀려지는듯한 아픔을 느꼈다.

7

박경섭은 층계를 따라 총총히 걸어올라오다가 우뚝 멎어섰다. 몹시 흥분된 얼굴이다.

웃쪽에서 서류가방을 안고 내려오시던 **김정일**동지께서 인사드리는 그의 앞에 이르러 걸음을 멈추시였다.

《무슨 일이 생겼소?》

《예.》

《급한 일이요?》

《아니… 아닙니다. 어서 보고드리고싶어서… 최승진동무문제가 해명되였습니다. 로영무동무가 찾아와서 전후사연을 죄다 고

백했습니다.》

《올라갑시다!》 하고 그이께서는 돌아서시였다.

집무실로 따라들어온 박경섭은 그이의 걸음을 돌려세운것이 죄송스러워 응접탁결에 선채 말씀드렸다.

《로영무동무가 찾아와서 죄다 고백했습니다. 녀자를 버린게 아닙니다.》

《그렇소?》

《간단히… 함축해서 말씀드리면…》

《함축은 무슨 함축이요, 죄다 이야기하오!》

《시간이.》

《일없소. 내 시간걱정은 말고 자세히 이야기하오.》

그이께서는 몹시 흥분하여 서류가방을 응접탁에 놓고 의자에 앉으시였다.

《자, 앉아서 이야기하오.》

박경섭은 그이께서 권하시는 의자에 앉아 그 구슬픈 사연의 자초지종을 낱낱이 이야기하였다.

창문으로 따뜻한 해빛이 흘러들며 방안이 더 밝아졌다.

박경섭의 목소리는 때로는 련민에 젖어 나직이 잦아들기도 하고 때로는 분격에 겨워 떨리기도 하였다.

내내 괴로운 안색으로 그의 이야기를 듣고계시던 **김정일**동지께서는 가슴이 저려들어 이마를 싸쥐며 한숨을 조용히 내쉬시였다.

그러시고는 머리를 무겁게 끄덕이시였다.

《그런 일이 있었군… 그런 일이… 예술을… 민족예술을 해보자고 얼마나 고생한 동무들이요! 승진동무가 그런 비렬한일수 없지, 그렇지 않구!》

그이의 안색이 순간에 환히 밝아졌다. 창문으로 흘러드는 부드러운 해빛에 그이의 눈에서 따뜻한 빛이 불꽃처럼 빛났다.

《나는 승진동무가 만든 작품들을 통하여 그의 인간됨됨을 짐작하고있었소. 그런 예술가가 그런 놈팽이일수 없지. 그렇지 않구!》

박경섭은 생기에 넘친 그 힘찬 음성을 통하여 그이의 깊은 가슴에서 일렁이는 기쁨의 파도를 느낄수 있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만시름을 던듯한 기쁨에 진정하실수 없는듯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쪽으로 걸어가 바깥을 내다보시였다.

박경섭은 저도 모르게 목이 메여오르고 눈굽이 저려나 엉거주춤 일어나서 그이의 뒤모습을 우러러 바라보았다.

(한사람을 부정하기도 그처럼 괴로와하더니 지금은 새 사람을 얻은듯이 기뻐하시는게 아닌가. 아, 어떤분인가, 어떤 인간애를 지니신분인가！…)

김정일동지께서는 돌아서시였다.

《과오가 엄중하다고 일생을 예술에 바쳐온 이런 사람들을 버려야 하겠소？ 과오가 있건없건 흠이야 크건작건 다 우리 사람들이요, 우리 예술인들이요. 다른 용단이 아니라 그들을 교양해서 영화에서 혁명을 일으킬 용단을 내려야 하겠소！》

《예！…》

박경섭은 힘차게 대답하였다.

《로영무동무는 그 사실을 승진동무가 아직은 모르게 해달라고 신신당부했다지요？… 비밀을 지켜줍시다. … 그런데 경섭동무, 내 말을 들어보오. 자기 동무를 그처럼 아껴온 사람이 시기심으로 그를 함정에 빠뜨려넣자고 할수 있겠소？ 그 소리가 믿어지오？ 그 고백이 진실이라면 이거야말로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요. 얼마나 모순된 심리요. 인간적으로는 그를 아끼고 사랑해왔지만 예술가로서는 그를 질시해왔다는게 아니요. 좌우간 그를 만나봅시다.》

《곧 부르겠습니다.》

《아니 촬영소에 나가서 만납시다.》

그날 오후 **김정일**동지께서는 촬영소총장실곁의 응접실에서 로영무를 만나시였다.

응접실로 들어온 로영무는 어정쩡해진 얼굴로 **김정일**동지께 허리를 굽혀 인사하였는데 한날 연출가에 지나지 않는 자기가 그이께 불리워온데 대하여 몹시 흥분하고있는것 같았다.

《수고합니다.》 하고 **김정일**동지께서는 반겨웃으며 그에게 안락의자를 권하시였다.

로영무는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아 두손을 무릎우에 올려놓았다.

그의 희끗희끗한 머리며 눈가의 주름살들이 오늘따라 유난히 눈에 띄였다. 그는 침착하려고 애쓰는듯 눈을 지그시 내리떴다.

그이께서는 연출가와 나란히 앉아 그의 건강이며 가정형편, 예술생활에 대하여 친절하게 물으시고는 의혹을 품었던 문제에로 넘어가시였다.

《앞으로 같이 손잡고 영화를 추켜세워야겠는데 흉금을 터놓고 이야기해봅시다. 나는 연출가동무가 승진동무를 보살펴준 이야기를 듣고 무척 감동됐고 또 생각도 깊어졌습니다. 그런데 어째 그의 작품은 그렇게 다심하게 도와주지 못했습니까? 연출가동무가 영화의 결함을 알고있으면서도 말해주지 않았다는 반영도 있는데 사실입니까?》

《예… 한두가지 결함은 느꼈댔습니다.》

《그런데 어째 말해주지 못했습니까. 어째 그랬습니까? 한두가지라도 옳게 일깨워줬더라면 영화의 결함이 한결 덜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이께서는 안타까운 눈길로 그를 지켜보시였다.

로영무는 그 눈길을 피하여 고개를 숙이며 눈을 괴롭게 내리감았다.

전화종이 울렸다. 그이께서는 전화기쪽으로 가시며 밖에 나가있어야 되지 않을가싶어 움쭉 일어선 박경섭에게 그냥 앉아있으라고 손짓하시였다. 그것이 어떤 믿음이라는것을 잘 아는 박경섭은 송구스러운 얼굴로 도로 앉았다.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는 로영무는 그냥 눈을 감고있었다.

그는 자기자신에게 묻고있었던것이다.

(어째 그랬던가… 과연 어째 그랬던가. …)

광복직후는 물론 전쟁시기와 전후시기에만 하여도 그들은 서로 상대편의 작품을 놓고 기탄없이 의견을 나누는 스스럼없는 사이였다. 그런데 둘이 영화계에서 차차 두각을 나타내면서부터 저도 모르게 사이가 버성겨졌다. 어느해, 어느달, 어느 계기에서 그렇게 되였던가… 문득 하나의 사실이 가슴을 저릿하게 자극했다.

50년대말의 어느 봄날, 그는 최승진이와 함께 지방출장에 갔다

가 한 도시의 아빠트밑을 가지런히 걸어지나간적이 있었다. 화창한 날씨였다. 아빠트옆 빨래터에서 서너명의 녀인들이 물방치소리를 창창 울리며 빨래를 하고있었다. 빨래터뒤에 늘인 바줄에 걸어놓은 하얀 빨래들이 돛폭처럼 바람을 안고 펄럭이며 시원한 기운을 풍기였다. 로영무는 무심결에 걸음을 멈추고 빨래하는 녀인들쪽을 바라보다가 전국적으로 위생문화월간이 시작되였다는것을 상기하고는 여기 인민반장이 책임성이 높아 인민반이 위생문화사업을 아주 잘하는것 같다고 말하였다. 그때 최승진은 아무런 응대도 없이 바람에 펄럭이는 빨래들을 바라보며 무슨 냄새를 맡는지 코를 벌름거렸는데 미소어린 그의 눈에는 동심같은것이 불타오르는듯했다. 빨래터를 지나 몇걸음 걸어와서 최승진은 그의 팔굽을 덥석 잡으며 기쁨에 넘쳐 말했다.

《로형네 고향마을앞에도 내물이 있었댔소? 맑은 시내물이…》

뜻밖의 물음에 그는 친구를 멍하니 쳐다만 보았다.

《우리 고향마을앞으로는 정말… 정말 맑은 시내물이 흘렀댔소. 개바닥까지 해빛이 스며들어 아롱거리는 시내물이… 그 기슭에는 하얀 모래불, 그뒤에는 버들방천이구… 봄이면 우리 어머니랑 누이랑 동네아주머니들이랑 그 시내가에 나와 저렇게 물방치소리를 울리며 겨우내 묵은 빨래를 했는데 정말 좋았소. 그때면 우리 조무래기들도 봄기운에 마음들이 떠서 시내가에 나가 물장난도 하고 풀을 뜯는 소들을 물속에 끌어들여 싸움도 시켰다니까. 그러면 물이 흐려질수밖에… 동네아주머니들은 빨래를 하다가 말고 우리들쪽에 대고 물방치를 휘두르며 소리쳤소. 〈이녀석들아— 물이 흐려져 어디 빨래를 하겠니— 소들을 저기 끌어내가라.〉 이렇게 되면 우리는 더 기승을 부려 엉덩춤을 추며 돌아가다가 우리 어머니나 어느 아주머니가 뛰여올라오면 걸음아 날 살려라 하구 냅다 도망쳤는데 하하하… 그렇게 방해를 노는게 어찌나 재미있던지 저만치 도망쳐갔다가 또다시 시내가로 살금살금 다가들었다니까. 하하하…》

그러다가 최승진은 갑자기 얼굴빛이 구슬퍼지며 한숨을 내쉬였다.

《휴— 그 시절이 다시 왔으면… 시간은 앞으로만 흐르고 뒤로는 흐를수 없단말이지!》

그때 로영무는 자기 비하의 감정에 사로잡혀 얼굴이 화끈거렸고 그의 서정토로에 인차 응수하지 못하였다. 자기는 그 빨래터에서 인민반이 위생문화사업을 잘한다고 생각한것이 고작이였는데 그는 아득히 흘러간 유년시절의 꿈이 깃든 고향의 시내물을 그려보았다. 화창한 봄날, 그 시내가에 줄지어앉아 빨래하는 녀인들, 싱그러운 물비린내와 비누냄새, 물방치소리, 물장난도 치고 황소들의 뿔싸움도 시킨 감때사나운 산골조무래기들의 동심도 생동하게 되살려 음미하고는 피치 못할 인생의 섭리까지 상기하며 한숨지은것이다.

같은 생활대상에 대하여 자기는 그것을 얼마나 무미건조하게 보았으며 그는 얼마나 정서적으로 감득했는가. 생활에 대한 정서적감득, 이것이야말로 예술가의 첫째가는 자질이 아니겠는가. 그때 어느한 동화작가의 말이 문득 떠올라 로영무의 가슴을 찔렀다.

《사람은 늙었어도 호주머니속이나 가슴속 어느 구석에 동심의 한 끄트머리라도 간직하고있어야 한다. 동심은 인간을 선하게 만들어주는 자양분의 한 요소이기때문이다. 예술가에게는 그것이 더욱 소중하다.》

그날밤 로영무는 웬일인지 의기가 움츠러드는감을 느꼈고 종잡을수 없는 괴로움에 사로잡혀 오래동안 잠들지 못했다. 어찌 생각하면 그 일이 있은 다음부터 최승진에 대한 스스럼없는 감정이 슬그머니 사라져간것 같기도 하다.

그후 최승진은 거의 매해 우수한 작품들을 내놓았으며 중앙과 지방의 신문들은 연출가의 사진과 함께 반면 혹은 옹근 한면의 영화평을 싣기도 하였으며 현대영화사의 필자들은 그의 이름을 로영무의 이름보다 썩 앞에 놓게 되였다.

그가 만든 수많은 작품들에 감화된 일부 사람들은 어느덧 그의 창작적개성을 다른 사람들이 만든 작품들에까지 요구하게 되였다. 그래서 모방적인 작품들도 생겼다. 그러한 경향이 더 조장된다면 다른 창작가들은 그의 아류라는 가련한 운명을 면치 못할것이

아닌가. 강력한 창작적개성이 하나의 류형과 도식을 만들 위험을 배태하고있다는것은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다.

로영무는 몇번인가 영화예술인들의 모임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 토론하려다가 간신히 자신을 다잡고 그만두었다. 말이 많은 영화인들속에서 그를 시기한다는 말이 돌아갈것 같아서였다. 그것이 무엇보다도 두려웠다.

시기와 질투, 이 감정에 대하여 젊어서 한때 로영무는 예술인들이 피하고싶어도 피할수 없는것으로 여긴적도 있었다. 그것은 예술이란 인간개성과 정서적자질이 고도로 발현되며 개인적경쟁이 그 어디에서보다 표면화되는 분야이기때문이였다. 당시 한 자유주의적예술평론가는 어느 술좌석에서 이렇게 지껄인적이 있었다.

《공명과 허영의 시장에서 노래와 웃음과 눈물을 파는 그네들한테서 이것은 숙명적인 감정이다. 이 감정은 마치도 그리스도교교리의 원죄처럼 그네들을 영원히 괴롭히고있는것이다. 력대의 어느 예술가도 이 저주로운 감정의 멍에를 벗어던지지 못하고 질시의 불길속에서 몸부림쳤으니 아, 가련한 인생들이여！》

로영무는 그 소리에 심한 모욕을 느꼈지만 일리있는 소리라고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나 예술인들의 사회적지위와 생활처지가 완전히 달라진 사회주의사회에서 그 감정은 낡은 사회의 혐오스러운 잔재이고 가장 수치스러운것이였다. …

《연출가동무가 그 작품의 결함을 두고 어째 그토록 모르는체했는지 나는 참 리해가 되지 않습니다. 승진동무하고 누구보다도 가까운 사이가 아닙니까？》

자리로 돌아오신 그이께서는 여전히 안타까운 음성으로 물으시였다.

로영무는 모진 후회와 자책감에 가슴이 떨렸다. 이름할수 없는 수치심에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는 어떻게 말씀드렸으면 좋을지 몰라 선뜻 입을 열지 못했다.

《이런 일이 생길줄 알았더라면 제가 어찌… 저는… 저는 이렇게 될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사실은 제가 처음에 저 작품을 맡았댔습니다. 맡았다가 작품에 의견도 있고 자신없는데도 많아 내놓았

는데 승진동무가 기다렸다는듯이 제꺽 맡아나섰습니다. 그때 제가 량심이 있다면 작품에 대한 자기 불만과 우려들을 죄다 말해줘야 했을건데 자신이 있으니 받아안았겠지 하고만 생각하고 아무 말도 안해줬습니다. 시사회에서 영화가 만장의 절찬을 받았을 때엔 작품을 내놓은걸 후회까지 했댔습니다. 저는… 저는 이런 인간입니다.》

그는 자신에 대한 혐오감과 수치심을 누를길 없어 한손으로 눈을 와락 싸쥐고 몸부림치며 피타는 목소리로 부르짖었다.

《저는 예술가도 아니고 인간도 아닙니다. 아닙니다! 시기와 질투로 속이 썩어문드러진놈입니다. 동무를 함정에 빠뜨려넣자구 고의적으로 그랬다구 규탄해도 할 소리가… 정말 할소리가 없습니다. 승진동문 요새 저를 외면하여 말도 안합니다. 전 한생의 벗도 잃은것 같습니다. 외면을 당해 싸지요. 아하!…》

눈을 싸쥐고 부들부들 떠는 그의 손가락짬에서 이슬같은것이 반짝거리였다.

《로동무… 로동무… 진정하십시오.》 하고 그이께서는 부드럽게 이르시였다.

《그렇게 자기를 지내 비하하면 자기 결함을 똑똑히 깨달을수도 없고 그걸 고치지도 못합니다. 시기와 질투라니… 이젠 그럴 나이도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싶지 않습니다. 의견을 말해주지 못한데는 여러가지 객관적인 조건도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의 작품을 자기 작품처럼 아끼지 않은건 사실입니다. 작품이 자기 손에서 그의 손으로 넘어가자 그 운명에 대해서도 전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랭랭했습니다. 승진동무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걱정해주면서 어째 예술에 대해서는 그토록 무심했습니까? 동무들의 때묻은 우정은 한생에 걸치는 오랜것이였지만 혁명적인 동지애로 승화되지 못하고있었습니다. 좀 생각해보시오. 우리 나라에서 제일 크다는 두 연출가의 관계까지 이러하니 어떻게 좋은 영화가 만들어질수 있었겠습니까?》

로영무는 눈물이 번들거리는 얼굴을 들고 그이를 우러러 쳐다보았다. 거멓게 빛이 꺼진 그의 입술이 눈에 띄게 떨렸다.

《저는 요새 정말 괴로운 나날을 보냅니다. 승진동무하고 같이 벌을 받고싶습니다. 치욕을 당하고싶습니다.》

《벌이라니, 누가 벌을 준단말입니까. 작품을 잘못 만들었다고 벌을 주고 처리한다면 누가 무서워 창작을 하겠습니까?》

로영무는 손수건을 꺼내 눈언저리를 훔치였다.

그이께서는 지난날 예술인들의 운명을 함부로 처리해버린 반당종파분자들과 관료주의자들의 죄행으로 이 오랜 연출가의 심혼에 얼룩진 불신과 공포심의 그늘을 똑똑히 보실수 있었다. 가슴이 아프고 기가 막혀 한동안 말씀을 못하시던 그이께서는 한결 가라앉은 음성으로 이르시였다.

《당을 깊이 신뢰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작품을 잘못 만들었다고 사람의 운명을 함부로 처리해버리는 그런 우둔한짓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을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동무들을 료해해보는것도 그런 영화가 나오게 된 진원인을 밝혀보자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당이 예술인들의 운명을 보호해주고있습니다. 기를 펴고 자신을 깊이 분석해보십시오.》

로영무의 눈이 생기를 띠며 번쩍거리였다. 박경섭은 벌겋게 상기된 얼굴로 그이를 돌아보았다.

《이번에 우리는 영화예술인들사이의 인간관계가 비동지적이라는것도 알게 되였습니다. 모두 혁명가적기풍을 소유하고 혁명적동지애로 단합되지 않고는 좋은 영화를 만들어낼수 없습니다. 로동무와 같은 능력있고 오랜 예술인들이 동지적인 분위기를 세우는데서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최승진동무는 지금 무얼 하고있습니까?》

박경섭이 말씀드렸다.

《어제 지하철도건설장에 들어가보게 했는데 거기서 충격이 컸는지 또다시 시신경위축이 와서 집에 누워있답니다.》

《그 동무 눈이 말썽이군. 본격적인 치료를 받아야지…》

《집에서 그냥 쉬라고 했는데 기어코 따라가겠다고 해서 데려갔답니다. 모두 가책을 많이 받은것 같습니다.》

그이께서는 고개를 숙이고있는 로영무에게 눈길을 돌리시였다.

《승진동무한테 문병갔댔습니까?》

《…》 로영무는 대답을 못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더 묻지 않고 머리를 무겁게 끄덕이시였다.

8

최승진은 비몽사몽간에 눈을 떴다가 다시 깊은 잠에 들었다.

얼굴이 파리하게 깎인 윤희는 늙은이들처럼 흰 보자기로 머리를 건숭 동이고 복도로 나갔다. 집안에는 괴괴한 정적이 흐르고 복도마저 어둑해서 도무지 사람사는 집같지 않았다. 그는 장난이 세찬 아이가 복도바닥에 널어놓은 잡동사니들을 소랭이에 주어모으고 며칠 걸레질도 안해 먼지가 뽀얗게 오른 바닥에 물걸레를 놓기 시작하였다. 좀전에 그는 집안에 어떤 일이 생겼는지도 모르고 세찬 장난질로 말썽만 부리는 아이가 괘씸하여 엉치를 모질게 때려주었다. 아이는 바스라지는 소리로 울어대다가 아버지곁으로 기여가 엎어져 잠이 들고말았다.

윤희는 지난밤에 무서운 꿈을 꾸었다. 건설로동자들이라고 하는 체격이 우람한 사람들이 방으로 우르르 밀려들어와 집을 내라고 소리치며 화분이며 경대 등 가장집물들을 밖으로 내동댕이쳤다. 꿈이였으나 이때까지 이 집을 누가 지었는지도 모르고 살아왔고 또 알뜰히 거두지도 못한것 같으면서 서늘한 자책감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래서 속죄하는 심정으로 물걸레질을 두번세번 극성스럽게 해나갔다. 숨이 차오르고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다.

윤희는 그 꿈이야기를 남편에게 하지 못하였다. 환자를 더 자극할가봐서였다.

남편은 지하철도건설장에 갔다온 다음부터 밤잠을 전혀 자지 못하였다. 피진 눈으로 천정을 멍하니 쳐다보며 무슨 생각에 골똘하기도 하고 자정이 지난 깊은 밤중 몽유병환자처럼 이방 저방 돌아다니며 무엇인가 찾느라고 바스락거리였으며 그러다가는 옛날

에 받은 편지묶음같은것을 터쳐놓고 년하장이며 친지들의 편지같은 것을 골라내여 읽어달라고 하였다. 어떤 때에는 낡은 사진첩을 펼쳐놓고 외국에 려행가서 찍은 사진들을 들여다보다가는 쓸쓸한 얼굴로 끝없는 생각에 잠기는것이였다.

어느날 남편은 촬영소가 영화제작에 투자한 막대한 자금을 보상하기 위해 작품을 개작하려고 할수 있는데 그러는 경우에도 그 일을 자기가 아니라 로영무나 한기석에게 맡길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해동안 자기한테는 작품을 맡기지 않을것이라고 하였다. 그다음은… 그다음은 무엇인가… 윤희는 자기를 불행에 빠뜨린 영화에 대한 그 검질긴 미련에 화가 동하기도 하고 그의 신세가 측은하게도 여겨졌다. 어제 아침 그는 쓰레기를 버리러 밖에 나갔다가 리명선을 만났다. 그 녀자는 수수한 나들이옷에 부인용가방을 들고 현관에서 나오다가 윤희를 띄여보고 반겨 인사하며 남편의 병문안을 하였다.

그리고 자기는 공로보장자들의 경로동직장에 들어갔는데 가벼운 로동을 하니 밥맛이 나고 신경을 쓰는 일이 없어 마음이 편안하여 좋다고 하였다.

윤희는 남편이 리명선이처럼 되여도 마다하지 않으리라 생각했다. 공훈예술가의 명예같은것은 필요도 없었다. 마음고생만 안하면 되였다. 설사 남편이 아주 사회보장에 넘어 저렇게 방에 내내 누워있어도 섭섭하게 하거나 노엽히는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했다. 자기가 직장에 나가 쨩쨩 벌어서 세상 누구 부럽지 않게 보살피리라 마음먹었다.

옆집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옆집에 손님이 찾아온듯하였다.

윤희는 그 소리가 여간 부럽지 않았다. 요새는 누구도 그의 집으로 저렇게 찾아와서 다정하게 문을 두드려주는이가 없었다. 인민반장이 두세번 와서 문만 열고 용건을 말하고는 돌아섰으며 성녀아주머니가 한번 문병왔다갔을뿐이다.

늘 제집처럼 드나들던 한기석부연출도 발길을 끊었다.… 사람들은 촬영소에 엄청난 피해를 안겨준 남편을 원망하여 그한테서 멀

어진것이 분명하였다.

그래서 출입문에는 늘 정적이 서려있었다. 그 정적의 의미를 생각하면 구슬퍼지고 가슴이 얼어드는듯하였다.

옆집에서 응대를 안하는지 또다시 문두드리는 소리… 《계십니까―》하는 구성진 목소리… 그런데 그 목소리가 자기 집문앞에서 울리는것 같아 윤희는 손등으로 이마에 흘러내린 머리칼을 쓸어올리며 출입문쪽을 내다보았다.

또다시 문두드리는 소리… 분명히 자기 집문이 울리는듯하였다. 윤희는 반신반의하며 맥없이 걸어나가 문을 열어보았다. 시원한 바람이 확 불어들어왔다.

문밖에 박경섭이 서있고 그뒤에 눈에 영채가 돌고 범상치 않은 기품의 젊은분이 인자한 미소를 머금고 서계시였다.

윤희는 너무 놀라 주춤 물러서며 머리의 보자기를 벗어쥐고 허리를 굽혀 인사하였다.

《아주머니,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문병오셨습니다!》

윤희는 너무 놀랍고 당황하여 그이께 어떻게 인사를 드렸는지도 몰랐다.

그는 복도로 달려들어가 소랭이며 비자루를 치우고 도로 나왔다.

《아이, 집이 루추해서…》

복도에 들어서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주부의 마음을 누잦혀주시려는듯 웃음어린 안색으로 우리는 위생검열온것이 아니라고 롱말을 하시였다.

《연출가동무는 어떻습니까?》

윤희는 선뜻 대답을 못했다. 이 모든것이 꿈만 같고 가슴이 뛰고 목이 메여올라서였다.

남편은 부엌간과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붙어있는 온돌방아래목에 누워있었다. 그는 두툼한 명주이불을 가슴아래까지 덮고 벽쪽으로 돌아누워있었는데 뒤더수기의 더부룩한 머리카락이 땀에 축축히 젖어있었다. 그곁에는 네활개를 벌리고 쌔근쌔근 자고있는 아이…

윤희가 먼저 방으로 뛰여들어가 남편을 깨우려는데 뒤따라 들어

오신 **김정일**동지께서 말리시였다.

《둬두십시오. 깊은 잠에 든것 같은데… 깨우지 마십시오.》

《밤잠을 전혀 자지 못해서 새벽에 수면제를 좀 썼더니…》 하고 윤희는 얼굴이 빨개져 그이를 쳐다보며 말씀드렸다. 그리고는 얼른 이불장안에서 방석 두장을 꺼내 방바닥에 펴놓고는 그이께와 박경섭에게 자리를 권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녀주인이 옹색해하지 않도록 사양함이 없이 방석우에 앉으시였다. 윤희는 두손을 앞에 모아쥐고 안절부절못하다가 조심스럽게 방에서 나와 웃방으로 올라갔다.

그는 덟어진 앞치마를 벗어 의롱속에 던져넣는다, 깨끗한 쟈케트를 우에 걸친다, 머리를 바로 다듬는다 황황히 돌아치다가 화끈거리는 볼을 쓸어만지며 얼굴을 거울에 언뜻 비쳐보고는 아래방으로 내려왔다.

어느새 깨여났는지 아이가 그이의 품에 안겨 태평스럽게 하품을 하고있었다.

윤희는 너무 놀라 그이앞으로 다가가서 아이를 안아오려고 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손을 들어 말리시며 여전히 웃음어린 얼굴로 말씀하시였다.

《둬두십시오. 세대주가 자는데 아이라도 안아보고 가야지요. 좀 편안히 앉으십시오.》

녀인은 구석쪽에 앉았으나 아이가 그이의 옷을 더럽히면 어쩔가싶어 조마조마한 얼굴로 어린애만 지켜보았다.

《아주머니, 세대주 눈이 좀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병원에서 시키는대로 더운물찜질이랑 하니 인차 좋아졌습니다.》

《예… 촬영소에선 누가 찾아왔더랬습니까?》

윤희는 갑자기 가슴에 쌓였던 설음이 터져올랐으나 입술을 꽉 다물고 머리를 다소곳이 숙이였다.

《예…》

《입맛은 있어합니까?》

《예… 무얼 해놓아도 들지 않습니다.》

윤희는 쟈케트단추를 공연히 비틀며 기여들어가는 소리로 대답하였다.

《이전에도 눈이 이렇게 된적이 있었습니까?》

《피곤하면…》

그이께서는 근심스러운 안색으로 머리를 끄덕이시였다.

《약은 어떤걸 썼습니까?》

《병원에서 준 약을… 비타민제라고 했습니다. 진정제, 수면제도…》

《전문병원에 안가도 일없겠습니까?》

《본인은 괜찮다고 하는데…》

김정일동지께서는 눈길을 돌려 이즈음 소박한 사람들이 생활향상의 징표로 여기는 이불장과 재봉침, 경대, 라지오 등을 둘러보시다가 창문의 밑부분에 가리운 옥양목창가림에 빨갛고 노랗고 파란 색실로 수놓은 나비며 들꽃이며 토끼들을 유심히 여겨보시였다.

들꽃과 토끼 둘레에는 도안을 그렸던 흔적인 연필자리가 채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었는데 그 창가림의 자수들은 주부가 보금자리를 아늑하게 틀고 재미나게 살아보자고 정성을 기울인것임에 틀림없었다. 재봉침과 경대, 이불장안에도 갖가지 꽃들을 수놓은 장식보가 덮여있었다. 그 어느것에서나 행복한 부부생활을 열망하여 집안을 알뜰히 꾸리려고 애써온 주부의 지성과 손재간이 엿보였다.

그것들을 묵묵히 여겨보시던 **김정일**동지께서는 남편이 엄중한 과오를 범하고 쓰러진 지금 이 젊은 녀인은 얼마나 크나큰 불행감을 느끼랴싶으면서 가슴이 못내 쓰려나시였다.

앞에 다소곳이 앉아있는 녀인에게 동정이 갔다.

그이의 눈길에서 무엇을 느꼈는지 녀인은 갑자기 고개를 떨구고 손으로 입을 싸쥐였다. 녀인의 어깨가 조용히 물결쳤다.

《아주머니…》 하고 그이께서 부드럽게 부르시였다.

윤희는 대답을 못하였다.

최승진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돌아누워 이마살을 괴롭게 찌프렸다.

박경섭이 그의 팔을 부드럽게 흔들었다.

《승진동무… 승진이…》

최승진은 눈을 떴다. 그는 벌겋게 충혈된 멍한 눈으로 **김정일**동지며 박경섭이며 안해를 둘러보다가 눈을 스르르 감아버렸다. 자기눈에 비친 현실을 꿈속의 허상으로 여기는것 같았다.

《승진이!》 하고 박경섭이 소리쳤다. 그는 비로소 무엇이 느껴지는지 화닥 놀라 일어나앉았다. 그리고는 주먹으로 눈을 성급히 비비고나서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듯 다시 그이를 빤히 쳐다보았다.

《승진동무, 우리가 보입니까?》 하고 그이께서 조심스러운 얼굴로 그를 지켜보시였다.

《예…》

그는 이게 꿈이 아니냐는듯 박경섭을 돌아보았다. 박경섭은 의미있게 웃어보였다.

《좀 어떻습니까?》

《예, 좀 낫습니다. 어떻게 저의 집에까지…》

《문병이나 하자고 왔습니다. 이번에 마음을 몹시 쓴 모양이구만.》

《면목이 없습니다. …》

최승진은 고개를 맥없이 떨구었다. 그의 머리칼이며 얼굴이며 목, 어디에서나 생기가 가셔져 온몸이 후줄근하게 처져보였다.

박경섭이 그 맥빠진 자태에 화가 울컥 치미는지 주먹을 들었다가 제무릎에 소리없이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안타깝게 일렀다.

《여보, 모처럼 찾아오셨는데 한마디라도 씨원한 소리를 하기는커녕…》

그의 눈에 물기가 번쩍이였다.

김정일동지께서 좋지 않은 안색으로 박경섭을 돌아보시였다.

방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최승진은 두손으로 머리를 싸쥔채 바위돌로 굳어진듯 까딱 움직이지 않았다. 숨도 쉬는것 같지 않았다. 깊이 숙여진 얼굴밑장판에 비방울같은것이 몇방울 소리없이 떨어져 번들거렸다. 그것은 뼈속에서 슴새여나온 골수의 방울처럼 부옇게 흐려진것이였다.

《승진동무…》 하고 그이께서 조용히 부르시였다.

최승진은 잘 듣지 못한듯 인차 응대하지 못하다가 얼굴을 무겁게 쳐들었다.

《나도 맥을 놓고있는 동무를 보니 마음이 썩 좋지 못합니다. 과오를 범했다고 맥을 잃고 쓰러지면 어떻게 합니까. 잘못된 영화야 어떻게나 고쳐놓고봐야지.》

《예?》

그는 놀라움과 의혹에 찬 눈으로, 아니 완전히 얼빠진 사람의 눈으로 자기 무릎이며 가슴노리를 공연히 더듬더듬 더듬었다.

그이의 양복소매단추를 가지고 놀던 아이가 갑자기 발장난을 하며 캐득캐득 웃었다. **김정일**동지께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품에 꼭 껴안으시였다.

《다른 연출가를 붙여 영화를 고칠수도 있겠지만 나는 승진동무가 기운을 내서 일어나 영화를 훌륭하게 고쳐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심정입니다. 나는 사실 오늘 이 한마디 말을 하고싶어 찾아왔습니다.》

《제가요?… 제가요?》

《동무가 고치지 않고 누가 고치겠습니까?》

《고치면 될가요?》

《창작에서 범한 과오는 창작을 통해 고쳐야 합니다. 이건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입니다. 승진동무, 작품을 대수 고쳐서는 안됩니다. 근본적으로 뜯어고쳐 세상에 소리칠수 있는 명작으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명작으로!…》

《예? 명작으로요?》

그것은 환성이 아니였다. 가슴을 아프게 파고드는 신음같은 부르짖음이였다.

《사실은… 정말 죽고싶었습니다. …》

그는 더 말을 잇지 못했다.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삼키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몸을 뒤로 젖힐사하며 호탕하게 웃으시였다. 그 밝은 웃음소리로 방안에 따뜻한 화기가 도는듯하였다.

《죽기는 왜 죽겠습니까. 앞으로 세계적인 명작들을 많이 만들면서 보람있게 살아야지요. 보람있게!… 나는 이번에 그 영화를

세번네번 봤습니다. 영화가 총체적으로 잘못되기는 했지만… 보면 볼수록 연출가의 야심이라고 할가… 세계적인 영화수준보다 높이 치솟아오르려는 기백이 뚜렷이 느껴졌습니다. 배역선정, 연기, 화면구도, 편집… 모든데서 그걸 느꼈습니다. 그 기백만은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최승진은 머리를 쳐들고 얼이 빠진듯한 멍한 눈으로 그이를 우러러 쳐다보았다. 다음순간 그의 눈에 생기가 확 불타오르고 볼편이 부들부들 떨었다. 그것은 영화가 잘못되자 그 누구도 눈길을 돌리지 않던 자기의 깊은 의도와 진심을 알아주시는데서 오는 격정의 파문이였다.

그는 갑자기 한손으로 눈을 싸쥐고 코물을 들이켰다.

박경섭도 눈언저리가 벌개졌다.

《뜻은 컸지만 실패했단말이요. 그게 분합니다!》

그이의 음성에서는 열기가 확확 풍기였다.

《왜 실패했는가? 영화문학의 결함이 근본원인이지만 연출은 어떻게 했습니까. 프랑스식연기형상을 해야 프랑스영화와 견줄수 있는가, 이딸리아식정서를 폭발시켜야 이딸리아영화를 누를수 있는가. 아니요, 아니…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식으로 해야 합니다! 조선사람의 고유한 정신미를 조선사람의 정서와 구미에 맞게 독창적으로 형상해야… 그래야 영화는 물론 모든 예술이 크나큰 감화력을 가지고 우리 인민의 사상정서교양에 이바지할수 있습니다. 그래야 세계 어느 나라 예술도 우리의 예술을 모방하거나 따라잡을수 없는 높은 경지에 뛰여오를수 있습니다!》

《전 그걸 망각했습니다!》

최승진은 소년처럼 눈물을 빗씻었다.

《그렇습니다. 사상성과 민족성이 모호한 예술은 얼이 빠진 예술입니다.》

최승진은 회오의 한숨을 조용히 내쉬였다.

《싫은 소리를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요즘 로영무동무한테 말도 안한다는 반영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

최승진의 이마에 식은땀이 내배였다.

《어째 심장들이 그렇습니까. 한평생 같이 일해오면서… 옹졸하다고 할지, 랭담하다고 할지… 우리 나라에서 제일 큰 연출가들이라는 동무들사이가 그래가지고야 영화예술인대오가 어떻게 단합되겠습니까. 좀 생각해보십시오. 오늘 로영무연출가를 만났는데 그는 몹시 뉘우치고있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흉금을 터놓는 뜨거운 말들이 계속 오고갔다.

윤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나와 눈물에 젖은 얼굴을 황황히 씻었다.

이윽고 방쪽에서 그이의 대범하신 웃음소리와 박경섭의 열정적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온 집안에 소생의 선풍이 휘몰아치는듯했다.

윤희는 문득 이런 경사의 날에 철없이 울고만있는 자기를 발견했고 주부가 할 일을 비로소 깨달았다. 그는 펄쩍 놀라 눈물을 닦고는 찬장문을 열어보았다. 소주 한병과 닭알 두알이 있을뿐 아무것도 없었다. 어쩐담… 식료상점에 뛰여갔다올가, 성녀형님한테 달려갈가… 가슴을 바글바글 끓이며 맴돌이치는데 방문이 열리고 손님들이 복도로 나오는 소리가 들려왔다.

윤희는 너무 섭섭하고 아연하여 정신없이 복도로 나갔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방들을 좀 구경하자고 하시며 웃방을 결쳐 서재를 돌아보시고는 다시 복도로 나와 박경섭의 곁에 엉거주춤 서있는 최승진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였다.

《영화를 빨리 수정합시다. 우리도 힘껏 도와주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손잡고 영화예술을 추켜세워봅시다.》

최승진은 두손으로 그이의 손을 싸쥐고 고개를 숙이며 울먹이였다.

《고맙습니다. … 고맙습니다!》

윤희는 박경섭이 밖에 나오지 말라고 떠밀었으나 현관앞에까지 따라나가 승용차에 오르시는 그이께 고개를 깊이 숙여 절을 하였다.

그가 집으로 돌아오니 아래방에서 아이만 기여다니며 놀고있었다. 남편은 웃방에도 서재에도 없었다.

세면장에서 수도물소리가 요란하게 나고 물을 푸—푸— 뿜으며 세면하는 소리가 났다.

윤희는 세면장문을 열어봤다. 최승진은 물이 세차게 쏟아져내리는 수도꼭지밑에 머리를 들이밀고 기운차게 머리를 문질러대고있었다. 물살에 머리칼이 흩날리고 휘뿌려지는 물보라가 벽을 적시였다.

《여보, 여보!》

《…》

남편은 대답없이 물을 푸—푸— 기운차게 내뿜으며 왁살스럽게 세면을 하였다.

《여보, 정신있어요? 감기 들겠어요!》

《감기라구? 나한테 감기가 접어들것 같소?…》

그리고는 물에 젖은 얼굴로 안해를 돌아보며 격정을 터뜨렸다.

《여보, 봤지, 다 들었지? 아하, 어떤분이요!》

그는 주먹을 쳐들어 흔들었다.

《저런분이 가까이 있는데 맥을 놓고 쓰러지다니. 나는 정말 바보요. 천치요. 여보, 저런 스승의 슬하라면 무엇인들 못하겠소! 면도칼을 갖다주오. 촬영소에 나가봐야겠소.》

윤희는 그만 눈물이 왈칵 쏟아져 대답도 하지 못하고 아래입술을 꼭 깨물었다.

밖에서 아낙네들이 왁작 떠드는 소리가 나고 출입문이 열리는것 같더니 성녀아주머니의 시원한 목소리가 울려왔다.

《아—니, 이 집이 왜 이렇게 조용하나?》

×

그날 **김정일**동지께서는 몇몇 예술인들의 집을 더 찾으시였으며 촬영소의 책임일군들과 예술영화 《광풍》을 빨리 고치고 영화예술전반을 추켜세울데 대하여 밤깊도록 의논하시였다.

그이께서 당중앙위원회로 돌아오실 때 시내의 주택지구들은 모두 어둠속에 잠들고있었으나 영화예술인아빠트의 창문들마다에서는 불빛이 환히 쏟아져나오고있었다.

불이 꺼진 창문은 하나도 없었다.

그쪽을 바라보던 박경섭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씀드렸다.

《저걸 보십시오. 모두 잠들지 못하고있습니다. 충격이 큰것 같습니다.》

그이께서는 차를 세우고 길가로 나가 더 생동하게 빛나는듯한 그 불빛들을 묵묵히 바라보시였다.

박경섭이 곁으로 다가왔다.

《모두 흥분해서 잠들지 못하는것 같습니다. 다감한 동무들이니까… 이제는 일이 잘 펴일것 같습니다.》

그이께서는 한손을 허리에 올리며 미소를 지으시였으나 아무런 응대도 안하시였다.

잠들줄 모르는 창문들의 불빛 하나하나가 안아주고싶도록 반가우면서도 영화예술의 병집이 한두번의 충격이나 일시적흥분으로 가셔질수 없는 심각한것이라는 생각이 가슴을 파고들어서였다.

그이께서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시였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 3 장

1

겨우내 창유리들에 나무잎사귀같은 무늬들을 그렸던 성에도 녹아내린지 오래고 따스한 해빛이 창문에 가득차서 쏟아져들어와 방안은 여느때없이 훤했다. 엇비스듬히 흘러드는 그 해빛속으로 날아오르는 담배연기가 봄날의 희부연 안개처럼 그물거렸다.

주영도는 정숙이 깃든 아늑한 자기 사무실에 있었지만 몸을 주체하기 어렵도록 세차게 회오리치는 선풍속에 든듯 두팔을 벌려 책상가녁을 꽉 붙잡고 서있었다.

그의 얼굴은 어둑하게 흐려졌다. 웬일인지 가슴이 심란해졌다.

(왜 내가 이럴가?)

그러나 까닭을 알수 없었다.

그는 재털이에 놓인채로 있는 담배가치를 들었다가 피우는것을 그만두고 불을 꺼버리고는 손님용안락의자에 가앉았다.

김정일동지께서 최승진과 여러 예술인들의 집을 찾으신 때로부터 어언 두달이 지나갔다. 그 두달은 온 촬영소가 불도가니처럼 끓어번진 나날이였다. 그이께서는 한주일에도 몇차례씩 촬영소로 내려와 여러 예술영화들의 창조사업을 보살펴주시는 한편 《광풍》의 개작을 지도하시였다.

최승진은 이에 고무되여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합숙과 실내촬영장에서 쪽잠을 자면서 낮과 밤이 따로 없이 촬영을 계속해나갔다. 로영무도 그와 침식을 같이하면서 영화개작에 자신의 지혜를 아낌없이 보태주었다. 그리하여 어제까지의 《광풍》은 《나의 길》이란 제명으로 개작완성되였다.

오늘아침 총장과 부총장들이 두 연출가와 함께 《나의 길》을 가지고 당중앙위원회로 올라갔다. 그이께서 부르시였던것이다. 촬영가와 주요배우들도 따라갔다. 그들은 모두 흥분되여 먼저 타라고 서로 떠밀며 승용차들에 오른다, 필림통들을 싣는다, 방에 잊고온 문건들을 가져온다 하며 떠들썩하게 떠나갔다. 그들이 떠나가자 촬영소의 공기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긴장해졌다. 영화가 어떻게 평가될것인가 하는 불안감때문이였다.

주영도비서도 그런 불안감이 전혀 없는것은 아니였으나 **김정일**동지께서 지도하여주신것만큼 영화가 잘되였을것이고 큰 문제가 없으리라는것을 믿어의심치 않았다. 그에게는 다른 근심이 더 컸다. 영화는 개작되였지만 최승진과 로영무의 엄중한 사상적병집, 이번에 드러난 온 촬영소의 사상적결함은 어떻게 고쳐나가겠는가 하는것이였다.

사실 그는 이번에 영화예술인들속에서 낡은 사상을 반대하는 투쟁을 한달이고 두달이고 석달이고 날자에 구애되지 않고 심각하게 벌려 오래 묵은 잡사상의 때를 말끔히 벗겨내리라고 결심했었다.

그런데 일은 그의 결심대로 되여가지 않았다.

우선 박경섭의 주장으로 예술부서들이 거름생산에 참가하던것이 중지되였으며 창조과제를 맡은 예술인들은 예술창조에만 전념하게 되였다.

예술인들의 사상상태에 대한 자료는 종합되여 보고되였건만 해당 부서에서는 낡은 사상을 극복하기 위한 실제적인 투쟁을 조직하라는 아무런 지시나 의견도 주지 않았다.

그래서 박경섭에게 문의하니 작품이 개작완성된 다음 총화를 잘하자고 하면서 그러면 예술인들이 자신들의 결함을 더 깊이 느끼게 될것이라고 하였다.

오늘아침 떠날 때 보니 최승진이나 로영무, 다른 모든 사람들도 다 흥분에 들떠있었는데 자신들의 과오와 사상적결함들에 대하여는 까마득히 잊고있는것 같았다. 그러한것들을 문제시했던 자기를 시대에 뒤떨어진 고루한 일군으로 여기지 않는가싶은 불쾌감까지 들었다.

주영도는 무거운 마음으로 창가로 걸어가서 뒤짐을 지고 흐릿한 얼굴로 바깥을 내다보았다.

가까운 구내길로 대여섯명의 녀배우들이 활기에 넘쳐 걸어가고 그뒤로 한기석이 검은색 코트주머니에 두손을 찌른채 아래만 보며 느릿느릿 발걸음을 옮겨가고있었다.

주영도는 웬일인지 그가 측은하게 여겨졌다.

한기석의 조부는 지난 세월 제일 가난하고 비천한 품팔이군이였으며 여러해전에 사망한 그의 아버지는 한때 아시아는 물론 유럽에까지 이름을 떨친 배우였고 연극연출가였으며 인민예술가에 연극영화대학의 교수였다. 일찌기 위대한 수령님께서도 그의 아버지의 재능과 공로를 여러번 치하하신적이 있다.

한기석은 아버지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았다. 그는 광복후 인민학교,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과 대학을 거쳐 영화계에 들어선 새 세대의 예술인이다. 그의 언행과 외모에서도 새 세대의 청신한 기운이 풍기였다. 때문에 주영도는 언제나 그와 이야기하거나 같이 앉아만 있어도 기분이 좋아지는것이였다.

주영도는 한시간후 한기석을 자기 방으로 불렀다.

한기석은 인차 달려왔다. 그는 무엇때문인지 매우 불만스러운 얼굴이였다. 이전과는 달리 자리를 권하자 안락의자의 한쪽끝에 스스럼없이 앉는다.

《연출가동지들이 당중앙위원회에 올라간 다음 섭섭한 생각이 없지 않아 그래서 찾아올가 했습니다. 우리 부연출들도 오늘같은 때 한두명 따라올라가 뒤구석에라도 앉아 배우면 안됩니까. 언제봐야 최승진연출가와 로영무연출가에게만 특전이 차례지지요. 앞으로도 내내 이러면 저희들은 언제 자랍니까?》

《…》

주영도는 아침에 최승진이와 로영무를 불러올릴 때 마음속으로 한기석이도 올려보냈으면 하는 생각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제편에서 내놓고 그런 제기를 하니 이 친구가 너무 뻔뻔스럽지 않는가 하는 어렴풋한 느낌까지 든다.

《제 생각이 잘못된것입니까?》

《잘못되기야…》

《그런데 어째 절 그런 눈으로 봅니까?》

《허, 이 동무가… 내가 동무를 어떤 눈으로 봐야 되오?》

《예?》

《동무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말이요.》

《그건 어떻게 하는 말씀입니까?》

《아니, 아무것도 아니요… 이전에 동무가 제기한 그 문제는 사실과 맞지 않더군. 그런 문제에서는 심중해야 되오. 똑똑히 확인도 해보고…》

《무슨 문제말입니까?》

《최승진동무가 버렸다던 녀성문제말이요.》

《그 문제요? 여론을 듣고 수위로 있던 그 로인을 찾아가봤습니다. 찾아가서 확인했습니다. 56년도에 먼 지방에서 한 처녀애가 찾아와 승진연출가 딸이라고 한건 사실인데요… 로영무연출가가 그 애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다고 했는데요…》

《그건 다 사실이요…》

주영도는 로영무에 의하여 해명된 문제들을 대충 이야기해주었다.

《그때 로영무동무한테는 알아보지 않았지?》

《예…》

《왜 그랬소?》

한기석은 갑자기 얼굴빛이 달라졌다.

《아니 그럼 제가 나쁜 심보로 그런것 같습니까?》

《동문 도대체 무슨 소릴 하오?》

한기석은 억이 막혀 목까지 메여버린듯 주영도의 얼굴만 똑바로 지켜보았는데 어느덧 그의 눈에 물기같은것이 맺혔다.

《좋습니다. 아무렇게나 생각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할 말은 좀 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비서동지한테 의견이 있습니다. 왜 박경섭동지한테 그걸… 제가 반영한걸 다 공개했습니까? 그래서 비서동지한테 좋을건 뭡니까. 촬영소에서 생긴 문제야 촬영소안에서 고쳐야지요. 비서동지가 그래 연출가 하나쯤 손아귀에 틀어쥐

고 고쳐놓지 못하겠습니까. 최승진연출가가 그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큰 존재입니까. 만약 사실이였다면 연출가동지도 구원하기 어렵고 또… 또… 비서동지도 책임져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수습하자고… 수습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래두 전 비서동지가 리해하는줄로 알았습니다. 좋습니다. 아무렇게나 생각해도 좋습니다. 제가 잘못했으니까 어떤 비판을 해도… 받겠습니다!》

주영도는 사고방법은 틀려먹었지만 그한테 속이 깊은데는 있지 않는가싶으면서 가슴이 뭉클해졌으나 자기를 슬그머니 그 어떤 공모자로 만드는것 같아 버럭 소리쳤다.

《그만하오!》

오후 3시가 좀 지나 당중앙위원회에 올라갔던 총장일행이 촬영소에 돌아왔다. 차에서 내리는 총장, 예술부총장 그리고 최승진이와 로영무를 비롯한 예술인들의 얼굴은 모두 하나같이 기쁨과 흥분에 불깃하게 상기되여있었다.

주영도는 뜨락으로 달려나가 그들을 맞이하였다. 총장은 그의 손을 잡으며 격정에 떨리는 목소리로 **김정일**동지께서 영화를 잘 고친데 대하여 치하하시였다고 했다.

언제 달려나왔는지 한기석이 기쁨에 겨워 최승진의 손을 잡아 흔들었다.

《연출가동지, 축하합니다. 이제는 됐습니다. 정말 만세라도 부르고싶습니다!》

주영도가 한기석의 노죽에 놀라 그를 빤히 여겨보는데 최승진이 흥분에 불깃해진 얼굴을 뒤로 젖힐사하며 크게 웃었다.

《하하… 고맙소!》

총장도, 예술부총장도 모두 세상시름을 다 던듯 환희로 설레였다.

주영도도 기쁘기는 하지만 웬일인지 그 환희에 한데 어울릴수 없었으며 저도 모르게 한옆으로 비켜서게 되였다. 그들이 어딘지 모르게 경박한 사람들인것 같고 환희에 들뜬 그 기분들이 불길한 전조처럼 느껴졌다. 이제 또다시 오작을 내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수 있겠는가… 그는 성급하게 담배를 꺼내 입귀에 물고 침울한 얼굴로 성냥불을 켰다.

2

박경섭이 초대소뜨락에 나가 촬영소의 일군들과 예술인들을 바래주고 돌아오니 **김정일**동지께서는 문화성 서영림부상과 의자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계시였다. 그이께서는 박식가인 서부상과 예술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즐기시였으며 늘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웃단추 두개를 끌러놓고 의자팔걸이쪽에 몸을 기대고계시였는데 어딘지 모르게 지친 안색이였다.

(저 작품때문에 두달동안 너무 무리하셨어…)

박경섭은 뒤늦은 가책에 가슴이 저려들어 출입문앞에 꼿꼿이 서서 그이만을 지켜보았다.

김정일동지께서 그에게로 눈길을 돌리시였다.

《다 떠나갔습니까?》

《예…》

박경섭은 그이 가까이로 다가가며 쾌활한 목소리로 말씀드렸다.

《모두 흥분해서 떠나갔습니다. 저 동무들은 완전히 명절기분입니다. 승진동무는 제 손을 잡고 작품에 장군님께서 파견하신 지하공작원을 새로 등장시키고 그의 영향하에 주인공의 혁명의식이 성장하게 했기때문에 작품에 정치적인 대가 똑바로 서게 됐다고 기뻐했습니다.》

《연출가가 기뻐했으면 됐습니다. 오늘저녁엔 모두 발편잠을 자겠소. 헛허…》 하고 **김정일**동지께서는 밝게 웃으시였다.

《수령님께 빨리 보여드립시다. 수령님께서도 기뻐하실것입니다.》

창가림에 려과된 부드러운 해빛이 그이의 무릎을 따뜻이 감싸고있었다.

서부상은 지난날의 과오가 되살아오르는지 얼굴이 벌개져 도

수높은 안경을 공연히 벗었다가 도로 끼고는 손끝으로 벗어진 이마를 만지작거리기만 하였다. 그는 문화성당총회에서 비판을 받은 다음에 각 도예술단체들을 돌아다니며 예술창조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기 위한 사업을 열정적으로 지도하였는데 어제 혜산에서 돌아왔다. 개작된 영화를 보고 자책감이 더해진 그의 심중은 리해할만한것이였다.

《경섭동무, 거기 좀 앉소.》 하고 그이께서 곁에 놓인 의자를 가리키시였다.

박경섭이 자리를 잡자 그이께서는 그를 돌아보며 물으시였다.

《저 동무들이 또 그런 오작을 만들어 수령님께 다시 심려를 끼쳐드리면 어쩌겠습니까. 나는 그게 제일 걱정스럽습니다.》

《이번에 모두 크게 각성했습니다. 다시야 그런 작품이 나오겠습니까!》

《그건 모르오. 이전에 예술영화 〈불길〉이 나와 사회적인 비난을 받았을 때도 그렇게 말했소. 그러나 그보다 더 험한 작품이 또 나오고 또 나왔소. 그래서 지난 시기 우리 예술계가 얼마나 심각한 곡절과 파동을 겪어왔소.》

《이제야 그런 일이 또다시 반복되겠습니까.》 하고 서부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드렸다.

《그럴가요? 부상동무는 무슨 근거로 그렇게 장담합니까?》

《장담하는건 아니지만 이번에 저를 포함해서 모두 얼마나 심각한 자극을 받았습니까. 무대예술부문의 창작가들과 예술인들도 모두 자기 예술창조사업을 검토해보고 결의를 잘 다지였습니다.》

《결의야 언제나 좋았지요. 터놓고 말하면… 모든것을 좋게만 생각하는 부상동무의 그 단순성과 락관주의가 나는 이전부터도 우려됐습니다. 지도일군들한테는 락관주의가 언제나 좋은건 아닙니다. 과학적인 분석과 타산에 발을 붙이지 못한 락관주의는 실패의 전제로 될수 있습니다.》

서부상은 눈을 공손히 내리떴다.

《수령님께서는 우리 예술이 거의 주기적으로 곡절과 파동을 겪는다고 몹시 걱정하시였습니다. 부상동무는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글쎄요. 우리 지도일군들과 예술인들의 사상예술적인 준비정도와 관계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건 너무 일반적인 원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원료로 하여 제품을 만들어내는 예술이라는 이 특수한 분야에서 일이 잘되지 않으면 거기엔 반드시 자기의 특수한 원인이 있을것입니다. 그 근본원인은 예술의 본성과 생리에 관련되는것입니다. 그것을 밝혀내야 우리 예술을 곡절이 없이 건전하게 발전시킬수 있습니다.》
서영림부상은 자기의 얕은 생각에 당황해져 눈을 슴벅이며 생각을 굴리였다.
《문학예술이, 나아가서 정신문화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발전되는가 하는것은 예로부터 민족의 운명, 민족의 흥망과 관계되는 문제가 아닙니까. 때문에 신중히 대하여야 합니다. 어떻게나 그 원인을 찾아내야 합니다. 부상동무는 문화사에도 조예가 깊고 우리 예술계형편도 누구보다도 잘 알지 않습니까. 함께 연구해봅시다. 생각되는바가 있으면 언제라도 좋으니 찾아와주십시오. … 참, 혜산에 갔다왔다지요. 요새 거기 날씨는 어떻습니까?》
《예? 날씨말입니까?》 서영림은 갑자기 돌려진 화제에 다소 어정쩡해져 이렇게 반문하였다.
《제가 도착한 이튿날부터 바람이 몹시 불었습니다. 아침에 밖에 나가보니 숙소의 기와장이 뜨락에 날아떨어져 박산이 됐더구만요.》
《아니 겨울도 아닌데 무슨 바람이 그렇게…》
《로인들 말이 례년에 없던 바람이랍니다. 올 때 들으니까 백두밀림에서 거목들도 더러 쓰러진 모양입니다.》
《바람에… 거목들이?…》
그이께서는 백두밀림을 휩쓴 태풍이며 뿌리채 뽑혀 쓰러진 거목들을 눈앞에 그려보시는듯 잠시 말씀이 없으시였다.
그날 문화성의 자기 사무실로 돌아온 서부상은 문을 안으로 걸었다. 혼자 있으면서 사색에 잠기고싶었다.

그는 흥분된 얼굴로 방안을 왔다갔다 거닐었다. 도수높은 안경알속에서 또렷해진 눈동자가 생기를 뿜으며 유난히 반짝이였다.

그는 **김정일**동지의 말씀에서 큰 충격을 받았다.

문학예술을 민족의 흥망과 결부시켜 생각하시는 그 진지성,우리 문학예술의 현재보다 미래를 더 걱정하시는 그 책임성에 몹시 감동되였다.

서영림은 우리 문학예술이 파동을 겪게 되는 하나의 원인이라도 찾아내여 그이를 돕고싶었다.

그는 문명의 진보와 퇴보를 좌우하는 정치적영향력에 대하여 전에없이 심각한 생각에 잠기게 되였다.

그는 밤깊도록 서재에 앉아 광복후 당이 문학예술의 개화발전을 위하여 과연 어떤 정책을 실시하였는가에 대하여 참고문헌들을 뒤져가며 학구적으로 분석해보았다. 당문예정책은 시기마다 문학예술이 나갈 방향을 정확히 제시하였으며 당과 정부는 그 개화발전을 위하여 큰 관심을 돌려왔다.

그런데 왜 엄중한 결함들이 내포된 오작들이 나와 주기적인 파동을 일으키는가?

서영림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와 같은 지도일군들이 당문예정책을 정확히 집행하지 못하고 작가,예술인들이 사상예술적으로 미숙한데 그 원인이 있는것 같았다. 그는 **김정일**동지께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데서가 아니라 예술의 본성과 관련된데서 근본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하신 말씀을 상기하며 자신의 예술지도에서 예술의 본성에 어긋나게 사업한 결함들을 찾아보았다. 자신과 문화성이 예술인들의 준비정도와 정서,창발성을 고려함이 없이 행정실무적으로,지어는 관료주의적으로 예술창조사업을 지도한 실례는 얼마든지 있었다. 지난날의 사업과정을 하나하나 더듬어볼수록 그는 모진 가책의 불길에 가슴이 타번지는듯하였다.

매일밤 복도의 벽시계가 두점을 친 다음 자리에 쓰러지면 가슴이 얼얼해나고 머리가 지끈거려 도무지 잠들수 없었다.

며칠후 그는 자신의 심정도 토로하고 의논도 하고싶어 당중앙위원회로 박경섭을 찾아갔다가 영화담당부서의 젊은 지도원으로

부터 뜻밖의 소식을 들었다. 박경섭이 **김정일**동지를 모시고 백두밀림으로 떠나갔다는것이였다. 이 갑작스러운 출발이 자기가 혜산에 갔다와서 전한 바람에 대한 소식과도 관계된다는것을 전혀 알수 없었던 서영림이였다. 그는 그저 무엇인가 매우 급하고 중대한 일이 생기지 않았는가싶은 아리숭한 느낌으로 속이 뒤숭숭해져 문화성으로 돌아왔다.

3

백두고원에는 봄빛이 짙어 어디를 둘러보나 울창한 밀림의 연두빛바다가 거창한 생명감을 풍기며 장엄하게 설레이고있었다. 그러나 그속으로 깊이 들어가니 얼마전 여기를 휩쓴 미친 바람의 흔적인 꺾어져 맥없이 내리드리운 나무가지며 뿌리를 쳐들고 모재비로 쓰러진 거목의 처참한 자태가 드문드문 눈에 띄였다.

리명수를 지나 청봉숙영지로 들어가는 갈림길에 이르러 차에서 내리신 **김정일**동지께서는 허리에 두손을 올리고 주변의 숲을 둘러보시였다. 송진내가 연하게 섞인듯한 락엽수들의 싱그러운 냄새며 락엽썩는 시크무레한 냄새가 밀림속에 진동했다.

그이께서는 길에서 얼마 떨어져있지 않은 언덕받이에 쓰러진 강대나무에 눈길을 멈추시였다. 여러가닥의 우불구불한 뿌리들을 험상하게 쳐들고 락엽속에 쓰러진 강대는 넘어질 때 곁의 어린 봇나무를 후려쳐 가지들을 꺾어놓고 찢어놓아 그 상처들에서 흘러내린 진물이 희끗한 껍질을 적시고있었다.

그이께서 시름겨운 안색으로 조용히 뇌이시였다.

《자연에 분 바람도 이만저만이 아니였군. …》

박경섭은 그이께서 예술계에 불어친 불길한 바람에 대하여 상기하셨다는것을 인차 느꼈다.

《사적지들이 피해를 입었겠소.》

그날 초대소에서 서부상으로부터 백두고원을 휩쓴 모진 바람

의 횡포에 대하여 전해들으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부상이 떠나가자 인차 량강도당의 한 책임일군을 전화로 찾아 바람피해에 대하여 물으시였다. 그 일군은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피해에 대해서는 자세히 보고하였으나 백두밀림속에 있는 사적지들의 형편은 전혀 모르고있었다.

송수화기를 놓으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좋지 못한 안색으로 방안을 왔다갔다하시였는데 박경섭은 그이의 심중에 어떤 격랑이 일어났는지 짐작되여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튿날 그이께서는 박경섭에게 그러지 않아도 백두산쪽에 가보고싶었는데 함께 가자고 하시였다.

그이를 모신 직승기는 비행중 어디에도 내리지 않았다. 도소재지인 혜산도 지나 보천보까지 곧바로 날아와 내렸다.

그이께서는 여기까지 오는 도중에 내내 말씀이 없었다. 줄곧 한가지 생각에만 골똘하고계시는듯했다.

지금 사적지에 다 와서 저토록 참혹하게 허리부러져 쓰러진 강대까지 보시게 된 그이의 심정이 어떠하리라는것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는 박경섭은 마음이 여간 무겁지 않았다.

청봉숙영지로 들어가는 길은 다행히도 깨끗이 쓸어져있었다. 어느 누구의 알뜰한 솜씨인지 파도무늬의 비자루자리까지 나있는 길바닥에는 락엽 한잎 떨어져있는것이 보이지 않았다. 때마침 오후의 해빛이 송림속으로 환하게 흘러들어 표식비의 빨간 글자들이며 구호목들의 힘찬 글발들까지도 먼발치에서부터 바라보였다.

태고연한 정적속에 묻혀있는 사적지안에는 인적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이따금 가까운 어디에서 딱따구리가 구새먹은 나무를 쫏는 소리만 공기를 흔들뿐이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아무 말씀도 없이 샘터며 작식터, 천막자리, 구호목들을 돌아보시였다. 어디에도 피해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그이의 안색이 비로소 약간 밝아지는듯했다.

박경섭은 저도 모르게 안도의 숨이 나갔다.

그런데 두석대의 구호목들에서 해빛과 비바람탓인지 글발들이 퇴색해지고 흐려져있었다. 어떤 글자들은 우로부터 흘러내린 송진

에 덮였는가 하면 나무가 갈라터져 가로 그은 획들이 잘라진것도 있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못내 아쉬워 그런 글자들을 거듭 쓸어만져 보시기도 하고 뒤로 물러서서 실눈을 짓고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어느정도 알아보이겠는가 가늠해도 보시였다.

문득 뒤쪽에서 거치른 목소리가 울렸다.

《거 누구여?》

고요를 뒤흔든 그 소리에 박경섭이 화닥 놀라 뒤돌아보니 샘터옆에 키가 작달막하고 얼굴이 새까만 로인이 나무삭정이들을 한아름 안고 서있었다. 이쪽을 빤히 지켜보던 로인은 비로소 그이를 알아본듯 뒤로 주춤 물러서기까지 했다. 로인의 품에서 삭정이들이 흘러떨어졌다.

로인은 정신없이 달려와서 그이의 손을 스스럼없이 덥석 잡아쥐고 허리를 굽혔다.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새 앓지 않았습니까?》

《이게 꿈이 아닙니까. 예?》

로인은 허옇게 센 눈섭을 치켜올리며 그이를 쳐다봤는데 그 우묵한 눈에 따뜻한 정기가 일렁이였다.

《여기도 돌아보고 아바이도 보고싶어왔습니다. 혹시 어디로 가시지 않았는가 했는데 계시는구만요.》

《이 청봉귀신이 가문 어디루 가겠습니까.》

로인은 격정에 사무쳐 채머리를 떨기까지 하였다.

그이께서도 반가움에 겨워 락엽들이 붙어있는 로인의 솜옷팔소매를 쓸어만지며 몇순간 말씀을 못하시였다.

다정한 말들이 더 오간다음 그이께서는 로인에게 안내되여 다시 숙영지를 돌아보시였다.

사령부의 천막자리까지 돌아보신 그이께서는 문득 걸음을 멈추며 로인에게 물으시였다.

《요전 바람에 이 천막이랑 무사했습니까?》

로인의 얼굴에 일종의 자랑과 회심의 미소같은것이 어리였다.

《무사하지 않구요. 원 무슨 바람인지… 내 평생 이 아근에서 살아왔지만 그런 미친 바람은 처음입니다. 갑자기 앙—하고 불어대더니 와지끈와지끈 들부셔대는데 세상이 어떻게 되는줄 알았습니다. 그 바람통에 사람들의 깊은 속마음도 알게 됐습니다.》

로인은 그때 보천병원에 입원해있었는데 청봉사적지가 다 들부셔지는것 같아 마음을 놓지 못하고 들락날락하다가 끝내 참지 못하고 병원에서 뛰쳐나서 종주먹을 부르쥐고 리명수쪽으로 뛰여올라왔다고 했다.

《아니, 여기엔 누가 없었던가요?》 하고 그이께서 저으기 놀라며 물으시였다.

《있기야 있었지만 어디 맘을 놓을수 있습데까. 구호목 한대라도 넘어지면 어쩝니까… 한 10리 뛰여와 숨이 차서 길바닥에 쓰러졌는데 털털이 한대가 쌍불을 켜구 달려왔지요. 이젠 살았구나 하구 뛰여일어나 두손을 쳐드니 차가 멎어섰는데 안을 보니 앞자리엔 넥타이까지 맨 점잖은 어른이 앉아있고 뒤자리엔 나들이차림을 환하게 한 내인하구 사내아이가 앉아있었습니다. 우리 리명수마을 잔치집에 가는 일행이 틀림없었습니다. 그 집 몇촌되는분이 도에 있다가 군에 가즈 배치돼왔다더니 그분이 틀림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구 사정이야기를 하면서 좀 태워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른은 사적지에 다른 사람들도 있겠는데 왜 이런 밤에 길을 떠났느냐, 어서 돌아가라고 하다가 내가 정 부탁하니 타라고는 했지만 얼굴색은 그닥 좋지 못합디다. 내인은 눈이 올롱해서 아이를 제 곁으로 와락 잡아끌며 옷이나 털구 오르라구 하지 않습니까. 새침해서… 나때문에 잔치집에 가는 흥이 다 깨져 그러는것 같았습니다. 바람에 날려 몇번 딩굴다나니 내 옷주제가 흙투성이 돼서 말은 아니였지만 그렇게 나오니 속이 욱해졌습니다.

그렇지만 어찌겠습니까. 빨리 가야는 되겠구 해서 올라갔는데 내외가 다 어찌나 랭랭한지 미안하다는 말에도 응대를 안하고 내내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습니다. 도중에 내리고말았지요. 핑게를 대고… 차가 윙 떠나자… 내 난생처음 남의 뒤에 대고 침을 뱉어봤습니다. 그때 분하던 생각을 하문… 이 사적지가 저한테는 아무 상

관도 없는건가. 뉘덕에… 무슨 덕에 제따위가 밑에 바퀴를 달고 다니게 됐는지도 모르는 후레자식… 내 어디 사사용무로 차신세를 지자는거냐. 웬만한 사람같으문 저희네가 다 내리더라도 차를 내줬을게다… 이렇게 된욕을 하며 길을 걸으니 허허… 속에 불이 황황 일구 기운이 우쩍우쩍 나서 숨이 찬것두 모르겠습디다.》

로인은 허거프게 웃었으나 박경섭은 웃음이 나가지 않았다. 분격에 가슴이 떨렸다. 그가 누구인가고 따져묻고싶었다. 그러나 **김정일**동지께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고계셨기때문에 중도에 끼여들수 없었다. 또한 다른 자책감도 가슴에 파고들어… 자신이 맡은 영화부문에서는 혁명력사를 외곡한 작품까지 나오지 않았던가.

로인의 이야기는 계속되였다.

《새벽녘에 헐헐 여기까지 오니 바람은 더 기승을 부려 나무가지들을 우지끈 꺾어버리는데 세상에 참… 이런 귀인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늘에서 내렸는지 땅에서 솟았는지 웬 젊은이 열대여섯이 우리 관리원하구 벅작 떠들며 뛰여다니면서 저 구호목들에 받침대를 덧대고있는게 아닙니까. 알고보니 리명수생필공장 로동자들이였습니다. 내 그것들이 너무 고와 볼을 쓸어만져주구 엉치를 쳐줬수다.》

김정일동지께서 즐겁게 웃으시였다.

《그 동무들은 어디 이 근처에서 일하고있었던가요?》

《아니지요. 집에서 자다가 바람소리에 놀라 일어났는데 여기 걱정이 나 서로 만나 의논끝에 뛰여왔답니다.》

《예…》

《말은 또 얼마나 그럴듯하게 하겠습니까. 저 구호목들은 나라의 국보이다.… 우리 마음을 받들어주는 기둥이 아닌가… 이러는데 나는 그만 젊은것들앞에서 끝내 눈물을 보이고말았습니다.》

로인은 그때의 격정이 되살아올라 거쿨진 손등으로 질쩍해진 눈굽을 씻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흥분된 안색으로 말씀하시였다.

《로동계급의 심정이 역시 다릅니다.》

《예, 정말 그렇습니다. 이번 바람통에 사람들 깊은 마음속을 알

게 되였습니다.》

그이께서는 생각이 깊어지시는듯 눈길을 들어 숙영지 저쪽 우중충한 숲의 우듬지들을 이윽토록 바라보시였다. 파란 하늘밑에 검푸른 파도를 이룬 그 우듬지들은 쏟아져내리는 해빛에 한껏 미역을 감으면서 장엄하게 설레이고있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사령부천막옆 너럭바위에 앉아 로인과 한참 이야기를 더 나누고나서 박경섭이더러 차안에 두고온것을 가져오라고 이르시였다. 그것은 로인에게 주시려고 평양에서 가져온 털모자였다.

털모자는 로인의 머리에 약간 큰감이 있었으나 앞이 좀 쳐들리게 눌러쓰니 체소한 몸에 한결 풍채를 돋구는것이였다.

로인은 뜻밖의 선물에 너무 기뻐 철없는 어린애로 된듯 털모자를 몇번 고쳐 써보고는 어쩔바를 몰라하다가 두손으로 그이의 손을 싸쥐고는 고개를 깊이 숙여 절하였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바이, 청봉을 부탁합니다!》

그이께서는 차를 타고 삼지연까지 오시면서 내내 깊은 생각에 잠겨계시였다. 로인의 이야기에서 큰 충격을 받으신듯하였다.

그날밤 그이의 숙소 창문에서는 늦도록 불빛이 꺼질줄 몰랐다.

×

이튿날 역시 쾌청한 날씨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백두산을 답사하시기 위하여 아침일찍 숙소를 떠나시였는데 도당비서를 비롯한 도와 군의 책임일군들이 호위원 여러명을 데리고 우르르 따라나섰다.

그이께서는 모두 돌아가서 일들을 보라고 간곡히 이르시였는데 도당비서외에 박경섭의 간청으로 호위원 두명만 데리고가는것이 겨우 허락되였다.

그이를 모신 일행이 건창을 에돌아 무두봉에 이르러 한쉼 쉬고 나서 백두산에 오르니 정오가 다 되여 훨씬 낮아진듯한 파란 하

늘복판에서 화염덩어리같은 해가 눈부시게 이글거리고있었다. 숨이 차오르고 눈이 부시고 얼굴살갗이 시원하면서도 따가운 기운에 말라드는듯했다.

바람 한점 없었다. 사화산의 대분화구는 누리를 뒤흔드는 폭음과 함께 구만리대공에 불줄기를 뿜어올렸던 태고적의 장엄한 모습과 기상을 고스란히 간직한채 시간이 정지된듯한 신비로운 정적속에 영원한 침묵을 지키고있었다.

천지의 거울같은 수면에는 파란 하늘이며 그 둘레의 깎아지른듯한 벼랑들이 모두 거꾸로 비껴들어 천지밑에 하늘이 열려있고 하늘우에 천만산악이 두둥실 떠있는듯한 신비경이였다. 장군봉, 천지의 푸른 기슭… 그 어디에나 항일대전의 발자취가 찍힌채로 고스란히 간직되여있고 눈보라처럼 휩쓴 백병전의 함성이며 기관총의 자지러지는 총소리가 간간이 울려와 태고연한 정적을 흔드는듯하였다. 아름다움과 장엄함과 웅대함의 극치를 이룬 대자연의 절경과 여기에 어린 항일대전의 기상과 절세의 애국자, 만고의 령장 장군님의 위대성으로 하여 백두는 오늘 민족정신의 상징으로 솟아 이토록 숭고하고 장엄한 감명을 불러일으키는것이 아닌가…

박경섭은 가슴이 벅차올라 단숨을 헐헐 몰아쉬고 따라온 두 호위원도 이마의 땀을 씻으며 그이쪽만 지켜보았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봄외투앞섶을 열어헤친채 한손을 허리에 올리고 천지를 내려다보시였다. 천지의 수면이 발산하는 빛발과 선기의 작용으로 불깃하게 혈색이 피여오른 그이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시였다.

박경섭이 곁으로 다가가자 그이께서는 영채가 도는 눈길로 돌아보며 미소를 지으시였다.

《여기로 몇번이나 왔댔소?》

《다섯번째입니다.》

《많이 왔댔구만. 감정이 어떻소?》

박경섭은 그이를 모시고 여기로 온 감격이 너무 벅차서 선뜻 대답드리지 못하고 어줍게 웃어보였다.

《참 조화입니다. 언제나 여기로 오르기만 하면 목이 터지게 소

리치고싶거든요. 매번 그렇습니다. 저뿐아닙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어른들이나 청년이나 소년단원들이나… 그래서 모두 정신없이 만세도 부르고 아—야—오—와— 모두 나가는대로 아무 탄성이나 정신없이 내지르게 됩니다. 한번은 일본에서 온 총련대학생들을 봤는데 그 동무들은 그냥 왕왕 울면서 수령님 만세도 부르고 조국 만세도 부르더니 두주먹으로 하늘을 찌르면서 목소리를 합쳐 웨쳐댔습니다. 〈우리는 조선사람들이다—〉, 〈백두산의 아들딸이 되자—〉, 〈만세—〉 이러는데 옆에서 보던 사람들이 다 눈물이 글썽해졌습니다.》

박경섭은 눈을 슴벅이였다.

그이께서는 그윽한 눈빛으로 장군봉쪽을 돌아보시며 부드럽게 말씀하시였다.

《그럴수 있지. 여기서 조국이… 조국강산이 시작되는게 아니겠소.》

어디서 날아왔는지 메새 한마리가 머리우의 하늘을 날아돌며 은방울을 굴리는듯한 소리로 우짖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실눈을 짓고 그 새를 쳐다보시였다.

《저걸 보라구. 얼마나 곱소. 우리를 반기는거요. 우리를 안내하자고 나온 대자연의 사절인지도 모르지. 허허…》

새는 한자리에 떠서 재빛날개를 바르르 떨다가 어느새 곤두박히듯이 천지쪽으로 날아내려갔다.

그이께서는 장군봉쪽으로 걸음을 옮기시였다. 도당비서와 박경섭은 몇걸음 떨어져 그이의 뒤를 따랐다.

이때였다. 대기속에서 무엇인가 이상한 변화가 느껴졌다. 그것은 공기와 딛고있는 땅이 전률하는듯한 느낌이였다.

《아니 저걸…》 박경섭의 뒤를 따르던 호위원의 놀란 목소리였다.

어느새 어디서 날아왔는지 알수 없는 젖빛 안개가 물매급한 비탈을 따라 폭포처럼 천지로 쏟아져내리고있었다. 천지우에서 날아예던 이름모를 새들이 피타는 소리를 내지르며 병풍같은 절벽들의 품속으로 급기야 날아들어 숨어버렸다.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놀라운 변화들이 련이어 일어났다. 거울같은 천지의 수면이 잔주름을 잡으며 희끗희끗한 물갈기를 날리고 우―우―웅―하는 굉음같은 바람소리에 하늘땅이 진동했다. 모래바람이 얼굴을 후려쳤다. 순간에 그 무슨 불가항력적인 의지에 휘여잡힌듯 정신이 팽팽하게 긴장되면서도 얼떠름하게 흐려졌다.

박경섭은 백두산의 변화무쌍한 날씨에 대하여 많이 들어왔으며 한번 체험한적도 있어 더럭 겁이 났다. 빨리 내려가야 한다는 생각이 뇌리를 쳤지만 그 어떤 지향성있는 결심도 내릴수 없는 혼란과 마비상태에 빠져 마음만 조마조마해졌고 아우성치는 바람을 등지고 허리를 굽히면서 그이쪽만 바라보게 되였다. 그러나 흩날려가는 자욱한 안개가 앞을 가리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아아한 뫼부리들도 벼랑도 천지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어디로인가 격류를 이루어 흘러가는 안개바다가 모든것을 삼켜버렸다. 문득 자기 혼자 안개속에서 허우적이고있는듯한 고독감이 엄습해들었다.

도당비서가 뛰여왔다.

《위험합니다. 모시고 내려갑시다!》

그 순간 하늘이 허물어져내리고 산악들을 통채로 들었다놓는듯한 굉음이 터져오르며 시퍼런 불채찍이 눈을 후려쳤다. 앞이 캄캄해지고 귀가 멍멍해졌다. 칠흑같이 캄캄한 눈앞에서 노란 실연기가 그물거리는듯하는데 호위원들의 다급한 부르짖음소리가 모기소리만큼 가늘게 들려왔다.

《번개가… 여기선 발밑에서 번개가 쳐요.―》

《위험합니다. 쇠붙이를… 쇠붙이를 다 버리십시오.―》

박경섭은 온몸에 소름이 끼치고 식은땀이 내배였다. 그는 도당비서를 따라 **김정일**동지께로 정신없이 뛰여갔다. 호위원들도 뒤따랐다.

그이께서는 두손을 허리에 올리고 반석처럼 끄떡없이 서서 천지우에서 거창하게 사품치는 안개바다를 바라보고계시였다.

《내려갑시다. 번개가 위험합니다.》 하고 박경섭은 다급히 부르짖었다.

그이께서는 흔연한 얼굴로 돌아보며 미소를 지으시였다.

《번개말이요? 이자 그 번개는 장군봉결에서 쳤소. 괜찮소.》
이때 또다시 시퍼런 불길이 안개속을 누비며 폭음이 울리더니 저쪽에서 돌사태가 와르르 허물어져내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김정일동지께서 신이 나서 껄껄 웃으시였다.
《저건 달문쪽이요. 굉장하군… 백두산이 자기 위용을 시위하는거요. 우리가 벌써 내려가면 산이 섭섭해하지 않을가. 헛허허…》
그이의 호탕한 웃음소리에 박경섭은 가슴이 가라앉으며 불안감이 가셔지는듯했다. 호위원들도 빙그레 웃었다.
《저걸… 저걸 보라구!》 하고 그이께서 환성을 터치며 한손을 들어 천지우를 가리키시였다.
거기서는 거대한 안개기둥이 빙글빙글 돌아가며 하늘로 엇비스듬히 날아올랐다. 그 안개 기둥은 용을 쓰듯 구불구불 휘여져 꿈틀거리더니 갑자기 허리를 쭉 늘이며 아츠러운 회파람소리와 함께 아득한 하늘로 날아오르면서 어마어마한 회오리를 일으켜 온 안개바다를 빨아올렸다. 장군봉은 물론 천지둘레의 모든 산악들을 넘어 안개가 폭포처럼 쏟아져내려 사품치다가 어마어마한 회오리에 말려들어 빙빙 돌아가면서 그 안개기둥의 가늘어지는 꼬리를 물고 하늘로 날아올랐다. 무시무시한 회파람소리, 거창하게 굼닐며 돌아가는 안개바다, 모든것을 쓰러뜨릴듯이 불어치는 질풍… 온 누리가 빙글빙글 돌아가는듯하였다. 박경섭은 안개바람에 떠밀려 허우적거리다가 그이의 팔을 붙잡았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그의 손을 붙잡아주며 통쾌하게 웨치시였다.
《경섭동무, 왜 이럽니까? 취하지 않았소? 핫하하… 취할만도 하지. 얼마나 장관이요! 얼마나… 아, 얼마나 장엄한 기상인가!》
박경섭은 안개에 눅눅하게 젖은 얼굴을 훔치며 숨을 헉헉 들이긋고 호위원들은 정신없이 소리쳤다.
《야-》
《아-》
안개바람에 그이의 머리칼이 날리고 봄외투자락이 기폭처럼 나붓기였다. 얼마후 하늘 여기저기에 파란 구멍이 뚫리고 파도치는 천지의 물결우에 가녁이 터슬터슬하게 찢어진 하얀 안개쪼각들이

유유히 떠돌며 너울너울 춤을 추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번쩍이는 눈으로 하늘을 쳐다보시다가 주먹을 머리우에 높이 쳐들어 흔드시였다.

그러시고는 돌아서 장군봉쪽으로 성큼성큼 걸어올라가시였다.

그이의 봄외투자락이 안개바람에 날려 한옆으로 밀리며 새깃처럼 푸드덕이였다. 짙어졌다가 설피여지군하는 안개의 조화로 그이의 자태가 부옇게 흐려지는가 하면 뚜렷이 드러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반신이 안개의 흐름속에 아주 묻혀버리기도 하였다.

박경섭은 그이께서 주먹을 쳐들어 흔드신 그 의미를 도무지 알수 없었으나 그저 막연한 흥분으로 가슴을 울렁이며 부지런히 뒤따라 올라갔다.

문득 자기가 늘 애독했던 《백두산》의 한구절이 떠오르며 목이 메여올랐다.

너 백두야
조종의 산아 말하라！
오늘은 무엇을 보느냐？
오늘은 누구를 보느냐？

문득 얼굴에 산뜩산뜩한 촉감이 느껴졌다. 속눈섭에도 무엇인가 한없이 부드럽고 상쾌한것이 사뿐 내려앉는듯하며 눈앞이 부옇게 흐려지면서 어른거렸다.

박경섭은 손등으로 눈을 빗씻었다. 손등에 물기가 묻어났다. 내가 울고있는것인가… 눈앞에서 하얀 반점같은것들이 너울거리기 시작하였다.

놀라서 하늘을 쳐다본 그는 너무도 희한한 광경에 그만 입을 하벌리고 넋없이 굳어져버렸다. 꿈속에서처럼 어느새 파랗게 개인 하늘에는 해빛이 눈부신데 무엇인가 소담한 반점들이 은빛으로 반짝이며 수없이 날아내리고있었다. 눈송이들이였다. 순식간에 수만수억으로 불어난 그 눈송이들은 끝없는 공간에서 빙글빙글 돌기도 하고 서로 엇갈리기도 하고 쫓거니 쫓기거니 하며 소리없이

날아내리면서 한없이 상쾌한 기운과 그윽한 정서로 백두의 절경을 장식하는것이였다.

박경섭은 환희에 넘쳐 두손에 눈을 받아 얼굴에 마구 문지르다가 그이곁으로 뛰여갔다.

김정일동지께서도 한손을 앞으로 내밀어 눈을 받으시다가 기쁨에 겨운 얼굴로 그를 돌아보시였다.

《경섭동무, 어떻소, 어때？》

《이건 그냥 축하의 꽃보라같습니다.》

《백두산이 우리한테 베푸는 마지막 례절이요, 인사요！》

《정말 장관입니다.》

《얼마나 좋소. 나는 백두산에 오르면 언제나 새 기운이 북받치고 혁명을 하고싶은 의욕이 백배해지오！》

그이께서는 하늘을 그러안으시려는듯 두팔을 쳐드시였다.

《아, 얼마나 좋은가！ 얼마나！…》

그이의 눈에 물기가 떨었다. 그이의 머리며 봄외투어깨에 내려앉은 눈송이들이 이슬로 녹아 불꽃처럼 타오르는듯했다.

4

달빛이 부서지는 삼지연의 수면은 고즈넉한 정적속에 들려오는 발자욱소리에 귀기울이며 유유히 설레이는듯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모래자갈이 깔린 못가를 오르내리며 끝없는 사색에 잠기시였다.

(백두산… 아, 얼마나 아름답고 장엄한가. … 산줄기들도 저 백두산에서부터 시작된다. 백두산은 조국강산의 시작점… 우리 민족정신의 시발점, 그 기초가 아닌가. 백두산의 기상, 백두의 혁명정신이 우리 정신문화의 기초로, 골조로 된다면… 강철골조의 건축물처럼 어떤 바람이 불어쳐도 절대 흔들리지 않을것이다. 그렇기때문에 수령님께서 혁명전통을 고수발전시킬데 대하여 거듭 강조하

고계시지 않는가!

백두의 혁명정신… 항일선렬들의 사상과 감정은 어디에 간직되여있는가? 항일전쟁의 전설속에, 생존해계시는 투사들의 심장속에도 있지만 그것은 무엇보다도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창작된 문학예술작품들속에… 바로 그속에 그 사상감정의 전형화된 정수가 생생한 형상으로 고스란히 간직되여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정신문화의 크나큰 재부가 아닌가! 이 재부, 항일대전이 후세에 남긴 이 문학예술유산이야말로 우리 문학예술의 토양으로 되여야 하지 않는가. 이 토양에 뿌리를 깊이 박고 그 자양분을 고스란히 섭취하며 자라나야 우리 예술이 아름답고 억세게 꽃피여날수 있다. 이 토양이 바로 우리 문학예술이 뿌리박아야 할 전통이 아닌가!)

못가에 우중충하게 자라오른 숲이 쏴－하고 시원한 기운을 풍기며 설레였다.

(민족예술의 전통이 없으면 참된 예술이 있을수 없다.

어떤 민족의 경우에도 자기 예술의 전통을 무시한 예술류파들은 허파에 바람이 든 녀자들의 류행복처럼 일시적으로는 사람들을 현혹시키다가도 인차 외면과 배척을 당하여 하루살이운명을 면치 못한다. 그것은 민족의 기호와 인류공통의 본성에도 맞지 않기때문이다. … 우리 예술이 곡절과 파동을 겪는 근본원인은 다른데 있지 않다. 우리 문학예술이 자기 혁명전통을 똑바로 찾지 못했고 거기에 뿌리를 깊이 박지 못했기때문에 좀 바람이 불면 흔들렸다.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다.

예술이 꽃이라면 전통은 그 줄기이고 뿌리이다. 예술이 푸르싱싱한 숲이라면 전통은 그 숲이 뿌리박은 비옥한 토양이다. 예술이 아름다운 용모의 인간이라면 전통은 그 우수한 혈통이다. 예술이 생명세계라면 전통은 강력하게 계승되는 유전인자사슬이며 그 생명력의 무궁한 원천이다! …)

삼지연에 어린 별들은 숨을 죽이고 그이의 사색에 귀를 기울이는듯했다.

이튿날 평양으로 돌아오신 그이께서는 인민학교에서 대학까지의 국어문학교과서들과 예능부문의 모든 교재들을 친히 살펴보시였

다.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창작된 작품들이 체계적으로 소개된것은 없고 혁명가요 몇편이 편찬되였을뿐이였다. 문학예술부문 대학과 학부들의 교재에도 나은 점이 조금도 없었다. 몇해사이의 문예도서 출판목록을 보아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예술단체들의 공연목록에도 혁명가요 두세편이 올라있을뿐이였다. 어느날 그이께서는 혁명박물관을 찾으시였다. 박물관의 호실들에는 항일무장투쟁과 관련된 유물들은 시기별,부문별로 체계정연하게 전시되여있었으나 문학예술유산들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단지 어느 호실의 유리장속에 한 항일투사가 혁명가요들을 적어넣은 자그마한 수첩 한권이 댕그랗게 놓여있을뿐이였다.

이 현실을 통하여 그이께서는 우리 정신문화의 허약한 기초를 느끼실수 있었다.

(수령님께서 혁명전통계승에 대해 그토록 강조하시였고 그래서 획기적인 조치들이 수없이 취해졌는데 왜 예술전통에 대해서만 이토록 소홀히 해왔는가. 이 부문 일군들과 학자들은 도대체 무엇을 했단말인가.)

그이께서는 여러날에 걸쳐 평양시내에 있는 항일투사들의 집을 친히 찾아다니며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창작공연된 문예작품들을 깊이 료해하시였는데 그 까닭을 아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다.

며칠후 **김정일**동지께서 타신 승용차는 조차장다리를 지나 촬영소쪽을 향해 바람속을 달리였다. 차안은 아늑하였다.

운전사곁에 앉아있는 박경섭은 뒤좌석에 앉아 내내 말씀이 없는 그이의 사색을 중단시킬가봐 차앞으로 날아드는 길만 하염없이 내다보고있었다.

그이께서 문득 말씀을 건네시였다.

《오늘은 서부상을 데리고 나가자고 했는데… 의견도 나눌겸…》

《그래서 전화로 알아보니 대극장에 나갔다고 했습니다.》

《대극장에?》

《예… 이번 백두밀림의 사적지들을 돌아보고오신데서 큰 충격을 받은것 같습니다. 사흘전에 저를 찾아와서 자기는 혜산에 있으면서 백두밀림의 바람피해에 대한 소식을 듣고도 청봉에 가볼 생

각조차 못했다고 몹시 괴로와했습니다.》

《부상동무가 그랬소?》

《예… 이번 사실에서 자기 과오의 깊은 원인을 깨달았노라고 했습니다.》

《그랬소?》 하고 **김정일**동지께서는 저으기 기뻐하시였다.

《예…》

《일시적으로 과오는 범했지만 아주 량심적인 사람이요. 마음이 곧고 깨끗한 사람이요. 그런 사람은 자기를 고쳐나갈수 있소.》

《요즘 대극장에 나가 창작가들과 함께 밤을 패면서 창조사업을 지도하고있답니다.》

《뉘우치고 분발하는건 좋은데 너무 무리하지는 말라고 이르오. 성미가 유한 그런 사람들이 한번 욱하면 무섭소. 자기는 물론 남들도 돌보지 않을수 있소.》

얼마후 승용차는 축축하게 젖은 포도우에 바퀴자리를 내며 정문을 지나 촬영소마당으로 조용히 미끄러져들어갔다.

촬영소안에서는 긴장된 창조생활이 흐르고있는것 같았다. 마당 여기저기에서는 필림통이며 촬영기재,의상 같은것을 안고 든 사람들이 빠른 걸음으로 오고갔으며 배우단건물앞에 세워놓은 중형뻐스에 어디로 현지촬영 떠나는지 십여명의 예술인들이 서둘러 올라타고있었다.

행정부서들이 자리잡은 낡은 2층건물현관에서 순사복차림의 사람과 람루한 로동복차림의 청년이 걸어나왔다. 그들사이에 무슨 소리가 오갔는지 순사가 칼을 빼들자 로동청년이 비호처럼 달려들어 《놈》의 칼쥔 손목을 덥석 잡아 비틀었다.

운전사곁에 앉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촬영소에 들어오던 박경섭은 차창으로 비쳐드는 그런 광경에 당황해져 이마에 식은땀이 내배는듯하였다. 그이께 망측한짓을 보여드리는것 같아서였다.

뒤좌석의 **김정일**동지께서도 그들을 내다보시였는지 웃음어린 음성으로 물으시였다.

《저기서는 연기훈련을 합니까?》

《그저 장난질인것 같습니다. 배우들이 아니고 찬조출연에 동

원된 동무들입니다.》

차가 서서히 멎었다.

순사복을 입은 사람과 로동복차림의 청년은 차에서 내리시는 **김정일**동지를 알아보고 그자리에 얼어붙었다. 그이께서는 밝게 웃으시며 두사람앞으로 다가가시였다. 두사람은 허리를 굽혀 그이께 인사를 드렸다.

《수고합니다.》

그들은 못된 장난질을 하다가 들켜난 소년들처럼 벌개진 얼굴에 어색한 미소를 띠였다.

박경섭은 그제야 순사로 분장한 강철룡이를 알아보았다.

《아니, 연출실에서도 찬조출연에 동원되오?》

《인원이 모자라서…》

《최승진연출가는 지금 무얼하오?》

《기자들을 위한 시사회가 있어 중앙영화보급사에 나간다고 했습니다.》

《연출가동무한테 떠나는걸 중지하고 총장실에 오라고 하오.》

강철룡의 눈에 대뜸 긴장한 빛이 어리였다.

9시가 되여오자 넓다란 총장실은 촬영소의 간부들과 예술인들로 가득찼다. 그들은 벽에 붙여놓은 안락의자들에 빼곡이 들어앉고도 자리가 모자라 나무의자들을 두줄로 놓고 거기에 앉았다.

주영도비서가 출입문곁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맞아 어디에 가앉으라고 자리를 정해주었다. 사람들은 총장곁에 앉아계시는 **김정일**동지를 첫눈에 알아보고 순간에 얼굴빛이 엄숙해져 그이께 인사를 드린다음 허리를 구부정하고 조심조심 자기자리로 찾아갔다.

최승진은 좀 뒤늦게 왔다. 그는 주영도가 가리켜준 응접탁둘레에 빈자리가 없는것을 인차 눈치채고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듯 구석쪽으로 들어가 장치직장장곁에 걸터앉았다. 그는 작품이 실패한 다음부터는 이런 모임같은데서 앞에 나앉기를 저어했던것이다.

응접탁둘레에는 부총장들과 오랜 예술인들이 앉아있었는데 예술부총장 다음에 앉아있는 로영무가 목을 길게 빼들고 굳이 뒤구석

으로 가 사람들속에 묻혀버린 그를 돌아보고는 자기 옆자리에 앉은 한기석을 흘깃 훔쳐보았다.

한기석은 그 눈길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것 같았다. 그는 의젓하게 앉아있었는데 누군가의 부주의로 응접탁우에 떨어진 종이오리같은것을 얼른 집어 호주머니속에 감추어버렸다.

최승진은 아침일찍 **김정일**동지께서 나오시였고 또 이런 모임까지 조직된 까닭을 짐작조차 할수 없어 긴장되여 앉아있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흔연한 안색으로 총장과 촬영소의 겨울난방형편에 대하여 조용조용 이야기를 나누고계시였다.

방안에 깃든 정숙때문에 나누시는 이야기가 구석쪽에까지 들려왔다.

《그러니 주로 개천탄을 받아서 때겠습니다.》

《예… 그런데 어떤 때는 잘 보장되지 못합니다.》

《탄이 떨어집니까？》

《예… 자동차가 걸려 제때에 나가지 못하면 우리 몫이 벌써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열탄을 빡빡 긁어오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자동차로 석탄을 여기까지 실어들이는것도 헐한 역사는 아니겠습니다.》

갑자기 힘찬 목소리가 방안에 울렸다.

《삼신탄을 받으면 더 헐합니다！》

응접탁곁에서 한기석이 일어선것이였다. 그는 총명하게 빛나는 눈으로 **김정일**동지쪽을 바라보며 말씀드렸다.

《삼신탄은 열량도 많고 또 운반문제도 쉽게 풀수 있습니다. 역으로 석탄을 실어나르는 탄광차를 우리한테로 돌리면 됩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총장과의 이야기에 뛰여든 총명하고 세련미가 있어보이는 청년을 주의깊이 여겨보시였다.

《동무는 누구입니까？》

《연출실에 있습니다. 부연출 한기석입니다.》

총장이 그이의 귀에 대고 무엇이라고 속삭이였다.

그이께서는 머리를 무겁게 끄덕이시였다.

《한기석동무, 석탄문제는 그렇구… 동문 아버지같은 예술가가 될수 있겠습니까?》

《예… 꼭 되겠습니다!》

《동무는 아버지 뒤를 잇기 위해서도 누구보다 더 공부하고 더 노력해야 합니다.》

그는 가슴벅찬 흥분에 목이 멘듯 더 대답을 못하고 머리를 숙였다. 몹시 상혈되여 귀까지 벌겋게 되였다.

그이께서는 한기석이 앉자 좌중을 둘러보며 부드럽게 물으시였다.

《강철룡동무라고 누구입니까?》

출입문곁의 뒤좌석에서 강철룡이 엉거주춤 일어섰다. 그는 자기를 찾으시는것이 너무나 뜻밖이여서 얼떠름해진 얼굴이였다.

그이께서는 아까 뜨락에서 만난것을 상기하신듯 웃음어린 안색으로 말씀하시였다.

《아, 동무였군. … 지금 몇살입니까?》

《28살입니다.》

그이께서는 다정한 눈길로 그를 여겨보시며 언제 촬영소에 들어왔고 어떤 영화창작에 참가했는가 알아보시였다.

《결혼은 했습니까?》

철룡은 대뜸 얼굴이 벌개져 손으로 뒤더수기를 쓸어만졌다. 뒤구석쪽에서 누구들인가 귀속말로 수군거리며 키득거렸다.

《강철학…》

《강고민…》

《나이도 젊은데 공부를 많이 하십시오! 좋습니다. 앉으십시오.》

강철룡은 어정쩡해서 자리에 앉았다.

이윽고 **김정일**동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기 시작하였다.

《우리 영화예술의 실태를 놓고 좀 흉금을 터놓고 이야기도 하고 의논도 하고싶어 동무들을 모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수첩을 펼치는 소리와 마른기침소리가 울렸다. 최

승진도 수첩을 펼쳐 무릎우에 놓았다.

《얼마전까지 이 촬영소는 오작을 내여 심각한 진통을 겪었습니다. 우리 영화예술이 걸어온 길을 돌이켜보면 이런 심각한 곡절과 파동을 겪은 일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로영무동무나 최승진동무를 비롯한 오랜 예술인들은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모두 얼마나 번민했고 안타까움에 모대기였습니까.》

김정일동지께서는 영화예술이 겪어온 곡절과 파동에 대하여 실례를 들어가며 말씀하시였다.

최승진은 그이께서 자기가 겪은 시련과 번민의 모대김에 대하여 말씀하시는것 같아 가슴이 저려들었다.

깊은 사색이 스며있는 음성이 방안공기를 조용히 흔들고있었다.

《이렇게 된 근본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나는 우리 영화예술이, 문학예술전반이 우리 문학예술의 혁명전통에 뿌리를 깊이 박고 발전하지 못한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승진은 그 어떤 설음같은것이 북받치며 가슴이 울렁거리였다. 그는 웬일인지 옆에 앉은 사람들의 얼굴을 둘러보게 되였다.

모두 그이의 말씀을 정신없이 받아쓰고있었다.

창문으로 흘러드는 해빛에 수첩들우로 달리는 만년필꼭지며 촉들이 불꽃을 날리는듯 반짝거리였다.

그도 받아썼다. 손이 떨려 글이 되지 않았다.

(이건 처음 듣는 말이다. 영화가 잘못되면 작가를 비난하고 연출가를 두들겨댔지만 이때까지 문학예술을 지도한 사람치고 이렇게 분석한 사람은 단 한사람도 없었다.… 없었다.…)

눈앞이 흐려졌다. 눈을 슴벅이였다.

그는 정신을 차려 그이의 말씀을 여겨들었다.

《…근본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갑자기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다. 총장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받아쓰던것을 멈추고 그이를 쳐다보았다. 로영무는 한손으로 이마를 싸쥐고는 바위돌로 굳어진듯 까딱 움직이지 않았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예지에 번쩍이는 눈으로 좌중을 둘러보시였다.

《뿌리가 허약한 나무는 좀 모진 바람만 불어도 넘어지고맙니다. … 우리 문학예술이 혁명전통에 뿌리를 깊이 박지 않으면 앞으로도 또 이번과 같은 오작을 낼수 있고 영화예술, 예술운동 전반이 심각한 곡절과 파동을 계속 겪을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학예술이 뿌리를 박아야 할 전통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창조된 문학예술유산속에 있습니다.》

방안공기가 술렁거렸다.

《수령님께서 령도하신 항일혁명투쟁은 우리 후대들에게 귀중하고 풍부한 문화유산을 남겨놓았습니다. 극작품만 꼽아보아도 〈혈분만국회〉,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 〈피바다〉, 〈꽃파는 처녀〉, 〈한 자위단원의 운명〉, 〈경축대회〉, 〈성황당〉, 〈딸에게서 온 편지〉, 〈3인1당〉 등… 그리고 수많은 혁명가요들이 있습니다.

동무들, 이것은 한 세계적인 문화국이 일정한 력사적시기에 가질수 있는 명작들의 수량에 비해 많으면 많았지 결코 적은것이 아닙니다. 이 유산은 력사상 애국애족의 정신이 최고의 높이에서 발양되였던 항일혁명투쟁이 우리에게 넘겨준 거대한 정신적재부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인민의 민족애와 애국심과 혁명성, 계급적원쑤와 제국주의자들에 대한 불타는 증오심, 최후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 곤난극복의 투지와 혁명적락관주의정신이 고스란히 간직되여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민족고유의 아름다운 도덕과 풍습… 아득한 옛날로부터 맥맥히 뻗어내려오며 정신문화의 혈통을 이룬 우리 민족의 슬기와 용맹, 진취성, 외유내강한 그 모든 정신적기질들이 생생한 형상으로 살아 숨쉬고있습니다. 참으로 이 거창한 유산속에는 깨끗하고 아름답고 고상한 조선의 넋이 차고넘쳐 바다처럼 설레이고있는것입니다.》

최승진은 숨을 죽이고 듣고있었다. 방안은 고요했다. 종이우로 펜촉이 달리는 소리만 들려왔다.

《이 유산속에 담겨져있는 깨끗하고 아름답고 고상한 넋이 우리 예술인들의 심혼속에 줄기차게 흘러든다면 낡은 사상감정의 어지러운 얼룩들을 깨끗이 씻어낼것이고 우리 예술인들은 가장

혁명적인 예술인으로 변모될것입니다. 이 유산속에 담겨져있는 그 열화같은 넋이 우리 문학예술작품들에 충만된다면 우리 예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상하고 혁명적인 예술로 될것입니다. 이 자랑스러운 유산은 우리 문학예술이 뿌리를 박아야 하는 비옥한 토양입니다!》

최승진은 가슴이 환희에 벅차오르기도 하고 죄책감에 움츠러들기도 하였다.

(우리는 자기 토양을… 자기 향토를 등지고 어디로 방황했단 말인가. …)

누구인가 앞에서 한숨을 내쉬였다.

《지난 시기 당 선전부문과 문학예술부문에 잠입했던 반당종파분자들의 책동으로 이 유산들이 그냥 묻혀있었고 문학예술의 혈통이 끊어져있었다는것을 생각하면 통분함을 금할수 없습니다.》

그이께서는 우선 그 유산을 발굴정리하는 사업을 시급히 시작하여야 한다고 하시며 력사학자들과 문화사가들, 창작가들이 적극 동원되여야 능률적으로 이 사업을 할수 있다고 하시였다. 그리고 발굴정리된 유산들을 영화와 연극, 소설을 비롯한 문학예술의 여러 형식으로 옮겨 예술인들은 물론 인민들속에 널리 보급해야 한다고 하시였다.

《우리가 주체시대의 요구에 맞는 문학예술을 건설하자면 반드시 문학예술혁명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러자면 우선 문학예술작품들의 내용이 주체의 혁명관과 인생관으로 충만되게 하여야 합니다. 문학예술혁명은 그 내용뿐아니라 형식과 창조체계, 창조방법의 모든 령역에서 낡은것을 뒤집어엎고 새로운 주체의 문학예술을 건설하기 위한 사상문화분야에서의 심각한 계급투쟁입니다. 현시기 문학예술혁명에서 힘을 집중하여야 할 기본대상은 영화예술입니다. 그것은 영화예술이야말로 혁명과 건설의 강력한 사상적무기이기때문입니다. … 영화예술에 화력을 집중하여 돌파구를 열고 그 성과를 확대하는 방법으로 문학예술전반을 혁명화해나가는것은 앞으로 우리가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기본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무들도 아다싶이 우리는 아직도 혁명적인 본보기

작품을 가지고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피바다〉, 〈한 자위단원의 운명〉, 〈꽃파는 처녀〉와 같은 작품들을 우선 영화로 형상하고 그것을 본보기로 하여 영화예술전반을 혁명화해나가야 하겠습니다.

동무들, 그러면 우리 영화예술은 어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을것이며 세계에서 가장 혁명적인것으로 될것입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잠시 말씀을 끊고 심각한 안색으로 좌중을 둘러보시였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어려운 과업입니다. 앞에 난관이 많을것입니다. 우선 이 과제의 담당수행자들인 예술인들이 그 명작들의 높은 사상예술세계를 자기것으로 받아들여 소화하고 능숙하게 형상할수 있도록 준비되여야 합니다. 그러자면 예술인들의 정신도덕적풍모가 혁명가들처럼 되여야 합니다. 나는 이 일이 제일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이께서는 예술창조사업과정을 통하여 작가, 예술인들을 혁명화하는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가르치시면서 예술인들이 혁명적인 작품의 주인공들처럼 사고하고 행동하며 조직생활을 강화하고 사업과 생활과 학습을 모두 항일유격대식으로 개편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 말씀을 끝마치고 앉으려고 하실 때 방안이 떠나갈듯 박수소리가 터져올랐다.

최승진은 격정에 목이 메고 귀안이 웅—웅— 울었다. 박수소리들이 소나기가 쏟아지는 소리처럼, 바위기슭을 들부시는 파도소리처럼 들렸다. 그는 박수도 치지 못하고 엉거주춤 일어서서 그만하라고 손짓하며 환하게 웃고계시는 **김정일**동지만을 내다보았다.

이때 뜻밖의 일이 생겼다.

출입문이 벌컥 열리며 이마가 훤하게 벗어진 사람이 안경알을 번뜩이며 뛰여들어왔다. 서영림부상이였다. 한손에 수첩을 쥔 그는 열에 뜬 얼굴로 황황히 걸어나가 **김정일**동지께 인사를 드리였다.

그이께서는 서부상의 손을 잡아주시며 반겨 물으시였다.

《아니, 언제 왔습니까?》

《좀 늦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은 처음부터 들었습니다.》

그는 말씀도중에 들어올수 없어 문밖에 의자를 놓고앉아 죄다 받아쓰기까지 했다고 말씀드렸다.

서부상의 흥분된 목소리가 방안에 울렸다.

《우리 예술은 구원되였습니다. 우리 예술앞에는 넓은 진로가 열렸습니다！》

그리고는 안경을 벗으며 고개를 숙이였다.

또다시 폭풍같은 박수소리가 터져올랐다. 최승진은 로영무를 내다보았다. 그는 두손을 머리우에 높이 쳐들어 기운껏 박수를 쳤는데 어깨며 잔등까지도 격정의 파도에 실려 춤추는듯했다. 그뒤에선 몇몇 사람은 박수를 치면서 발돋움하여 그이쪽을 내다보았다.

최승진은 이제 앞에 있을 놀라운 변혁을 예감하며 자기자신도 그이의 뜻에 이끌려 완전히 새로운 창조의 길에 나서게 되였다는 아름찬 감격에 휩싸여 목이 메여올랐다.

5

아직은 누구도 만나보고싶지 않았다. 누구하고도 말하고싶지 않았다. 불에 덴듯 가슴이 얼얼했다. 이때까지 불편없이 지내온 사무실이 벽으로 둘러싸이고 천반으로 짓눌린 정립방체의 폐쇄된 공간처럼 느껴졌다. 사무실에서 집으로 들어간다는것은 정립방체의 한공간에서 다른 공간에로의 위치이동으로밖에 여겨지지 않았다. 자기 생활이 있고 안해가 있는 그 립방체의 공간이 갑자기 틀에 박힌 도식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로영무는 퇴근길에서 벗어나 부근농촌의 눈에 덮인 들판을 발이 가는대로 걷다가 어느 탈곡장의 짚검불더미에 벌렁 드러눕게 되였다. 시크무레하고 향긋한 짚냄새가 코를 찔렀다.

하늘에는 희부연 은하수가 가로비꼈고 별들이 한벌 깔려 유난스레 반짝이고있었다.

(이것은 확실히 발견이다. 보통발견이 아니다. 위대라는 말을

붙일만한 그런 발견이다. 우리 영화예술의 거듭되는 실패를 두고 우리들중 어느 누가 전통과 결부시켜 생각했던가. 어느 누가… 어느 창작가… 어느 지도일군이… 뿌리가 약한 나무는 바람에 쓰러지기 쉽다. 얼마나 많은 뜻을 암시하는 말씀인가. 진리란 발견해놓고 보면 이렇게 간단한것인가. …)

로영무는 번듯이 누운채로 찬공기를 한껏 들이켰다가 후 내뿜었다.

그는 오늘 그이의 말씀을 들으며 많은것이 생략된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것은 응당한 지적, 응당한 비판, 응당한 규탄이 없었기때문인지도 모른다. 말씀 없이 생략된 그 무언의 공간을 찾아 더듬어나가니 가슴이 은근히 저려들었다.

(아,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가. 나는 오늘 그이께서 꼽아나가시는 작품들중에서 《피바다》와 《혈분만국회》밖에 알지 못했다. 나머지 작품들은 전혀 처음 듣는것들이였다. 쉑스피어나 체호브의 작품들은 하찮은것까지 다 알고있으면서도 제 나라, 제 민족의 유산은 이름조차 모르고있었으니 내가 과연 국적이나 있는 예술가인가. 그래도 버젓이 조선예술가라고 얼굴을 쳐들고 다녔다. 이런 문외한, 이런 철면피한이 어디 있는가.

… 이제라도 내가 창작한 모든 작품들을 검토해봐야 한다. 이전의 값눅은 찬사에서 위안을 얻지 말고 무자비하게 수술해봐야 한다. 내 작품의 혈액형은 과연 어떤것이였는가. 거기에 우리 인민들의 혁명성은 어느 정도로 어떻게 형상되였는가. 순수한 조선적인 아름다운 정서와 풍습, 세태생활은 어떻게 반영되였는가. 인물들의 성격, 구성과 속도, 작품의 시작과 결말은 조선적인것이였는가. 수치스럽게도 남을 모방한것은 없었는가. … 아, 나이 50이 지나 이런 반성을 하게 되였으니 통탄할 일이다. …)

뒤쪽에서 발자욱소리가 저벅저벅 났다. 서로 가로채며 열정적으로 내뿜는 남자와 녀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몸을 일으켜 뒤쪽을 돌아보니 두 그림자가 이쪽으로 나란히 걸어오는것이 바라보였다. 그것이 강철룡이와 장미혜라는것을 알아본 순간 로영무는 일어설가 하다가 도로 눕고말았다.

(저들이 어떻게 여기로 나왔는가?)

《정말 뜻밖이였어. 나를 찾으실줄이야 어떻게 알았겠소. 꿈만 같아.》

《공부를 많이 하라고까지 하셨는데 어째 훌륭한 예술가가 되겠다고 기운차게 대답올리지 못했어요.》

《그렇게 안되더라니까. 목이 꽉 메면서… 참 이상해. 어떻게 내 이름을… 나같은 병사를 찾으셨는지…》

《난 알아요. … 알아요.》

《나도 모르겠는데 동무가 어떻게 알아?》

《리치를 따져봐요. 승진연출가네 집에 모여 〈광풍〉을 잔뜩 춰올릴 때 거기서 의견을 말한게 혼자뿐이였다면서요?》

《의견은 무슨 의견… 한마디 하다가 말았는데…》

《한마디라도 그건 정의감의 불꽃이였거든요. 그 사실을 누구를 통하여 아시게 되였는지 알아요? 그리고 그 불꽃이 귀중해서 이름을 기억해두셨는지도 모르지요.》

《그럴가? 아니… 아니…》

《틀림없어요. 결혼문제까지 물어보신걸 봐요. 얼마나 관심이 깊으시면…》

《미혜, 자꾸 이러지 말라구. 심장이 터지는것 같아.》

《터지면 뭐라나요. 이런 좋은날에야…》

그들은 짚검불더미 바로 뒤에까지 와서 멎어섰다.

《미혜!》

《…》

《미혜!》

《왜 그래요?》

《모두 우리 영화에 대통운이 들었다고 했어.》

《분발하세요. … 그이께서 와계시는동안 우리 분장실에서는 어쨌는지 알아요. 모두 숨을 죽이고 앉아있었어요. 볼일이 있어 자리를 떠도 조용조용 걸어다니고요. 그이의 음성이 우리 구석진 분장실에까지 들려오는것 같아서…》

《미혜…》

《…》

《미혜…》

《왜 그래요?》

거칠어지는 숨소리…

로영무는 자기 나이와 지체로써 젊은이들의 속삭임에 호기심을 품고 엿듣는다는것이 속된짓인것 같아 손으로 귀까지 막지는 않았지만 듣지 않으려고 애썼다.

(저 녀석이 뜨김에 처녀를 안고 여기에 엎어져 딩굴면 어찌는가. …)

잔등에 식은땀이 내배는듯하였다.

발치에서 바스락소리가 나더니 무엇인가 신발바닥이며 뒤축을 톡톡 건드렸다. 쥐새끼가 틀림없었다.

(고약한놈, 숨도 쉬지 않고있으니까 아주 송장이 된줄로 아는게로구나. 좀더 가만있으면 발가락을 갉아먹자구 접어들텐데… 어, 수난자여, 참을수밖에…)

《그날 내가 떠난다음 형님이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니…》

《뭐라고 했지요?》

《아니… 뭐라긴…》

젊은이들은 돌아서는것 같았다.

《우리 형님을 만나보니 인상이 어떻소?》

《인상?… 좋더군요. 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그렇게 높은 간부의 환대를 받아보긴 난생처음이예요. 군복을 입으면 중장쯤으로 보이겠더군요.》

《중장? 하하…》

《철룡동무, 그런데 어째 어머니가 촬영소에서 나온데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커요? 두번이나 캐여물으니까 좀 별난 생각이 들더군요.》

《그랬던가. 그래서 불쾌했소?》

《아니, 그저 좀.》

《섭섭해서 그랬겠지. 나도 참 섭섭하오. 오늘은 더욱 그래. 이

런 때 그냥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소.》

《정말 그래요. 영화를 하느라고 한평생 고생하다가 앞길이 열리니까… 며칠을 못참아서…》

《왜 떠나갔소?… 왜 그랬소?》

《…몰라요.》

발자국소리가 멀어져가자 로영무는 짚검불더미에서 일어나 뒤잔등에 붙은 짚검불을 툭툭 털었다.

가지런히 걸어가는 처녀총각의 그림자가 어둠속으로 어른거리며 녹아들어가고있었다. 그들이 걸어가는쪽 저 멀리 촬영소와 주택지구에 불빛이 환했다.

6

이튿날부터 촬영소의 사업과 생활에서 놀라운 전변이 일어났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예술영화 《유격대의 오형제》를 비롯한 혁명전통주제의 작품들을 지도하시면서 영화혁명을 위한 전반적인 준비사업을 령도하시는 한편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작된 극작품들을 영화로 각색하는 거창한 사업을 이끌어주시였던것이다. 그리하여 《피바다》, 《한 자위단원의 운명》 등이 제일 먼저 영화문학으로 옮겨졌으며 연출가들이 앞을 다투어 그 작품들을 맡아나섰다.

《피바다》를 맡은 젊고 재능있는 연출가는 그이의 지도에 고무되여 인차 연출대본을 끝내고 벌써 촬영에 진입하였다. 그러나 최승진은 작품을 선뜻 골라잡지 못하고 이것저것 연구만 하였다. 전번의 실패때문에 매우 심사숙고하는것 같았다.

로영무는 어느 한 작품을 맡지 않고 작품을 담당한 연출가들을 돕게 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자주 촬영소로 나와 형상창조과정을 친히 지도하시였으며 항일혁명투쟁시기 연예활동에 참가했던 녀성투사들

과 작가,예술인들의 좌담회를 여러번 마련하여주시였다.

녀성투사들은 작품들의 줄거리를 실감있게 들려주었을뿐아니라 극적인 장면들에서는 주인공과 방계인물들의 연기까지 생동하게 재현해서 보여주었으며 무대에서 부르던 노래와 선동연설까지 들려주었다. 로혁명가들의 청춘시절을 상상시켜주는 그 노래와 선동연설들은 시대의 절절한 호소처럼 예술인들의 가슴을 울리였다. 그 노래와 연기들은 록화기와 록음기에 수록되였다.

로영무는 박경섭에게 떠밀려 늘 **김정일**동지 가까이에 서서 그이의 말씀을 듣게 되였다.

그이의 말씀은 언제나 담담한 의사표시만이 아니였다. 지향이 뚜렷한 열정의 분출이였으며 달성하려는 목표에로 심장들을 떠미는 강렬한 호소였다. 그러면서도 대언장어의 과장이나 미사려구의 치레가 없고 여러번 추고된 문장처럼 표현들이 정확하고 세련되였는가 하면 소박하고 솔직한 심정 토로로 하여 가슴에 차분히 젖어드는것이였다.

그이의 말씀은 부드럽기만 하지 않았다. 날카로운데도 있었다. 결함을 지적하실 때에는 에돌지 않고 단호하고 단도직입적으로 그 본질을 찌르는것이였다.

그이의 말씀은 해박한 지식으로 충만되여있었다. 그러면서도 지식이 그대로 생경하게 드러나지 않고 누구나 알기 헐하게 쉬운 말로 풀이되는것이였다.

로영무는 가까이에서 그이의 말씀을 듣고나면 언제나 눈앞이 환히 열리고 가슴이 넓어지고 마음이 순결하게 정제된듯한 기쁨을 느꼈다. 그러나 그것이 진리의 감화력때문이라는데 대하여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다.

그는 **김정일**동지의 말씀들에서 새로운 미학적개념들과 독창적인 견해들을 자주 듣게 되였는데 어떤 때에는 얼떠름해져 의혹에 찬 눈길로 그이를 지켜보았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그런 눈치를 민감하게 포착하고 매번 설명을 보태여주시군하였다.

로영무는 수첩을 따로 장만하여 날자별로 그이의 새로운 말씀들을 적어나갔다.

×월 ×일

수천수만년후에는 문학예술이 없어지겠는가? 아니다. 인간이 정신생활을 하는 한 존재하며 발전한다. 인간이 자연과 사회의 구속에서 멀리 벗어나 의식주에 대한 걱정이 없어지면 정신생활이 더욱 풍부해져 문학예술에 대한 요구는 더 높아지게 된다.

×월 ×일

문학은 인간학이다. 산 인간을 그리며 인간에게 복무한다는데 문학의 본성이 있다.

×월 ×일

작품에는 사상적알맹이,핵이 똑바로 박혀있어야 한다. 과학론문의 경우도 같다. 맑스도 그의 경제학설의 핵인 잉여가치법칙을 발견한 다음에야 비로소 그것을 핵으로 하여 《자본론》을 쓸수 있었다.

종자란 작품의 핵으로서 작가가 말하려는 기본문제가 있고 형상이 뿌리내릴 바탕이 있는 생활의 사상적알맹이이다.

작가는 종자를 똑똑히 골라잡고 깊이 파악한 기초우에서 주제를 구체적으로 세워놓아야 한다. 주제는 종자에 의하여 규정되고 제약된다.

×월 ×일

문학예술이 사람들의 혁명교양에 이바지하려면 사람들의 혁명적세계관이 형성되는 과정을 잘 그려야 한다.

그 과정은 크게 세단계로 나눌수 있다.

1단계는 착취계급과 착취사회의 본질을 인식하는 단계,2단계는 투쟁의 각오를 가지게 되는 단계,3단계는 혁명가로서의 고상한 사상정신적풍모를 갖추는 단계이다.

×월 ×일

부피가 크다고 대작인가,규모는 작아도 사상적내용이 깊고 풍

부하면 얼마든지 대작으로 될수 있다.

형상의 집중화, 이것은 내용을 대작으로 만드는데서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월 ×일

생활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그리는가? 이것은 사실주의와 반사실주의, 혁명적문학예술과 반혁명적문학예술을 갈라놓는 분기점이다.

우리가 묘사대상으로 삼는 생활이란 자연을 정복하고 사회를 개조하는 사람들의 창조적활동이며 투쟁이다.

×월 ×일

구성은 종자에 기초하여 생활의 진실에 맞게 세워야 한다. 영화의 구성은 단순히 사건조직으로 되여서는 안된다. 감정조직으로 되여야 한다. 사건조직과 감정조직을 일치시키라!

×월 ×일

영화의 매 장면에는 극이 있어야 한다. 극이 생활에서 대립과 투쟁의 반영이라고 하면 장면은 그 투쟁과정의 작은 부분이다. 장면에서는 저마다 자기 과제를 해결하려는 대립되는 인물들이 나타나야 하며 그들의 극적관계가 맺어지고 극발전의 요소들이 쉬임없이 싹트게 되여야 한다.

×월 ×일

독창성은 창작의 본성이다.

예술은 언제나 다양하고 독창적이여야 한다!

×월 ×일

틀은 금물이다!

100명의 작가가 작품을 쓰면 100가지 작품이 나와야 한다.

우리에게 필요한것은 한틀에 찍어낸것과 같은 판박이 작품이 아

니라 다양하고 특색있는 작품이다.

×월 ×일

연출가는 창작단의 사령관이다. 그는 예술창조사업과 제작조직사업, 사상교양사업을 다같이 틀어쥐고 창작단의 모든 성원들을 영화창작에로 이끌어가는 사령관이다.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는 우리 식의 연출체계를 세워야 한다.

…

직승기는 백두밀림의 상공을 날고있었다. 《피바다》의 촬영현장을 찾아…

김정일동지께서는 곁에 앉아있는 로영무에게 열정적으로 말씀하시였다.

《한사발도 안되는 범벅을 놓고 벌어지는 생활을 통해서 어머니와 원남이, 갑순의 호상관계, 그들의 구체적인 사상감정을 생동하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원남이는 몇덩이 되지 않는 범벅을 게눈감추듯 먹어치우고는 누이동생의 그릇을 넘겨다보며 〈벌써 다 먹었구나.〉 하며 서운해합니다. 철이 없으니까요… 갑순이는 언제나 자기들때문에 헐벗고 굶주려오는 어머니를 생각하여 한개만 먹고 나머지는 당반에 얹어두었다가 자리에 누운 어머니에게 줍니다. 어머니의 가슴에는 자식들을 한번 배불리 먹이지조차 못하는 애달픔과 울분이 차넘칩니다. 이렇게 이 장면을 잘 형상해야 합니다. 생활속에 투쟁이 있고 투쟁속에 생활이 있습니다.》

기창으로 굽어보니 아득한 밑에서는 천리수해의 백두밀림을 가로 째고 곧게 뻗은 《갑무경비도로》가 흘러가고있었다. 그것은 장군님께서 조국으로 진출한 조선인민혁명군부대들을 《일행천리》 전술로 이끌기 위하여 개척하신 진군로였다.

문득 뜨거운 생각이 로영무의 가슴을 쳤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지금 인류예술사상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새로운 미학적 개념들과 범주들과 독창적인 해석들로써 우리 예술이 나갈 진군로를 개척

해주시는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일행천리》로 내달리는것이 아닌가. …

기창으로 아래쪽을 내려다보시던 그이께서 문득 로영무를 돌아보시였다.

《최승진동무는 뭘하고있습니까?》

《그냥 방구석에 배겨 작품들만 뒤적거리고있는데 곁에서 보기 참 딱합니다. 남은 벌써 두번째 작품에 착수했는데…》

《어느 작품을 말고싶다든지… 그런 의향은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소리 한마디 없습니다. 성미가 불같은 사람이 어떻게 된 노릇인지…》

《그럴수 있습니다. 전번에 얼마나 큰 타격을 받았습니까. 예술가가 성장하는 과정에 그런 침묵기도 있을수 있습니다. 그를 자극하지 마십시오. 충분히 생각하도록… 마음에 꼭 맞는 작품을 골라잡고 한껏 구상을 무르익히도록… 절대 건드리지 마십시오.》

직승기는 삼지연에 내렸다. 그이께서는 로영무와 함께 승용차로 《피바다》의 촬영현장인 신파쪽으로 곧 떠나시였다.

승용차가 신파읍이 지척인 나지막한 고개마루에 오르니 저밑의 옴폭하게 후미진 골안에 널려있는 옛날 화전민들의 산전막같은것들이며 그앞에 하얗게 몰켜선 사람들이 굽어보였다. 그들속에서 무엇인가가 번쩍번쩍 해빛을 반사하였다. 조명용 반사판인것 같았다.

승용차가 먼지구름을 일으키며 골안에 들어서자 람루한 옷차림의 《화전민》들이 환성을 터뜨리며 달려왔다.

차에서 내린 **김정일**동지께서는 달려와 매달리는 연출가와 촬영가,배우들의 손을 하나하나 뜨겁게 잡아주시였다. 얼굴이 몰라보게 깎이고 손발이며 옷이며 얼굴이 모두 흙빛이 된 그들은 물기어린 눈만 반짝이며 그이의 손을 잡고 놓을줄 몰랐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놀란 안색으로 그들을 둘러보시다가 을남의 까까중이머리를 옆에 끼시며 물으시였다.

《아니 모두 어째 이렇게들 상했습니까?》

젊은 연출가가 어줍게 웃어보이며 말씀드렸다.

《이 동무들이 시대상을 내자고 식사를 영 안합니다.》

《그거야 분장으로 해결해야지. 식사를 안하면 됩니까?》

《분장으로는 실감이 덜 납니다. 30년대 화전민들의 굶주림과 가난… 수난상을 보여주자면 별수 없습니다.》

《안됩니다. 연출가동무가 책임적으로 식사를 시켜야겠습니다.》

《처음엔 저도 강제로라도 식사를 시키자고 했는데 모두 적게 먹으니까 어쩌는수 없습니다.》

《이러다간 큰일이 나겠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목이 가늘어진듯한 을남의 까까중이머리를 쓸어만지시며 못내 가슴아프신듯 측은하게 물으시였다.

《을남이는 한끼에 얼마나 먹나?》

소년은 그이를 쳐다보며 어리광스럽게 웃었다.

《많이 먹습니다!》 기운찬 목소리였다.

모두 유쾌하게 웃었다.

《동무들, 촬영이 끝나면 집단휴양을 하든지 어떻게 합시다.》

그이께서는 을남의 손을 잡고 산전막쪽으로 걸음을 옮기시였다. 모두 그이를 에워싸고 기쁨과 흥분에 설레이며 걸어갔다.

7

김정일동지께서 《피바다》제작단 현지촬영장을 찾아주시였다는 소식은 온 촬영소를 감격과 흥분으로 끓어번지게 하였다.

연출실의 공기는 매일 흥분에 설레였다. 새롭게 두각을 나타낸 《피바다》연출가의 대담한 형상적시도들과 그 성공이 자주 화제에 올랐는데 어느날 한기석이 그런 이야기를 듣자 얼굴이 해쓱해져서 일어나 방안을 왔다갔다 거닐었다.

그는 부연출인 자기 신세를 내놓고 개탄하였다. 언제까지 연출가의 조수노릇을 해야 하는가. 언제까지 배우들의 의상궤짝이나 메고다녀야 하는가…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지 몇년이 지난 자기나 제대군인이나 부연출로 같은 취급을 하는 촬영소의 《완고한 평균주의》에 대하여 비양조의 말을 했다. 그는 방구석쪽 책상에 돌아앉아 책을 읽고 있는 철룡이,그 제대군인출신에게 주의가 가지 못한듯하였다.

철룡은 못들은척하고 그냥 책장만 번지고있었다.

오후 4시가 좀 지나 연출실에서는 한 작가의 작품을 놓고 토론하다가 필자가 《싸리그루에서 싸리나무가 자라오른다》라는 속담을 작중인물의 대사에 인용하고있는데 그것이 적중한가 아닌가를 놓고 의견들이 분분해졌다. 이튿날 점심식사후의 쉴참에 또다시 그 문제가 입에 올랐는데 여러 말들이 오가는 가운데 화제가 왕청같은 문제에로 번져갔다.

처음에는 예술가의 가정에서 태여난 사람은 예술적천분을 타고나서 대체로 훌륭한 예술가로 성장하는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사실적인 인물자료들을 렬거하며 이야기하다가 나중에는 유전학설로 넘어가 유전인자속에 후대의 예술적재능을 규제하는 인자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전문적인 과학문제에로까지 나갔다. 무슨 속심에서인지 그렇게 화제를 이끈 장본인은 강철룡이였다.

닷새가 지나서였다. 강철룡이 생물학연구소의 한 박사한테서 흥미있는 편지를 받았다고 하면서 구석쪽에 앉아있는 한기석을 흘끔 훔쳐보고는 양복저고리 안주머니에서 두툼한 편지봉투를 꺼내 읽어내려갔다.

그 박사는 영화애호가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강철룡의 질문에 대답한다면서 10여매의 긴 편지를 보내여왔는데 봉투속에는 세포핵속에 깊이 숨어있는 유전인자사슬의 전자현미경사진까지 들어있었다. 박사는 편지에서 유전인자사슬속의 비밀은 21세기에 가서나 완전히 해명될것이라고 전제하고 후대의 외모나 색갈을 규정짓는 마당인자나 색갈인자 그리고 수명을 규제하는 치사인자 등은 일찌기 과학앞에 자기 존재를 뚜렷이 드러냈으나 학문이나 예술의 구체적인 부문에 대한 인자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으며 아마 영영 나타나지 않을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하고 그 원인은 그러한 인자가 실

제상 없기때문이라고 했다. 박사는 두뇌의 리성적 혹은 감성적 우렬까지는 유전된다고 하면서 생명체의 선대와 후대사이에는 생명현상의 가장 근본적인 속성만 유전되는바 만약에 혹자가 개별적인 직업상의 능력, 례를 들면 리발사나 구두수리공의 손재간같은것도 유전인자로서 후대에 계승된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언어도단이며 생명체와 과학을 비속화하는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선대의 직업상의 환경이 후대에게 영향을 줄수 있다고 하면서 피아노연주가의 가정에서 재능있는 피아노연주가가 나오는것은 이런 환경의 영향이지 결코 피아노연주능력에 대한 유전인자가 따로 있어서 그것이 유전된때문은 아니라고 하였다.

마감으로 박사는 그러한 유전인자가 있다고 생각하는것자체가 사회생활에서 매우 유해로운 현상을 빚어낼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만약에 선대가 물려준다는 그런 허황한 인자를 믿고 은근히 그 덕을 입으려는 작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례외없이 노력과 탐구를 게을리하다가 예술건달뱅이로 전락될것이라고 결론하였다. 계속하여 로파심때문인지 예술적재능과 같은 인간의 특수한 능력은 일대에 한한것으로서 그 어떤 유전인자에 의해 선대에서 후대에로 유전되고 그래서 인간의 직업이 세습화되는것은 절대 아니라고 거듭 강조하며 오직 일생에 걸치는 진지하고 불면불휴의 탁마에 의해서만 그것이 옥돌처럼 빛나게 다듬어지는것이라고 력설하였다.

온 연출실이 박사의 그 편지에 흥미를 가지고 돌려가며 읽었다. 편지를 읽고 모두 껄껄 웃었다. 한기석이도 웃고 강철룡이도 웃었다. 그런데 누구인가 철룡에게 어떻게 되여 박사한테 그런 질문을 하게 되였는가고 물었다.

그는 한기석을 흘깃 돌아보고는 의기양양해서 과학적인 호기심때문이였다고 능청스럽게 대답했다.

한기석이 무엇을 느꼈는지 별안간 낯색이 달라지더니 유리알처럼 차겁게 빛나는 눈으로 그를 빤히 여겨보다가 자리에서 움쭉 일어섰다.

그때 최승진이 들어왔다. 그는 방안공기에는 아랑곳없이 흥분한 얼굴로 구석쪽 책상에 가앉더니 손에 쥐고 들어온 얇다란 책을 펴

놓고 읽기 시작하였다. 《꽃파는 처녀》의 원작등사본이였다.
그는 글줄을 더듬어나가다가는 자주 깊은 생각에 잠겨 이마를 쓸어만지기도 하고 턱을 주먹으로 고이고 눈을 지그시 감는가 하면 이따금 한숨도 조용히 내쉬였다.
저녁녘 철룡이 촬영실에 볼일이 있어 방에서 나와 복도를 따라 걸어가는데 어느새 뒤따라나왔는지 한기석이 그를 불러세웠다. 할말이 있으니 조용한데로 가자고 했다.
그들은 아래층 복도끝으로 가서 어스름속에 마주섰다.
한기석이 눈에 열기를 번뜩이며 나직하나 절절하게 말했다.
《신중하게 부탁하는건데 거절하지 말아달라구.》
《뭘?…》
《오늘이 내 생일이야.》
《오-그런가.》
《축하해주지 않겠나?》
《그거야 못하겠는가.》
《저녁에 같이 퇴근하자구.》
《아니 그럼 나두 뭘 준비해야지.》
《필요… 필요없어. 그저 같이 가주면 돼.》
그들은 어슬녘에 대동강 기슭의 국제호텔지하식당으로 갔다. 고급흑맥주와 커피, 이따금 외국술까지 나오는 아늑한 그 식당은 시내의 작가, 예술인들, 기자나 여러 부문 인테리들이 단골손님처럼 드나드는곳이였다.
씁쓸하면서도 향긋한 흑맥주냄새와 담배냄새가 짙게 배여 식당공기는 좀 탁하게 느껴졌다. 어느칸이나 손님들이 가득 차서 먹고 마시고 조용조용 이야기들을 나누고있었다.
강철룡은 이런데가 처음이여서 매대의 값진 술병들이며 다반에 맥주병들을 담아들고 사뿐사뿐 걸어다니는 비로도치마저고리차림의 접대원들을 어정쩡해진 얼굴로 둘러보았다. 한기석은 여기로 자주 다닌듯 활기띤 얼굴로 서성거리다가 방긋 웃어보이며 지나가는 접대원들에게 눈인사를 보내고는 여기저기 돌아보고와서 철룡이를 어느 한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그 방에는 일본에서 갓

귀국한듯한 중년남자 세명과 어느 대사관 운전사인듯한 외국인 두명이 앉아있을뿐이였다.
둘은 제일 구석쪽의 식탁에 가앉았다.
한기석이 접대원을 찾으려고 문쪽을 내다보는데 어떻게 알고 따라왔는지 흑곤색 비로도를 몸에 휘감은 이쁘장한 접대원처녀가 달려들어와 매달리듯이 그의 손을 잡아쥐였다.
《아니― 어째 이제 왔어요. 얼마나 기다렸게요.》
한기석은 싱긋이 웃으며 양복저고리 안주머니에서 빨깍거리는 봉투를 꺼내 처녀에게 내밀었다. 처녀는 그것을 받아 얼른 품속에 감추고는 불안한 눈빛으로 그를 지켜보았다.
《그 사진은 틀렸어. 인물보다 못해. 아직은 배우 모집을 시작 안하고있는데 몇달만 더 기다리라구.》
《또 몇달이요?》
《내가… 내가 기억하고있으니까 안심하고 기다려.》
처녀는 시무룩해졌다.
《뭘 들겠어요?》
《흑맥주 4병하구 그거 있지 않아. 아무거나 뭘 좀 가져오라구.》
《참, 저 옆방에 그 선생님이 와있어요.》
《오― 그래.》
처녀가 나가서 얼마 안되여 풍채가 좋고 얼굴이 불깃불깃한 50대의 점잖게 생긴 사람이 느릿느릿 걸어들어와서 한기석에게 반갑게 인사했다. 그의 공손한 태도에서는 한기석이를 매우 어렵게 여기는 기색이 엿보였다.
《어째 우리한테는 통 들리지 않는가요?》
《예― 너무 바빠서…》
《한번 꼭 들리시오. 내 아주 극적인 소재를 하나 잡아놓았는데… 한선생님이 생존해계실 때하구는 달라서 이젠 나한테는 예술적환상력이 다 말라버린것 같소. 그때가 한창시절이였지요.》
그 사람의 내리뜬 눈에 쓸쓸한 회억의 미소가 어리였다.
《선생님, 제사날이 7월 5일이던가요?》
《예…》

《금년 제사에는 빠지지 않아야겠는데…》

강철룡은 가는곳마다 아는 사람이 많은 한기석이 돋보여 그사람이 나가자 저건 누구냐고 물었다.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것 같아?》 하고 한기석이 웃음어린 얼굴로 되물었다.

《극작가가 아니요?》

《재단사요.》

《재단사?》

《우리 아버지 양복을 늘 맡아서 해주던 사람이요. 예술인들의 양복도 해주고 뒤시중이랑 들어주는것을 일생의 락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요.》

《그거 괜찮구만. 아까 왔던 처녀가 말한 그 사람이 아니요?》

《맞아…》 그리고 한기석은 갑자기 배밑창에서 웃음이 못견디게 터져나오는듯 입을 싸쥐고 어깨를 떨며 키득키득 웃어댔다. 그는 누가 겨드랑이라도 간지럽히는듯 그치지 못하고 그냥 키득거리다가 저쪽에서 외국인들이 돌아보자 겨우 참으며 손등으로 눈굽을 훔치였다.

《우리 아버진 세상에서 예술을 제일 사랑하는게 저 사람이라고 했어. 마음은 무척 어진데 약간 모자라… 자기는 배우적인 천분을 타고났는데 직업을 잘못 골라잡아 재능을 썩인다구 한평생 속을 앓으며 산단 말이요.》

아까 나갔던 접대원처녀가 흑맥주병들과 안주접시들을 다반에 담아가지고 들어와 상을 차려주자 그들은 허연 거품이 부글부글 끓는 고뿌를 찧었다. 철룡이 벗의 생일을 축하하자 그는 쓸쓸하게 웃으며 덧없이 흘러가는 인생에 대하여 개탄하였다.

한기석이 문득 신중한 얼굴로 그를 지켜보다가 맥주고뿌에 흑맥주를 콸콸 쏟아부어주며 한숨을 후―내쉬였다. 시름겨운 한숨이였다.

《승진연출가가 참 안됐어. 남들은 펄펄 나는데 아직 작품도 골라잡지 못했으니 말이네.》

《신중해져서 그러겠지…》

《요새 보니까 〈꽃파는 처녀〉에 맘이 쏠리고있는것 같은데 안돼, 안되네.》

《결심만 되면 잘하겠지. 능력은 있으니까.》

《내 생각엔 어쩐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닌것 같아. 예술가란 한번 좌절감이 들어 꺾이면 다시 피여나기 어려운게야. 아, 슬픈 일이지… 저 사람들은 자기 사명을 다 했어. 한평생 그저 그러루한 작품을 만드느라구 자기를 다 연소시켰거든. 재밖에 남지 않았어. 재무지에서 꽃이 피는가?》

《너무 험하게 생각하는게 아니요?》

《아니야.》

한기석은 맥주를 욕심스럽게 들이켰다.

《불행하게도… 예술가의 생명력은 그리 긴게 아니야. 한 예술가는 한 시대, 한 세계를 그리면 생명력이 쇠진해져… 끝나, 아주 끝나. 세상이 잘 아는 저 고리끼를 보라구.》

《고리끼?》

철룡은 론쟁벽때문에 흥미가 동해 이글거리는 눈으로 그를 건너다보았다.

《그럼… 그 사람도 첼카슈와 닐로브나의 세계를 그리자 생명력이 쇠진해졌어. 그 시대를 그리는게 타고난 운명적인 사명이였지. 10월혁명후 17년이나 더 살았지만 쏘베트사회를 그린 작품이 있는가, 대표작이 있는가. 쏘베트시대를 그처럼 긍정하면서도 못썼네, 못썼어. 생명력이 끝났거든. 그는 현자이기때문에 그걸 깨닫고 쓸려고도 안했어. 내가 아는 한에는… 그러나 저 사람들은 영생에 대한 미욱한 갈망으로 오작을 내여 물의를 일으키면서도 계속 저러네. 이건 지성과 량심문제야. …》

철룡은 그의 소리에 일리가 있는것 같으면서도 지나친 험구에 불쾌감이 들었다.

《철룡이, 우리가 하자구 먼저 제기하면 어때? 저 사람들은 안돼. 재무지야. 우리 둘이 맡아하자구.》

《뭘말이요?》

철룡은 이렇게 물었으나 그가 무엇을 맡아하자는것인지, 왜 자

기를 이런데로 데려왔는지 모든것을 순간에 깨달았다.

가슴이 서늘하게 식어들었다.

한기석은 열을 내여 행동계획을 설명하였다. 연출대본만 되면 자기가 주영도비서를 설복할테니 철룡이는 로영무를 구슬려 그가 최승진에게 물러서라고 권고하도록 하라는것이였다.

《그는 요전 작품의 대참패로 위축돼있네. 때문에 로영무령감이 우정으로 귀띔만 해주면 물러서네. 그래도 안되면 내가 서부상을 움직여 총장에게 암시를 던지게 하겠네. 서부상은 우리 아버지하구 가까운 사이여서 대학시절부터 나한테 관심이 컸네.》

《그런가…》

철룡은 이렇게 응대하였으나 가슴이 떨렸다. 이전에 최승진연출가네 집에서 사과를 마이크처럼 들고 너스레를 떨던 그, 최승진을 대예술가로 추켜올리던 그의 모습들이 환영처럼 눈앞에 어른거렸다. 자기 부연출의 이런 소행을 전혀 모르고있는 최승진연출가가 측은하게도 여겨졌다.

《둘이서 해야 빨리 할수 있고 또 머리를 합치면 수준도 더 높일수 있지 않아. 우린 첫 장면부터 완전히 새롭게 하자구. 주영도비서동진 틀림없이 우릴 지지할거요. 그전에 **김정일**동지께서 총장실에서 석탄문제를 말씀하시다가 내가 제기하는 의견을 주의깊게 들어주시던 일이 생각나? 난 그때 젊은 우리들한테 얼마나 기대가 크신가 하는걸 심장으로 느꼈어… 심장으로… 여러 눈치를 볼거 없어. 나서자구!》

《그런데 어떻게 되여 나를 선택했어? 내가 뭐 토론대상이나 되겠는가?》

《이런 겸손이라구야…》

한기석은 얼굴빛이 정색해졌다.

《맞대놓구 이런 소릴 해서 안됐지만 난 정말 철룡이한테서 느껴지는바가 많소… 그래서 분발하게도 되고… 이제는 우리가 작품을 가지고 나서야 돼, 철룡이…》

철룡은 탐욕의 불길이 팔팔 타오르는 그의 눈동자를 빤히 지켜보다가 고개를 떨구고 맥주고뿌를 그러쥐였다. 단숨에 고뿌를 비

우고 입가에 묻은 허연 거품을 손등으로 훔치며 눈길을 드는데 한기석이 턱을 쳐들사하고 출입문쪽을 향해 무슨 눈짓을 하고있었다.

돌아보니 배우지망자인 아까 그 처녀가 문뒤에 얼른 숨어버렸다.

철룡은 불쾌감이 치밀어 의자소리를 울리며 일어섰다.

한기석이 그의 팔을 붙잡았다.

《왜 이래?》

《놓으라구.》

《나는 벌써 서른살이구 철룡이는 28살이야. 동무 형은 20대에 대좌였어. 어떻게나 생로를 개척해야 될거 아닌가. 생로를… 지금이 절호의 기회야.》

그리고는 두손으로 머리를 와락 싸쥐며 몸부림쳤다.

철룡은 자신도 모를 소리를 내뱉고는 밖으로 뛰여나왔다.

밖에 나오니 가슴이 시원하게 열리는듯하였다.

그는 대동강가로 나갔다. 가로등의 불빛이 환하게 흐르는 유보도에서는 산책하는 사람들의 그림자가 오락가락하고있었다. 어느 나무밑에서인가 서정적인 기타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강안층계를 따라 밑으로 황황히 뛰여내려가 찬물을 얼굴이며 뒤더수기에 마구 끼얹었다. 머리속이 찡 저려나며 정신이 번쩍 들었으나 혐오감이 더 북받쳐올라 메스꺼움까지 일었다.

철룡이 세면을 하고 돌아서는데 한기석이 강바람에 옷자락을 날리며 총총히 뛰여내려와 그의 어깨를 거머쥐고 흔들어댔다.

《바보… 바보… 속상해서 한 소릴 곡해하다니,하하하…》

《뭐라구?》

《이때까진 아량으로 대했는데… 박산지 뭔지 하는 나부랭이한텐 왜 그따위 편지를 냈어? 유전학설이 우리하구 무슨 상관인가. 실에서 나를 어떻게 만들어놓자구… 그래서 그 편지를 읽었지?》

《동무를 간접적으로 비판하자구 그랬어.》

《그래봐서 좋을건 없네,흠…》

철룡은 전에없이 유들유들해보이는 그의 얼굴로 주먹이 날아갈가봐 두손을 바지주머니에 찌르고 숨만 거칠게 몰아쉬다가 어깨를 잡은 손을 밀어버렸다. 그리고는 층계를 따라 천천히 걸어올라갔다.

제 4 장

1

촬영소안에 놀라운 소문이 퍼졌다. 분장실의 장미혜가 운수직장의 화물자동차에 치워 병원에 실려갔다는것이였다.

식당앞에서 공무동력직장의 선반공한테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강철룡은 급정거하는 자동차의 마찰음과 처녀의 비명소리가 뼈속으로 파고들어 온몸이 찡 저려나고 눈앞이 아찔해졌다. 미끄러지는 차바퀴의 고무타는 냄새까지 폐부에 스며드는듯했다.

그는 정신없이 운수직장으로 뛰여갔다. 운수직장장은 장미혜와 관련되는 운전사를 불러들였는데 그의 말은 돌아가는 소문과 같지 않았다.

처녀는 병원에 입원한 한기석에게 문병갔다 돌아오는 길에 무슨 생각에 골똘했던지 어느 건설장의 대형화물자동차가 달려오는것도 느끼지 못하고 건늠길로 들어섰다는것이였다. 자동차는 급정거했으나 기겁하여 쓰러진 처녀는 바퀴가 미끄러지는바람에 차체밑으로 들어갔다고 하였다. 그 운전사는 차바퀴가 높지 않았더라면 결단이 났을것이라고 하며 자기가 까무라친 처녀를 병원에 실어가 주사도 놓고 약도 먹인 다음 집에 실어다 눕혀놓았다고 하며 무릎이 조금 벗겨지고 상처 하나 나지 않은것을 보면 하늘이 도운게 분명하다고 롱말까지 하면서 껄껄 웃어댔다.

철룡은 웃음이 나가지 않았다. 이 사고에 한기석의 이름이 비쳐든것이 썩 마음에 내키지 않았다. 한기석은 호텔지하식당에서의 일이 있은 다음 무슨 속심에서인지 갑자기 기관지염이 도졌다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거기서 무슨 연출대본을 쓴다는 말도 들려왔었다. 단순한 부주의일가, 그한테 가서 무슨 일이 있은게 아닌가. …

철룡은 퇴근시간보다 일찌기 촬영소에서 나와 장미헤네 집으로 찾아갔다.

그는 아빠트의 계단을 둘씩 건너뛰여 3층으로 뛰여올라가 처녀의 집문을 두드렸다. 문은 안으로 걸려있었는데 아무리 손기척을 하고 불러도 응대가 없었다. 굳게 닫겨있는 문에는 랭랭한 외면의 기운이 서려있는듯했다. 착잡한 의혹과 불안이 가슴에 갈마들었다.

옆집 할머니가 문을 빠끔히 열고 놀란 눈으로 내다보았고 밖에서 들어오다가 문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는지 아래층에서 윤희가 올라와서 얼마전까지 미혜가 방에 누워있었다고 하면서 자신이 손기척을 하며 처녀를 두세번 불러보았다.

역시 응대가 없었다. 그러자 윤희는 의아한 눈으로 철룡을 쳐다보았다.

《깊은 잠이 들었겠어요. 깨나면 왔다갔다는 말을 하겠어요.》

《…》

《어머니도 멀리 료양가셨는데 크게 상했더라면 어쩔번했어요. 천행이지요뭐.》

그날 철룡은 그 어떤 운명적인 타격이 뒤통수를 후려친것 같아 거리를 정신없이 헤매다가 어슬녘에야 집으로 돌아왔다.

그가 형네 아빠트뜨락에 들어섰을 때 현관에서 배명준이 어깨가 축 처져 맥없이 걸어나왔다. 그는 뜨락을 걸어나오다가 머리칼이 성긴 정수리를 손으로 만져보더니 무엇을 잊은 사람처럼 황황히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그러다가 손에 모자가 쥐여있는것을 보고 어색하게 시무룩 웃으며 그것을 머리에 올려놓았다.

잠바주머니에 두손을 찌르고 침울한 얼굴로 걸어들어오던 강철룡은 그와 눈길이 마주치자 대범해져 군대식으로 손을 맨머리에 붙이고 경례를 하며 빙긋 웃어까지 보였다.

《안녕하십니까?》

배명준은 사람좋은 웃음을 입가에 그리였다.

《허, 연출가선생, 오래간만입니다.》

마음이 선량한 이 설계가는 언제나 《부》자를 떼놓고 철룡이

를 연출가라고 부르는것으로써 예술에 대한 자기의 동경과 존경의 심정을 표시하는것이였다. 그는 철룡이가 자기 상급의 동생이라는데서보다 예술가라는 의미에서 그와 친해지고싶어하는것 같았다.

《거기 영화계에서는 요새 일이 잘됩니까?》

《예… 끓고있습니다.》

철룡은 그의 눈구석에 서늘한 기운이 어려있는데 주의가 갔다.

《형한테 왔댔습니까?》

《예…》

《무슨 일이 있은게 아닙니까?》

《무슨 일이야, 허허허…》

그는 허거프게 웃었다. 그 웃음이 심상치 않았다.

철룡은 미혜때문에 그늘이 드리웠지만 졸장부가 아니였다. 그래서 웃는 얼굴로 집으로 들어가서 자기 방으로 가지 않고 부엌간으로 먼저 들어갔다. 널다란 부엌칸에서 봄배추를 씻던 이쁘장하고 눈에 기지가 반짝이는 형수가 너무 반가와 입을 딱 벌려보이더니 달려와서 물젖은 손으로 그의 팔목을 덥석 잡았다.

《아이구 방랑자, 며칠만이요…》

철룡이는 형수한테서 손을 빼서 거수경례를 붙이고는 방에 있을 형을 생각해서 목소리를 죽여 속삭였다.

《임무를 수행하고 무사히 착 돌아왔습니다.》

《맘대로 큰소릴 치라요. 장령동지는 목욕중이야요.》

철룡의 형은 공병근무대좌로서 10여년전에 군대에서 제대했지만 형수는 이 괴짜인 시동생앞에서만 롱삼아 남편을 《장령동지》라고 불렀고 자기는 《부관》이라고 말하군하였었다. 형의 전우들중에 장령이 여러명 있기때문인지도 모른다.

《목욕해요?》

형수는 대답대신 눈을 감았다뜨며 머리를 까딱거려보였다.

《이자 들어오다 배명준아저씨를 만났는데 기색이 심상치 않더군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저씨가 뭐라고 그래요?》

《아니요. 눈빛이 심상치 않아 무슨 일이 있었는가고 물었더니 그저 웃더구만요.》

《퇴근해서 얼마 안됐는데 그 아저씨가 찾아왔더구만요. 한참 후에 아웅다웅 론쟁이 붙더니 선량한 아저씨가 졌어요.

아마 사무실에서 퇴방을 맞고 가정적환경에서 오손도손 얘기하면 통할줄 알고 찾아온것 같은데 마감엔 바로 그걸 가지구 몰아세우지 않아요. 사업문제를 가정에까지 끌구왔다구…

자기보다 나이가 우인분을 그렇게 몰아대니 보기 참 딱하더군요. 중단시키자구 과실그릇을 들고 들어가 두분가운데 놓는데도 그치지 않구 꾸중해요. 너무 속상해 삼촌이라도 왔으면 했어요.》

《무슨 문젠데요?》

《설계지뭐…》

한때 설계기사로 근무한적 있는 그 녀자는 손가락에 물을 찍어 솔뚜껑에 략도를 그려보이며 설명했고 철룡은 형수와 머리를 맞붙이고 그것을 들여다보았다.

《엿들어봐도 무슨 소린진 딱히 모르겠지만 지하철도갱도를 이렇게 파게끔 설계가 된것 같아요.

형은 그걸 직선으로 펴라고 해요. 막대한 자재가 더 든다고… 그이는 무엇때문인지 더 직선으로 펴면 위험하다고… 그 소리를 되풀이하면서 자꾸 설복하려고 했어요.》

《누구 말이 옳은것 같아요?》

《모르지요. 형은 동무의 그 소심성이 국가에 어떤 손실을 주는지 아는가고 소리치지 않겠어요.》

《아저씨는 준박사학위에 부교수학직까지 가진분인데 형이 뭘 안다구…》

《구체적인 기술문제는 몰라두 원칙은 있다는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로잡자는거겠지요.》

《기술을 모르는데 원칙은 무슨 원칙…》

《목욕하고 나오면 맥주랑 내놓을테니 좀 마시면서 삼촌이 차근차근 말해줘요. 나한테서 들었다는 기미는 보이지 말구요.》

《어이구, 장령동지가 이 잠뱅이 말을 듣기나 하겠수다.》

《형제지간인데 그만한 말도 못하겠어요? 그냥 저러다간 아래사람들한테 돌리우고말겠어요.》

목욕칸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철룡은 형수와 갈라져 급히 가운데방으로 올라갔다.

얼굴이며 목이며 온몸이 어찌나 세차게 문질러댔는지 벌겋게 익은 형이 불룩한 배에 목욕수건을 휘감은채 빤쯔바람으로 우람진 몸을 육중하게 흔들며 복도를 지나 가운데방으로 들어섰다.

벌거벗은 형을 오래간만에 처음 보는 철룡은 자신의 육체적왜소감과 함께 앞을 막아선 우람한 육체가 풍기는 중량감과 정력에 기가 눌려 얼결에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강세룡은 동생의 인사에 반응하여 턱을 쳐들사하고 느슨하게 웃어보였다. 그의 젖은 머리와 번들거리는 어깨에서는 김이 문문 피여오르고 시뻘겋게 된 살찐 가슴팍에서는 기름기에 물방울들이 돌돌 굴러내렸다.

철룡은 형의 어깨밑과 허벅다리에 길죽한 반창고들이 붙여있는것에 눈길이 가자 가슴이 찌르르 저려들었다. 그는 형이 이전에 목욕을 하다가 전쟁때 상처자리를 잘못 건드려 염증으로 몇달 고생한 다음부터 목욕할 때마다 거기에 반창고를 붙인다고 조카가 하던 말이 생각났던것이다.

방금전에 장령동지요 뭐요 기지에 찬 말재간을 부리던 형수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듯 달려들어와서 하불만한 타올수건으로 남편을 감싸주고는 날랜 솜씨로 어깨며 가슴팍의 물기를 훔쳐주고 어깨밑과 허벅다리의 반창고를 조심조심 뜯어보았다.

강세룡은 동생앞이라 일부러 그러는지 퉁명스럽게 일렀다.

《거긴 괜찮어… 대전하구 양구를 좀 보라.》

불쑥 튀여나온 도시들 이름에 철룡이 어리벙벙해져있는데 형수는 그 뜻을 인차 깨닫고 반쯤 돌아선 형의 등뒤로 날렵하게 옮겨섰다. 형의 벌건 잔등 어깨박죽밑에 반창고가 길죽하니 붙어있고 그아래 허리부분의 등골결에 반창고 한개가 더 붙어있었다. 형수가 어깨박죽밑의 반창고를 살살 떼자 길게 패인 검푸른 상처자리가 드러났다. (철룡은 형의 잔등에 그런 상처자리가 있는것을 처음

보았다.)

《대전은 괜찮아요. …》

《양구는? …》

상처자리마다에 부상당했던 고장이름을 붙인것은 형수의 기지인것 같은데 그것들이 부부사이만 은어처럼 통하는것을 볼 때 철룡은 형에 대한 은근한 자랑과 함께 이들의 남다른 정에 대하여 새롭게 느꼈다.

형이 웃방에 올라가 잠옷을 걸치고나오고 형수가 맥주상을 차려가지고 들어와 오래간만에 마주앉은 형제사이에 놓았으나 철룡은 아까 부엌에서 한 약속을 까마득히 잊고말았다.

그는 형수가 고뿌에 철철 넘치게 따라주는 맥주를 얼굴을 약간 뒤로 돌리며 몇모금으로 나누어 마셨고 형은 단숨에 두고뿌를 쭉 들이켰다.

《어ー 시원하다! 일전에 그쪽 병원에 갔다가 한기석이를 만났구나. 참 좋은 친구야. 례절도 바르고 우정이 무언가도 알거든. 먼발치에서 나를 알아보고 뛰여오더구나… 퇴원하면 한번 데려오너라.》

《병원엔 어째 갔댔어요?》

《음, 거기 우리 사람이 입원해있어서…》

형수가 형제지간에 오래간만에 마주앉았는데 좀 재미나는 이야기랑 하라고 하며 팔굽을 슬쩍 건드리고 나간다음에야 철룡은 아까 부엌에서 한 약속을 상기하고는 헛기침을 톺으면서 맥주고뿌에 눈길을 떨구었다. 형한테 싫은 소리를 전혀 하고싶지 않았다.

형한테 불만을 품고 돌아간것이 분명한 배명준이 야속스럽게 여겨지고 그를 동정하여 자기를 꼬드기는 (벌써 취기가 돌아서인지 그렇게 생각되였다.) 형수가 얄밉기까지 하였다.

(조국에 피를 바친… 한두방울도 아니고 저렇게 여러번 부상당해 동이로 바친 형한테는 남을 꾸짖을 자격이 있다. 도덕적권리가 있다. 직책상의무에서뿐아니라 공민적인 권리로서… 그렇다. … 그렇다! 선량한 아저씨여, 우리 형이 피투성이가 돼서 포연속에서 딩굴 때 당신은 어디 있었는가. 유럽에 류학 가서 빠다와 가

쯔레쯔를 먹으며 희귀한 저서랑 읽으면서 지적인 향락을 한껏 맛보지 않았는가. 누가 옳은지 모르겠지만 형이 좀 지나쳤다 해도 당신은 리해해야 한다. 양보해야 된다. 이건 동생이라고 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다. 숱한 전사들의 유골을 품고있는 조국땅도 이런 말을 하고싶을게다. …)

《너 왜 그러니?》

철룡은 당황하여 얼굴을 쳐들었다. 그는 자기 눈시울이 젖은 것을 느끼지 못했다.

《약골이라구야…》

《?…》

《벌써 뗑해져 어머니생각이라도 한게 아니야?》

《아－니요.》

《마셔… 요새 일은 잘되느냐?》

한마디 물음이였지만 그의 목소리에서는 따뜻한 정이 풍기였다.

철룡은 놀란 눈으로 형을 쳐다보았다. 형은 여태 인사치레의 말을 제외하고는 그의 예술창조사업에 진심으로 관심을 보인적이 별로 없었다. 형은 말로써는 문학예술의 중요성을 인정하였으나 마음속으로는 도시를 건설하거나 공장을 세우는 일에 비하면 매우 차요적인것으로 여기는것 같았다. 언제인가 그는 《영화가 안나온다고 달리던 기차가 멎는건 아니야.》 하고 우스개소리처럼 말했는데 여기에 그의 본심이 드러나있는것 같았다.

그는 자기 동생이 사회의 가장 《차요적기관》인 촬영소에서 연출가도 아니고 부연출로 있는것을 은근히 불명예스럽게 여기는 눈치였다.

철룡은 형이 자기를 《길을 잘못 든 동생》으로 여긴다는데 일찌기 습관되여있었다. 그런 형이 오늘은 자기 예술창조에 따뜻한 관심을 돌려준것이다. 여간 기쁘고 감사하지 않았다. 그래서 자기도 형한테 따뜻한 말을 해주고싶었다.

《형, 이제는 년세도 있는데 힘들지 않아요?》

《나야 뭐 힘들거 있니, 수고야 저 땅밑에서 일하는 군인건설자들이 하지… 자, 들어. …》

《형, 절대 무리하지 말아요.》

《나는 끄떡없다. … 정 내가 그렇게 걱정되면 속이나 좀 썩이지 말아라. …》

《나때문에 속상한 일이 많아요?》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이 생각나니? 네가 장가드는걸 보지 못하고 가는게 한이라고 하셨는데 허 참 내가 형구실을 못했구나. …》

철룡은 취기때문인지 몸에 번열이 나는것 같아 잠바를 벗어 옆에 밀어놓았다.

《야, 오늘저녁엔 시간도 푼푼한데 좀 터놓구 말해보지 않겠니? 나는 혀도 잘 돌아가지 않는데 그 미해인지 미혜인지 하는 처녀 생각을 가슴에서 쑥 뽑아버리는게 어떻니?》

《예?》

《일전에 왔을 때 뜯어보니 그저 그렇더구나. 반반하게는 생겼지만 깔끔한게 어디 정붙일데라구 있더니.》

철룡은 눈길을 떨군채 잠자코 있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서 집에 누워있는 미혜를 생각하니 가슴이 찌르르 저려들었다.

《나두 련정이란게 어떤겐지 전혀 모르는건 아니지만 쑥 뽑아버려… 내 동생인 네가 그런 처녀한테 쩔쩔매는게 어이가 없구나.》

《그 동무가 어째서요?》

《글쎄… 그만뒀으면 좋겠다. 내가 잘못했어. 군대에서 제대돼왔을 때 너를 촬영소에 보내지 않는건데… 아프리카에 건설대표단으로 가는통에 그렇게 됐거던… 촬영소에 안갔더라면 그런 꽃에 홀리우지 않았을게 아니냐. 자, 마시자.》

철룡은 입맛이 없어져 맥주를 한모금만 마셨고 형은 한고뿌 다 들이키더니 무슨 열이 북받치는지 눈이 이글이글 타오르는것 같았다.

《나만 자꾸 말하는데 넌 왜 아무 소리도 없느냐?》

《전 형님이 왜 그렇게 반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터놓고 말해야 알겠니? 신원도 명백치 않은 가정이더구나. 오죽하면 그 처녀 어머니를… 그런 유명한 녀배우를 내보냈겠니?》

《내보낸게 아니라 스스로 년로보장에 넘어갔습니다.》
《스스로? 넌 참…》
《신원이란건 무슨 소립니까?》
《그걸 몰라서 묻니? 좀 정신이 들어라. 그 처녀 어머니는 광복직후 미군이나 남조선괴뢰우두머리놈들과도 관계가 있었구 우리한테로 들어온 동기도 명백치 않아. …》
《누가 그런 소릴 했습니까? 그건 비방이고 중상입니다. 다 해명된 문제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너를 아껴주려는 사람들이 한 말이다.》
철룡은 그 소리에 형이 병원에서 한기석을 만났을 때 무슨 말이 오가지 않았는가싶으면서 온몸이 싸늘하게 식어들었다.
《한기석이 그랬습니까?》
《뭐라구? 애꿎은 동무를 걸고들지 말아라.》
(아니다. 이건 거짓이다. 그 자식이 무엇이라고 했을게다. 나에 대한 반감으로부터… 미혜한테도 뭐라고 지껄였을수 있다. 그래서 미혜는 고민에 빠져 차가 들이닥치는것도 느끼지 못했는지도 모른다…)
《한기석이 뭐라고 했지요?》
《너 왜 이 모양이야. 사람 말을 믿지 못하구!》
거칠게 울리는 형의 목소리에 철룡은 주눅이 들어 눈을 내리떴다.
《그리구 그 처녀는 곱구 똑똑은 하지만 발그라지구 고집두 세구 속에 없는 소리두 괜찮게 하구 못쓰겠더라.》
《형!… 형… 아직은… 제 있는데선 그 동무를 그렇게 험하겐 욕하지 말아주십시오. 다른데선 아무 소릴 해두…》
철룡은 한손으로 이마를 싸쥐며 애원하고 간청하듯이 절절하게 말했다.
《알만-하다. … 물론 괴롭겠지… 나는 이런 소릴 하기 헐한줄 아니? 솔직히 말하면 나는 날이 지나노라면 네가 정신을 차리겠지 하고 믿어왔다. 그런데 이게 벌써 4년째가 아니냐, 그렇지? 처음에는 너희들이 사랑놀음에 빠져 제정신없이 돌아갔구 그다음에는

서로 흡진갑진하며 고민한 세월이다. 남아장부한테 4년이란 얼마나 큰일을 할수 있는 세월이냐. 대학들 학제에도 4년짜리가 많아. 그만한 시간이면 한 과학기술부문을 통달할수 있기때문이야.

그전에 우리 대렬참모녀석이 사랑에 빠져 몹시 고민한적이 있는데 그때 한 유식한 중좌는 이렇게 말했다. 사랑이란 실재의 상대가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놓은 환상을 사랑하는것이다. 종교놀음처럼… 그건 신앙심처럼 허황하기 짝이 없는것이다.… 하구말이야. 일리가 있는 소리거든,미신이야. 미신… 이제라도 네가 그 미신을 털어버리면 일이 다 잘된다. 우리 위원회에만 해두 타자수, 교환수,기요원… 인물이 좋구 성품이 좋구 성분이나 환경도 나무랄데 없는 처녀들이 얼마든지 있다. 자기 장래를 두고 깊이 생각해봐라.》

철룡은 머리를 수긋하고있을뿐 대답을 안했다.

《이 세상에 나만큼 네가 잘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니. 그런 녀자는 우리 가정에 들어오지 못한다. 네가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 옛날사람들처럼 의절까지는 하지 않아도 나는 너를 혈맥이 통하는 친동생으로 여기기는 힘들것 같다.》

철룡은 무서운 반발심이 터져올랐으나 말은 다르게 나갔다.

《형,어찌겠어요. 너무 노여워하지 말아요.》

《참 답답하구나.》

×

달빛이 창문에 어린탓인지 방안은 희푸르스름해진것 같았다. 식구들이 모두 깊은 잠에 들어 집안은 괴괴하다. 복도건너쪽방에서 형이 늘 태평스럽게 코를 골던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다.

단잠에서 깨여난 강철룡은 침대를 삐꺽거리며 돌아누워 형네 방쪽에 귀를 기울이였다.

형이 아주 녹초가 되여 깊이 잠에 들었는지 그쪽에서는 버스럭소리 하나 들려오지 않았다.

철룡은 도로 반듯이 누웠다. 가슴이 서늘하게 식어들었다.

(그러지 않아도 중책을 걸머지고 시름이 큰 형한테 내가 너무 걱정을 끼치는게 아닌가… 웬만한 사람같으면 지루해나고 또 화김에 너 맘대로 하라고 내팽개쳤겠는데 형은 단 한번도 그러지 않았어. 지난 4년간 변함없이 꾸준히 반대해왔지. 마주앉을적마다 되풀이되는 같은 말로 설복하고 또 설복했어.… 진심이 아니면 이렇게 할수 없어. 그렇지만… 그렇지만… 형의 의사를 따를수 없어. 미혜！… 아,미혜！)

그는 왈칵 터져오르는 울음을 막으려고 몸을 뒤채여 베개잇을 깨물고는 부들부들 떨었다.

(미혜는 우리 공화국의 품속으로 와서 인민학교를 다녔고 중학교를 다녔고 대학전문부를 졸업했다. 그는 여기서 소년단을 거쳐 민청생활을 했으며 그 과정에 정치적인 뼈가 자라고 굳어졌다. 형의 생각이 옳은것이라면…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교육과 우리 소년단,민청생활경력은 한 인간의 신원을 담보해줄만한 가치도 없단 말인가. 그의 어머니 신원이 진짜 정치적으로 의심되고 깨끗하지 못한것이라고 하자. 그렇다고 그것이 딸의 사회정치적인,인간적인 가치를 낮추는 근거로 되여야 하는가. 그것으로 해서 사랑이나 결혼같은 문제에서까지 그를 하대하고 천시하고 외면하라고 요구한다면 그런 감정을 인간적인것으로,공정한것으로 볼수 있는가. 자식의 과오로 부모가 사회적 비난이나 추궁,제재를 받는것은 있을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부모의 문제를 자식이 책임질수는 없는것이다.

태여나기전이나 젖먹이때에 부모들한테 있은 일로 그 자식을 하대하거나 경원하거나 적대시한다면 그 감정을 옳은것으로 볼수 있는가？ 없다.… 그것은 인간리성이 발전하지 못했던 중세기 봉건시대사람들의 감정과 비슷한것이다.

슬프게도 그런 사람은 멀리 국경밖에 있는것이 아니다.… 내 옆에도 있다. 형이 바로 그렇다.

나만 아니라 누구한테도 명백할 이런 문제를 형은 왜 깨닫지 못하는가. 과거에 자신의 피를 바쳐 조국을 사수하는데 크게 공헌한 형이… 형 전우들의 말을 들어봐도 전쟁시기나 전후시기 그처럼

사리에 밝고 정의감이 강했다는 형이 아닌가. 그런 형이 오늘은 왜 이렇게 나오는가.

누구 말처럼 인간심리란 배수뽐프의 운동처럼 단순한것이 아닌 모양이다. 형은 자신이 세운 공훈으로 자부심이 강한 사람으로 됐을수 있고 주위사람들의 존경과 그리고 혹 있었을지 모르는 부하들의 아첨으로 그 자부심이 지나치게 강해졌을수 있다. 지나친 자부심이 자신에 대한 지나친 확신으로 바뀌여지기는 쉬운 일이다.

그래서 형도 자기 생각은 다 옳고 자기 말은 다 옳다고 확신하게 됐으며 자기 의사를 따르지 않거나 거역하는 사람은 매우 못마땅하게 여기고 지어는 사상적으로 의심하게 됐는지도 모른다. 이런 사람은 한번 아니라고 한것은 끝까지 아니라고 한다.

자기도 제한된 개인인 이상 무엇을 잘못 생각할수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것 같다. 때문에 자기 생각이나 말을 심사숙고하여 검토해보려고 하지 않는다.

아, 반성능력이 없는 이런 굳센 의지가 사람들을 얼마나 괴롭히는가. 만약 나라의 모든 책임적자리에 이런 사람들이 앉아있다면 우리 사회는 그 사람들의 두뇌만큼밖에 발전하지 못할것이다.

이런 동지들이 국가주권기관이나 당지도기관을 선거할 때 선거위원회가 자기네한테도 보통사람들과 똑같이 선거표 한장만을 준다는데 대하여 주의를 돌린다면 그리고 당규약에 공로와 직위에 관계없이 비판해야 한다는 구절이 있다는것을 명심한다면 우리 당이 무엇을 몹시 경계하는가를 알게 되고 좀 신중해지지 않을가…

그러나 그들은 자신을 보통사람들보다 썩 높은 자리에 놓고 생각하는데 습관됐다.

말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자신을 사회에서 우위적인 특수한 존재로 늘 여기고있으며 그런 자감을 조금도 어색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형은 말했다. 그런 처녀는 우리 가정에 들어올수 없다… 이렇게 잘라 말했다. 그것도 흔연하게… 어제저녁만 아니라 나를 설복할 때마다 그런 말을 했다.

계통적으로 그런 말을 하는것으로 봐서 우연히 튀여나온 소리가 아니다. 격한김에 욕하느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다. 자기 사상감

정을 제일 집중적으로 제일 솔직하게 드러낸것이 아닌가.

나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기분 나빴고 반발심이 무섭게 터져올랐다. 왜… 왜 그랬던가? 미혜하구 갈라지라는 강박으로 들렸기때문에?… 아니… 아니… 그것만은 아니다. 그런 요구와 강박에는 늘 습관돼있지 않았는가… 무슨 냄새를 맡았기때문이다.

제일 싫은 냄새… 특수한 존재연하는 그 냄새를 맡은것이다.

그런 처녀는 우리 가정에 들어올수 없다.… 이 말에선 그 역한 냄새가 물씬물씬 풍긴다.

나도 은연중에 전염돼 사람들속에서 그런 냄새를 풍겼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놓구보면 미혜도 바로… 바로… 그 냄새가 역해 문을 열어주지 않고 나를 외면했는지도 모른다.)

철룡은 전기에라도 닿은듯 와뜰 놀랐고 일어나앉아 두손으로 머리를 움켜잡았다.

(그렇다. 그 냄새때문이다. 나를 따라 우리 집에 와 형을 만났을 때 그 냄새를 맡았을게다.… 나를 미혜와 갈라놓은것은 결국 그 냄새이다.… 형이다! 나는 형과 감정상으로, 정서적으로 타협할수 없다. 이 냄새속에서 뛰쳐나가자. 좀 고생스럽더라도 합숙으로 나가자.)

그는 침대에서 내려 팔짱을 끼고 방안을 왔다갔다했다.

(아, 형, 형은 이 동생을 그처럼 진지하게 책임적으로 사랑해왔지만 결국 나를 어떤 불행에 빠뜨렸소?)

눈물이 끓어올랐다.

그의 발자국소리를 들었던지 사이문이 찌국 열리며 잠옷바람의 형수가 들어왔다. 잠내 풍기는 고운 얼굴이다.

《어째 깼어요?》

《아주머니! 오늘저녁부터 내 밥은 짓지 마십시오. 촬영소합숙에 나가있겠습니다.》

《일이 바빠요?》

《아주 나가있겠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결심은?… 아이고— 형님 말에 신경이 곤

두셨군… 신경… 신경… 인테리들은 신경이 문제라니까.》

《…》

철룡이 아무런 응대도 안하자 형수는 걸상에 걸터앉아 얼굴빛이 정색해져 창문쪽을 내다보았다.

《무엇이 못마땅해서 나가겠다고 그래요? 지나치긴 했지만 다 걱정해서 한 소린데 그렇게 노여워요? 밤중에 주무시다가 또 걱정이 돼서 지하철에 나갔어요. 아직도 안들어왔어요. 한평생 저렇게 살아요. 저러는데도 뒤에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미가 어떻다, 작풍이 어떻다, 사람이 어떻게 백이면 백가지가 다 원만하겠어요. 나는 뭐 의견이 없는줄 아세요? 하지만 저 변함없는 책임성을 존경해서 안해가 아니라 정말 부관처럼… 부관처럼 받들어요. 정 나가고싶으면 어찌겠어요. …》

형수의 눈에 이슬기가 반짝이였다.

철룡은 고개를 떨구고 서있었다.

2

화창하던 날씨가 갑자기 흐려지고 하늘절반이 시꺼멓게 뭉게치며 날아드는 매지구름에 덮이더니 그쪽에서 먼 우뢰소리가 우르릉 울려왔다. 장대재쪽에서 날아오른 한떼의 새들이 그 우뢰소리에 쫓기는듯 하늘밑을 황급히 날아돌아 산탄처럼 흩어지며 보통문쪽으로 쏟아져내렸다.

뒤짐을 지고 창가에 서서 바깥하늘을 내다보시던 **김정일**동지께서는 박경섭에게로 천천히 돌아서시였다.

응접탁곁에 서있던 박경섭이 흥분된 얼굴로 그이를 우러러 쳐다보았다.

《촬영소들에서는 영화창조사업이 대단히 활기에 넘쳐 진행되고있습니다. 연출가들과 배우들의 기세도 참 좋습니다. 모두 열정에 넘쳐있습니다.》

《최승진연출가는 어느 작품을 맡았습니까?》

《그 동무만은 아직…》 그의 말끄리가 흐려졌다.

《아직도?…》

《저… 그가… 전에 받은 비판을 소화하지 못해서 그런다는 반영도 있고 서유럽예술에 대한 숭배심이 채 가셔지지 못해서 작품들의 세계를 절절하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소리도 있지만 어제 만나 담화해봤는데 그런것 같지는 않습니다. 주관적으로는 흥분해있고 의욕도 높은데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망설이는것 같습니다.》

《위축돼서 소심성에 빠진게 아니요? 재능있는 동무가 참… 그래서는 안되겠는데…》

그이께서는 다심하게 걱정하시였다.

《대담한… 불같은 심장이 없으면 문제작을 못내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머리를 좀 쉬워야 하지 않을가? 동무도 좀 생각해보오.》

그이께서는 담배에 성냥불을 붙이시였다. 좀전의 심려깊은 안색은 가신듯 사라지고 매우 온화한 얼굴이였다.

《력사상의 실례를 보면 원쑤와의 싸움에서는 용감무쌍했지만 제편사람들에 대한 믿음에서는 소심하고 신경질적이고 비겁한 정치가들이 적지 않았는데 그건 다 자기 사업과 정치와 인격의 견인력과 감화력에 대한 확신이 덜한데서 오는 정치적불안감때문이였소. … 우리는 믿음에서 린색을 부리지 맙시다.》

박경섭은 다음 용건을 말씀드렸다.

《저… 까를로비 바리국제영화축전준비위원회의 초청에 대해서는 내놓을 신통한 작품도 없는데 축하전문만 보내고 대표단 파견은 그만둘가 합니다.》

《그만두긴 왜 그만두겠소. 대표단을 파견합시다. 거기 참가해서 다른 나라 영화예술의 동향만 보고와도 어디요.》

《그럼 영화총국이나 촬영소 책임일군들로 두세명의 대표단을 무어서 보내겠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지도일군들보다 창작가들을 보내는것이 좋

겠다고 하시고는 잠시 생각에 잠기시였다.

《누구를 보내겠소?》

《토론해보겠습니다.》

그이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활달한 걸음으로 응접탁둘레를 돌아 박경섭의 곁으로 다가오시였다.

《좋은 기회인데 우리 한번 크게 마음을 써보지 않겠소? 로영무동무하고 최승진동무를 보내는게 어떻소? 젊은 동무도 하나 끼워서… 갔던 걸음에 프랑스도 돌아보게 합시다.》

《예?…》

《어째 그 동무들이 적합하지 않소?》

《아니 그런건 아니지만…》

《허허, 크게 마음을 써보자는데 이러는군… 그 동무들은 영화부문에 오래 종사하면서 수고도 누구보다도 많이 한 동무들인데 크게 마음을 써줍시다. 승진동무한테는 서유럽예술에 대한 환상도 나무옹지처럼 말째게 배겨있는데 거기 예술이 지금 어떤 꼴이 돼가는가 제눈으로 직접 보게 되면 생각되는바가 좀 있을게요. 견문도 넓어지고 우리 문예정책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하게 되면 앞으로 크게 은을 낼수 있소. 보냅시다!》

《예!》

이튿날 오전 10시, 박경섭은 자기 사무실에 로영무와 최승진, 강철룡을 불러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말씀을 전달하였다.

세사람이 밖으로 나오니 그사이 해비가 내려 가로수며 포도가 축축히 젖어있고 공기는 전에없이 눅눅하고 상쾌하였다.

그들은 거리에 나섰다. 최승진은 고개를 숙일사하고 뒤에서 따라왔고 로영무와 강철룡은 앞에서 걸었다.

철룡은 머리가 자꾸 핑 돌아 행인들을 두리번 두리번 돌아보는가하면 하늘에 둥실 떠있는 얼음산같은 구름을 쳐다보기도 하였다.

모든것이 꿈만 같았다. 사람이란 이렇게 하루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존재인가!

어제까지만 하여도 저조한 연출대본과 그 연출가를 두고 걱정하다가 한기석이와 충돌까지 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미혜의 사고와

외면, 형과의 감정마찰때문에 얼마나 신경이 날카로와졌고 괴로와했던가…

오늘아침에는 또 경리부에 가서 합숙에 들어갈 수속을 하였지…

그는 어떻게 촬영소까지 왔는지 알지 못하였다. 그리고 어찌하여 아주 외면해버린 형이 못견디게 보고싶어 그의 사무실에 전화를 걸게 되였는지도 알지 못했다.

형은 출장가고 없었다. 형네 집에 전화를 걸었다. 형수는 소식을 듣더니 비명비슷한 소리를 내지르고는 이제 빠리에 가서 촌바우처럼 거리녀자들한테 홀려 다 털리우지 않는가 보라고 하며 깔깔웃어댔다.

그리고는 자기가 려행준비를 말아 해줄테니 어서 집으로 돌아오라고, 그러지 않으면 자기가 촬영소에 찾아가 끌어오겠노라고 을렀다. 그러나 이 시각 철룡은 형이나 형수, 그 어느 누구보다도 미혜를 백배나 더 만나고싶었다. 설사 지난날 둘 사이에 무슨 오해나 불만이 있었다쳐도 이 크나큰 행복감속에서는 그런것들이 가뭇없이 녹아없어지고 감정이 투명하게 정화되여 하나로 융합될것 같았다. 어서 만나 함께 기쁨을 나누고 려행준비도 그의 은밀한 도움을 받아 하고싶었다. 그러나 미혜는 아침에 출근했다는데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소식을 듣고 철없이 기뻐하다가 사람들의 놀림에 들어 수집어서 어디에 숨어버렸는가. 기쁜김에 동심이 살아올라 숨박곡질하듯 깜찍하게 피해다니는것인가, 부탁하기전에 려행준비를 해주자고 어느 상점에라도 뛰여나갔는가… 행복한 상상이 깃을 펴고 날수록 그는 공연히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되고 내놓고 찾아돌아다닐수 없게 되였으며 그래서 속이 더 달아올랐다. 사실 철룡은 사업상 공로나 예술적지위로 보아 자기한테 차례진 행운이 분에 넘치는것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있었으며 남의 자리에 들어선듯한 자격지심도 없지 않아 말과 웃음, 행동도 조심하게 되였던것이다.

오후에 부기실로 가서 전달에 맡겼던 저금통장을 찾아가지고 나오는데 얼굴이 해쓱해진 미혜가 꿈속에서처럼 소리없이 나타나

앞을 막아섰다.

처녀는 쌀쌀하게 웃어보이며 축하한다고 인사하였다. 그리고는 외면하며 저쪽으로 가버렸다.

미혜… 꿈결에도 그리며 가슴태웠던 그 처녀는 랭랭하게 식어들어 더 예뻐진 얼굴을 도고하게 쳐들고는 홱 돌아서 옆을 스쳐지나갔다.

철룡은 머리가 뗑해져 말도 제대로 못한채 탄력있게 걸어가는 처녀의 아름다운 자태를 지켜만보았다. 왜 저러는가?…

퇴근시간후 철룡은 미혜의 집으로 찾아갔는데 이번에는 다행히도 문이 걸려있지 않았다. 손기척도 없이 집안에 들어선 그는 성급히 신발을 벗고 아래방 문을 열었다.

미혜는 누울 차비를 하였는지 검은 바탕에 흰점이 촘촘히 배긴 낡은 달린옷바람으로 무릎을 굽히고 침대에 쪼그리고앉아있었는데 발치에 모포와 베개가 되는대로 놓여있었다. 처녀는 생기를 잃고 멍하게 풀린 눈으로 그를 쳐다보다가 입가에 알릴듯말듯 미소를 띠며 반색을 보였다.

방구석에 놓여있는 목각상에 젖은 수건이 되는대로 걸려져 무희의 방긋 웃는 얼굴 절반을 가리워버렸다.

달라진 처녀의 모색도 놀라왔지만 언제 와봐도 깨끗하게 정돈되여있던 방안의 모든것이 너저분하게 헝클어진듯한 인상에 가슴이 서늘해졌다. 그를 올롱해서 쳐다보는 눈이 어떻게 찾아왔느냐고 묻는듯했다. 남남간이 다 된 얼굴이다.

《미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요?》

《량심에 걸리는게 없어요?》

《량심에? 그건 무슨 소리요?》

《…》

《터놓구 말하라구.》

고집스럽게 침묵을 지키고있던 처녀의 눈에 진지한 빛이 어리는듯하였다.

《거기 좀 앉으세요.》

철룡은 의자에 앉았다.

《철룡동무… 언제나 저한테 솔직했지요?》
철룡은 대답을 안했다.
《기석오빠가 어떻게 돼서 참관단에서 빠지게 됐어요?》
들어갔다가 빠졌다는 소리인것 같았다.
철룡은 자기에게 무엇인가 치욕적인 혐의가 들씌워져있는듯한 느낌에 신경이 날카로와졌다.
《그건 모르겠소. 박경섭동지가 기석동무는 참 재수없다고 하면서 기관지염이 심하다는 소리를 했는데 그걸로 봐서 병때문인것 같소.》
《동무가 무슨 작용을 논건 없어요?》
《내가 무슨 작용을 논단말이요?》
《이전에 국제호텔식당에 가서 연출대본을 둘이 따로 하자고 의논한적이 있지요?》
《그걸 어떻게 아오? 기석이와 단둘이 한 이야기인데… 기석이가 말했소?》
처녀는 대답을 피하고 자기 말만 하였다.
《그걸 승진연출가나 영무연출가가 알지 않아요?》
《기석이가 말하지 않았으면 알수 없소.》
처녀는 안도의 한숨을 조용히 내쉬였다.
《됐어요. … 그럼 됐어요. …》
《기석이가 뭐라고 했소?》
《됐어요. 그 말은 그만두자요.》
철룡은 그가 자기를 비렬한짓과 련결시켜 의심했다는것을 느꼈다. 몹시 불쾌했다. 그러나 참았다. 참고 의자에서 침대의 처녀곁으로 옮겨앉아 어깨를 그러안았다. 이전과는 달리 그 어깨가 싸늘하고 딴딴하고 가냘프게 느껴졌다. 미혜는 물리치지 않고 고개만 반대쪽으로 틀었는데 흘러내린 머리칼사이로 목덜미의 살결이며 기미가 들여다보였다.
《미혜… 미혜… 동무는 뭔가 달라졌소, 이게 어떻게 된 일이요?》
《절 어떻게 할 결심인가요?》

《어떻게 하다니… 그건 무슨 소리야?》

《모르는척하지 말아요. 우리는… 마지막 말을 할 때가 됐다고 봐요. 다 터놓고 말하자요.》

그리고 미혜는 떨리는 목소리로 철룡의 형님이 자기를 어떻게 반대한다는것을 낱낱이 이야기하였다. 어디서 들었는지 알수 없다. 그것은 철룡이가 이때까지 미혜한테 숨겨온 사실이였다.

철룡은 이마며 잔등에 식은땀이 내배는것을 느꼈다.

그는 분김에 주먹을 내흔들며 소리쳤다.

《공연히 성분과 가정환경을 운운하면서 별치 않은 일에서까지 사람들을 차별시하는 그런 사고방법과 관점을 나는 경멸하오. 증오하오! 우리 사회에 봉건적신분제와 비슷한 그런것이 있을수 있는가? 미혜, 사실 나는 이때까지 형을 무척 존경했고 자랑으로 여겨왔소. 그러나 그런 관점때문에 결별했소. 합숙에 들어갈 수속까지 해놓았소. 우리 문제에 대한 형의 간섭이 싫어.… 이런데도 내 마음에 의심이 가오?》

미혜의 얼굴에는 까닭모를 의혹의 빛이 질게 어리였다.

《요즘 와서야 엄마를 지난날의 생활경위때문에 내보냈다는걸 알게 되였어요. 나하고 운명을 결합하면 발전에 난관이 생기겠는지도 모르지요. 그렇게 돼도 절 아끼겠어요? 동무의 인생목표는 보통예술인도 아니고 예술행정간부로 승진하는건데…》

이것도 처음 듣는 소리이다. 철룡은 어처구니없어 허구프게 웃다가 얼굴빛이 심각해졌다. 가슴에서 피가 뛰였다.

미혜는 쏘는듯한 눈길로 그를 지켜보다가 스쳐지나가는 말로 물었다.

《집에 어떤 소위처녀가 다닌다면서요? 형님 전우인 어느 장령의 녀동생이라든가…》

역시 처음 듣는 소리이다. 군의군관학교를 갓 졸업한 한 군의소준의가 형이 감기같은데 걸리면 주사를 놓아준다고 다닌적이 있었다. 형과 막역한 사이인 장령의 녀동생이였다. 미혜자신도 그런것을 물어놓고 스스로 창피스러워지는지 얼굴이 발갛게 상기되였다.

철룡은 가슴이 떨렸다.
《그런데？》
《됐어요. …》
처녀는 눈길을 외로 돌리였다.
철룡은 진정이 모욕당한듯한 울분에 어깨가 오르내리고 숨결이 거칠어졌다.
어머니의 생활경위,예술행정간부,소위처녀… 모두 전에는 못듣던 소리들이다. 누구인가 터무니없이 훼방한것이 틀림없다.
《전 아무거나 평등한 조건에서 하고싶어요. 동정의 대상으로 떨어져 은혜를 베푸는듯한 그런 사랑은 받고싶지도 않아요. 사랑놀음은 이쪽에서 하고 일생의 반려는 다른쪽에서 구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데 난 동무를 그렇게 믿고싶지 않아요. 지금도…》
미혜의 타는듯한 눈에 이슬기가 반짝이였다.
철룡은 더 참을수 없어 주먹으로 침대를 내리쳤다.
《다 거짓말이요！ 누가… 누가 그따위 소리를 했소？》
《…》
《그게 누구요？ 말하오！》
《나한테라고 벗이 없겠어요.》
그 소리에 철룡은 가슴 한귀가 툭 터지며 뜨끈뜨끈한것이 흘러내리는듯한 느낌과 함께 눈앞이 핑 돌아갔다. 자기아닌 그 미지의 《벗》에 대한 처녀의 믿음과 그의 이름을 끝내 대지 않는 의리심에 가슴이 뒤집혀졌다.
《요전에 집에 있었소？ 내가 찾아왔을 때…》
《…》
《있었소？ 어디 나갔댔소？》
《있었어요.》
《있으면서 어째 응대를 안했소？ 부르기까지 했는데…》
《…》
《누가 와있었소？ 그 〈벗〉이란 사람이…》
미혜는 새빨갛게 피진 눈으로 그를 할깃 치떠보더니 두손으로 얼굴을 싸쥐였다.

《나가줘요…》

처녀의 나직하면서도 울음섞인 목소리가 그의 가슴을 세차게 떠밀었다.

철룡은 무엇이 이렇듯 독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는지 알지 못했다.

《미혜…》

처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구석쪽으로 가서 얼굴을 벽에 묻었다.

《사람을 뭘로 알아요? 동무하고 형하고 뭐가 달라요? 사람을 얕보지 말아요! 난 싫어요!》

《미혜…》

《…》

미혜는 가슴을 굳게 닫아맨듯 아무리 부르고 무슨 말을 해도 응대를 안했다.

벽에 붙어선 처녀의 윤나는 머리칼이며 미끈한 잔등으로 외면의 랭혹한 기운이 흐르는듯했다.

철룡은 열이 올라 어떻게 되여 일이 이렇게 되였는지 어렴풋이 느꼈을뿐 그 깊은 원인을 몰라 분통이 터져올랐다. 그는 마음이 잔뜩 헝클어지고 또 화김에 모진 소리를 망탕 퍼부었다. 그러다가 처녀의 한숨섞인 목소리를 똑똑히 듣게 되였다.

《산에 묻은 병들을 다 파내서 깨버려요. 거기서 안하면 내가 하겠어요.》

철룡은 종잡을수 없는 분격과 울분을 이기지 못해 복도로 나왔으며 공연히 이런다고 생각하면서도 문을 란폭하게 닫아버렸다.

안에서 가슴을 찢는듯한 흐느낌소리가 새여나왔다.

그 소리에 철룡은 한동안 못박힌듯 서있다가 훼방자에 대한 분격이 앞서 밖으로 나왔다.

(훼방자는 한기석이다. 틀림없다!)

까닭없이 이런 생각이 뇌리에 번개쳤다.

거리로 나간 철룡은 사람들의 물결속을 허둥지둥 누벼나갔다. 부옇게 흐려진 눈앞에 모란봉과 대성산, 룡악산의 땅속에 박아넣은 유리병들이 얼른거렸다.

(형은 병원에 갔다가 한기석이를 만났다고 했다. 미혜도 그한테 문병갔다 오다가 차에 치울번했다. 그렇다. 불을 보듯이 명백하다. 그가 어간에서 형한테도 미혜한테도 훼방을 놀았다. 그한테로 가자, 결판을 내고 떠나자!)

그가 건늠길을 건너가는데 바람을 일으키며 앞으로 지나가던 대형화물차가 아츠러운 마찰음을 내며 멎고 운전실에서 웬 사람이 환성을 지르며 뛰여내렸다.

《여―》

작업복차림의 배명준부국장이였다. 그는 달려와서 다짜고짜로 철룡의 손목을 잡아끌고 가로수밑으로 가더니 떠들썩하게 축하의 인사를 쏟아부었다.

《들었소. 축하하오. 아까 거리에서 형수님을 만났지요. 저자보러 뛰여다니더군요. 형님도 저녁에 오신다고 했소. 집에 일찌기 들어가시오.》

《어디로 가시는 길입니까?》

《우리야 건설장에밖에 갈데가 있습니까. 허허허… 빠리, 에펠탑, 개선문… 잘― 보고 오시오. 돌아오면 인상담을 들으러 가겠습니다.》

남의 기쁨을 자기 기쁨으로 여길줄 아는 이 선량한 설계가는 취흥이라도 드는듯 얼굴이 벌개져서 그의 손등을 다정하게 쓸어만졌다.

《얼마나 큰… 큰 신임이요. 연출가선생한테 기대가 크신것 같습니다.》

배명준은 선망의 눈길로 그를 쳐다보며 여러 말을 더 한다음 작별인사를 하고는 웬일인지 한쪽다리를 절뚝거리며 차로 뛰여갔다.

가로수밑에 그냥 서서 파르스름한 연기를 날리며 멀어져가는 대형화물차뒤꽁무니를 지켜보던 철룡은 문득 얼굴이 화끈거리고 가슴이 저려왔다. 모두 선망의 눈길로 쳐다보는 자기, 큰뜻에 떠받들려 먼길을 떠나는 자기로서 사사로운 감정에 사로잡혀 경박하게 의분을 터뜨리며 뛰여다닌것이 부끄러워났던것이다. 한기석의 말

쑥한 얼굴이 떠올랐다. 그를 만나 무슨 소용인가, 훼방을 놓았다고 실토할것인가, 아니다. 수다스러운 말로 그런 일이 없다고 잡아뗄것이다.

철룡은 이마살을 사납게 찌프리고 모두숨을 길게 내쉬다가 발걸음을 돌렸다.

그순간 다른 생각이 가슴을 쳤다.

(그는 무슨 앙심에서 나를 이처럼 타격하는가?… 자기 의사를 따르지 않는다고?… 자기를 부정하고 비판한다고? 아니다. 나는 계책으로 승진의 길을 여는 그따위 진창길로 갈수 없다. 이런 타격을 받고 미혜와 아주 헤여진대도 천만에… 비틀거리지 않을테다. …)

인도로 지나가는 행인들이 가로수밑에 심각한 얼굴로 서있는 그를 흘깃흘깃 돌아보았다.

3

어머니!

저는 앓지 않고 건강해요. 일도 잘하고 밥도 잘 먹구요. …

여기 평양은 벌써 화창한 봄, 봄이 왔어요. 모란봉 기슭과 천리마동상아래쪽거리에 늘어선 나무들에 꽃들이 활짝 피여 멀리서 바라보면 연분홍구름이 뭉게치는것 같아요. 아침저녁은 좀 쌀쌀하지만 계절에 민감한 처녀애들은 어느새 모두 봄철옷으로 단장했어요.

그래서 저도 어제 어머니가 그전에 해준 혼방직치마저고리를 옷장에서 꺼내 다리다가 그만 눈물을 짓게 되였어요. 거기는 아직도 날씨가 차겁겠지요?

어머니, 지난달 두번씩이나 보낸 편지를 받았겠는데 어째 회답이 없어요? 어디 편찮으신가요?

그리운 어머니, 제 생활에서 생긴 변화에 대하여 알리고싶어 이

렇게 갑자기 편지를 쓰게 되였어요. 놀라지 마세요. 전 철룡동무와 아주 헤여졌어요. 그 동무 형님이라는 사람이 엄마가 촬영소에서 나온 문제를 두고 여러가지 억측을 하면서 엄마의 과거생활까지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병원에 입원해있는 한기석오빠한테 찾아와서 여러모로 캐여묻다가 나중에는 제가 예술을 그만둬야 자기 집안으로 들어올수 있다고까지 하더라지 않아요. 기석오빠가 솔직히 말해주지 않았더라면 전 아무것도 모를번했어요.

엄마, 과거에 무엇을 잘못했어요? 아니, 아니예요. 전 엄마가 깨끗이 살아왔다는것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어릴적부터 그것을 느꼈어요. 엄마가 경찰당국의 체포령이 내리자 서울을 떠나 38도선을 넘을 때 저는 겨우 다섯살이였지만 지금도 그때의 한가지 일만은 기억에 생생해요.

어머니는 그때 세상에 얼굴이 널리 알려진 배우였기때문에 분장으로 판판 다른 얼굴을 만들어가지고 기차에 탔어요. 그때 엄마는 눈섭을 굵게 그리고 입안에 솜을 넣어 볼을 부풀게 하여 얼굴인상을 험하게 했어요.

철없는 나는 무섭다고 자꾸 칭얼거리며 그 솜을 빼버리고싶어 엄마 입안에 손가락을 밀어넣자고 보채였어요.

엄마는 얼굴이 해쓱해져 얼른 내 입에 젖을 물리기도 하고 가슴에 꼭 붙안고 잔등을 다독여줬어요. 그때 엄마의 가슴이 쿵쿵 뛰던 소리가 지금도 들려오는것 같아요. 그것은 엄마의 깨끗한 량심이 고동치는 소리였어요.

그 사람은 도대체 무슨 권리로 깨끗한 량심으로 예술을 해온 엄마의 지난날을 함부로 의심할가요. 높은 사회적지위때문에 아무나 허술히 여기고 얕보는것일가요. 만약 그의 누이나 어느 누가 엄마와 같은 처지에 있었다면 과연 엄마처럼 깟깟이 살아올수 있었을가 하는 생각까지 들어요.

형님이 그런다고 해도 철룡동무만 사람이 참되면 모든것을 참았겠어요. 그러나 그도 자기 형과 비슷한 사람이라는것을 느끼게 되였어요. 자기를 존중하지 않는… 상대의 도덕생활까지 함부로 의심하는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마음을 의지해요. 비굴해

질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헤여졌어요. 결별을 선언했어요. 그런 사람과 헤여진건 잘된 일이지요. 엄마, 저는 전혀… 전혀 괴롭지 않아요.

기석오빠도 그의 형을 만나보고 너무 불쾌하여 그만두어도 나를 탓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귀중한 어머니, 저는 개인생활에서 실패했지만 상심하지 않고 있어요. 이제부터 모든 잡념을 다 털어버리고 예술창조에 정열을 깡그리 쏟아붓겠어요. 엄마 몫까지 합하여 예술을 끝까지 하겠어요. 기석오빠랑 곁에 있기때문에 전 외롭지 않아요.

한기석오빠는 요새 병원에 입원했는데 저는 이따금 문병가요. 나를 진심으로 돕자고 애써요. 아마 어머니와 사망한 자기 아버지와의 오랜 우정을 생각해서 그러는것 같아요. 얼마나 의지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기석오빠네는 모든 일이 다 잘되는데 말은 안해도 집때문에 좀 마음고생을 하는것 같아요.

기석오빠네하구 집을 바꾸면 어떨가 하는 생각이 불쑥 드는 때도 있어요. …

어머니, 인차 회답편지를 쓰세요.

마음속으로 어머니의 두손을 꽉 감싸쥐며…

딸 미혜 올림

×

연한 단풍잎무늬벽지를 깨끗이 바른데다가 군에서 생산되는 이불장이며 책상, 경대와 같은 가구들이 제자리에 방정하게 놓여 산뜻한 운치가 흐르는 아담한 방안에는 저녁해빛이 환히 들어 돋보기 없이도 편지를 읽을수 있었다. 이불장우에 겹놓인 두개의 낡은 외국제 려행용트렁크만 아니라면 이 방은 농촌문화주택의 보통살림방이나 조금도 다름없을것이다.

책상에 마주앉아 딸의 편지를 두번세번 거듭 읽어가는 리명선의 단정하게 빗어넘긴 희끗희끗한 머리칼에는 서리가 하얗게 내

려앉은듯싶었다.

그가 촬영소에서 나올 때 주영도비서는 촬영소에 있은 전기간의 사업과 생활을 친절하게 총화해주면서 소소한 결함은 있었지만 총체적으로는 일을 잘했다는것이 당위원회의 평정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뒤따라 때문에 영화예술계에서 나가도 공로보장자의 대우를 받도록 해당 기관에 문건을 넘기기로 했다고 알려주었다. 고마왔다. 눈물겹도록 고마왔다. 일반사회에 나온 그는 시끄러운 일도 별로 없이 인차 수속이 되여 주영도비서의 말대로 공로보장자의 대우를 받게 되였다.

그러나 그것이 큰 기쁨으로는 되지 못했다. 한평생을 바쳐온 영화예술에서 떨어져나온 그는 허전함때문에 생활적인 의욕을 상실한 사람처럼 맥없이 방안에 누워있거나 우두커니 앉아있는 일이 태반이였다.

미래는 거의 없고 긴 과거만 있는 그는 지나간 생활에 대한 추억으로 자신의 공허한 마음을 메꾸는수밖에 없었다. 그러고있을라니 마음과 몸에 곰팽이가 끼는것 같았다. 사람이란 추억만으로는 살수 없는 존재였다.

경로동직장에 나갔다. 거기서 일하니 말동무도 생기고 가슴에 새로운 의욕도 움텄다. 그 의욕이란 모두 자기의 희망인 미혜와 관련되는것이였다. 미혜를 잘 뒤받침해주어 영화예술에 크게 이바지하도록 하자. 철룡이를 사위로 맞아들여 남부럽지 않은 가정을 꾸려보자. 이렇게 결심하니 활기가 되살아올랐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생겼다. 한때 세상에 얼굴이 널리 알려졌던 명배우, 화보와 달력, 그림엽서에까지 그 우아한 미모의 사진이 실렸던 녀배우가 경로동직장에서 아이들의 완구를 만든다는 사실이 사람들속에 여러가지 의혹과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던것이다.

그리하여 지난 시기 적대분자들의 준동으로 인한 어떤 미지의 사건과 관련된 혐의가 있다느니 어느 예술가나 어떤 국가경제기관의 일군과 불순한 정사가 있었다느니 하는 따위의 여론이 돌았던것이다.

미혜는 그것들이 엄청난 허위라는것을 잘 알고있었지만 몹시 분

해하고 괴로와하였다. 허위도 사람의 영상에 더러운 흔적을 남길수 있는 일정한 능력을 가지기때문이다.

리명선은 괴로와하는 딸을 볼적마다 명우나 가인의 마지막 행복은 늙어서 추한 인상을 남기기전에 요절하는것이라는 어느 옛 미학자의 말을 상기했다.

그는 어느덧 딸에게 도움은커녕 부담만 끼친다는 병적인 가책이 가슴속에 자라올랐다. 게다가 더 심해진 위장병이 그를 괴롭혔다.

비가 억수로 퍼붓는 어느날 집에 뛰여든 조카가 구원의 손길을 뻗쳐준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었다. 먼 북방 산간벽지에서 지질탐사대에 근무하고있는 조카는 평양회의에 올라왔다가 들렸었는데 앓아누운 그를 보더니 자기고장으로 당장 내려가자고 했다. 자기네 탐사구역에서 약수가 발견됐는데 어떤 고질적인 위장병에도 특효라는것이 검증되였다는것이였다.

리명선은 조카네 집에서 몇달 떠받들려 지내면서 약수치료를 받았는데 후한 인심과 약수덕인지 병이 가라앉기 시작했다. 건강도 괜찮아졌다. 그러나 식솔이 많은 조카네 집에 그냥 눌러있자니 미안한 생각이 없지 않았다.

때마침 지질탐사대마을을 찾은 군당책임비서가 그의 사정이야기를 듣고는 병원도 가까운 읍에 내려와있으면서 약수치료를 받으라고 권했다. 그리고는 읍농장 문화주택마을에 깨끗한 방까지 하나 주선해주었다.

조카네 식구들이 한사코 말리는것을 겨우 뿌리치고 거처를 옮긴 그는 한두해 걸리더라도 아예 병의 뿌리를 뽑자고 결심하여 읍에 림시거주까지 붙이였다.

그리고는 병치료만 받으며 그냥 빈둥거릴수 없어 어느날 군당으로 찾아가 책임비서에게 아무일이나 하고싶다는 의향을 내비쳤더니 치료여가를 리용해서 이따금 군문화사업이나 도와주면 고맙겠다고 하면서 읍농장의 부대로력명단에 이름을 넣어주었다.

아마 그는 부대로력으로 있으면서 가벼운 로동을 하면 건강에도 좋고 약간한 수입도 차례질수 있다는것을 타산한것 같았다.

농장원들은 영화들을 통하여 얼굴을 익힌 리명선을 이미부터 가까이 지낸 친지처럼 대하였다.

그들은 리명선이 자기네한테 와있는것을 큰 자랑으로 여겼다. 결혼잔치같은것이 있어 먼곳에서 친척들이 오거나 자신들이 그러루한 일로 먼곳의 친척집에 가게 되면 의례 리명선의 이야기를 화제에 올려 자기네 고장에 와있다고 자랑하였다.

그가 농장밭에 나가 영양단지 만드는 일같은것에 손을 대면 못하게 말리는가 하면 어디 이런 일을 할줄 아는가 보자는듯 빙 둘러서서 너그러운 미소들을 머금고 구경하기도 했다. 휠참에는 그를 둘러싸고 오만가지 질문들을 다 했다. 그와 영화에 대하여 끝없이 물어보며 영화를 만드는 일과 농사를 짓는 일이 어느편이 더 힘들고 더 재미나는지 가늠해보는것 같았다. 그리고 배우들의 가정생활에 대하여, 부부관계에 대하여 물었고 방은 어떻게 꾸리고 살며 부엌세간은 어떤것을 쓰는지 알고싶어했다.

한평생 농사를 지으며 백리밖에도 못나가보았다는 남정네처럼 생긴 아낙네는 그의 곱고 매출한 손과 자기 넉가래같은 손을 비교해보면서 가슴을 찌르는 소리를 했다.

우리가 지어보낸 낟알을 먹고 살아왔겠는데 거기서는 손이 이렇게 곱다고… 그러다가 그의 머리칼을 흘깃 쳐다보더니 농사일밖에 모르는 자기네는 손부터 늙어가는데 거기서는 머리부터 센다고 하며 한숨을 내쉬였다.

농장원들은 먹을것이 좀 생겨도 바가지나 사발에 담아들고 그한테로 뛰여왔다. 아침에 문을 열고 밖에 나갔다가 누구인가 밤사이에 바싹 마른 땔나무단들을 마당가에 무져놓은것을 띄여보고 깜짝 놀란적이 한두번이 아니였다.

유치원에 다니는 조무래기들까지 부모들이 따라다니지 말라고 엄하게 단속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자꾸 보고싶어 널바자의 틈새기나 나무옹지구멍으로 문쪽을 들여다보며 울바자밑에 오래도록 옹기종기 붙어있는것이였다.

그는 자기한테로 쏠리는 근로하는 사람들의 이 모든 사랑과 관심속에서 조선사람처럼 예술을 사랑하는 인민, 예술적인 민족이

어디 있으랴싶어 때때로 깊은 상념에 잠기게 되였으며 영화예술에 대한 그들의 애정과 기대도 민족성과 결부시켜 가슴뜨겁게 받아들였다.

그래서 영화예술계에서 비록 떨어져나왔지만 그리고 영화예술과 옛동지들에 대하여 의견과 섭섭한 마음이 전혀 없는것도 아니지만 좋지 못한 소리 한마디 안했다.

그렇게 한것은 또한 자기 인격에 대한 자각뿐아니라 순박한 마음들이 정서적위안을 얻으며 리상적으로 그려보는 그 세계에 조금이라도 흠이 가거나 그늘이 드리우게 하고싶지 않아서였다.

리명선은 널바자의 틈새기와 나무옹지구멍에서 초롱초롱 빛나던 그 눈동자들을 숨져도 잊지 못할것 같았다. 그 눈동자들을 통하여 민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농장원들의 마음이 자기 한평생의 예술생활을 꿰뚫어보는것 같아서였다.

사실 그는 농장원들의 사랑어린 보살핌을 받으면 받을수록 아리숭한 가책을 느끼며 지난날을 더듬어보게 되군하였다.

예술창조와 개인생활에서 뉘우쳐지는것이 한두가지 아니고 량심과 선행으로 채우지 못한 부끄러운 공백들이 환히 보이는듯하여 남몰래 괴로움에 잠기는 때도 있었다.

그는 영화계에서 활동하던 때보다 그 세계를 아주 떠난 지금에 와서 자신의 예술생활을 놓고 전에 없던 반성을 하게 되는것이였다. 그러나 이제는 지난날의 빈 공백을 무엇으로써도 메꿀수 없다는것을 생각할 때 울적한 가운데 가슴이 쓰려나지 않을수 없었다.

배우단에서 오는 편지마다에는 놀라운 소식들이 적혀있었다. 절망하여 쓰러진 최승진의 집으로 **김정일**동지께서 몸소 찾아오셨다는것이며 그이께서 영화예술을 친히 지도하시여 촬영소로 자주 나오신다는 등 영화계에서 일어나는 가지가지 눈부신 변혁들에 대하여 써보냈던것이다. 리명선은 가슴저린 후회에 잠겼다. 그때 앞뒤를 재지 않고 왜 그렇게 훌쩍 영화계를 떠나고말았던가.

마침내 그는 여기에서나마 영화예술에 보탬이 될수 있는 일을 하리라고 마음먹게 되였다. 그가 이제 와서 영화예술을 위하여 할수 있는 일이란 자기를 통하여 영화계를 상상할수 있는 농장원들앞

에서 영화예술과 영화예술인들의 체면이 깎이지 않도록 처신하고 행동하는것이였다.

그래서 그는 농장밭에 일하러 나갈 때에조차 머리단장과 옷차림에 마음을 썼고 방안을 거두거나 마당청소를 할 때에도 놀라운 정성을 쏟아부었다. 말 몇마디를 해도 문화적으로 옳바른 뜻을 담아서 하려고 애썼다. …

이렇게 생활하는 그에게 있어서 미혜의 편지는 청천벽력과도 같은것이였다.

그 애들이 갈라지다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엄마를 달래기 위하여 전혀 괴롭지 않다고 쓴 딸의 심정이 안겨와 가슴이 찢어지는듯 아파났다. 전혀… 전혀 괴롭지 않다는 그 말이 참지 못할 괴로움의 고백처럼 느껴졌다. 철룡이와 그의 형에 대한 노여움이 불길처럼 가슴에서 타오르다가 미혜의 지나친 자존심이 이런 파탄을 가져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이윽고 가슴이 좀 가라앉자 한가닥의 의혹이 실연기처럼 피여올랐다. 그것은 한기석이 어떻게 되여 미혜의 개인문제에 깊이 끼여들게 되였는가 하는것이였다. 미혜에 대한 그의 각별한 호의와 관심도 웬일인지 께름하게 여겨졌다. 미혜가 그것을 부모들의 우정과 결부시켜 해석하고있는데는 더욱 의아해지지 않을수 없었다.

미혜의 아버지가 병사한 다음 내내 독신으로 지낸 그는 진정에 넘친 혹은 허위가 섞인 구애의 눈길에 한두번만 쫓긴것이 아니였지만 절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개별적인 남성들과 우정이 깊어지는것조차 될수록 피하려고 했었다. 고인이 된 남편에 대한 렬녀다운 충정때문이나 이성에 대한 갈망이 전혀 없어서가 아니였다.

성애를 속박하는 모든 계률을 뿌리치고 세상이 뭐라고 하든 구애의 눈길을 보내는 남성의 품으로 달려가고싶은적도 없지 않아 있었다.

락엽이 우수수 흩날리고 차거운 달빛이 창문으로 흘러드는 가을밤 고독감에 이불을 뒤집어쓰고 소리내여 운적도 있었다. 그러나 입술을 깨물고 참았다. 자기는 예술가이고 인민이라고 하는 존엄있

는 호칭으로 불리우는, 세상사람들이 자기를 다 알고있다는 자각 때문이였다. 순간의 환락으로 한평생의 창조적로동으로 획득한 명예에 흙탕칠을 하고싶지 않았고 엄청나게 과장되여 세상에 돌아갈 소문도 두려웠는지 모른다.

독실한 절제가 자기 본위적인 랭담성으로 오해되고 주위에서 여러가지 비난과 뜻밖의 불만이 일어나 마음을 괴롭혀도 속이 흔들려 값눅은 열정에 몸을 맡길대신 의지를 가다듬고 자기를 지켜왔다. 이것은 세상이 모르는, 딸조차 눈치채지 못한 독신녀성의 어려운 싸움이였다. 보통직업의 행복한 녀인들은 짐작조차 할수 없는 슬픔이고 고행이였다.

그에게는 이성과의 각별한 우정이 없었다. 지난날 리명선은 연극극장 녀배우들의 말을 통하여 한기석의 아버지인 연극연출가 한민에 대한 희미한 인식을 가지고있었다. 그는 예술창조에서는 요구성이 매우 강하며 개인생활에서는 자신과 남에게 꼭같이 엄격한데 인간적인 매력은 덜한 사람이라고 하였다.

리명선은 작가예술인들의 회합같은데서 이따금 한민을 만났는데 그저 눈인사나 하고 지나치군하였다. 그런데 부모들의 우정이란 무슨 소리인가. 편지를 보면 한기석이 미혜를 남달리 보살펴주고 나가서 뒤에서 은근히 조종하고있는것 같으며 미혜 또한 그를 몹시 따르고있는것이 틀림없었다.

리명선은 어머니로서 이 일을 다행으로 여겨야 할지 불안해야 할지 또 한기석이를 고맙게 여겨야 할지, 께름직하게 여겨야 할지 알지 못했다. 그러나 먼곳에 딸자식을 두고있는 어머니의 로파심이 더 커서 딸한테 이렇게 편지하리라 마음먹었다.

(미혜, 귀여운 내 딸아! 설사 몇몇 사람들이 나를 의심하는 소리를 듣는다 해도 그건 공연한 편견이니 절대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당을 철석같이 믿어라. 이 엄마는 여태 당에 대해 한번도 의심을 품은적이 없다. 당조직도 또한 나를 의심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때까지 마음 편안히 지내올수 있었다. 의심하지 말라. 털끝만치도… 철룡의 형되는분에 대해서도 너무 나삐 생각지 말아라. 혈친의 일생이 결정되는 혼사에서는 누구나 신경을 날카롭게 세워 좋

은것, 나쁜것을 다 알아보자고 할수 있는것이란다. 엄마는 미혜가 너무 경솔하게 속단하지 않았을가 하는 생각도 없지 않구나. 너의 자존심이 언제나 탈이야. 다시한번 깊이 생각해보는것이 어떠냐… 집문제에 대하여 말한다면 벌써부터 양보해주고싶었다. 누구나 중요하게 활동하고있는 사람한테. 우리 둘이야 보통주택에 들어도 넉근하지 않느냐… 한기석동무 일이 고맙기는 하지만 어느 한사람 말만 듣고 행동하지 말아라…)

리명선은 밖에서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려왔을 때에야 비로소 얼굴을 들었다.

문밖에서 분조장의 걸걸한 목소리가 울렸다.

《배우오마니ㅡ》

그는 목이 잠겨 가까스로 대답했다.

《네ㅡ》

《바람을 쐬지 않을려우? 새 영화가 왔는데 청년분조애들이 함께 보구파 설설 끓어요ㅡ》

새로 왔다는 영화는 《한 자위단원의 운명》이였다.

군문화회관은 영화가 좋다는 소문을 듣고 모여든 사람들로 초만원이였는데 회관안에 들어와 앉은 사람들보다 밖에서 붐비는 사람들이 몇배나 더 많은것 같았다. 밖에서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가 그냥 들려오는가 하면 창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회관을 들부시겠다는 위협적인 소리까지 흘러들어왔다. 그러다가 일이 어떻게 되였는지 중간통로로 사람들이 정신없이 밀려들고 창문들이 벌컥벌컥 열리며 날파람있는 청년들이 안으로 뛰여들었다. 삽시간에 회관안은 수라장이 되고말았다. 영사막앞에 나타난 회관 관장이 안경알을 번뜩이며 창문으로 날아든 청년들에게 험악한 욕설을 퍼붓더니 장소관계로 영화를 중학교 운동장에서 하게 된다고 소리쳤다.

리명선은 청년분조원들에게 에워싸여 앉아 영화를 보았다. 호기심 많은 처녀분조원들은 화면에 나타나는 배우들의 나이며 고향, 출신학교, 가정에 대하여 소곤소곤 물었는데 그는 처음에는 묻는것족족 귀속말로 대주다가 얼마 안있어 대답을 전혀 못하게 되였

다. 영화에 심취되여서였다. 작품은 자위단에 끌려간 농민청년의 눈물겨운 생활을 펼쳐보이면서 투쟁만이 살길이라는 생활철학에로 관중을 이끌어가고있었다. 전에없이 진실한 생활묘사와 놀라운 화면구도, 인물들의 뚜렷한 개성, 가슴을 치는 철학적인 대사, 심금을 뒤흔드는 음악, 눈부시게 선명한 화조… 영사막에 흐르는 화면에서는 불같은 열정과 소심과 답습, 틀을 짓부시는 개척자의 호탕한 기백이 풍겨왔다. 가슴에 육박해드는 생동한 형상들의 박력에 숨이 막히는듯하였다.

리명선은 자기가 버리고온 창조의 세계에서 일어나고있는 변혁이 가늠되였으며 그 변혁의 불길속으로 뛰여들고싶은 욕망이 터져올라 몸부림치다가 저도 모르게 신음소리를 내며 얼굴을 싸쥐였다.

(이제 무슨 면목으로 돌아간담… 돌아간들 받아줄가…)

옆에 앉은 처녀가 그의 팔을 흔들며 어디 아픈가고 물었다.

리명선은 정신없이 일어나 사람들속을 황황히 누비며 운동장밖으로 나왔다.

그는 어둠속에 묻힌 길을 따라 어디라없이 허둥지둥 걸어갔다.

(내가 촬영소에서 나오지 않았다면 철룡의 형되는분도 그런 의심을 품었겠는가… 나때문에 저 애들의 사랑까지 깨지지 않았는가. 아, 내가…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가!)

그는 입을 싸쥐며 눈물을 삼켰다.

4

평양비행장에 나가 영화예술인들과 함께 로영무네 일행을 바래워주고 시내로 돌아오는 박경섭의 마음은 기쁘면서도 은근히 불안하기도 하였다. 체스꼬일정은 비교적 안심이 되나 프랑스일정에는 걱정되는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이제 저들이 가게 될 낯선 대륙, 피부색과 풍습과 언어가 다를뿐아니라 사상과 사고방

법이 판판 다른 세계, 그 생소한 문화권에서 세사람한테 무슨 일이 생길지 그것은 짐작할수도 없는 일이였다. 누구보다도 최승진이 걱정스러웠다. 그러지 않아도 서유럽문화에 대한 환상이 있다는 그가 거기 문화에서 더 나쁜 영향을 받지 않을가싶은 우려도 없지 않았다. 강철룡은 세관검열을 받을 때 몹시 덤비여 트렁크를 바닥에 떨구기까지 하였는데 먼 려로에서 꼭 무슨 재구를 칠것만 같았다.

그날 박경섭은 당중앙위원회로 돌아와서 로영무네 일행이 떠난것을 **김정일**동지께 보고드리려고 했는데 그이께서는 집무실에 계시지 않았다.

그는 **김정일**동지를 만나려고 애썼다.

로영무네가 떠나간것도 보고드리고 새로 제작된 두편의 예술영화와 1편의 기록영화, 3편의 과학영화를 그이께 보여드리고 지도를 받고싶어서였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의 개인적인 욕심이고 **김정일**동지께서 보살펴야 할 전반적인 사업분야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은 문제였다. 며칠후 박경섭은 그이께서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북부공업지대를 현지지도하고계신다는것을 알았으며 당보에 실린 그 현지지도기사를 읽게 되였다.

거의 20일이 지나 현지지도에서 돌아오신 **김정일**동지께서 소회의실에서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을 모아놓고 우리 나라 강철공업과 석탄공업, 산간지대농업의 실태와 그에 대한 당적지도에서 나타나고있는 심중한 결함들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박경섭은 제일 뒤자리에 앉아있었다.

그는 북방의 해별과 바람에 타서 검실검실해진듯한 **김정일**동지의 얼굴을 먼발치에서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자신을 몹시 뉘우쳤다.

(영화예술에 좀 관심을 돌려주신다고 별의별 작은 문제까지 다 지도를 받고싶어했다. 얼마나 주제넘고 또 얼마나 천진란만한가…)

박경섭은 그이를 찾아가지 않았다.

며칠후 그는 당중앙위원회청사의 복도에서 인민군장령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걸어오시는 **김정일**동지와 마주치게 되였다.

박경섭은 머리를 숙여 그이께 인사를 드리고 복도벽쪽으로 비

켜섰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반겨웃으며 걸음을 멈추시였다.

《아니, 어째 그렇게 피합니까?》

박경섭은 가슴을 힘차게 울려주는 그 물음에 당황해져 어줍게 웃어보였다. 장령들도 미소를 머금었다.

《영화예술계는 요즘 어떻습니까. 별일이 없습니까?》

《예…》

얼결에 이런 대답이 나갔다.

《일이 잘돼서 별일이 없습니까, 침체해서 그렇습니까?》

《새 영화들이 여러편 나왔습니다.》

《언제 나왔습니까?》

《한 20일이 됩니다.》

《나는 전혀 모르고있었습니다. 어째 나한테 알리지 않았습니까?》

《너무 분망하신것 같아…》 박경섭은 대답을 얼버무리였다.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지내 겸손해졌는가요? 나는 일 욕심이 많고 보채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오늘 그 영화들을 봅시다.》

김정일동지께서 장령들을 데리고 복도 저쪽으로 멀어지시자 박경섭은 너무 기뻐 자기 방으로 뛰여들어가 영화촬영소들에 전화를 걸었다.

그이께서는 새벽 1시가 지나서야 영사실로 들어오시였다. 예술영화부터 돌렸다.

전압의 장애가 아니겠는데 실내장면을 찍은 몇개의 화면들의 밝기가 고르롭지 못했으며 어떤 화면들의 귀퉁이에서는 까만 반점같은것들이 날아돌았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영화를 보시다가 곁에 앉은 예술영화촬영소 총장에게 촬영소의 기술설비들이 이제는 낡지 않았는가고 물으시였다. 총장은 좀 낡았다고 말씀드렸다.

그이께서 과학영화까지 다 보시고나서 소감과 의견까지 말씀하시고나니 5시가 거의 다 되였다. 박경섭이와 촬영소들에서 온 일

군들은 죄송스러움을 금할수 없었다. 그러나 **김정일**동지께서는 팔목시계를 보고 저으기 놀라와하며 오히려 그들에게 너무 늦어져서 미안하다고 말씀하시는것이였다.

그이께서는 박경섭을 따로 남게 하신 다음 오늘 예술영화촬영소에 나가보자고 하시였다.

박경섭은 아침일찍 출근하여 예술영화촬영소 총장을 전화로 찾았다. 교환수의 말이 총장은 아직 출근하지 않았다고 했다. 주영도비서는 방에 있었다.

박경섭은 그에게 오늘 **김정일**동지께서 촬영소로 나가실 예정이라고 알려주었다.

그러나 그날 **김정일**동지께서는 전당적의의를 가지는 중요한 사업때문에 시간을 내시지 못하였다.

박경섭은 이튿날 오후에야 그이를 모시고 촬영소로 나갈수 있었다.

승용차는 촬영소쪽으로 내달리다가 좁은 콩크리트다리에서 시내의 대통로들에 물을 뿌리는 한대의 살수차와 어기게 되였다.

박경섭은 무심히 그것을 지나쳐버렸는데 뒤좌석에 앉아계시는 **김정일**동지께서 불쑥 물으시였다.

《시내에 물을 뿌리는 살수차가 어떻게 되여 이런 교외에까지 나와 돌아다닙니까？》

《…》

박경섭은 무엇이라고 대답했으면 좋을지 몰랐다. 그 살수차운전사의 집이 교외에 있을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로동행정시간안에 운전사가 자유주의를 부려 어느 협동농장이나 닭공장 같은데 물자 구입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일수도 있지만 그런 사정을 어떻게 말씀드렸으면 좋을지 몰라 잠자코 있었다.

김정일동지께서도 더 캐여묻지 않으시였다.

승용차가 촬영소가까이에 이르자 살수차의 사연은 저절로 밝혀졌다. 촬영소에서 얼마 멀지 않은 주택지구옆으로 내뻗은 도로가 여느때없이 깨끗이 쓸어졌고 그우에 물까지 뿌려져있었던것이다. 촬영소정문앞에는 물이 너무 많이 뿌려져 포장도로가 질쩍하여

차바퀴밑에서 짜르르… 하는 소리까지 났다.

물이 뿌려져 먼지 한점 일지 않고 공기마저 시원해진 촬영소 뜨락에는 명절옷차림을 한 녀배우들과 영화예술인들이 두줄로 늘어서서 설레이고있었다.

김정일동지께서 차에서 내리시자 영화예술인들속에서 박수소리가 터져오르고 한 나어린 녀배우가 달려나와 그이께 머리를 깊이 숙여 인사하고는 이슬이 흐르는 싱싱한 생화묶음을 드리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나어린 녀배우에게 인자하게 웃어주시며 꽃다발을 받으시였다. 박경섭이 그이께서 넘겨주시는 꽃다발을 받아 차안에 놓는데 총장과 주영도비서, 부총장들이 그이앞으로 모여들어 인사를 드리였다. 그리고는 그이를 응접실로 안내하였다.

응접실도 전에없이 깨끗이 꾸려졌다. 안락의자들의 팔걸이와 등받이에 덮여있는 하얀 꽃무늬카바며 화분대들에 놓인 오죽과 백송화분들에서 풍기는 신선한 기운이 정갈하고 아늑한 방안의 운치를 한결 돋구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안락의자에 앉지 않고 응접탁결의 포의자에 앉으시여 미소어린 얼굴로 곁에 서있는 총장을 쳐다보시였다.

《총장동무, 어째 명예위병대를 세울 생각은 못했습니까?》

《예?…》

총장은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한듯 당황한 눈길을 박경섭과 주영도쪽에 돌렸다.

《어째서 오늘 우리를 이렇게 요란하게 영접합니까? 시내에서 살수차까지 불러오고 환영대렬을 세운다, 꽃다발을 안겨준다… 오래간만에 왔기때문에 이럽니까?》

총장은 얼굴이 벌겋게 되여 그저 어줍게 웃어보이기만 했다.

《나는 일하러 왔습니다. 앞으로는 이러지 말아주십시오. 수령님께서 오실 때에는 최대의 정성으로 맞이해야 합니다. 그러나 나한테는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수령님의 전사일따름입니다. 오직 위대한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고 수령님께 충실하는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총장이 눈길을 아래로 숙이는데 주영도비서가 난처한 립장에

서 그를 건져주려는듯 한걸음 나섰다.

주영도는 진정이 번쩍이는 눈으로 그이를 우러러바라보며 절절하게 말씀드렸다.

《너무 나삐 생각지 말아주십시오. 이건 우리 촬영소 전체 당원들과 영화예술인들의 진심입니다. 그… 저… 살수차로 말하면 시도시경영사업소에서 세포비서로 있는 조명직장장 형이 보내준겁니다. 오전에 동생한테 볼일이 있어 왔다가 오신다는것을 어떻게 알게 되여 보내주었습니다. 우리가 부탁한 일도 없는데 촬영소로 들어가는 길에서 먼지가 너무 인다면서 보냈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웃음을 거두시였다.

《동무들의 심정이 고맙습니다. 조명직장장 형 일도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그러시고는 안락의자에 옮겨앉으시였다.

총장과 주영도를 비롯한 촬영소일군들도 안락의자들에 자리를 잡았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그들을 둘러보시며 최근에 새로 제작된 영화들을 보니 조명상태가 원만하지 못하고 필림현상수준도 높지 못한것 같다고 하시며 애로되는 문제들이 있으면 내놓고 토론해보자고 말씀하시였다.

총장이 먼저 일어섰다. 그는 전쟁전 평화시기와 전후의 어려운 시기에 비하면 지금은 우수한 기술설비들이 갖추어져 큰 애로가 없다고 전제한 다음 문제는 기술부문의 종업원들이 설비들을 높은 수준에서 가동시키지 못하고있으며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는데 있다고 말하였다.

《우리 책임적인 일군들이 이런 부족점들을 제때에 포착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모두 당면하게 급한 예술창조에만 매달려 영화제작의 후시부문에는 관심을 적게 돌렸습니다. 우선 저한테 책임이 큽니다.》

부총장들도 그와 비슷한 말들을 한다음 자신들의 무책임성에 대하여 장황한 자기비판을 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직책상임무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얼굴모

습과 개성도 다른 그들이 판에 박은듯이 같은 소리를 되풀이하는데 저으기 놀라 처음에는 의아한 안색으로 말하는 사람들을 지켜보다가 차츰 표정이 심중해지시였다.

그이께서는 그들과 오래 이야기를 나누지 않고 배우단으로 가시였다. 넓지 못하고 어둑한 방에서 화술련습을 하고있던 10여명의 배우들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그이께 정중히 인사를 올리였다. 애로되는 문제들이 있으면 말하라는 **김정일**동지의 말씀에 대하여 그들도 역시 총장이나 부총장들과 같은 자기비판조의 말만 하였다.

연출실과 촬영실에서도 같은 소리들이 되풀이되였다.

실내촬영장에서는 농촌문화주택 방안에서 분조회의가 열리고 있는 장면을 찍고있었다.

연출가와 촬영가만 가까이로 다가오시는 그이께 인사를 올리고 배우들과 장치, 분장, 조명 성원들은 형상작업과 하던 일들을 계속하였다.

얼굴이 칼칼하게 생긴 촬영가가 촬영기를 통해 방안장면을 내다보다가 부촬영이 내미는 로출계를 여겨보았다. 그러더니 실내촬영장의 높다란 천정을 향해 소리쳤다.

《13호ㅡ 13호ㅡ 여ㅡ 13호 조명기ㅡ 자는가?ㅡ》

천정에서 석쉼한 목소리가 화답하였다.

《왜 그래요?ㅡ》

《켜라구ㅡ》

천정의 오른쪽구석으로부터 눈부신 백광이 쏟아져내려 방안을 환히 비쳤다.

촬영가는 로출계를 다시 들여다보다가 천정을 향해 또다시 소리쳤다.

《13호ㅡ 낮추라ㅡ 광도를 좀 낮추라ㅡ 좀더… 좀… 더…》

한장면의 촬영이 끝나자 **김정일**동지께서는 13호조명기를 맡았던 조명사를 가까이로 부르시였다.

천정으로부터 사다리를 타고 원숭이처럼 날래게 기여내린 작달막한 조명사는 삐딱하게 눌러썼던 모자를 벗어쥐고 그이앞으로 다가와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를 드렸다.

그의 한쪽 볼에는 검댕이같은것이 묻어있고 작업복은 온통 먼지투성이였다.

작달막한 체구에 날렵하게 생긴 그는 무급배우도 못되는 자기같은 존재가 어떻게 되여 이런 부름을 받게 되였을가싶어 반짝이는 눈으로 그이를 우러러 쳐다보다가 총장이며 부총장들쪽을 돌아보기도 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그의 나이며 고향, 받은 교육에 대하여 물으시였다. 그는 얼굴이 벌개져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하였다.

총장이 그를 대신하여 말씀드렸다.

《금년에 27살입니다. 고향은 자강도 랑림인데 아버지가 오랜 벌목군이였습니다. 그래서 어릴적부터 높은 나무로 잘 올랐는데 그 재간이 우리한테 와서 한몫 보게 됐습니다. 처음엔 공무동력전공으로 있었는데 재간이 좋아 조명직장으로 돌려놨습니다. 천정밑에 매단 조명등들이 고장이 생겨도 이 동무가 올라갑니다. 천정밑에서 거미처럼 날래게 기여다니면서 제꺽제꺽 고쳐놓습니다.》

그리고 빙긋이 웃어보였다.

《조명사도 예술급수를 받지요?》

김정일동지께서 흐린 안색으로 잠시 천정을 쳐다보다가 총장에게 물으시였다.

《예, 받습니다. … 동무, 몇급이던가?》

총장이 그에게 물었다.

《전공로임을 받습니다.》 하고 그가 입을 열었다.

《조명직장에 온지 몇년이나 됩니까?》

그이께서 부드럽게 물으시였다.

《십년입니다. 제가 공부를 못해서… 공부를 해서 꼭 조명사 자격을 받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오. … 촬영할 때는 늘 그렇게 천정에 올라가 있어야 합니까?》

《예… 조명기들이 자꾸 고장이 생기구 또 제대로 말도 듣지 않아 올라가있어야 합니다.》

《겨울에도?》

《예…》

《천정 바로 밑인데 춥지 않습니까?》

전공은 눈길을 어딘가 그이의 뒤쪽에 돌렸다가 주저하며 대답하였다.

《예… 좀 춥지만 옷을 든든히 껴입구 올라가기때문에 괜찮습니다.》

그이께서 무심결에 뒤를 돌아보니 부총장들속에 주영도비서가 긴장된 낯빛으로 서있었다.

《촬영이 오래 걸리면 몇시간씩 올라가있어야 하겠습니다?》

《예…》

《야간촬영할 때 존다든지 하면 떨어질 위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앉아있을 자리에 발판을 깔아놓습니다. 일없습니다. 쉴 때면 꼭 발판에 돌아와 쉽니다.》

《발판에서 멀리 떨어진 조명기에 나갔다가 거기서 오래 머물게 되면 어쩝니까?》

《거기서 졸았다간… 뼈도 못추립니다.》 그리고 제가 한 소리가 우스운지 씩 웃어보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안색이 매우 심중해지시였다. 세상사람들은 자막에 이름 한번 오르지 못하고 뒤에서 묵묵히 영화창조에 이바지하고있는 이런 숨은 근로자가 있다는것을 전혀 모르리라는 생각이 들며 그가 측은하기도 하고 사랑스럽게도 여겨졌다.

《총장동무, 조명기구들을 빨리… 결정적으로 개선해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과학기술수준이 높기때문에 기술신비주의에 빠지지 않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면서 발전된 공업의 도움을 좀 받는다면 조명기구들을 능히 원격조종화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내촬영장을 떠날 때 그이께서는 전공의 손을 잡아쥐며 따뜻하게 이르시였다.

《쉴 때에는 꼭 발판으로 돌아와야 하오.》

전공의 손바닥은 날가죽처럼 꽛꽛했다.

5

식당앞에서 얼굴이 갱핏하게 생긴 중년의 취사원아주머니가 머리가 희끗희끗한 작가의 팔소매를 붙잡고 안으로 끌어당기고 있었다.

《점심도 안들었는데 시장해서 어떻게 그냥 갑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들어가자요. 점심밥이랑 가마목에 남겨둔채로 있어요. 그냥 떠나보내면 우리라구 맘이 편하겠어요? 자,어서요.》

《됐습니다. 됐습니다. 밥값두 못하는 주제에 한끼쯤 건너뛰는게 무슨 큰일이겠습니까.》

《아유,촬영소에 섭섭한 일이 한두가지 아닌게군요. 그 편성원아저씨 말엔 탓하지 말라요. 어느 작가선생님하구나 다 언쟁을 해요. 도끼입이라니까요. 한번 주제가 어떻다— 하구 내리찍으면 수고스럽게 쓴 작품을 아예 결단내고만다니까요. …》

취사원아주머니는 그제야 **김정일**동지께서 촬영소간부들과 함께 식당쪽으로 걸어오시는것을 띄여보고 너무 놀라 열었던 입을 다물지도 못하고 굳어져버렸다.

작가도 그이를 돌아보았다. 그는 팔소매를 붙잡은채로 있는 취사원아주머니의 손을 밀어버리고는 그이앞으로 걸어와 반갑게 인사하였다.

《새로 쓴 작품을 촬영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댔는데 어떻게 잘 됩니까?》

《좀 찍다가 의견이 많이 제기돼서 고쳐야 할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습니까?》

《예… 고치겠습니다. 고친다음에 연출가하구 다시 작업하기로 했습니다.》

《제기된 의견들이 접수되면 대담하게 고쳐서 더 좋은 작품으

로 만드십시오.》
작가가 물러나자 그이께서는 총장만 남겨두고 뒤따르는 일군들에게 모두 자기자리로 돌아가서 일들을 하라고 이르시였다.
그러시고 돌아서니 취사원아주머니가 온데간데없이 사라져 보이지 않았다.
그이께서 총장의 안내로 박경섭이와 함께 식당으로 들어가니 취사장은 저녁식사를 지을 차비로 분주하였다. 취사장에서는 모두 네 아주머니가 일하고있었는데 두명은 조리대에 돌아서서 미역을 썰었고 한명은 쌀을 씻고 다른 한명은 가마를 부시고있었다. 아주머니들은 그이께 인사를 올리고는 하던 일들을 계속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 여기 취사장책임자가 누구냐고 물으시자 조리대우에 머리를 다소곳이 숙이고 미역을 손질하는척하던 아주머니가 돌아서 다시 인사를 하였는데 밖에서 작가를 끌어당기던 얼굴이 갱핏한 그 아주머니였다.
《취사장을 좀 돌아봐도 괜찮겠습니까?》
《예…》 아주머니는 수집음을 몹시 타는 성미인지 손등으로 입을 가리우며 가느다란 목소리로 대답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책임자아주머니를 따라 취사장안의 가마들이며 조리대, 식기장, 수도, 검식함, 식기세척대 등을 돌아보시였다. 취사장바닥에는 흰타일을 깔았는데 타일들의 짬에는 새까만 때가 끼였고 뒤문의 손잡이 둘레와 아주머니들의 취사복자락에도 무연탄 검댕이가 어지럽게 묻어있었다. 그리고 장마철이면 비가 새는것인지 천정구석들에 누런 얼룩이 그려져있었다.
《하루 급식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그이께서는 책임자아주머니에게 물으시였다.
《많을 땐 한 백명가량 됩니다.》
《그 많은 식솔을 먹이자니 정말 수고가 많겠습니다. 그래 후방부에서 부식물이랑 제대로 공급해줍니까?》
《예… 어떤 때는 부식물때문에 속을 좀 썩입니다. 녀배우동무들한테랑 닭알, 우유, 닭고기 같은 만문하고 영양가높은 식사를 시켜야 살결두 보얗게 돼서 영화에 얼굴이 곱게 나오겠는데 공급이

제대로 안되면 정말 속이 상합니다.》

그 녀자는 말하면서 총장의 얼굴을 흘끔흘끔 훔쳐보았다.

《아주머니, 총장동무 눈치를 보지 말고 하고싶은 말이 있으면 죄다 하십시오.》

그 녀자는 갑자기 활기를 띠며 시원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원래 저는 성미가 못돼서 누구 눈치를 보면서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 마음고생은 좀 했지만…》

《말때문에 무슨 화라도 입은게지요?》

《예… 그전에 구역식당에 있을 때에…》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별일이 아닙니다. 구역 급양지도원이라는 사람이 우리 식당에 자주 와서 점심을 공짜로 먹는게 아닙니까. 제집처럼… 그래 맞대놓구 싫은소리를 몇마디 했더니 인원축소바람에 태워서 저를 식당에서 내쫓았습니다.》

책임자아주머니는 첫 인상에 내우를 몹시 하는것 같았는데 얼굴모색과는 달리 성미가 곧고 통쾌하며 입살도 어지간히 센 녀성이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그 성미와 이야기에 호기심이 끌려 두손을 허리에 올리고 웃음어린 얼굴로 물으시였다.

《아니 그렇게 맥없이 쫓겨납니까. 예?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가만있었단 말입니까?》

《남자라는 사람이 그렇게 용렬하게 복수하길래 처음엔 입이 쓰거워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그랬다가 가만 생각하니 분해서 구역당에 제기했더니 목이 날아났습니다.》

《핫하하, 그거 아주 잘했습니다. 시원하게 됐습니다. 하하하…》

책임자아주머니도 손등으로 입을 가리며 웃었다.

《제가 공연한 소리를 해서…》

《왜 공연한 소리겠습니까. 아주 재미나게 들었습니다. 사람은 정의감도 있고 주대도 있어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주머니, 장마철같은 때 지붕에서 비가 새지 않습니까?》

그 녀자는 처음 보시였는데 어떻게 이처럼 식당사정을 잘 아실가싶어 눈을 반짝이며 그이를 우러러 쳐다보았다.

《금년에는 아직 큰비가 안와서 모르겠지만 작년에는 샜습니다.》

《비가 새면 을씨년스러워 취사장일을 어떻게 마음편히 할수 있겠습니까?》

《아이구, 정말 그렇습니다.》

《그럼 왜 이런 문제를 제기해서 해결받지 못합니까? 아연도판 몇평방이면 알아보겠는데…》

《여러번 제기도 하고 종업원총회에 나가 토론까지 했는데도 풀어안줍니다. 식당을 딴데 옮길 생각만 하면서… 요새같아선 촬영소울타리밖으로 내쫓길것 같습니다.》

《그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저 현상직장 등쌀에 보이라하구 우리는 탄불도 마음대로 쑤시지 못합니다. 보이라가 우리보다 먼저 쫓겨날것 같습니다. 영화필림에 먼지가 묻는다든지 필림현상이 깨끗하게 되지 않으면 저 현상직장에선 쩍하면 우리하고 보이라에 시비를 겁니다. 현상실에 탄재가 날아들어 그렇다구 야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밥을 해야 그걸 먹구 영화도 만들게 아닌가 이렇게 해대고 현상직장은 필림을 깨끗이 뽑자면 식당하고 보이라를 멀리 내보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옥신각신이 계속되니까 누구나 지붕에서 비가 새는것쯤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것 같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한숨을 내쉬시였다.

《알만합니다.》

그이께서 현상직장까지 돌아보고 응접실로 돌아오시는데 아까 식당앞에서 만났던 작가가 복도에서 서성거리고있었다.

그는 **김정일**동지앞으로 다가오려는듯 옷깃을 여미며 쭈밋거리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벽쪽으로 물러서는것이였다. 머리가 희끗희끗하게 센 그의 기름한 얼굴에는 심각한 사색과 번뇌의 흔적이 력연했는데 눈동자는 그 어떤 갈망으로 불타고있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그앞에서 걸음을 멈추시였다.

《작가선생, 무슨 할 얘기가 있는게 아닙니까?》

《아니… 저… 사실은 그냥 떠나자다가 너무 억울해서… 그래서 남았습니다. 제기된 의견들이 다 접수 안되는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이러지 말고 들어가서 이야기합시다.》

그이께서는 총장에게 가서 일을 보라고 이르고는 작가를 데리고 응접실로 들어가시였다. 박경섭이도 따라 들어갔다.

작가는 **김정일**동지께서 권하신 담배를 몇모금 빨고는 보일듯말듯 떨리는 손을 재털이에 내밀어 불을 꺼버렸다.

《이번 영화가 몇번째 작품입니까?》 하고 그이께서 물으시였다.

《저는 정말 재주가 없다나니 너무 적게 썼습니다. 다섯번째 작품입니다.》

그는 광복직후부터 영화문학을 써왔는데 다작을 하는 작가가 아니였다. 그는 언제나 현실적인 문제를 잡아 모험을 경계하며 신중하게 쓰고 서두름이 없이 오래 심사숙고하면서 초고를 다듬고 또 다듬어 옥돌같이 단단하게 된 다음에 내놓는다는 평판이 있는 사람이였다.

번개치는 재능은 보이지 않아도 실수는 적은 작가였다.

《그전에도 영화를 찍다가 중단하고 작품수정을 한적이 있습니까?》

《촬영을 하면서 대사나 장면을 고친적은 있지만 이렇게 아주 중단해버리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누가 중단하라고 했습니까?》

《촬영소예술위원회에서 그렇게 결론됐습니다.》

《작가도 예술위원회에 망라되여있습니까?》

《없습니다.》

《자기 작품을 토론하는 그 예술위원회에 참가했습니까?》

《못했습니다.》

《아니, 자기 작품의 운명이 결정되는데…》

《아마 제기된 의견을 저한테 납득시키려다가 안되니 예술위원회를 열고 그렇게 결론한것 같습니다. 제가 집단의 의견을 무

시하고 너무 고집을 부린것 같습니다.》

《고집이든 뭐든 작가를 따돌려놓고 그렇게 결정한다는것은 너무 일방적이 아닙니까?》

《제가 너무 의견을 듣지 않으니 촬영소측에서 분격한것 같습니다. 제가 화김에 그만 원고를 가방에 쑤셔넣으며 말을 지나치게 하는바람에 모두 모욕감을 느껴서…》

《어떤 말을 했습니까?》

《정말 부끄럽습니다. …나는 당신들의 서기가 아니다, 무식은 악마와 같은 힘을 가지고있다, 직위가 정의를 담보해주지는 못한다. … 이런 소리가 튀여나가는바람에 모두 격분해서 들고일어났습니다.》

《작가적인 인격을 버리고 그런 소리로 사람들을 모욕해선 안되지요.》

《정말 그렇습니다. 저도 인차 후회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작가의 개성까지 무시하면서 이렇게 고치자, 저렇게 고치자 하고 접어들 때면 가슴에서 피가 끓어번집니다. 론쟁과정에 저는 집단의 집체적의견을 외면하는 독선자로 몰리게 됐습니다. 작가는 언제나 혼자서 제 작품을 변호해야 합니다. 편성원, 연출가, 부연출… 촬영가, 부촬영… 지어는 배우들하고까지 혼자서 론쟁해야 합니다. 하나가 다수를 어떻게 이겨냅니까.》

《그건 무슨 말입니까? 다수편에 언제나 정의가 있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다수편에만 정의가 있다면 사회와 력사는 한걸음도 전진하지 못했을것입니다. 과학기술이나 철학이나 사회운동에서 새로운 진리를 발견한 사람은 언제나 한두명의 선각자가 아닙니까. 작품이 이 지경이 됐는데 영화문학창작사에서는 어째 속수무책입니까?》

《촬영소가 우리 창작사의 의견쯤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 창작사에서 통과되여 넘어온 작품도 연출가 한명이 반대해도 벌써 곡절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작가들은 처음부터 령리한 수를 써서 연출가가 하자는대로 합니다. 그러면 잡음이 없이 조용하게 영화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그렇게 만들어나

간것들은 례외없이 특색이 없고 무난한 영화들입니다. 저는 이젠 나이도 들었습니다. 작품을 그렇게는 만들지 못하겠습니다. 촬영소와 작가의 관계가 이대로 지속되면 우리앞에는 두 길밖에 없습니다. 촬영소의 심부름군이 되는가 영화문학을 아주 그만두는가…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당적량심이 있는 작가들은 번민하며 다 이렇게 생각하고있습니다. …》

작가가 나간 다음 **김정일**동지께서는 심각한 안색으로 응접실안을 걸어도시였다. 무거운 발걸음밑에서 쪽무이널마루가 비꺽거렸다.

안락의자에 앉아있는 박경섭은 그이께서 작가의 말을 듣고 분격한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걸음을 멈추신 그이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였다.

《우리가 여기로 온다는것을 동무가 미리 알려줬댔소？》

《예…》

박경섭은 뜻밖의 물음에 어정쩡해져 자리에서 일어섰다.

《누구한테 알렸소？》

《주영도동무한테 알렸습니다.》

《주영도동무한테？ 그럼 그 동무가 어간에서 어쨌는가？ 당권을 리용해서…》

《예？…》

《처음 만난 총장동무나 부총장들한테서는 판에 박은 자기비판밖에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소. 기본부서들인 연출실,촬영실, 배우단에서도 같았소. 우리가 오늘 알게 된 사실은 촬영소실태의 백분의 일도 안되는것일거요. 실내촬영장이나 식당에 가지 않았더라면 이백분의 일도 모를번했소. 작가동무의 말만 들어봐도 얼마나 심중한 문제들이 있소. 진실을 말하지 못하도록 누군가가 사람들을 구속하고있다면 이건 더 심중한 문제요. 알아보오.》

그이께서 떠나신 다음 박경섭은 당위원회로 찾아가 주영도비서를 만났다.

박경섭은 에돌지 않고 터놓고 물었다.

두 당일군은 장의자에 가지런히 앉아 오래동안 이야기를 나누

었다.

주영도는 몹시 흥분하여 벌겋게 상기된 얼굴로 이따금 모두숨을 내쉬면서 심정을 토로하였다.

《비판을 받거나 추궁을 받아도 할수 없습니다. 나는 자기 신념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당밥을 먹으면서 예술인들속에서 사업하는 과정에 나한테는 그들에 대한 확고한 인식이 생겼습니다. 땀으로 미역을 감으며 강쇠를 벼려내는 로동계급하고는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총장동무나 부총장들도 다 예술인출신이기때문에 간부가 된지 오래지마는 감정상으로는 그들과 3,4촌간은 됩니다. 활 풀어놔보십시오. 그들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올지 모릅니다. 요새 몇개 제작단에 소형뻐스를 배치해줬는데 어떤 현상까지 생기는지 압니까? 촬영나갈 때 뻐스만 없으면 떠나기 싫어하고 별 불평을 다 부립니다. 전쟁때 어떻게 영화를 찍었습니까. 촬영기와 필림을 넣은 배낭을 메고 전사들과 함께 행군하고 돌격전에도 같이 참가하면서 촬영하지 않았습니까. 전쟁직후 재더미만 남은 페허속에서 어떻게 영화를 만들어냈습니까.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얼마나 좋은 조건입니까. 이만하면 무슨 불편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좀 보시오. 당에서 영화에 깊은 관심을 돌려주니까 엉석이 드는지 별의별걸 다 요구해나섭니다. 고급촬영차,립체록음기,최신형촬영기… **김정일**동지께서 자주 나오시는데 습관이 돼서 천진하다고 할지 그이앞에 별의별 문제를 다 제기하는 동무들이 있습니다. **김정일**동지가 어떤분입니까!… 나는 당적인 량심으로 그런 불손을 묵과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전화를 받고 간부들과 직장 부서 세포비서들한테 그이앞에서 언행을 조심하고 정중히 할데 대하여 단단히 주의를 주었습니다. 당원들의 이런 심정을 리해해주기 바랍니다.》

울분속에 진심을 토로하는 그의 말에 박경섭은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을수 없었다.

깊은 밤중 집무실에서 박경섭의 보고를 끝까지 듣고나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신중하신 안색으로 한동안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았다.

《만약 모든 당일군들이 그 동무처럼 사람들의 입을 봉해버리면 우리 둘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침묵의 장벽이 둘러쳐지고 우리는 인민대중으로부터 격리되고마오. 눈이 밝아도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가 되오.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주영도… 그 동무한테 단단히 주의를 주오. 다시 그래선 안된다고… 알겠소？》

《예…》

《그 동무가 전쟁시기 영화예술인들의 투쟁정신을 상기하면서 오늘의 예술인들을 비판하는것은 옳소. 전적으로 옳소.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정신적령역에 한한 문제요. 물질기술적조건에 대해서까지 과거의 시점에 서서 그렇게 생각해서는 전진할수 없소. 오늘의 예술인들이 더 좋은 기술기재를 요구한다고 비난해서는 안되오. 그들의 요구에는 현시대의 영화기술발전에 뒤떨어지지 말자는, 따라앞서자는 강렬한 지향이 반영되여있지 않는가, 나는 그걸 보오. 앞장에서 기술혁명을 선도해야 할 당일군이 과거의 시점에서 그런 관점을 완고하게 고집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이께서는 몹시 흥분하여 단숨을 몰아쉬다가 양복저고리단추를 우로부터 하나 또 하나 끌러놓으시였다.

《주영도동무뿐이 아니요. 요즘 그런 관점은 우리 일군들속에 상당히 퍼져있소. 류행병처럼… 그들은 우리 현실을 과거하고만 종적으로 비교하면서 왜정때에 비하면 오늘은 얼마나 조건이 좋은가… 자만자족하고있단말이요. 기술을 공부하지 않고 세계추세도 모르니 우물안의 개구리처럼 될수밖에… 세계와 횡적으로… 횡적으로도 비교하고 우리 리상의 높이에서 현실을 직시하면서 분발하고 분발해야겠는데 저 총장을 보오. 얼마나 무사태평인가！》

그이의 음성에서 열기가 풍기였다.

《전공출신 조명사를 놓고 천정밑에서 거미처럼 날래게 기여다닌다고… 기술적락후성을 통탄할대신… 거미… 거미… 거미가 뭐요. 사람의 육체적기능을 거미의 본능과 비교하면서 칭찬하고있단말이요！ 이래가지구야 어떻게 전진하는가, 발전하는가？》

그이의 음성이 방안공기를 흔들었다. 그이께서는 격한 음성으로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박경섭은 락후성과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시는 그이의 가슴속에서 어떤 분노의 파도가 이는가를 온몸으로 느끼고있었다. 그는 세찬 열풍앞에 선듯 숨이 컥컥 막혔다.

《동무는 그 전공을 보면서 가슴이 저리지 않았소? 여태 이런걸 모르고있었소?》

《…》

박경섭은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하여 눈을 내리뜨고있었다. 이마에서 더운 땀이 흘러내렸다. 가슴이 발기발기 찢기는듯 아파났다.

《내가 오늘 어떻게 참았는지 모르겠소. 오늘 만난 작가동무 말만 들어도 우리 영화창조체계에는 확실히 자본주의적요소가 있고 우리 식이 아닌것도 적지 않게 끼여있소. 이러한 체계로써는 영화예술을 왕성하게 발전시킬수 없소.》

그이께서는 영화문학창작사의 독자적인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며 영화문학심의위원회를 내오고 거기서 심의하여 통과된 작품은 촬영소에서 그대로 찍도록 하는 체계를 세워야 한다고 하시였다.

이어서 실내촬영장의 조명장치들을 완전히 자동화하고 보이라와 식당을 전기화하여 촬영소구내의 공기를 맑게 하며 빠른 시일안에 영화문학창작사를 건설하고 촬영소도 웅장화려하게 개건하자고 하시였다.

박경섭은 손등으로 이마의 땀을 씻으며 그이의 말씀을 사업수첩에 속필로 적어나갔다.

제 5 장

1

자욱한 안개가 소리없이 파도쳐오고 보슬비가 엇비스듬히 흩날렸다. 비물이 번들거리는 질퍽한 대통로에 흐르는 승용차들은 대낮인데도 거의 모두 전조등을 간단없이 껌뻑거리고 다급한 경적소리를 짤막짤막하게 울리기까지 하였다.

그들이 탄 승용차는 그런 불빛과 소음의 혼잡속을 누비며 거리를 달리였다.

로영무는 묵묵히 차창밖을 내다보았다.

숨막히게 밀려드는 재빛 안개의 파도와 자욱한 보슬비의 장막속에 묻히여 즐비하게 늘어선 건물들의 흐름은 물에 비낀 산발들의 그림자처럼 어른거리고 저 멀리 에펠탑도 허리부러져 날아난듯 아래부분만 흐릿하게 바라보인다.

까를로븨 바리에서 지체되여 빠리에 예정보다 이틀 늦어 도착한 참관단은 호텔에 들지 못하였다.

우리 대표부가 미리 예약해두었던 1등호실에 약속된 시간에 손님들을 넣지 못하자 호텔측이 방들을 내달라고 요구하여 부득이 응하지 않을수 없었던것이다. 1년에 3,000만명이상의 외국관광객을 수용하는 이 나라의 긴장한 호텔사정을 고려할 때 그런 요구에 등을 돌린다는것은 무례한 일이였던것이다.

참관단은 우선 우리 대표부의 검소한 숙소에 거처를 정하였다. 조국에서 온 유명한 영화연출가들을 맞이한 대표부성원들은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이란 조금도 없이 사람 그리움에 시달려온 외로운 섬사람들처럼 떠들썩하게 반기며 너나없이 시중을 드느라고 명절기분이 되여 뛰여다녔다.

총대표가 직접 호텔들과 관광회사들에 전화를 걸어 1등급의 호실들과 예술에 조예가 깊은 안내인을 다시 교섭하였으나 어디서나 며칠 기다려달라는 대답뿐이였다.

사람좋은 총대표는 친선단체들과 문화교류기관들에도 미리 절충해놓았으니 안심하라고 하며 그사이 대표부에서 로독이나 풀다가 정 조급해나면 근처의 거리에 나가 빠리공기를 맛보는것도 나쁘지 않을것이라고 했다.

그들은 대표부에서 프랑스어에 제일 능하다는 송동무의 안내로 우리 차를 타고 시내구경에 나선것이였다.

오후에는 날이 개였다.

그들이 실업자행색인 후줄근한 표정의 사람들과 첨단류행을 따르는 쌩쌩한 젊은이들, 각가지 피부색의 관광객들이 한데 뒤섞여 붐비는 번화가 몇을 돌아보고 몽마르뜨르거리에 이르니 석양녘이였다. 거기는 비교적 아늑한 감을 주었다.

그들이 거리를 산책하다가 목이 칼칼하게 말라들어 작가예술인들이 많이 드나드는 한 다방으로 들어가는데 가로수밑에 네댓점의 정물화를 전시해놓고 서성거리던 번대머리로인이 반겨 웃으며 다가왔다. 중세기의 침침한 유화에 나오는 도승같은 인상이면서도 영특한데가 있어보이는 로인이였다.

로인은 정물화를 가리키며 로영무에게 사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송동무가 저따위 눅거리그림장사는 빠리에 얼마든지 있다고 하며 주춤거리는 그의 팔굽을 건드렸다.

1시간이 좀 지나 그들이 다방에서 나올 때 가련한 그 로인은 또다시 앞을 막아섰는데 이번에는 동양 어느 나라에서 왔느냐고 물었다.

로영무가 조선에서 왔다고 하자 로인은 다소 실망한 표정으로 서울에서 왔는가고 물었다.

강철룡이 평양에서 왔다고 좀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그러자 로인은 반색을 띠며 야릇한 탄성을 지르더니 무슨 일로 빠리에 왔는가, 여기에 며칠이나 묵는가고 묻고는 만약 관광하러 왔다면 자기가 안내인으로 봉사할 용의가 있다고, 관광회사 고용

의 안내인들보다 반액의 값으로 고용되겠노라고 자청해나섰다. 최승진은 동정의 부드러운 눈길로 거리의 미술가를 여겨보았고 강철룡은 차거운 경계의 눈빛이였다.

로영무가 송동무의 의견을 물으니 그는 로인의 아래우를 훑어보다가 그와 몇마디의 이야기를 나누고나서 괜찮은것 같은데 총대표와 의논해보자고 했다.

그 말뜻을 전혀 모르는 로인은 투명한 갈색눈에 불안한 빛을 띠고 이 사람 저 사람의 눈치를 보다가 최승진이 그중 리해성이 있어보이는지 그를 향하여 가슴에 손을 얹으며 서글프게 웃어보였다.

그들은 로인과 래일 오전 9시 다시 이 장소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다방앞을 떠났다.

로인은 이튿날 아침 약속한 바로 그 장소에 깨끗한 옷차림으로 의젓하게 서있었는데 인사할 때 자신을 비웃는듯한 회의적인 미소를 머금고 실패한 화가 앙드레 뻬르망이라고 자기 소개를 하였다. 그리고는 흘깃 뒤를 돌아보았다. 길건너편 상품광고판앞에 가냘프게 생긴 금발의 처녀가 이쪽을 지켜보며 서있다가 신경질적으로 홱 돌아서 저쪽 골목으로 달아나버렸다.

그 처녀는 누구이며 어째 이쪽을 지켜보았는지 알수 없었다.

로인은 자기 딸이라고 일행을 안심시키고는 인차 실무적인 표정으로 돌아왔다.

로영무네는 그를 데리고 다방으로 들어가 참관 방향과 대상, 안내해설에 대한 보수 등을 의논하고 계약을 맺았다.

대표부의 송동무로부터 참관단의 기본목적이 프랑스문학예술의 과거와 현재를 료해하자는것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들었을 때 뻬르망은 빠리에 와서 유흥시설이나 도박장, 뒤골목의 매춘부들이나 찾는 외국의 경박한 관광객들을 상기했던지 저으기 놀라며 존경과 감동어린 눈으로 세사람을 돌아보았다. 그러나 참관기간이 20일정도라는 말을 듣자 그는 무지의 절벽에라도 부닥친 사람처럼 입까지 짝 벌려보였다.

프랑스의 문학예술이 어떤것인데 그것을 20일동안에 맛보겠다는것인가 하는 놀라움이였다. 뻬르망은 거만한 표정으로 노트르

담대사원만 알자고 해도 몇달은 묵어야 한다고 말했다.
잠자코 있던 최승진이 문학예술이 만들어낸 력대의 걸작품들을 다 료해하자는것이 아니라 문학예술의 전반적인 추이와 경향,각종 조류와 류파들의 발생발전과 사멸 그리고 현대예술류파들의 동향에 대하여 더 관심을 가진다고 설명해주었다. 이어서 인간의 미의식발전의 전위라고 할수 있는 미술을 기본으로 하여 설명해준다면 프랑스문화의 동향을 연구하려는 참관단의 목적이 쉽게 달성될수 있으리라고 덧붙였다.
뻬르망은 그 말에 비로소 참관단의 지적능력이 가늠되는지 머리를 끄덕이며 20일이면 괜찮다고 동의해나섰다.
그들의 참관은 에펠탑의 관망대로 올라가 빠리시가를 부감하는것으로부터 시작되였다.
그들은 어느 동남아시아나라에서 온듯한 한무리의 대학생 참관단속에 어울려 관망대에서 빠리시가를 바라보았다.
빠리시가는 쎄느강을 중심으로 하여 남북으로 끝없이 펼쳐져있었다. 드골광장으로부터 별빛모양으로 뻗어나갔다는 여러 갈래의 대통로들이 한눈에 안겨들었다.
관광안내도에서는 빠리시가가 전자기구의 회로도와 같은 복잡한 도형을 그리고있었는데 탑에서 바라보니 가까이에서는 공원과 극장,궁전의 정원,각양각색의 벽체들과 원주들,우미한 아치들과 현란한 창문들이 어지럼증이 나도록 원무를 추며 돌아가는듯 했고 멀리에서는 뾰족하고 둥글고 넙적하고 톱날모양이기도 한 천태만상의 지붕들의 파도가 흐릿한 연무속에서 넘실대는듯했다.
로영무는 전에없이 멀미를 느껴 두손으로 쇠란간을 꽉 붙잡았다.
그러나 앙드레 뻬르망은 의기양양해서 몇오리 안되는 불머리를 날리며 소리쳤다.
《빠리！… 빠리！… 이것이 빠리입니다. 2천년 력사의 문화가 여기에서 숨쉬고있습니다.》
시정에 잠긴듯 실눈을 짓고 도시를 둘러보는 로인의 눈가에 이슬같은것이 반짝이였다.
그는 팔을 내뻗쳐 좌우로 휘두르며 저 사원과 궁전들의 지붕

을 살펴보라고 하였다. 그의 말을 통역하는 송동무까지도 로인이 가리키는 지붕들을 주의깊은 눈길로 바라보았다.

《얼핏 보아도 저 지붕들의 바다에서 뾰족한 지붕과 둥근 지붕들을 쉽게 가려볼수 있습니다. 나머지지붕들은 모두 저 두가지 지붕들의 시대적변형들입니다. 뾰족한 지붕과 둥근 지붕… 이것은 매우 중요한것입니다. 과거 프랑스문화의 2대조류를 상징하고있기때문입니다. 뾰족한 지붕은 꼬지끄양식이고 둥근 지붕은 루네싼스양식입니다.》

앙드레 뻬르망은 옛건축물들은 당대의 종교, 철학, 인생관, 미감, 생활풍습을 건축구도의 선과 벽화, 부각, 조각, 무늬 등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반영하고있어 시대정신과 문화를 상징하는 기념비나 다름없다, 때문에 문화와 예술의 발전추이를 알자면 건축예술부터 보아야 한다고 력설하였다.

그는 우선 세 손님을 씨데섬의 노트르담대사원을 비롯하여 쌍도니수도원교회, 샤르드르성당과 엘리제궁이며 루브르궁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꼬지끄식과 루네싼스식 건축예술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고색이 짙은 빠리거리들은 상상했던것보다는 어둑해보였으며 번영하던 시절의 생명력이 쇠진해버린듯 어디에나 마음을 상쾌하게 해주는 생기가 덜하였다. 탁한 공기와 사람들의 혼잡, 포도가 내뿜는 열기때문에 세사람은 인차 땀에 젖어 피로를 느끼군하였다. 그러나 이 공기속에서 한평생 살아온 뻬르망한테는 피로의 기색이 전혀 없었다.

로인은 참관대상으로 가는 도중에는 어린애처럼 호기심이 잔뜩 살아올라 조선의 자연과 도시들, 문화사에 대하여 많은것을 물었으나 일단 목적지에 이르면 독실한 신자처럼 표정이 경건해지거나 거만해져 건축예술의 오묘한 조화에 신비성을 부여하며 시적인 어투로 해설하는것이였다.

그리고 세사람의 눈치를 자주 흘끔흘끔 훔쳐보았는데 그때마다 그의 투명한 갈색눈동자에서는 자기 해설의 반향에 대한 순수한 관심뿐아니라 빠리문명에 접한 동방예술가들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파문을 엿보려는듯한 집요하고 얄궂은 그 무엇이 번뜩이였다.

그것은 세사람이 판이한 반응을 보였기때문인지도 모른다.

로영무가 진지하게 보고 듣고 느끼려 했다면 강철룡은 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심취된 표정이였고 천성적인 친화력때문인지 뻬르망로인과 아주 친숙해져 팔을 끼거나 손을 잡고 다니게쯤 되였다.

최승진은 그와는 정반대였다. 어떤것을 보아도 늘 무표정이였고 해설도 뒤쪽에 서서 흥심없이 들었으며 이따금 강철룡을 못마땅하게 여겨보는것이였다. 조국에서 받아온 비판과 자기 사상적약점때문에 대리석과 화강석의 예술에 유혹되지 않으려고 애써 경계하는것인지, 건축예술에 아무런 흥미도 못느끼는것인지 알수 없었다.

통역원 송동무와 뻬르망까지도 이따금 그에게 의아한 눈길을 던지였다.

앙드레 뻬르망은 세사람을 혼란에 빠뜨려 정치적판단기능을 마비시키고 넋을 앗아가려는 심산인듯 빠리문화의 측변과 종심에로 그들을 종횡무진으로 끌고다니면서 점점 열을 올려 해설하였다. 빠리문화의 젖줄기 쎄느강의 유유한 흐름, 각이한 시대의 건축미를 자랑하며 그우를 줄달음쳐 지나간 다리, 다리… 어느 다리에나 붐비는 각양각색의 구식과 신식의 승용차들, 씨데섬과 함께 쎄느강의 운치를 돋구는 쌍 루이섬의 서정미, 력사를 부르짖는 앙리4세기마상, 마드레니교회, 도리니떼교회, 부르봉궁, 룩쎈부르그궁… 에드월광장과 꽁고르뜨광장을 이어놓은 샨제리제대통로의 혼잡한 야경, 거리바닥에 반사되여 용암의 흐름처럼 보이는 자동차불빛들의 끝없는 대하… 아득한 문화의 종심을 가진 이 세계는 자기의 사상과 철학, 물질문명과 정신문명, 사기협잡과 패륜패덕, 첨단류행을 걷어안고 와글와글 끓어번지며 쎄느강처럼 어디로인가 서서히 흘러가는듯했다.

로영무는 가는곳마다에서 저도 모르게 최승진에게 다심한 눈길을 돌리게 되였다.

최승진은 참관도중 얼굴이 컴컴하게 질려 담배를 자주 태웠으며 중세기적신앙심의 절정인듯 하늘을 찌르며 아득히 치솟은 첨탑을 쳐다보며 입술을 질근질근 씹는가 하면 대리석원주에 비친 자

기의 얼굴을 들여다보다가 침울하게 눈을 번뜩이며 돌아서는때도 있었다.

로영무는 순간순간에 포착한 그런 모습들을 통하여 벗의 가슴속에 알수 없는 격랑이 일고있다는것을 짐작하였다.

그들은 숙소에 돌아오면 고역에 시달린 사람들처럼 땀과 먼지에 더러워진 몸을 씻고는 자리에 쓰러졌다.

어느날 로영무는 숙소의 자기 호실에서 밤깊도록 잠들지 못하고 참관인상을 정리하며 고지끄식과 루네싼스식 건축양식을 비교하면서 문예부흥, 인문주의운동의 의의를 두고 끝없는 생각에 잠기였다.

불을 끈채 안락의자에 몸을 묻고있는 그의 눈앞에는 뾰족지붕이며 첨탑, 대리석주랑들과 둥근 지붕들의 환영이 간단없이 어른거렸다.

고지끄식건축양식의 높이 치솟은 첨탑, 뾰족지붕, 그것을 떠받든 돌기둥들, 역시 뾰족한 아치형인 창구들과 출입문들의 가녁을 따라 뻗어올라가 예각으로 맞물린 줄기찬 장식선들은 통일적인 조화를 이루어 땅에서 하늘로 힘찬 기운이 솟구쳐오르는듯한 인상을 주었다. 고지끄양식의 그 《상승효과》에는 불행이 숙명인 지상을 떠나 저 하늘로 승천하고싶은 인간의 불타는 갈망, 영원한 행복과 안식이 약속된 《천당》에 대한 끝없는 동경이 반영된것이였다. 거기에는 자연이나 인간생활의 그 어떤 면모도 사실적으로 반영된것이 없었다. 인간의 정신력이 기하학적선에 의하여 추상되여있을뿐이였다.

뻬르망로인은 동적이고 힘찬 선들의 집대성인 고지끄식건축예술이야말로 추상예술의 세기적본보기이고 시조라고 강조하며 엄지손가락을 내흔들었다. 그리고는 새 루네싼스양식에 의하여 고지끄양식은 밀려났지만 완전히 패하여 사멸한것이 아니였다고 열을 내여 소리쳤다.

고지끄의 생명력은 아주 없어진것이 아니라 승리한 새 건축양식속으로 깊이 스며들어 내부에서 작용하여 건물의 전체적인 인상에 변형을 일으켰다고 하였다. 그는 새 루네싼스양식으로 건축된

앙와리드례배당같은 건물의 전체적인 인상에서 《상승효과》가 느껴지는것이 바로 그때문이라는것이였다. 그뿐아니라 꼬지끄의 생명력은 수세기동안 잠복해있다가 폭발적으로 터져나와 현대세계를 풍미하는 혁신적인 예술조류의 시원을 열어놓았다고 강조하였다. 뻬르망은 어째서 낡은 꼬지끄의 생명력에 대하여 그토록 강조하는가? 미리 어떤 음흉스러운 목적을 세우고 우리를 거기에로 한걸음한걸음 이끌어가는것이 아닌가.

로영무는 담배를 피워물었다.

꼬지끄양식에 비하면 루네싼스양식은 훨씬 인간적이였다. 중앙의 둥근 지붕, 그 량옆에 사람의 어깨모양으로 펼쳐진 지붕의 부드러운 선, 시원하게 넓은 창문들, 사람의 건강미를 상징한듯한 튼튼하고 안정감을 주는 원주들… 건물의 규모도 인간의 사용목적에 맞게 정했으며 내부구조도 쓰기 편리하게 구상되였다. 건축에 인간의 아름답고 합리적인 비례의식이 반영된것은 하나의 문화사적진보이고 혁신이 아닌가. 낡은 꼬지끄양식이 승천과 천상의 행복에 대한 인간의 종교적환상을 반영했다면 이 새 양식은 지상생활에서 행복을 추구하려는 인간의 실제적요구를 반영한것이다. 어째서 낡은 양식이 밀려나고 새 양식이 승리하여 선풍처럼 대륙을 휩쓸었는가. 아마도 이것은 억지스럽고 불편하고 자기를 누르는것은 멀리하고 편리하고 유용하고 친근한것을 선택하는 사람의 본성과 관계된것이 아닌가. 바로 그런 본성에서 종교적구속으로부터 인간개성을 해방하려는 인문주의사상도 움트고 문예부흥의 바람이 분것이다. 루네싼스, 문예부흥의 거창한 흐름… 이 흐름의 원동력으로 된것은 과연 무엇이겠는가? 인간개성을 종교의 지나친 구속에서 해방하려는 인문주의사상이다. 예술조류와 사상, 사상과 예술조류… 새 예술조류는 새 사상의 안받침에 의하여서만 발생발전하며 예술전반을 활짝 꽃피울수 있다. 저 청동의 인간상들과 대리석주랑들은 무언으로 그것을 확언하고있지 않는가. …

어딘가 바로 가까운데서 쾅 하는 소리가 울렸다. 깊은 밤중의 정적을 깨뜨린 그 소리는 파괴적인 굉음처럼 어둠속에 공명되면서 가슴을 흔들었다.

로영무는 놀라서 두리번거리였다. 옆호실문이 세차게 여닫긴 소리같았다. 그 호실에는 최승진이 들어있었다. 복도에서 멀어지는 다급한 발자욱소리… 머리속이 찡 저려나며 심상치 않은 일이 생긴듯한 불길한 예감이 가슴을 찔렀다. 그는 황황히 일어섰다.

숙소의 후원은 외등불빛에 훤했다.

철책곁의 장의자에 웬 그림자가 웅크리고 앉아있었다. 최승진이 틀림없었다. 잠들지 못하고 무슨 생각엔가 모대기다가 시원한 공기속으로 달려나온것인가.

그가 가까이 갔는데도 최승진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장의자등받이에 이마를 박은채 숨을 거칠게 몰아쉬고있었다.

로영무는 너무 놀라와 말없이 곁에 앉으며 그의 무릎에 손을 얹었다.

《여보게, 어디 괴로운가?》

그는 결패스럽게 돌아앉았는데 얼굴은 괴로움에 이그러지고 눈에서는 시퍼런 섬광이 번쩍이였다.

《로형, 마음같아선 당장 돌아갔으면 좋겠소.》

《그건 무슨 소리요?》

《이게 시기심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나는 정말 속이 괴롭소. 이 사람들한테는 문화유적들이 고스란히 다 있소, 다 있어… 시기별로, 문화조류별로… 박물관에서처럼 정연하게… 제것뿐만 아니요. 저 에짚트상형문자탑을 보오. 남들이 바친것도, 남한테서 빼앗아온것도 굉장할거요. 여기에 우리 조선문화재도 있다는 소릴 들었댔소. 우리 선조들은 뭘 했는가? 사화당쟁에 혈안이 돼서 서로 잡아죽일 내기를 하고 음풍영월이나 일삼았으니까 국력이 약해져 계속 침략을 당해 남한테 얻어맞고 짓밟히고 불살리우구… 옛날엔 찬란했던 문화의 유산 하나 똑똑히 지켜냈는가. …》

로영무는 그의 의분이 리해되면서도 너무 허무감에 빠지지 않는가싶은 위구심도 없지 않았다. 그래서 벗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게 롱조로 말했다.

《사람두 원… 여기 와서 조상들한테 주먹질을 해서 무슨 소용인가. 마음을 누긋하게 먹구 참관을 잘해보세나.》

《그렇게 마음먹는데 안되오. 영 안되오.》

로영무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였다.

《휴— 리해되네. 우리 세대야 정말 선조들한테서 물려받은게 얼마 없지. 광복후 모든것을 빈터에서 시작했다니까, 빈터에서… 그러나 얼마나 많은것을 이룩해놓았는가, 우리는 마땅히 여기에서 긍지감을 느껴야 하네.》

《언제나 그렇게 균형잡히게 생각할줄 아는 로형이 부럽소.》

《허허… 빈정대는건가. 자네야 나를 늘 절충주의자로 보고 있지. 내가 그렇다면 자네는 뭔지 아나? 극렬분자네, 극렬분자. 허허허…》

《로형!》 진정이 밴 절절한 목소리였다.

《나는 내가 뭔지 통 모르겠소. 조국에서 나는 서유럽숭배… 그것때문에 호되게 비판받았소. 고민도 했소. 터놓고 말하면 내가 진짜 서유럽숭배주의자라면 자기가 숭배하는 세계에 왔으니까 기뻐해야 될거 아니요. 제 고향집에 온것처럼… 한데 그렇지 못해. 나는 매일밤 얼마 자지 못하오. 괴롭소. 참관을 하면 부럽고 반발심도 나고 울분도 터지고… 왜 이런가? 여기 문화에 눌려서 이런가? 눌려서… 매일밤 자지 못하고 우리것과 비교해보게 되오. 우리것이 나으면 기쁘고 못하면 분하고… 한데 여기 예술을 모방했단말이요. 나는 도대체 뭐요? 어떤 인간인가? 로형한테는 내가 뭘로 보이오? 허무주의자인가 뭔가…》

그의 눈에 물기가 떨었다.

《여보게, 진정하라구…》

로영무는 그의 손을 잡아쥐였다. 손이 불덩이같이 뜨거웠다. 손가락마다에서 맥이 뛰는것이 느껴졌다. 심장이 산산 쪼개져 손가락들로 내려와 괴롭게 고동치는듯했다.

《무슨 그런 소릴 하나. 서유럽숭배야 어디까지나 잔재지… 진정으로 말하는건데 나는 의분도 비판도 개탄까지도 애국심에서 나오는거라고 믿네. 자네는 애국자야.》

《과분한… 말이요. …》

그는 코물을 들이켰다. 속으로 우는것 같았다.

《나는 여기 오니 조국이 더 잘 알려… 우리한테서 무엇이 대단히 좋은가, 무엇이 아직 모자란가… 더 똑똑히 알리네.》

《로형, 나는 말이요 감정때문인지 참관과정에 한가지 의문이 생겼소. 여기 저 문화가 종당에는 민족을 어디로 내달리게 했는가. 이 민족은 한때 숱한 나라와 민족들에게 몸서리치는 재난을 들씌우는 죄행까지 저질렀소. 그 범죄의 정신적인 씨앗이 저 문화속에 숨어있지 않았는가, 저속에 배태되여 자라나지 않았는가. 만약 그렇다면 나는 그걸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소.》

로영무는 숱진 눈섭을 찌프릴사하고 희붐한 허공을 묵묵히 내다보았다.

《학자들의 해석은 이런데… 예술은 근로자들이 창조했지만 그건 애초부터 착취자들의 기호에 맞는, 그들을 위한 문화였다고… 여기에 원인이 있지 않을가?》

《그건 일반적인 평가요. 그 예술적요인을 제 눈으로 찾아보면 수치스러운 잔재도 쑥 뽑아질것 같소. 이번 기회에 맘껏 사색하고 탐구하게 날 보살피지도 건드리지도 말아주오.》

로영무는 그의 손을 다시 뜨겁게 잡아쥐였다.

불이 꺼진 숙소의 창문들이 멀고 가까운데서 껌뻑거리는 네온싸인과 장명등의 불빛을 반사하여 빨갛고 노랗고 불그무레한 색으로 쉬임없이 번쩍이였다.

철책 저쪽에서 웬 술취한 녀석이 웩— 웩— 소리를 지르며 지나갔다.

2

이튿날 그들이 루브르궁미술관앞 뜨락으로 걸어들어가는데 앞장에 섰던 앙드레 뻬르망이 흠칫 놀라 멎어서며 미술관 현관쪽을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세사람을 흘깃 돌아보았는데 그 얼굴에서 난처한 기색이 언뜻 엿보였다.

거기에는 한 처녀가 검은색의 커다란 구식트렁크를 옆에 놓고 서있었다.

로인이 황황히 걸어나가자 처녀도 트렁크를 들고 층계밑으로 내려섰다. 일전에 보았던 그의 딸인듯하였다. 처녀는 그늘진 얼굴이였다. 어깨에 흘러내린 금발이 바람에 흩날리며 얼굴절반을 가리우군하였다.

로인과 처녀는 층계밑에 마주서서 수군수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트렁크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것을 자주 내려다보군하였다. 무엇때문인지 처녀는 자꾸 도리머리를 젓는가 하면 어깨를 신경질적으로 흔들고 로인은 무엇인가 달래며 설복하다가 애걸하는것 같았다.

이윽고 로인이 뾰로통해진 처녀를 데리고 세사람앞으로 걸어와 인사를 시키며 자기 외동딸이고 자기 자랑이고 희망인 크리스띤 뻬르망이라고 했다. 처녀는 금발에 파란눈이고 갸름한 얼굴,보기 좋은 중키이나 어깨가 앙상하고 가슴도 얇아 전체적으로 빈약하고 쌀쌀한 인상을 주었다. 처녀의 목밑에 걸려있는 자그마한 은빛 십자가의 반짝거림이 그런 인상을 강조하는듯했다.

그러나 인사를 나누며 웃을 때 보니 매우 지적이면서도 상냥스러운 독특한 미의 얼굴이고 전체적인 인상도 그 웃음과 함께 돌변하여 다정다감한 정까지 풍겨주는것이였다.

로영무가 고개를 숙여 크리스띤 뻬르망의 손에 가볍게 입을 맞추었을 때 그 처녀는 이것이 유럽에 온 동방사람들한테서 흔히 보게 되는 객기가 아니라는것을 직감하고 좀 당황해하였다.

그러다가 자기네한테서도 사라져가는 고전적례절로 호의와 존중을 표시해주는 상대의 지체와 인격에 눌린듯 한쪽무릎을 약간 꺾으며 고개를 다소곳이 숙였다.

철룡은 크리스띤의 손을 꽉 잡아쥐고 흔들었다. 처녀는 손이 아픈지 한쪽어깨를 낮출사하며 입을 반쯤 벌리기까지 했다. 곁에 서있는 아버지는 그저 쓸쓸하게 웃기만 하였다.

크리스띤은 얼굴이 발개져 인차 트렁크를 들고 떠나갔다. 로인은 우수에 젖은 눈으로 딸의 뒤모습을 멍하니 지켜보았다.

《어디 멀리로 떠나는가요?》 하고 철룡이 물었다.

《…》

《무슨 좋지 못한 일이라도 생겼는가요?》

로인은 상관말라는듯 손을 홱 내젓고는 다시 활기를 띠며 돌아섰다. 일행이 미술박물관쪽으로 걸음을 옮길 때 로영무는 최승진이 손목을 잡는바람에 좀 뒤로 떨어졌다.

최승진이 못마땅한 얼굴로 나직이 말했다.

《철룡이가 너무 뜬게 아니요?》

앙드레 뻬르망은 사실주의적화풍의 벽화들앞에서는 해설을 안했다. 불만한것이 없다는듯 앞에서 걸어가며 이따금 그들을 흘깃흘깃 돌아보군하였다.

외국의 젊은 관광객들도 그런 벽화들은 대충 훑어보며 지나갔는데 개중에는 그림을 전혀 보지 않고 무엇인가를 쩝쩝 씹으며 저희들끼리 히히덕거리면서 산책을 하는 기분으로 걸어가는 남녀들도 있었다. 그들은 대체로 심각한것을 싫어하고 인간의 사색을 고달픈 육체로동처럼 여겨 유흥장의 오락취미밖에 붙이지 못한 경박한 부류의 청년들인것 같았다.

유럽문명권에 살면서도 조형예술에 대한 감상과 같은 고상한 취미를 붙이지 못하여 무궁한 미의 세계를 한평생 모르고 지낼 그런 청년들을 측은하게 여겨보는데 밤빛곱슬머리에 수염을 더부룩하게 기른녀석이 한 그림에 대고 주먹질을 하며 무엇이라고 지껄여댔다.

그 그림은 아련하게 웃고있는 예쁘장한 농촌처녀의 초상화였다. 송동무의 번역에 의하면 그녀석이 지껄인 소리란 이런것이였다.

《여, 처녀, 네가 나한테 무슨 상관이야? 액틀속의 그림이니까 팔을 잡아 끌어내올수도 없구 옷을 벗길수두 없단말이야. 실용성이 없는 모든것은 다 거짓이다. 프랑스여, 차라리 산 녀자들을 액틀속에 넣어 세워놓으라!》

놈팽이의 허리에 한팔을 감고있는 처녀는 그 소리가 우스워죽겠다는듯 입을 싸쥐고 캐득거렸다.

로영무는 그 놈팽이가 조선전선에서 불구가 되여 돌아간 어느

《련합국군》 대포밥의 후예일수도 있지 않을가싶어 몸서리를 쳤다.
관광객들중에는 간혹 미술에 대한 신중한 애호가들도 있었다. 그들은 대체로 늙은이들이였는데 한 로부부는 젊은것들한테서 떨어져 걸어가다가는 명화앞에 손에 손을 잡고 가지런히 서서 귀속말로 소곤소곤 속삭이기도 하고 감동되여 눈물을 머금기도 했으며 때때로 그림앞으로 다가가 작자의 이름을 들여다보고는 머리를 끄덕이는것이였다.
셋이 그런 관객들과 벗하여 그림들앞을 천천히 지나가는데 삐르망이 대폭의 한 라체화앞에서 그들을 기다리고있었다.
해설조차 안하던 그가 어찌된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보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젊고 아름다운 녀자가 나무그림자가 드리운 개울에 들어서서 목욕하는 그림이였다.
앙드레 삐르망은 호기심이 끓는 갈색눈으로 철룡이를 빤히 지켜보았다.
《아름답지요?》
《예…》
《색정은 느끼지 않습니까?》
《색정이요?》
《예… 바로 색정말입니다.》
로영무와 최승진이 긴장된 얼굴로 여겨보고 송동무가 루추한 질문에 자꾸 걸려들지 말고 어서 자리를 뜨라는듯 끔쩍끔쩍 눈짓을 했다.
철룡은 두 일행의 얼굴표정과 외교일군의 눈짓 그리고 자기를 무엇에로인가 끄드겨보자는 속심인 로인의 기색에 불쾌감이 드는지 좀 거칠게 대답했다.
《뭘 색정까지 느끼겠습니까. 아주 평화로운 목가적인 정서를 느낍니다.》 그리고는 어줍게 웃었다.
《솔직한 대답입니까?》
《당신은 우리한테 거짓말을 했는가요?》
삐르망로인은 좀 당황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아니… 아니요.》
《색마들의 병든 감각만이 저기서 색정을 느낄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나는 평화를 느낍니다. 그리고 더 보태면 인간의 아름다움을 봅니다. 저기에 색정은 없습니다.》
최승진이 끼여들었다.
《뻬르망씨, 저건 루네싼스 썩 이전작품이 아닙니까? 그때 화가들이 색정을 고취하자고 저런 라체화를 그렸던가요?》
앙드레 뻬르망은 순식간에 얼굴이 벌개져 한손으로 이마를 찰싹 때려보였다.
《내가 혼돈을 일으켰댔습니다. 나이탓에… 회화예술에 라체화가 본격적으로 나타난것은 루네싼스바람이 불자부터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신 말이 옳습니다. 신의 세계가 아니라 지상에서, 인간생활에서, 인간자체에서 아름다움과 위안을 찾자는 강력한 지향으로… 모든 인간적인 요소들을 질식시켜온 종교의 잔혹한 계률과 자아희생, 금욕주의, 고행을 례찬해온 허위적인 설교에 대한 반발로… 봉건적인 구속과 압제에 대한 반항으로… 화가들은 라체화를 그렸습니다. 처음에는 신을 인간의 모습으로 끌어내려 거기에 인간적인 미를 부여해서 녀신의 라체상을 묘사했고 그다음에는 인간자체의 아름다움을 그렸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미의식발전에서 하나의 혁신이였습니다. 그때 창조된 라체상들은 개성해방에 대한 호소이고 인간례찬의 송가입니다. 그리고 인문주의철학사상의 회화적표현입니다.》
뻬르망은 변명조로 내리엮고는 또다시 철룡이를 과녁으로 삼았다.
《여기서 듣기에는 동방에서는 화가들이 라체화를 그리지 못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못하는게 아니라 안합니다.》
《어째서요?》
《어짼가구요? 풍습과 전통때문입니다. 우리 나라 화가들은 예로부터 산수화나 풍속도 초상같은것을 많이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술에 성문제도 전혀 반영되지 않는가요?》

《성문제요？》

《예…》

《사랑문제와 성문제를 갈라놓고 본다면 그렇습니다.》

《믿기 어렵습니다. 성생활도 인간생활의 중요한 부분인데 예술이 그런 문제를 배제한다면 당신네 예술이 인간생활을 폭넓게 전면적으로 반영한 예술이라고 말할수 있습니까？ 실례의 말씀이지만 당신네는 너무 정치본위의 예술을 건설하자는건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면 어째 성문제와 같은 그런 복잡한 문제를 외면합니까？ 시끄러워서？ 저급한 문제여서？ 내가 알기에는 당신네가 존경하는 레닌과 같은 고상한 인격의 소유자도 한때 그 저급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적이 있습니다. 성해방론을 반대해서… 저급하든 어쨌든 예술이 인생문제에 해답을 주자면 사람들이 남몰래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는 그런 문제에도 해답을 줘야 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그것이 공개되는것을 두려워하지요？ 수치스러운 일로 여기지요. 그래서 정치가 그것을 덮어버리고 예술이 그것을 외면하지요？ 그렇지요？》

철룡은 문제제기가 본격화되자 가슴이 서늘하게 식어드는지 얼굴빛이 해쓱해졌다.

《뻬르망선생, 우리는 예술이 사회적의의가 있는 문제를 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말하면 사회성이 있는 문제를… 당신이 열중하고있는 성문제로 말하면 우리한테서는 그것이 문란해져 사회적문제로 제기된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정치가 덮어버릴것도 없고 예술이 외면할것도 없습니다. 없는 문제를 억지로 만들어서 반영할 필요까지야 있겠습니까. 그 어떤 표현의 자유, 공개의 자유가 있다는것을 시위하기 위해서… 사회적문제의 공개에 대하여 말하면 우리는 관료주의와 같은 우리 사회내부의 사상정치적인 문제까지 영화에서 공개적으로 비판합니다. 그것에 비하면 성같은건 너무 하찮은 문제입니다.》

맹랑한 문제의 공담으로 시간을 보내는것이 안타까와 로영무는 팔목시계를 들여다보며 퉁명스럽게 일렀다.

《철룡이, 우리 나라에 성병환자가 한명도 없다는걸 말해주라

구. 그게 제일 설득력있는 대답일거야.》

송동무가 그 말을 받아 통역하자 앙드레 뻬르망은 놀란 눈으로 로영무를 쳐다보았으나 집요하게 달라붙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거기서는 예술에 성생활도 전혀 반영하지 않고있습니까?》

최승진이 대답하였다.

《그렇다고 볼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도 인간생활의 중요한 리면인데…》

《그렇기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본능적인 생활입니다. 만약에 예술이 섭취와 배설,성,번식과 같은 본능적생활까지 다 반영한다면 그건 생물학의 한 분파이지 예술은 벌써 아닐것입니다. 때문에 성에 빠진 작가들은 례외없이 예술자체를 저조하게 만들었고 자가당착에 빠져 자신도 다 망해버렸습니다. 거기서 탐구할것이나 새로 발견할것이란 생물학적문제외에 아무것도 없기때문입니다.》

빠리시민은 더 묻지 않았다.

일행은 다시 움직였다. 로영무가 언짢은 눈길로 철룡을 돌아보는데 최승진이 곁에 와서 좋지 않은 얼굴로 속삭이였다.

《령감이 흉물이요! 우리를 시궁창같은데 끌어들이자고 꾀한것 같소. 우리가 동정심때문에 속히운게 아닌지 모르겠소.》

일행은 다른 미술관으로 찾아가 휴게실로 들어갔다. 그들은 흥분을 드러내지 않고 장의자들에 걸터앉아 묵묵히 레몬수만 마셨다.

남아메리카주에서 관광온듯한 한떼의 청춘남녀들이 우르르 밀려들어와 선채로 레몬수며 코카꼴라 등을 마셔버리고는 담배내와 값눅은 향수냄새,땀내를 풍기며 떠들썩하게 다음방쪽으로 밀려갔다.

이윽고 그쪽방에서 녀자의 자극적인 탄성이 터져올랐다. 련이어 들려오는 속삭임,웅성거림… 보지 않고도 환희로 설레이는 그쪽의 공기를 느낄수 있었다.

《저 방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고 로영무가 물었다.

앙드레 뻬르망은 그들의 엄엄한 기상에 좀 주눅이 든듯 공손하게 대답하였다.

《저 방에서부터 회화예술의 본격적인 세계가 펼쳐집니다. 당신들은 이때까지는 무미건조한 사실주의의 오솔길을 걸어왔습니다.》

《어째 사실주의를 무미건조하다고 합니까?》 하고 최승진이 공격자세를 보였다.

《상대적으로 그렇다는것입니다. 우리 현대회화예술의 전위에 섰던 창작가들은 벌써 일찌기 령감을 구속하는 사실주의멍에를 벗어던졌습니다. 사실주의는 끄지끄문화를 밀어버린 루네싼스문명이 우리한테 넘겨준 유산인데 그 기운이 19세기까지는 뻗쳐올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9세기말에 와서는 맥이 진해졌고 호미나 낫처럼 낡은 쟁기로 돼버렸지요. 농경의 견지에서 보면 뜨락또르의 시대가 왔지요.

한때 프랑스사람들이 사실주의조류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자연주의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까지 본 다음 그리는 방법이다, 비판적사실주의는 보기만 하고 그리는 방법이다, 사회주의적사실주의라는것은 만져보거나 보지도 않고 듣기만 하고 그리는 방법이다. …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사실주의에 대한 터무니없는 비방이 아닙니까?》 하고 로영무가 감정을 감추며 부드럽게 물었다.

《당신들한테는 비방으로 들리겠지만 유감스럽게도 그건 과학적인 근거를 가진 부정이고 비판입니다.》

《어떤 근거말입니까?》

앙드레 뻬르망은 대답했다.

《한가지 례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보아온 회화작품들은 례외없이 하나의 시점에서 대상을 보고 그린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묘사대상은 립체적인 존재이지요. 하나의 시점에서 립체의 전모를 파악할수 있습니까? 결국 립체의 한 걸면만을 그리고 다른 면들은 겨우 암시했을뿐입니다. 겨우 암시밖에 하지 못한 바로 여기에 사실주의회화의 항변 못할 제한성이 있습니다. 3차원적구도라는 그의 원근법으로는 이 난점을 도저히 해결할수 없지요. 또 한가지… 고전회화들은 모두 정지된 시점에서 대상을 보고 그린것들입니다. 정지… 절대적정지란 있는가요? 과학은 그것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지 오랩니다. 정지란 가상적인것이고 허위입니다. 따라서 정지된… 허위적인 그런 시점에서 그린 작품들을 진실한것이라고 믿을수 있겠습니까. 시점이 허위적인것만큼 그것들도 허위이다! 현대의 리성은 이렇게 소리칩니다. 대상도 시점도 다 영원한 운동속에 있는것만큼 운동속에서 포착된 상을 그림에 옮겨야 진실에 가까운 화폭을 얻을수 있는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로영무는 눈을 내리뜨며 랭소를 머금었다.

《당신은 왜 웃습니까?》

《어쩐지 비예술적인 론리같아서 그럽니다… 미안합니다.》

《당신한테는 이것이 웃어넘길수 있는 단순한 문제로 여겨집니까?》

《그래서 미안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술이 천상의것이 아니고 지상의 진실을 추구해야 된다는것을 고려할 때 과학적인 진리를 외면해서는 안되지요. 더구나 지금은 과학의 시대가 아닙니까. 이것은 과학기술의 시대에 사는 현대인류의 미의식에 관한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뻬르망씨, 당신의 그 말에는 완전히 동감입니다.》

《그럼 보면서 이야기를 계속합시다.》

세사람은 로인의 뒤를 따라 다음방으로 들어갔다.

벽에 걸려있는 추상파그림들이 보이자 로영무는 걸음을 늦추며 웃음어린 얼굴로 말했다.

《허, 이건 굉장한 판이구만!》

《대충 보지 않겠소?》 하고 최승진이 경계심을 드러내였다.

《글쎄… 어릴적 일이 생각나누만… 언젠가 한번은 어머니를 따라 장거리로 가다가 송장과 맞다든적이 있소. 술에 취해 길바닥에 곤드라졌다가 그만 얼어죽은것 같았소. 내가 덜컥 겁을 먹고 뒤걸음치려는데 어머니가 내 손을 꽉 붙잡았소. 이런 때는 가까이 가서 냄새가 역하더라도 찬찬히 여겨봐야 귀신이 붙지 못한다고 하지 않겠소. 이왕 맞다든바치고 우리 어머니 말대로 해보지 않겠소?》

최승진이도 철룡이도 웃었다. 뻬르망로인이 무슨 소리를 하는가 해서 그들을 돌아보았다.

그들은 그 로인에 대한 감정과는 관계없이 대폭, 소폭의 그림들 앞으로 다가가며 이번 기회에 퇴페미술에 대한 리해를 똑바로 가져야 하겠다고 생각했다.

누구나 그 어떤 랭소의 빛이나 반감, 적의를 경솔하게 드러내지 않고 진지한 눈빛으로 그림들을 돌아보았다.

처음에는 화폭속에서 색조들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밝아졌다가 어두워지고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지고 하더니 명암이 어디로인가 사라졌다. 그리고 진홍, 암청과 같은 원색들이 두드러지고 화폭의 색갈이 자연의 색갈과 분리되기 시작했다. 시커먼 나무잎사귀, 누렇고 퍼렇고 불그무레한 반점들이 범벅이 되여 점점이 찍힌 어둑한 하늘, 시뻘겋고 누런 색갈을 미친듯이 뒤섞어 발라놓아 피고름의 흐름처럼 느껴지는 강물…

다음에는 화폭의 선들이 전률하며 되는대로 이그러지기 시작하며 인체와 자연의 모든 비례와 조화며 균형들이 파괴되기 시작했다.

몸체의 길이 절반만큼 뽑아진 목, 얼굴의 웃부분을 가득 채운 커다란 한개의 눈, 개미만한 말, 말만한 파리, 집보다 더 큰 창문… 이상한것은 그것들이 만화적인 과장처럼 웃음을 자아내지 않고 시체에서처럼 서늘한 그 무엇을 풍기는것이였다.

어떤 화폭에서는 몸체는 건장한데 다리가 해골로 된 사람이 진흙빛의 사막을 걸어가고있었다. 아름다운 육체미의 녀자의 젖가슴에서 뽑아낸 서랍에서 용수철이며 잘다란 치차, 나사못따위들이 튀여나오고있었다. 인체가 분해되여 괴이하게 이그러진 머리, 머리보다 더 큰 발… 가느다란 몸통이 컴컴한 하늘에서 날아돌고있었다.

그러다가 그런 괴이한 형상마저도 가뭇없이 사라지고 흐릿한 륜곽이나 희미한 형체마저 없는 기하학적인 직선과 곡선들, 녹아서 이그러진 연덩이나 깨진 돌쪼각, 쇠쪼각 같은 괴이한 립체들과 착잡하게 뒤엉켜 돌아갔다.

정삼각형과 겹쳐진 길죽한 구형, 캄캄한 공간에 튀여올라 전률하는듯한 우불구불한 무정형의 곡선, 아무런 형체도 없는 시뻘건 색갈의 파도, 회색빛의 공간에서 무엇인지 도무지 알수 없는 그 어

면 유들유들한것들과 곡선같은것들이 기묘하게 교차되여 란무하고있었다.

정신착란증이 일어나는것 같았다.

《보십시오. 얼마나 비범한 화폭들입니까! 당신들은 놀랍겠지요? 미의식에 나타난 이 변혁은 생물계에서 보게 되는 미지의 충격에 의한 돌연변이의 신비와 같은것이기때문에 인간의 지능으로는 그 비밀을 철저히 발굴해낼수 없다고 봅니다. 한 미학자가 어떤 추상파화가를 붙잡고 왜 그렇게 그리느냐고 물었더니 그는 심한 모욕을 느껴 〈내가 아는가!〉고 소리쳤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그들이 아연해져 아무 말도 못하자 앙드레 뻬르망은 더 기세등등하여 손가락으로 아래쪽을 엇비스듬히 내찌르며 극적인 동작을 연출하였다.

《감각도 없는 고루한자들이여, 너희들이나 그 원인을 찾아 머리를 썩이라!》

그리고는 스스로도 어색한지 빙그레 웃었다.

《그러면 저 마네의 그림을 보면서 구체적인 과정을 살펴봅시다. 마네는 저렇게 빠리적인 향락생활의 단면들을 많이 그렸습니다. 저 얼싸안고 춤추는 남녀들의 얼굴과 저 풀밭에 앉아있는 녀자의 관능적인 피부색을 보십시오. 밝은 색이 눈부시게 강조되였습니다.

이때까지 사실주의회화에서 흔히 보던 어두운 색갈은 저 육체의 어느 구석에서도 찾아볼수 없습니다. 음영을 쫓아버렸기때문입니다. 남부프랑스의 해빛이 쨍쨍한 자연속에서 자라 밝은빛에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있는 천성이 그를 혁신의 길로 추동했는지도 모릅니다. 이때부터 화가들은 모두 색과 빛에 열중하게 되였습니다. 자연의 색이 아니라 자기 눈에 감각된 색을 포착하여 화폭에 옮기려는 시도가 하나의 경향으로 되여 인상파가 나왔습니다. 보십시오. 회화의 색은 자연의 구속에서 해방되였습니다. 인상파의 전위들중에는 자신의 시각에 불만을 느낀 사람들도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자연의 대상이 반사하는 빛을 스펙트르 분석하여 7원색의 비례로 회화의 색을 정하는데까지 이르렀지요. 칠원색이야말로 색의 본질이고 진실이 아니겠습니까. 색의 본질로 육박해들어가면 원

색에 부딪치지요. 이러한 탐구적정열은 회화예술에서 자연의 허위적인 중간색들을 깨끗이 밀어내고 생동한 원색을 폭발시켰습니다. 천재들은 대상의 영원불멸의 참모습에로 육박해들어갑니다. 대상의 선,색,형태를 분석하고 거기에 대상에 대한 지식과 체험까지 합친다음 의식속에 종합된 그것을 추상하여 〈물체로서의 회화〉를 창조합니다. 보는것처럼 현대회화는 자연모방이라는 관념에서 발전해온 종래의 회화와도 완전히 다른 자유로운 창조물로 승격되였습니다. 회화와 미술전반에 대한 리해도 이전시대와는 비교할수 없이 풍부해졌습니다. 대상을 관찰하는데서 하나의 고정된 시점이 아니라 설계도와 같이 몇개의 각도에서 관찰하고 거기에 대상에 대한 지식과 체험까지 종합하는 방법만이라도 생각해보십시오. 그후에 나타난 초현실주의는 시점을 의식의 더 깊은 내부에까지 침투시켰습니다. 그래서 의식밑의 세계를 회화에 담을수 있게 되였습니다. 저 그림을 보십시오. 황갈색화염의 회오리속에서 전률하는 저 피얼룩같은 반점들은 인간의 본원적인 정욕을 표현한것입니다. 회화예술이 어디까지 나가고있습니까!》

빼르망은 의기양양해서 력설하며 그들의 얼굴표정을 흘끔흘끔 엿보았다. 최승진은 웬일인지 갑자기 얼굴이 캄캄하게 질려 미간을 찌프릴사하고 눈을 내리뜨고있었는데 설명도 듣지 않는것 같았다. 무슨 생각이 그를 괴롭히는지 알수 없었다. 강철룡은 울기가 오른 사람처럼 얼굴이 벌개져 이따금 의아한 눈으로 빠리시민을 빤히 쳐다보기도 하고 심취된듯 그림을 들여다보기도 하였다.

로영무는 환멸감을 참을수 없어 해설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걸음을 앞으로 옮겨갔다.

빼르망은 그를 따라오며 계속 쏟아부었다.

《회화의 이런 발전에는 장애가 전혀 없은것이 아닙니다. 무서운 저항이 있었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각종 고루한 화파들이 사실주의에 대한 도승같은 신앙심을 품고 현대미술의 전위들을 공격했지요. 회화에서 선,색,음영,구도… 모든 조형적요소들을 추방한 이것은 미술이 아니다,미학적인 방종이고 란동이다,이건 추상미술도 아니다,추상예술의 시조인 끄지끄미술을 보라,거기에는

인간의 기하학적정신이 론리적으로 전개되여있었다, 그런데 현대추상미술에서 그런 티끌만한 요소도 찾아볼수 있는가. 그러자 추상파의 천재들은 항변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다, 우린 순 추상이라는 의미에서 끄지끄정신을 계승했다, 우리한테 기하학적선도 전혀 없는것이 아니다, 루네싼스의 기둥과 벽속으로 깊이 스며들었던 끄지끄의 생명이 오늘 폭발적으로 터져나와 추상파미술로 꽃피였다. 별별 목소리들이 다 터져올랐습니다.

론쟁이 붙었지요. 예술잡지들과 신문들 지상에서 치렬한 공방전이 벌어졌습니다. 싸움은 지상에서만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쌀론에서, 구락부에서, 대학강실에서, 지어는 저 쁘로뉴숲속에서 결투가 있었다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이것은 미의식분야에서의 공민전쟁이였습니다.

사람들의 기호가 이 싸움을 가라앉혔지요. 사람들은 사실주의회화보다 추상파회화를 열광적으로 환영했고 돈을 아끼지 않고 그것들을 사들였습니다. 돈은 공명정대한 재판관이였습니다. 그림이 팔리지 않아 호구지책도 없게 된 완고한 사실주의고집쟁이들은 도승이 산중 암자에서 배를 곯으며 도를 닦는것처럼 뒤골목의 화실에 구겨박혀 붓장난이나 하는 가련한 신세가 되였지요. 허허허…》

그들이 밖으로 나왔을 때 최승진은 정원수의 그늘속에 못박힌듯 서서 무슨 생각에 골똘하는지 자기 발끝쪽에 눈길을 떨어뜨리고 움직일줄 몰랐다. 나무잎사귀들의 그림자가 그의 얼굴에 어른거리고 눈섭이며 턱밑에 맺힌 땀방울들이 구슬처럼 반짝이였다.

로영무는 조심스럽게 그의 곁으로 다가갔다.

《어디 불편하오?》

최승진은 놀라서 얼굴을 들었다.

《허, 굉장한걸 봤구만.》

그는 허거프게 웃었다. 그리고는 뻬르망로인이 가까이에 서있는것도 개의치 않고 신경질적으로 말했다.

《로형, 저… 저 늙은놈팽이를 돈이나 줘서 쫓아버리지 않겠소? 추상파미치광이요!》

《너무 흥분하지 말라구. 우리 기준으로 여기 사람들을 대할 수야 없지 않는가.》

앙드레 뻬르망은 자기 소리를 한다는것을 눈치챈듯 그들쪽을 빤히 바라보았다.

×

미술관에서 나온 일행이 거리의 매점에 들려 레몬수로 목을 추길 때 최승진은 속에서 메스꺼움이라도 이는지 불쾌한 얼굴로 몇모금 마시는척만 하였다.

그들은 쎄느강가의 유보도로 나가 산책하였다. 뻬르망이 옆에 있어 모두 별로 말이 없었다. 입만 벌리면 론전의 불길이 확 일것만 같았다.

뻬르망로인은 또다시 철룡이를 흘끔흘끔 훔쳐보았는데 역시 그를 만만한 과녁으로 여기는것 같았다.

룩셈부르그공원 장의자에 일행이 걸터앉아 땀을 들일 때 드디여 불꽃이 튀였다.

《젊은이는 어째 추상파미술을 보고는 한마디 말도 안하오?》

로영무가 얼른 그의 말을 받았다.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할말이 없다구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입을 열면 아름답지 못한 소리만 나오겠는데 손님으로 와서 남의 문화에 욕설을 퍼붓는다면 그게 무슨 례절이겠습니까. 그저 인식하는것으로 그쳐야지요.》

뻬르망로인은 그를 빤히 지켜보았다.

《당신은 욕설을 퍼붓고싶을 정도로 그처럼 불만이 큰가요? 추상파미술은 현대예술의 전위에 서있고 또 현대인들은 다 열광적으로 환영하여 박수갈채를 보내고있습니다.》

《다는 아닙니다. 우선 나만 해도 현대인의 한사람이 아닙니까. 그리고 또 박수갈채를 보낸다고 다 훌륭한것은 아니지요. 류행심리란것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무것도 리해하지 못하면서

남들이 박수를 치니까 따라서 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온 유럽… 온 인류가 박수를 쳐도 제 마음에 안들면 혼자 박수를 안치겠다는 배심이군요.》

《자기 감정에 공감이 안되고 리성에 납득이 안되는걸 어떻게 박수갈채로 환영합니까?》

《만약 당신이 빠리시민이고 세상사람들이 다 입고다니는 류행복이 아니라 시대에 퍽 뒤떨어져보이는 옷을 입고 저 오페라가나 꼰꼴드광장을 지나간다고 합시다. 당신은 사람들의 주목을 끕니다. 야유와 조소를 받을수도 있고 모욕을 당할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냥 그 옷을 입고다니겠습니까?》

《글쎄요. 빠리시민이 안돼봐서 모르겠지만 다른 어디서라도 진짜 옷문제라면 류행에 너무 엇서고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미의식… 예술의 조류와 같은 그런 신중한 문제에서는 절대 무원칙하게 류행심리를 따르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무슨 배심으로, 무슨 신념으로 그렇게 말합니까? 추상파미술이 류행심리때문에 환영받는다는 말은 처음 들어봅니다. 당신은 추상파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알고 그렇게 속단합니까?》

《깊이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미술이 아닌 미술이 그렇게 환영을 받는다면 다르게야 해석할수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나는 오늘 단조성때문에 겨우 마지막까지 봤습니다.》

《단조하다구요? 아,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게 다양한 화폭들이 당신한테는 단조롭게 느껴졌단 말입니까?》

《다양하고 천태만상이긴 하지만 하나같이 허황하기때문에… 그 일관된 허황성때문에 정말 단조로워… 따분해서 겨우 봤습니다. 나는 거기서 진정한 추상도 얼마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당신한테는 저것들이 다 뭘로 보입니까. 통털어 미술이 아니란 말입니까?》

《대답하기전에 제가 한두가지 물어도 괜찮겠습니까?… 저 작품들을 여기 사람들은 잘 리해합니까?》

《글쎄요… 당신한테 터놓고 말하면… 아마 거의 다 리해하지 못할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술과 인민대중사이에 장벽이 가로놓인게 아닙니까?》

《그건 무지의 장벽입니다.》

《인민들이 리해하기 쉽게 창작하여 그 장벽을 허물어버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자면 예술을 통속화해서 시민들의 리해수준에까지 낮추어야 합니다. 이것은 퇴보이고 타락입니다.》

《타락이요?》

《그렇습니다. 일반 관객들한테 깊은 리해가 무슨 필요하겠습니까. 그림을 보고 제나름으로 무엇인가 느끼면 되는것입니다. 느끼지 못하면 할수 없고… 예술가는 단 한사람이라도 좋으니 사회의 가장 최고급의 감수성을 기준으로 해서 창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술이 상승발전합니다.》

《우리하구는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대중의 리해와 공감이 없으면 예술이나 무엇이나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어서…》

《저 추상파미술들에서 여기 사람들은 어떤 미감을 느낍니까? 당신자신은 거기서 그 어떤 아름다움을 느낍니까?》

《미감이라구요? 아름다움이라구요? 여보시오. 미술이 외형적미를 추구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아득한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시대와 함께 미술의 사명도 달라졌습니다. 현대회화예술은 사실주의회화가 대상으로 삼았던 외형적미를 제껴버리고 그 내부로 육박해들어가 본질을 해부하고 분석합니다. 화가는 그 해부되고 분석된 본질을 추상하여 화폭에 표현합니다.》

《그건 모두 사실과 맞지 않는 말입니다. 사실주의회화가 외형적미를 통하여 내적미를 표현했고 내용과 형식의 통일속에서 미를 창조했다는것은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외형적미를 제껴버리고 대상의 순수한 본질을 분석한다는것은 미술의 본성에도 맞지 않는 말입니다. 물리학이나 생리학이면 몰라도… 그 해부요, 분석이요 하는것은 미의 해체, 파괴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나는

오늘 현대회화들을 보면서 그것을 절감했습니다. 이 흐름은 정말 리해할수 없는것입니다. …》

로영무는 이렇게만 말하고 입을 다물었지만 그 흐름이 무서운 파괴력을 가진 핵분렬처럼 위험한것이고 미의식발전의 견지에서 보면 하나의 력사적반동이라고 소리치고싶었다.

뻬르망로인은 바위돌로 굳어진듯 까딱 움직이지 않고 그를 지켜보았다. 크게 뜬 로인의 눈이 섬광처럼 타올랐다.

내내 잠자코있던 최승진이 로인을 돌아보며 날카롭게 물었다.

《뻬르망씨, 미안하지만 당신은 추상파와 어떤 인연을 맺고있습니까?》

로인은 아픈 타격이라도 받은듯 눈을 괴롭게 내리뜨고 볼편을 떨었다. 그의 우묵한 눈확에 비분의 그늘같은것이 어른거렸다.

로인은 신음소리와도 같이 가느다랗게 떨리는 소리로 중얼거렸다.

《당신의 눈은 더 적라라하게 묻는군요. 추상파를 선전하고 몇푼이나 받아먹는가고… 대답하지요. … 대답하지요. …》

그다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로인이 미친듯이 외마디 탄성을 내지르며 로영무와 최승진의 손들을 잡아끌어 자기 가슴에 붙이고 무섭게 몸부림쳤던것이다.

《용서하시오! 벗들, 용서하시오!》

그의 눈에 눈물이 굻었다. 로인은 채머리를 떨며 이때까지 자기본색을 감추고있은것을 용서해달라고 거듭 사죄하였다.

모두 어리둥절해졌다.

《벗들, 나는 당신들의 벗이요.》

알고보니 로인은 추상파들의 공격에 움츠러든 사실주의화파의 한 병사였다.

로인은 말했다.

《나는 동방에서 온 당신들의 신념을 가늠해보고싶었습니다. 그래서 놈들이 우리를 찌르던 그 날창을 모두 당신들의 가슴에 돌려대봤습니다. 나는 당신들의 신랄한 반박에서, 침묵에서, 말없는 분노, 눈에 어린 환멸과 멸시, 증오의 빛에서 당신들의 건전한 미

의식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어떤 신념에 안받침되여있는가를 깨달았습니다. 친구들, 우리는 참된 미를 지키는 성전에서 같은 참호에 엎드려있구려. 우리는 말하자면 전우들입니다!》

최승진이 그의 손을 와락 잡아쥐며 부르짖었다.

《여보시오!…》

로인의 눈에 눈물이 떨었다.

《당신들은 어떻게 돼서 눌렸는가요?》

로인은 손등으로 눈물을 빗씻었다.

《아, 그건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금력때문이지요. 부르죠아지의 금력때문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의 생명도 사랑도 정조도 다 상품으로 만들어버린 자본이 예술까지 상품으로 만들어버렸기때문입니다. 추상의 경향은 마네와 그의 추종자들로부터 시작됐고 그들은 빠리의 향락생활을 그리지 않았습니까. 이 의미심장한 일치가 추상미술의 진로를 열어놓은 단서로 되였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자연에서 유리된 밝은 색채의 그 그림들은 취미가 저속한 부르죠아지들의 향락기분에 꼭 들어맞았습니다. 놈팽이들은 그런 그림들은 후한 값으로 사들여 그 작자들을 부유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미술품은 어느덧 비누나 양말 같은 소비품처럼 상품이 되고 돈, 시장가격에 의해 그 가치가 오르내리게 되였습니다. 돈벌이에 얼이 빠진 미술가들은 창녀들처럼 량심을 버리고 부르죠아지들의 취미에 아부하여 해괴망측한 그림들을 망탕 그려냈습니다. 미술은 추상도 아니고 아주 퇴폐화되였지요. 나도 그런 흐름속에 휘말려들었댔습니다. 먼저 공격의 불을 뿜은것은 사실주의화파들이였습니다. 그 공격은 나의 심혼을 흔들어놓았습니다. 나는 수치심을 느꼈댔습니다. 나는 돈의 노예로 될수 없었습니다. 창녀로 될수 없었습니다. 나는 추상파라고 자칭하는 그들, 퇴폐의 진영을 결연히 떠나 사실주의화풍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온갖 비난과 조소를 다 퍼부었습니다. 변절자, 예술의 락오자라고… 그들은 나를 포함한 우리 사실주의화파를 시대에 뒤떨어진 고루한자들, 환상의

날개가 없어 땅에서 뚱기적거리는 타조, 게사니로 조롱했습니다. 내 그림은 특히 팔리지 않게 되였지요. 생활난이 숨통을 무섭게 눌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미의식을 타락시키는 마약과도 같은 그런 퇴폐적인 그림을 더는 그릴수 없었습니다. 오늘도 화가들은 돈… 돈때문에 이 류파에서 저 류파로 방황하고있습니다.

노벨상수상자인 존경하는 나의 스승, 루돌프 오이켄이 쓴 이런 문장이 생각납니다.

〈우리는 인도하는 별이 없어 시간의 파도에 떠내려가고있다. …〉

내가 죽지 않은것은 기적입니다. 나를 죽음과 타락에서 구원해준건 크리스떤이지요. 그 애는 나의 일루의 희망이였습니다. 나는 절망과 슬픔이 가슴에 차넘칠 때마다 그 애를 안고 프랑스 문화사를 옛말로 이야기해주며 아득한 옛날에 따뜻한 남쪽에서 루네쌍스바람이 불어와 끄지끄의 추상주의를 밀어버리던것처럼 이제 어느때인가 반드시 새 루네쌍스의 바람, 문예부흥의 따뜻한 바람이 불어온다고, 그때면 아버지도 부르죠아나리님들 못지 않게 되고 우리 크리스떤은 옛날의 공주처럼 차려입고 맛나는 과자랑, 실과랑 맘껏 먹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애는 내 말을 죄다 알아들은듯 방긋 웃었습니다. 어린것의 그런 웃음을 보면 가슴속의 슬픔도 괴로움도 다 녹아없어지는것 같았지요.》

로인은 가슴이 터지도록 한숨을 내쉬였다.

《나의 안해는 매우 선량한 녀자였는데 가난을 이기지 못하여 도망쳐버렸습니다. 나는 찾아다니지 않았습니다. 행복을 찾아 날아가라고… 나와 크리스떤만이 이 세상에 댕그랗게 남았지요. 나는 엄마없이 자라는 그 애가 불쌍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키웠습니다. 그 애가 한떨기 꽃처럼 피여나는것을 보는것이 나의 유일한 기쁨이고 행복이였지요. 한데 그 애는 나이를 점점 먹으면서 다른 애들한테는 다 있는 엄마가 자기한테만은 없다는것을 생각하게 됐으며 마침내 그 까닭을 알게 됐지요. 그 애한테는 엄마가 떠나간것도 째지게 가난한것도… 모든 불행의 화근이 다 이 아비 화풍에 있었지요. 철이 들자 그 애는 나더러 화풍을 바꾸어 남들처럼 그림을 그려 돈을 벌자고 졸랐지요. 애걸했지요. 내가 제 말에 등을 돌리자 그 애

는 나를 원망하고 내 화풍을 미워하게 되고 나중에는 반발적으로 추상파미술의 숭배자가 되더니 모든 기성의 관념과 도덕을 우습게 여기게 되였지요. 퇴페화가들한테 돈에 팔려 모델을 서면서 옷을 벗고 짐승같은 짓을 하면서도 수치를 모르게 되였습니다. 이건 나한테 이중의 타격이고 참을수 없는 고통이였습니다.

나는 미칠것만 같았습니다. 나는 그 애 목을 조이며 죽여버리겠다고 위협도 해보고 발밑에 엎드려 제발 그러지 말아달라고 울며불며 빌기도 했지요.… 천성이 착한 그 애는 이 아비가 불쌍했던지 좀 누그러졌지요.… 말이 난김에 한마디 더 하면 오늘 나한테는 매우 슬픈 리별이 있었습니다. 자기 예술과의… 전우들사이에야 무엇을 감추겠습니까.》

크리스띤은 얼마전 한 영화업자한테 배우로 채용되여 대부호의 방종한 딸역을 맡았는데 연출가가 제작비난으로 의상과 소도구들을 자비로 갖출것을 요구했다는것이였다.

프랑스에는 대영화기업체들이 없기때문에 새로 발족된 가난한 제작단체들에서는 종종 이런 일이 생긴다면서 돈은 없지, 그렇다고 모처럼 차례진 행운과 성공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되겠고 그래서 딸은 아버지의 회화작품들을 골동품시장에 내다 팔자고 졸랐다는것이다.

《한생의 력작들이 골동품수집광들의 손에 헐값으로 넘어간다고 생각하니 대답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 참 기막힌 일이지요.… 딸애는 자살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하는수 없이 허락했지요. 그애는 아까 그림들이 든 트렁크를 들고와서 골동품시장에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두쇠는 서너점만이라도 남겨달라고 해서 그 애 마음을 또 괴롭혔습니다. 너무 허전해서 그랬지요. 자기 창작품에 대한 애착이란 이렇게 검질기다니까요. 허…》

로영무가 측은한 눈매로 로인을 돌아보며 나직이 물었다.

《그래서 몽땅 다 보냈습니까?》

《예…》

《그런줄 알았더라면 우리가 몇점 샀겠는데요. 당신에 대한 기념으로…》

《제 그림을 보고싶습니까?》 로인은 문득 생기를 띠며 물었다.

《예… 그림을 보면 당신을 더 깊이 리해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입니까. 보고싶다구요? 아직 팔리지 않았을텐데… 보고싶다구요. 내가 인차 가져올가요? 같이 가서 볼가요? 골동품시장도 구경할겸…》

로인은 행운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사람처럼 헤덤비며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그리고는 나이에도 어울리지 않게 아첨기있는 웃음까지 웃어보이며 로영무에게 말했다.

《크리스떤은 바탕이 선한 애여서 당신들한테 그림을 한점씩 아주 헐값으로 선사할수 있습니다. 상봉기념으로…》

일행은 그를 따라 거리로 나와 택시를 잡아타고 쎄느강을 건너 어느 한 거리의 골동품시장으로 갔다. 시장은 빠리의 골동품애호가들과 외국관광객들로 붐비였다.

로인을 따라 사람들속을 누벼나가는 로영무는 자기들이 가고 있는쪽 어디에서인가 아름다운 크리스떤이 아버지의 그림들을 팔고 있을것이라고 생각했다. …

미친듯한 춤판이 그들의 앞길을 막았다. 처마밑에 색이 바랜 붉은줄무늬차일을 친 점방앞에서 장발에 수염을 기르고 청바지를 입은 청년들과 짧은 치마에 너펄거리는 웃옷을 걸친 처녀들 수십명이 한데 어울려 광란적인 춤을 추며 돌아갔던것이다. 어깨들에 멘 록음기들에서 울려나오는 자극적인 음악, 손벽도 치고 발도 구르고 허리를 끝없이 굽신거리는가 하면 젖가슴이며 엉뎅이를 좌우로 흔들어대는 음란한 춤동작, 원시인들의 야성같은 남자들의 부르짖음, 처녀들의 바스라지는 웃음소리, 제멋대로 놀아나는 어깨며 팔, 무릎의 기괴한 동작들, 가락맞게 들썩이는 밤빛머리들의 파도, 발밑에서 피여오르는 먼지구름속에서 언뜻거리는 무슨 종이쪼박지와 천쪼박지 같은것들…

점방주인인듯한 뚱뚱보로파가 뻬르망로인에게 달려와 숨이 턱에 닿아 부르짖는 소리를 송동무가 제때에 번역하였다.

이들은 도바해협을 건너온 망나니 관광객들이다, 이 놈팽이들은 도박장에서 딴 돈으로 크리스떤의 그림을 모조리 사서 하나하나

찢어버리고는 무엇이 그리 좋은지 이런 춤판을 벌렸다.…
그 춤판의 회오리속에서 크리스떤이 얼이 빠진 멍청한 얼굴로 비칠거리며 걸어나오다가 놈팽이들이 밀치는바람에 앞으로 엎어졌다. 란무하는 다리들사이로 먼지구름속에 딩구는 처녀의 모습이 언뜻거렸다.
베르망로인은 화들화들 떨다가 두주먹을 머리우에 쳐들고 흔들어대며 미친듯이 부르짖었다.
《아— 망종들아—》
로영무와 최승진은 달려가서 느침을 흘리며 비틀거리는 로인을 부축했고 강철룡은 위혁적인 함성을 내지르며 춤판에 뛰여들어가 크리스떤을 끌어내왔다.
얼마후 처녀는 아버지를 끼고 저쪽 붐비는 사람들속으로 멀어져갔는데 가련한 로인은 제정신이 아니여서 벗들을 돌아보지도 못하였다.
셋은 그날밤 가슴들이 저려 오래동안 잠들지 못하였다. 최승진은 동정심이 북받쳐 래일 무엇이나 사들고 그의 집으로 찾아가 위로하고 안내보수도 푼푼히 줘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일은 다르게 뒤집혔다.
이튿날아침, 송동무가 호텔방으로 뛰여들어와 지난밤 베르망로인이 뇌익혈로 사망하였다고 알렸던것이다. 최승진은 부들부들 떨며 일어나 파란 섬광이 타오르는 눈으로 그를 지켜보다가 휘파람같은 소리로 뇌까렸다.
《이건… 살인이요…》
일행은 몽마르뜨르공동묘지로 찾아가 앙드레 베르망로인의 장의에 참가하였는데 묘지까지 따라온 조객은 고인의 수제자인듯한 중년의 화가 세사람뿐이였다.
로영무가 일행을 대표하여 묘석앞에 노란 장미꽃다발을 놓자 모두 고개를 숙여 묵도하였다. 흙속에 묻힌 넋은 아무런 응대도 못하였다. 그저 로인이 이 세상을 떠나며 마감으로 웨친 《망종들아—》하는 소리의 여운만이 괴괴한 정적속에 실안개처럼 떠도는듯하였다.
그들이 고개를 들고 조객들에게 다시 조의를 표할 때 최승진

이 어째 고인의 딸은 보이지 않느냐고 물었다. 조객들중의 한사람이 딱한 표정을 지으며 얼버무렸다. 오늘아침 지방도시로 현지촬영을 떠나게 되여 아버지의 령전에 놓아달라고 꽃 한송이만 전하고는 떠나갔다는것이였다.

《뭐라구요？》 갑자기 최승진이 격한 소리로 물었다.

그 조객은 놀라서 최승진을 쳐다보았으나 응대를 못하고 고개를 맥없이 숙이였다.

그들이 너무 기막히고 허무하여 나무십자가밑에서 벌써 시들기 시작하는 꽃송이를 굽어보는데 가까운 몽마르뜨르언덕의 교회에서 치는 둔중한 종소리가 대기를 무섭게 흔들며 울려왔다. 가슴을 뒤흔들고 찢어발기는듯한 그 울림소리는 맹수의 포효성갈기도 하고 구슬픈 호곡소리와도 같았다.

땅—땅—뗑—

최승진은 갑자기 가슴을 와락 움켜쥐며 몸부림치다가 옆쪽으로 허둥지둥 걸어나갔다. 넋을 앗아가는듯한 종소리가 그 무슨 생리적작용을 하였는지, 심장에 어떤 타격이 왔는지 알수 없었다.

그는 몇걸음 못가서 허리를 구부정하고 서더니 메스꺼움이 나는지 한손으로 입을 싸쥐며 딸꾹질을 하였다.

로영무는 놀라서 달려나가 그를 부축하였다.

《승진이, 여보게！》

최승진은 얼굴이 흙빛으로 질려 부들부들 떨다가 물기어린 눈으로 그를 돌아보았다.

《로형, 내가 무엇에… 어떤것에 눌려있었는가 말이요, 허허…》

허거프면서도 통쾌한 웃음소리였다.

3

요즘 로영무의 집에는 시집간 딸 정아가 이따금 찾아왔다. 가극극장 성악배우인 정아는 아버지가 외국에 가고 없어 적적하게 지

내는 엄마를 동무해준다고 와서 자고갔는데 어딘지 모르게 얼굴색이 좋지 못했고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속이 너른 성녀는 남편의 사랑이 극진하고 첫아기를 낳은 다음 성량이 풍부해져 안팎으로 활짝 피여난 딸의 생활에 무슨 변이 생기겠는가 대범하게 생각하고 인민반사업에 몸을 잠그었다.

그의 집에는 며칠에 한번씩 인민반아주머니들이 모여들어 촬영소와 영화문학창작사 건설장들에 지원물자들을 마련하여 보내느라고 벅적 떠들어대였다.

세대주가 어디로 가고 없는 집에 아낙네들끼리 모이면 모두 제세상이나 만난듯이 활기에 넘쳐 떠들어대기마련인데 그 보다는 건설장의 기세가 인민반에 옮겨지고 거기에 성녀의 성미까지 작용하여 모두 그토록 웃고 떠들고 야단들인것이였다. 그들이 마련하여 보내는 지원물자들이란 로동장갑, 로동화, 세면수건, 손수건 그리고 사이다, 사탕과자, 랭차 등 간식류들이였다.

아낙네들은 인민반장이고 제일 년장자인 성녀를 가족지원대대장으로 내세워 《대장동지》, 《대장형님》 혹은 《대장어머니》라고 불렀으며 성녀는 회계가 빠르고 약삭바른 윤희를 《참모장》으로 삼았다.

한번은 건설장 전투속보에 가족들의 지원사업을 소개하면서 《건설자들에게 친근한 박성녀대장어머니》, 《랭차도 좋지만 지성이 더 고마운 윤희참모장아주머니》라고 크게 써붙이여 모두 처녀애들처럼 배를 그러안고 웃어대였다.

촬영소와 영화문학창작사 건설은 로영무가 인솔하는 참관단이 외국으로 떠난 다음 얼마 안있어 시작되였는데 두 대상이 다 새로운 부지에 건설하는것이 아니고 이미 쓰던 건물들을 아주 허물어버리고 그자리에 새로 짓거나 개건확장하는것이여서 유리한 점도 있지만 말째고 어려운 점이 더 많은 공사였다.

촬영소에서는 영화제작단에 망라되지 않은 모든 성원들이 건설에 떨쳐나섰고 수도와 지방의 예술단체들에서 지원대들이 달려왔다.

신문이나 방송으로 크게 보도되지도 않았는데 그 소문이 온 나라에 퍼져 영화애호가들을 흥분시켰다. 열렬한 축하와 성원의 심정

들을 담은 편지들이 매일 촬영소로 날아들었다. 오래간만에 차례진 자기의 휴가를 바쳐 건설장에 달려오는 국가공무원들과 군관들도 있었다.

동해안의 여러 수산사업소들에서는 지원물자로 랭동한 수산물을 기차방통으로 보내여주었고 량강도의 한 림산사업소에서는 문과 문틀을 만드는데 써달라고 미끈한 통나무들을 실어보내였다.

건설장의 방송차는 하루에도 몇차례씩 지원로력과 지원물자들의 도착정형을 방송하여 건설자들의 기세를 돋구었다.

기쁨과 흥분, 감격으로 들끓는 이러한 건설의 거세찬 선풍속에서 영화예술인아빠트의 가족들은 바늘방석에 앉아있는것 같아 마음편히 집안일만 돌볼수 없었다.

그래서 인민반마다 모임을 가지고 지원사업에 떨쳐나섰는데 차차 판이 커져 《대장》이며 《참모장》까지 내게 되였다.

그날은 건설장에 국수를 가져가기로 하여 태반의 녀인들은 일찌기 국수집에 나가 국수누르는 일을 도왔으며 성녀와 윤희는 부엌에 남아 육수물을 만든다, 국수꾸미를 갖춘다 부지런히 일손들을 놀렸다.

창문들을 열어놓았으나 부엌천정밑에는 뽀얀 김이 서려들고 집안에는 구수한 고기국냄새가 가득찼다.

성녀와 윤희는 문득 둘사이에만 오가는 정이 가슴에 젖어들어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다.

《오늘 온다는데… 예정보다 늦어져서 무척 기다렸겠지?》

《…》

《나는 령감생각이 나면 지도만 들여다봤다니까. 여기서 빠리가 어디요. 게다가 에짚트까지 가서 우리 나라 영화상영주간 행사에 참가하고 돌아온다니 그 먼길에서 별고없었는지… 떠날 때 뭘 선물로 사오라구 부탁하지 않았나?》

《아니요. …》

《바보…》

《그럼 형님은…》

《난 향수를 사오라구 했어. 빠리향수를… 무역부문 부인님네

들처럼 상점에랑 가서 냄새를 피우며 돌아다녀보자구.》

《정말？》

《왜 아닌것 같애？》

《정말 그러구싶어요？》

《그렇지 않구！》

성녀는 익살스럽게 그를 흘겨보더니 허물어져내리듯 퍼더버리고 앉으며 큰소리로 웃어댔다.

《글쎄 예전에 한 동무가 모스크바에 갔다가 빠리향수란걸 사왔는데 냄새를 맡아보니까 우리 은방울꽃향수보다 더 좋은줄 모르겠어. 내 코가 메서 그런지… 우리 령감은 성미가 어째 그런지 젊어서부터두 내가 외국제화장품같은걸 부러워하면 무섭게 야단질을 했어. … 당신은 속물이 아니라 연출가, 예술가의 안해란말이요. 우리는 조국이 가난한만큼… 조국이 부유한만큼… 이런 기준으로 살아야 한단 말이요！ 이러지 않겠나. 한번은 뾰로통해져 아니 조국이 어렵다구 개인들도 어디 다 어렵게 삽디까, 세상에 조국의 수준보다 잘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조국은 거들지 말고 더 잘살수 있는 재간이 없으면 솔직히 그렇다고나 해요. … 이랬더니 소리를 친다는데 난 기절할번했다니까.》

《뭐라고요？》 윤희는 눈이 올롱해서 성녀를 쳐다봤다.

《그런건 부럽지 않아. 조국의 수준보다 넘게 가지고있는 부란 다 비량심적인게다, 더러운게다, 알기나 아는가？ 이러구서 문을 쾅 닫구 나갔는데 일주일이나 나하구 말을 안했어. 곁에두 안오구… 그래서 생 버릇이 떨어졌다니까. 하하하…》

웃어대는 성녀의 눈에 물기가 번들거렸다.

윤희는 그런 생활신조며 주장이 너무 지나치고 극단적이라는 생각이 전혀 없는것은 아니였으나 로영무연출가며 성녀아주머니의 생활세계에 호기심이 끌리고 그들의 량심에 자기 마음을 은근히 비쳐보게 되는것이였다. 그리고 시형처럼 어려운 로영무연출가와 푸접이 좋고 성미가 괄괄한 이 성녀아주머니의 부부관계, 애정생활이란 구체적으로 어떤것일가, 이 녀인도 남편앞에서 교태나 어리광을 부릴가 하는 생각이 가슴속으로 기여들었다.

윤희는 제김에 숫저워 그에게서 눈길을 돌렸다.

그때 심술궂은 바람의 장난으로 창문이 벌컥 열리며 무엇을 후려쳤는지 부엌천정밑에 늘였던 파란 빨래줄이 아래로 떨어지고 거기에 빨아널었던 하얀 밥보자기가 너울너울 날아내려 윤희의 어깨에 걸렸다. 창문이 빨래줄을 치는바람에 문틀의 삭은 못이 부러졌던것이다.

성녀는 빨래줄의 끝매듭에 끼여있는 못대가리를 쥐여보더니 혀를 찼다. 그리고는 복도의 낡은 걸상을 창문밑에 놓고 부엌창고에서 공구함을 꺼내와서 알맞춤한 못을 고르기 시작했다.

하늘색 뼁끼칠을 한 공구함속은 여러칸으로 되여있는데 각종 규격의 못들과 톱,망치,집게,나사틀개,뻰찌,전기부속품… 없는것이 없었다.

윤희는 부러운 눈으로 그것들을 들여다보다가 연출가선생이 살림살이에 이렇게 깐깐한분인가고 물었다.

성녀는 응대를 안했다. 목수처럼 어느새 두세개의 못을 입귀에 문 그는 창문밑의 걸상에 올라서서 못이 부러진 자리를 망치로 똑똑 두드려주었다. 그리고는 머리를 뒤로 젖힐사하며 실눈을 짓고 무엇인가 겨냥하는듯하더니 입귀에서 못을 뽑아 문틀에 대였다. 마치질 세번으로 못은 알맞춤히 박혔다.

윤희는 그 솜씨가 너무 희한해서 빨래줄끝을 올려주며 언제 목수재간을 다 배웠느냐고 물었다.

성녀는 그 물음에는 대답하지 않고 이번에는 다른 재간을 보라는듯이 걸상에서 껑충 뛰여내려 윤희의 목을 안고 웃어댔다. 그러다가 부엌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배우긴 어디서 배워… 저절로 그렇게 됐지. 저절로…》

갑자기 그 녀자의 눈에 눈물이 어리며 목소리가 떨리였다.

《나는 저 령감한테 집안일을 시키지 못하겠어. 여느 기술자들을 보면 배운 지식이나 기술을 한동안 그냥 써먹어도 되는것 같은데 이건 매번 창작이야 창작… 첫날부터 마감날까지 새것을 내놔야 돼,새걸 또 새걸… 그러자니 늘 불안이 따르고 모험이 앞서는 길을 걸어야 해. 개척자의 길이지… 주인공의 운명을 생각하다가

혼자 웃고… 울고… 새벽에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방안을 왔다갔다하구… 실지 살아있는 사람이면 또 모르겠어. 누가 머리에서 궁리해서 종이에 써놓은 사람을 가지고 제 살붙이처럼 여기면서 마음을 쓰거든… 이거야 참… 예술가란 남다른 심장을 지닌 사람이야… 의지가 강하구 심장이 다감하구 담이 크구 농사군처럼 부지런한 사람이야 할수 있는 직업이지. 게으름뱅이는 못해. 남들이 누리는 락을 다 누리자고 맘먹으면 하루도 못해.… 이런걸 알게 되니까 남편한테 집안일을 시킬수 없게 됐지.… 예술가의 안해는 무엇보다도 먼저 생활력이 강해야 해.…》

윤희는 머리를 다소곳이 숙이고 마늘껍질을 벗기기 시작했다.

《또 랑군생각인가? 오늘 온다는데 맘을 푹 놓고있을게지. 그다지나 쯧쯧…》

윤희가 량볼이 화끈거려 눈길을 쳐드니 부뚜막에 기대여선 성녀가 웃음어린 얼굴로 여겨보고있었다.

《요새는 더 환하게 피여나서 최선생이 오면 정말 좋아하겠어.… 옛날 소설책에도 애간장을 태우며 기다리는 님이 있으면 눈빛이 영글어지고 얼굴이 꽃처럼 피여난다고 써있더니 그 소리가 맞다니까. 에그 그저 우리 령감이 불쌍하지. 먼데 갔다와도 방구석에서 기다리는건 이런 쭈룩살이로친네니까 얼마나 재미없겠어.》

《형님,그런 소리 말아요. 요새 얼마나 환해졌는지 알아요? 열살은 더 젊어진것 같아요.》

《내—가? 아이구 귀신이 곡하겠다. 하하하…》

성녀는 놀라서 펄쩍 뛰는 시늉을 했지만 그런 소리를 듣는것이 여간 기쁘지 않은지 크게 웃었는데 그의 눈에 청춘의 생기가 불꽃처럼 타올랐다.

이때 출입문이 열리고 누구인가 집안으로 들어서는 소리가 났다. 성녀는 움쭉 일어나 복도로 나갔다.

그의 딸 정아가 애기를 안고 나타난것이였다.

《휴일도 아닌데 어떻게 시간을 냈니?》

《극장에서 휴식을 줬어요. 그새 련습에 지쳤다구…》

정아는 복도에 따라나간 윤희에게 반갑게 인사했다.

성녀는 더위에 얼굴이 발갛게 익은 외손녀를 얼른 받아안고 방으로 들어갔다.

정아는 따라들어가서 양복저고리를 벗어 벽에 걸고는 금수강산이 수놓인 벽장보밑에 허물없이 다리를 퍼더버리고 앉았는데 아련한 얼굴에 피곤이 잔뜩 실려있었다.

《힘드니?》

《그저… 가극창조가 시작되면 늘 그렇지요뭐.》

《〈피바다〉를 가극으로 한다면서?》

《작품이 좋아 모두 밤가는줄 모르고 련습해요.》

《음…》

성녀는 고일명을 닮아 도드라질사한 아기의 이마며 목에 땀이 내밴것을 보고 핀잔의 소리를 했다.

《날이 더워지는데 무슨 옷을 이렇게 껴입혔니? 양말까지 신기구… 머리는 이게 뭐냐. 파마까지 해서 꼬불꼬불한게…》

성녀는 아기를 방바닥에 눕혀놓고 양말이며 옷을 벗기면서 계속 나무람하였다.

《솜털같은 요런 머리칼에 전기고데를 대는게 끔찍하지 않더냐. 차림새를 보면 이거야 어디 조선애냐, 서양인형이지. 시체 젊은것들은 아기를 제 치장감으로 여긴다니까.》

그 소리에 정아는 심드렁해서 대꾸했다.

《그렇게 단장시켜야 좋아하니 별수없지요. 흥, 취미두…》

《시어머니가?》

《엄마는 우리 집 제왕이 누군지 모르세요?》

《그럼 고일명선생이? 원 세상에… 손녀차림새까지 마음을 쓴단 말이야?》

《어찌나 극성스러운지 금이야 옥이야 하는것까지 다 귀찮아요.》

방안에 따라들어갔던 윤희는 복도로 도로 나왔으나 모녀의 심상치 않은 말소리때문에 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됐다. 너무 사랑해서 그런다면 어찌겠니. 취미에 맞추려마.》

《맞추지요. 그 고상한 취미에… 제 힘에 그 고집을 어떻게 당해요. 집에서 그러는건 아무렇지도 않아요. 요즘엔 온 극장에 엇서

서 론쟁해요. … 이제 일이 나요.》

《아니 무슨 일로?》

《모르지요. 동무들 보기 막 부끄러워요. 다른 극장에 옮겨앉던지 해야지. …》

《도대체 무슨 일이냐. 나도 좀 알자꾸나.》

《엄마는 들어두 몰라요. … 다른 작곡가들이 창작한 곡들을 다 아니라지요. 극성이 없다고, 모두 좋다는데… 어제는 리문학선생하구 대들판 론쟁을 했어요. 돌아가는 소문은 리문학선생한테 무식쟁이라고 소리쳐 울리기까지 했대요.》

《잘—한다… 남들이 다 좋다는걸 왜 그런다니?》

《집안을 망하게 하고싶어 그러지요. 누가 그러는데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리문학선생은 화김에 옛날 조립식건설을 반대한 종파들과 비겨서 규탄했대요.》

《아유 끔찍해라… 아버지가 돌아와서 이 일을 알면 펄쩍 뛰겠는데 어찌겠니… 아버지한테 절대 말하지 말아라. 나하구만 의논하자… 나하구만…》

윤희는 부엌쪽으로 소리없이 발걸음을 옮겼다. 웬일인지 가슴이 두근거렸다.

(저 형님은 저렇게 사는것이 행복할가? 집안의 모든 대소사… 시집간 딸의 고민까지 걷어안고 살면서 그 어떤 보람은 느낄수 있겠지만… 불행감은 없을가? 녀자의 행복, 안해의 행복, 주부의 행복이란 무얼가. …)

윤희는 성녀의 생활을 따르고싶어도 도저히 그렇게 할수 없을것 같았다. 그보다 속도 너르지 못하고 몸도 약하고 일손도 걸싸지 못해서… 그는 남편이 외국으로 떠나간 다음 밤이면 방안에 홀로 누워 자기 생활과 행복을 두고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 우선 외로와 견딜수 없었다. 그래서 자기는 남편한테 의지하지 않고는 하루도 살아갈수 없는 녀자가 아닌가싶은 생각이 들었다.

출입문이 열렸다. 몸에 꼭 맞는 작업복에 붉은머리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이쁘장한 처녀가 복도에 들어서며 숨이 턱에 닿아 부르짖었다.

《직일관동지가 저보구 알리라구 했어요. 연출가동지들이 오늘 돌아오시기때문에 건설장에 나오지 말구 집에 계시라구 했어요!》

배우양성소 양성생인 손영실이라는 나어린 처녀였다.

방에서 나온 성녀가 반색을 띠며 소리쳤다.

《아이구, 이게 누구야—》

《안녕하세요?》

처녀는 한 말을 곱씹어했다.

《집에야 언제 들어오겠다구, 여기저기 들려 인사도 하구 사무실에랑 들리고나면 밤중에나 들어오겠는지…》

《아니예요. 비행장에서 곧장 집으로 온다고 했어요.》

《그거야 여기 사람들 생각이지. 내가 령감 성미를 몰라서… 건설장에 갔다와도 넉근해… 그래 무슨 배역은 말았나?》

《저희들이야 언제…》

《내가 연출가라면 하나 제꺽 시키겠어… 이렇게 복도에 서있는데두 우리 집이 다 환해지는구나.》

처녀는 다소곳이 고개를 숙였다.

윤희는 성녀가 남편이 온다는데도 그렇게 딴전을 부리는것이 못마땅하여 눈을 내리깔고있었다. 가슴이 쿵쿵 뛰고 설음같은것이 치밀어올라 목구멍이 꽉 메였다. 그이를 부르며 심장이 고동치는 소리를 옆에서 듣는것 같아 팔짱을 끼는척하며 젖가슴을 싸안아 지그시 눌렀다.

민흥동의 영화문학창작사 건설장은 뭉게쳐오르는 흙먼지구름, 기계들의 동음, 자동차들의 경적소리, 한벌 깔려 붐비는 사람들의 웨침소리로 하나의 전투장을 련상시켰다. 지난날 어느 체육단이 썼다는 낡은 3층짜리건물은 벽체만 앙상하게 남았는데 모든 층의 창구들은 황갈색의 먼지구름을 뭉게뭉게 토하고있었다. 기중기들이 벽돌이며 몰탈을 들어올려 그 창구들에 갖다대면 먼지투성이의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 안으로 끌어들였다.

건물둘레에서는 사람들과 불도젤들이 한데 어울려 창구들이 토해놓은 버럭들을 밀어내가고 뒤쪽의 언덕받이에서는 굴착기들이 땅을 파헤치고있었다.

한쪽에는 모래와 자갈을 실은 화물차들이 경적소리를 높이 울리며 차례를 다투고있는가 하면 다른쪽에서는 미끼샤들이 모든것을 부스러뜨리는듯한 굉음을 내며 왁살스럽게 돌아갔다. 온 건설장이 그 어떤 거창한 기운에 충만되여 우들우들 떠는듯하였다.

성녀가 이끄는 가족지원대는 둔덕진곳에 쳐있는 봉사천막에 간이식당을 펼치고 건설자들에게 국수대접을 하였다.

불도젤과 기중기, 미끼샤와 같은 중기계부문의 운전공들이 맨 선참으로 불리여와 국수를 들었는데 모두 맛있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한 운전공아바이는 천막에서 나오다가 출입구결에 벙글써 웃으며 서서 행주치마에 손을 닦고있는 성녀에게 잘먹었다고, 옥류관국수에 못지 않다고 인사했다.

성녀는 너무 기뻐 얌전을 빼며 머리를 깊이 숙여 답례하였다. 그리고는 어디서 지원나왔느냐고 물었다.

운전공아바이는 담배를 피워물면서 막내녀석이 영화광인데 어디서 듣고왔는지 이런 건설이 시작됐다고 떠들어대서 휴가를 바쳐 지원나왔노라고 했다.

건설장의 로력혁신자들도 천막에 불리여와 국수대접을 받았고 담차고 대바르게 생긴 건설장책임자의 뒤를 따라 문화예술부문의 일군들도 찾아왔다. 그들은 천막안으로는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며 우리한테도 한그릇 주지 않겠느냐고 롱말을 건네였다.

그들속에 촬영소 총장이 끼여있는것을 띄여보자 성녀는 윤희의 옆구리를 툭 건드리였다. 그리고 그들이 만족한 얼굴로 돌아설 때 윤희의 귀에 더운 입김을 불어넣으며 속삭이였다.

《여기로 와… 꼭 와… 총장동지가 여기 와있지 않어. 내가 우리 령감 성미를 모르겠나. …》

성녀네가 그릇들을 대충 닦아치우고 그냥 돌아설수 없어 건설자들속에 나가 운반조들의 외바퀴밀차에 모래를 한참 퍼담아줄 때였다.

갑자기 선전차의 음악이 그치더니 방송원의 힘찬 목소리가 울리였다.

《건설자동지들, 건설자동지들… 당의 신임으로 프랑스와 에집

트에 나갔던 우리 영화예술인참관단이 방금… 방금… 여기 건설장에 도착했습니다. 가족들이 손꼽아기다리는 집으로 가지 않고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여기로, 우리한테로 곧바로 달려온 그들의 심정, 영화창작의 첫공정인 영화문학의 터전에 어서 한삽의 자갈이라도 다져넣고싶어 달려온 공훈예술가 로영무, 공훈예술가 최승진, 패기만만한 젊은 부연출 강철룡동지들의 열화같은 심정…》

윤희는 그다음 말을 듣지 못했다. 건설장으로 들어오는 길가의 선전차결에서 문화예술부문의 일군들이며 총장에게 인사하는 세 사람을 띄여봤기때문이다.

윤희는 숨이 막히는것 같았다. 다른 사람은 그림자처럼 어른거리고 남편의 모습만 조명의 각광속에 든듯 환하게 두드러져보였는데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며 미소어린 의젓한 얼굴, 바람에 날리는 넥타이에서 윤이 흐르는듯했다. 그가 자기 남편이면서도 함부로 범접할수 없는 신성한 존재처럼 돋보였다.

이윽고 그들은 총장이며 건설장책임자에게 안내되여 공사장을 돌아보았다. 최승진은 누구한테서인가 가족들이 여기 와있다는 소리를 들었는지 걸어가면서 이따금 이쪽저쪽을 돌아보았다. 그러다가 무엇엔가 발이 걸채여 넘어질번도 하였다.

성녀가 웃으며 한숨을 내쉬였다.

《원 소경이라니까. 제 색시도 못찾는걸 보라구. 흠, 우리 령감은 찾지도 않아. 우리 소릴 쳐볼가? 여기 있수다— 하고…》

그러다가 성녀는 무슨 장난기가 들었는지 모래 한줌을 쥐여 윤희의 동실한 어깨며 팔소매에 툭툭 쳐주었다. 그가 흠칫 놀라 물러서자 팔을 꽉 붙잡았다.

《가만… 가만있으라구. 너무 말쑥해. 이래 놔야 그새 수고 많았구나 하고 밤에랑 더 살뜰하게 안아줄게 아니야. 하하하…》

한참후 건설장을 다 돌아보고 나오던 로영무와 최승진은 자갈무지옆에서 안해들을 만나자 전혀 먼데로 갔다온 사람들같지 않게 흔연한 얼굴로 다가와 모두 잘 있었느냐고 하였다.

윤희는 건설장의 숱한 사람들이 자기네를 여겨보는것 같아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고 가슴이 울렁이였다. 그는 어디론가 도망쳐버

리고싶었다. 그래서 모래무지뒤로 돌아가니 남편도 따라왔다.

《그새 집에서는 별일이 없었소?》

은근한 정이 풍기는 그 한마디의 말에 남편의 더운 입김과 습관된 체취속으로 안겨드는듯하여 윤희는 미소어린 고운 눈을 다소곳이 내리떴다.

《네… 가서 고생은 안했어요?》

《아니… 내내 호강만 했소.》

《집에 안들렸지요?》

《아니…》

《성녀형님이 집보다 건설장에 먼저 들릴거라고 우겨서 여기로 나왔어요.》

《허, 꼭 맞혔구만… 비행장에서 박경섭동지는 집으로 곧장 들어가라고 했지만 건설이 벌어졌다는 소식을 들으니 어디 그럴수 있어야지.》

《빠리가 어때요?》

《빠리? 집에… 집에 가서 죄다 이야기하지. 그런데 어깨에랑 웬 흙이 이렇게 묻었소? 일은 혼자 한것 같구만.》

《성녀형님이 그랬어요.》

《그건 왜?》

《집에 가서 말해요.》

《참모장이 됐다면서?》

《아이, 그건 공연히… 장난삼아 그렇게 부르는거예요.》

건설장을 들었다놓던 선전차의 음악소리가 갑자기 멎었다.

모래무지 저쪽에서 로영무가 뛰여와 다급히 부르짖었다.

《승진동무… 나오셨소!》

김정일동지께서는 선전차곁에서 문화예술부문일군들에게 둘러싸여 그들의 보고를 들으며 벽체만 우중충하게 솟은 건물쪽을 바라보고계시였다.

로영무와 최승진 그리고 뒤따라 강철룡이 뛰여가서 인사를 드리자 그이께서는 반겨웃으며 그들의 손을 하나하나 잡아주시였다.

모래무지곁에 가지런히 서있는 성녀와 윤희는 그이께서 자기

들의 손을 잡아주시기라도 하는듯 격정이 북받쳐 손에 손을 맞잡고 그이쪽만 바라보았다.

그이께서는 무엇이라고 열정적으로 말씀하시다가 주먹으로 최승진의 가슴을 툭툭 건드려보더니 손을 허리에 붙이며 호탕하게 웃으시였다. 둘러선 일군들도 모두 따라웃었다.

그러나 최승진은 웃지 않았다. 그는 먼 외국의 하늘밑에서 그리움에 사무쳤던 정이 지금 눈물로 되여 끝없이 솟구쳐오르는지 손수건을 꺼내 눈언저리를 닦았다. 그리고는 다시 그이를 우러러 쳐다보는데 해빛에 눈이 불꽃처럼 빛나고있었다.

윤희는 그만 코마루가 저려나고 눈앞이 부옇게 흐려져 아무것도 볼수 없었다. 그가 아릿해진 눈을 슴벅거리는데 박경섭이 이쪽을 돌아보며 어서 오라고 손짓하는것 같았다.

윤희는 옷매무시를 바로잡는것도 잊고 성녀의 뒤를 따라 정신없이 뛰여갔다. 발이 땅에 닿는것도 느껴지지 않고 그저 몸이 화끈한 대기속으로 날아가는것 같았다. 가슴이 뛰는 소리가 고막에 쿵쿵 울리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무척 반가운 안색으로 인사를 받고는 가족들이 이렇게 건설을 지원하고있으니 얼마나 좋은 일이냐고 치하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아쉬운듯한 표정까지 지으며 롱말을 건네시였다.

《국수가 그렇게 맛있었다는데 우리는 한발 늦었단말입니다. 어떻게 말았는데 모두 옥류관 국수맛보다 낫다고 합니까?》

윤희는 그렇게 후한 칭찬의 말씀까지 하여주시니 더욱 송구스러워져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였다. 그러나 주눅이 좋은 성녀는 두손을 앞에 모아쥐고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드리는것이였다.

《옥류관국수보다야 어떻게… 일덕이겠지요. 모두 땀을 쏟으며 걸싸게 일하니까 아무걸 가져와도 그렇게 맛스럽게 듭니다. 다－일덕이지요…》

《일덕이라… 그거 참 좋은 말입니다. 일덕이거나 국수덕이거나 어쨌든 건설자들이 좋아하니 저도 기쁩니다.》

로영무와 최승진은 안해들이 무슨 실수라도 할가봐 조마조마한 얼굴로 서있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시원하게 웃으며 그들쪽을 돌아보고나서 말씀을 이으시였다.

《이제는 세대주들을 데리고 어서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포로해가지고말입니다. 아무리 건설이 중요하다 해도 이런데서 시간을 보내서야 되겠습니까. 집에서 아이들도 기다리겠는데… 나도 래일쯤 갔다온 이야기를 들을가 합니다.》

그이의 뒤쪽에 서있는 박경섭이 어서 떠나라고 눈짓하였다.

4

이튿날 오후 세사람은 당중앙위원회 접수실에서 박경섭이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뜻밖에도 빠리에서 통역으로 나왔던 송동무를 만났다.

조국땅, 그것도 당중앙위원회 청사앞에서 우연히 상봉하게 된 그들은 너무 반갑고 놀랍고 기뻐서 몇순간 벙어리가 된듯 눈을 크게 뜨고 서로 쳐다만보다가 접수실밖으로 나왔다. 그리고는 손에 손을 잡고 떠들썩하게 인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었다.

송동무는 외교부에서 강습이 있어 귀국했노라고 하며 에짚트려행은 잘되였는가고 물었다.

로영무가 매우 인상적이였다고 하자 그는 침착한 얼굴로 말했다.

《우리는 정말 미안하게 됐습니다.》

《원, 무슨 그런 소리를 합니까?》

《아닙니다. 연출가동지들이 떠나서 얼마 안되여 조국에서 전화가 왔댔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 친히 전화를 거시였습니다. 총대표동지랑 국제회의에 나가 당직인 제가 전화를 받았지요. …

빠리에 우리한테 우호적인 예술계인사들도 있는데 그들과의 친선모임같은것도 조직해줬더라면 더 좋았겠다고 하며 몹시 아쉬워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 소극적이였지요.》

《아,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

로영무는 얼굴빛이 진중해졌다.

《다시 오십시오. 그럼 정말 본때있게 조직하겠습니다.》

송동무와 헤여진 세사람은 얼굴빛이 모두 심각해졌다. 총화를 앞둔 이 시각에 와서 자기들의 참관사업에 대하여 **김정일**동지께서 얼마나 중요시하시였는가를 더 깊이 깨달았기때문이였다.

그들이 박경섭에게 안내되여 **김정일**동지의 집무실로 들어갔을 때 그이께서는 서영림부상과 함께 환한 안색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시여 인사를 받고 안락의자들에 자리를 권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자신께서 먼저 가운데의자에 앉아 흉금을 터놓고 이야기해보자고 고무하시는듯 양복저고리의 목단추를 끌러놓으시였다.

그들이 자리들에 앉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그사이 가족들한테서는 별일이 없었느냐고 물으시였다.

《지금 우리 동무들은 어떤 국제무대에 내세워도 모두 의젓하고 당당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자기들뒤에 부강한 조국이 있고 존엄있는 당이 있다는 그 자부심과 배심때문입니다.》

그러시고 이번 참관단도 조국의 명예와 당의 존엄에 손색이 되는 일 없이 활동을 원만하게 한것 같다고 말씀하시였다.

《어디 동무들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시간에 구애되지 말고 본것, 느낀것, 생각한것들을 죄다 말해주십시오. 오늘은 시간을 충분히 냈으니 흉금을 터놓고 이야기해봅시다.》

로영무가 빠리와 에짚트에서의 참관에 대하여 본 순서대로 차례차례 내려가며 조리있게 말씀드리면서 느낀점과 생각한 문제들도 약간씩 섞어서 이야기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용히 앉아 이야기를 들으시였는데 그이의 얼굴에 차차 실망의 빛이 어리는듯 했다.

그이께서는 의아한 눈길로 로영무를 여겨보기도 하고 허공의 한점을 이윽토록 지켜보기도 하시였다.

최승진에게도 로영무의 이야기가 불만스러웠다. 그는 참관한 대상들을 렬거하며 그에 대한 설명을 짤막하게 할뿐 가슴을 뒤흔들던 격정은 다 빼놓고 말하는것 같았다.

(빠리에서 얼마나 흥분하여 돌아다녔는가. 충격도 컸고 실망

도 컸고 분격도 컸고 생각도 많았고 열렬한 론쟁도 하지 않았던가.
…저건 앙상한 선률뿐이다. 교향곡총보를 놓고 선률만 따라가며 단조롭게 연주하는거나 같다. 화음… 극적인 화음은 다 빼버렸어. 징소리도 대고소리의 장쾌한 폭발도 없다. …
로영무, 저 연주자는 자기앞에 최고급의 감성과 지성을 지닌분이 청취자로 앉아있다는걸 망각하고있다. 그래서 소박한 청중들앞에서처럼 통속적으로 연주하고있는게 아닌가. 저기엔 확실히 초보적인 대위법도 없어. …)
로영무가 고지끄건축예술이 창조해놓은 고색창연한 건축유물들을 렬거하고났을 때 **김정일**동지께서 문득 최승진을 돌아보시였다.
《그런 건축물들을 돌아볼 때 승진동무는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무엇을 느꼈습니까? 일없습니다. 터놓고 말해봅시다.》
최승진은 몇순간전까지 로영무에 대하여는 불만을 느꼈으나 막상 자기가 당하고보니 어떻게 말씀드렸으면 좋을지 몰라 선뜻 입이 열리지 않았다.
《례를 들면 고지끄식건축예술의 최고걸작품이라고 할수 있는 노트르담대사원같은것을 참관하고는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그 웅장함과 신비함에 놀랐습니까. 건축문화의 오랜 력사에 눌리웠댔습니까?》
《…》
《빅토르 유고의 주인공들을 생각했습니까?》
최승진은 자신없이 대답하였다.
《옛날부터 정말 건축술이 대단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건물의 요소요소를 자꾸 눈여겨보게 됐습니다.》
《그랬을테지요. 리해됩니다. … 어릴적부터 그런 문화유산들을 늘 보며 자라야 애국심이나 정서에 종심이 깊어지는건데 우리한테는 그런 유산들이 얼마 없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세계에 터놓고 자랑하여 손색이 없을 문화를 창조하였지만 거듭되는 전란과 침략자들의 파괴략탈책동으로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특히 건축유산이 적습니다. 선조들이 지상건축은 다 목조로 했기때문에 전란이 강토를 휩쓸 때마다 화약처럼 불길을 끌어 타버렸습니다. 지난 전쟁때만 해도 미국놈들이 군사적대상도 아닌 우리 건축유산들을

과녁으로 얼마나 많은 폭탄을 쏟아부었습니까. 고대나 현대나 침략자들은 한 문화민족을 굴복시키자면 그 문화부터 없애버려야 한다는것을 알고있었습니다. 미국놈들의 그 만행을 생각하면 정말 치가 떨립니다.》

로영무는 그이의 말씀에서 암시를 받아 이야기의 방향을 바꾸었다. 그는 참관대상에 대한 설명보다도 자기 느낌과 생각을 더 많이, 더 강조하여 말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의깊게 들으시였다.

그이께서는 문화의 조류가 바뀌는 시기들에 관심을 두시는듯 여러가지로 물어보시였다.

로영무는 근대와 현대 퇴페적문화의 발생, 발전과 그 세계적범람까지 말하고는 루돌프, 오이켄의 문장을 인용하는것으로써 이야기를 마치였다.

《우리는 인도하는 별이 없어 시간의 파도에 떠내려가고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잠시 생각에 잠기시여 《루돌프, 오이켄, 오이켄…》 하고 뇌이시였다.

서부상이 그이께 말씀드렸다.

《종교적색채가 농후한 작가였는데 현대문명의 흐름에 대해선 몹시 개탄했습니다. …》

그이께서는 조용히 머리를 끄덕이시였다.

《별이 없어… 시간의 파도에 흘러간다… 아주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

《현대유럽문화의 현실을 목격한 저희들한테는 그 말이 단순한 개탄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끌어주는 사상과 령도자를 부르는 웨침으로 들렸습니다. 뻬르망로인은 그 작가를 자기 스승이라고 했습니다.》 하고 로영무가 말씀드렸다.

《동무들이 그 로인의 묘지에까지 찾아가 조의를 표시해준것은 아주 잘했습니다.》

《추상파들의 공세로 패배를 당한 그 로인은 루네싼스와 같은 새로운 문예부흥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은근히 기다렸습니다.》

《문예부흥의 바람이라… 동무들이 이번에 문예부흥기의 예술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았겠는데 그걸 보고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

《감탄했습니까?》

《예…》

《감탄까지는 좋지만 놀리는건 나쁩니다. 서방의 적지 않은 예술사가들은 문예부흥을 일으킨 그 인문주의운동을 너무 과대평가하고있는것 같은데 오늘의 력사적시점에서 보면 그 운동에는 심각한 제한성이 있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인류문화발전에 거대한 기여를 했지만… 그러나 력사적제한성을 면할수 없었습니다. 거기에 어디 인류의 절대다수를 이루는 사회의 최하층 근로자들의 사상감정이 경향성을 띠고 반영된것이 있습니까. … 있을수도 없었습니다. 근로자계급, 로동계급이 력사무대에 등장하기 썩 이전시기의 운동이기때문에… 중세기의 종교적암흑속에서 봉건적인 정치체제와 결합된 종교의 가혹한 탄압과 전횡에 대한 폭발적인 항거와 반발로써 시작된 그 운동은 인간성을 강력히 옹호해나섰지만 그것은 범인간성옹호, 범인간해방의 사상밖에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성을 질식시키는 종교적암흑속에서 그건 대단히 진보적이고 혁명적인것이였지만 오늘의 견지에서 보면 그렇지 못합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력사무대에 새로 등장한 도시상공업자들, 이른바 〈시민계급〉이라고 하는 부르죠아계급과 자유주의적귀족계층들의 사상감정과 기분을 반영한 운동이였습니다. 처음부터 신흥부르죠아지들이 합리주의적사상감정을 대변한것이였습니다. 바로 여기로부터 력사적인 제한성은 불가피한것입니다.》

고요한 방안의 공기는 흥분과 열정과 사색 그리고 담배연기까지 배여들어 점점 무거워지는듯했다.

《문화의 창조자와 향유자의 분리… 문화의 창조자가 문화의 향유자로 되지 못하는 그런 문화는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지 못하고 언젠가는 병들기마련입니다. … 인문주의사상의 제한성과 결점이 오늘의 유럽문명에 확대되여 나타나 동무들이 본 그런 병적인 조류들을 발생시키는데 작용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김정일동지께서 문득 서부상을 돌아보시였다.

《부상동무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흥분으로 얼굴이 벌겋게 상기된 서영림은 안경다리를 쥐였다 놓으며 의자끝에 움쭉 나앉았다.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이 동무들이 참관에서 로꼬꼬시대예술에는 주의를 덜 돌린것 같은데… 문예부흥기를 계절에 비겨 말한다면 저물어가는 가을이라고 할수 있는 로꼬꼬시대… 그 시대 장식미술만 봐도 심각한 암시를 받았을수 있습니다. 궁전들과 귀족들, 부호들의 저택을 황금빛일색으로 채색한 휘늘어지고 휘감긴 장식선들과 화려하고 사치한 무늬들은 물질적부에 포만해진 계층의 정신적빈곤과 끝없는 허영심을 잘 보여줍니다.

미술은 벌써 인문주의의 합리주의적인 과학정신까지 저버리고 타락과 퇴페의 첫걸음을 내디디기 시작했습니다. …》

김정일동지께서 머리를 끄덕이시였다.

《그렇습니다. 그다음부터 타락과 퇴페의 낭떠러지로 걷잡지 못하게 내리굴렀습니다. 누구도 그것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동무들이 이번에 퇴페예술도 많이 봤겠는데 그래 보니 어떻습니까?》

그이께서 최승진에게 시선을 돌리시였다.

최승진은 저도 모르게 움쭉 일어서려고 했는데 그이께서 앉아서, 편안히 앉아서 말하라고 손짓하시였다.

《여기서 상상했던것보다 더… 말할수 없이 더 한심했습니다. 그건 정말 더러운, 추악한 시궁창이였습니다. 타락이면 그런 타락이… 방종이면 그런 방종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 어느 작품에서나 조화로운 미를 파괴하고 인간의 건전한 미의식과 륜리를 짓뭉개놓으려는 앙심과 독기를 느꼈습니다. 그 흐름은 정말 인간의 미의식을 원시적상태로, 동물적상태로 떠밀어가려는 반동인것입니다.》

최승진은 갑자기 말을 그치고 고개를 숙일사하며 마른침을 삼키였다.

《그리고… 그런것들을 보면서… 정말… 자신을 뉘우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그이께서는 안색이 환히 밝아지시더니 롱조의 말씀까지 하시였다.

《승진동무, 내 한가지 비밀을 솔직히 말해줄가… 물가에 아이를 내놓은 심정이란 말이 있지요? 여기선 동무를 보내놓고 부르죠아문화에 더 물젖어오면 어쩌는가 걱정한 동무들도 있었소. 헛허허…》

그이의 웃음소리가 방안공기를 들었다놓았다.

《나는 믿었소, 믿었소! 이렇게 되여 돌아오리라고 믿었소! 우리 승진동무가… 경섭동무! 동무도 그랬지요?》

눈언저리가 불긋해진 박경섭이 웃음어린 얼굴로 대답했다.

《예. …》

최승진은 가슴이 후더워져 눈을 지그시 내리떴다. 그이께서 로영무와 무슨 이야기를 나누시였으나 그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다.

(지난날 서유럽모방적인 요소가 있다고 비난을 받을 때 나는 이건 현대적감각을 무시하는게 아닌가, 지금은 리해되지 않지만 앞으로는 리해되지 않겠는가 하면서…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나는 이번에 나한테 있던 서유럽적인 요소가 어디로 통할수 있는… 어디로 내달릴수 있는 첫걸음이였는가를 깨달았다. 아 몸서리가 쳐진다. 앙드레 뻬르망의 죽음… 아버지의 장의에 얼굴도 내밀지 않고 가버린 딸… 저 썩어빠진 문화가 인륜도덕을 어느 지경으로 이그러뜨렸는가!

몽마르뜨르언덕에서 그 끔찍스런 종소리가 울려올 때 나는 갑자기 모진 가책에 가슴이 찢어지는것 같았고… 퇴페미술의 어지러운 화폭들이 한꺼번에 떠올라 하마트면 토할번했다.

…자연색에서 리탈된 방종한 색조들, 본능의 폭발을 상징하는 원색의 폭발, 자연과 인간과 생활, 일체 대상들의 조화로운 조형적비례를 파괴한 광적인 구도, 통일적인 미를 해체해버린 환상적인 선들의 란무… 저 리탈과 해체와 파괴의 독소가 사람들의 넋에 스며들어 인륜도덕을 이그러뜨리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수 있는가. 나는 이번에 물질문명으로 부유해진 저 세계의 몸뚱이속을 피고름이 흐르고있다는것을 확인했다!)

로영무가 무슨 말끝에서인지 재빛이 도는 숱진 눈섭을 높이 치켜올리며 조용히 한숨을 내쉬였다.

《글쎄… 그런 퇴페문화가 제 나라안에서만 곪어두 모르겠는

데 범람해서 사면팔방으로 퍼지니 참… 에짚트까지 가보니 생각이 더 깊어졌습니다. 고대에짚트의 찬란한 문화가 그 기운을 뻗치지 못하고 중도에서 엉망진창이 된걸 보니 력대침략자들의 죄행을 생각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

그리고 그는 테베와 알이스칸다리야에서 들었고 목격했던 가지가지의 사실들을 차근차근 말씀드렸다. 그의 이야기는 최승진에게 반사막지대의 살갗을 지지는듯한 불볕과 지열을 상기시켜 저절로 숨이 차오르고 몸에 땀이 내배는것 같았다.

깊은 내륙지방 테베의 유적들에서 목격한 고대에짚트문화는 그야말로 독특하고 찬란한것이였다. 그러나 그 문화는 후세에 계승발전되지 못했고 건축, 조각, 회화… 예술의 어느 령역에서나 에짚트적인 공고한 특징들이 흐려지다가 완전히 사멸해버렸는데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였다. 안내해설자는 이 문화사적인 단절을 두고 형상적으로 표현하여 문화전체가 자결을 결심하고 불우한 세기의 낭떠러지밑으로 굴러떨어졌거나 그 어떤 공포나 노여움에 사막밑으로 스며들어 아주 종적을 감춘것 같다고 하였다.

알이스칸다리야를 참관하니 그 까닭이 저절로 밝혀졌다. 알이스칸다리야는 동서양의 중간위치에 놓여있고 아프리카대륙으로 들어가는 교두보이기때문에 인류력사상 세계에서 침략을 제일 많이 당한 고장이라고 하였다.

안내해설자는 수천년에 걸치는 문화적 략탈과 침습을 저 사막을 휩쓰는 열풍 하므씬이 수풀을 말리워버리는것처럼 에짚트문화의 샘줄기를 깡그리 말리워버렸다고 했다. 외적의 끊임없는 침략과 장기간의 지배로 고대에짚트어가 흔적없이 사라지고 아랍어가 민족어로 된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수 없었다.

외래문화의 침습은 현대에도 그치지 않아 시가의 크고작은 상점들에 외국상품들이 차넘치고 처처에서 착잡한 외국음악들이 탁한 공기를 흔들고있었으며 사람들은 그속에서 붐비고있었다.

무역항인 대항은 옛적부터 침략자들의 상륙터였는데 지금은 숲을 이룬 마스트들에서 날리는 여러 나라 기발들, 갑판우와 부두에서 돌아치는 각가지 인종의 선원들, 호각소리, 기중기소리로 얼이 빠

질 정도로 떠들썩했다. 한 계류장에 다층아빠트만한 흰색 려객선이 붙어있었는데 그밀 부두바닥에서 백여명의 유럽청년들과 아랍청년들이 한데 어울려서 광란적인 춤을 추고있었다. 람루한 청바지, 짧은치마, 몸을 꼬기도 하고 정신없이 허리를 굽신거리는 음란한 춤동작… 최승진은 혐오감과 증오가 끓어번져 주먹을 부르쥐고 그들을 지켜보았다. 빠리의 골동품시장에서 뻬르망로인을 졸도케한 놈팽이들과 같은 패거리들이기때문이였다.

안내해설자는 저들이 이딸리아를 거쳐 여기로 관광온 미국놈팽이들이라고 했다. 저런 청년들의 행위에서 특징적인것은 력사가 물려준 일체 기성관념과 도덕, 가치에 반발하는 륜리의 아나키, 륜리의 무정부성이라고 했다.

기성관념에 대한 그들의 반발과 도전이란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치떨리는것이였다. 무엇때문에 녀자만 머리를 기르겠는가, 남자도 머리를 길러보자, 무엇때문에 부모를 존경하고 그들의 의사와 감정을 존중해야 하는가. 무엇때문에 남녀간에만 사랑을 해야 하는가, 동성련애도 해보자. 장발, 수염, 남자의 정력을 강조하는 청바지, 녀자의 허벅다리까지 드러내는 짧은치마, 광란적인 춤, 퇴폐음악, 마약중독, 동성련애… 그들이 퍼뜨리는 류행이란 이런것들이였다. … 그들은 참관일정마감에 락타에 몸을 싣고 세개의 피라미드를 찾아가다가 하므씬열풍을 만나 하마트면 모래바람에 묻힐번했는데 최승진은 그 《죽음의 바람》을 일생 잊을것 같지 않았고 그것을 대륙들에 휩쓸어드는 퇴페문화의 바람과 비교하여 생각하게 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로영무의 이야기를 주의깊이 들으시다가 심각한 안색으로 말씀하시였다.

《오늘 에짚트를 비롯한 여러 아프리카 나라들이 민족예술을 장려하는것은 참으로 정당한 일입니다. … 침략자들은 민족의식을 말살하지 않고는 강점한 나라와 민족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노예화할수 없다는것을 옛날부터 잘 알고있은것 같습니다. 전통문화의 저항이란 백만대군의 저항보다 누르기 더 힘들다는것을 알고있습니다.》

그이의 음성은 철리의 울림과도 같이 가슴을 흔들었다.

《고대와 중세의 침략자들은 령토를 점령한 다음 자기의 신앙과 문화를 이식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제국주의자들은 그와는 정반대로 문화를 먼저 침투시켜 민족의식을 타락 말살시키고 제놈들에 대한 숭배심과 환상을 조성하여 사람들의 가슴속에서부터 침략의 길을 닦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얼마나 로회합니까, 얼마나…》

서영림이 안경을 벗어 곁에 놓고 돋보기를 끼더니 그이 말씀을 수첩에 적어넣기 시작했다.

《요전에 한 자료를 보니까 영국의 어느 철학가는 후진국들에 밀물처럼 밀려드는 독점자본의 상품은 제국주의적침략의 척후병이라고 고발했습니다. 척후병… 부상동무, 적중한 표현이지요?》

《예.…》

서영림이 근시안을 껌벅거리였다.

《…호화상품에 현혹되고 딸라에 얼이 빠지고 전자파를 타고 날아드는 퇴페음악, 춤, 악취미오락에 초보적인 인간성마저 썩어빠지면 사람들이 저도 모르게 조국도 민족도 몰라보는 매국노, 역적이 돼버립니다. 이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침략의 길이 열려 시련을 겪은 나라가 한둘이 아닙니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의 문화침투앞에서 민족자주의식을 지켜내는가 못내는가, 전통문화를 발전시키는가 못시키는가 하는 문제는 단순히 정신문화령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나라와 민족의 생사존망과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제국주의자들한테 제일 장애로 되고 두렵고 시끄러운것은 민족자주의식, 전통문화의 온갖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네 앞잡이들과 괴뢰들, 모든 선전기관들을 동원해서 민족의식, 전통의식은 진보와 근대화의 장애물이다, 그것은 보수와 퇴보, 후진성의 징표이다 이런 선전나발을 미친듯이 불어댑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격렬하게 손세를 쓰시며 말씀을 이으시였다.

《전통을 지키고 발전시키면 이기고 흥하고 영생합니다. 줴버리면 지고 먹히우고 망합니다. 망합니다!》

방안에 선풍이 휘몰아치는듯했다.

《우리는 그래서 문학예술의 혁명전통에 대해서도 그처럼 강

조했던것입니다. 우리 문학예술의 혁명전통을 살리는데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작된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영화로 옮기는것은 매우 중대한 사업입니다. 선차적의의를 가지는 사업입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잠시 말씀을 끊고 생각에 잠기시였다가 알릴듯말듯 미소를 지으시였다.

《지금 세계에는 문화발전추이에 대한 괴이한 리론들이 많이 돌아갑니다. 어떤 론자들은 문화도 물처럼 높은데서 낮은데로 흐르기때문에 후진국의 문화는 선진국의 문화에 흡수용해되기마련이고 세계문화발전에서 아무런 역할도 못한다는것입니다. 침략과 예속이 합리화되였던 지난 시기의 문화사는 그렇게 되였지만 모든 나라와 민족이 자주성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가는 현시대에는 그렇게 될수 없습니다. 오직 호상존중과 평등한 교류가 있을뿐입니다. 평등한 교류를 통하여 서로 아름답고 고상한것을 섭취하고 풍부화돼야 인류문화가 침략과 예속이 없이 건전하게 발전할수 있습니다. 또 어떤 환상가들은 당장 인류공통의 유일한 문화가 형성될것처럼 떠들면서 문화의 민족적전통은 빨리 극복되고 제거될수록 좋은것으로 주장합니다. 참 가소로운 일이지요. 우리 행성에 민족이 존재하고 민족성이 살아숨쉬는 한 민족적다양성을 배제한 그 어떤 단일한 인류문화란 있을수도 생겨날수도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이건 본질에 있어서 강대국들의 문화에 다른 모든 민족문화를 예속시키려는 세계주의적반동리론입니다. 설사 그들의 가설대로 인류문화가 통일을 지향하며 흐른다쳐도 모든 민족들의 우수한 문화전통이 다 발현되여 하나로 융합될 때에라야만 지배와 예속, 모순이 없는 가장 리상적인 인류문화가 형성될것입니다. 어떤 작은 민족도 자기 문화로 인류문화를 풍부히 할 의무를 지니고있습니다.》

강철룡이 심취된 눈으로 그이를 우러러 쳐다보았다.

그이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안을 천천히 거니시였다.

《지금 일부 사람들은 우리가 날이 갈수록 주체의 기치를 더 높이 쳐든다고 세계의 흐름에 외면하여 고립주의로 나간다고 비난하고있습니다. 고립주의인가 아닌가는 앞으로의 결과가 웅변으로

말해줄것입니다. 우리는 문학예술도 혁명전통에 뿌리를 깊이 박고 철저히 우리 식으로 건설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자!〉라는 구호를 전면에 더 높이 내세우자고 합니다. 우리 문학예술도 혁명전통에 철저히 기초하여 발전시켜야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에 더 잘 이바지할수 있고 세계에 주는 영향도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동무들은 이번 참관려행을 통하여 많은것을 깨달은것 같은데 우리 나라와 세계적인 문화의 흐름을 볼 때 정말 영화 한편을 만들어도 인민대중을 선도하는 주체의 기수, 백만대군을 키워낸다는 그런 기백과 진지성을 가지고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로영무와 최승진 그리고 강철룡은 하나같이 불타는 눈으로 그이를 우러러 쳐다보았다.

×

날이 아주 저물어 당중앙위원회에서 나온 세사람은 각기 제생각에 골똘하여 한마디 말도 없이 제1백화점앞에까지 걸어나왔다.

먼저 강철룡이 펄쩍 놀라며 외교부에 려권을 바치기로 한것을 잊었다고 했다. 그러자 로영무도 흠칫 놀라며 무슨 일로인지 영화총국장이 만나자고 했다는데 그냥 집으로 갈번했다고 걸음을 멈추었다. 모두 충격이 커서 그렇게 되였던것이다.

두사람과 갈라진 최승진은 혼자 집으로 가고싶지 않았다. 갈수도 없었다. 가슴에 끓어번지는 격정때문에 밤이 새도록 끝없이, 끝없이 걷고싶었다. 어디 구석진데 가 목이 터지도록 환성을 터뜨리거나 눈물을 쏟거나 어린애처럼 딩굴지 않고는 진정이 될것 같지 않았다.

그는 대동강유보도의 끝에서 끝까지 한번 또 한번 오르내리며 처절썩… 처절썩 기슭을 치는 강물의 시원한 기운에 가슴을 식히다가 모란봉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바람에 설레이는 나무가지들이 머리우를 스쳐지나갔다.

가시풀이 팔소매를 허비고 수풀이 다리에 휘감겨들었으나 그

는 아랑곳없이 모란봉으로 올라가 산중턱의 잔디밭에 퍼더버리고 앉았다. 단숨을 몰아쉬였다. 선들바람이 화끈한 얼굴을 스치였다.

아득히 펼쳐져 하늘가에 잇닿은 수도의 불빛바다가 한눈에 안겨왔다. 대동강물결우에 떨어져 넘실대며 부서지는 옥류교와 강안유보도 가로등불빛들, 물결을 차고 날아오르는듯한 옥류관의 추녀, 층층을 이룬 창문들의 불빛과 색색의 네온등의 휘황찬란한 불빛들, 거리거리에 흐르는 자동차불빛들, 그 불빛들의 흐름을 현란하게 반사하는 포도, 달려가는 전차우에서 번쩍번쩍 이는 새파란 섬광들, 서평양쪽의 주택건설장이며 인민문화궁전 건설장에서 끝없이 날아내리는 용접의 불꽃들, 밑에서 올리비치는 장명등의 환한 빛에 휩싸여 하늘로 날아오르는듯한 천리마동상… 갑자기 그 모든 불꽃, 불빛들이 하나로 녹아붙는가싶더니 쇠물빛의 바다로 되여 넘실대였다.

(아, 나는 어떤 시대 예술인인가! **김정일**… 저분은 자주시대가 낳은 인류문화의 탁월한 향도자이시다! 세계적인 문예사상의 거장이시다! 나는 오늘 세계문화발전의 전략을 들으며 거인적인 포부를 느꼈다. 우리 문화의 사명을 심장으로 깨닫게 되였다. 위대한 사상에 안받침된 우리 예술은 응당 세계일등급의 수준으로 뛰여올라야 하며 세계적인 감화력을 지녀야 한다!)

어느 하늘가에서 번개가 치는지, 가슴속에서 무엇이 폭발한것인지 우뢰소리의 장쾌한 메아리같은것이 온몸에 퍼지는듯하였다. 그는 걷잡지 못할 환희에 전률하다가 저도 모르게 벌떡 뛰여일어났다.

(《꽃파는 처녀》를 말자! 자기를 깡그리 연소시켜 명작으로 만들자. **김정일**… 저분의 위업을 받드는 하나의 초석이 되도록 명작으로… 세계적인 명작으로! …)

온몸과 마음을 불사르는듯한 격정에 휩싸인 그는 얼빠진 사람처럼 숲속을 황황히 꿰질러나가다가 달빛이 부채살처럼 쏟아져내리는 나무밑에 우뚝 멎어섰다. 그리고는 저 멀리 밤노을이 벌겋게 타오르는 하늘가를 바라보며 헛소리처럼 나직이 중얼거리였다.

《명작으로… 명작으로… 저 퇴페예술의 흐름도 물리칠수 있는… 인간긍정, 인간옹호의 명작으로!》

제 6 장

1

온 예술계가 들끓고있었다.

영화는 물론 문학, 음악, 미술, 무용 지어는 교예에서까지 전에 없던 창작적앙양이 일어나고있었다.

민족가극극장을 비롯한 수도의 거의 모든 예술단들에 가극창작의 선풍이 몰아쳤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친히 그 모든 예술단체들에 나가 가극창조를 지도하시였는데 여태 범재로 묻혀있던 작곡가와 연출가, 무대미술가와 배우들이 갑자기 재능이 활짝 피여나 형상창조에서 중심적인 위치에 서게 되였다. 시민들속에는 친애하는 그이에 대한 전설같은 이야기들이 파다하게 펴졌으며 아침출근길이나 저녁밥상둘레에서도 그 이야기들이 화제에 올라 사람들을 목메이게 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 대극장무대에서 예술인들과 함께 밤을 지새며 가극창조를 지도하시다가 아침해가 뜬 다음 댁으로 돌아가시였다, 그이께서 여러 작곡가들의 수천편의 작품들을 지도하고계신다, 그이께서는 절대음감을 지니고계신다, 그이께서는 독서하실 때 한꺼번에 글줄 넉줄씩 읽어나가신다, 병석에 누워있는 전신불수의 로작가에게 희귀한 보약과 전축, 보청기를 보내주시였으며 어느 배우의 결혼식에 참석하여 신랑신부가 드리는 술잔을 소탈하게 드시고 그들의 행복을 축하해주시였다. … 어디까지 사실이고 어디로부터 전설인지 알수 없었다.

평양주재 한 외국통신기자는 본사에 다음과 같이 타전하였다.

《이 나라에서는 지금 문예부흥을 련상시키는 전대미문의 예술운동이 벌어지고있다. 이것은 분명 아직 세상에 널리 알려지지

않은 탁월한 령도자의 출현과 관련된다고 보아진다. 조선사람들은 그분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라고 부르고있다!》

최승진은 이런 사회적분위기속에서 열정에 넘쳐 《꽃파는 처녀》의 연출대본을 작성하고있었다.

《꽃파는 처녀》를 맡고싶다는 그의 열망에 누구보다도 기뻐하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연출대본작성에서 철저히 원작의 사상예술적특성을 살려야 한다고 간곡히 가르쳐주시였으며 연출가의 손에서 아직 대본도 떨어지지 않았는데 제작단을 무어주도록 하시였다.

한기석과 강철룡이 부연출로 임명되였으며 음악, 미술, 조명, 효과, 의상, 장치, 소도구 등 창조성원들이 선정되였고 벌써 의상들이 도안되고 장치물들과 소도구들이 제작에 들어갔다. 이에 더욱 고무된 최승진은 먼 북방의 회성에까지 가서 야외촬영장소를 선정하고 왔으며 집에 들어가지 않고 합숙에서 밤을 새면서 연출대본을 완성해나갔다. 그는 새 사람으로 태여난듯 전에 없던 생기와 의욕에 넘쳐 아침이면 랭수마찰을 하고 조기체조에 참가했으며 하루종일 방에 붙박혀 펜을 달리다가도 저녁시간이면 부연출들과 떠들썩하게 장면토론을 하기도 하였다.

연출가의 이런 모습은 부연출들에게도 영향을 주어 어느날 강철룡은 구두를 벗어버리고 운동화에 잠바바람으로 제작단에 나타났다.

몇몇 녀배우들이 그런 갑삭한 차림새에 눈길이 끌려 어째자고 운동화까지 신고 나타났느냐고 물으니 철룡은 부연출한테는 이따금 륙상선수와 같은 기질도 필요하다고 하며 벙글거렸지만 그의 결심과 잡도리가 엿보여 누구나 가슴이 후더워졌다.

어느날 식당아주머니가 근심스러운 얼굴로 로영무한테 승진선생이 이틀전부터 식사를 전혀 들지 못하는데 식찬이 맞갖지 않아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하였다.

로영무는 밤을 팬탓이겠지 하고 심상하게 여겼는데 하루는 최승진이 매우 불쾌한 얼굴로 그를 찾아와 소화불량이 생겼다면서 아무래도 병원에 좀 갔다와야 할것 같다고 했다. 그는 대학병원에 가

서 위투시, 여러가지 실험검사를 받고 와서 만성위염이라는것이 확진되였다고 하면서 여간 기뻐하지 않았으며 그 진단으로 새 생명을 받아안기라도 한듯 희열에 넘쳐 사람들과 인사도 나누고 병원에 갔다온 이야기랑 하였는데 저녁녘에는 석양의 부드러운 해빛에 잎사귀들을 반짝이며 설레이는 창밖의 정원수를 내다보다가 매우 다감한 눈빛으로 로영무를 돌아보았다.

《몇해전만 해도 볼품이 없던 저 나무가 언제 저렇게 아름답게 자랐는가? 우리는 예술가라면서 자연의 변화도 모르고 지낸다니까. 로동무, 저런 풍만한 자연미를 배경으로 한번 기념사진을 같이 찍지 않겠소?》

자연과 생활의 아름다움을 새롭게 느끼며 그것을 한껏 즐기고 싶어하는 벗의 심정토로를 들었을 때 로영무는 느닷없이 가슴이 섬찍해졌다. 그가 이 며칠사이 무서운 병마에 대한 공포에 떨었으며 그래서 병원에도 뛰여가지 않았는가싶은 생각이 들었기때문이다.

그런데 이튿날 병원으로부터 총장실로 그가 불치의 병이므로 입원시켜야 되겠다는 전화가 왔다.

그것은 청천벽력같은 기별이였다.

총장한테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로영무는 어찌하여 병마는 한창 피여나 원숙기에 이른 재사일수록 서둘러 앗아가려고 영악하게 접어드는가싶으면서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리고 그이께서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놀라시랴싶은 생각이 가슴을 아프게 파고들었다.

최승진도 같은 심정인지 의사들의 소심성이며 무능을 비웃으면서도 총장과 주영도비서를 찾아가 영화를 다 만들기전에는 절대 쓰러지지 않을테니 당에 보고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하고 병원으로 떠나갔다. 입원하여 수정작업을 계속한다고 연출대본도 가지고갔다. 그는 대학병원에 며칠 입원해있다가 림상경험이 많고 의료진이 강한 군대병원으로 옮기였는데 그후 병세가 가라앉는듯하다가 폭발적으로 악화되였다. 병원에서는 부인이 와서 곁에 있으면서 간병하는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촬영소로 보내왔다.

그이튿날로 촬영소안에 이런 소문이 퍼졌다. 윤희가 의료진의 그 요구에 어떤 우려가 숨어있는지 모르고 그저 어정쩡해져 병원으

로 떠나갔으며 그를 병원접수실까지 데려다주고온 성녀가 저녁에 남편앞에서 생때같은 사람이 그렇게 되였다고 눈물을 보였는데 로영무연출가가 난생처음 성이 독같이 나서 방정맞게 굴지 말라고 소리쳤다고…

자연에는 바야흐로 가을빛이 짙어가 저녁마다 느껴지는 선기와 푸르싱싱하던 가로수들의 잎사귀에 점점이 물들기 시작하는 단풍빛은 전에없이 쓸쓸한 감정을 자아내면서 사람들의 가슴을 애끓게 하였다. 락엽들이 산야에 흩날리고 앙상해진 나무가지들이 휘파람을 불기 시작하면 부득불 여름장면들의 촬영을 중지하고 다음해 여름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실무적인 사정이 다른편에서 그들의 마음을 몹시 초조하고 불안하게 만들었다.

촬영소는 최승진의 병치료를 돕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취하는 한편 예술영화 《꽃파는 처녀》제작단사업을 림시로 로영무에게 맡겨 촬영준비를 다그치도록 하였다.

부연출 한기석은 병원에 가서 연출가결에서 연출대본완성을 돕고 강철룡은 로영무를 도와 대본이 완성되면 인차 봄, 여름 장면촬영을 시작할수 있도록 그 준비를 하여나갔다.

로영무는 이전의 가책도 있어 최승진을 돕자고 배우들에게 원작을 깊이 연구시켰으며 촬영가, 미술가, 작곡가, 조명사, 효과사, 연화사 등 영화의 종합적형상에 참가하는 모든 자매예술부문성원들과의 사업을 전에없이 엄격한 요구성으로 해나갔다. 모두가 그의 닦달을 당했다.

어느날 그는 효과록음실에서 영화에 들어갈 새소리, 바람소리, 물소리, 우뢰소리, 문소리 등 효과음들을 들어보다가 그 록음테프들이 수십편의 영화제작에 참가한것들이여서 음색이 선명하지 못한것을 알고 당장 효과음들을 새롭게 록음해올것을 요구하였다. 그래서 효과록음사들은 맑은 물소리와 새소리, 바람소리를 찾아 먼 산간의 자연속으로 떠나갔다.

제작단의 촬영준비에서 제일 큰 난문제는 주인공 꽃분이의 역을 맡길 배우를 선정하지 못한것이였다. 중요한 배역이여서 요구가 비상히 높은데다가 대상이 16～18살정도의 처녀여야 하는

것만큼 녀학생들이나 비전문가들속에서 찾아야 하기때문에 난관이 더 컸다.

로영무의 머리속에 그려진 표상에 의하면 꽃분이는 그지없이 순박하고 아름답고 순결무후한 정신미를 가졌으며 다감다정하면서도 의지가 강하고 그러면서도 모진 세상의 비바람에 시달려 이른서리를 맞은 한떨기꽃처럼 처량한 인상을 풍기는 어린 처녀였다. 수도와 지방의 예술부문 학교들과 예술단체들이며 중학교와 전문학교, 대학 학생들을 비롯하여 전국적판도에서 찾아보았으나 완전무결하게 적합한 대상은 없었다. 강철룡이 어디 가서 겨우 골라온 몇명의 대상들은 아름답기는 하였지만 모두 하나같이 생기발랄하고 새까만 눈동자가 반짝이는 오돌찬 처녀들이였다. 우수에 젖어 구슬프게 빛나는 눈, 이른서리를 맞은 메꽃과 같이 처량한 인상을 풍기는 모습은 없었다.

행복한 사회의 품속에서 인생의 불행이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라난 세대들속에서 그런 존재를 찾아내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인것 같았다.

어느날 로영무자신이 직접 배우선발의 길에 나섰다. 그는 우선 수도의 모든 극장들을 샅샅이 뒤져볼 작정을 하고 평양예술단, 청년예술단, 국립극장, 평양교예단, 사회안전부연극단을 걸쳐 인민군협주단에 이르렀다.

인민군협주단 단장은 매우 욕심스럽게 생긴 대좌였는데 로영무의 용건을 듣자 경계하는 눈빛으로 자기네한테는 그런 적임자가 없다고 잘라말하였다. 그는 몇해전 영화에 한두명 찬조출연시켰다가 아주 떼운 일이 있다면서 좋지 못한 소리까지 하였다.

로영무가 작품의 중요성에 대하여 진지하게 설명하자 대좌는 잠시 무슨 궁리인가 하다가 능청스럽게 웃어보이며 한가지 교환조건을 내놓았다. 그 교환조건이란 자기네가 대합창을 하나 준비하는데 무대배경에 환등대신 대담하게 영화화면을 비치자는 의견이 나왔다고 하면서 그것만 잘 도와주면 미인부대인 무용부의 어린 처녀들을 몽땅 로영무앞에 내세우겠다는것이였다.

로영무는 껄껄 웃으며 동의했다. 지휘자출신인 대좌는 농민적

인 투박한 말씨를 하나의 치레로 여기는지,넨장 소뿔은 단김에 빼랬다고 하면서 무대로 나가보자고 하였다.

무대에서는 대합창이 한창 련습중에 있었다. 드넓은 무대의 앞부분에는 관현악반주성원들이 빼곡이 들어앉아있고 그뒤에 2백명은 넘어보이는 합창대가 층층으로 서있었다. 무엇을 억세게 내리누르는듯한 지휘자의 팔놀림에 따라 관현악이 잦아들며 대합창이 폭풍처럼 터져나왔다. 그 소리는 눈보라처럼 휘몰아치다가 부드럽게 날아도는듯하더니 피아노의 열정적인 탄주소리가 환희의 선풍처럼 장내를 휩쓸었다.

객석의 통로에 대좌와 나란히 서있는 로영무는 머리가 핑 도는듯하였다. 대좌는 손으로 무대를 가리키며 저 합창대뒤의 배경에 밀림이 설레이고 유격대원들이 눈보라속을 행진해가는 영화화면을 비치자는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 대합창은 《밀림이 설레인다》라는 작품을 새롭게 편곡한것인데 협주단의 야심작이라고 했다.

로영무가 실눈을 짓고 무대쪽을 바라보다가 영화화면을 비치면 오히려 조잡해지지 않겠느냐고 하자 대좌는 그런 의견도 있지만 우선 해볼 결심이라고 했다. 그리고는 지금 대극장에서 창조하고있는 혁명가극 《피바다》의 무대장치는 완전히 립체적인것이라고 하면서 녀무용수들을 경사진 대에 눕혀 백두산을 부각하는것과 같은 대담한 시도도 한다고 했다.

이때 지휘자의 손이 허공을 찌르고 모든 성부의 배우들이 목청껏 소리를 내질러 합창이 장쾌한 환성으로 번지여 극장을 들었다놓았는데 그것은 협주단의 전투적인 기백과 진취성을 시위하는것같았다.

로영무는 대좌가 내세운 무용부의 어린 처녀들속에서 두명을 점찍어두고 거기를 떠났다. 그는 음악무용대학을 걸쳐 날이 어두워져서 대극장에 도착하였다.

대극장둘레의 외등들에는 명절전야처럼 불이 환히 켜져있었다.

그는 배우들과 관리일군들이 드나드는 후문으로 극장안에 들어가 2층으로 걸음을 옮겼다. 중량감이 느껴지는 그 웅장하고 화려

한 건물은 갖가지 음악소리로 가득차있었다. 련습실, 휴계실, 의상실, 분장실, 그 어디에서나 음악소리들이 흘러나왔다. 피아노소리에 어울려 박력있게 터져오르는 소합창, 목관악기의 구성진 소리와 현악기들의 흐느낌소리, 녀성고음의 열정적인 부르짖음… 소리의 세계에 들어선 로영무는 번창한 도시에 처음 온 산골로인처럼 얼떠름해졌다. 그는 누구를 찾아 어디로 갔으면 좋을지 몰라 복도에서 오락가락하다가 이문 저문을 열고 기웃거렸다.

가극단의 총장, 예술부총장, 연출가, 어느 누구도 자기 방에 없었다. 지나가는 배우들을 붙잡고 물어봐도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딱히 알지 못했다. 그저 어느 련습실에 나갔으리라는 막연한 대답뿐이였다. 모두 자기 창조세계에 깊이 빠져있어 다른 사람들의 행처에 대하여서는 모르는것 같았다.

그는 3층, 4층으로 올라가 찾아보다가 돌아섰다. 층계는 오르내리는 사람들로 붐비였다. 아득한 옛시절의 농촌처녀로 분장한 한 무리의 녀배우들이 아래로부터 우르르 밀려올라오는가 하면 왜놈군복차림의 배우들이 우로부터 밀려내려왔다. 또 그뒤를 따라 얼굴에 분장을 진하게 한 화려한 무용복차림의 녀배우 몇이 층계에 끌리는 치마자락을 걷어쥐고 사뿐사뿐 걸어내려왔다.

로영무는 그런 배우들과 마주칠 때면 방해가 될가봐 길을 비켜 벽에 붙어서군했다. 그 배우들은 로영무를 어느 관리부서의 전공아바이쯤으로 여기는지 누구도 주의를 돌리지 않았다. 단지 한두명의 무용수가 그를 알아보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가 2층복도에 내려서는데 뒤에서 누구인가 반겨 소리쳤다.

《아니 이게 누구요?》

돌아보니 가극연출가 리문학이였다. 이마가 훌렁 벗어지고 코날이 높이 선 그는 유럽사람과 같은 인상이여서 지난날 영화에 미군역으로 찬조출연한 일도 있어 로영무와 가까운 사이였다.

리문학은 색이 바랜 밤빛 구식쟈케트를 우에 걸치고있었는데 그 호주머니에 두손을 찌른채 턱을 쳐들사하며 느슨하게 웃어보였다.

《허, 이거 무슨 바람이 불어 촬영소귀신이 대처에까지 나왔소?》

로영무도 롱말로 응수했다.

《선보러 왔네！》

《뭐？ 선보러？》

《선보러…》

《또 이 뻰대를 데려가자는 수작이군. 여보게, 이젠 싹 그만두겠어. 손자애들한테 위신이 없단말이야. 장성급쯤이면 몰라두…》

《허허허…》

로영무는 유쾌하게 웃다가 엄지손가락으로 눈굽을 찍어내고는 얼굴빛이 진중해지며 찾아오게 된 사연을 말하였다.

리문학이도 정색해져서 듣더니 가극창조에 망라된 인원들은 다치지 못한다고 하였다.

《좌우간 찾아보게. 모처럼 왔다가 섭섭하게 그냥 돌아가겠나. 먼저 4층에서부터 내리훑어볼가.》

리문학은 그를 데리고 4층으로 올라가 무용련습실로 안내하였다.

한쪽벽이 거울로 된 넓은 방안의 윤이 알른알른한 쪽무이바닥우에 눈처럼 흰 무용의상으로 단장한 수십명의 무용수들이 꽃잎처럼 흩어져 앉아있었는데 무용수들과 대조되게 새까만 양복차림을 한 40대의 남자무용지도원이 그들속을 왔다갔다 거닐며 신경질적인 어조로 꾸짖고있었다.

로영무는 리문학의 뒤를 따라 들어가 출입문곁의 장의자에 조용히 앉았다.

지도원이 그들쪽을 흘깃 돌아보고는 하던 말을 계속하였다.

《꿈… 꿈이라는 소리를 내가 몇천번이나 했는가. 동무들은 현실속의 안개가 아니라 꿈속의 안개… 말하자면 꿈나라로 들어가는 어머니의 몽롱한 의식의 흐름이란말이요. 그런데 아직도 률동이 부드럽지 못하오. 감정이 장작개비, 장작개비란말이요. 팔, 다리, 발끝… 다 같아. 얼굴표정도 꿈꾸는듯 몽롱해져야겠는데 감정이 장작개비, 장작개비란말이요.》

로영무는 언제인가 대극장에 《장작개비지도원》이라는 《폭군》이 있다는 소리를 들은적이 있어 바로 이 친구였구나 하고 생각하며 그의 말을 여겨들었다.

무용수들은 그의 닥달에 습관이 된듯 모두 심드렁한 얼굴로 들

었고 한두처녀는 가슴아래에 드리운 옥패를 가지고 손장난까지 하였다.

《이제 한번 해서 안되면 다시 되돌아서 개별훈련으로, 개별훈련으로 들어가겠소. 일찌기 퇴근해서 제볼장을 볼가 하는 생각은 싹 그만두라구. 안되면 열흘이구 보름이구 밤을 패야 돼… 안개… 몽롱한 안개… 꿈꾸는듯한 얼굴… 어머니의 정신세계에 완전히 잠겨들어가야지 머리속에 티끌만한 잡생각도 있어서는 안돼…》

로영무는 평상시 녀성들속에서 어느 누구만을 여겨보는것과 같은 무례한짓을 안하는 성미였지만 직업상의 요구로부터 앉아있는 무용수들을 하나하나 뜯어보게 되였다. 그러다가 왼쪽 맨끝에 앉아있는 어린 무용수에게 마음이 끌렸다. 아련한 얼굴모습, 구슬픔이 어린듯한 눈매…

리문학이 벌써 무슨 눈치를 챘는지 그의 귀에 대고 속삭이였다.

《서영애라고 무용학교 전문부출신이요. 19살에… 아버지는 도시경영사업소 로동자요. 우리 극장 난방관을 고쳐주었소. …》

서영애라는 그 어린 무용수도 무슨 기미를 느꼈는지 올롱한 눈으로 그들쪽을 바라보다가 리문학이 눈을 찡긋해보였는지 수집게 웃어보이고는 고개를 떨구었다.

이윽고 무용수들은 지도원의 구령에 따라 일제히 일어나 자기 자리들을 잡더니 깃을 펴고 쓰러진 학들처럼 한쪽무릎을 꿇고 쪽무이바닥에 엎드렸다.

구석쪽에 놓인 립체록음기에서 주의를 환기시키는듯한 소고소리가 잦은가락으로 들썩하게 울려나오다가 멎더니 꿈나라로 이끌어가는듯한 몽롱한 음악이 조용히 흘러나왔다. 그 음악에 실려 방바닥에 엎드렸던 무희들이 팔을 흐느적이며 피여오르는 안개처럼 서서히 몸을 일으켰다. 갑자기 음악이 고조되였다. 무희들은 어느덧 두겹, 세겹으로 원을 그리며 넓은 방안을 미끄러지듯이 돌아갔다. 윤이 흐르는 칠흑같은 머리들에 두른 장식띠의 반짝거림, 꿈꾸는듯한 얼굴, 얼굴들, 어깨에서 팔로 흘러내려 손밑으로 휘늘어진 하르르한 숄의 나붓김, 치마폭에 드리워 금빛, 은빛으로 반짝거리는 옥패, 쪽무이바닥에 스치는 치마자락들의 야릇한 소음…

무희들은 얼음판우에 미끄러져가듯이 빙글빙글 돌아가고 그들의 머리우로 숄들이 실안개와도 같이 날아오르기 시작했다.

어느덧 무용은 물결처럼 설레이고 안개처럼 넘실거리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바람에 밀려가는 실안개처럼 가볍게 가운데로 몰켜드는가 하면 산산이 흩어지고 다시 몰켜들어 회오리치다가 흩어지면서 원을 그리였다.

《장작개비지도원》은 흩날리는 숄들의 안개에 묻혔다가 풀려나오군하면서 한손을 높이 들어 무엇인가 알뜰살뜰히 쓸어만지는 시늉을 하는가 하면 허리를 구부정하고 열에 떠서 속삭이였다.

《좋아… 좋지… 그래… 그래… 안개… 안개… 부드럽게 더 부드럽게…》

그의 손에 쓸어만지운듯 하나같이 다소곳이 내리뜬 눈들, 우아하게 쳐들린 팔들의 흐느적임, 알릴듯말듯 아기자기하게 벌려진 손가락들의 기묘한 놀림, 음악의 가락에 실려 둥둥 떠가는듯한 어깨선들의 잔물결, 장식머리띠의 반짝거림, 옥패들의 살랑거림…

로영무는 문득 예술단체들에서 받았던 인상들이 하나로 종합되면서 가슴이 벅차올랐다.

(영화뿐아니라 예술의 모든 부분에서 얼마나 폭넓은 사업이… 이건 거창한 흐름이야!)

몇순간이 지난 뒤에야 그는 상념에 잠기는바람에 자기 눈이 서영애를 놓쳤다는것을 깨달았다.

그는 황황히 무희들을 둘러보았다.

서영애는 가운데로 몰켜들어 돌아가며 분수처럼 숄을 날려올리는 무희들속에서 언뜻 나타나는가 하면 숨박꼭질을 하듯 순간에 사라졌다가 흩어지는 안개속에서 문득 자태를 드러내군하였다. 그러다가 두 연출가앞을 미끄러져 지나갈 때면 숄을 휘 들어 새침해진 얼굴을 가리워버리군하였다. …

옥상의 루각으로 나온 로영무는 흥분을 못이겨 성급히 담배를 피워물었다.

뒤따라 나온 리문학이 유쾌한 목소리로 묻는다.

《그 처녀한테 끌렸던 모양이지?》

《괜찮긴 한데… 더 골라보구.》

《원 젠장, 욕심두. 그러다간 하늘에까지 올라가겠네. 옥황상제가 거느린 선녀들속에도 저런 처녀는 없을거네.》

《이자 그 무용이 가극 〈피바다〉에 들어가는 무용인가?》

그들은 란간에 기대여앉았다.

《그렇네… 어머니의 꿈장면에 들어가는 환상무용이네. 어머니가 저 무용속에서 아들을 만나네. 환상무용… 처음 들어보는 소리지?》

《대단하구만.》

《요새는 저렇게 맨 대단한것뿐이네. 이전에야 가극에 저런 환상무용을 넣을걸 생각이나 했댔소. **김정일**동지께서 가극을 지도해주시면서 그야말로 혁명이… 혁명이 일어났네. 가극의 노래들을 몽땅 절가로 하네. 절가로…》

《독창도?》

《물론 독창도… 형상해보니 정말 훌륭해. 부르기 헐하고 듣기 좋으면서도 극성이 아주 강조되네. 반복구로 가사의 의미가 잘 전달되고… 그리고 방창이 대담하게 도입되고있네. 방창의 역할이란 대단하거든. 주인공의 심리를 개방해줄뿐아니라 정황설명, 세월의 흐름까지 다 말해줄수 있단말이요. 이건 완전히 우리식의 독창적인 가극이네. 가장 인민적이고 가장 혁명적인 가극이네.》

로영무는 그런 소리를 듣자 고일명에 대한 우려때문에 얼굴빛이 흐려졌다. 그는 외국에서 돌아온 날 안해한테서 정아가 집에 찾아와서 했다는 이야기를 죄다 들었던것이다.

리문학이 그의 얼굴을 흘깃 훔쳐보았다.

《여보게, 왔던김에 일명이를 만나고가게…》

《다 들었네…》 하고 로영무는 시름겨운 한숨을 내쉬였다.

《자네들이야 사돈간이 아닌가.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얼굴이 가매서 돌아가는 정아가 보기 안됐어.》

《아직도 그냥 그 고집인가?》

《내놓고 고집을 부리지는 않지만 창조사업에 영 적극성이 없네. 합창곡이나 무용곡이라도 좋은걸 써주었으면 얼마나 좋겠나. 무

슨 배심에서인지. 노상 찌뿌둥해서 외토리로 돌아가네. 만나라구.》
《내버려두라구. 온 극장에 맞선 위인이 나한테라구 숙어들겠나. 코가 깨지든 이마가 터지든 다 제탓이지…》
《참 답답한 일이거든… 유럽사람들도 틀에 박힌 19세기 고전가극에 염증을 느끼고 무엇인가 새것을 요구하는데 저 사람은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든…》
이때 검은색 샤쯔에 회색 넥타이를 맨 고일명이 옥상으로 나왔다. 그는 단단하고 반들거리는 이마밑에 침울한 눈을 빛내이며 그들에게로 다가왔다.
리문학은 사돈끼리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이야기하라고 하면서 자리를 피하여 안으로 들어갔다.
고일명은 담배를 피워물며 심각한 눈빛으로 로영무를 훔쳐보았다.
《그새 잘 있었소?》 하고 로영무가 근엄한 얼굴로 물었다.
《먼데 갔다왔다는걸 알면서도 인사하러 가지 못해 미안하오.》
《일이 바쁜데 뭘…》
《헝,일이 바빠서가 아니라 궁지에 빠지다나니 인사를 차릴 마음의 여유도 없구려.》
《사람이 살아나가느라면 이런저런 일이 생길수 있지… 다 들었소.》
《저 리문학이 뭐라고 하지 않았소?》
《걱정하더군…》
《걱정?… 저 사람은 창작실안의 론쟁을 온 극장에 퍼뜨려놓았네. 모두 저 사람 말을 듣고 당정책을 반대하는 종파놈처럼 나를 조겨댔네. 음악에 문외한인 리문학은 그렇다치고 서부상이 그러는데는 정말 아연해지네. 어떻게 된 노릇인지. 완전히 범이… 범이 됐어. 내가 언제 절가전체를 부정했는가? 독창만은 절가로 하면 극적인 감정을 강하게 표현할수 없다고 했을뿐이네. 저들이 그런다고 내가 자기 예술적신념을 포기하겠는가. 움츠러드는척하면 되는거지.》
그리고는 턱을 쳐들사하고 구슬픈 얼굴로 대동강쪽을 내다보

다가 시적으로 읊조리였다.

나는 무희가 아니여니
남의 장단에 춤출것도 없어라

로영무는 엄엄한 얼굴로 그를 지켜보다가 더이상 참지 못하고 분격을 터뜨렸다.

《그건 도대체 무슨 소린가? 대중이 좋다는걸 왜 반대하는가 말이요?》

《흠, 리문학이처럼 나를 조겨대고싶소? 너무 흥분을 앞세우지 말고 좀 기다리오. 이제 무대에 올려놓고 형상해보면 내 말이 옳았다는것이 판명될거요. 나는 확신하오.》

고일명은 홱 돌아서 안으로 걸어들어갔다.

로영무는 그 기상에 너무 아연해져 한동안 그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2

장미혜는 아침부터 구석진데 있는 분장실에 배겨서 가발, 머리태, 눈섭, 속눈섭 등 분장요소들을 만지고있었다.

심드렁해진 얼굴이였다. 그는 처음부터 《꽃파는 처녀》의 분장을 맡고싶은 생각이 불같았다. 그런데 조명사, 장치사들까지 다 정식으로 임명하면서도 그한테만은 림시로 맡으라고 하였다. 기량때문인가, 다른 무슨 까닭으로 고려중인가… 미혜는 남달리 차별당하는것 같아 심드렁해있었는데 아침에 로영무연출가가 갑자기 오늘중으로 분장준비상태를 보겠다고 했던것이다. 그래서 분장궤짝들을 모조리 열어놓고 고르고 또 골라봤지만 눈섭 하나 마음에 드는것이 없었다.

원작에 제시된 인물들의 성격이며 생활조건에 어울리지 않았

던것이다. 꽃분이의 머리태며 꽃분이 어머니의 머리에 씌워줄 가발 그리고 약방로인의 수염도 신통한것이 없었다.

의학서적에 의하면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의 머리칼은 기름기가 없는것이 특징인데 로인용의 어느 가발에서나 윤기가 흘렀다. 그것은 이전에 제작된 영화들에 등장한 지주마누라나 유한부인들을 위하여 만든 가발이였기때문이다.

몇개 있는 농촌할머니의 가발은 너무 많이 써서 다 헐어빠진 것들이였다. 약방로인의 수염으로 골라낸것들도 원작을 연구하며 머리속에 그려진 표상과는 맞지 않았다. 약방로인이 담배를 피우기때문에 웃수염끝이 노르스름하게 퇴색해졌을수 있는데 그런것이 없었다.

미혜는 속상하여 호— 한숨을 쉬며 허리를 펴고 일어나 공연히 서성거리다가 분장의자에 기대여 멍하니 창문쪽을 내다보았다. 여름내 무성한 나무그늘속에 묻혀있던 창문에 한가닥의 해빛이 비껴내려 어른거리고 넙적한 활엽수잎사귀 두잎이 한들거리며 날아내리다가 창유리를 슬쩍 건드리고는 아래로 미끄러져떨어졌다.

미혜는 문득 마음이 산란해졌다. 창유리를 건드린 자연의 손기척이 처녀의 가슴에 야릇한 파문을 일으켜 저물어가는 여름, 다가오는 가을을 상기시키고 깨여진 사랑의 아픈 추억을 불러일으켰던것이다.

지금 생각해보면 불행은 병원에 입원한 한기석에게 문병갔던 그날부터 시작되였다. 그때 한기석은 누구한테서 들었는지 강철룡이 외국에 파견되는 참관단에 망라되였다는것을 벌써 알고있었다. 그는 국제호텔식당에서 강철룡에게 한 소리를 그가 두 연출가에게 말했기때문에 그들의 반대로 자기가 참관단에서 밀려난것이 아닌지 모르겠다고 했다.

미혜는 그 소리가 믿어지지 않았다. 철룡은 비렬한데가 없는 사람이였다. 그가 눈을 내리깔고 응대를 안하자 한기석은 작고한 자기 아버지와 미혜 어머니의 오랜 우정을 상기하면서 이때까지 관심을 돌리지 못했다고 사과하고는 놀라운 사실을 이야기하였다.

어제 철룡의 형이 문병삼아 찾아와서 미혜의 어머니에 대하여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어디서 무슨 소문을 들었는지 그런 유명한 녀배우가 왜 갑자기 촬영소에서 나가게 되였는가, 년로보장에 넘겼다는것이 과연 사실인가, 과거생활이 문제로 되였다는 말도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고 캐여물었다는것이였다. 그리고 체모에 어울리지 않는 호기심을 가지고 녀성예술인들의 가정생활과 도덕생활에 대하여 여러모로 묻고는 자기는 일찍부터 동생이 예술인을 배우자로 선택하는 경우에도 처녀가 예술을 포기하는 조건에서만 혼인을 성사시켜줄 생각이였다고 하더라는것이였다.

미혜는 모욕감에 가슴이 떨렸다. 그런 편견에 웃음이 나가기도 했다. 예술가의 가정에서 자라나 머리끝까지 예술로 차있는 한기석이도 같은 감정에 얼굴이 해쓱해져 그 사람이 나한테까지 찾아온걸 보면 철룡이가 형을 설복하지 못한것이 분명하며 가정에서 그의 지위를 짐작할수 있다고 하였다.

미혜는 이때까지 자기앞에 나타난 철룡이만을 보았지 그의 생활의 뒤면에 대하여서는 전혀 모르고있은것 같은 의혹이 들었다. 그래서 철룡의 생활에 대하여 아는것을 죄다 말해달라고 졸랐다. 한기석은 그에 대하여 좋은 말을 많이 하다가 괴로운 얼굴로 좋지 못한 소리도 몇마디 하였다. 믿을수 없는 소리지만 체계적인 예술교육을 받지 못한 철룡이 제대군인의 흙묻은 군화발로 영화예술이라는 이 서정적인 세계에 뛰여들수 있은것도 형의 덕이라는 말이 한때 있었다, 철룡의 인생목표는 재능으로 인민에게 복무하는것이 아니라 영화예술이라는 이 매력적인 세계에서 형에 못지 않은 행정지위를 차지하자는것이다, 예술창조에만 몰두하여 다른것에는 전혀 무관심한 사람들속에서는 어느 부문에서보다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헐하다고 타산한것 같다는 소리도 있었다고 하였다. 뒤이어 요즘 군대병원에 근무하는 한 소위처녀가 그의 집에 이따금씩 드나드는데 그 처녀는 철룡의 형의 전우인 어느 장령의 막내녀동생이라고 했다.

한기석은 철룡이 사랑놀음의 단맛은 이쪽에서 실컷 보고 일생의 반려는 다른쪽에서 구할 놈팽이는 아니지만 이 모든것을 고려하여 깊이 생각해보라고 진심으로 타일렀다.

미혜는 정신없이 집으로 달려오다가 차에 치울번하였다.

그날 미혜는 문을 안으로 걸고 방구석에 홀로 누워 자기 운명을 두고 별의별 생각을 다하였다. 철룡이 찾아온것을 알고도 응대를 안했다. 누구든 만나고싶지 않았다. 한번 본적없는 소위처녀의 환영이 자꾸 떠올라 마음을 괴롭혔다. 고마운 사회의 혜택을 한껏 받아 우유빛으로 환하게 피여난 미모의 얼굴에 조국에 대한 헌신적복무와 청춘의 희생정신을 상징하는 군복… 의상직장에 가면 늘 마음이 끌려 장난삼아 입고 자기 모습을 슬그머니 거울에 비쳐봤던 그 단정한 군복차림은 처녀의 용모를 얼마나 싱싱하게 살릴것인가. 군복은 상점에서 팔지 않는다. 그것은 조국이 입혀주는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자 그 처녀군관이 조국이 내세우는 혼인상대처럼 여겨졌다. 가슴이 미여지고 불길이 활활 솟구치는듯 목안이 타올랐다.

미혜는 난생처음으로 체험하는 이런 감정이 질투라는것이겠지 하고 생각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 빠져도 녀성의 감정생활에서 제일 수치스러운 약점이라는 그것을 드러내지 않으리라 속다짐하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러다가 그 환영이며 착잡한 감정들을 다 지워버리고 철룡이만을 생각했다. 그를 믿고싶었다. 그를 만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다짐을 받아내고싶었다.

며칠후 집으로 찾아온 철룡의 대답은 너무 명백하고 선선하기때문에 도리여 의심이 갈 정도였는데 그가 마지막에 열을 내며 따진 문제가 간신히 지켜온 믿음을 산산 허물어버렸다.

《요전에 집에 있었소? 내가 찾아왔을 때…》

《있으면서 어째 응대를 안했소?》

《누가 와있었소? 그 〈벗〉이란 사람이…》

사람을 얼마나 허술히 여기고 얕보면 이러겠는가… 한기석의 말이 죄다 맞는것 같았다.

외국참관에서 돌아온 철룡의 얼굴표정과 생활에서는 삶의 목표가 뚜렷한 사람의 강력한 지향성이 느껴졌다. 그는 영화창조에만 몰두하고 다른것에는 눈길도 돌리지 않는것 같았다. 미혜를 만나도

그저 반갑게 인사하고 지나갈뿐이였다. 이전 일들을 다 잊었는지 그저 그렇게 가장하는것인지 도무지 알수 없었다. 미련이란 검질긴 것이여서 미혜는 그의 심중을 다시 알아보고싶은 생각도 있었으나 좀처럼 만나 이야기할 기회가 생기지 않았다.

창문에 비낀 나무그림자가 어른거리면서 고요한 방안에 저물어가는 계절의 서글픈 정취를 불어넣는듯했다.

분장의자에 기대여 생각에 잠겼던 미혜는 갑자기 그 무슨 예감에 가슴이 활랑거렸다.

(혹시 로영무연출가가 바쁘면… 그가 오지 않을가…)

미혜는 서둘러 방안을 거두고 분장궤짝들을 정리하였다. 그러다가 한개의 늙은이수염을 손바닥우에 올려놓고 오도카니 앉아 유심히 살펴보게 되였다. 언제인가 잃어버려 눈물을 짰던 그 수염같았다. 그것이 철룡의 호주머니에서 나졌던 일이 생각났다. 저도 모르게 미소를 머금게 되였다.

미혜는 그 수염과 다른 수염들을 모두 꺼내서 웬일인지 눈에 잘 띄는 분장거울밑에 주런이 놓게 되였다.

예감대로 강철룡이 왔다. 언제나와도 같이 잠바앞섶을 열어놓았는데 안에 입은 와이샤쯔의 흰 목깃과 열정적인 눈때문인지 침침하던 분장실에 선풍이 불어든듯싶었다.

그는 가발, 머리태, 낭자, 눈섭, 속눈섭 등을 찬찬히 살펴보고나서 다 새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했다.

《작중인물들의 직업과 나이에 잘 맞지 않을것 같소. 원작은 읽었소?》

《대본만 읽었어요. …》

《원작을 연구해야지…》

《전 림시분공을 받았어요. 이제 누가 임명되겠지요. …》

철룡은 그 말에는 아랑곳없이 분장거울앞으로 가서 수염들을 하나하나 만져보았는데 미혜는 거울에 비쳐진 그의 얼굴만 지켜보았다. 그의 눈에 아무런 부드러운 빛도 살아나지 않았다. 미혜가 아까 쥐였던 그 수염을 만져보면서도 입가에 미소 한점 떠오르지 않았다.

《연출가가 요구성을 대단히 높이는데 이것들도 좀 염색을 하든지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리고는 무엇을 경계하는지 인차 나가버렸다.

미혜는 파랗게 얼어서 문가에 기대여 서있었다. 그의 가슴에는 아무것도 남아있는것이 없다. 애초에 아무것도 없으면서 련애장난을 한것인지… 기석오빠의 말이 옳다. 전적으로 옳다. 그의 말은 훼방도 중상도 아니다. 진심으로 한 충고였다.

철룡은 자기 형의 꼭두각시이고 그림자이다. 철룡에 대한 반발로 그가 싫어하는 한기석에게 한껏 의지하고싶었다.

방에 홀로 남자 미혜는 분장의자에 앉아 거울속에서 내다보는 처녀와 눈을 맞추었다. 그 처녀가 자기인가 하는 의혹이 들었다.

최근에 와서 마음속으로 그려보는 자기 모습이란 험상궂기 짝이 없는것인데 거울속의 처녀는 총체적으로는 서리맞은 인상이나 예쁘장한 얼굴에 곧은 마음이 내비친듯한 생동한 눈매로 이쪽을 빤히 내다보고있었다. 단지 입술이 좀 말라보이고 눈꼬리에 바늘로 그어놓은듯한 주름살이 아리숭하게 느껴질뿐이다.

(사람이란 정말 강하지…)

미혜는 서글픈 미소를 머금고 한손을 들어 이마며 볼,목을 부드럽게 쓸어만져보았다. 그러다가 거기에 철룡의 뜨거운 입김이 수없이 스쳤다는 생각이 들어 몸서리를 쳤다.

뒤에서 문소리가 났다.

미혜는 몸의 한부분을 드러내놓고있기라도 한듯 화닥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한기석이 들어왔다. 미혜는 분장의자에서 뛰여내리며 반기였다.

《병원서 와요?》

《비서동지가 방에 없구만.》

《연출가동지는 어때요?》

《묻지 말라구…》

그는 음산한데서 온 사람처럼 어깨를 으쓱 추켜올리며 을씨년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연출대본은 어떻게 됐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야… 누구한테나 절대… 절대… 말하지 말라구.》

한기석은 이렇게 오금을 박고는 온 세상이 무서워하는 불치의 병명을 말하고 여러차례의 실험검사결과 최승진연출가가 오래전부터 그 병에 걸려있었다는것이 밝혀졌다고 했다.

미혜는 비명을 터뜨리지 않으려고 입을 싸쥐였다. 숨도 쉬지 못했다. 상복을 입은 윤희의 처량한 모습이 언뜻 눈앞을 스쳐지나갔다.

《영화야 어떻게 만들겠지… 참 안됐어, 안됐단 말이야. 병원에 가서도 대본을 수정하느라고 내내 배를 그러안고 앉아 끙끙거렸댔는데… 나는 며칠전부터 이상하게 여겼댔어. 전경화면에 중경을 주고 특대사화면이 자꾸 반복되지 않겠어… 벌써 제정신이 아니였단말이야. 아, 인생이란 참…》

엄습해드는 허무감에 몸을 주체하기 어려운듯 그는 헐어빠진 분장의자의 팔걸이를 붙잡고 머리를 밑으로 떨군채 잠자코 있었다.

미혜는 그한테 무슨 위로라도 해주고싶었으나 목안에 단재가 찬듯 말이 나가지 않았다.

한기석은 갑자기 기분을 돌려 허구프게 웃고는 분장의자에 올라앉아 두손으로 푸시시하게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만졌다.

《병원에 가서 며칠 머리도 빗지 못했더니 이런 꼴이 됐군… 빗이 없나?》

미혜는 위생복주머니에서 분장빗을 꺼내주었다. 한기석은 빗살을 훅 불고는 머리를 대충 빗어넘겼다.

《내가 잘 빗어드릴가요?》

《괜찮아. 누가 보면 별나게 생각하겠어.》

《이맘땐 누구도 안와요.》

《됐어…》

그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한손으로 볼이며 턱밑을 쓸어만지면서 분장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빤히 지켜보았다.

《미혜…》

《…》

그는 격한 감정을 누르고있는지 눈이 열기를 뿜으며 번쩍이였다.
《분장미술가의 눈으로 보면 어때? 내 이 얼굴을 소재로 해서 긍정인물을 만들기 헐할가 부정인물을 만들기 헐할가? 어느 쪽인가?》
미혜는 분장의자등받이뒤에 붙어서서 의아한 눈으로 거울속의 그를 내다보았다. 미혜는 어떻게 대답했으면 좋을지 몰라 입을 다물고있었다. 롱담으로 돌리고싶지만 어째서인지 속이 긴장되며 그렇게 되지 않았다.
《로영무연출가는… 그 령감 얼굴은?…》
《…》
《생명이 떠나간 사람의 얼굴을 보라. 거기에는 부정기도 긍정기도 아무것도 없다.… 미혜는 언제인가 이렇게 말하며 자연적인 상태에서 부정기있는 얼굴이나 긍정기있는 얼굴이 따로 있는게 아니라고 주장했지. 내용이 형식을 결정한다고… 내면세계가 눈빛에 내배고 얼굴힘살과 살갗의 긴장을 이렇게저렇게 조종해서 모양을 잡아놓는데 따라 부정이나 긍정기가 생긴다고… 늘 그렇게 주장했지? 그래서 우리 연출가들이 타고난 미모의 배우들만 긍정인물로 쓴다고 늘 불평을 부리구.》
《나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생활속에서 봐요. 그다지 잘생기지 않았지만 아름답고 고상한 감정을 풍기는 얼굴이 얼마나 많아요. 그건 내면세계때문이야요. 흉한 심보를 가진 사람의 얼굴에는 어느 구석엔가 흉한데가 있어요.》
《허허, 참 누구나 미혜앞에 서긴 무섭겠는걸… 그럼 로영무연출가 얼굴은 어떤가?》
《배우가 아니고 연출가기때문에 한번도 분석적으로 보지 않았어요. 분장예술의 대상밖이니까… 그런데 그 연출가 얼굴에 대해선 어째 그렇게 마음을 써요. 갑자기 무슨 역이라도 맡고싶어하는가요?》
《아니… 사람속이란 잘 모르겠거든. 최승진연출가가 불치의 병이라니까 벌써부터 제작단을 제것처럼 틀어쥐고 기승을 부린다는 소리가 있어. 효과사들을 먼 산골로 쫓아보냈다면서? 아직 숨쉬고

있는데 그러는 법이 어디 있나…》

미혜는 자신이 수모라도 당한듯 얼굴이 해쓱해졌다.

《누가 그래요? 정말 터무니 없어요. … 림시로 제작단을 맡겼으니 잘 돕자고 그러는데… 남의 성실한 마음을 이렇게 전도해놓는 법이 어디 있어요. 언제나 최승진연출가의 연출의도를 따라야 한다고, 그래야 영화가 잘된다고 강조해요.》

《표방이야 그렇게 하겠지… 나도 처음엔 믿어지지 않아 미혜처럼 기분이 좋지 못했어… 아득한 옛날에도 왕이 림종에 이르면 왕세자들사이에 암투가 벌어졌다지 않아. 왕권은커녕 한줌만한 재산을 누가 가지겠는가 하는 상속문제때문에 화목하던 형제들이 으르렁거렸다는 이야기는 얼마나 많은가…》

《그건 까마득한 옛날이야기고 우리 시대… 우리 시대에야 어떻게 그런 일이… 그 비슷한 일이라도 있을수 있어요?》

《우리 시대란말이지… 나는 아마 시대긍정의 감정이 약해서 그런 소리에 넘어간 모양이구나. … 좌우간 성녀아주머니한테라두 조용히 일러주는게 좋겠어. 운명하기전까지는 너무 그러지 말라구… 제것이 다 된것처럼… 참, 미혜는 아직 우리 제작단에 정식으로 임명되지 못했지?》

미혜는 그 말에 얼굴이 화끈거리고 가슴이 뛰놀았다.

《저만은 어째 림시예요?》

《알아보겠어. 부총장한테두 말하구 당비서동지한테두 내가 직접 제기하겠어. 제작단에서 요구하면 다지.》

《이번 작품엔 꼭 참가하고싶어요.》

《알겠어. …》

한기석은 당위원회로 간다고 인차 방에서 나갔다.

×

컴컴한 얼굴로 한기석의 이야기를 듣고난 주영도는 한손으로 무겁게 숙어진 이마를 싸쥐고는 말이 없었다. 손등에 흘러내린 까만 머리칼이 보일듯말듯 떨렸다.

《이렇게 되니까 지난 시기 일들이 후회되는게 많구만. 비판이랑 너무 가혹하지 않았는지… 가슴에 맺혀있는게 없는지…》

주영도는 부들부들 떠는 손으로 호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피워물고 한기석에게도 권했는데 눈에 물기가 번들거렸다.

그와 응접탁을 사이에 두고 마주앉은 한기석이 엉거주춤 일어나 담배를 받아쥐며 위로하듯이 말했다.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맺혀있기는 뭐가 맺혀있겠습니까. 참, 안되긴 안됐지만… 그만하면 잘 지냈지요. …》

《아주머니는 그냥 곁에 붙어있소?》

《예…》

《그렇게 젊은 나이에… 아, 참 안됐소.》

주영도는 타들어간 담배꽁초의 불을 재털이에 비벼 꺼버렸다. 재털이에서 파르스름한 실연기가 피여오르다가 사라졌다.

《기석동무는 이제부터 어떻게 하겠소? 병원에 그냥 있는게 좋겠소, 제작단에 나오겠소?》

《이제 제가 병원에 있어 무얼 하겠습니까. 제작단에 나와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연출대본은 다 됐소?》

《아직… 3분지 2정도밖에 고치지 못했습니다.》

《힘들테지…》

《앓으면서 하다나니… 연출가동지가 정말 고생을 합니다. 정 못견디겠으면 누워있다가 아픔이 좀 가셔지면 일어나 배를 그러안고 한장면, 한장면 써나갑니다. 밤중에도 하고 새벽에도 하고 곁에서 보느라면 정말 피를 흘리며 포복전진해서 기여가는 병사가 생각나거든요. 남아있는 마지막 기운을 다 바쳐 기여가는 병사같습니다. 어떤 때는 정신이 헛갈리는지 왕청같이 써놓아 제가 다시 다 고쳐쓰지 않으면 안됐습니다.

이제는 안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걷어가지고 나올가 합니다.》

《그렇게 하는게 좋겠는가? 정신만 차리면 대본원고를 찾는다는데 아주 걷어가지고 나오면 큰 타격을 주지 않겠소?》

《이제는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채 그냥 떠날것 같습니다. …》

주영도는 얼굴빛이 더 어두워졌다. 그는 말라들어 껍질이 인 입술을 오무려 누기를 줄뿐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다가 한숨을 길게 내쉬였다.

《참 야단입니다. 그렇게 되면 작품을 누가 맡아하겠습니까?》

《작품?…》 주영도는 그것이 아득히 먼 세계의 일인듯 거의 방심한 얼굴이였다.

《예…》

《지금 로영무연출가가 림시 대리하고있지…》

《예, 승진연출가하고 같이 대본을 써보니까 대담하고 독창적인 연출수법이 요구되는 작품입니다. 두리뭉실하게 연출해서는 절대 안되겠습니다. 누구나 젊은 사람한테… 고루하지 않고 감각이 생신한 신진연출가한테 맡겨봤으면 좋겠습니다.》

《…》

《모두 발견하지 못하니까 그렇지요. 부연출들중에서 철룡동무나 누구한테 맡겨도 저는 적극 돕겠습니다. 도와서 명작을 만들겠습니다. 꼭 만들겠습니다!》

한기석의 눈동자에서는 파란 섬광같은것이 빛발쳐나왔다. 주영도는 침울한 눈으로 그를 여겨보다가 손을 홱 내저었다.

《됐소. 그만두자구.》

한기석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그는 피로와 한손으로 이마를 싸쥐고있는 주영도에게 인사하고 나가다가 다시 돌아섰다.

《저… 비서동지, 장미혜동무한테는 어째 분장을 림시로 맡겼습니까?》

주영도는 그에게 눈길을 돌리지 않고 퉁명스럽게 대답하였다.

《부총장한테 물어보라구… 아마 다른 제작단에서 먼저 요구했을거요.》

《우리한테 주십시오.》

《부총장한테 가서 토론하라는데…》

한기석은 그의 돌변된 기분에 얼굴이 하얗게 질려 돌아섰다.

3

창문유리에 검푸른 어둠이 비꼈다. 환자가 갑갑하다고 하여 열어제껴놓은 창가림자락이 아래로 무겁게 드리워 방열기에서 나오는 화기에 보일듯말듯 흐느적이고있었다.

구석쪽 원탁우에 놓인 촉수낮은 탁상등의 갓에 검은 머리수건까지 씌워놓아 방안에는 희미한 빛이 흘렀다.

혼수상태에 빠져 침대에 반듯이 누워있는 환자의 얼굴은 눈에 띄게 파리여 꺼져들어간 눈확이며 볼에 불길한 그늘이 서리였다.

잠간 눈을 붙이라고 하며 간호원을 떠밀어내보낸다음 윤희는 상두대우에 흩어져있는 연출대본원고들을 정돈해놓고 침대발치에 붙여놓은 나무걸상에 앉아 남편의 얼굴만 지켜보았다. 그 녀자의 얼굴에는 절망감도 비감도 없었다. 그저 망연자실한듯 해쓱하면서도 무엇에 대해서인가 매우 채심하고있는 얼굴이였다. 되는대로 주어입은 색이 바랜 세타며 낡은 치마가 입원실의 절망적인 공기속에서 그 녀자의 젊음과 아름다움을 더 두드러지게 하였다.

윤희는 저도 모르게 볼을 싸쥐고 타는듯한 눈으로 남편의 얼굴을 여겨보았다. 평소에 그처럼 다감다정하던 얼굴에서는 생명의 표정이라고 할만한것을 찾아볼수 없었다. 무서운 동통의 여파가 아직도 밀려오고있는지 입술이 약간 이그러져있을뿐 얼굴은 완전히 화석처럼 굳어져보였다.

그러나 눈물을 떨구거나 한숨을 내쉬지도 않았다. 가슴을 움켜쥐고 몸부림치지도 않았다. 그는 어떤 본능의 일깨움에서였던지 자기의 사소한 부주의나 절망이 남편을 죽음의 심연이 소용돌이치고있는 낭떠러지밑으로 떨어뜨릴수 있다는 조바심에 사로잡혀있었다. 어떤 순간에는 절망의 낭떠러지끝에 데룽데룽 드리운 남편의 생명을 두팔로 부둥켜안고 몸을 한껏 뒤로 젖히며 끌어당기고있는 자기 모습이 상념속에 언뜻 그려지기까지 했다. 귀중한 생명

을 낭떠러지밑으로 끌어내리려는 병마의 악착스러운 힘과 그것을 우로 끌어당기는 자기의 검질긴 힘의 균형속에서 남편의 숨결이 간신히 이어지고있는것만 같았다. 때문에 한순간도 락심하여 맥을 놓을수 없었으며 억척같이 마음을 버티고 초긴장속에서 남편의 병구완을 하게 되였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 남편의 얼굴만 지켜보고있어도 커다란 중하를 이겨내고있는 사람처럼 이마와 젖가슴에 비지땀이 내배였다.

처음 병원에 와서 얼마동안 윤희는 전혀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다. 그는 입원실에 노상 붙어있는 담당의사며 간호원, 과장과 기술부원장 등 의료성원들에게 마음을 의지하고 약간의 시련은 있겠지만 종당에는 완쾌되려니 하고 생각했었다. 그리고 의료성원들의 극진한 정성에서 남편이 조국에 얼마나 필요하며 귀중한 존재인가 하는 철없는 자랑으로 가슴이 부풀기까지 했었다.

남편은 병세가 좀 가라앉자 자기의 입원이 **김정일**동지께 보고되지 않았을가 몹시 마음을 쓰면서 그 여부를 알수도 짐작할수도 없는 윤희에게 이것저것 묻기까지 하는것이였다. 그리고는 불안하고 초조한 가운데 연출대본을 써나가군하였다.

한기석은 전염성이 없는 병인데도 환자곁에 붙어있기 께름직한지 틈만 생기면 무슨 구실을 만들어 간호원실이나 다른 방에 나가있거나 병원밖에 나가 돌아쳤다. 윤희는 그러는것이 섭섭하기도 했지만 마음이 차서가 아니라 천성적으로 살을 아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 나무리는 빛을 조금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는 남편이 휘갈겨쓴 초고를 직접 정서하기도 하고 불러주는것을 여백에 써넣기도 하였다. 그 과정에 윤희는 원고의 글줄들에 남편의 사색뿐아니라 숨결이며 더운 피까지 흘러들고있다는것을 느꼈다. 참으로 원고는 글을 써놓은 창백한 종이장들만이 아니였다. 그것은 혈맥과 신경으로 남편과 이어져있는 그의 생명의 한부분이였다. 어찌 보면 그것은 남편을 쉬임없이 사색케 하고 흥분시키고 열정에 북받치게 하는 삶의 원천같기도 하였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것을 될수록 눈에 띄지 않는곳에 감추려고 했으나 이제는 베개곁이나 머리맡의 상두대우에 잘 보이도록 놓아

두고 누가 함부로 치우거나 건드리지 않는가 마음을 쓰게 되였다.
최종적인 협의진단이 끝나고 담당의사가 오래 망설인끝에 조용히 불러 남편의 병명을 말해주었을 때 윤희는 자기 운명에 철추가 내려진듯 눈앞이 캄캄해져 벽을 짚고 간신히 몸을 주체하였다. 이튿날부터 담당의사며 간호원, 과장의 눈치를 훔쳐보게 되였다. 그들의 얼굴에서 신심과 희망, 투지의 빛은 씻은듯이 사라졌다. 어느 누구의 얼굴에서나 서글픈 동정의 빛만 엿보였다. 주사를 놓아주고 약을 먹이는것도 동정심과 의무감때문인것만 같았다.
윤희는 무서운 배신감을 느꼈다. 사나와지고싶었다. 그들에게 왜 포기하는가, 왜 단념하는가, 이러고도 당신들이 의사인가고 험한 욕설을 퍼부으며 달려들고싶었다. 아니 그들의 손을 잡거나 옷자락에 매달려 혹은 발밑에 쓰러져 울음을 터뜨리며 제발 구원해달라고 빌붙고싶었다. 그러나 이러지도저러지도 못했다. 남편의 체면이 깎일가봐 그리고 자기는 예술가의 안해라는 자각때문에 참았다. 이를 악물고 참았다.
그러다가 문득 오진이 아닐가 하는 의혹이 한가닥의 샘줄기처럼 암담한 마음속에 흘러들었다. 오진의 근거를 꼽아보니 얼마든지 있었다. 더우기나 남한테 악한짓이라고는 한일도 없는 사람이 무슨 벌로 그런 몹쓸 병에 걸렸겠는가 하는 생각이 마음을 크게 위안해주는 근거였다.
윤희는 남편의 운명에 덮씌워진 그 저주로운 병명에 무섭게 반발하여 어느날 새벽에는 담당의사를 찾아가 자기 심정을 토로하였다. 담당의사는 그의 눈길을 피하여 희붐하게 밝아오는 창밖을 내다보며 그럴수도 있다고, 가족들이 정 원한다면 다시 실험검사를 할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의 침울한 목소리가 망상에 부푼 가슴에 찬서리를 끼얹으며 피할길 없는 진실을 일깨워주는듯하였다.
윤희는 머리를 다소곳이 숙이고 돌아서 나왔으나 마음만은 숙어들지 않았다. 그는 문병오는 사람들을 통하여 의학서적들을 빌려다가 의사나 간호원 몰래 밤새워 읽어보았다. 며칠후 다시 진행된 실험검사결과도 역시 같은것이였다. 그날저녁 담당의사는 병원에 있어봤댔자 뾰족한 수가 없다면서 여러가지로 사죄의 말을 한

끝에 차라리 환자를 집에 데려가서 먹고싶다는것도 먹이고 아이들과 같이 있게 하면서 약을 쓰는편이 본인한테나 가족들한테도 더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하였다.

윤희는 남편의 생명이 의학과학의 혜택밖에서 신음하고있으며 그것을 붙안고있는것은 자기혼자뿐이라는것을 이미 깨닫고있었지만 그런 소리에 노여움이 터져올라 눈물을 뿌리며 고집스럽게 반대하였다.

어느날 고향에서 소식을 듣고 달려올라온 어머니가 입원실에서 하루밤을 같이 새며 동무해주고는 비여둔 딸집으로 떠나가면서 중매군처럼 뛰여다니며 결혼을 성사시킨 사촌오빠와 옛 인민학교의 교장을 두고 미치광이, 범이나 콱 물어가라고 쌍욕을 퍼부었다.

그때 윤희는 눈물을 쏟으며 어머니를 달래였다.

《엄마, 난 행복했어요. 짧게 살았지만… 정말 사랑을 받으며 남부럽지 않게 살았어요. 교장선생님한테 고맙다는 말은 못해도 절대 욕될 소리는 하지 말아요.》

그러자 어머니는 딸의 갸륵한 마음이 대견하여 치마자락으로 코물을 닦고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였다.

《얘야, 기운을 내자. 강심을 먹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더라…》

윤희는 그 말에 귀가 번쩍 트이였다. 그렇다. 세상에는 기적이라는것이 있지 않는가. 그는 어머니를 보내고나서 이번에는 있을수 있는 기적을 꼽아보았다. 새 치료법이 나올수도 있고 특효약이 발명될수도 있다.… 기적은 얼마든지 있을수 있었다. 그래서 굳세게 가다듬은 마음으로 버티고서서 그중의 어느 한 기적이라도 찾아들기를 기다려왔다.

하루는 집에 있는 어머니가 문병오는 성녀형님편에 갈아입을 옷을 보냈는데 무슨 정신에서인지 화려한 단풍잎무늬가 듬성듬성 배긴 자주빛 세타와 흑곤색 치마를 보내였다. 윤희도 제정신이 아닌지라 그 옷을 갈아입고 마루를 닦는데 남편이 천정을 쳐다보며 헛소리처럼 중얼거렸다.

《당신은 색갈이 수수한걸 입어야 돼. 지내 요란한걸 입으면 아름다움이 옷에 묻혀버려… 나는… 나는… 저 그 연한 미색세타랑

좋더구만… 우유빛에 가까운거…》

헛소리같았지만 윤희는 얼른 그 옷을 벗어버렸다. …

의자에 앉아 남편의 얼굴만 지켜보던 윤희는 모포밑에 손을 넣어 그의 발목을 쓸어만져보았다. 살갗이 말라들어서인지 나무뿌리처럼 꽛꽛해진 발목에서 미열이 느껴지고 맥박까지 감촉되였다. 맥박은 발목에서뿐아니라 발등이며 발가락에서도 느껴졌다. 그것은 비록 고르롭지 못하고 겨우 알리는것이였지만 병마와 싸우는 심장의 화답이였다.

윤희는 기쁨과 감사의 정에 목이 메고 설음같은것이 왈칵 북받치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발목이며 발등을 쓸어만졌다.

(여보, 기운을 내요. 제발 기운을 내세요. 하늘이 허물어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데 락망하지 말아요. 당신이 없으면 나는 어떻게 홀로 살아요. … 나를 버리지 말아요, 버리지 말아요. …)

남편이 이마살을 괴롭게 찌프리더니 한손으로 가슴우의 모포를 더듬더듬 쓰다듬었다. 그의 갈라터진 입술에서 가느다란 속삭임소리가 흘러나왔다.

《윤희… 윤희…》

윤희는 간절하게 할 말이 있는가싶어 얼굴을 가까이 가져갔다. 그러나 환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였다. 그의 속눈섭이 알릴듯말듯이 떨리고 이마에 피줄이 살아올랐다.

그는 분명히 어떤 녀자이름같은것을 겨우 들리는 소리로 부르고있었다.

《은주… 은주…》 실안개같이 흘러나온 그 소리는 윤희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다. 흐려지는 의식속에서 자기와 어느 누구의 이름이 헛갈린것인지, 림종을 앞둔 혼몽한 의식속으로 지난 생활의 잊지 못할 그 누가 찾아온것인지…

윤희는 순간에 얼굴이 창백해졌다. 자기 이름과 련결된 존재, 은주라고는 누구일가? 녀자이름같은데 도대체 누구일가?

불안과 공포, 신경과민에 제정신이 아닌 윤희한테는 착잡한 억측이 갈마들다가 이것이 혹시 애타게 기다려온 기적을 잡을수 있는 실마리가 아닌가싶은 생각이 뇌리에 번개쳤다. 남편을 살리자면 은

주가 누구인지 꼭 밝혀내야 했다. 그렇다고 혼수상태에 빠진 환자를 흔들어 깨울수는 없고 곁에는 물어볼만한 사람이 없었다.
한기석을 찾아 간호원실로 나간 윤희는 문밖에서 문병온 로영무와 마주쳤다.
몹시 지친 기색인 로영무는 상대의 얼굴에서 무엇을 읽었는지 주춤 멎어서며 눈이 휘둥그래졌다.
《어떻습니까?》
윤희는 대답없이 벽에 붙여놓은 장의자에 가서 앉았다.
로영무는 의아해서 곁에 와 앉았다.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병세는 그저 그래요. 선생님… 은주라고 몰라요?》
《예?》
로영무는 대뜸 얼굴표정이 근엄해져 그를 빤히 여겨보았다.
《은주라고 누군가요?》
《그런 이름을 어디서 들었습니까?》
《애아버지가 헛소리로… 누군가요? 누군가요?》
로영무는 억이 질려 말문이 막혔다.
《선생님이야 한평생 같이 지냈는데 모르겠어요? 누군가요?》
로영무는 절망의 극단에 이른 이 젊은 녀자가 그 사연을 알게 되면 어떤 감정을 터뜨릴지 몰라 은근히 두려워 달래기 시작하였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지나간… 아득한 시절의 일이지요. 우연히 헛소리가 나간것 같은데 먼 옛날부터 승진동무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그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도 전 죄다… 죄다 알아야겠어요. 선생님…》
윤희의 타는듯한 눈이 그를 지켜보았다.
로영무는 얼굴을 뒤로 젖힐사하며 긴 한숨을 내쉬였다. 이 절망적인 순간에 무엇을 더 감춘단 말인가.
이야기를 듣고있는 젊은 녀인의 얼굴에서는 놀랍게도 오랜 인생의 체험자 로영무가 우려하는 괴로움이나 얄궂은 시기심의 그늘이라고는 전혀 찾아볼수 없었다. 윤희는 처음에는 얼굴이 해쓱해서 들었는데 이야기가 끝났을 때에는 놀랍게도 기쁨에 겨워 어쩔바

를 모르며 의자에서 일어났다.
로영무도 따라일어났다.
《저이한테 알려야겠어요.》
《안되오. 흥분하면 병세가 나빠지오.》
《아시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나아져요. 꼭 나아져요!》 정신없이 속삭이는 윤희의 눈에서는 눈물까지 떨어졌다.
《선생님, 그를 여기로 부르면 어떨가요?》
《뭐요?》
《그가 살아있다는걸 알기만 해도… 보기만 해도 혹시… 혹시… 무슨 변화가 생기지 않을가요?》
로영무는 남편만 소생시킬수 있다면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을 그 녀자의 마음에 목이 메여 더 말도 못하고 말리지도 못하였다.
윤희는 그가 붙잡기라도 하는듯 홱 돌아서 남편한테로 총총히 들어갔다.
이윽고 방안에서 조용한 부름소리가 흘러나왔다.
《여보… 여보… 정신을 차려요…》
로영무는 방싯 열려진 문을 꼭 닫아주고는 간호원실을 지나 복도로 나가 격정을 못이겨 한동안 왔다갔다 거닐었다. 그리고는 복도벽에 기대였다.
(나도 좀 있다 들어가자… 아 무엇이… 도대체 무엇이 저 젊은 녀자 가슴을 저토록 크게 만들었는가. 남편의 죽음을 예감한것이 아닌가?)
그의 눈에 눈물이 가득 어려 번쩍이였다.
바로 그때였다.
복도에서 다급한 발자욱소리가 울리며 간호원이 뛰여오고 한기석이 숨이 턱에 닿아 따라왔다.
간호원은 곧바로 환자실로 들어가고 한기석이 **김정일**동지께서 오시였는데 원장실로 안내되시였다고 했다. 그리고는 로영무의 귀에 대고 나직이 속삭이였다.
《현관에 들어서며 어떠냐고 물으시니 원장이 아주 가망이 없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4

《그러니까 며칠후에는 끝난다는것입니까?》

김정일동지께서는 자리에 앉지 못하고 창결에 그냥 서서 말씀하시였다.

의사다운데라고는 전혀 없이 군사지휘관처럼 근엄한 인상인 원장은 두손을 군복바지혼솔에 붙이고 죄송스러운 얼굴로 말씀드렸다.

《앞선 나라들의 의학적수단으로도 어쩌는수 없습니다. 간혹 자연치유되는 경우도 있다지만 그런 기적이야 어찌 바라겠습니까. 어느 나라에서나 치료불가능은 상식으로 되여있습니다. 속수무책이니까 마감에는 수면제를 써서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고 영양제나 주입해주는것이 고작입니다.》

원장의 말에는 상식밖의 새로운것이란 전혀 없었다. 그러나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원장한테서 그런 소리를 듣게 되니 눈앞이 캄캄해지고 손맥이 풀리는가 하면 투항자의 궤변처럼 들리여 분노가 치밀기도 하시였다.

《아니… 아니… 어떻게나 살려내야 합니다. 귀중한 예술인재입니다. 내가 제일 사랑하는 동무입니다. 내 전우로… 친혈육으로 생각하고 치료해주십시오.

수도의 의료진을 다 동원해서라도… 우리 나라에 없는 약이 필요되면 외국에 비행기를 보내서라도 사다주겠습니다.》

이윽고 그이께서는 원장의 안내를 받으며 입원실쪽으로 향하시였다.

위생복을 걸치신 **김정일**동지께서 입원실로 들어가니 거기에는 기술부원장과 담당의사 그리고 로영무와 한기석이 벽쪽에 둘러서있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간호원과 안해에게 부축되여 침대에서 내려서려는 최승진에게 그냥 누워있으라고 손짓하고는 윤희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였다.

《아주머니, 얼마나 마음고생이 크겠습니까!》

윤희는 고개를 숙인채 한손으로 입을 싸쥐고 소리없이 울었다. 어깨가 물결쳤다. 입을 싸쥔 손등에 번들거리는 눈물도, 물결치는 어깨, 물바랜 세타며 낡은 치마, 이마에 흘러내려 나붓기는 칠흑같은 머리칼도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고 애절하게 부르짖는듯했다.

온몸이 애원의 소리로 되여 그이의 가슴에 안겨드는듯했다.

가슴아픈 상실을 수없이 체험하신 **김정일**동지께서도 문득 눈빛이 흐려져 아무 말씀을 못하시였다.

몇순간이 지나 물기가 반짝이던 그이의 눈에 웃음기가 어리였다.

《아주머니… 아주머니,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주인이 저렇게 펀펀해서 앉아있지 않습니까. 기운을 냅시다. 우리모두 기운을 냅시다. 병앞에 의지가 꺾이면 그때는 정말 야단입니다.》

윤희는 무슨 기적이 일었는지 그이가 오셨다는 소리에 침대에서 벌떡 일어난 남편을 놀랍게 여겨보다가 자기도 이래서는 안되겠다고 마음을 다잡으며 눈물도 닦고 옷매무시도 바로잡아놓고는 고개를 들었다.

《아주머니, 나는 승진동무가 보고싶어 왔습니다. 마주앉아 이야기나 나누자고 왔습니다.》

그이의 인정깊고 여유작작하신 말씀은 신선한 해빛처럼 방안공기를 밝게 해주는듯싶었다.

윤희는 비로소 자기가 이방에서도 주부라는 자각이 들었고 그이께서 이전에 집으로 찾아오셨던 때처럼 한없는 기쁨과 수집음에 휩싸여 볼로 흘러내리는것을 손등으로 훔쳐버리며 얼른 원탁쪽으로 가서 걸상을 가져다가 침대곁에 놓아드리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그 걸상에 앉으시더니 밝고 인정깊은 안색으로 윤희를 다시 돌아보시였다.

《승진동무하고 좀 이야기하겠는데 아주머니도 어디 나가지 말고 거기 좀 편안히 앉으십시오. 우리 오래간만에 마주앉게 됐는데…》

로영무가 윤희더러 원탁곁에 와 앉으라고 일렀지만 내우를 몹시 타는 그 녀자는 앉지 못하고 원탁에 붙어서서 그 가녁을 만지작

거리기만 했다.

침대에 앉아있는 최승진이 머리를 떨구며 절통하게 부르짖었다.

《면목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아무런 응대도 없이 그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시였다.

《몹시 상했소. … 식사는 제대로 하오?》

《좀… 약간씩 합니다.》

《소화는 되오?》

《잘 안됩니다.》

《음, … 불편하면 눕소.》

《괜찮습니다.》

《치료를 받으니 좀 차도가 있는것 같소?》

《잘 모르겠습니다. … 제 생각에는 젊어서 술을 많이 마신게 발병의 근본원인인것 같습니다.》

《많이 마셨소?》

《예… 화김에도 마시고 슬퍼도 마시고 세월이 험하다나니 막 살았거든요. 지금에 와서는 정말 후회되는게 많습니다.》

《술… 술이야 나쁘지. 그렇게 망탕 마시면…》

《바쁘신데 이렇게 찾아오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다는 소린 말고 빨리 낫기나 하오. 나는 동무가 앓아누웠다는 소리를 듣고 처음엔 정말 마음이 좋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일을 벌리였습니까. 빨리 털고 일어나야지요.》

《예,소화가 안되는건 열번 백번이라도 더 씹어먹구 기운을 내겠습니다.》

《식사를 그렇게 못한다면서… 기운도 없겠는데 연출대본을 계속 붙잡고있으면 몸에 나쁘지 않겠소?》

환자의 눈에 생기가 반짝이며 미소가 어리였다.

《그 기운은 어디 딴데서 오는것 같습니다. 대본만 붙잡으면 맥이 없는것도 아픈것도 모르겠습니다.》

《대본이 여기 있습니까?》

《예… 예… 있습니다. …가만…》

최승진은 활기에 넘쳐 두리번거렸다.

윤희가 상두대에 얼른 가서 연출대본초고와 필사원고를 들고와 남편에게 넘겨주었다.

최승진이 상기된 얼굴로 드리는 원고들을 받아드신 **김정일**동지께서는 필사원고는 침대에 내려놓고 초고만 보시였다.

방안에 정숙이 깃들었다.

초고를 한장 또 한장 번져가시는 그이의 얼굴로 기쁨과 놀라움 그리고 슬픔과 의혹의 착잡한 빛이 스쳐지나갔다. 번져가시는 초고의 그 한장한장에는 필자의 피타는 탐구와 모대김의 흔적들이 처절하게 드러나있으며 사색에서 사색에로 이어진 낮과 밤이 압축되여있는듯했다.

자신을 타매하고 부정하듯 가차없이 지워버리고 새까맣게 다시 써넣은 자리, 환상의 폭풍속에서 번개친 상들의 보충인가 휘갈긴 삽입부호안에 병사들처럼 렬을 지어 빼곡이 밀려든 글자들, 써넣다가 지우고 그랬다가 다시 써넣으며 거듭거듭 고쳐진 감정조직과 촬영각도, 새 형상의도에 따라 원경에서 중경에로, 중경에서 전경으로 고쳐진 풍경화면들과 근사에서 중사로, 중사에서 특대사로 고쳐진 인물화면들… 원고의 여백들에 써넣은 주의사항들, 《반드시, 반드시 조건촬영으로!》 《연화— 약탕관의 김, 질감이 나게!》 《새소리— 반드시 아침새소리로, 저녁새소리는 안된다.》…

참을수 없는 동통에 모지름을 쓰면서도 필자가 머리속에 그려본 단편적인 표상들이 옮겨진듯 여백과 뒤면들에 더듬더듬 그려진 눈물겨운 풍경소묘와 인물소묘들… 효과음과 음악란을 따라 내려오며 모르스무선기호처럼 점선으로 혹은 짧은 직선, 긴 직선으로 혹은 물결무늬의 라선으로 그어진 음향기호들… 어느덧 그이의 눈앞에는 꽃분이의 동네며 지주집이 떠오르고 어머니의 구슬픈 망질소리, 지주의 호령소리가 들려오는가 하면 눈먼 순희가 얼굴을 싸쥐고 딩구는 참경이 생생하게 그려졌다.

그것은 예술가가 얼마 남지 않았는지도 모를 생명을 연소시켜 창조해놓은 형상의 세계, 눈물겨운 인생극의 화폭이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그 형상세계의 다색다채로운 장면들과 예리

한 세부들에서 최승진의 인간됨을 느끼시였다.
그의 숨결, 그의 미감, 그의 리상, 그의 기호를 느끼시였으며 당을 따라 고동치는 그의 심장의 힘찬 박동소리를 들으시였다.
그것은 순결한 충정의 힘찬 분출이며 그의 생명력의 줄기찬 연장이였다.
방안에 흐르는 침묵속에서 이따금 종이장이 번져지는 소리가 공기를 조용히 흔들뿐이였다.
최승진은 죄지은 사람처럼 머리를 깊이 숙인채 앉아있다가 그이가 원고에서 눈길을 들어 자기를 보시는것 같아 얼굴을 들었다.
《다 되면 내가 꼭 읽어보겠습니다. 인정선에 형상의 각광을 비친것이… 강하게 비친것이 아주 좋습니다. 두드러졌습니다.》
《…》
《야외촬영은 어디 가서 하겠습니까?》
《회성지방이 어떨가 하고 생각해봤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엇이 움츠러든듯 자신없이 울리는 목소리였다.
《회성… 그 지방이 좋지요.》
《그런데…저… 다른 연출가가 맡았으면 이제는 촬영을 시작했겠는데… 저때문에… 이런 꼴에 그냥 작품을 끼고있기가 정말 괴롭습니다. 누구한테나 넘겨줬으면…》
구석쪽에서 한기석의 안타까운 목소리가 울렸다.
《연출가동지, 야― 무슨 그런 소릴 합니까. 누가 뭐라고 한것처럼…》
김정일동지께서 의아한 눈길로 소리가 울린쪽을 돌아보시고는 최승진에게 따뜻하게 이르시였다.
《맥을 놓으면 병치료도 안됩니다.》
그러시고는 벽쪽에 둘러선 일군들을 돌아보며 호탕하게 말씀하시였다.
《동무들, 병이라는것이 과연 무섭긴 무섭습니다. 대연출가가 병에 눌려 아주 약골이 됐습니다. 약골이…》
《아닙니다. … 너무 량심이 없는것 같아서…》
《량심이라구요? 하던 작품을 남한테 넘겨주고 주저앉는게

량심입니까, 끝까지 말아 완성하는게 량심적입니까?》
최승진의 얼굴에 대뜸 혈조가 피여나고 크게 뜬 두눈에 생기가 타올랐다.
《제가 할수 있겠는지…》
《할수 있소! 나는 믿소!》
최승진은 고개를 숙이였다.
《연출대본이 다 되면 꼭 나한테 보내주십시오. 승진동무가 직접 가지고 찾아오면 더 좋구… 만사를 제쳐놓고 읽겠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더 고무해주고 힘을 주고싶었지만 적중한 말이 떠오르지 않으시였다.
순간에 생명을 부활시키는 그런 명약이 없듯이 그런 말은 없는듯하였다.
그이께서는 의사처럼 최승진의 손맥도 짚어보고 이마도 다심하게 쓸어만져보시고는 손수 그를 자리에 눕혀주신 다음 한시간남짓 더 앉아계시면서 국내국제정세며 새로 나온 영화들에 대한 소감도 말씀해주시였다.
그러시고는 웃음어린 안색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시였다.
눈물에 젖어 거듭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윤희를 부드럽게 떠밀어 들여보내고 복도로 나오신 그이께서는 어느 누구도 돌아보시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말씀을 건네시지 않았다.
그이께서는 분격한 얼굴로 복도를 따라 곧바로 걸어나가시였다. 그이의 활달한 발걸음과 활개에서도 분격이 느껴졌다. 복도로 열풍이 휘몰아쳐가는듯했다.
원장과 기술부원장이 위생복자락을 날리며 황황히 그이의 뒤를 따랐다.
현관앞 층계를 내리다가 그이께서는 걸음을 멈추며 따라나온 원장과 기술부원장을 돌아보시였다. 그들은 몹시 당황해진 얼굴들이였다.
《저런 사람을 두고 며칠안에 숨진다구요?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의학과학의 타산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런 사람은 죽을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얼마나 강한 생명력입니까. 리성뿐아니라 감

각까지,미감까지 생생합니다. 이전보다 더 생생한것 같습니다. 여기 기술집단이 제일 유능하다고 해서 이 병원에 보냈는데 자신이 없으면 다른 병원에 옮기겠습니다.》

죄책감에 얼굴빛이 꺼진 원장이 두손을 앞에 마주잡고 말씀드렸다.

《그러지 말아주십시오. 저희들이 최선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살려내야 합니다. 어떻게나… 어떻게나… 나라의 인재입니다.》

원장이 무엇이라고 계속 말하는것 같았으나 그이께서는 흥분때문에 그 말뜻을 알아들으실수 없었다.

승용차가 그이앞으로 미끄러져왔다. 누구인가 침울한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따라오는듯했다.

《작품은 아무래도… 누구한테나 넘겨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 계절이 다 지나갑니다. 별수 없지 않겠습니까…》

《안되오. 작품을 빼앗아내면 심장이… 멎고마오. 계절이 문제인가. 영화야 래년에도 후년에도 찍을수 있지만 생명은 계절에 따라 가버렸다가도 다시 찾아드는 철새가 아니요.》

심각한 얼굴로 뒤따라내려오던 일군들이 인사를 드리려고 주춤주춤 멎어섰다.

《안되오!》

차문을 닫는 소리가 병원뜨락에 울렸다.

×

윤희가 그이를 바래고 호실로 들어왔을 때 최승진은 우들우들 떨며 침대에서 내려서려고 했다.

방안에는 따뜻한 화기가 그대로 남아 소용돌이치는듯했다.

윤희는 달려가서 남편을 붙잡았다.

《아니 왜 이러세요?》

《우리 창문에서 큰길이 내다보이지? 내가 무슨 정신에… 나가실 때 인사말도 드리지 못한것 같소.》

윤희도 남편이 그이께 인사말을 드렸던지 어쨌던지 생각나지 않았다.

최승진은 안해의 어깨를 붙잡고 방바닥에 내려서서 구겨진 환자복의 앞섶을 모아쥐고 후들후들 떨며 창문쪽을 내다보았다.

그이께서 일군들을 돌아보며 호탕하게 하시던 말씀이 가슴에 메아리쳐왔다.

《대연출가가 병에 눌려 아주 약골이 됐소. 약골이…》

그는 안해의 어깨에 팔을 걸며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떠나시는걸 봐야겠소. 한번만 더 보게 해주오.》

그는 안해에게 부축되여 창문쪽으로 허둥지둥 걸어나갔다.

병원울타리 저쪽 골목길을 따라 달려나온 승용차는 큰길에 들어서고있었다.

승용차는 방향을 꺾어 가로등불빛에 차체를 번쩍거리며 본평양쪽을 향해 달려갔다.

차뒤꽁무니의 빨간 신호등불들이 깜빡거렸다.

창턱을 짚고 그 차를 바라보던 최승진은 그만 눈앞이 탁 흐려졌다.

그는 터져오르는 오열을 가까스로 삼키였다.

창문유리에 굵은 비방울같은것이 후두둑 휘뿌려졌다.…

창문가에서 돌아선 최승진은 원탁곁에 로영무가 그냥 서있는것을 띄여보았다. 안해에게 부축되여 침대로 돌아온 그는 고개를 떨구고 앉아있더니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안해더러 온실에 가서 화분이라도 하나 갖다가 창턱에 놓았으면 좋겠다고 일렀다.

윤희는 남편의 그 심정이 리해되면서도 유난스러운 청에 미심쩍은데도 있어 의아한 얼굴로 그를 지켜보다가 재차 이르자 방에서 조용히 나갔다.

로영무는 그가 자기에게 무엇인가 요긴하게 할 이야기가 있다는것을 직감하고 침대로 다가와 열감이 나는 벗의 손을 잡아쥐였다.

《여보게…》

최승진은 온 정신력을 가다듬는듯 꼿꼿이 앉으며 눈을 크게 떴다.

《나는 정말 오래오래 살아야 되겠소. 오래오래… 이번 작품을

잘 만들어 내가 변한 모습을 그이께 보여드리고 좋은 영화를 계속 만들어 당의 위업에 보탬을 주고싶소. 이웃들한테… 동무들한테 진 빚도 푼푼히 갚고 사회에 유익한 일도 많이 하고싶소! 도와주오. 촬영준비를 빈틈없이 해주오. 나가면 인차 찍을수 있게… 아까 저 사람이 은주를 부르겠다고 했는데 그러지 못하게 일러주오. 나도 단속하겠지만… 못견디게 만나고싶지만 지금 내가 다른데 정신을 판다는건 죄악이요! 죄악이요! 생명을 깡그리… 깡그리 바쳐서라도 그이 은정에 보답해야 될 내가 아닌가말이요. 그이는 내 스승이고 은인이요!》

크게 뜬 그의 눈에 눈물이 가득 차넘치며 사품치고 동자의 검은빛이 그속에 번지여 어른거리면서 후더운 화기를 풍기였다.

《로동무, 은주는 이 영화나 다 만들어놓고 천천히 만나도 되오.》

《여보게!》 로영무는 그의 무릎을 잡아쥐였다.

《용서하게. 내가 일찌기 말해줬더라면… 회성에 현지정찰갔을 때라도 만나지 않았겠나. 거기서 지척이겠는데… 큰 죄를 졌네.》

《아니요. 나를 구원해줬소. 나는 사실 그전 작품이 실패한 다음 로형을 맘속으로 좀 멀리 했댔소. 용서하오.》

《여보게!》

《로동무!》

두 예술가는 와락 붙안고 잔등을 떨었다.

간호원실쪽에서 말소리가 들려왔다.

로영무는 한평생의 벗을 안아 침대에 눕혀놓고 눈물을 닦으며 황황히 일어났다.

5

이튿날부터 입원실에서 하나의 전투를 련상시키는 생활이 벌어졌다.

호실옆 간호원실에 과장이 옮겨와서 매 시간 환자의 병세를 관

찰하였고 기술부원장은 무시로, 원장은 하루 두번씩 찾아와서 환자상태를 직접 보고 간호원과 담당의사, 과장의 보고를 듣고갔다.

보건부의 깊숙한 창고에서 특별히 꺼내온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강력한 효능의 약들이 치료에 아낌없이 투입되였다.

낮에 밤을 이어 강력한 주사약들이 환자의 정맥으로 흘러들어갔다.

수도의 권위있는 의료진이 원장실에 모여 협의를 거듭하고는 밤중에 호실로 우르르 밀려들어와 환자상태를 직접 료해하고 갔는데 그들의 눈치나 담당의사와 간호원이 라틴어의 학명을 써가며 수군거리는것으로 미루어보아 대담한 수술이 계획되거나 그 어떤 비상한 대책이 강구되고있는것 같았다.

어느날 간호원실에 전화기가 놓여졌는데 웬일인지 의료성원들은 그 전화를 자주 쓰지 않았다.

이른아침이나 깊은 밤중, 혹은 새벽에 담당의사나 간호원이 호실로 들어와 윤희에게 전화가 왔다고 조용히 알려주었다.

달려나가 송수화기를 들면 언제나 박경섭의 목소리가 울리였다.

그는 병세며 치료정형, 환자의 기분상태 등에 대하여 문군하였다.

윤희는 **김정일**동지의 배려로 이렇게 전화기가 놓여지고 그이께 보고드리기 위해 박경섭이 자주 전화를 걸어온다는것을 알았을 때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삼키였다.

최승진의 얼굴에서는 번민과 고통, 좌절감의 그늘이 한결 가셔졌다.

그는 열정의 도가니로 되여버린듯 머리우에 유리병이 드리우고 주사약이 정맥속으로 흘러들 때에도 사색을 계속했으며 동통만 멎으면 연출대본에 달라붙었다.

엎드려서 쓰다가는 인차 괴로와져 앉아서 썼으며 그러다가 피곤해지면 반듯이 누워 대사에 억양을 붙여 조용조용 외워보는가 하면 윤희더러 부르는것을 적어달라고 부탁하였다.

그의 사색은 종횡무진으로 나래치고있었다.

현재 고쳐나가는 장면들의 세부를 다듬는가 하면 이미 지나온 장면들의 촬영각도와 음악의 길이를 짧게 혹은 길게 수정했으며 착

취자 대 피착취자, 인간 대 인간의 갈등이 격화되는 중간부분에서 삽입화면을 빼버리기도 하고 새 삽입화면을 밀어넣기도 했다.

윤희는 받아쓰다가도 놀라서 크게 뜬 눈으로 남편의 얼굴을 지켜보았다.

그의 이마에도 남편의 이마에도 땀이 내배여 번들거렸다.

윤희는 얼결에 수건을 들었다가도 병환의 어둠속에 초불처럼 피여올라 가물거리는 상을 흔들어놓거나 아주 꺼버릴가봐 남편의 이마를 씻어주지 못했다.

최승진은 먼곳에서 아물거리는 파녁을 겨냥하듯 실눈을 짓고 헛소리처럼 중얼거렸다.

《그런 웃음이 아니야, 웃음이 너무 밝다. 허거프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쓸쓸한… 스러져가는 저녁노을처럼 따스하고 연한 색갈이면서도 저녁어스름처럼 어두운 색갈이 스민… 그런 웃음… 그런 웃음이 되게… 길이는 5초정도…》

《여기서는 울음이 너무 짧아, 짧아… 너무 직선이다. 더 길게… 11초 아니 12초가량… 그리고 파도쳐나오게… 파도처럼 강약을 되풀이하면서 터져나오게…》

윤희는 놀랐다. 숨을 죽이고 들었다. 웃음에 색이, 그것도 미묘한 중간색이 칠해지고 울음에 음악적인 리듬이 붙여졌으며 그 길이들이 초로 계산되여 재단되는것이였다.

남편은 양복점의 재단사가 천을 자로 재여 잘라서 옷을 마르는것처럼 마음속의 신비한 자막대기로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의 길이를 재서 형상을 말라나가는것이였다.

윤희가 그런 사색의 섬광들을 어떻게 대본에 옮겨놓으면 좋을지 몰라 망설이면 남편은 미소어린 눈으로 음향란결의 여백에 《12초》 혹은 《파도》라고 적어넣으라고 일러주었다.

어느 일요일 오후에는 박경섭이 커다란 지함을 안고 땀을 철철 흘리며 호실에 들어섰다.

지함에는 주먹보다 더 큰 사과가 가득 들어있었다.

박경섭이 흥분에 벌겋게 상기된 얼굴로 **김정일**동지께서 친히 사과를 하나하나 골라 지함에 넣어주시며 이 사과를 먹고 기운을

내라고, 빨리 병을 고치라고 하셨다는 말씀을 전달하였다.
방안에 사과향기가 진동하였다.
그 한 지함의 사과는 실과들이 무르익은 과원의 싱그러운 정취뿐아니라 조국자연의 가을정서를 방안에 가득 터쳐놓았다.
박경섭은 간호원이 뛰여가서 가져온 과일칼로 제일 크고 탐스러운 사과를 깎아서 최승진에게 내밀었다.
최승진은 흐려진 눈을 슴벅거리며 그것을 받아쥐더니 고맙다는 말을 하는것도 잊고 욕심스럽게, 정신없이 와작와작 씹어먹었다.
윤희는 반들반들 윤기흐르는 빨간 사과 한알을 두손으로 싸쥐여 가슴우에 붙이고는 고개를 떨어뜨린채 까딱 움직이지 않았다. 어깨도 물결치지 않았다.
볼을 따라 소리없이 흘러내린 눈물이 방울방울 떨어져 손등을 적시고 사과에 이슬처럼 맺히였다.
윤희는 남편이 그렇게 욕심스럽게 사과를 먹는것을 보고 자기가 기다려온 기적이 이제야 왔다고 생각했던것이다.
자기가 절망에 쓰러지지도 까무라치지도 않고 갈망해온 바로 그 기적이 찾아왔다고 믿었다.
(어떤 맛나는 음식도 몇숟가락 들지 못하던 저이가… 쩍하면 역하다고 토하던 저이가 아니 저렇게 욕심스럽게… 먹을수 있다니, 이건 기적이야… 분명히 기적이 일어났어!)
알알의 사과들에 그 기적의 마술적인 힘이 깃들어있는듯했다.
그것을 하나라도 놓치고싶지 않았다.
그래서 사과를 그토록 꼭 싸쥐고 바위돌처럼 굳어져있는것이였다.
박경섭이 돌아간다음부터 더욱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환자는 혼자 걸어서 위생실에 갔다왔으며 면도를 해야 되겠다고 면도칼과 면도크림을 찾았다.
그래서 병원리발사를 데려와서 리발을 해주고 면도를 깨끗이 해주었다.
그는 간호원한테서 손거울을 빌려 얼굴을 비쳐보며 희멀쑥해진 턱도 쓸어만지고 볼편도 쥐여비틀어보았다.

그러다가 앞머리에 섞여있는 흰머리칼에 마음을 써 그것을 이마앞으로 길게 끌어당겨 치떠보기도 하고 익살스럽게 눈을 끔적거리며 몇오리 뽑아도 버렸다.

그다음 흐뭇한 얼굴로 다시 거울을 들여다보며 무슨 시구절같은것을 읊조리였다.

서러워말지어다 백발을
슬퍼말지어다 눈가의 주름살을
악행과 허위에
한생을 탕진하지 않았을진대
그것은 추한것이 아니여라
그것은 긍지높은것！

그는 침대에 벌렁 드러누워 회파람까지 불어보더니 껄껄 웃어대였다.

윤희는 그의 곁에 눕고싶었다. 그의 백발이며 눈가의 주름살들을 매출한 손끝으로 하나하나 쓸어만져주고싶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였다. 너무나 놀라와서였다.

처음에는 그저 침대에 걸터앉아 구슬픈 미소가 어린듯한 눈길로, 다음에는 어리광스럽게 흘겨보는듯하면서도 단꿈이 서린 눈매로 남편을 지켜보는것이였다.

침대가에 던져진 남편의 손에 쥐여있는 거울이 해빛을 반사하여 그 녀자의 턱밑에서 동그란 해빛그림자가 한들거리며 장난질쳤다.

최승진은 그날저녁부터 생기에 넘쳐 연출대본을 완성해나갔다.

그는 원탁과 보온병을 꽃분이네 마을앞에 서있는 구새먹은 고목으로, 마루바닥을 지주집뜨락으로, 출입문을 지주집대문으로, 전등을 초생달로 상상하여 화면구도를 잡아보았으며 윤희더러 꽃분이가 되여 혹은 꽃분이 어머니가 되여 《지주집뜨락》에 들어서보라고 부탁하였다.

윤희는 남편의 시선이 아니라 조명기의 각광속에 든듯 마음이

긴장되여 그가 시키는대로 하였다.

온 방안이 형상창조의 세계에 끌려들어갔다.

그런데 이튿날 그의 병세가 갑자기 악화되였다.

환자는 복통을 참느라고 배를 안고 침대에서 뒤채기며 이를 갈았고 헛소리까지 쳤다.

배가 부풀어오르고 얼굴이며 손등까지 부어올랐다. 의사들은 당황한 얼굴로 드나들며 주사를 놓고 약을 먹이고 여러가지 긴급대책을 취하였다.

그들은 림종의 시각이 닥쳐왔다고 생각하는것 같았다.

그러나 3일후 환자의 병세는 다시 호전되는듯했으며 부어오른것도 좀 내렸다.

최승진은 제정신으로 돌아오자 다시 연출대본을 쥐여들었다.

윤희는 비로소 가슴이 후둑후둑 뛰는것을 느끼며 안도의 한숨을 조용히 내쉬였다.

남편은 어느날밤 대본을 읽어보다가 자신의 형상의도들에 스스로 만족하였는지 두손을 놀려 그림을 그려보이고 대사까지 외우면서 몇개 장면을 이야기해주었다.

그것은 꽃분이가 장거리에 나가 꽃을 파는 장면, 꽃을 판 돈으로 약을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 앓아누운 어머니에게 초약을 달여 대접하는 장면, 마을사람들이 꽃분이의 효성에 감동되여 혀를 차며 찬탄의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들이였다.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며 이야기를 듣고있는 윤희의 눈앞에 눈물겨운 인정세계가 생동한 화폭으로 펼쳐지고 모녀사이에 오가는 정이며 마을사람들의 따뜻한 동정심이 밀물처럼 가슴에 흘러들어 사품치였다.

윤희는 커다란 감동에 휩싸여 눈을 반짝이였다.

《이대로 촬영되겠지요？》

《그렇소.》

《영화화면에 이야기한게 다 나타날가요？》

《그렇지 않구…그래 어떻소. 영화가 보이긴 보이오？》

《보여요, 보여요！》

《당신 수고가 컸어…》

《아이, 제가 뭐…》

연출가의 사색을 도운 보온병이며 마루바닥이며 출입문까지도 미소를 머금고 듣고있는것만 같았다.

《이제 영화가 다 돼서 세상에 돌아갈 때 우리 같이 영화관에 가자구.》

《정말 그랬으면…》

《아, 좀 피곤하구만…》

윤희는 남편의 어깨를 안아 자리에 눕혀주었다.

그는 이름할수 없는 기쁨에 가슴이 마냥 부풀어올라 밝은 얼굴로 침대발치에 앉아있었다.

(내 작은 노력도 들어갔기때문에 이렇게 기쁠가? 이런 기쁨은 난생 처음이야. 정말 처음이야…)

그는 어릴적부터 수천수만가지 기쁨을 맛보며 자라난것 같은데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인상적으로 남아있는것이란 별로 없는듯하였다.

구태여 뒤적거려보면 아주 어릴적에는 맛나는 알사탕을 입에 물고 녹여보는것이 무등 기뻤다.

깜찍스러운 꼬마코신을 신고 뛰여다니는것도 기뻤다.

학교에 다니면서는 좋은 연필, 색갈고운 크레용, 종이향기 풍기는 새 공책을 쓰는것도 기뻤다.

처녀시절에는 품위있으면서도 화려하게 옷차림을 하고 거리를 걷는것도 기뻤다.

값진 화장품을 쓰는것도 기뻤다.

총각들이 반하여 따라다니는것도 싫지 않았다.

서정적인 음악을 듣는것도, 흥겨운 예술공연을 보는것도 기뻤다.

설명절에 동무들의 집에 초대되여 먹고 떠들고 노래부르는것도 기뻤다.

나이를 더 먹어 할일이 많아지자 그런 기쁨들은 어느덧 점점 줄어들고 의무라고 하는 짐이 어깨를 무겁게 내리눌렀다.

그리고 아득히 사라져간 그러한 기쁨들은 한갖 추억으로만 남

아 세월과 더불어 퇴색하여지다가 이따금 고달픈 가슴에 쓰릿한 향수를 불러일으키군하는것이였다.

남편이 잠들자 윤희는 탁상등을 끄고 창가로 가 대도시의 불빛바다를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문득 생각하였다.

(그것들은 다 창조의 기쁨은 아니였어. 소비의 기쁨이야. 소비하는 기쁨… 그런건 아무리 큰것일지라도 하루살이 운명처럼 속절없이 잊혀지는가보지…오늘밤 기쁨이 이처럼 가슴을 흔드는건 그런것들과는 다른… 전혀 다른 예술창조의 기쁨이기때문이야. 이런 기쁨을 한평생 맛보며 살아온 사람은 좋은옷을 입고다니는 기쁨따위는 정말 하찮게 여기겠어. 아주 하찮게…)

그는 비로소 남편이 병마의 위협속에서 연출대본을 안고 씨름하면서도 그것을 전혀 고생으로 여기지 않은 원인을 눈물을 머금고 깨달을수 있었다.

그리고 로영무와 남편을 비롯한 재능있는 예술가들이 그 어떤 특전도 아닌 보통사람들의 생활적향락이나 가정적의무마저도 소홀히 하며 창작에 몰두하면서도 그것을 인간적불행이 아니라 직업상의 숙명으로 흔연히 받아들여 자연스럽게 여기는 까닭이 리해되였다.

또한 언제인가 남편에게서 들은 최서해나 조명희, 더 올라가서 김립과 같은 과거의 예술가들이 가난과 무권리때문에 기가 꺾이지 않았으며 청빈을 오히려 자랑으로 여겼던 까닭이 아리숭하게 리해되였다.

남편은 어느 옛시인의 도고한 기상에 대하여도 즐겨 이야기하였다.

그 시인은 감사가 되라는 말을 듣고는 조정에서 나오자바람으로 한강에 달려가 그런 소리를 들은 귀를 강물로 씻어낸 괴짜인데 한평생 봉건의 벼슬자리를 멀리하여 백성들의 심정을 시가의 운률에 담아 노래하는데서 생의 락을 찾았다고 했다.

그것은 무엇에 비겨도 짝지지 않고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예술창조의 기쁨때문이였다.

창조의 기쁨, 창조의 행복, 창조자의 자부심때문이였다.

그것은 세태생활의 빈공간이나 물질적가난을 메꾸고도 남음이 있는 크나큰 행복이였다.

그는 이 순간 자기가 남편에게 이끌려 아득한 소녀시절부터 공상했던 참된 행복의 대문안에 들어선듯한 아름찬 감격에 가슴이 한껏 부풀어올랐다.

남편이 그지없이 고마왔다.

자기는 예술가 최승진의 안해이고 예술가 최승진은 자기 남편이였다.

윤희는 그 자랑에 도취되여 그지없이 부드러운 눈매로 침대의 남편을 돌아보았다.

창가림짬으로 흘러드는 먼 외등의 희붐한 빛에 남편의 얼굴이 희미하게 드러나보였다.

(저이는 나한테 크나큰 행복을 안겨주었는데 나는 저이한테…)

문득 정은주의 사연이 떠오르며 가슴을 아프게 저미였다. 어째 그 사연을 자기한테 말해주지 않았을가. 로선생은 또 어째 말해주기를 그처럼 주저했을가. 로선생은 남이니까 그렇다치고 남편은 어째서… 자기와 남편사이에 거리가 있은것 같았다. 남편은 어린 처의 마음에 그늘을 던질가봐 그랬을수 있다. 더 나쁘게는 철없는 녀자가 얄궂은 감정을 드러내고 헛신경을 쓸가봐 그랬을수도 있다.

(나라는 녀자는… 그이 마음속에 어떻게 비쳐있었을가…)

윤희는 병상에 누운 남편을 탓하고싶지 않았을뿐아니라 모든것이 자기탓인것만 같았다. 그는 결혼후 자기 생활을 황황히 더듬어보았다. 자기는 남편한테서 사랑만 받으려고 했으며 응석만 부리며 살아온것 같았다. 남편의 의지로, 벗으로, 믿음직한 동지로 되지 못하고 그저 젊고 귀여운 안해로만 지내온것 같았다.

윤희는 두손으로 귀밑을 싸쥐며 몸부림치다가 침대로 달려갔다.

남편의 얼굴에는 큰일을 치르고난 뒤의 가슴뻐근한 만족감과 함께 끝없는 안도의 빛이 어려있는듯했다.

그는 쓰러지듯이 침대곁에 꿇어앉아 남편의 손을 꼭 잡아쥐였다.

《여보, 용서해요. 당신이 안심하고 마음을 의지할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어요…》

그는 남편의 손이 전에없이 꽛꽛하고 싸늘하게 식어든듯한 느낌에 소스라쳐 놀랐다.

《여보… 여보!》 남편의 팔이며 어깨를 흔들었다.

남편은 눈을 가느스름히 뜨고 입술을 이그러뜨리며 서늘한 입김을 내불었다.

윤희는 눈앞이 캄캄해지고 온 누리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며 돌아가는것 같았다. 그는 문설주에 어깨를 부딪치며 간호원실로 뛰여나갔다. 간호원도 담당의사도 없었다.

모두 마음놓고 어디엔가 가서 쉬는것 같았다.

6

방에 들어선 박경섭은 의기소침한 얼굴이였다.

김정일동지께서 보시던 문건을 내려놓고 의아한 안색으로 그를 여겨보시였다.

《…최승진동무가… 사망했습니다.》

《뭐요?》

《새벽5시에… 숨이 졌습니다.》

그이께서는 순간에 안색이 흐려져 아무 말씀도 없이 의자에 무겁게 주저앉으시였다.

《어제까지만 해도 상태가 괜찮다고 하지 않았소?》

《갑자기 그렇게 됐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주먹으로 책상을 소리나게 내리치시였다. 방안공기가 전률하였다.

《그럴수 없소! 그렇게도 갑자기 간단말인가!》

《간호원 말이 림종의 순간에… 곁에 아무도 없었답니다.》

《?…》

《림종전에 상태가 좋아 담당의사와 간호원은 침실에 가서 쉬

구… 아주머니는 갑자기 이상이 생기자 그들을 찾으러 뛰여가구… 그래서 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달려와서 보니 침대에서 굴러떨어져있었답니다. 방바닥에 원고들이 흩어져있었다는데 아마… 마지막 순간에 연출대본을 걷어안은것 같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림종직전의 그의 심정이 가슴에 안겨들어 한손으로 눈을 싸쥐시였다.

방안에 정적이 흘렀다.

이윽고 손을 내린 그이의 눈에 눈물이 곪고있었다.

《어떤 예술가를 잃었는가. 나라의 보배를… 인재를… 인재를 잃었소!》

그이께서 터치시는 비분에 박경섭은 참고참아온 오열이 터져올라 흑 느끼며 고개를 떨구었다.

그의 발치에 눈물이 후두둑 뿌려졌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두손으로 책상을 짚고 일어나 창문쪽으로 얼굴을 돌리시였다.

그이의 몸부림에 책상이며 걸상이 소리없이 떨었다.

《아주머니는… 거기 있는가?》

《예…》

《아이는… 아이는 어디 있소?》

《로영무동무네가 맡아보다가 아주머니 고향에서 어머니가 왔다니까…》

《오늘이 며칠이요?》

《14일입니다.》

《아…》

그이께서는 순간에 석쉼하게 쉬여버린 음성으로 이르시였다.

《장례를 잘 지내줘야겠소. 그의 친척들과 친지들을 다 부르오. 시내의 예술단체들에서 많은 예술인들이 와서 그의 령전에 조의를 표하도록 하오. 평양신문에 부고도 내여 인민들에게 알리오… 가만, 같이…같이 갑시다. 얼굴을…그의 얼굴을 봐야겠소.》

김정일동지께서는 박경섭을 데리고 출입문께까지 걸어오시였는데 전화종이 다급히 울리였다.

길게 한번, 짧게 두번 울린 그 종소리는 집무실의 공기를 뒤흔들며 그이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집무탁으로 돌아가 송수화기를 무겁게 드시였다.

수화구에서 누군가의 기여들어가는듯한 목소리가 울리였다.

《…배명준이 말씀드립니다. 우리 지하철도건설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하수가 터져나와 도갱이 물에 잠기고있습니다.》

《뭐요?》

그이께서는 책상가녁을 짚으며 격한 음성으로 물으시였다.

《어느 구간이요?》

《16호구간입니다.》

《수압이 어느 정도요?》

《분출구를 막자다가 모두 뿌리워났습니다. 접근할수 없습니다!》

《큰물주머니가 터졌소?》

《예, 그런것 같습니다. 발파의 진동에 그렇게 됐습니다. 물주머니를 건드렸습니다. 도갱을 폭파해서 허물어뜨리지 않으면 물을 막을수 없습니다. 결론을 주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몇시간안에 주민지대가 위험합니다.》

《폭파하는 문제는 좀 기다리오. 강세룡동무는 어디 있소?》

《감기가 와서 진료소에 갔는데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상한 동무들은 없소?》

《아직… 모르겠습니다. 막장에 있던 동무들은 철수하는중인데 분출구에 접근했던 동무들이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저한테… 저한테 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으흑…》

그는 울음을 터뜨리는것 같았다.

《책임이 문제인가, 빨리 부위원장을 찾으시오!》

김정일동지께서는 너무 아연해져 더 말씀을 잇지 못하시였다.

설계때부터 지하의 물주머니들에 날카롭게 신경을 써 거듭 주의를 주었고 몹시 경계해온 문제가 터진것이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생겼는가?…암벽에서 터져나오는 지하수의 불가항력적인 분출이며 도갱을 따라 퍼지는 시꺼먼 밀물의 파도

가 보이는것 같고 그 서늘한 기운이 집무실바닥에까지 휩쓸어드는듯하였다.

그이께서는 송수화기를 내리며 망연자실한 얼굴로 허공을 바라보시였다.

불행이란 이렇게 한꺼번에 들이닥치는것인가. …

송수화기에서 애타게 부르짖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여보시오, 여보시오, 교환… 교환수… 왜 끊었는가? 사람들이 죽어간단말이요!》

《안끊었습니다. …》

천천히 송수화기를 드시는 그이의 눈에 물기와 함께 강렬한 의지의 빛이 번쩍이였다.

《말하오. 나요. 다 말하시오. 왜 말을 못합니까. …우선 행방불명이 된 동무들을 찾으시오!》

박경섭은 캄캄하게 질린 얼굴로 그이를 지켜보았다.

지금 어떤 재앙이 터졌고 그이의 가슴에 어떤 시름이 실렸는가를 생각할 때 그 중하에 어깨를 들이밀고싶은 심정이 불같았다. 그러나 어찌할바를 몰랐고 그렇다고 돌아서 나오자니 그것도 죄송스러워 그냥 못박힌듯 서있었다.

《경섭동무, 먼저 가보오. 내 꼭 나가겠소. 내가 나갈 때까지 기다려주오. 입관하지 마오. …》

박경섭이 나간 다음 그이께서는 심각한 안색으로 움직임없이 서계시였다.

지하철도는 나라의 큰 건설대상들중에서도 수령님께서 제일 관심이 깊으신 부문이고 또 사고의 엄중성으로 보아 보고드리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드시였던것이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전용전화기앞으로 다가서시였다.

그러나 별안간 팔에 마비가 온듯 손이 나가지 않았다.

수령님께서 몹시 놀라시고 걱정하실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못견디게 저려드시였다.

그리고 수령님께서 위험한 사고현장으로 나오시면 어찌랴싶은 우려가 엄습해들었다.

보고안드릴수도 없고 보고드리자니 눈앞이 캄캄해지시였다. 수령님께 기쁜일만 보고드리고싶은 그이이시였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생겼는가? 지하철도건설장의 일군들이 아니라 자신의 불찰로 사고가 생긴것 같으면서 각가지 뉘우침이 가슴을 아프게 저미였다.

(내가 더 자주 나가보았더라면…어제나 그제만 나가보았더라도 사고요소를 미리 발견할수 있지 않았을가.…)

식은땀이 내밴 그이의 얼굴에 알릴듯말듯 경련이 지나갔다.

그이께서는 송수화기를 으스러지게 잡았으나 얼른 들어올리지 못하시였다. 그것이 천근 무게로 느껴지시여…

×

승용차가 골목길의 굽인돌이를 꺾어돌 때마다 길가의 가로수며 전주들이 앞으로 날아들어 차체를 들부실것만 같았다.

앞좌석에 앉아있는 강세룡은 그때마다 머리며 어깨를 차체에 찧었으나 운전사한테 속도를 늦추라는 말을 안했다.

미간을 사납게 찌프리고 앞만 쏘아보는 그의 눈앞에 지하수의 분출구며 도갱을 따라 달려나오는 시꺼먼 밀물의 파도가 어른거리였다.

그는 지하수와의 싸움을 한두번만 겪어본것이 아니여서 그 몸서리치는 파괴력이며 그것이 들씌우는 재난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잘 알고있었다.

우선 분출구의 크기와 수압,물량을 알아야 했다. 그것들을 알아야 적절한 물막이대책을 신속히 세우고 확신성있게 그 전투를 조직할수 있었다.

만약 엄청나게 큰 물주머니가 터졌다면 수년동안의 공사가 허사로 돌아가고말것이다.

배명준부국장이 도갱을 폭파하자고 제기한것을 보면 절망적인 사태가 벌어진것이 틀림없다.

문득 가슴속에 차거운 의혹의 바람이 회오리쳤다. 굴진방향에

알지 못한 물주머니가 숨어있은것이 아닌가. 누가 그것을 건드렸는가.

지하수에 대해서는 귀에 못이 배기도록 강조해왔는데 암벽에 물기가 심하게 나타나면 발파를 중지하고 탐사해봐야 하지 않는가.

바로 어제도 그것을 강조하였다. …

그에게는 누구인가가 자기 지시를 소홀히 하였거나 고의적으로 어겼기때문에 이런 사태가 빚어진것처럼 느껴졌다.

분격이 터져올라 눈앞에서 번개같은것이 번뜩거렸다. 자동차가 굽인돌이를 꺾어들자 다른 생각이 엄습해들었다.

설계대로 굴진하지 않은게 아닌가.… 굴진방향이 정확한가 설계하고 자주 대조해보라고 했는데 망탕 파들어간것이 아닌가.…

강세룡은 건설지휘체계의 어느 단위엔가 지시를 어기고 설계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으며 그들에 의하여 이런 사태가 빚어졌다고 생각했다.

차는 먼지구름을 일으키며 버력산결에 박히듯이 멎어섰다.

갱구앞은 갱안에서 뛰여나오고 뛰여들어가는 군인건설자들과 여기저기에 쓰러져있는 부상자들,물참봉이 된 부상자들을 업고 끼고 위생차로 달려가는 의무성원들로 붐비였다.

강세룡은 갱구옆의 지휘부천막으로 뛰여들어갔다.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는 천막에서 나와 갱안으로 달려들어가서 때마침 도갱밑으로 내려가려는 승강기에 뛰여올랐다.

승강기는 덜커덩거리며 사갱을 따라 미끄러져내려갔다. 이전과는 다른 차거운 바람이 밑으로부터 불어왔다.

얼굴을 후려치는 차겁고 눅눅한 그 바람에서 습습한 물비린내,콩크리트냄새,역한 중유냄새…엄청난 수해의 기운이 풍기였다.

가슴이 선뜩 얼어들었다.

도갱속은 재난구역으로부터 철수해들어온 건설자들의 고함소리로 끓어번지였다.

작업복들이 화락 젖은 그들은 물속에서 나오지 못한 동무들이 없나 하여 목청껏 이름이며 구분대명을 부르며 서로 찾는가 하면

물에 수장된 공구며 기재들때문에 울분을 토로하고 누군가에 대하여 험악한 욕설도 퍼부으며 왁작 떠들어대였다.

강세룡은 그들속에서 맨머리바람인 작달막한 지휘관을 붙잡고 거칠게 물었다.

《물이 그냥 터져나오오？》

《예…벌써 6백메터구간이 침수됐습니다.》

《6백메－터？ 부국장이랑 동무네 참모장이랑 못봤어？》

《저 앞으로 나갔습니다.》

《앞쪽으로？》

《예…막장에 있던 동무들이 물에 포위돼서 나오지… 나오지 못했습니다.》

《여러명인가？》

《두명만 헤염쳐나오고 모두 거기 있답니다.》

강세룡은 붐비는 군인건설자들속을 비집고 앞으로 나갔다. 몇걸음 안나가 발밑에서 물이 질쩍거렸다.

뒤쪽에서 누구인가 울음섞인 목소리로 부르짖었다.

《나가지 마십시오！》

《위험합니다！》

시꺼먼 물결이 벽과 천정의 작업등불빛에 번쩍거리며 소리없이 흘러들어왔다.

수면에 퍼진 기름무늬들이 보라빛,감빛으로 번들거리고 크고 작은 각재들과 널판자며 도끼밥부스럭지들이며 비닐안전모들이 물살에 밀려 둥둥 떠왔다.

도갱의 암벽이며 천정에서 부스럭돌들이 첨벙첨벙 떨어지며 물을 튕겨올렸다.

어느덧 물은 강세룡의 허벅다리를 쳤다.

그는 활개를 넓게 벌려 걸싸게 저으며 물결을 헤가르면서 앞으로 앞으로 걸어나갔다.

거치른 숨소리가 도갱안에 가득차서 울리였다.

문득 컴컴한 담벽같은것이 앞을 막아섰다.

사람들의 그림자였다. 수십명이였다. 그들은 말뚝처럼 굳어져

서 밀려오는 재난의 물결을 지켜보고있었다.
너무 억이 막혀 살고싶은 욕망마저 잃은것 같았다.
《왜 들어가지 않소? 왜 철수하지 않아?》 하고 강세룡은 소리쳤다.
자기자신이 왜 여기까지 들어오게 되였는지 알지 못하면서도 목이 터지게 부르짖었다.
모두 돌아봤다. 울분에 번뜩이는 눈, 비감에 젖은 눈, 분노와 저주의 섬광이 번쩍이는 눈, 눈, 눈… 그들의 웨침소리가 불채찍이 되여 가슴을 후려치는듯했다.
《이걸 보구 어떻게 물러납니까?》
《막읍시다!》
금강과 락동강을 함께 건넜던 옛전사들이 앞에 서있는것 같았다.
강세룡은 와락 달려나가 그들 하나하나를 부둥켜안고싶었다.
《동무들, 우선 들어가오, 피해서 들어가오!》
뒤에 서있던 참모장이 들어가자고 그들을 떠밀었다.
강세룡은 참모장에게 배명준부국장은 왜 보이지 않느냐고 물었다.
참모장이 창백한 얼굴로 막장의 대원들을 구원하러 앞으로 나갔다고 했다.
《맨손으로 어떻게 구원하는가. 떼목이라도 무어가지고 나가야지!》
《머리가… 정신이…어떻게 된것 같습니다. 붙잡으라고 두 동무를 따라보냈습니다.》
《다 데리고 들어가오.》
강세룡은 더 앞으로 나갔다.
작업등의 불빛에 어슴푸레하게 내다보이는 저 앞쪽, 번들거리는 물우에서 배명준의 상체가 어른거리고 그의 뒤로 두 그림자가 쫓아가고있었다.
이윽고 강세룡은 두 대원을 따라잡아 돌려세우고는 혼자서 배명준을 따라갔다.
배명준은 물살에 밀려 제자리걸음으로 허우적거리는가 하면

성급히 걸어나가다가 물속에 엎어져 첨버덩거렸으며 다시 일어나 허둥거렸다.

아무리 불러도 돌아보지 않았다.

그한테서는 헤여날길 없는 궁지에 빠진 사람의 극단적인 결심이 느껴졌다.

강세룡은 물결을 헤가르며 억척스럽게 걸어나갔다. 온 도갱속이 처절썩거리는 물소리로 가득찼다.

강세룡은 그의 어깨를 와락 거머쥐고 뒤로 잡아채였다.

돌아서 쓰러질듯이 비칠거리던 배명준이 얼빠진 얼굴로 그를 지켜보았다.

물투성이 된 그의 얼굴에 경련이 일며 눈이 날카롭게 번뜩이였다.

《어디루 가오?》

《…》

《어디루?》

《날 건드리지 마시오!》

그는 다시 앞으로 걸어나가려고 했다. 불어오르는 물이 가슴노리아래서 철썩거렸다.

강세룡은 와락 달려들어 그의 두팔을 붙잡고 마구 흔들어댔다.

《놓으시오!》

그들의 고함소리가 도갱안에 가득차서 메아리쳤다.

《죽자구 이러는가?》

배명준은 무서운 힘으로 그를 뿌리쳤다.

강세룡은 허양 떠밀려 쓰러질듯이 비칠거렸다.

배명준은 첨버덩거리며 걸어나가다가 돌아서서 뒤걸음질치며 강세룡을 쏘아보았다.

그는 휘파람같은 소리로 부르짖었다.

《날 따라오지 마시오. 우린 단둘입니다. 때문에 터놓고 말합시다. 이 사고는 부위원장동무때문에 생겼소!》

《?…》

《그때 내 말을 들었더라면 이런 일이 안생깁니다.》

강세룡은 그의 목소리는 똑똑히 들었지만 그 말뜻은 선뜻 리

해되지 않았다.

그저 참기 어려운 배신감에 머리가 핑돌며 어지럼증까지 일었다.

그는 단숨을 헉헉 몰아쉬며 사납게 찌프린 눈으로 그를 쏘아보았다.

무엇이라고 소리치고싶었으나 억이 막혀 목이 열리지 않고 가슴만 푸들거렸다.

배명준은 돌아서 앞으로 전진했다.

그가 결김에 돌아서는데 아까 돌려세웠던 두 대원이 헤엽쳐나왔다.

강세룡은 그들에게 부국장을 끌어내오라고 소리치고는 물살에 떠밀리며 허둥허둥 걸어나왔다.

튀여오르는 물갈기가 얼굴이며 목을 후려칠 때마다 흑흑 느끼였다.

무엇때문에 여기까지 들어왔는지 알수 없었다. 빨리 나가 대책을 취해야 하였다.

물주머니가 된 강세룡이 승강기실앞에까지 나왔을 때 거기서는 병사들이 여러척의 고무배에 바람을 불어넣고있었다.

배마다에 발동기가 붙어있었다.

강세룡이 어디서 났느냐고 물으니 아까 만났던 키가 작달막한 지휘관이 차렷자세를 취하며 **김정일**동지께서 가져오셨다고 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 강세룡은 너무 놀라서 되물었다.

《예…여기로…여기로 내려오시겠다는걸 우리 동무들이 팔을 끼고 갱구에 막아서서 겨우 말렸습니다. 길을 내라고 엄하게 명령하실수록 더 겹겹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눈을 슴벅거렸다.

강세룡은 눈앞이 아찔해지며 자기가 엄청난 일을 저질렀다는 가책에 무릎이 후들후들 떨렸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지휘부천막안에서 지하철도설계도를 들여다보며 참모장의 설명을 듣다가 물참봉이 되여 들어서는 그를 돌아보시였다.

강세룡이 가까이 다가가자 그이께서는 흔연한 안색으로 물으시였다.

《배명준동무는 어디 있습니까?》

엄청난 재난과 그이의 출현에 기가 꺾인 강세룡은 퍼렇게 질

린 얼굴로 겨우 대답하였다.

《저 굴안에… 굴안에 남아있습니다.》

그는 선뜻 대답을 못하고 침을 삼키고는 절망적인 빛이 번쩍이는 눈으로 **김정일**동지를 지켜보았다.

《저한테 책임이 큽니다. …》

김정일동지께서는 그 소리는 전혀 듣지 못하신듯 시름겨운 안색으로 나직이 물으시였다.

《동무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배명준동무는 도갱을 폭파해서 물을 막자고 했는데 동무 생각은…》

《예?…제 생각이요?…수압으로 봐서 다른 방법이 없을것 같습니다.》

《폭파하잔말이요?》

그이의 눈에 분노의 섬광이 번뜩이였다.

《좋습니다. 도갱에 들어가봅시다. 물살이 어느 정도인지 내 눈으로 확인해봐야겠소!》

그이께서는 참모장에게 눈길을 돌리시였다.

《대원들이 갱구에서 우리 앞길을 막아서지 못하도록 하시오. 동무 명령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안됩니다!》

《안되긴 뭐가 안된단말이요! 대책을 인차 보고드리지 못하면 수령님께서 여기로 나오십니다. 참모장동무가 앞에서 길을 여시오!》

그이의 말씀은 단도직입적이고 단호하게 울리였다. 강세룡도 그이앞을 막아서고싶었지만 기상이 너무 단호하고 엄하여 그렇게 할수 없었다.

그저 가슴만 화들화들 떨릴뿐이다.

얼마후 그이께서는 도갱으로 내려가 참모장과 함께 고무배에 타시였다.

따라내려간 강세룡이도 배에 뛰여올랐다.

고무배는 서늘한 바람을 일으키며 불가항력적인 힘으로 밀려나오는 물에 떠밀려 힘겹게 전진했다.

그이께서는 고무배가녁을 짚고 손을 물속에 넣어 수압을 가늠

해보시고 가슴노리를 치는 물속에서 구제작업을 하고있는 건설자들에게 물살에 견딜만한가고 물어도 보시였다.

천반에서 바위부스럭지들이 무시로 첨벙첨벙 떨어지며 처절썩 날아오르는 물갈기에 그이의 바지가랭이며 옷깃이 화락하니 젖었다. 배가 도갱을 따라 깊이 들어갈수록 수위가 점점 높아져 천반이 머리우로 스쳐지나갔다. …

밖에 나와 지휘부천막으로 들어가신 그이께서는 강세룡에게 격한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물살이 세기는 하지만 막아낼수 있겠습니다. 건설자들이 몇년에 걸쳐 판결 폭파해서 순간에 허물어버린다는건 죄악입니다! 물막이전투를 벌립시다.》

강세룡은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고 배심이 생기면서 물주머니에서 터져나오는 물이기때문에 언제인가는 기가 숙어들리라는 타산까지 하게 되였다.

《알았습니다! 흙포대로 차단벽을 쌓아 우선 물살을 죽이겠습니다!》

《수령님께서는 굴도 살리고 물도 막아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예…》

《부위원장동무, 공병출신이라면서 왜 그 모양이요? 미국놈들과 싸워이긴 우리가 물한테 져야 되겠소. 물이야 어디까지나 물이지.》

《막겠습니다!》

강세룡은 그이께 인사드리는것도 잊고 우람한 몸을 날려 천막에서 뛰여나갔다.

7

그때 수도의 보통시민들은 자기들이 살고있는 거리밑 지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있는지 전혀 몰랐지만 그이께서는 낮과 밤이 따로 없이 집무실에서 혹은 현장에서 물막이전투를 지휘하시였다.

지질부문과 수리력학부문,광산기계부문의 전문가들이 그이의 집무실에 불리워와 협의를 하고 사고현장으로 달려나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도 걱정이 되시여 그이께 전화로 몇번 문의해오고 물막이대책까지 가르쳐주시였다.

지하철도 사고현장에서는 사람과 물의 처절한 싸움이 벌어지고있었다.

수압이 세고 물량이 엄청나기때문에 도갱 여러곳에 물차단구역을 형성하여 물을 점차적으로 제압하고 그 구간마다 방수문을 2중 3중으로 설치하고 배수장치를 달아 수압을 조절하면서 고압뽐프들로 물을 뽑아내고있었다.

그러나 숙어들줄 모르는 물은 차단구역들을 휩쓸고 방수문들을 넘어뜨리면서 터져나오군하였다.

지하건설자들은 물살과 싸우면서 방수문들을 도로 세워붙이였으며 낮에 밤을 이어대는 물과의 싸움은 《결사전가》의 울림속에서 벌어지고있었다.

사흘째되는날 아침 또다시 방수문이 넘어져 그이께서 사고현장에 전화를 거시는데 서영림이 찾아들어왔다.

아래우 검은 양복차림인 그는 안쪽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출입문곁에 침통한 얼굴로 꿋꿋이 서있었다.

그의 때아닌 옷차림과 표정으로 보아 최승진의 장의식장에서 온것이 분명하였다.

여기서 어떤 사태가 벌어졌는지 잘 아는 박경섭이 자기는 차마 다시 올수 없어 이 선량한 사람에게 가달라고 부탁한듯하였다.

그이께서는 송수화기를 내려놓고 서영림을 돌아보시였다.

그가 한걸음 나서며 조용히 말씀드렸다.

《10시에 발인합니다. 나오시겠는가 해서 모두 기다리고있습니다. 관에 못을 치지 못하고…》

김정일동지께서는 가슴이 못견디게 저려드시였다.

시계를 보시니 9시 20분이였다.

《내가 나가겠다고 했는데…》

그이께서는 뜨거운것이 왈칵 쏟아져내려 몸을 반쯤 돌리고 책

상모서리를 짚으며 머리를 숙이고 오열을 삼키시였다.
《미안합니다. 나를 기다리지 말고 떠나보내시오.》
그이의 음성이 떨리였다.
《내 명의로 그의 령전에 화환을 놓아주십시오. 이건 개인적인 부탁인데…》
서영림은 고개를 숙여보이고는 조용히 돌아서 나갔다. 물은 새벽 2시에야 숙어들기 시작하였다.
그 보고를 받으신 **김정일**동지께서는 현장에 나가 확인해보신 다음에야 마음을 놓고 돌아서시였다. 캄캄한 밤이였다. 차창에 보슬비가 뿌려졌다.
온 도시가 깊은 잠에 들어있었다.
외등들이 환히 켜진 상점거리를 묵묵히 내다보시던 그이께서는 갑자기 피곤이 몰려들어 차창에서 눈길을 떼고 좌석등받이에 몸을 편안히 기대시였다.
이윽고 피곤은 어디로인가 사라지고 사고때문에 강심을 먹고 물리치지 않으면 안되였던 슬픔이 밀물처럼 달려들었다.
그 어마어마한 사고는 슬픔에 잠길 순간마저도, 보고싶은 얼굴을 마감으로 볼 시간마저도 앗아갔던것이다.
그이께서는 좌석등받이에 기댄채 한손으로 눈을 가리우시였다.
(아, 그는 세상에 없구나. …)
최승진이 찬비가 스며드는 땅속에 누워있다고 생각하니 절통하여 참을수 없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운전사에게 영화예술인아빠트로 가자고 하시였다.
운전사는 조향륜을 돌렸다.
영화예술인아빠트에는 몇집의 창문에만 불이 켜져있는데 그것마저도 하나, 둘 꺼져갔다.
온 아빠트가 어둠속에 잠겨 깊은 잠에 들어있었다.
그이께서는 이전에 한번 찾아온적 있는 최승진의 집 창문을 쳐다보다가 갖가지 회억이 가슴에 사무쳐와 보슬비를 맞으며 아빠트앞을 왔다갔다 천천히 거니시였다.
앓아누워있던 최승진, 아이, 젊은 아주머니… 젊은 그 녀인이

아이를 키우며 홀로 살아갈것을 생각해도 기막히기만 하시였다.

고즈넉한 정적속에서 보슬비만 지상의 모든 슬픔이며 아픈 마음들을 가라앉히려는듯 어둠을 적시며 소리없이 내리였다.

문득 뒤쪽 현관안에서 발자국소리가 울리고 급히 다가오는 기척이 났다.

키가 훤칠한 그림자가 황황히 걸어왔다.

박경섭이였다. 그는 너무 뜻밖이고 죄송스러워 인사도 미처 드리지 못하고 그이곁으로 창황히 다가섰다.

《나오셨습니까!》

《동무가 와있었구만…어떻게 되였소?》

《잘되였습니다.》

《나와보지 못해 미안하오.》

《다 잘되였습니다.》

《봉분이랑 크게 해줬소?》

《예…》

《묘에 가서 아주머니가 어떻게… 견뎌냈소?》

박경섭은 대답을 피하려는듯 망설이였다.

《보내주신 화환을 붙잡고 친척들이 몹시 울었습니다. 저희들이… 아이가 아버지뒤를 잇도록 잘 키우자고… 우리가 힘껏 돕겠다고 말해줬습니다. 제작단동무들도 모두 슬픔에 지지 말자고, 슬픔을 힘으로 바꾸어 영화를 잘 만들자고 결의했습니다. …》

말마디마다에서 위로하려는 심정이 내비친 박경섭의 모든 말은 그이의 가슴속에서 끓어번지는 비분을 조금도 가라앉히지 못하였다.

그이께서는 저 앞쪽 아빠트지붕우의 희붐한 하늘을 묵묵히 바라보시였다. 거기에서는 재빛 안개구름이 산산 찢기며 흩날리고 있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가슴속에서 비분만 격랑처럼 일어 몸을 주체하기 어려웠고 가버린 최승진이 누구도 대신할수 없는 존재로, 큰 예술가로 안겨오며 오늘의 상실로 하여 가까스로 추켜세우고있는 예술계의 복판이 뭉텅 허물어져내린것 같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유능한 의료진이 최승진의 생명을 연장시킬수 있으리라고 믿으시였고 병세가 호전된다는 보고를 듣고는 그가 자리를 털고 일어나 작품을 완성할수 있지 않을가싶은 기대까지 가지신적도 있었다. 그러나 악착스러운 병마는 의학기술의 온갖 수단과 지성이며 사람들의 눈물겨운 기대를 무찌르고 그를 앗아갔다. 거기에 겹쳐든 지하의 사고… 아직도 인간과 과학기술이 이렇게 무능하단말인가. 병마의 공격… 지하수의 폭발… 지하의 사고만 봐도 자연력이 아니라 사람들한테 화근이 있는것 같으시였다. 그이의 눈앞에는 가깝고 먼 앞날에 반드시 있을것이고 또 있을수 있는 난관들이 중중첩첩한 절벽처럼 우중충하게 솟아오르는듯하였다.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장례는 정말 잘되였습니다.》 박경섭의 목소리가 애절하게 울리였다.

《아주머니가 의견이 있거나 …부탁하는건 없었소?》

《저… 아주머니는… 저… 흙을 덮을 때 그만 까무라쳐서… 아무말도… 주사랑 놓아 겨우 살려냈습니다.》

《가서 쉬오. …》

김정일동지께서는 담담하게 한마디 하시고는 승용차쪽으로 걸어가시였다. 운전사가 전조등을 켰다. 어둠을 가르며 뻗쳐나온 빛줄기속에서 보슬비가 반짝이며 엇비스듬히 날아와 그이의 머리며 어깨며 가슴을 축축히 적시였다.

그날밤 박경섭은 집에 돌아와 지친 몸을 자리에 던졌으나 여러가지 괴롭고 불안한 생각으로 인차 잠들지 못하였다. 예술영화들인 《피바다》와 《한 자위단원의 운명》에 뒤따라 《꽃파는 처녀》까지 완성된다면 영화예술이 다른 모든 자매예술을 선도하며 앞장에서 나갈수 있는것인데 그만 담당연출가가 큰일을 남겨놓고 대오에서 떠나갔다. 그가 야속하게도 여겨졌다. 그러면 로영무는 어떠한가. …

어쩐지 그가 탐탁하게 여겨지지 않았다. 주영도비서의 말도 그가 예술적기량은 있으나 작품평가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주견이 뚜렷하지 못하고 집단생활에서 모난데가 없고 소심하다는것이였다. 벌써 심장에 로쇠가 왔는가… 비반복적인 뚜렷한 창작적개성과

열화같은 심장만이 피눈물나는 인간극이 체현된 이 작품을 빛나게 형상해낼수 있을것인데 로영무가 과연 해낼수 있겠는지 의심스러워졌다.

갑자기 엄습해든 이런 불안감때문에 박경섭이 침대에서 앓음소리를 내며 뒤채이는데 갑자기 창문에 시퍼런 빛이 번뜩이였다. 뒤따라 어느 먼 하늘가에선가 그 무슨 위협적인 울부짖음 같기도 하고 분노의 폭발과도 같은 굉음이 은은하게 울려오고 창유리에 비방울들이 뿌려졌다.

그는 공연히 가슴이 뒤숭숭해져 자리에서 일어나 침대에 걸터앉았다.

어딘가 아주 가까운데서 하늘땅을 들부시는듯한 벼락이 연거퍼 치고 화광이 펑긋거릴 때마다 창유리의 비방울들이 불꽃처럼 빛을 뿌리며 타오르는듯하였다. 어느덧 폭우가 쏟아져 창유리에 어른어른 파도무늬를 그리며 비물이 콸콸 쏟아져내렸다. 우뢰질은 계속되였다. 어마어마한 초자연적인 기운이 우주를 휩쓸어 온 누리가 진감하고있는것 같았다.

그는 공포에 질린 사람처럼 저도 모르게 가슴이 움츠러들어 전등을 켤념도 못하고 방안에서 왔다갔다 서성거렸다.

번개가 와지끈거릴 때마다 어둠속에서 그의 심각한 얼굴이 언뜻언뜻 드러났다.

유난스러운 밤이였다.

이튿날아침 일찌기 출근한 박경섭은 해당 부문 일군으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들었다.

지난밤 친애하는 그이께서 저택으로 돌아가지 않고 무엇때문인지 손수 차를 몰고 폭우속에서 륜환선거리를 끝없이 도시였다는것이였다.

박경섭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슬픔을 누르려고 번개와 비속으로 끝없이 차를 몰아가시였을 그이의 모습이 우렷이 떠오르고 먼발치에서라도 그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일찌기 집에 돌아와 잠자리에 든 가책에 가슴이 못견디게 저려들었다.

(아, 얼마나 괴로왔으면… 그 비속을 달리며 무슨 생각을 하시

였을가. …)

박경섭은 한동안 일손을 잡지 못하였다.

10시경, 전화종이 울렸다. 그이께서 부르시는것이였다.

그이의 집무실곁 대기실에 들어서는 순간 박경섭은 흥분속에서 무엇이라고 딱히 짚어 말할수는 없으나 이전과 다른 공기를 느꼈다. 대기실에 앉아있는 여러 부문의 책임일군들도 모두 흥분되고 긴장된 얼굴들이였다.

박경섭이 앉을 자리를 찾아 두릿거리는데 사이문이 열리며 지하철도건설을 책임진 공병장령과 서영림이 대기실로 나왔다. 두 사람 다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여있었다.

박경섭이 서영림에게 눈인사를 하자 그가 다가와 의미심장하게 손을 잡아쥐며 나직이 속삭이였다.

《총공세입니다. 예술인들을 지하철도공사장에 내보내 건설자들을 고무하는 한편 가극들 창조에 속도전의 불을 지르라고 하셨습니다. 총공세지요…》

박경섭이 불리워 들어갔을 때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응접탁결에 서계시였다.

그이의 안색은 어제 보았던 비감의 그늘이란 씻은듯이 가셔지고 더 환하게 밝아진듯하였다. 그를 정답게 바라보시는 미소어린 눈에서는 굳센 의지력과 무궁한 정신력이 빛발쳐나왔다.

박경섭은 그것이 못내 기쁘고 고마와 목이 메여올랐다.

《촬영소들의 창조사업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모든 단위들에서 중간총화를 지어보고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하시오. … 로영무연출가한테 〈꽃파는 처녀〉를 맡겨 일없겠소?》

나직하고 부드러운 음성이였으나 가슴을 울리며 쩌렁 메아리치는듯하였다.

박경섭은 마른 침을 삼켰다.

《예… 예술적기량은 되겠는데 좀 소심하고 제작단을 움직이는데서 부족점이 있을것 같지만 잘 도와주면 될수 있습니다.》

《그럼 믿고 맡겨봅시다. 승진동무 유고가 지금 어디 있소? 우선 내가 그걸 읽어봐야겠소. 오후 첫시간에 갖다주시오.》

《예, 알았습니다!》

박경섭은 힘차게 대답하였다.

×

오후시간이 퍼그나 지났는데도 박경섭은 웬일인지 연출대본을 가져오지 않았다. 매사에 빈틈없는 그한테서 이런 시간지체는 전에 없던 일이였다.

김정일동지께서 의아스러움에 전화로 그를 찾아 알아보시였다. 박경섭은 매우 송구스러워하며 유고가 어지러워 필사시키는중이라고 하였다.

그이께서는 최승진의 필적을 그대로 읽고싶다고 하시며 원고가 좀 어지러워도 좋으니 그냥 올려보내라고 이르시였다.

한시간후 박경섭이 최승진의 유고를 가져왔다. 그가 물러가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곧 대본을 읽기 시작하시였다.

집무실에 정숙이 깃들었다.

이따금 종이장이 번져지는 소리며 대사를 외워보시는 속삭임소리가 깊어가는 고요속에 흘렀다.

어떤 장면은 두번, 세번 읽어보시였는데 원작의 사상을 형상적으로 부각하려고 애쓴 흔적이 글줄마다에서 느껴지시였다. 어떤 대목에서는 그의 예술적개성이 생생하게 안겨들어 더 읽지 못하고 되살아오르는 비분때문에 손으로 눈을 가리우고 한동안 앉아계시였다. 그러시다가는 비감을 잦힌 다음 다시 읽어나가시였다. 어느덧 그이의 눈앞으로 생동한 영화화면들이 흘러지나갔다.

그이께서는 머리를 뒤로 젖히며 눈을 지그시 감고 화면들의 풍만한 정서를 잠시 음미하다 다시 원고에 눈길을 주시였다. 그이의 눈길이 더듬어가는 글줄에서 문득 그 어떤 맥동이 이는듯하고 무엇인가 생명감을 풍기며 규칙적으로 뛰고있는듯한 환각까지 일었다. 그것은 잉크로 쓴 보통글줄이 아니였다. 숨지는 순간까지 억척같은 의지로 당을 따라온 한 예술가의 뜨거운 숨결의 흐름이였다.

글자 하나하나를 가슴에 품어주고싶은 심정으로 대본을 읽어나가시던 그이께서는 문득 안색이 달라지며 눈길을 멈추시였다. 누구인가 글줄들을 북북 째고 휘갈겨쓴 글씨로 대본에 가필해넣은 것이 나타났던것이다. 그런 자리는 거의 한두장건너마다에 있었다.

그이께서는 가필한것과 지워진 원본의 글자들을 가까스로 찾아 내용을 비교해보시였다. 가필자는 몇몇 장면을 기발하게 처리하기도 했지만 대체로 원본의 형상적의도를 무시하고 여러군데에 자기 착상을 서둘러 적어넣었으며 장면배렬을 작품의 양상에도 맞지 않게 자의대로 엇바꿔놓았거나 주제천명에 중요한 대사들을 함부로 생략해버렸는데 그런데서는 순결치 못한 욕망까지 느껴지시였다.

(죽은 사람은 항변을 못한다고 이렇게 망탕 고쳐놓았는가! 누가… 도대체 누가 이런 칼질을 했는가?)

그이께서는 곧 박경섭을 불러 알아보시였다.

박경섭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서있을뿐 한동안 대답을 못하였다.

《한기석동무가 그랬습니다. …》

《한기석이?… 그게 어떤 동무요?》

《그전에 촬영소에 나가 전통문제를 강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날 일어나서 석탄해결방도를 말했던 그 부연출동무입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비로소 그날에 있었던 일이며 한기석의 얼굴이 어렴풋이 떠오르고 어째 부연출이 중뿔나게 이런 문제에 끼여드는가싶어 아리숭한 의혹이 들었던 일까지 상기되시였다.

《그 동무가?…》

《예… 승진동무가 운명하자 자기가 연출을 맡자는 속심으로 그랬습니다.》

《능력은 있는가?》

《미숙합니다. 저한테 편지까지 보내왔습니다. 작품을 맡도록 보고드려달라고… 편지를 읽고 촬영소에 알아보니 총장, 부총장, 비서한테는 그런 제기를 한적도 없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안을 거니시였다. 그이의

음성이 방안공기를 흔들었다.

《그러니까… 우리를 움직여 자기 목적을 달성하자는거요? 젊은 동무한테 어디서 그런 처세술이 생겼소?… 죄다 사실이면 아주 좋지 못한 근성이요. 매우 위험한 사상이요. 제때에 고쳐줘야 하겠소. 사람이 진실하지 않고는 형상을 진실하게 창조할수 없소. 다시 알아보오.》

8

주영도는 박경섭의 전화를 받고 이틀동안 로영무, 강철룡을 비롯한 여러 제작단성원들과 담화하는 과정에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되였다.

로영무는 한기석에게 불만이 있는것 같은데 그의 흠에 대하여 까밝혀 말하지 않았다. 다른 제작단성원들은 그에 대한 의견을 적지 않게 이야기하였다.

한기석은 이전부터 부연출로 있는것을 불명예스럽게 여겨왔으며 로영무가 림시로 연출을 맡자 뒤에서 그의 무능을 자주 개탄했었다. 장례날에는 최승진이 림종전에 자기한테 작품을 맡기고 싶어했노라고 했으며 연출가가 정식으로 임명되자 부연출사업에 열을 내지 않았다는것이였다.

주영도는 마감으로 한기석을 만났는데 그는 처음부터 얼굴이 해쓱해서 항변해나섰다.

《작품을 맡고싶어한게 무엇이 잘못입니까. 상급당에 그만한 의견도 제기하지 못합니까? 여기서는 누구도 제 소원을 들어주지 않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기했습니다.… 사업에서 적극성을 내지 않은건 잘못했습니다. 사기가 없어 그랬습니다.》

주영도는 엄엄한 얼굴로 그를 여겨보다가 담화를 그만두었다.

그날 주영도는 한기석의 사람됨됨을 비로소 알아보았고 자기 지난날사업을 두고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였다.

(일찌부터 예술인들속에 깊이 들어가있었다면 저 동무 병집을 알고도 남았을것이다. 당일군도 능력이 제한된 개인인 이상 제혼자 눈으로는 사람을 정확히 볼수 없다. 백명은 몰라도 적어도 열명, 다섯명의 눈으로는 사람을 볼줄 알아야 한다. 군중의 눈으로 사람을 봐야 실수가 없다. 당일군의 과오는 사람을 잘못보는… 바로 여기로부터 싹트는게 아닌가. …)

주영도는 개인생활에서 불행도 당하고 어려운 고비도 몇번 넘겼으나 예술인들한테 하소연하거나 도움을 청한적도 없었으며 그들의 가까운 이웃으로 지낸적도 없었던것 같았다. 휴식날에 그들과 장기판에 마주앉은 일도, 려행길에서 구수한 말동무로 된적도 별로 없었다.

그는 예술인들한테 피가 통하는 벗이 아니라 교양자, 조직자, 결론자… 그리고 싫은 소리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였다. 그는 예술인들의 당비서이고 예술인들은 그의 사업대상일뿐이였다. 그랬으니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한기석이를 어떻게 보는지 잘 모를수밖에…

그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가르치심대로 당사업을 사람과의 사업으로 철저히 전환하고 이번 기회에 한기석의 결함도 고쳐줘야 하겠다고 속다짐하였다.

그는 사람들이 다 퇴근한 저녁녘에 중요한 창조성원들만 참가시키고 제작단 모임을 가지였는데 한기석은 그자리에서도 변명만 앞세우면서 자기비판을 성실하게 하지 않았다. 촬영가, 부촬영, 장치미술가들이 일어나서 그가 창조사업에서 열정이 없다고 충고하는 식으로 부드럽게 비판했으나 다음에 일어선 강철룡의 비판은 매우 신랄하였다.

《저도 한 부연출로서 작품을 맡아 연출하고싶은 생각이 없지 않습니다. 더 솔직히 말하면 그것이 생활의 희망이고 목적입니다. 때문에 연출을 맡으려고 한 기석동무 심정이 리해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석동무는 이 목적을 어떻게 달성하려고 했는가. 어떤 방법으로, 수법으로…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동무는 꾸준하고 진지한 탐구와 노력으로 예술적기량을 높이고 그것을 인정받는

방법이 아니라 남을 헐고 밀어제끼는 방법으로 그것을 달성하려고 하지 않았는가. 이전에 최승진연출가가 과오를 범하고 위축되였을 때엔 그를 밀어제끼려고 했으며 로영무연출가에 대해서는 뒤에서 무능하다고 시비했으며 자기가 속한 조직을 무시하고 상급당에 편지까지 내여 밀어제끼려고 했습니다. 우리 당이 령도하는 문학예술대오에서, 우리 사회에서 이런 수법이 통하는가? 어디서 배운것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동무의 처세술과 인생관에 혐오를 느끼오!… 기석동무는 분명히…분명히 그렇습니다. 당에서 영화예술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는 이때에 어떻게나 두각을 나타내여 자기 공명을 떨치고 출세의 길을 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서기를 좋아했고… 자기 욕망대로 일이 안되니 뒤틀려져 창조사업에 열정을 내지 않았습니다. 기석동무한테 당의 의도를 진심으로 받들어… 자기를 다 버리고… 영화혁명에 투신하자는 생각이 있었는가?》

방안공기는 팽팽하게 긴장되였다.

철룡은 단숨을 몰아쉬다가 우리가 맡은 작품이 어떤 작품인가고 격하게 소리치고는 한기석은 이런 중대한 창조사업에 참가할수 있는 자격을 상실했기때문에 스스로 제작단에서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가슴아프지만 터놓고 말하겠습니다. 창조사업을 한다 해도 제대로 하지 못할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량심에서는 아름답고 서정적인 감정이 움틀수 없기때문입니다!》

철룡이 앉자 한기석은 랭소가 어린듯한 눈매로 그를 돌아보고는 천천히 일어섰다.

《말하지 말자고 생각했고… 여태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터놓지 않을수 없습니다. 병원에서 승진연출가가 제손을 붙잡고 자기가 가더라도 작품을 맡아 잘 성사시켜달라고 당부한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선 윤희아주머니한테서 들어 저 미혜동무도 알고있을것입니다. 그래서 작품을 맡자고 더 애를 썼습니다.》

좌중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있었다.

주영도는 구석쪽의 장미혜를 돌아보았다.

《미혜동무, 그렇소？》

크게 뜬 눈으로 한기석을 쳐다보던 미혜는 질문을 받자 웬일인지 고개를 푹 숙였다. 온몸에 전률이 이는지 그의 어깨가 알릴듯말듯 떨렸다.

한기석은 성급히 말을 이었다.

《철룡동무는 저보고 공명이요 출세요 했는데 저는 그 말들을 정중하게 돌려주고싶습니다.》

《비꼬지는 말구！》 하고 주영도가 엄하게 일렀다.

《좋습니다. 그럼 출세에 대해서 좀 말해봅시다. 철룡동무와 미혜동무 관계는 한때 우리 예술부서들에서 비밀이 아니였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사이엔가 그 문제가 사람들의 기억에서 슬그머니 사라졌습니다. 철룡동무가 미혜동무를 점점 멀리하다가 소리가 나지 않게 조용히 버렸기때문입니다. 왜 그랬는가？… 철룡동무, 나를 그렇게 보지 말고 마감까지 다 들은 다음 의견이 있으면 말하오… 왜 버렸는가？ 형이 리명선동지의 해임에 정치적인 문제가 깔려있다고… 말하자면 과거생활에서 믿을수 없는 문제가 있기때문이라고 생각하여 반대해나서자 형 의사에 따라 리기주의, 출세주의로부터 미혜동무와 운명을 결합할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한 처녀를 유혹했다가 사정없이 버렸습니다. 출세주의로 말한다면 이런것이 아니겠는가…》

주영도는 뜻밖에도 론제가 사랑문제에로 번지자 언짢은 얼굴로 한기석을 꾸짖었다.

《동무는 왜 사람들앞에서 그런 문제를 함부로 꺼내면서 야단이요？》

《미혜동무한테는 참 안됐지만… 누가 진짜 출세주의인가 해명하자니 별수 없었습니다.》

《그만두오.》

철룡은 머리를 뒤로 젖혀 벽에 붙인채 눈을 꾹 내리감고있었는데 그의 입술이며 볼편으로 경련이 지나갔다.

주영도는 측은한 눈매로 미혜쪽을 돌아보았다.

《미혜동무, 미안하오. 그 문제는 후에 나하구 조용히 만나 이

야기합시다.》

처녀는 머리를 다소곳이 숙인채 응대를 못하였다. 눈물을 삼키는 소리와 함께 어깨가 조용히 물결쳤다.

한기석이 할말이 있으면 하라는듯 처녀를 불렀다.

《미혜동무!》

미혜는 곁에서 말리는데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철룡동무한텐 잘못이 없어요! 제가 물러나서 그렇게 됐어요.》

《아, 아, 미혜동무, 그만두라는데…》 하고 주영도가 황급히 손짓했다.

처녀는 그 무슨 의분때문인지 앉지 않았다.

《기석동무 말은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요. 전 윤희아주머니한테서 그 비슷한 말도 듣지 못했어요!》

한기석은 얼굴이 해쓱하게 질렸다.

《기석동무한텐 철룡동무가 싫었어요. 철룡동무의 바른 생활태도와 바른 소리가 싫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강철룡이 움쭉 일어서려는것을 주영도가 손짓으로 제지시켰다. 철룡은 도로 앉았으나 불꽃튀는 눈으로 처녀를 치떠봤는데 그 눈빛은 이렇게 소리치는것 같았다.

(나는 왜 건드려!)

처녀는 그 기상에 눌려 허물어지듯 주저앉아 두손으로 얼굴을 가리웠다.

방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주영도는 쓴 입만 다시다가 잠긴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참 한심하오… 내 보기에도 기석동무가 그런 사상감정으로는 이 작품을 해내지 못할것 같소. 온몸과 마음이 몽땅 불이 돼도 모자라겠는데 그런 정신상태로 이 작품의 고상한 사상감정세계를 파악이나 할수 있겠소? 운명하기 직전까지 당에 충실하려고 애쓴 최승진연출가를 보오. 어째 그런 모범은 따르지 못하는가, 곁에 있으면서… 철룡동무 비판이 그르지 않소. 동무는 인생관을 고쳐야 되오. 사실 우리는… 예술위원회나 당위원회에서 동무를 큰 연출가로 키우자고 여러번 론의했댔소. …안되겠소. …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동무 소행때문에 얼마나 걱정하셨는지 아우?》

그의 목소리는 나직하게 울리였으나 한기석은 몸을 떨며 얼굴을 쳐들었다. 주영도를 지켜보는 그의 크게 뜬 눈에 후회의 빛이 번뜩이였다.

그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정적속에서 주영도의 목소리만 무겁게 울리였다.

《누구나 충성심이 정말 쇠물처럼 끓지 않고는 당의 의도대로 자신들을 혁명화할수 없고 영화혁명도 해나갈수 없소!》

×

밤하늘에 널려 보석처럼 반짝이는 별무리들속에서 별찌 하나가 짤막한 점선을 그으며 날아떨어졌다. 그 하늘밑 가없는 대지의 어스름속을 하나의 넋이 신음소리를 내며 헤매고있었다.

처녀는 발길이 가는대로 어디라없이 허둥허둥 걸음을 옮겨갔다. 바람에 머리칼이 날렸다. 장미혜는 모임이 끝난 다음 집으로 가지 못하고 들판으로 정신없이 달려나왔던것이다.

처녀는 자기가 어떻게 되여 경멸했던 사람을 그토록 두둔해나서고 제일 가까이 여기고 믿었던 사람을 그처럼 폭로하고 규탄하게 되였는지 딱히 알수 없었다. 그저 꿈속에서처럼 모든것이 비론리적으로 뒤엉켜버리고 머리속에서 바람소리같은것이 윙윙거릴뿐이였다. 한가지 사실만은 명백했다. 철룡의 환심을 사서 깨여진 감정을 되살리기 위하여 그런것은 아니였다. 절대 아니였다. 한기석이 윤희아주머니한테서 들어 미혜동무도 알것이라고 했을 때 눈앞이 아뜩해졌었다. 그런 일은 없었으며 그가 자기를 공모자로 끌어넣는데 모욕을 느꼈다. 소름이 끼쳤다. 가슴이 화들화들 떨려 몇순간 아무 소리 못하고 고개를 떨구고만 있었다. 그 몇순간에 지나간 모든 일들이 눈앞에 번개쳤다. 그리고 어제날에 진실로 믿었던것들이 뒤번져졌다. 철룡의 비판이 백번 옳은것으로 느껴졌다. 바른 소

리에 대한 앙갚음으로 개인문제를 꺼내는 한기석이 비렬하게 느껴졌다. 대바른 철룡이 자기때문에 험하게 깎이우는것을 보고만 있을수 없었다. 이전 감정은 다 뒤로 제껴버리고 우선 그를 두둔하고 싶어 가슴에서 불이 황황 일었다. 그래서 정신없이 일어나 그 불을 내뿜었으니 두서없는 소리로 되고말았다.

(나는 속았어…속았어！)

그가 이때까지 한 모든 말들이 죄다 거짓으로 느껴지며 무서운 의혹이 엄습해들었다.

차거운 바람이 얼굴을 후려쳤다. 머리칼이 눈앞에 흩날리고 치마폭이 다리에 휘감겼다. 그는 몸을 앞으로 기울일사하고 바람을 맞받아 허둥허둥 걸어나갔다. 착잡한 생각들이 끝없이 갈마들었다. 철룡이 참관단에 망라되여 외국으로 가게 되였을 때 그는 병원에서 자기가 빠진것을 몹시 분해하였고 미혜는 그를 동정하였었다. 그는 영화예술인아빠트에 들고싶어했고 미혜는 그한테 자기 집을 양보해주자는 생각까지 하게 되였다. 최승진연출가가 갑자기 병이 들어 병원에 실려갔을 때 그는 몹시 흥분하였다. 그가 운명하자 고인의 미완성유고를 안고 촬영소로 돌아와 거기에 자기 착상들을 서둘러 적어넣으면서 이제는 자기가 작품을 맡게 될것 같다고 했다. 모든 사람들이 동지를 잃어 슬픔에 잠겨있을 때 그가 기쁨까지는 드러내지 않았지만 앞으로의 연출에 대해서 생각하며 흥분에 떠있다는것을 느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미혜는 그것을 느꼈다.

미혜는 그때 한사람의 죽음에서 횡재라도 한듯 떠있는 사람을 본것 같은데도 그 심리를 량심과 도덕의 거울에 비껴보지 못했다. 그저 그것은 인간사회의 불가사의한 숙명이고 그래서 《죽은 사람만 불쌍하다》는 속담도 생겼겠지 하고만 생각했다. 작품을 로영무연출가가 아주 맡게 된 바로 그제는 밤늦게 미혜를 찾아와 술냄새를 풍기며 자기 《팔자》를 개탄하고 인간의 운명을 좌우하는 그 어떤 미지의 신비적요인에 대하여 력설하며 자기만큼 일이 안되는 사람이 없다고 하였다.… 행운은 언제나 자기만을 피하여 멀리도 아니고 가까운 코앞을 스쳐지나간다고 하였다. 분명히 이 세상에는 사람들에게 행과 불행, 흥과 망을 공평하게 분배하지 못하

도록 작용하는 미지의 요인이 있고 그래서 인생의 성공률도 자질이나 노력에 정비례되지 않는것이라고 했다. 그 미지의 요인의 작용으로 자기한테 차례질수 있었던 행운을 넘겨받은 사람들은 어찌나 뻔뻔스러운지 미안하다는 소리는 고사하고 그런 기색조차 한번 보이지 않는다는것이였다. 빠리에 갔다온 강철룡이 그러했고 이번 작품을 맡게 된 로영무가 그러했다.…그러다가 로영무에게 험담을 퍼부었다. 박정한 선배, 교섭에 능한 수완가, 신인들을 짓밟는 끝없는 공명심…

그때 미혜의 눈에 비쳐진것은 언제나 승진과 성공의 기회를 놓치는 불우한 재사의 모습뿐이였다.

미혜는 그가 술기운과 화김에 그저 그런 소리를 하는것이며 어리석게도 재사의 그런 객기와 폭언은 아량으로 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부연 흙먼지바람이 처녀를 휘감으며 울부짖었다.

미혜는 흑 느끼며 주춤거렸다.

(속았어… 속아서 내 스스로 귀중한 감정을 다 깨버렸어… 거짓을 모르는 정직한 사람은 정직한만큼 잘 속는다더니 나도 그래서 속았는가?…)

미혜는 소리없이 울었다.

《아―》

그는 두손으로 귀를 싸쥐고 얼굴을 뒤로 젖히며 쓰러질듯이 비칠거렸다.

총총한 별들이 기겁하여 저 하늘가로 멀어져가는듯했다.

제 7 장

1

20여일이나 걸린 물막이전투가 끝나자 강세룡은 물이 다 찐 썰렁하고 질쩍한 도갱을 따라 돌아다니며 수재로 인한 손실부터 가늠해보았다. 막대한 물자들이 류실되였거나 물에 젖어 못쓰게 되였고 침수구역에서 미처 끌어내지 못했던 숱한 건설기재들이 흙탕물의 세례를 받아 녹이 쓸고 페품이나 다름없이 되여버렸다. 거기에 10여명의 대원들이 병원으로 실려간것이며 공사기일을 지연시킨것까지 합치면 국가에 입힌 손실이란 막대한것이였다. **김정일**동지의 담력에 떠밀려 물막이를 제때에 시작하였으니망정이지 도갱을 폭파하였더라면 국가에 얼마나 더 큰 손실을 주었으랴싶으면서 소름이 끼쳤다.

강세룡은 지하수가 터져나왔던 분출구쪽으로 자주 가서 사고의 기술적원인을 밝혀내려고 애썼으며 설계도와 도갱의 굴진방향도 대조해보고 발파에서 사용된 폭약량이 암질에 따르는 분량을 초과하지 않았는가도 여러모로 따져보았다. 모든것이 기술적요구에 맞았다. 도갱은 한치의 어김도 없이 설계대로 굴진되였으며 폭약도 어느 발파에서나 정량을 초과해 쓰지 않았다. 터진 물주머니도 발견 못한것이 아니라 설계에 이미 밝혀져있는것이였다. 단지 도갱이 그옆을 너무 가까이 스쳐지나간것이 유일한 위험요소였다.

강세룡은 사고의 원인을 밝혀가는 과정에 건설지휘체계에 빈틈이 없었으며 모든 공사단위의 전체 성원들이 기술적요구대로 일했다는것을 알게 되였지만 이전처럼 기쁘지도 흐뭇하지도 않았다. 이 사실이 엄청난 재난의 화근으로 된듯싶으면서 그 유일한 위험요소속에 자기를 떠밀어넣은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였다.

문득 침수된 도갱속에서 배명준부국장이 절망적으로 부르짖던 소리가 량심을 쳤다.

《그때 내 말을 들었더라면 이런 일이 안생깁니다.》

그는 이때까지 상기하지 않으려고 애써왔지만 그때란 어느날의 일을 념두에 둔것인지 불을 보듯이 환히 알고있었다.

그때… 그때란 배명준이 도갱의 굴진방향에 수정을 가하자고 제기했던 때를 말하는것이다. 그때 배명준은 도갱이 물주머니에서 좀더 떨어진데로 지나가도록 굴진방향을 약간 우회시키자고 제기했었다.

강세룡은 비준된 설계에 수정을 가한다는 소리에 대뜸 기분이 언짢아졌지만 인내성있게 그의 설명을 들었다.

배명준은 설계가 작성되던 당시보다 지층조건이 달라졌다고 했다. 그 론거로서 거듭된 발파의 세찬 울림으로 암석층에 크고 작은 균렬이 수많이 갔을것이라는것과 지각의 자연적인 운동 등을 렬거했다. 때문에 설계가 작성당시에는 옳은것이였지만 지금은 일부 구간에서 지층의 현실적조건에 맞지 않을수 있다는것이였다.

이제 다시 굴진방향을 우회시키면 건설속도를 계획대로 보장할수 없을뿐아니라 세멘트와 강재를 비롯한 자재가 엄청나게 더 들수 있었다. 국가적인 리익의 견지에 서지 못하고 자기 일개인의 보신을 위하여 안전치만 추구하는 그의 소심성때문에 국가에 손실을 줄수 없었다.

강세룡은 좋지 않은 얼굴로 그의 의견을 일축해버렸다. 배명준은 숙어들지 않았다. 그는 같은 론거들을 렬거하며 물주머니와 도갱사이의 암석층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모른다고 불안해하면서 검질기게 설복하려들었다. 하루는 집에까지 찾아와서 설복하다가 불쑥 이웃나라에서 터진 전대미문의 지진의 영향까지 거들면서 자기 의견을 주장하였다.

그 소리에 분격이 왈칵 터져올랐다. 이웃나라, 국경바깥의 지진이 여기에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소리쳤다. 그는 항변했다. 지상에는 엄연히 국경이 그어져있지만 깊은 지하에 깔린 암석층들은 태

고적부터 하나로 이어져있기때문에 그 여파가 미쳐올수 있다고 했으며 그 지진때 자기네 아빠트의 복도벽에 금이 갔다는 소리까지 했다.

강세룡은 입안이 떫어나 더 말하지 않고 보드라운 머리칼이 성글어진 그의 대머리만 측은하게 여겨보았다. 그 반들거리는 대머리 밑에 역겨운 소심성이 가득차있는것 같았다. 그리고 마감에는 나이와 더불어 더 심해진듯한 그의 심장병을 생각하며 은근한 동정심까지 품었는데 상대가 끝내 굽어들지 않자 신념이 그렇게 흔들려서야 무슨 큰일을 하겠느냐고 꾸짖었고 사업문제를 가정에 들고왔다고 좋지 못한 소리까지 했다.

그러자 배명준은 입을 다물어버렸다. 그때 그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였다면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것이다.

강세룡은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니고 자기,바로 자기자신이 이런 실책을 범했다는것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다. 그는 손상된 명예와 자부심 그리고 피를 말리우고 살을 깎아내는듯한 죄책감에 모대기면서도 신경을 날카롭게 세워 사고에 대한 상급기관들의 반응에 마음을 몹시 썼다.

김정일동지께서도 그날 책임문제는 후에 따로 보자고 말씀하셨는데 물막이가 끌나 며칠이 지나도록 상급당조직이나 검열기관들에서 찾지도 않았고 사고원인을 규명하러 누가 내려오지도 않았다.

사고가 터진 그날 배명준부국장이 침수된 도갱속에서 한 소리로 보아 병원에 가있는 그가 벌써 모든 사실을 죄다 보고하였기때문에 상급기관들에서 사고원인과 책임져야 할 당사자에 대하여 알고도 남음이 있으리라는 생각도 들었다.

강세룡은 처벌이나 해임을 각오하고있었던만큼 설사 그랬다 해도 두려운것은 아니였다. 그저 배명준과 자기네 둘사이가 좀 쓸쓸하게 여겨질뿐이였다.

배명준은 재난의 첫날에 심장마비가 와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아직도 퇴원하지 못하고 병상에 누워있었다. 그의 허약한 심장이 그날의 무서운 충격을 감당해낼수 없었던것이다. 문병갔다온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그는 병원에 가서도 심장에 몇번인가 발작이 일

어나 혼수상태에 빠지군하였는데 어떤 때는 헛소리로 부위원장동지를 찾는다고 하였다.

그런 사실로 미루어보아 그의 가슴속에서는 원한이 끓어번지고있는것이 틀림없었다.

강세룡은 가만히 앉아있을수 없어 두번 병원으로 찾아갔다. 그러나 환자와 단 몇마디 말도 나누지 못했다. 한번은 그가 혼수상태에 빠져있었고 다른 한번은 의사가 겨우 진정이 된 환자에게 충격을 줄수 있다면서 입원실에 들여놓지 않았던것이다.

세번째로 다시 문병가려다가 그만두고말았다. 용기가 나지 않아서였다. 그를 만나면 부득불 사고에 대한 불쾌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수 없을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기는 사과의 말을 해야 되겠는데 이제 와서 그러는것이 좀 무엇하게 여겨졌다. 그의 원한과 감정을 누잦히려는 낮간지러운 일로 생각되였다.

궁지에 빠져도 그런 낮간지러운짓은 할수 없었다. 그가 문제를 원칙적으로 날카롭게 제기할수 있게끔 놓아두고싶었고 자기는 사고의 책임을 몽땅 걸머지고 정정당당하게 처벌을 받고싶었다. 죽을지언정 비굴해질수는 없었다. 그래서 여느때나 조금도 다름없는 열정으로 구분대들의 수해복구작업을 도와주었으며 아래일군들의 사업에서 칭찬해줄것은 후하게 칭찬해주고 비판할것은 엄하게 비판하고 웃을 일이 생기면 호탕하게 웃었다. 그러나 속은 새까매서 상급당조직의 부름이 있기를 기다렸다.

어느 일요일.

강세룡은 휴식일이지만 오후까지 지하건설장을 돌아보았다. 2시가 지나 차에 몸을 싣고 집으로 돌아오던 그는 거리의 십자로에서 길이 막혀 멎어서서 교통안전원의 통과신호를 기다리고있었다.

그는 얼결에 앞에 서있는 전차의 뒤꽁무니차창을 쳐다보다가 차창유리안에서 이쪽을 내려다보는 웬 이쁘장한 처녀와 눈길이 마주치게 되였다. 그 처녀는 언제인가 동생이 집으로 데려왔던 장미혜였다. 처녀는 첫눈에 그를 알아보고 놀란 표정을 짓더니 눈인사도 없이 머리를 외로 돌려버렸다. 곁에 서있는 오돌차게 생긴 처녀가 이쪽을 돌아보고는 미혜에게 무엇이라고 묻는것 같았다.

그러나 미혜는 아무 대답도 안했고 이쪽에 등을 돌리며 아주 돌아서버렸다. 오돌차게 생긴 처녀는 더욱 호기심이 드는지 웃음어린 눈으로 이쪽을 흘끔흘끔 돌아보았다.

강세룡은 얼굴이 화끈거렸다. 눈을 지그시 내리뜨고 담배를 피워물었다. 장미혜라는 저 처녀가 자기에게 일정한 원한을 품고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뒤따라 동생 철룡이도 배명준부국장도 자기에게 원한을 품고있을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속이 번거로와졌다.

집에 돌아오니 문이 채워져있었다. 아이들도 어디로 나갔는지 없고 안해도 상점으로 나갔는지 없었다. 집안이 전에없이 한산하게 느껴졌다.

그는 침실로 들어가 의복을 입은채로 침대에 쓰러졌다. 한손으로 눈을 싸쥐고 잠자코 있었다.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았다. 가슴속이 끝없이 공허해졌다. 어슴푸레 잠이 들려는데 문소리가 났다. 누구들인가 응접실로 황황히 들어오는것 같더니 수군수군 주고받는 말소리가 들려왔다. 안해와 철룡이였다. 거리에서 우연히 만나 함께 들어온것 같았다.

《부국장동지한테 문병갔다가 그분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이런 소릴 절대 옮기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하면서 부국장동지가 해임될것 같다고 했어요.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설계가 잘못됐기때문에 그런 사고가 났다고, 설계를 담당한 자기한테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했대요.》

《그러니까 형은 무사하게 되겠구만요.》

《글쎄요. 그랬으면 다행이겠는데… 부국장동지가 참 안됐어요. 고의적으로 그렇게 설계했겠어요? 잘한다는게 그렇게 됐겠지요. 참 안됐어요. 눈물을 짓는 그 아주머니를 보니 정말 속이 좋지 못했어요. 녀자들이 끼여들어 도와줄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정말 보기 딱했어요. 곁에서 도와서 풀릴 일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형은 뭐라고 그래요?》

《아무 말도 없어요. 나가서는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집에 들어와선 입을 다물어 사고가 생긴것도 며칠후에야 알게 됐어요. 집에 들어와 무슨 소릴 하는 성민가요.》

《형이 들어오면 그 아주머니가 한 소리를 죄다 말해보라요. 형이 뭐라고 하는가? 어째 형은 무사하고 부국장인 그가 다 책임져야 하는가요? 여기엔 무언가 있습니다, 좋지 못한 무엇이 있습니다.》

《뭐라구요? 좋지 못하다니, 누가 좋지 못하다는거야요?》

《아주머니, 언젠가 배명준부국장이 이 집에 와서 설계때문에 형하구 론쟁한 일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아니… 언제 그런 일이… 난 생각 안나요.》

《저는 생각납니다. 그때 아주머니가 부국장이 돌아간다음 나이든 사람을 아이처럼 몰아준다고 불평하던 일까지 생각납니다.》

《난 생각 안나요. 생각 안나요!》

눈물에 젖은 안해의 목소리가 신경질적으로 울렸다.

《생각 안나요?》

《그럼 그랬다고 하자요. 그렇지만 그 일이 이 일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어쩐지 나한테는 그때 부국장이 벌써 이런 사고를 예감하고 설계를 고치자고 제기했고 형은 그 의견을 묵살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터무니없는 억측이야요. 어째 그렇게 나쁜 방향으로만 생각해요. 둘도 없는 친동생이라면서… 아니 왜 웃어요? 그렇게 쓰겁게… 형이 잘못되는게 고소한가요?》

《아주머니, 형이 그랬다면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자격을 잃었으면 자리를 내놔야 합니다. 애꿎은 사람을 희생시키지 말고… 남의 선한 마음을 리용해서 살아나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죽을 때가 되면 죽을줄도 아는것이 인간적인 처사이지요.》

《뭐라구요? 어릴적부터 데려다가 애지중지 키웠더니 아이, 무서워… 언제부터 제 형한테 그런 앙심을 품었어요?》

《앙심이 아닙니다. 아주머니한테도 할 소리가 있습니다. 형을 저렇게 만든데는 아주머니 책임도 있습니다. 누가 집안에서 형을 〈장령동지〉로 만들었습니까?》

《더… 더… 더 말해봐요. 아니 이러지 말고 회의처럼 주석단

을 꾸려놓고 거기 앉아서 형수를 내리패봐요. 어서… 어서요!》

강세룡은 더 이상 듣고있을수 없어 침대에서 일어나며 기침소리를 내였다.

잠잠해졌다. 발자국소리가 다가오더니 사이문이 빠끔히 열렸다. 얼굴이 파랗게 질린 안해가 그와 눈길이 마주치자 너무 아연해져 주춤 물러서기까지 했다.

《아니, 언제 오셨어요?》

《철룡이… 그 애를 들여보내오. 당신은 저 아래방에 내려가있구.》

《왜 그래요? 자기도 속상해서 한 소릴 가지구…》

《들여보내오!》 그의 목소리는 거칠게 울렸다.

안해는 순종하여 돌아섰다.

강세룡은 방에 들어온 동생에게 벽쪽의 의자를 가리키며 앉으라고 일렀다.

철룡은 그 말에 인차 응하지 않고 해쓱한 얼굴로 형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모두숨을 내쉬고는 의자쪽으로 갔다.

동생이 의자에 앉자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쪽으로 무겁게 걸어가 뒤짐을 지고 바깥을 한참 내다보다가 아까 거리에서 장미혜라는 그 처녀를 만났다고 했다.

《나를 보더니 외면하더구나.》

《…》

《기분이 좋을수야 없겠지. 내가 반대한다는 이야기랑 들었을테니까…》

《난 그런 소릴 안했습니다. 제가 느꼈겠지요.》

《느꼈다? 똑똑한 처녀니까 스스로 느낄수도 있겠지.》

《그 동무 말은 이젠 하지 말아주십시오. 다 끝난지 오랩니다.》

《아주 남남이 됐냐?》

《…》

《그렇게 됐다니 속이 좀 별나구나.》

《형 소원대로 됐지요.》

《나삐 생각하지 말아라. 너를 위해서 그랬다… 그렇게 됐다

면 이젠 딴 마련이 있어야겠구나.》

《무슨 마련이요?》

《장가를 가야 할게 아니냐.》

《장가요? 영영 가지 못할것 같습니다.》

《그건 무슨 소리냐? 반감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소리냐?》

《아닙니다.》

《그럼 왜 그래?》

《제가 무슨 타고난 행운아라고 이제 또 두번째 짝이 앞에 척 나타나겠습니까. 사랑이란 죽음처럼 한번밖에 없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음… 나두 예전에 그런 소릴 들은적이 있는것 같다. 그 대렬참모한테선가 누구한테서… 그땐 련애쟁이들이 푸는 개똥철학이라구 생각했지.》

《형, 다른 얘기가 없으면 가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용서하십시오.》

《정 급하지 않으면 좀 앉아있거라. 너한테 물을게 있다.》

강세룡은 침대로 돌아와 걸터앉았다. 그리고는 침울한 얼굴로 동생을 바라보았다.

《우리야 형제지간이 아니냐. 말하자면 이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사이라고 할수 있지. 너하구 나하구 사이에 무슨 간격이 있어서야 되겠니?》

철룡은 눈을 내리뜨고있었다. 그의 눈섭이 보일듯말듯 씨룩거리였다.

《솔직히 말해봐라. 너는 그때 우리 집에서 왜 나갔느냐? 그때는 일이 바빠서 합숙으로 나간다구 했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어째 발길질을 그렇게 드물게 하느냐? 지나가며 지나오면서두 들릴수 있구 명절이나 휴일에는 얼마든지 올수 있는건데 아예 발길을 끊었으니 어떻게 된 일이냐. 그때 정말 일이 바빠서 합숙에 나갔느냐?》

《물론 꼭 그런건 아닙니다. 좀 생각해보십시오. 장가들 나이도 썩 지난놈이 형네 집에 얹혀사는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형

수가 아무리 잘해줘도… 그저 그뿐입니다. 다른 리유는 없습니다.》

《너는 대답을 회피하는구나. 그런 리유뿐이라면 어째 설명절날에조차 우리 집에 안오느냐? 나하구 멀어졌지? 그렇지? 나두 목석이 아닌이상 느낄건 다 느껴. 너는 내가 싫어졌지? 나한테 원한을 품고있지? 이 형이 왜 그토록 싫어졌는지,미워졌는지 그걸 좀 말해라.》

《형… 아까 형수하고 하는 말을 다 들은 모양인데 그만두지 않겠어요? 난 오늘은 형님 마음을 괴롭히고싶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눈앞이 캄캄해있을 형님한테 저까지 아픈 소리를 하겠습니까?》

《남이 다 됐구나! 그럼 가봐라. 자식…》

그 소리에 철룡은 심각한 눈빛으로 형을 돌아보았다.

《형,사실은 언제부터도 한번 터놓고 말하고싶었습니다. 저는 어릴적부터 형에 대한 자랑을 안고 자랐습니다. 조국해방전쟁의 영웅인 형에 대한 자랑으로 늘 우쭐해서 돌아치며 아무데서나 남한테 짝지지 않았습니다. 아이적에 주먹싸움을 해도 이겼습니다. 에익, 이따위 시시한,어린애같은 이야기는 그만둡시다.… 내가 변해 그런지 형이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형은 이전과는 퍽 다른 사람으로 됐습니다.》

강세룡은 비웃는듯한 얼굴로 물었다.

《너 보기엔 내가 어떻게 변했느냐?》

《형은 자기를 너무 과신합니다.》

《과신한다구?》

《그래요,과신하오!》 동생의 목소리는 갑자기 도전적으로 울리였다.

《무얼 보구 그렇게 말하느냐?》

《나는 형이 밖에 나가 방대한 건설사업은 어떻게 지휘하는지 그건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집안에서는 어떻게 생활하는지 잘 압니다. 형이 언제 한번 이 집안사람들의 의견이나 감정을 존중해 준적이 있습니까. 물론 이건 지나친 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지 않게 됐느냐 생각해보십시오. 이 집에서는 아주머니가 화분을

어디다 놓을 때에도 형의 눈치를 보아야 합니다. 형수가 쓰는 경대도, 아이들의 책상도 형의 마음에 드는 자리에 놓아야 합니다. 형이 다른데 옮기라고 했는데 옮기지 않으면 대뜸 좋지 못하게 생각합니다. 경대야 형수가 쓰는건데 형수가 쓰기 편리한 자리에 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책상도 같지요. … 이건 정말 소소한 문제이지만 나는 이런 소소한 문제를 통하여 형이 어떤 사람으로 되였는가를 느낄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거냐?》 하고 강세룡은 눈을 쪼프릴사하고 동생을 노려보았다.

《그러지 말고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좀 기분 나쁘더라도…》

《좋다, 말해라.》

《말하겠소. 형수나 아이나 이 집안식구들은 모두 형 한사람의 마음에 들게 생활해야 돼요. 이 집에서 살 때 나도 역시 같은 처지였소. 새옷을 만들어입을 때마다 형의 눈치를 살펴야 했고 형이 싫어할가봐 명절날에도 동무들을 집에 데려오지 못했구… 그러나 그런건 다 참을수 있었습니다. 형이 내 사랑을 반대해나섰을 때는 정말 참기… 참기 어려웠습니다. 왜 그토록 반대했습니까? 이제는 내스스로 그 동무에 대한 감정을 다 털어버렸기때문에 이전보다 말하기 한결 헐합니다. 형은 처음엔 그 동무의 환경을 운운하면서 반대했습니다. 그것까지는 리해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내가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고, 자기 의사에 따르지 않는다고 기를 쓰고 반대해나섰습니다. 나를 형도 몰라보는 불손한놈으로 여기며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형의 반감은 그 처녀보다 나한테 더 컸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더 이상 참을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서 나갔지요… 형, 난들 왜 모든것이 나무랄데 없는 배우자를 택하고싶지 않겠소. 그러나 운명인지 그런 처녀가 앞에 나타난걸 어떻게 합니까. 나도 타산도 있고 생각도 있어서 그 처녀를 택했는데 형은 내 생각이나 감정따위는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그렇게 속에서 내려가지 않으면 이제라도 그 처녀

를 데려오려무나.》

《오란다고 올것 같소. 안옵니다.》

《그건 왜? 자존심때문에…》

《자존심따위라면 괴롭지도 않겠소. 그 처녀는 형의 반대 의사를 느꼈기때문에 물러간게 아닙니다. 스스로 떠나가버렸습니다. 영영 떠나가버렸습니다. 환멸을 느끼고… 막말로 말하면 우리가 그 처녀를 차버린게 아니라 그 처녀가 우리를 차버렸습니다.》

《나는 네 소리를 통 모르겠다. 그 처녀가 도대체 무엇에… 무엇에 환멸을 느꼈단말이냐?》

《냄새입니다. 냄새때문이요.》

《뭐라구? 그건 무슨 도깨비같은 소리냐?》

《자기 냄새를 자기가 느끼오? 못느끼지. 나도 형네 집에서 살면서도 그 냄새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처녀는 두번 와보고 그 냄새를 예민하게 느꼈습니다. 역하게 느꼈습니다.》

《무슨 냄새란말이냐?》

《…》

《야, 냄새… 냄새 하지만 말구 빼개놓으란말이야!》

강세룡은 정신없이 소리치면서 분격에 부들부들 떨었다.

동생도 못지 않게 소리쳤다.

《형, 왜 큰소리요? 다 말하겠소. 특수한 존재인체하는 그 냄새요! 이 사회에서 특수한체하는… 조국을 지키는데서 공로를 세우고 당의 신임을 받자 다른 사람들은 얕보게 되였소. 자기만이 당적원칙에 설줄 알고 자기만이 국가적리익의 견지에 설줄 안다고 생각하게 되였소. 자기만이… 자기만이… 내 말을 막지 마오.… 자기만이 옳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감정, 판단은 다 그르거나 부족하고 미숙한게라고 생각했소.

…그래서 자기 건설사업만 중요하고 내가 하는 일은 하찮게 여겼소. 문학예술 전체를 그렇게 봤소. 나는 참기 어려웠소. 형은 이 동생 사랑까지도 못난놈의 들뜬 련애질로 비속하게 여겼소.》

《다 말해라. 네 속을 다 털어놓아.》

《형이 내앞에서 그랬다고 인정하지 않으리라는걸 잘 아오. 그

러나 혼자 생각해보시오. 자기보다 뛰여난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선 소총명이 세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보다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들에 대해선 신경이 허약하다고, 인테리적근성을 털어버리지 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는가요? 형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의사와 감정에만 복종되기를 바랐고 그러지 않는 사람은 싫어했고 더 나아가서 미워했소. 내보기엔 형한테서는 자기를 반성해보는 능력이 점점 약해졌소. 언제 한번 나도 잘못 생각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본적이 있는가요? 없었을거요. 형은 처음에 아니 하면 끝까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으로 돼버렸소. 그 완고하고 강한 의지때문에 자기 마음을 돌려세울수 없었을뿐아니라 아래사람들의 숱한 창발성을 눌러버렸을거요.

보지는 못했지만 아마… 아마… 그래서 이번 사고도 생겼을거요. 그런데 배명준이 그 아저씨가 책임을 져요? 해임돼요? 나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 부국장이 이 집에까지 찾아와서 형한테 무엇인가 제기했다가 부옇게 몰려서 돌아가던 일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때 형수도 너무 안돼서 형을 나무랬습니다. 만약에 그때 부국장이 이런 사고를 예감하고 찾아온것이라면… 나나 형수는 그 내막을 잘 알수 없지만… 또 이 세상 누구도 그 사실을 모르지만… 형이야 잘 알지 않겠소… 만약 그래서 찾아온것이였다면… 정말… 정말 량심이 없지. 형은 도대체 어떤 인간이 되였는가말이요? 나는 형한테, 이때까지 형한테… 의견도 있고 불만도 있었지만 그래도 은근한 자랑을 품고… 나한테 큰일을 하는 형이 있다. … 이런… 이런 자랑을 품고…》

철룡은 고개를 떨구고 끅끅 느껴울었다.

강세룡은 캄캄하게 질린 얼굴로 창문쪽을 멍하니 내다보다가 한숨을 내쉬였다. 그리고는 몹시 섭섭한 얼굴로 조용히 일렀다.

《울기는 왜 울어? 너는 제 형을… 그래도 형인데 너무 험하게 모는구나.》

강세룡은 잠시 말을 그쳤다.

《배명준이… 그 사람이 병원에서 그렇게 한다는건 모르고있었다. 나때문에 사고가 생겼다는건… 그건 네 말이 옳은것 같다.

책임을 지고 해임된다면 내가 해임돼야 해…》

사이문 저쪽에서 누구인가 쓰러지는 소리가 나고 애처로운 신음소리같은것이 터져올랐다. 형수의 울음소리였다.

강세룡은 주먹으로 침대를 내리치며 뛰여일어났다.

《그치오!》

갑자기 휑뎅그렁해진듯한 집안에 쥐죽은듯한 고요가 닥쳤다.

2

흥성거리는 거리의 인도로 물결쳐가는 사람들과 전차정류소에 서있는 손님들이 놀란 눈으로 그를 흘끔흘끔 돌아봤다.

강세룡은 모자를 벗어쥐고 바람에 머리칼을 날리며 건늠길을 건너갔다. 비장한 그늘이 비낀 그의 얼굴과 정신없는 걸음걸이가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던것이다.

전차정류소의 손님들속에서 두 처녀가 그를 알아보고 귀속말로 소곤거렸다.

《우리 부위원장동지야…》

《차도 안타고 어딜 저렇게…》

《무슨 불상사가 생긴게 아니야?》

《가서 물어볼가?》

《가만있어, 꽥하면 어찌자구…》

강세룡은 당중앙위원회의 접수실가까이에 이르러서야 드나드는 사람들이 없고 그 건너쪽에 늘 줄지어있던 차들이 없는것을 보고 비로소 오늘이 일요일이라는것을 깨달았다.

그는 우두머니 서서 당중앙위원회의 창문들을 바라보다가 맥없이 돌아섰다. 그리고는 발길이 가는대로 터벅터벅 걸음을 옮겨갔다.

한시간후 그는 모란봉 최승대옆의 으슥한 숲속에 머리를 싸쥐고 앉아있었다.

(철룡의 말이 옳을수 있다. 다는 아니지만 옳은 소리가 많다.

가슴이 떨렸지만 그 애 소리를 그르다고 할수 없다. …)

아직도 가슴이 선뜩한 도끼날에 수없이 찍히운듯 못견디게 저려나고 온몸에 전률이 일었다. 목에서 피줄이 뛰는 소리가 머리속에 쿵쿵 메아리쳤다.

(제 형을 그렇게 조겨댄단 말인가. 저 애가 언제 저렇게 무서운 놈이 됐는가? 제 형을 그렇게 분석적인 눈으로 보아왔단 말인가…)

문득 자기곁에서 일하는 일군들속에서도 철룡이처럼 자기를 보는 사람들이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배명준이도 그런 사람들중의 하나인지 모른다.

(나는 여태 아래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겠는가 하는데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본적이 없었다. 자기 말과 결론은 언제나 정확하며 아래사람들은 그것을 무조건 받아들여 철저히 집행할 의무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습관되여왔다. 동생에 대해서는 더했어. 그 애는 내덕에 자라났으며 남부럽지 않게 지내왔기때문에 제 형을 고맙게 여기고 친부모처럼 따른다고 생각했지. 간혹 불평조의 말을 하거나 나하구 의견이 맞지 않아 얼굴색이 달라지고 가로달아나는 때도 있었지만 그건 다 행복앞에서의 어리광이려니 하고만 생각했다. 그 애한테 그런 반감이 숨어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다. 아 참 기막힌 일이다.… 지금 생각해보면 배명준부국장을 비롯한 아래일군들중 적지 않은 사람들이 철룡이와 비슷한 의견을 품고있을것 같은데 그것을 입밖에 내비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철룡이만이 오늘 그것을 터뜨렸어. 그 애는 내 친동생이니까 제일 가슴아팠을게고 또 동생이기때문에 말하기도 헐했을것이다. 말덕에 피해를 입을 걱정이랑 없을테니까… 그 애가 한 소리들은 모두 다른 일군들로서는 맞대놓고 말하기 힘든것들이다. 사실 이런 사고가 있기전에 누가 그 절반만한 소리라도 했다면 내가 가만 있었겠는가? 평소에 지내봐서 그들은 내가 어떤 위인인가를 잘 알것이다. 그래서 함부로 의견을 말하지 못했을수 있지. 배명준부국장도 그랬을것이다. 그때 그의 의견을 받아들였다면 이런 사고는 생기지 않았을것이다. 나는 왜 깊이 생각해보지도 않고 일축해버렸던가? 의견도 의견이지만 원래 배명준이… 그 사람을 소심하고 배심도 없는

사람으로 탐탁치 않게 여겼기때문에 언제나 그의 말을 귀담아들으려 하지 않았다. … 이웃나라의 지진에 대한 소리만 나오지 않았던들 그의 의견을 여겨들었을는지도 몰라. 나는 그 소리를 듣자 대뜸 불쾌해졌다. 그가 나를 설복하고, 내 신념을 꺾으려고 별의별 당치 않은 조건까지 다 끌어다붙이며 구실을 만든다고 생각했기때문에… 그래서 왈칵해졌다. 종당에는 그가 국가적리익의 견지에 서지 못하고 자기보신을 위해 그런 의견을 제기한다고 생각하게 되였다. 지금에 와서 결과를 놓고보면 과연 누가 진심으로 국가적리익을 생각한것으로 되는가.

아, 내가 언제부터 아래사람들을 이렇게 얕보게 됐는가…)

강세룡은 수풀속에 벌렁 드러누웠다. 얼기설기 뒤엉킨 나무가지들사이로 파란 하늘이 쳐다보였다. 비자루로 쓸어놓은 자리가 나있는듯한 얇은 구름 몇장이 어디로인가 시름없이 떠가고있었다.

하늘도 저 구름도 어릴적 고향의 버들방천에 드러누워 바라보던 때와 조금도 다름이 없는것 같다. 거기에는 무궁한 세월의 흐름속에서도 영원히 변치 않는 청신하고 고결하고 부드러운 기운이 예나 다름없이 가득차서 설레이는듯하다. 토스레옷바람으로 뛰여다니던 어릴적 가슴에 찰랑거리던 맑고 깨끗하고 순박한 동심은 어디로 사라졌는가. …

구슬픈 애수가 가슴에 흘러들어 눈을 지그시 내리감았다.

(철룡이는 냄새라고 하면서 내 체취를 비난했다. 그런 냄새가 역해서 그 처녀도 외면하고 영영 떠나가버렸다고 했다. 어릴적엔 내자신이 그런 냄새를 얼마나 싫어했던가. 부자놈한테는 부자놈의 체취가 있었다. 순사놈한테는 순사놈의 체취가 있었다. …특수한 존재인체 냄새를 피우면서 군중을 얕보는건… 이건 정말 우리 사회제도의 본질과 원리에도 맞지 않는것이다. 주체교육을 받으며 자라난 새 세대들한테는 그런 냄새가 질색일것이다. 새 세대들은 그런 냄새에 더 민감할수 있다. 아마… 아마… 배명준부국장이나 다른 사람들도 그 냄새때문에 마음속으로 나한테서 점점 멀어졌는지도 모른다. … 나는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점점 모르고 지낸 셈이다. 나는 둔감해졌다. 고독해졌다. 심장이 완고하

게 굳어져 지층의 변화에까지 둔감해졌어…)

산너머 어디서인가 뜨락또르의 동음 비슷한 소리가 울려오더니 직승기 한대가 최승대우를 스칠듯이 날아넘어왔다. 요란한 동음에 하늘이 허물어져내리는듯하고 지나가는 바람에 나무우듬지들이 설레였다. 직승기는 가루개쪽으로 곧추 날아가더니 새로 선 텔레비죤탑우를 천천히 선회하였다.

강세룡에게는 그이를 만날수 있는 행운이 사흘뒤에야 차례졌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집무실에서 그를 만나주시였는데 거기에는 서영림과 박경섭이도 앉아있었다.

강세룡이 방에 들어서자 박경섭은 엉거주춤 일어섰다.

그이께서는 그냥 앉아있으라고 손짓하시고는 강세룡에게 자리를 권하시였다.

강세룡은 그이께서 권하시는 안락의자에 앉지 못하고 응접탁의 끝쪽에 놓인 포의자에 조심스럽게 앉고는 모자를 벗어 무릎우에 올려놓았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응접탁결으로 걸어나오시여 그와 마주앉으시였다.

《그러지 않아도 한번 만나 이야기를 듣고싶었습니다.》

강세룡은 고개를 깊이 떨구고 나직이 말을 시작하였으나 인차 흥분하여 목소리가 떨리였다.

《저는 당앞에, 국가앞에 엄중한 죄를 지었습니다. 이번 사고는 전적으로 저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

그리고 자신을 타매하며 번민했던 모든 생각들을 다 털어놓았다. 자신에 대한 혐오감에 격해지기도 하고 절망에 빠져 비명조로 울리기도 하는 그의 목소리가 방안에 흐르고 **김정일**동지께서는 담배를 꺼내드시였다.

《배명준동무한테는 잘못이 없습니다. 그 동무는 벌써 몸서리치는 사고를 예감하고 불안해져서 저한테 여러번 제기했습니다. 하루는 집에까지 찾아와서 제기했습니다.》

《집에까지… 그게 언제입니까?》 하고 **김정일**동지께서 조용히 물으시였다.

《7월 20일경입니다.》

《7월 20일경 배명준동무가 동무네 집에 찾아갔다는게 사실입니까?》

《예… 제 안해도… 촬영소에 있는 동생도 그걸 기억하고있습니다.》

《동무네는 도대체 어찌자는겁니까?》

김정일동지께서는 매우 좋지 못한 안색으로 책상에 가서 여러장의 편지를 들고와 그에게 주시였다.

《읽어보십시오. 밑줄을 그은데부터… 배명준동무가 당에 무어라고 제기했는가 보십시오.》

강세룡은 두손으로 편지를 받아쥐고 빨간 원주필로 밑줄이 그어진데부터 읽어내려갔다. 손이 부들부들 떨려 편지장이 빨각거리고 글줄들이 물결치여 눈에 잘 잡히지 않았다.

《…이 엄숙한 시각에 당적량심으로 사태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세룡동지가 지하암석층의 운동과 변화에 대하여 민감하게 느끼지 못한다면 저는 기술실무일군으로서, 전문가로서 응당 그에게 사실적인 자료들을 제시하면서 물러섬이 없이 끝까지 설복했어야 할것입니다. 그러는것이 주인다운 립장이고 태도일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부위원장동지가 제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한다고 불쾌해져 신경질적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때 저의 속심을 량심적으로 고백하면 나는 의견을 제기했으니 후에 무슨 일이 생기면 당신이 책임지라는것이였습니다. 이것이 과연 당의 신임으로 중책을 맡은 당원의 립장이겠습니까. 저의 인테리적인 나약성과 기분주의가 이런 몸서리치는 사고를 빚어냈습니다.

… 사고가 터진 그날, 침수된 도갱속에서 단둘이 마주쳤을 때 저는 강세룡동지한테 부위원장동지때문에 이런 사고가 났다고 소리쳤습니다.

병원에 들어와 숨을 돌리고 생각해보니 량심의 가책으로 가슴이 터지는것 같았습니다. 그 암담한 순간에 저는 량심도 없는 비렬한이 되였던것입니다.

저는 10여년동안 강세룡동지와 함께 일해오면서 그가 이런 방

대한 건설을 맡아 지휘할수 있는 의지와 수완과 재능을 가진 일군이라는것을 여러 기회에 절감하게 되였습니다. 과오를 범한 저로서 외람된 제기이지만 지하철도가 완성될 때까지라도 그를 현 위치에 그대로 세워주시기를 청원하는바입니다. …》

강세룡은 단재를 들쓴듯 얼굴이 화끈거렸다. 숨이 막혔다.

그가 고개를 들수 없어 편지지만 뒤적거리는데 **김정일**동지께서 노기섞인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보십시오. 사태의 진상을 솔직히 밝힌다면서 자기가 부위원장동무의 집에까지 찾아갔던 사실은 빼놓았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사고와 관련하여 제기할것이 있다고 해서 한 동무를 내려보냈댔는데 그 동무한테도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실은 빼놓았습니다. 그러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는지 그런 청원서까지 써보냈습니다. 이건 도대체 뭡니까. 사실은 사실대로 밝혀놓고 책임질 문제는 책임져야 하지 않습니까. 조직적으로 누가 어쩌지도 않는데 먼저 앞질러서 책임이요, 해임이요 하고 이러는건 도대체 뭡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후에 따끔하게 비판을 줘야 할 일이지만 부위원장동무, 배명준동무의 인간적인 심정만은 리해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생각되는바가 없습니까?》

김정일동지께서는 부드러운 안색으로 박경섭이도 돌아보시였다.

《이런 심정을 지닌 동무가 집에까지 찾아왔을 때에는 그의 마음속에 부위원장동무를 돕자는 진심외에는 아무것도 없었겠는데 어째서 그토록 외면해버렸습니까? 아래일군의 제기를 그토록 묵살해버린 자신을 두고 더 깊이 생각해봐야 합니다. 관료주의이니 주관주의이니 독단이니 하는 일반적인 분석으로는 그 원인을 똑바로 찾아낼수 없습니다. 그렇게 된데는 구체적인 사상감정과 심리가 작용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얼마전에 한 당학교 강좌장과 이야기를 나눈적이 있는데 그 동무는 관료주의도 깊이 따져보면 그 원인과 표현이 다 시대적인 성격을 띤다고 했습니다.

광복직후의 관료주의는 일제의 사상잔재와 사대주의, 교조주의의 영향에 근원을 두고있었다면 일제의 사상잔재가 청산되고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이후 시기에 나

타난 관료주의는 다른 사상에 근원을 두고있다고 했습니다. 언제인가 수령님께서 관료주의에 대하여 사상과 방법의 종합적표현이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우리 일부 일군들은 관료주의적작풍에 대하여 비판을 받으면 방법에 대해서는 검토해보나 자기 사상감정에 대하여서는 반성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어는 사상이 넘쳐나서, 당과 혁명에 대한 충실성이 지나쳐서 관료주의까지 부리게 됐다고 생각하는 위인들도 있습니다.》

강세룡은 손수건을 꺼내여 이마의 식은땀을 훔치였다.

《저도 이번에 사고를 저지르고나서 오래간만에 자신의 사상감정을 랭혹한 눈으로 들여다보게 되였습니다. 부국장동무의 제기를 일축해버린것은 전적으로 제 사상감정에 병이 들었기때문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어떻게 된 판인지 어느새 남들의 충실성이나 진심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였습니다. 쩍하면 의심하게 되였습니다. 그래서 부국장동무가 그런 의견을 제기하는것도 소심성때문이라고, 심장이 허약하고 신념이 흔들렸기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 제가 사람들을 얼마나 얕보았으면… 저는 정말 인간이 아닙니다.》

《자기를 너무 허무적으로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자기를 그렇게 부정한다고 결함이 고쳐지는건 아닙니다. 동무는 지금 자기 한생에서 가장 어려운 고비를 겪고있는 때인것만큼 강한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는 안됩니다. 강한 의지로 자기를 지탱하며 어째 그렇게 되였는가를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그 원인을 찾아 심각한 내부투쟁으로 극복해야 다시는 그런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을게 아닙니까.》

강세룡의 눈에 물기가 핑 어리였다.

《사람들을 함부로 얕보고 의심하는건 우선 동지적이 아니고 인간적이 아니지요. 건전한 인간적인 감정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얼마전에 유럽문화를 돌아보고온 영화연출가들이 나한테 와서 아주 심각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인간성을 부정하고 말살하는 퇴폐적인 자본주의문화가 지구의 서반구쪽에서 휩쓸어오고있다고…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빈부의 차가 심하고 돈있고 권세있는놈들이 돈

없고 권세없는 대중을 무시하고 멸시하는것이 하나의 사회적풍조로 되고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누가 누구를 멸시할수 있게 하는 사회적근원이 없습니다. 원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또 그런 사상감정을 고취하는 문화적인 조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동무는 그런… 그런 과오를 범하게 됐습니까? 어디서 영향을 받았습니까?》

그이께서는 안타깝게 말씀하시였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믿었던 일군들한테서 이런 과오를 발견하게 되면 정말 분해집니다. 괴롭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라고 시킨것 같으면서… 그런 사상감정을 조장시키는 경제적토대도 없고 정신문화적영향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사상감정은 우리가 건설하는 사회의 총체적인 원리와 목적에도 배치되는것입니다. 우리 혁명의 출발점과 종국적인 목적에도 어긋나는것입니다.》

강세룡은 또다시 손수건을 꺼내여 이마의 식은땀을 찍어내였다.

《어떤 동무들은 당에서 특별히 신임하여 중책을 맡기면 인차 자기한테 그런 자격이 있어서… 자기가 자격자여서 응당한 신임을 받은것으로 생각합니다. 자격이 모자란다고 생각하는 동무들은 당조직과 군중에 의거하여 신중하게 일하지만 자격자로 자처하는 사람들은 엄중한 과오를 범하기 쉽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자기를 남들보다 아주 뛰여난 특별한 존재로 여기고 자기사고, 자기 판단, 자기 감각이 다른 사람들의 그것들보다 뛰여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습관되면 저도 모르게 당조직이나 군중의 의사를 소홀히 대하거나 아주 무시해버리기 일쑤이기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례외없이 군중우에 군림해서 자기한테 부여된 당권이나 행정권으로 전횡을 부리면서 사람들의 창발성을 억누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당정책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척도로 해서 일하게 되고 결국에는 당도 몰라보게 됩니다. 이건 거의 철칙입니다.》

강세룡은 머리를 무겁게 숙이였다.

《제가 바로 그렇습니다. … 그런놈입니다.》

응접탁모서리에 비방울같은것이 떨어졌다.

강세룡은 그것을 팔소매로 훔치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

었다.

《지난날 응당 할 일을 한 저한테 공로가 있다고 큰 훈장도 달아주고 공부도 시키고 발전도 시켜 중책을 맡겨주니 이런놈이… 이런 어리석은놈이 됐습니다.》

《그걸 압니까?》 그이께서 무겁게 말씀하시였다.

《…》 강세룡은 대답하지 못했다.

침묵이 흘렀다.

《동무는 자기한테 맡겨진 행정권을 어디에다 쓰라는겐지 생각해본적이 있습니까?》

《…》

《창발성을 억누르라고 준줄 압니까?》

그이의 준절한 음성이 방안공기를 선뜩 얼어들게 하였다.

《…》

이윽고 강세룡이 머리를 천천히 들었다. 그는 눈언저리에 물기가 번쩍거렸지만 된매를 맞고 속이 후련해진 사람처럼 얼굴빛이 좀 밝아졌다.

《일전에… 촬영소에 있는 동생이 찾아와서 저를 부엉게 몰아주었습니다. … 형은 자기보다 뛰여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소총명분자라고 눌러버리지 않느냐고. 저한테선 젠척하는… 특수한 존재인척하는 역한 냄새가 난다고 몰아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주먹이 떨렸지만 할 소리가 없었습니다. 허…》

그는 주눅이 좋게 빙그레 웃어까지 보였다.

김정일동지의 안광에도 미소가 어리는듯하였다.

《형제지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건 괜찮은 일입니다.》

그런데 강세룡은 갑자기 얼굴을 뒤로 젖힐사하며 흐느끼듯 숨을 헉 들이켰다. 순간에 그의 얼굴빛이 더 컴컴하게 꺼졌다.

《저는 가정에서도 구실을 쓰게 못했습니다. 동생한테 짝이 생겼는데 처녀의 환경을 의심해서 제가 끝끝내 반대했기때문에 그 사랑도 깨지고말았습니다. 동생 가슴에도 그 처녀 가슴에도 상처를 입혔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 안색이 신중해지시였다.

《어디 있는 처녀입니까?》

《촬영소에 있는 장미혜라는 처녀입니다.》

《촬영소에?》 하고 그이께서 박경섭을 돌아보시였다.

처음 듣는 사연에 어정쩡해진 박경섭이 엉거주춤 일어나며 말씀드렸다.

《장미혜라고 분장실에 있습니다. 분장미술가입니다.》

《그 처녀 어머니가 촬영소에서 나오게 되자 제가 환경을 의심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어머니가 누구입니까?》

박경섭이 또 말씀드렸다.

《리명선입니다. 금년초에 촬영소에서 나갔습니다.》

《어째 내보냈습니까? … 좋습니다. 그 문제는 딴문제입니다. 후에 이야기합시다.》

그이께서는 시선을 돌려 강세룡을 지켜보며 갈린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자기 과오의 원인을 더 깊이 생각해봐야 하겠습니다. 더 깊이… 어제 거기 당위원회에서 부위원장동무 학습정형을 알려왔는데 1년에 소설책 한권 보지 않았고 영화도 얼마 보지 않았더구만요.》

강세룡은 얼굴빛이 거멓게 질리며 괴로운 한숨을 내쉬였다.

《동생도 조겨댔지만… 저는 영화나 문학예술을 구경거리로 알며 정말 하찮게 여겨왔습니다. 영화를 하는 동생까지 얕보았습니다. 요즘 당에서 문학예술에 관심을 돌리는것도 거기가 복잡한데니까 포섭하느라구 그러는줄 알았습니다.》

《그게 정말입니까?》

김정일동지께서는 거의 아연해진 안색으로 그를 지켜보시였다.

《책임적인 자리에 있는 부위원장동무가 그렇게 생각했단말입니까?… 예?… 수령님께서 여가가 많아 촬영소에 나가 당정치위원회를 열고 영화문제를 토의하신줄 압니까. 우리가 할일이 없어 영화나 문학예술을 붙잡고 이러는줄 압니까. 아무리 도시와 공장들을 번듯하게 건설해도 사람들의 사상정신상태가 허약하면 나라가 절대 부강해지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국민들의 정신도덕상태가 허

약해지고 썩어문드러져 흔들리고 망해가는 나라가 한둘인줄 압니까. 부위원장동무네가 하는 눈에 보이는 건설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건설이… 문학예술을 통해 사람들의 정신사상상태를 똑바로 세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정신문화건설이 어떤 의미에서는 몇배 더 중요하고 또 어렵습니다.》

그이의 음성은 흥분에 떨리였다.

《영화 한편 만드는데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는데 책임적인 지위에 있는 일군이 그걸 한날 구경거리로 본단말입니까. 사고를 칠수밖에 없습니다. 부위원장동무는 체구도 좋고 공로도 있고 직위도 있지만 사상정신적인 속대가 굳건하지 못하니 보시오, 어떻게 됐습니까? 아래일군들에 대한 사상관점이 똑바로 섰더라면 그런 사고를 쳤겠습니까. 개인도 사회도 국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상정신적인 지주가 굳세지 못하면 골조가 허약한 건축물이 웬만한 지진에도 허물어지는것처럼 다… 다 허물어지고맙니다! 이번 사고는 매우 교훈적인것입니다. …》

강세룡은 고개를 숙이며 코물을 들이켰다.

《교훈으로… 피의 교훈으로 삼겠습니다!》

《세포에서부터 자기비판을 해올라왔더라면 더 좋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윽고 강세룡은 그이께 인사드리고는 돌아서 기운차게 걸어나갔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가 사라진 문쪽을 지켜보며 움직일줄 모르시였다. 그이의 어깨가 조용히 오르내리는듯하였다. 어디에서 바스락소리 하나 들려오지 않았다. 강세룡은 이 방안의 공기속에 무엇인가 눈에 보이지 않는 무거운것을 남겨놓고 사라진듯하였다.

시간의 흐름마저 멎어선듯한 고요속에서 박경섭은 그이의 뒤모습만 지켜보았다. 서영림은 안경을 벗어 닦으며 의아해하는듯한 눈으로 그이며 박경섭을 둘러보았다.

이윽고 **김정일**동지께서 그들쪽으로 돌아서시였는데 매우 밝은 안색이였다.

그이께서는 시원한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과오는 범했지만 솔직하오. 나는 저런 동무들을 사랑하오. … 전국 모든 단위들에서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영화의 주인공과 자기를 비교하며 사업과 생활을 반성해보고 영화의 주인공들을 따라배우는 사회적운동을 벌려야 하겠소.》

박경섭은 그이의 말씀을 받아쓰고 서영림은 격동된 얼굴로 그이를 우러러 쳐다보았다.

그이께서 문득 화제를 돌리시였다.

《그 한기석이라는 동무는 요즘 어떻게 일하고있습니까?…》

《비판도 성실하게 하지 않았고 우울하게 지냈는데 주영도동무한테 찾아와서 다시 자기비판하고 요새는 부연출사업도 괜찮게 하고있는것 같습니다.》

《어느 부문에서나 그런 병집은 헐하게 고쳐지지 않는데 잘 도와줘야 하겠습니다. 창조사업과정을 통해 자신을 철저히 혁명화하도록… 그리고… 나도 좀 생각해봤는데 그 동무의 결함과 관련하여 다른 측면에서 고려해볼 문제도 있습니다.》

그이께서는 지난 시기 연출가와 부연출사이에 남아있던 도제관계와 비슷한 요소를 깨끗이 가셔내며 연출가는 물론 지도일군들이 부연출들의 발전에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어떤 동무들은 연출가로 발전시키며 어떤 동무들은 희망에 따라 일생동안 부연출로 있으면서 자기 경지를 개척하도록 하고 창조사업에서 공로가 크면 명예칭호도 수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동무들도 사업에서 성수가 나지 않겠습니까.》

박경섭은 그이의 다심한 사랑에 가슴이 후더워졌다.

3

김정일동지께서는 매일과도 같이 촬영소에 내려와 《꽃파는 처녀》의 연출대본수여식이며 의도발표회에 참가하시였으며 제작

단의 촬영준비를 친히 보살펴주시였다.

촬영소의 공기는 팽팽하게 긴장되여있으면서도 명절날처럼 환희와 열정,흥분으로 설레였다.

로영무는 자기가 생애에서 가장 의의있는 시기에 들어섰다는 가슴뿌듯한 감격을 느꼈으며 이 세상에 새로 태여난듯한 환희에도 종종 휩싸이군하였다. 지난날의 모든것은 별반 의의가 없고 의의있고 값있고 보람있는 일은 모두 앞에 있는것 같았다. 오랜 연출생활의 체험으로 로영무는 연출가의 정서상태와 표정이 제작단에 미치는 영향을 잘 알고있어 우선 자신이 작품의 시대상과 인물들의 성격을 진지하게 연구하였으며 언짢은 일이 생겨도 낯색을 흐리지 않고 늘 밝으면서도 사려깊고 사색적인 얼굴로 사람들을 대하였다.

촬영현지로 떠나기 위한 준비에 온 제작단이 들끓고있던 어느날 오후 로영무가 현지촬영계획서를 가지고 당중앙위원회 해당부서로 떠나려는데 한기석이 유쾌한 얼굴로 앞을 막아섰다. 그러한 《사신》으로는 내가 제격이라고 롱말까지 섞어가면서 자기가 가겠노라고 했다. 제작단에 할 일이 많았던 로영무는 그가 여간 고맙지 않았다. 그는 비판받은후 모든 일에 적극적이였다.

한기석이 떠나서 세시간쯤 지나 박경섭이로부터 로영무한테 직접 전화가 왔다. 현지촬영계획서를 가진 한기석이 자기를 찾아 시당으로 나갔다는데 자기는 그 사이 대극장에 왔다고 하면서 그가 아직도 안오는것으로 보아 촬영소로 돌아간것이 아닌가고 물었다. 박경섭은 오늘밤중으로 그 계획서를 **김정일**동지께 올리지 않으면 여러날이 지나야 지도받을 기회가 다시 생긴다고 하면서 몹시 초조해하였다. 무엇인가 혼란이 일어난것이 틀림없었다. 한기석은 박경섭이 대극장에 간것을 모르고 이 기관에서 저 기관으로 찾아다니는것 같았다.

로영무는 당황해져 구체적인 타산도 없이 한기석을 찾아 떠났다. 시내로 달려나온 그는 중앙우편국옆에 이르러서야 자기가 막연하고 황당한 걸음을 걸었다는것을 깨달았다.

어디에나 사람들의 물결이 붐비는 이 넓은 시내에서 신장 170센치메터의 그를 찾기란 풀밭에 떨어진 바늘을 찾기보다 더 어려운

일임에 틀림없었다. 제작단에 있는 그 계획서의 부본을 복사해서 올려보내면 간단히 해결될수 있는것인데 어째서 그런 생각을 못했는지 알수 없었다. 그는 너무 어이없어 주먹으로 제 머리를 툭 치고는 제작단에 곧 전화를 걸어야 하겠다고 생각했다.

중앙우편국의 시내공중전화실들앞에는 사랑에 빠진듯한 청춘남녀들이 차례를 기다리고있어 끼여들것 같지 못했다.

로영무는 어디에 가면 전화를 헐하게 걸수 있을가싶어 대통로로 나가 모란봉쪽으로 스적스적 걸어내려갔다.

대동강호텔앞을 지나 고급리발관앞에 이르러 그는 무심결에 리발실안을 들여다보았는데 넓은 유리창안의 푸르싱싱한 고무나무가지들사이에 웬 서류봉투가 끼여있는것이 눈에 띄였다. 한기석에게 줘보낸 봉투였다.

제작단의 《사신》은 리발의자에 엇비스듬히 누워있고 나이 지숙한 아바이리발사가 그의 얼굴에 비누거품을 허옇게 칠하고있었다.

로영무는 반가움보다도 놀라움이 더 컸다. 그는 안을 들여다보다가 슬그머니 물러나 벽에 등을 붙이고 섰다. 한기석은 온 시내를 헤매였거나 시당에까지 가보고 단념했을수 있었다. 어쨌든 리발의자에 누워있는 그를 보니 아연해지고 불쾌해졌다. 그런가 하면 태평스러운 마음이 천진하게도 여겨졌다. 한편 일이 이렇게 된것은 박경섭의 분망한 사업때문이지 그의 탓은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어쨌든 이런 공교로운 일로 그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싶지 않았다.

천성이 성실한 로영무는 이제 그가 당황해하고 죄송스러워하리라는 생각이 들자 대기실에서 리발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가 하는 마음도 없지 않았으나 박경섭의 독촉을 생각하면 그렇게 할수 없었다.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 리발실문을 조용히 열었다.

그는 리발하는 손님들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누구의 주의도 끌지 않도록 허리를 약간 구부정하고 발끝으로 조심조심 걸어들어가 리발사의 량해를 구하고 한기석의 어깨를 부드럽게 건드렸다.

한기석은 민감하게 반응하여 눈을 떴다. 그는 무슨 생각에 골똘해있었는지 서늘한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로영무는 고무나무쪽을 가리키며 저걸 가져가겠노라고 했다. 한

기석은 그제야 현실로 돌아온듯 당황한 빛을 띠며 리발의자에서 일어나려고 했다.

로영무는 젊은이의 어깨를 눌러 도로 눕히고는 마음을 가라앉혀주려고 비누거품이 허연 눈섭이며 턱밑을 살펴보는척했다. 그리고는 리발사아바이한테 평양에서도 손꼽히는 미남인데 잘 손질해달라 부탁하고 기석에게 눈을 끔쩍해보였다.

서류봉투를 안고 밖으로 나온 그는 스스로도 기분이 좋고 마음이 홀가분해져 대극장쪽으로 헐떡거리며 뛰여갔다.

대극장의 후문접수에서는 그의 신분을 깐깐히 확인하고 안에 전화를 걸어 승인을 받은 다음에야 출입증을 떼주었다.

대극장안의 공기는 팽팽하게 긴장되여있었다. 가극《피바다》의 시연회가 시작되여 무대뒤쪽의 복도들과 대기실,분장실들은 역인물로 분장한 수백명의 배우들로 붐비였다.

로영무는 모험을 즐기는 젊은이의 마음이 되여 그들속을 거침없이 누벼나가 객석쪽의 복도로 빠져나갔다. 거기는 무대뒤쪽과는 달리 숙연한 정숙이 깃들어있었다. 무리등불빛이 쪽무이마루바닥에 어려있는 넓고 긴 복도에는 인적기라고는 전혀 없었다. 무대쪽에서 울려나오는 관현악의 은은한 선률만이 공기를 조용히 흔들고있을뿐이였다.

로영무는 방음장치가 된 두꺼운 가죽문쪽으로 다가가 문틈에 볼을 대고 음악소리에 귀를 기울이였다. 안에서는 말소리,기침소리 하나 없고 서정적인 음악의 세계가 바다처럼 설레이고있는듯했다.

누구인가 팔굽을 잡아채였다. 관리원인듯한 코에 안경을 느슨하게 건 강마르고 작달막한 중년녀인이였다.

《누구세요？》

《들어가면 안됩니까？》

《아－니,이 손님이？ 정신이 있어요？ 만날분이 있으면 휴계실에서 기다려요.》

녀인은 언짢은 눈길로 그의 아래우를 훑어보고는 따라오라는듯 휴계실쪽으로 걸어갔다.

로영무는 한숨을 짓고 그의 뒤를 따랐다.

얼마후 그는 관리원과 장의자에 가지런히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게 되였다.

가극극장의 오랜 의상사였던 그 녀자는 젊어서 한때는 단역이나 군중역으로 무대에 나선적도 더러 있었는데 지금은 위생실이나 복도의 청소나 하니 모두 얕보아 어느 누구도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한숨지었다.

그 녀자는 좀 수다스러운편이나 오랜 의상사생활에서 들은 풍월도 있어 예술과 예술인들의 뒤생활에 대하여 많은것을 알고있는것 같았다.

《뒤쪽으로 해서 슬그머니 들어가면 안될가요?》

관리원은 문외한의 소리라는듯 약간 멸시적인 눈으로 그를 돌아보았다.

《안됩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영화상영하고는 달라요. 문소리가 나도 그렇고 복도의 빛이 흘러들어가도 분위기… 분위기가 다 깨져요. 가극이니까요.》

《허 가극이라… 그럼 그만둡시다.》

《노엽게 생각 말아요. 지금 모두 얼마나 긴장돼있는지 알아요? 총장동지랑 연출가선생이랑 모두 식은땀을 흘리며 앉아있을거예요. 관통련습을 다섯번이나 했는데 매번 엄청난 실수가 생겼고 형상이 뜻대로 되지 않았거든요. **김정일**동지께서 거의 매일 나와 지도해주셨고 노래만 해도 2천여곡이나 친히 들어보고 골라주셨는데 무대형상이 잘못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번 가극만 잘되면 이런 새 형식의 혁명가극들이 수태 쏟아져나온대요. 〈꽃파는 처녀〉, 한 자위단원의 뭐라는거랑, 〈밀림아 이야기하라〉랑… 어떻게 되겠는지…》

관리원은 조용히 한숨까지 내쉬였다.

《처음부터 된다 안된다 론쟁도 많더니 에휴…》

로영무는 문득 고일명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되살아올라 마음이 긴장되였다.

《론쟁이 많았던게지요?》

《위생실청소나 하는 우리까지 알게 됐으니 더 말할게 있나요.

새 작품을 창조할 때면 론쟁이 있기마련이지만 이번엔 완전히 새 형식의 가극이거든요. 노래들은 몽땅 절가형식이고 방창, 환상무용, 립체적인 무대장치, 주고받는 말들은 모두 대사로 하고… 완전히 혁명이야요. 고일명선생을 아세요? 작곡가 말이예요.》

《예… 좀…》

로영무는 가슴이 뜨끔해졌다.

《그 선생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가요? 그 선생도 저기 시연회에 참가했는가요?》

《참가했겠지요.》

《극장에서 그 선생은 평판이 어떤가요?》

그가 지나친 호기심을 드러낸탓인지 그 녀자는 움츠러들었다.

《글쎄요… 청소나 하는 잡뱅이가 그런것까지야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는 가슴이 꺼지도록 한숨을 내쉬였다.

《에휴—… 모두 밤을 패며 련습했는데요… 어떤 배우들은 무대뒤에서 잠간 쪽잠을 자고는 새벽까지 련습했어요. 출퇴근시간이 다 없어졌지요. 가족들까지 떨쳐나서 식사를 지어오고 간식을 가져오고… 어떻게 되겠는지. …》

관리원은 불안감에 앉아있을수 없는지 어디로인가 나가버렸다.

로영무는 눈을 지그시 내리감고 의자에 비스듬히 기대여 앉아있다가 갑갑증이 나서 복도로 다시 나가 공연히 왔다갔다 거닐며 무대쪽에서 울려나오는 합창소리에 귀를 기울이였다.

갑자기 만세의 함성이 울려나왔다. 그 함성은 그칠줄 모르고 계속 터져올랐다. 복도의 공기가 설레였다. 가극속의 만세소리인지 객석에서 터져오르는 함성인지 분간할수 없었다.

로영무가 얼떠름해져 두리번거리는데 측면 출입구쪽에서 아까 그 관리원이 뛰여오며 끝났다고 손짓하였다.

그가 출입구쪽으로 달려가는데 출입문이 열리며 **김정일**동지께서 흥분된 안색으로 활달하게 걸어나오시고 그뒤로 서영림을 비롯한 가극단일군들이 우르르 밀려나왔다. 그들속에서 박경섭이며 리문학의 얼굴도 보였다.

박경섭은 인차 로영무를 알아보고 그에게로 다가와서 현지촬영계획서가 든 서류봉투만 받아가지고는 래일 만나자는 말을 남기고 귀빈실쪽으로 뛰여갔다.

로영무는 서운한 생각이 없지 않아 돌아서지 못하고 그냥 서있다가 안에서 쏟아져나오는 예술인들에게 둘러싸이고 말았다.

그들은 흥분과 격정에 넘쳐 진정 못하고 설레이면서 왁작 떠들어대였다.

《성공… 대성공이요！》

《방창이 정말 좋구만！》

《〈피바다가〉가 저렇게 울릴줄은 몰랐소！》

《그이께서 무대를 향해 박수를 쳐주실 때 눈물이 쏟아져 겨우 참았소！》

로영무는 그들속에 혹시 고일명이 있지 않을가싶어 두리번거리였다. 그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누구한테나 그를 못봤느냐고 물어보고싶었지만 창피한 생각이 앞서며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로영무는 미심결에 객석안으로 들어가보았다. 아직도 높다란 천정밑에서 환성의 메아리가 날아도는듯한 관람석의 저쪽구석에 한사람이 앞의자의 등받이에 이마를 붙이고 엎드려있었다. 고일명이 틀림없었다.

로영무는 그에게로 다가가 어깨를 흔들었다.

《고형…》

그는 모진 비감에 이그러진듯한 얼굴로 홱 돌아보더니 신경질적으로 일어났다. 그리고는 한마디 인사말도 없이 통로를 따라 출입구쪽으로 결패스럽게 걸어나갔다.

로영무는 가슴이 서늘하게 식어들어 그의 뒤를 따라갔다.

고일명은 극장밖으로 나가 대동강쪽으로 걸음을 다그쳤는데 강안 유보도의 화강석란간앞에 이르러 뒤따라온 그를 돌아보며 사정하듯이 말했다.

《왜 여기까지 따라왔소？ 제발 날 좀 내버려두오. 난 혼자 있고싶소. 혼자 좀 생각해보고싶소.》

《여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제발… 말시키지 말아주오.》

《그럼 돌아가겠네. 젠장 피벽을 좀 작작 부리라구. 우리 둘사이에야 말 못할게 뭐 있는가.》 로영무는 울컥해져서 좋지 못한 소리가 나갔다.

고일명은 그를 외면하여 화강석란간에 배를 붙이고 대동강의 흐름을 묵묵히 바라보았다. 번들거리는 물결이 반사하는 가로등불빛이 그의 얼굴에 어른어른 그림자를 그리였다.

《아…》 그는 이렇게 탄식하며 가슴이 꺼지도록 한숨을 내쉬였다.

《저이는 과연 어떤분이신가. 어떤 심장을 지니신분이요? 시연회에 그이가 나오시자 나는 자책감과 또 두려움도 없지 않아 동무들뒤에 숨다싶이 했네. 누구한테나 얼굴을 보이고싶지 않았네. 그이는 객석에 들어와 자리를 잡으시자 내가 어째 보이지 않느냐고 나부터 찾았소. 가까이 와서 앉으라고 하셨네. 가극이 끝났을 때는 나를 돌아보시며 어떠냐고 진지한 안색으로 물으셨네. 나는 그런 진지한 얼굴을 여태 본적이 없소. 그이 발치에 엎드리고싶었소. 가극은 정말… 정말 훌륭하네. 이건 완전히 새것이요! 세상에 이런 가극은 없네!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될 가능성을 보지 못했는가. 리문학이와 다른 동무들의 말을 고집스럽게 믿지 않았는가. 우리 조선사람들은 정신문화령역에서는 새것을… 위대한것을 창조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기때문인가. 나는 과연 어떤놈인가. 혼자서 깊이… 깊이 생각해보고싶네… 날 건드리지 말아주오. …》

로영무는 가슴을 누르던 무거운 시름이 순간에 녹아내리면서 이름할수 없는 기쁨이 솟구쳐올랐다.

그는 고일명의 두손을 으스러지게 잡아쥐고 말없이 그의 얼굴을 지켜보았다.

《이러지 말구 좀 걷자구.》

이윽고 그들은 대동문쪽을 향해 천천히 걸어내려갔다. 둘 다 말이 없었다.

시원한 강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대동강은 기슭의 갖가지 불빛들을 다 담아싣고 유유히 흐르고 있었다. 소리는 없으나 거창한 흐름이였다.

제 8 장

1

교외의 자동차길을 따라 평양쪽으로 달리는 승용차안에서는 농촌가을의 정취와 풍년수확에 대한 이야기가 떠들썩하게 벌어지고 있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오후 박경섭을 데리고 교외 몇개 농장의 가을걷이형편을 돌아보고오시는 길이였다.

뒤좌석에 편안히 앉아계시는 그이께서는 벼와 강냉이,파일 등의 흐뭇한 수확을 두고 박경섭이며 운전사와 스스럼없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노상 밝은 미소를 띠고계시였다.

가로수에서 날아떨어지는 단풍이 든 락엽들이 앞차창유리에 붙어 한들거리다가 어디로인가 휘 날아가군하였다.

그이께서 화제를 돌리시였다.

《현지에 나간 〈꽃파는 처녀〉 제작단에서 무슨 제기된 문제가 없습니까?》

《예… 아직은…》

《주인공역이 제일 걱정되거든. 나이가 어린데다가 처음 출연하지. 참 마음을 놓을수 없단말이요.》

꽃분이역을 맡은 손영실은 량강도 두메산골 태생이고 나이는 17살,아버지는 없고 어머니는 군인민위원회 지도원… 처녀는 중학교 졸업반에서 선발되여 촬영소배우양성반에 들어와 배우수업을 하고있었는데 인민학교와 중학교때 예술소조공연무대에 몇번 서본 경험이 있을뿐이였다.

손영실은 모색이 아련한데다가 웃을 때 눈을 살며시 내리깔며 눈꼬리와 입가에 보일듯말듯 구슬픈 빛을 띠였는데 아마 그것이 꽃

분이와 비슷한 인상을 풍겨 선발되였는지도 모른다.

《처음 꽃분이분장을 할 때 짚신을 거꾸로 신었다는게 사실인가요?》

《다시 알아봤는데 사실입니다.》

《허… 야단이군. 완전히 새 세대요. 짚신을 어떻게 신는지도 모르니까 20년대,30년대 농촌처녀의 생활세계를 어떻게 리해할수 있겠소. 나이는 겨우 17살인데 반세기전에 산 처녀의 눈물겨운 생활을 형상해야 된단말이요. 참 어려운 과제요. 작품의 성공여부는 주인공의 연기형상에 결정적으로 달려있는데 그 동무가 잘못하면 다 허물어지오.》

김정일동지께서는 연출대본완성과 촬영준비단계에서 빈틈이 없도록 지도를 아끼시지 않았고 필요한 모든 조건을 보장해주시고 촬영현지로 떠날 때에는 작품토론때문에 늦어진 연출가를 비행기까지 태워 보내시였다. 그러나 제작단이 먼곳에 가있는 지금 새라새로운 걱정이 자꾸 들며 도무지 마음을 놓으실수 없었던것이다.

박경섭이도 불안이 한두가지 아니였지만 말은 다르게 나갔다.

《로영무연출가가 연기지도를 잘하기때문에 문제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떠나기전에도 손영실에게 특별히 힘을 집중하여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촬영지에 나가 농촌생활체험도 시키기로 했습니다. 연기지도는 승진동무가 잘한다고 했지만 로영무연출가는 자기식대로 우수한데가 있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갑자기 말씀이 없으시였다. 두 연출가를 비교한 그의 말이 가버린 전사에 대한 아픈 추억을 불러일으켰던것이다.

저 멀리에 수도의 불빛바다가 내다보였다. 생기를 띠고 반짝거리는 그 하나하나의 불빛들은 끝없는 사연을 속삭이고있는듯했다. 승용차가 시내에 들어서자 그이께서는 내내 차창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흘러가는 거리의 풍경만 내다보시였다.

가로수들의 락엽이 점점이 떨어진 인도로는 벌써 가을옷차림을 한 사람들이 분주히 오갔다. 형광등불빛이 환한 리발소며 꽃방,

식료품상점, 차집안에서도 사람들의 그림자가 어른거리였다. 가로수의 그림자속에 숨어서 누구인가를 기다리는 처녀의 모습이며 아빠트의 으슥한 모퉁이에 마주서있는 청춘남녀들의 그림자들도 언뜻언뜻 흘러지나갔다.

승용차가 보통교에 들어섰을 때 그이께서는 운전사에게 차를 좀 천천히 몰라고 이르시였다.

흐르는듯마는듯한 보통강의 수면에 유보도의 가로등불빛들이 거꾸로 비껴들어 현란하게 번쩍거리는 빛의 주랑을 그리였는데 그 량쪽 유보도로는 형형색색의 옷차림을 한 청춘남녀들이 쌍을 지어 거닐고있었다. 잔디밭의 의자들에 앉아있는 청년들, 수양버들밑에서 걸어나오며 떠들어대는 젊은이들, 잔디밭에서 서로 쫓거니 쫓기거니 돌아치는 조무래기들, 한 중년의 남자가 아기를 안고 안해와 어깨 겯고 나란히 걸어오다가 강쪽으로 돌아서서 물결을 바라본다. 가로등의 불빛이 물결우에 부서지며 수많은 불꽃들이 튀는듯한 기묘한 조화를 부리는가 하면 다리로 지나가는 전차우에서 전광이 펑긋거릴 때마다 가까운쪽 검푸른 수면으로 은백색번개가 날아지나간다.

거리와 유보도의 그 모든 풍경이 개인적행복을 한껏 누려보지 못하고 떠나간 예술가에 대한 그리움을 자아냈다.

《그새 최승진동무네 집에 가본 일이 있습니까?》

《가보지 못했습니다.》

박경섭은 가책에 가슴이 찌르르 저려들었다.

《젊은 아주머니가 아이들만 데리고 어떻게 지내는지… 아주머니는 편집실에 넣었다지요?》

《예… 촬영소에서 잘 돌봐준다고 해서 안심하고있었습니다.》

《곁에서 아무리 잘 봐준다고 해도 의지하며 살던 남편이 없으니 얼마나 허전하고 외롭겠습니까. 우리 오늘 좀 들려보지 않겠습니까?》

보통교를 도로 건너간 승용차가 영화예술인아빠트앞에 이른것은 10여분후였다.

아빠트의 창문들에서는 밝은빛이 환히 흘러나왔는데 높은 층의 어느 한 집에서는 결혼식이라도 벌렸는지 떠들썩한 웃음소리, 박

수소리, 손풍금소리까지 흘러나왔다.

박경섭이 먼저 차에서 내리는데 한 젊은 녀인이 숨이 넘어가는 소리로 울어대는 사내아이를 업고 현관에서 나와 차앞으로 황황히 지나갔다. 녀인의 잔등에 업힌 아이는 머리를 한껏 뒤로 젖히고 발버둥치며 쉬여버린 소리로 엉엉 울어댔다. 녀인은 아이의 엉치를 철썩철썩 때리며 울음섞인 목소리로 부르짖었다.

《가자, 가자, 가자는데 왜 울어? 울겠니, 울겠어?》

그래도 아이는 막무가내로 발버둥치며 울어댔다. 미심쩍은 생각에 그 정상을 지켜보던 박경섭은 너무 아연해져 그이께 말씀드리는것도 잊고 녀인을 뒤쫓아갔다.

머리카락이 헝클어져내리고 옷차림을 아무렇게나 한 그 녀인이 바로 윤희였던것이다.

아빠트모퉁이로 돌아간 윤희는 아이를 맨땅에 내려놓고 신경질적으로 밀쳐버리며 소리쳤다.

《어서 가봐!》

박경섭이 다가가며 왜 이러느냐고 묻자 윤희는 비로소 그를 알아보고 얼굴을 싸쥐고 반쯤 돌아서서 흐느껴울었다.

《아니 집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아니… 아니예요. 저것이 글쎄 편편히 자댔는데… 글쎄 꿈에 아버지를 봤는지… 갑자기 아버지한테 가자구 생떼를 쓰지 않아요. 암만 얼려야 말을 들어야지요.》

땅바닥에 퍼더버리고앉은 사내놈은 쿨쩍거리며 그를 빤히 쳐다보다가 다시 왕 울음을 터뜨리면서 뒤로 벌렁 넘어져 발버둥질쳤다.

박경섭은 너무 기막혀 뒤채기는 아이며 엄마를 번갈아 돌아보다가 얼른 어린것을 안아올렸다.

그러자 아이는 더 기승을 부려 울부짖으며 자기를 감싸안은 낯선 팔에서 빠져나가려고 죽을내기로 버드럭거리면서 주먹으로 그의 가슴이며 턱밑을 마구 때렸다. 그 자그마한 육체의 항거가 어찌나 방자하고 세찬것인지 박경섭은 몸의 균형을 지탱할수 없어 비칠거리기까지 하였다.

《이녀석, 이놈, 왜 이래? 가만… 가만 있어!》

《아부지— 아부지—》

어린것의 탁 쉬여버린 울부짖음소리는 가슴을 도려내는듯했다. 아이는 꿈속에서 분명히 아버지가 어디엔가 살아있는것을 보았으며 그리로 가자고 발버둥치는것이였다.

무슨 말이면 이 어린 넋이 아버지가 세상에서 영영 없어졌다는것을 납득할수 있겠는가. 박경섭은 당황해졌다. 그는 기막히기만 하고 가라앉았던 비분이 되살아올라 눈물에 젖은 목소리로 속에 없는 으름장을 놓았다.

《그치지 못하겠니? 못하겠어? 저 한길에 내다 던져버리고 말가부다!》

《아버지를 찾는 아이를 욱박지르면 어찌오. 나한테 주오.》

언제 따라오셨는지 **김정일**동지께서 두손을 내미시였다.

《이녀석이 떼질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이리 주오.》

윤희는 **김정일**동지께서 찾아오신것이 너무도 뜻밖이고 현실같지 않아 그저 두손을 가슴앞에 모아쥐고 눈물이 번들거리는 얼굴로 그이만을 지켜볼뿐이였다.

그이께서는 두팔로 아이를 받아서 가슴에 꽉 껴안더니 시원한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착한 애를 모두 공연히 울리는구만.… 아버지가 보고싶다는데… 아버지가 얼마나… 얼마나 보고싶으면 네가 이렇게 울겠니.…》

아이는 비로소 자기 편역을 들어주는 인정에 설음이 북받치는지 더 섧게 울다가 흑흑 느끼며 머리를 그이의 가슴에 꼭 붙이였다.

그이께서는 아이의 잔등을 부드럽게 다독여주시다가 잔등을 돌려대는 박경섭에게 업혀주시였다.

박경섭이 아이를 업고 걸음을 뗄 때에야 윤희는 현실감에 돌아온듯 《아니…》 하고 소리치며 달려나가려고 했다.

그이께서 그 녀자의 팔소매를 붙잡으시였다.

《가만있으십시오. 겨우 울음을 그쳤는데…》

박경섭은 아이를 업고 아빠트뒤켠의 공지를 가로질러 저쪽 어스름속으로 천천히 걸어갔다가 다시 돌아왔다. 너무 울어 목이 다

쉬고 지쳐버린 아이는 진정이 되여 인차 잠에 노그라떨어진듯하였다.

윤희는 갑자기 입을 싸쥐고 오열을 삼키였다. 그이께서는 흐려진 안색으로 먼 하늘가를 바라보시였다.

얼마후 그이께서는 윤희를 따라 그의 집으로 들어가서 한시간남짓하게 앉아있으면서 가정생활형편도 료해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아이를 아버지와 같이 당에 충직한 예술가로 키우자고 절절하게 말씀하시였다. 다른 속상한 일이나 부탁할 문제가 있으면 서슴지 말고 이야기하라고 하시자 윤희는 없다고 말하였으나 문득 설음이 북받치는듯 속눈섭에 이슬기가 맺히고 숨결이 빨라졌다.

그이께서 아무 문제나 좋으니 말할것이 있으면 다 하라고 다시 말씀하시자 그 녀자는 망설이다가 드디여 입을 열었는데 그것은 뜻밖의 간청이였다. 자기를 남편이 맡았던 《꽃파는 처녀》 제작단에 넣어줄수 없는가고 하는것이였다. 남편의 뒤를 잇고싶어하는 갸륵한 심정에 목이 메여올랐으나 그이께서는 대범하게 웃어보이시며 아주 좋은 일이라고 치하하시고는 촬영소에 알아보고 소원을 꼭 풀어주겠노라고 따뜻하게 말씀해주시였다.

승용차가 다시 보통교에 들어섰을 때 깊은 생각에 잠겨 내내 말씀이 없던 그이께서 문득 조용히 물으시였다.

《심정이 저렇다는걸 몰랐댔소?》

《처음에는 편집을 맡기자는 론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영무동무가 굳이 반대해나서 그만두었습니다.》

《그가 왜 반대했습니까?》

《편집을 하게 되면 시시각각으로 자극을 받아 계속 슬픔에 빠질것 같아… 그래서 반대했습니다. 저도 담화해봤습니다.》

그이께서는 머리를 무겁게 끄덕이시였다.

《물론 슬픔에 잠길수도 있겠지만 얼마나 지성을 다해서 편집하겠습니까.》

그이께서는 지금 편집을 맡은 동무가 없으면 윤희에게 맡기도록 촬영소에 의견을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시였다.

차안에 침묵이 흘렀다.

《경섭동무… 승진동무가 영화에 출연한적은 없던가？》

《예？… 단역을 맡아 한두번 출연한적이 있습니다.》

《그 영화를 한번 돌려서 저 애한테 아버지를 보여주는게 어떨가… 산 아버지모습을… 저 애가 아버지 얼굴을 영영 모르고 자란다면 그건 참 얼마나 가슴아픈 일이요. 그런 애 마음에는 남달리 언제나 빈구석이 있게 되오.》

《예… 승진동무가 기록영화에도 나온적이 있습니다.》

《그럼 그 필림들을 모두 복사해서 아주머니한테 줍시다. 저 애가 좀 크면 이따금 돌려보여서 아버지모습을 가슴에 똑똑히 새겨넣도록…》

박경섭은 눈굽이 저려나 턱을 끌어들이며 잠긴 목소리로 대답하였다.

《예…》

그리고는 마른침을 삼키였다.

《승진연출가의 뜻대로 영화를 세계적인 명작으로, 티끌만한 흠도 없는 걸작으로 만들어야겠소. 제작단 전체 성원들이 최대한의 열정으로 장면 하나하나를 주옥처럼 빛나게 형상해내야 하오. 그러자면 로영무연출가가 잘해야겠는데… 할수 있겠지…》

박경섭은 그이께서 마음을 놓으실수 있도록 시원한 대답을 드리고싶었지만 목이 답답하게 막히며 말이 나가지 않았다. 문득 한기석을 비판한 다음 주영도비서가 인간 로영무를 두고 한 말이 떠올랐던것이다. 그때 주영도는 로영무가 다른것은 다 제쳐놓고 년장자로서도 응당 한기석을 꾸짖고 철룡이와 미혜의 관계에도 관심을 돌려야 옳겠는데 지난날 거의 외면하다싶이하면서 전혀 비치지 않았다고 나무리였다.

《랭담하다고 할지 로쇠해졌다고 할지… 사람이 이래가지구서도 기량만 높으면 예술을 할수 있는건지 모르겠지만… 좌우간 저는 좀 걱정이 됩니다.》

그때는 로영무에 대한 주영도의 이런 소리가 과격한 성미에서 오는 지나친 비난이 아닌가싶어 스쳐버렸었다.

승용차는 미끄러지듯이 내달리고 박경섭은 차창밖을 묵묵히 내다보았다.

가로수의 그림자가 언뜻언뜻 그의 얼굴을 스쳐지나갔다.

2

회성읍에서 10리가량 떨어져있는 상현리는 나지막한 야산들에 둘러싸인 양지바른 마을인데 군당에서 말한것처럼 그렇게 뒤떨어진 구석은 아닌것 같았다. 야산들에 과일나무들이 규모있게 심어져있고 포전들도 반듯하게 정리되였으며 산기슭을 따라 문화주택들도 적지 않게 들어앉아있었다. 그러나 아직도 초가집들이 드문드문 남아있는데다가 시내가의 버들방천이며 수양버들이 휘늘어진 우물터와 구새먹은 정자나무, 연자방아간자리, 지붕들에 열린 박이며 처마밑에 드리운 마늘타래, 귀를 간지럽히는 참새들의 우짖음소리와 황소의 영각소리 등으로 옛농촌의 운치를 어지간히 간직하고 있는 동네였다.

로영무한테는 산촌의 그 서경이 마음에 들었다. 그는 흥분과 사색, 불안, 착잡한 걱정으로 며칠밤을 뜬눈으로 지새우다싶이했으나 피로를 몰랐고 촬영지에 오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된듯 눈빛과 말에서 열기를 풍기며 창조성원들을 리 려관과 농가들에 신속히 분숙시킨 다음 지체없이 촬영준비를 하도록 엄격히 요구하였다. 그리고 자신은 말이 수다스러운 협동농장 부기장을 따라 마을과 그 주변 산과 골짜기들을 돌아보고 들길에 내려서 나란히 걷다가 쨋쨋한 해빛과 청신한 공기에 취하고 산촌의 가을풍경에 끌려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게 되였다.

그는 해빛이 눈을 찔러 이마에 손채양을 붙이고 야산이며 버덩을 다시 둘러보다가 저 마을앞 시내가 버들방천쪽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였다.

거기 키높은 버드나무의 까치둥지우에서 까치들이 야단스럽게

우짖으며 날아돌고있었다.

부기장아바이는 코에 건 구식안경알을 번뜩이며 그의 표정을 흘끔흘끔 훔쳐보았다.

《저것들이 참 명물이거든요. 외지에서 손님들이 오면 저렇게 야단들입니다. 저희들한테 온 손님인것처럼…》

《예…》

로영무는 산촌의 서경이 마음에 들었고 이전에 여기로 현지정찰나왔던 최승진이도 이 길을 밟았으리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저릿해졌다.

그의 표정에서 무엇인가 엿본듯 부기장이 이렇게 말했다.

《예술가들은 다르거든요. 초여름에 왔던 연출가선생도 저 까치둥지에 맘이 끌려 그림까지 그려갔습니다. 늘 봐서 그런지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는데…》

로영무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림을 그렸습니까?》

《그림뿐이겠습니까. 여기 달구지길, 산등성이, 나무, 바위돌이랑 돌아보며 숱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제 인차 영화찍으러 온다고 저 까치둥지랑 다치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예…》

《사람이 좋습디다.… 여기 촌에서야 대접할게 있어야지요. 떠나기 전날 우리 집에 모셔다가 뜨끈한 순두부를 대접했더니 어릴적 고향 생각이 난다시면서 얼마나 맛스럽게 들겠습니까. 후―후― 불면서… 허허허… 그 선생은 안옵니까?》

《…》

《그럼 딴데서 왔습니까?》

《…》

《인차 오신다고 했는데…》

로영무는 자기가 대신으로 왔다는 말이 나가지 않았다. 그는 괴로운 말을 하고싶지 않아 걸음을 떼였다. 부기장은 의아한 얼굴로 돌아보다가 말없이 따라왔다.

부기장의 말과 대본의 내용들을 머리속에서 대조해본 그는 최

승진이 여기 자연의 일방적인 서경이 아니라 구체적인 지형과 대상물들에 철저히 기초하여 장면들을 구상하였다는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였다.

(아, 얼마나 진지했는가!)

문득 재능에 진지성까지 겸비한 예술가 최승진의 모습이 위압적으로 떠오르며 목이 칼칼하게 말라들었다. 경쟁심비슷한 충동과 함께 분발하고 또 분발해야 한다는 생각이 불길같이 일어 걸음마저 기운차게 옮겨지게 되였다. 그는 부기장의 안내로 윤차녀할머니네 집을 찾아갔다.

그 집에 꽃분이네가 들어있었다. 윤차녀는 오래동안 머슴을 산 할머니인데 손자가 온실분조장이였다.

로영무가 그 집 뜨락에 들어서 주인을 찾자 윤차녀할머니가 반겨달려나와 인사하고는 손님을 가운데방으로 안내하였다.

그 방은 꽃분이네가 든 방이였다.

꽃분이 어머니와 꽃분이, 순희는 벌써 그 집식구가 다 된듯 둘러앉아 당콩깍지를 바르고있었다.

작달막하고 단단하게 생긴 윤차녀는 칠순이 넘었으나 총기가 밝은데다가 구변도 여간 좋지 않아 로영무와 마주앉자 손자자랑부터 엮어내렸다. 손자가 도량이 커서 자기한테 차례진 새 문화주택을 제대군인 분조원에게 넘겨줬기때문에 이런 낡은 집에서 그냥 산다고 하며 어떤 때는 손자가 마음을 너무 크게 써서 속상하다고 하였다. 그리고는 밖에 나가 큰 일을 맡아보는 손자한테 집안일을 시키지 않으려고 자기가 마당도 쓸고 집안도 거두기때문에 집주제가 이렇게 루추하니 나무람하지 말아달라고 하였다.

로파의 말과는 달리 집안은 분망한 가을철의 농촌집치고는 깨끗하게 거두어져있었다. 알른알른 윤을 내여 얼굴까지 비쳐 어른거리는 장판바닥이며 사슴이 뛰놀고 학들이 날아내리는 하얀 벽장보도 눈길을 끌었지만 창턱에 주런이 피여있는 각가지 메꽃들은 더욱 놀라움을 자아냈다.

꽃들은 창턱에 줄지어 세워놓은 대여섯개의 병마다 두세가지씩 꽂혀있었는데 어떤것은 망울이 졌고 어떤것은 꽃잎을 방싯 벌리

고있었다.

로영무가 너무도 희한하여 웬 꽃을 이렇게 많이 피웠느냐고 묻자 할머니는 자기가 마음이 젊어지고싶어 그랬노라고 하며 입을 싸쥐고 웃다가 손님의 지체가 느껴졌는지 정색해져 꽃을 피우게 된 사연을 이야기하였다.

《달포전에 소식이 왔습끄마. 여기 와서 꽃동산을 맨들어놓구 영화를 찍는다구… 부기장아즈바이 무슨 소리를 하지 않았습둥? 에그 글쎄 **김정일**선생님 그분이 책임비서한테 전화를 하셨다지 않습끄마. 꽃동산을 맨들자믄 꽃이 많이 드는데 거기서 꽃을 댈수 없겠는가… 그래 우리 마을에서 말아 집집마다 꽃을 피우게 됐습끄마.》

로영무는 가슴이 뭉클해져 윤차녀의 손을 꼭 잡아쥐였다.

《고맙습니다.》

《고맙기사… **김정일**선생님 그분이 걱정하시는 일인데 어떻게 가만앉아있겠습둥. 저 꽃을 피우느라구 아나 어른이나 정말 정성을 다했습끄마…》

퇴창으로 비껴드는 락조의 부드러운 빛이며 밖에서 흘러드는 구수한 곡식냄새,흙냄새에 한데 어울려 방안에 흐르는 할머니의 목소리는 정든 향토의 속삭임처럼 가슴에 젖어들었다.

《그분을 만나뵈운적이 있습둥?》

《예…》

《에구 불버라… 저 꽃을 피우면서 잠두 아니와서 하루밤에두 몇번씩 일어나 꽃병결으루 가게 됐습끄마. 늙은게 주책이 없이 이러니까 아이들이 학교에 갔다와서는 늘 거기 매달려 마감에는 내가 야단을 쳤습끄마. 눈독이 들믄 꽃이 피지 못한다구… 남정들이 담배두 피우지 않았습끄마. 담배독이 들가봐… 온 식솔이 닷새구 열흘이구 못본척하구있으니까 글쎄 저 명물이 어느새 저렇게 망울이 지구 꽃잎까지 벌어졌습끄마.》

로영무는 동화세계에 잠겨드는듯하여 시정에 젖은 부드러운 눈길로 꽃들을 여겨보았다.

《할머니네 집에 든 이 세 동무들이 한식솔이 되여 영화에 나

옵니다. 그런데 신식사람들이 돼서 옛날 내인들이 어떻게 일하고 살았는지 잘 모릅니다. 이 동무들한테 물동이 이는 법이랑 매돌질하는거랑 집에서 한약을 달이는 법이랑 좀 배워주실수 없겠습니까?》

《그게사 못하겠습꼬마.》

《세월이 많이 흘러 더러 잊지 않았습니까?》

《에그, 여섯살때부터 손에 익힌 일인데 그걸 잊겠습둥?》

이튿날아침 장미혜가 윤차녀할머니네 집에 찾아와서 꽃분이를 분장시킬 때 지나가던 아낙네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퇴마루에 빼곡이 올라서서는 숨을 죽이고 그 구경을 하였다. 그들은 처녀의 모색이 점점 달라지자 너무 놀랍고 신기하여 혀를 차기도 하고 키득키득 웃기도 하였다. 장미혜가 꽃분이의 머리에 탐스러운 머리태를 달아주고 그 끝에 자주빛 갑사댕기까지 들여 아득한 옛날의 시골처녀로 만들어놓자 아낙네들은 살같이 흐른 세월이 앗아가버린 자신들의 꽃나이시절이 떠올라 아릿한 향수에 목이 멘듯 한마디 말도 못하였다.

누구인가 조용히 한숨을 내쉬였다.

《에그, 저 갑사댕기… 신통해라…》

《형님 머리태두 그때사 저랬겠지?》

《어쨌던지…》

《저런 머리태에 동백기름을 바르구 장거리에 나가문 이 골목 저 골목에서 범의 꼬리 풀리는 소리같은 휘파람이 핵핵거렸다니…》

《에그, 망측한 소리… 가슴이 발칵 뒤집힌다!》

성미가 괄괄한 북방의 아낙네들은 서로 어깨도 치고 옆구리도 찌르면서 깔깔 웃어댔다.

그때 부엌문이 열리고 로영무가 물동이를 옆에 낀 윤차녀를 데리고 마당으로 나왔다.

로영무는 꽃분이를 불러내여 할머니가 물을 긷는것을 보고 그대로 련습해보라고 하였다.

윤차녀는 집앞의 우물터로 나가 바닥이 말라버린 우물에서 드레박으로 물을 길어올려 동이에 부어넣는 시늉을 몇번 해보였다.

그리고 동이를 머리우에 이고 집으로 조심조심 걸어들어왔다.

퇴마루의 아낙네들이 마당으로 우르르 밀려내려와 그것을 구경하였다.

로영무는 마당복판에 꽃분이와 나란히 서서 눈을 쪼프릴사하고 윤차녀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윤차녀는 한손으로 동이손잡이를 잡고 눈을 아래로 내리깐채 한결같은 걸음으로 조심조심 걸어들어왔는데 얼굴이 새색시처럼 새침해서 구경하는 아낙네들이 입을 싸쥐고 키득거렸다. 그러다가 나이지숙한 로영무의 심각한 얼굴빛에 눌려 인차 웃음을 거두었다.

로영무는 허리를 굽힐사하고 꽃분이에게 속삭이였다.

《걸음이 저렇게 한결같아야 해. 그렇지 않으면 동이에서 물이 철렁거려 밖으로 흘러넘칠수 있거든. 보라구, 할머니는 걸어가지만 동이는 오르내리기는커녕 미끄러져가는것 같지 않아… 저렇게 머리에 이여나르는걸 민속학에서는 두상운반이라고 하는데 세계 수많은 민족들이 태고적부터 쓴 운반법이야. 그래서 본능처럼 몸에 배여있었지. 옛날 녀인들은 일부러 배워주지 않아도 아이적부터 물동이랑 매돌이랑 척척 이여날랐어…》

꽃분이는 두손으로 저고리고름을 만지작거리며 타는듯한 눈으로 할머니를 지켜보았다.

윤차녀의 동작은 여러번 거듭되였다. 매번 판에 박은듯이 같은 동작이 되풀이되였는데 한번은 손끝으로 동이밑굽가녁을 슬쩍슬쩍 쓸며 걸어오는것이였다.

로영무는 그 기계적인 손놀림을 발견하자 전기에라도 닿은듯 몸에 전률이 일었다. 아이적에 본 물긷는 어머니의 모습이 문득 안겨들어서였다. 그러나 어째 손을 그렇게 놀리는지 알수 없었다.

로영무는 윤차녀를 멈춰세우고 그 까닭을 물었다.

《내가 그랬는가?》 윤차녀는 동이를 내려 옆에 끼고 의아해하다가 인차 눈을 곱게 흘기였다.

《에그, 별게 아니꼬마. 물을 부어넣을 때 바람이 쌔게 불믄 동이배까지 적시기 쉽습꼬마. 그게 물방울이 돼서 밀굽에 맺히는데 털어버리지 않음 떨어져 저고리를 적시우꼬마. 바람질이 심한 날에

저고리까지 젖으문 어째 그리 싫던지…》

《아—》 로영무는 환성을 터뜨렸다. 꽃분이도 방긋 웃었다.

로영무는 꽃분이에게 물동이를 이게 하고 윤차녀더러 봐달라고 부탁하였다.

꽃분이가 머리우에 물동이를 댕그랗게 올려놓고 마당으로 아장아장 걸어들어올 때 선들바람까지 불어와 등뒤에 휘늘어진 머리태끝의 댕기가 나풀거리고 보드라운 머리칼이 날리며 이마를 덮었다. 윤차녀는 좀 우쭐해져서 처녀의 앞뒤로 돌아가면서 또아리며 동이를 살펴보는가 하면 갑자기 고집스러운 눈이 되여 걸음새를 찬찬히 여겨보았다. 구경하는 아낙네들은 제가 그런 동작에 나선듯 얼굴빛이 긴장되기도 하고 들뜬 기분이 되여 술렁거리기도 했다.

《아이구 신통해라. …》

《조런거 며느리루 삼았으문…》

로영무는 아낙네들의 그런 속삭임소리를 들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진실답지 않는데가 있는것 같아 머리를 기웃거리다가 윤차녀에게 어떤가고 물었다.

할머니는 잘한다고 칭찬했으나 마음에 썩 내키지 않는 표정이였다.

그래서 틀린 점이 있으면 일러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할머니는 꽃분이를 불러세웠다.

《어째 눈길이 그럴가? 그양 앞만 봐서는 못쓴다니. 아래로 숙여야지. 그래야 동네 자란들이 얌전하게 보오… 그전에 나는 눈때메 얼마나 미움을 샀는지 모르오. 내가 머슴을 살던 지주 안깐년은 눈길을 꼿꼿이 쳐들구다니문 속이 살았다구 눈총을 쏘았소. 일하다가 옆을 돌아보문 뉘기한테 정분이 들었거나 허파에 바람이 들어 헷눈을 판다구 쥐박았소. 그러다나니 물길을 때두 늘 눈을 아래로 깔구 댕겼다니.》

꽃분이가 할머니의 말대로 눈길을 아래로 숙이고 걷자 처녀의 싱싱한 생기가 완전히 감추어졌다. 어디선가 뽀르르 달려나온 감장강아지가 흰점이 배긴 꼬리를 한들거리며 그의 발길에 묻어 돌아갔다. 꽃분이는 그것을 거의 느끼지 못하는듯 한결같은 걸음으로 걸

어왔다.

물동이를 인채 아래로 내리깐 아련한 눈길, 부드럽게 오르내리는 동실한 어깨, 무심결에 동이밑굽가녁을 쓸어보는 가무잡잡한 손, 기운 저고리, 기운 치마, 고달픈 운명에 순종하여 가락맞게 옮겨지는 발, 발, 총이 끊어진 짚신을 신은 처량한 발…

한손으로 허벅다리를 짚은채 허리를 구부정하고 온 주위력을 집중하여 그 모습을 지켜보는 연출가의 눈에서는 불길이 황황 타번지는듯하였다.

(비슷하지만 저건 아직… 아직 진실하고는 거리가 있어… 비운에 시달리는 어린 넋의 고달픔… 슬픔이 덜 풍겨… 내적체험이 없이 그저 할머니동작을 모방하고있지 않는가. …)

로영무는 가슴이 바작바작 타드는듯하였다.

정지문앞에까지 가서 동이를 내려 옆에 끼고 돌아서던 처녀가 벌써 무엇을 느꼈는지 이쪽을 기웃이 여겨본다. 겁먹은듯한 눈이다.

로영무는 처녀의 마음을 늦춰주고싶어 말라든 입술에 미소를 띠며 머리를 끄덕여보였다.

《괜찮아… 한번 더…》

그의 목소리는 무척 부드러웠다.

3

며칠이 지난 어느날 오후 1시가 거의 되여서였다. 상현리로 들어오는 달구지길을 따라 한 청년이 저고리앞섶을 다 헤쳐놓고 마라손선수처럼 헐썩거리며 뛰여오고있었다. 군에 갔던 강철룡이였다. 성난듯이 찌프린 얼굴로는 땀물이 철철 흘러내렸다. 돌아오다가 제작단의 갱생차가 고장이 생겨 나머지 5리길을 단숨에 뛰여온 그였다.

철룡은 **김정일**동지께서 제작단의 현지촬영에 얼마나 깊은 관

심을 돌리고있는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있었으며 이제 그이께서 여기서 촬영한 필림을 친히 보아주시리라는것도 믿어의심치 않았다. 때문에 그는 촬영을 잘해보자고 담당연출가를 도와 마른일, 궂은일 가리지 않고 뛰여다녔다.

평양에서는 주영도비서의 부탁으로 제작처장이 전화를 걸었는데 그가 전한 소식이며 당부들은 모두 심중한것들이였다.

제작단이 현지로 떠난 다음에도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꽃분이의 연기형상을 두고 매우 걱정하고계시는데 연출가가 손영실의 연기지도에 더 힘을 넣으라는 당부였다.

그리고 사망한 최승진연출가의 안해가 제작단에 새로 임명되여 필림편집을 맡게 되였다고 했다.

그다음 소식은 더욱 놀라운것이였다.

김정일동지께서 현지촬영한 필림들이 언제 올라오는가고 두번이나 전화로 알아보시였다는것이였다.

강철룡은 고장이 생긴 자동차에 멍청히 앉아있을수 없었다.

그가 동구앞에 이르렀을 때 산비탈에서 촬영장소를 돌아보던 한기석이 길에 내려섰다.

철룡은 그와 나란히 마을로 걸어들어오며 갔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 두번이나 전화하셨소. 우리 필림이 언제 올라오는가…》

《다그쳐야겠군. 우린 현지에 와서두 너무 어물거린단말이요. 배우들한테 계속 생활연구만 시키면서…》

《꽃분이 연기때문에 그러겠지…》

《이러다가 서리라도 내리면 어쩐다…》

그리고는 둘 사이에 말이 끊어졌다.

연출가의 두 방조자는 나란히 걸어갔으나 제나름의 생각을 좇고있었다. 한기석은 그가 지금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고있을가 하고 마음을 썼다. 그는 모임에서 비판을 받은후 며칠동안 후회와 함께 온갖 불길한 억측에 시달리며 숨을 죽이고 지내였다. 어느날 주영도비서로부터 친애하는 그이께서 부연출들의 발전에 대하여 얼마

나 관심하고계시는가 하는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야 비로소 마음이 풀리며 가책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놀라운것은 비행을 저지른것이 자기자신이 아니라 그 어떤 괴물의 작간처럼 문득문득 느껴지는것이였다. 그 괴물이란 자기 량심에 깃들어 병들게 한… 그래서 자기를 추동한 공명심, 출세욕, 시기심… 아, 그것들이 그렇게 영악한 감정인가, 나의 량심은 왜 그 영악한 괴물을 뿌리쳐버리지 못했고 일찌기 숨통을 눌러버리지 못했는가, 량심이 허약했기때문인가… 그는 밥맛까지 잃고 남몰래 번민했으나 겉으로는 흔연한척하면서 이전보다 더 활기에 넘쳐 일했다. 어떤 때는 그 허세가 어리석게 여겨져 얼굴이 뜨거워지기도 했다. 사람들은 지나간 일을 다 잊은듯 누구 하나 상기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량심을 더 자극하였다. 그리고 철룡이와 미혜가 아주 멀어지게 된데는 자기 책임도 있다는, 자신의 감정과 발언도 일정한 작용을 놀았으리라는 그 가책으로 못견디게 괴로왔다. 그때 그는 문병온 미혜한테 경솔하게도 강세룡이 한 말들을 그대로 전했었다. 아니, 경솔성때문만은 아니였다.

숨졌다가 다시 살아나도 또다시 예술의 길을 걸으리라는 제나름의 신념으로 살아온 한기석은 풍채좋은 그 일군의 예술인들에 대한 저속한 발언을 우선 자기 인생관과 아버지의 일생에 대한 모욕으로 받아들이지 않을수 없었다. 거기에 철룡에 대한 반감과 시기심까지 더해져 그에 대한 험구로 될수 있는 말을 하면서도 가책을 느끼지 못했었다.

그때의 자기 깊은 심리만이라도 철룡에게 말해주고싶었지만 구차스러운 변명인것 같아 참아왔는데 지금이야말로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할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싶었다.

기석은 철룡을 흘깃 돌아보았다.

철룡은 눈을 지그시 내리뜨고 걸으며 손등으로 이마의 땀을 훔치고있었다. 그는 다른 생각을 하고있었던것이다. 한기석은 요새 아주 과묵한 사람이 되여버렸으며 아무 일에나 중뿔나게 얼굴을 내미는 일이 없어졌다. 철룡이 자기하고 단둘이 있기를 피하는듯했고 부득이하여 마주서게 되면 어떤 문제에서나 양보하는 립장에 서

는것 같았다. 인간이란 자기 비도덕성이 뭇사람들에게 공개되고 여론화되여야 비로소 수치심과 죄의식까지 느끼게 되는 기이한 존재인가… 자기가 저도 모르게 너무 랭담하게 대하고있는것이 아닐가. 옹졸하게 지나간 일로 괴롭히지 말자. 그의 속심이야 어떻든지 모든것을 선의로 해석하며 도와주자. 오직 영화창조를 위하여…

이때 저 앞쪽에서 장미혜가 목에 감은 흰 머리수건자락을 나풋거리며 마을길을 건너가다가 머리를 갸웃하고 이쪽을 빤히 여겨보았다. 그러다가 바람에라도 날리는듯 날렵하게 길을 뛰여건너 저쪽 집모퉁이로 사라졌다. 못볼것이라도 본듯 주춤 멎어섰던 두 사람은 서로 돌아보지도 못하고 걸음을 떼였다.

눈확에 침울한 그늘이 비낀 한기석이 먼저 입을 열었다.

《내가 용서안되지？… 그럼 그렇다구 말하게…》

《여, 다른 생각말구 영화를 잘 만들자구… 난 영화만 잘된다면 그까짓 감정쯤은 다 줘팽가치겠어！》

한기석은 외면하고있어 그의 눈에 뜨거운것이 번쩍거리는것을 보지 못했다.

그들은 려관앞에서 때마침 식사를 하고 나오는 연출가와 만났다.

철룡이 전화받은 내용을 죄다 말하자 로영무는 몹시 당황해하며 부르짖었다.

《두번이나 알아보셨단말이요？》

《예…》

연출가는 얼굴빛이 초조해졌다.

《래일부터 촬영에 들어가겠소. 빨리 식사하고 촬영장소로 나오라구. 꽃동산을 조성해야겠소！》

《리에 알렸습니까？》

《알렸소. 집집에서 피운 꽃은 래일아침에 내오라구 했소.》

오후, 제작단의 모든 성원들이 동구앞 야산에 나가 꽃동산을 조성하는 작업을 하였다. 장치사들은 장치직장에서 만든 《바위》들을 가깝고 먼곳에 보기좋게 배치해놓았으며 다른 제작단성원들은 장치미술가가 시키는대로 산비탈에 널려서 봄철의 자연미에 어울리지 않는것들을 청소해내는 작업을 하였다. 그들은 산비탈에 널려서

가둑나무들의 누렇게 황이 든 잎사귀들을 뜯어버리고 도토리알들을 털어버렸으며 너무 크게 자란 새며 풀대들을 뽑아버렸다.

강철룡은 장치미술가와 함께 이리저리 뛰여다니며 지내 말끔하게 걷어내면 오히려 인위적인 감이 난다고 소리치는가 하면 애솔들에 휘감긴 마른넝쿨같은것은 그냥 둬두는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일렀다. 그러다가 철룡은 솔검불을 쓸어내는 한 연화사에게로 뛰여가서 이건 인민반의 아침청소와는 다르다고 퉁을 주며 한 세부의 비진실성이 전체 화폭의 예술적인 조화를 파괴할수 있다고 꾸짖었다.

그러자 연화사는 얼굴이 벌개져 반대의견을 말하였다. 이고장은 가을바람도 겨울의 눈바람도 세차기때문에 솔검불이 한곳에 이렇게 무드기 쌓여있을수 없다는것이였다.

《그거야 이고장이야기구 작품속의 고장을 생각해야지.》

《아니 작품속의 고장이야 여기보다 더 북쪽인데 그러니까 바람도 더 세찰게 아니요?》

《그렇게 띄워놓구 생각하지 말라구. 좀 지형도 보구 자연의 리치도 생각해보란말이요. 꽃들은 남향받이 양지쪽에 많이 피네. 그런데 북쪽땅의 가을과 겨울에 부는 바람은 거의 다 서북풍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양지쪽은 바람의 피해를 덜 입을게 아닌가.》

연화사는 빙긋 웃어보이고는 엉뚱한 묘안을 꺼낸다.

《이 솔검불속에 산짐승의 잠자리나 발자취 같은걸 내는게 어떨가?》

《그건 괜찮소. 촬영가가 포착해주겠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정리작업이 끝난 다음 산등성이며 산비탈, 밭머리, 들판에 촬영소에서 만들어온 26종에 달하는 1만 5천송이의 생화같은 종이꽃들을 자연스럽게 꽂아놓았다. 그것은 이른봄에 피여나는 진달래와 개나리로부터 시작하여 철쭉꽃, 살구꽃, 패랭이꽃, 동지꽃, 나리꽃, 앵초, 도라지, 범부채, 만수국, 함박꽃, 목련꽃 등이였다. 그리고 꽃의 몇십배나 되는 《나무잎》, 《풀잎》들로 땅을 덮었다.

어느덧 가을의 한산한 서경은 가뭇없이 사라지고 봄의 생기와 훈향이 약동하는 산야가 펼쳐졌다.

제작단성원들은 자기들이 창조한 봄경치에 황홀해져 감탄사를 련발하며 그것을 탄상하였다.

산비탈밑에서는 촬영가가 이동차우에 허리를 구부정하고 서서 촬영기의 렌즈를 통하여 꽃동산의 전경을 내다보고있었다. 작업복차림의 부촬영과 조명사가 이동차를 조심조심 밀었다. 이동차가 서서히 미끄러져나갔다.

촬영가는 촬영기에서 눈을 떼지 않고 꽃동산의 애솔들과 잡관목덤불, 《진달래꽃》들이며 《너럭바위》, 《선바위》들을 훑어보다가 이동차를 세우고 《바위》들과 《꽃》들을 약간씩 옮기라고 소리쳤다. 그의 의도대로 《꽃》들이며 《바위》들의 위치가 수정되였다.

그때 상현리로 내려오던 군당책임비서가 길가에 차를 세우고 그들에게로 찾아들어왔다.

강철룡은 그를 반갑게 맞아 로영무에게로 데리고가서 인사시켰다. 책임비서는 두손으로 로영무의 손을 뜨겁게 잡아흔들며 수고한다고 거듭 인사말을 하였다.

곁에 서있던 한기석은 그저 머리만 약간 숙여보이는것으로써 인사를 대신하고는 색안경을 꺼내 끼고 꽃동산을 둘러보면서 이젠 그만들 하고 내려오라고 소리쳤다.

상현리가 고향인 사람좋은 책임비서는 어릴적부터 늘 보아온 야산의 인상이 판판 달라진것이 놀라와 입가에 느슨한 미소를 띠였다. 그는 로영무에게 이때까지 영화촬영하는것을 한번도 본적이 없는데 오늘은 끝까지 구경하겠노라고 하였다.

로영무는 그에게 이 꽃동산이 어릴적의 꽃동산과 비슷한가고 물었다.

책임비서는 비슷하기는 하지만 자기가 어렸을적에는 진달래가 저것보다 썩 많이 피여 마을조무래기들이 이발이 퍼렇게 되도록 그것을 따먹었고 집집마다 진달래를 따다가 꽃떡까지 해먹었노라고 대답하였다.

이제 상현리에서 피운 꽃들을 촬영기위치로부터 가까운 산비탈 여기저기에 꽂아놓으면 봄의 운치가 한결 더 살아오를것이였다.

그래서 마음속이 흐뭇해진 로영무는 꽃동산의 장치미술에 대하여 까다로운 의견을 제기하지 않고 인차 촬영전에 진행되는 배우의 연기련습에 들어갔다.

철룡이 다래끼를 안은 꽃분이를 데려와 촬영기앞에 세웠다. 부촬영이 뛰여나가 로출계를 처녀의 얼굴이며 저고리가까이에 대여 감광도를 측정하고 해빛의 밝기를 재여본 다음 그 수자를 촬영가에게 조용히 불러주었다.

자기를 위하여 펼쳐진 봄의 황홀한 서경속에 꽃분이로 되여 서게 된 손영실은 너무 흥분되고 긴장되여 이마며 코등에 땀까지 내배였다.

로영무는 순간에 표정이 근엄해졌다. 그는 일상적으로 배우들이 역세계에서 살도록 요구했지만 이러한 때에는 그들한테 티끌만한 잡념이라도 끼여들세라 신경을 날카롭게 세워 경계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위혁하는듯 얼굴빛이 험해지더니 모든것을 빨아들이는듯한 탐욕적인 눈으로 앞에 펼쳐진 봄의 서경이며 그 속에 서있는 배우, 촬영가, 조명사들을 둘러보고는 그들의 주의를 집중시키려고 한손을 머리우로 서서히 들어올려 공기를 그러쥐였다. 그 단순한 손놀림은 마술적인 힘을 지닌듯 삽시에 공기를 팽팽하게 긴장시키고 사람들의 신경과 감정과 의지를 휘여잡아 그들모두를 열광적인 흥분속으로 떠밀어넣는것 같았다.

《촬영준비！》 나직하면서도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조명사들은 일제히 반사판을 들어 배우를 비치고 두 부촬영은 이동차에 붙으며 앞으로 내밀 차비를 하였다.

반사판에서 오는 해빛을 받아 꽃분이의 얼굴이 감빛으로 피여나자 로영무는 그지없이 너그러운 미소를 머금고 배우를 몇순간 여겨보더니 그러쥐였던 손을 풀며 공기를 내리베였다.

《촬영！》

그 부드러운 구령이 생명과 자유와 활력을 준듯 꽃분이는 생기에 넘쳐 달려나가며 꽃을 꺾어 다래끼에 넣는 시늉을 하고 이동차는 그를 따라 서서히 앞으로 미끄러져나갔다. 대기도 환희에 설레이는듯했다.

꽃분이는 이 꽃밭에서 저 꽃밭으로 뛰여가며 꽃을 꺾었다. 이동차우의 촬영가는 허리를 구부정한채 촬영기에 눈을 붙이고있었다.

연출가는 두손으로 무릎을 짚고 이글거리는 눈으로 처녀를 지켜보다가 아래입술을 깨물며 눈을 지그시 내리감았다.

연기형상의 세부들이 자기 표상속에 그려진 형상세부들과 여러군데에서 맞지 않는것이였다. 실패에 대한 예감으로 가슴이 철렁내려앉았다.

(첫 장면부터 이러면 어찌는가!)

가슴팍에 식은땀이 내배는듯하였다.

강철룡은 연출가의 불만이며 그 원인까지 직감한듯 꽃분이한테로 뛰여갔다.

민감한 처녀는 무엇인가 잘못되였다는것을 느끼고 주눅이 든 얼굴로 그를 쳐다보았다.

철룡은 부드럽게 일렀다.

《대체로 괜찮소. 괜찮게 됐어… 조금만 더 잘하면 되겠소. 이자 꽃을 꺾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나?》

처녀는 저고리고름끝을 잘근잘근 씹으며 무엇인가 골똘히 생각했다.

《이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촬영기앞에 서니 이상해요. 연기가 어떤가 하는 생각만 들어요. 돌아서도 촬영기렌즈가 빤히 보이는것 같아요.》

《주의가 분산됐구만. 촬영기렌즈도 연기도 절대 생각하지 말아야 돼. 꽃분이가 아닌가. 집에서 앓고있는 어머니만 생각해야 돼, 어머니만…》

《그래야겠는데 잘 안돼요. 어머니 생각도 좀 했어요.》

《좀 했다구? 좀 해서는 안돼. 전적으로 어머니 생각만 해야지. 어머니때문에… 꽃을 팔아 어머니 약을 사자고 꽃따러 온게 아닌가… 그러니 더 고운 꽃을 만날적마다 얼마나 기쁘겠어. 어떤 때는 고운줄 알고 달려가보니 마음에 안들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한꽃에서 다른 꽃에로 옮겨갈적마다 얼굴표정이 자연히 달라질게 아닌가. 어떤 때는 얼굴이 활짝 밝아지고 미소를 머금고… 어떤

때는 실망하여 시무룩해지기도 하고… 그런데 이자는 얼굴표정에 너무나 변화가 없었어. 같은 표정이야. 촬영기렌즈, 그놈이 방해군이였구만. 그걸 아예 무시하라구. 없는것으로…》

깊은 생각에 잠겼던 처녀가 고개를 들며 난감한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괜찮아, 다음번엔 잘될것 같아!》

신경이 날카로와진 로영무한테는 배우를 계발하는 부연출의 말소리가 죄다 들려와 뇌리에 메아리쳤는데 그것들이 다 본질을 찌르지 못하는 허황한 소리처럼 느껴졌다. 목안이 바싹바싹 말라들었다. 그는 저도 모르게 배우한테로 뛰여갔다.

처녀는 해쓱하게 질린 얼굴로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활짝 핀 꽃만 그냥 꺾으면 어찌나? 10여리나 되는 장거리로 나가는 사이에 시들어버릴수도 있고… 또 하루밤 집에서 묵여가지구 팔러 갈수도 있지 않나. 망울진걸… 필가말가한걸 꺾으라구. 어제밤에도 말해줬는데 다른데 정신이 팔린게 아닌가? 응?》

처녀는 알았다고 겨우 응대를 하며 머리를 다소곳이 숙였다.

로영무는 말을 더 하려다가 처녀를 혼란에 빠뜨릴가봐 그만두고 자기 자리로 돌아왔는데 어느새 따라왔는지 강철룡이 그의 팔굽을 슬쩍 건드리며 무슨 암시인지 난처한 미소를 지어보였다.

《좀… 갈앉혀주십시오. …》

무슨 소리인지 알수 없었다. 부연출은 손을 들어 무엇인가 누르는 시늉을 하며 나직이 속삭였다.

《좀… 좀… 어제야 알았는데… 떠나기전에 편지를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앓는다는…》

곁에 선 한기석이 환절기니까 감기겠지 하고 중얼거렸다.

로영무는 언짢은 눈길을 철룡에게 던지고는 돌아서서 주먹을 높이 쳐들어 흔들었다.

《자― 자― 주의를 집중해서―》

그는 배우한테 신심을 주기 위하여 일부러 유쾌한 목소리로 웨쳤다.

《잘― 될수 있소! 자, 다시! 한두번만 더 해보구 오늘은 푹

쉬자구. 촬영은 래일부터 하겠어!》

×

로영무는 밤이 깊어 자리에 누웠으나 촬영장에서 머리를 다소곳이 숙이고있던 처녀의 모습이 자꾸 눈앞에 어른거려 잠들지 못했다. 처녀가 매우 총명하고 다감하게 생각되는가 하면 말귀도 알아듣지 못하는 목석으로 여겨져 한숨까지 나갔는데 잠이 들어서는 그 순진한 존재가 트렁크를 들고 어디로인가 멀리로 떠나가는 꿈을 꾸었다. 화닥 놀라 눈을 뜨니 창문에 희붐한 빛이 어려있었다.

그는 어수선한 기분속에 보름달이 뜬 모양이라고 생각하고는 다시 눈을 감았다가 아주 깊은 잠에 녹아떨어졌다.

이른아침, 밖에서 누구인가 새되게 소리치고 벅작 떠들어대는 소리가 들려왔다. 로영무는 가슴이 선뜩해져 자리를 차고 뛰여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그는 순간에 안개바다속에 빠진듯 아무것도 볼수 없었다. 흰빛이 눈앞을 가리우고 머리속이 쩡 얼어드는듯했다.

언제 나왔는지 강철룡이 곁으로 다가서며 부르짖었다.

《밤새 눈이 쏟아졌습니다. 꽃동산이 다 죽탕이 된것 같습니다.》

로영무는 얼이 나간 사람처럼 멍청한 얼굴로 눈이 하얗게 덮인 산야를 바라보다가 허리를 굽혀 눈 한줌을 쥐여들었다. 햇솜같이 정갈한 눈은 인차 주먹안에서 누눅해지며 손가락들짬으로 물기가 내배였다.

(한송이도 성한게 없겠구나…)

그는 정신없이 내달렸다. 강철룡이 뒤를 따랐다. 눈은 무릎아래를 쳤다.

눈에 묻힌 꽃동산의 비탈로 웬 사람이 미끄러지면서 달려내려왔다. 한기석이였다. 그의 손에 후줄근해진 꽃가지들이 들려있었다.

한기석은 그것들을 흔들어보이며 격하게 소리쳤다.

《다 이 모양이 됐습니다. 젠장!》

《다 그렇소?》

《어제 인차 촬영하는건데… 어쩌자구 이렇게 어물거립니까, 예?》

로영무는 억이 막혀 말이 나가지 않았다. 순간에 폴싹 늙어버린듯 허리를 구부정하고 우들우들 떨기만 하였다. 그러다가 그의 손에서 꽃가지를 받아들고 불이 황황 이는 눈으로 송이들을 들여다보았다.

《아하, 이 일을 어찌는가!》

로영무는 애끓는 눈으로 하늘을 쳐다보았다.

가없이 넓은 부연 하늘에서는 고즈넉한 정적속에서 구름들이 어디로인가 흘러가고있었다. 구름들이 아니라 딛고선 땅이 실패의 낭떠러지로 밀려가는듯하였다.

《연출가동지, 황해도나 어디 따뜻한데로 옮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돼, 승진동무가 여기 지형에 맞게 연출대본을 작성했네. 촬영대본도 그렇구…》

그는 눈에 미끄러져 쓰러지고 딩굴면서 산비탈로 기여올라가 넋없이 산등성이를 헤매였다. 1만5천송이나 되는 꽃들이 거의다 눈에 묻혀버리고 나무밑이나 바위곁에 꽂아놓은것들만 눈우로 꽃송이나 이파리들을 내밀고있었다.

그는 단숨을 헉헉 몰아쉬며 두손으로 정신없이 눈을 헤집고 묻혀버린 꽃가지들을 쓸어만져보았다. 거의 다 눈에 젖어 이지러졌으나 성한것들도 있었다.

언제 달려왔는지 강철룡이 앞을 막아섰다.

《연출가동지, 성한것들도 많습니다. 눈을 치고 꽃동산을 복구합시다!》

로영무는 그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뭐라구?》

《해가 뜨면 날이 더워져 다 젖어 못쓰게 되고맙니다. 제작단을 몽땅 동원해서 빨리 눈을 칩시다!》

로영무는 자기와 그의 마음이 하나의 지향으로 융합되여있다는 기쁨에 가슴이 후더워졌다.

어디서 딩굴었는지 온통 눈투성이인 철룡은 우에 작업복저고리도 걸치지 않고 내의바람이였다. 잠자리에서 곧장 뛰여나온 모양이였다.

《감기 들겠네!》

철룡은 그 소리를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해뜨기전에 빨리 하자고 소리치고는 홱 돌아서 아래쪽으로 정신없이 뛰여내려갔다.

그는 내의바람인채로 마을의 숙소들로 뛰여다니며 제작단원들을 불러일으켰다.

온 제작단이 눈치기에 떨쳐나섰다.

리에서 묵은 군당책임비서가 어떻게 알고 달려나와 그 광경을 보고 마을로 달려가 리당비서와 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숱한 농장원들을 이끌고나와 눈치기를 도왔다. 눈을 쓸어내고 꽃들을 살리는 류다른 작업이 벌어졌다. 산등성이와 비탈에 눈가루들이 뽀얗게 날리고 웨침소리, 떠들어대는 소리가 그칠줄 몰랐다.

농장원들은 눈을 쓸어낸 다음 처처에 우등불을 피워 그 열기로 공기를 덥히고 땅바닥의 눈을 녹였다.

로영무는 복구되여가는 《꽃동산》을 돌아보다가 비자루를 짚고 머리를 숙인채 무슨 생각인가 골똘하고있는 한기석을 띄여보았다. 손맥이 풀려서인지, 무슨 가책에 시달리고있는지 알수 없었다.

작업은 오후까지 계속되였다. 못쓰게 된 꽃들을 걷어내고 상현리농장원들이 피운 꽃들을 그자리들에 꽂아놓으니 퍽 빈약하기는 하나 꽃동산이 회복되였다.

실눈을 짓고 그 꽃동산을 둘러보던 로영무는 아쉬운 감에 가슴이 쓰렸지만 촬영준비를 하라고 일렀다.

촬영성원들은 다시 활기를 띠고 이동차를 끌어온다, 촬영기를 설치한다, 조명기구들을 준비한다 분주히 뛰여다녔다.

꽃분이는 다래끼를 안고 다시 촬영기앞에 나섰다.

그때 무엇때문인지 뒤쪽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것 같고 환희에 넘친 부르짖음소리들이 들려왔다.

《히야— 저걸… 저걸 보라구!》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요?》

《원 저런！…》

철룡은 의아해서 돌아봤다. 큰길과 저 앞산의 고개길과 버덩의 지름길을 따라 숱한 사람들이 떼를 지어 밀려오고있었는데 그들의 가슴과 어깨와 머리우에서는 연분홍의 불길같은것이 날름거리고 있었다.

이동차우의 촬영가가 주먹으로 허공을 내리치며 격한 소리로 부르짖었다.

《여— 꽃이로구나！ 꽃이요, 꽃！ 사람들이 꽃을 피워가지고 온단말이요！ 동무들, 봄이 오오— 우리 마중가자구—》

촬영가가 이동차에서 뛰여내려 큰길쪽으로 달려나가자 배우들을 비롯한 거의 모든 제작단성원들이 뒤를 따랐다.

어느덧 그들은 큰길과 밭가운데서 꽃을 들고오는 사람들과 한데 어울려졌다.

책임비서만이 이동차곁에 우두커니 서서 그들쪽을 바라보고있었다.

그의 곁으로 뛰여온 로영무가 숨을 헐썩거리며 물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책임비서는 기쁨에 겨워있으면서도 저으기 난처한 얼굴이였다.

《허 이거 참… 저도 모르고있었습니다. 어떤 집들에서 꽃을 피운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이렇게 많을줄은 몰랐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 전화하신 다음 조직적으로는 상현리에만 포치했는데, 허 이거 참…》

철룡은 얼굴빛이 심각해져 예술인들과 한데 어울려 웃고 떠들면서 걸어오는 사람들을 지켜보았다.

진달래꽃이 가득 담긴 버치를 인 녀배우곁에서 땀을 씻으며 따라오는 아낙네, 꽃이 든 바께쯔를 량쪽에서 들고 걸어오는 젊은이들, 손에 손마다 꽃병을 들고 종종걸음을 치는 어린이들, 한묶음의 미나리며 약초를 비닐보자기에 싸들고 절뚝거리며 걸어오는 영예군인…

로영무는 모진 가책에라도 시달리는 사람처럼 얼굴빛이 컴컴하게 꺼져 책임비서에게 말을 건네였다.

《한평생 영화를 찍어왔지만 이런 일은 정말 처음입니다.》

《예… 저도 이렇게 될줄은 몰랐습니다.》

《저 꽃으로 산을 몽땅 뒤덮겠습니다. 봄향기가 하늘땅에 진동하게… 그리구 영화를 찍겠습니다!》

등뒤에서 가느란 흐느낌소리같은것이 들려왔다.

꽃분이가 두손으로 얼굴을 가리우고있었다.

철룡은 그에게로 다가갔다.

《울기는… 연기를 명심해서 하라구.》

두시간후 촬영이 끝났다. 꽃을 가지고 왔다가 구경을 하던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제작단성원들도 모두 촬영장소를 떠나갔다. 로영무는 제일 마감으로 산비탈을 내리다가 소나무뒤에 웬 젊은 녀자가 숨어있는것을 띄여보았다.

수박색치마저고리로 나들이차림을 했고 얼굴이 감스럼하게 탄 그 녀자는 무엇을 주저하는지 소나무가지들 사이로 이쪽을 빤히 내다보다가 누를길 없는 격정에 떠밀리는듯 후닥닥 뛰여나왔다.

《선생님!》

로영무는 그 녀자를 알아보지 못했으나 가슴을 찌르는 부르짖음소리에 놀라 주춤 물러서기까지 했다.

《누군가?…》

《선생님, 저예요, 수옥이…》

《뭐라구?》

달려와서 스스럼없이 팔에 매달리는 정은주의 딸은 예전에 촬영소로 찾아왔던 가무잡잡한 얼굴의 가냘픈 처녀애가 아니였다. 안정된 직업과 신혼생활의 행복때문인지 얼굴이 훤하고 몸매가 푸드러진 젊고 아름답고 건실해보이는 농촌녀성이였다. 단지 수집음과 반가움에 겨워 이슬기를 반짝이며 쳐다보는 눈에서만 이전의 고집스럽던 처녀애의 인상이 약간 느껴질뿐이였다.

떨리는 손으로 수옥의 팔을 더듬더듬 쓸어만지는 로영무의 눈에 회억의 눈물이 어리였다.

《이게 얼마만인가, 응… 이렇게 만나게 되다니!》

《선생님…》

로영무는 그제야 10여년전 수옥의 편지마다에 이웃 리의 주소

가 적혀있던것을 상기했다.
《어떻게 여길 왔어… 내가 여기 와있다는걸 어떻게 알구?》
《어머니가 피운 꽃을 가지고왔어요.》
《꽃을?》
《우리는 이 상현리 바로 이웃동네에서 살아요. 여기 집집에서 꽃을 피운다지 않겠어요. 최승진선생님이 촬영온다는 소문도 돌고요… 어머니가… 글쎄 엄마가 우리도 꽃을 피우자고 하지 않겠어요.》
《어머니가 꽃을?…》
로영무는 최승진이 여기 와서 그 꽃을 받았으면 얼마나 감개가 깊었으랴싶으면서 가슴이 쓰려났다.
《그 꽃을 누구한테 줬나. 어디… 어디 꽂혔나?》
《아까 부연출이란분한테 드렸는데 저기… 저 너럭바위곁에 꽂았어요.》
《어머니는 편안하냐?》
《…》
수옥은 대답대신 고개를 외로 틀고는 저고리고름을 눈에 가져갔다.
《무슨 일이 생겼느냐?》
《보름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뭐라구?》
《최승진선생님이 사망했다는 부고를 신문에서 보고 몹시 울었어요. 그다음 병이 더 심해졌는데 미음 한숟가락 들지 못하면서두 꽃에는 잊지 않고 물을 주고 정성을 다 기울였어요. 그러다가 그만…》
로영무는 가슴이 찢어지는듯 아파나고 눈앞이 흐려졌다.
《어머니 심정을 생각해서… 꽃을 가지고 달려왔어요.》
《나는 수옥이가 온줄 전혀 몰랐구나. … 그 꽃이 어디… 어디 꽂혔다구?》
《저기 저 너럭바위곁에요…》
수옥은 더 말을 잇지 못하고 흑 느끼며 입을 싸쥐였다.

얼마후 두사람은 산비탈을 가지런히 걸어내려왔다. 그들은 저 아래쪽 후미진곳 잡관목들속에서 불꽃같은 눈이 자기들을 지켜보고 있다는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였다.

×

손영실은 자기 연출가에게 그토록 다정하고 스스럼없이 구는 저 낯선 녀자가 무척 부러워나며 가슴속에서 시기심 비슷한것까지 끓어올랐다.

(아이, 누굴가？…)

촬영이 끝났을 때 연출가는 수고했다고 하고는 땅에 놓았던 연출대본을 들어 흙먼지를 툭툭 털어서 겨드랑이에 끼더니 더 무슨 말 없이 웃쪽으로 걸어올라갔다.

가슴이 섬찟해졌다. 어째 괜찮게 됐어… 아니면 잘됐어… 하지 않고 수고했다고 할가, 수고했다, 수고했다… 얼마나 애매한 말인가. 그 말이 없는 재간에 용케 했다는 소리처럼 느껴져 가슴이 싸늘하게 식어들었다.

연기형상이 연출가의 의도대로 되지 않은듯싶은 불안감에 휩싸인 그는 창조성원들이 산에서 내려가고있었지만 잡관목들속에 오도카니 앉아있었는데 두사람이 가지런히 걸어내려왔다. 낯선 녀자는 연출가의 한손을 잡고 걸어내려오며 무슨 말인가 끝없이 다정하게 하였다.

손영실은 그 녀자와 자기를 은근히 비교해보게 되였다.

(나는 왜 저러지 못할가…)

그는 연출가와 자기 사이에 어딘지 모르게 간격이 있다는것을 비로소 어렴풋이 느꼈다.

청춘의 꽃망울이 터지는 시절에 이른 이 처녀는 배역이 발표된 날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존재로 된듯싶어 딸에 대한 자랑으로 여생을 살아가는 먼 산간읍의 어머니에게 긴 편지를 썼었다. 눈물을 방울방울 떨구며… 얼마후 엄마가 아니라 동생한테서 회답편지가 날아왔는데 그속에서 놀라운 소식이 흘러나왔다. 엄

마가 옛날에 살던 영진포에 갔다왔는데 어디가 아픈지 요즘 자리에 내내 누워있으며 끼니도 겨우 짓는다는것이였다.

무슨 병일가?… 혹시 무슨 불길한 일이라도… 눈앞이 캄캄해졌다. 이 세상에는 행운이 차례진 사람에게 꼭 앙갚음하고야마는 악마가 있는것 같았다. 집걱정은 연기련습중에도 무시로 그를 사로잡아 가슴을 산란하게 만들었다. 연출가한테 집사정을 말할가 하는 생각이 여러번 들었으나 웬일인지 그렇게 되지 않았다. 왜 이럴가?… 왜?…

《거기서 뭘하나?》

분장가방을 든 장미혜가 잡관목들을 헤치며 활달하게 다가왔다.

처녀는 가까스로 미소를 지어보였다.

《아니… 그저 좀… 아까 연출가동지하고 같이 내려간 녀잔 누구예요?》

《그 녀자?》

장미혜는 한숨을 내쉬며 그의 곁에 앉았다.

둘은 거기에 오래동안 앉아있었다.

4

이튿날 따스하고 부드러운 해빛이 골안에 깔리고 흐르는 시내물이 파란 하늘을 담아싣고 반짝일 때 강철룡은 배우들의 연기련습을 보아주고 숙소로 돌아오고있었다.

그는 속이 여간 타읅지 않았다. 어제 촬영한 꽃동산장면에서 꽃분이의 연기며 방금전에 보아준 순희의 연기도 다 만족스럽지 못했던것이다. 그는 배우연기로써 영화의 장면장면들을 인간세계의 아름답고 고상한 심혼과 정서로 충만시키고싶었는데 기준을 너무 높이 세운탓인지 어느 장면의 연기형상이나 다 만족스럽지 못했고 생각하면 할수록 불만이 커갔다.

하지만 신심이 넘치고 의욕이 북받쳐 잠바앞섶을 열어헤치고 휘

파람을 불며 성큼성큼 걸어가는데 길가의 언덕받이에서 나이 지숙한 장치사가 내려와서 자기네가 세운 《고목》을 좀 보아달라고 하였다.

언덕받이에 서있는 고목이 눈길을 끌었다. 그것은 한기석이 맡은 장면의 촬영을 위해 세운것이였다. 그 나무밑에서 순희가 언니를 기다리고 거기로 마름놈이 슬금슬금 다가오는 장면을 찍어야 했다.

밑둥이 흉하게 구새먹은 그 《고목》은 수백년세월의 비바람에 부대껴 우둘투둘 마디진 가지들이 험상하게 뒤틀리고 뒤엉켜서 어찌 보면 어릴적 꿈속에서 본듯한 하늘로 엇비스듬히 날아오르는 괴물같은 형상이였다.

철룡이 이마에 손채양을 붙이고 그 창조물을 유심히 쳐다보는데 장치사가 한숨을 내쉬였다.

《다섯번이나 고쳐 세웠소. 한기석부연출이 변덕인지 뭔지… 자기가 하라는대로 했는데도 이래서 마음에 안든다, 저래서 신통치 않다 하는데 참 속상해서… 이번엔 흐뭇한지 별소리 없지만 아직 저기 앉아있소. 올라가 좀 봐주고 가오.》

그가 언덕받이로 뛰여올라가자 고목곁에서 한기석이 일어섰다. 그는 사색적이면서도 괴로운듯한 얼굴로 말을 건네였다.

《어떻소. 연출가의 형상의도에 맞을것 같소?》

철룡이 두손을 허리에 올리고 다시 《고목》을 쳐다보는데 어디서 날아왔는지 까치 두마리가 야단스럽게 우짖으며 그우에서 날아돌다가 가지에 내려앉았다.

그는 《고목》이 마음에 들지 않았으나 한기석이 어떠냐고 다시 묻자 다른 소리가 나갔다.

《이만하면 되겠지…》

《됐다구? 나는 왜 이런가. 또 아니거든… 어딘지 모르게 아닌데가 있는것 같으면서…》

《글쎄…이 나무밑에서 순희가 언니를 기다리지… 허전하고 불안해진 순희… 의지할데가 없는 순희의 심리와 이 나무 형태미가 어울려야겠는데… 너무 안전감을 주는 대칭도형이 아닌가?》

《그런가？…》

《저 한쪽 가지들을 두어대 잘라버리면 어떨가… 가서 연출가 동지한테 봐달라고 하겠소.》

철룡이 《고목》곁을 떠나 열댓걸음 걸어나왔는데 등뒤에서 무엇인가 우지직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울렸다. 놀라서 돌아보니 한기석이 《고목》을 어깨로 떠밀어 넘어뜨리고있었다. 기겁한 까치들이 하늘로 날아오르며 다급한 비명을 내질렀다.

철룡은 놀라서 달려가 그의 팔을 잡아흔들었다.

《기석이, 여보게, 왜 이러나？》

그는 몸부림치며 부르짖었다.

《이건 아니요, 아니야！ 자기 량심을 속일수 없어！》

그의 눈에 섬광이 번뜩이였다.

철룡은 가슴이 뭉클해졌다. 지난날의 일들이 모두 하찮게 여겨지며 그를 부둥켜 안아주고싶어졌다.

얼마후 그가 리려관으로 돌아오니 연출가가 배우들의 연기수준에 대하여 물었다.

《순희도 그렇고 꽃분이는 더 막혔습니다. 순희를 욱박지르는 장면이 전혀 안됩니다！ 몇번 시켜봤는데 안돼요！》

그것은 눈먼 순희가 언니를 돕는다고 읍거리에 나온것을 꽃분이가 골목으로 끌고가서 누가 시키지 않는 일을 하랬느냐고 욱박지르는 하나의 눈물겨운 장면이였다. 로영무는 배우들한테 련습시간을 더 주어야 하겠다고 하면서 촬영을 래일로 미루자고 하였다.

그리고는 이렇게 덧붙였다.

《나는 다음에 찍을 촬영장소들을 돌아보고 오겠소. 꽃분이가 감옥의 오빠를 찾아가는 700리길 서경이 마음에 안드오. 사진을 봐서는 20년대, 30년대 풍경갈지 않거든.》

말은 이렇게 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였다. 제작단의 긴장되고 무거운 공기속에서 벗어나 자연의 신선한 대기속으로 들어가 머리를 식히며 혼자 조용히 사색하고싶은 심정도 있었던것이다.

그는 혼자 차를 타고 길을 떠났다. 그러나 차가 멀리로 달려나오고 차창밖으로 낮선 가을풍경이 흘러지나가는데도 그의 마음은

제작단의 공기속에 점점 깊이 휘말려드는듯하였다. 꽃분이의 해쓱한 얼굴이 눈앞에 자꾸 어른거렸다. 17살의 이 처녀는 중요한 역을 맡고 뭇사람들의 사랑과 선망의 눈길에 휩싸였지만 용케도 들뜸이 없이 작품연구와 연기훈련에 골몰해왔으며 연출의도에 따라 그어주는 감정의 복잡하고 기복이 심한 곡선을 아슬아슬하게 따라오며 탈선도 좀 있었지만 그래도 꽃분이의 갸륵한 심정을 소박하게 표현했었다. 그런데 아주 막혀버렸다. 감옥의 오빠를 찾아가는 길에 대해서는 촬영성원들속에서 특히 의견이 분분했다. 단조롭고 흐름이 처진다는것이다. 아주 생략해버리자는 의견까지 있다.…촬영순서를 바꾸어 순희를 욱박지르는 장면을 뒤로 밀고 감옥의 오빠를 찾아가는 장면을 먼저 찍으면 어떨가…

그는 차를 타고, 차가 못가는데는 걸어서 가깝고 먼곳의 산촌길들을 모조리 돌아보며 꽃분이가 오빠를 찾아가는 칠백리길의 서경을 가늠해보았다. 나무지팽이를 짚고 숨이 턱에 닿아 헐썩거리며 산꼭대기들에 톺아올라가 골짜기를 따라 굽이쳐나간 길을 여러 각도로 부감해보기도 하였다. 마감으로 올라간 산꼭대기에서 내려오다가는 굴러서 허리까지 상할번하였다. 산중턱에서 벗겨져 날아난 구두를 도로 찾아신는데 목구멍에서 겨불내가 풍겨올랐다.

머리우에서 설레이는 나무가지들사이로 서쪽 하늘에 기울어진 해가 바라보였다.

어찌보면 해는 아득한 하늘이 아니라 바로 그 나무가지들에 걸려 백열로 이글거리는듯하였다. 그것은 나무가지들을 온통 쇠물빛으로 물들이다가 갑자기 그 무슨 폭발이라도 인듯 눈부신 백광의 빛줄기들을 사방으로 내뿜는다.

(그렇다. 바로 그것이다! 감옥으로 찾아가는 심리를 자연서경의 변화로 보여주고 거기에 극적인 음악까지 받쳐주면 단조성도 지루감도 면할수 있다. 음산한 바람… 몰려오는 비구름… 번개… 비… 그속으로 걸어가는 꽃분이… 험한 길… 낭떠러지…)

로영무는 그 무슨 보물이라도 찾아낸 사람처럼 기쁨에 휩싸여 주먹으로 공기를 내리치며 뛰여일어났다.

(주인공이 연기만 잘해주면 된다!)

문득 자기와 그 처녀와의 사이가 정상이 아닌듯한 의혹이 얼음쪼각처럼 선뜩 가슴을 찔렀다. 어딘지 모르게 정이 흐르지 않고 마음이 통하지 않는것 같았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가 그와의 사이를 차단하고있는것 같았다. 그것은 손에 잡히지 않는 몽롱한 안개, 투명하고 매끄러운 유리판같기도 하고 아무리 두드려도 울리지 않는 담벽처럼 과장되여 안겨왔다. 왜…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상서롭지 못한 느낌이 드는가…

그는 곁에 서있는 나무그루를 짚고 거기에 이마를 붙이며 창조생활 수십년만에 처음으로 나어린 배우를 주인공으로 삼고 영화를 만들므로 이렇게 속을 썩이게 된다고 생각하였다.

5

로영무가 좀 늦어서 제작단에 돌아오니 강철룡이 려관뜨락에서 서성거리고있었다. 매우 초조한 얼굴이였다.

《손영실의 연기가 더 안됩니다. 순희를 욱박지르는 그 속에 눈먼 동생에 대한 동정과 애정, 세상에 대한 원한까지 터져나와야 한다고 귀에 못이 박히게 말해줬는데도 이거 참… 제일 걸감정밖에 표현 못합니다.》

《여보게, 오늘은 다 잊고 푹 쉬지 않겠나. 래일아침에 방도를 토론해보자구. 아침에는 누구나 현명해진다는데…》

《아닙니다. 연출가동지, 무슨 문제가 있습니다. 저럴수야 있습니까. 담화해보지 않겠습니까?》

로영무는 자신도 불안했기에 저녁식사를 마치고 손영실을 불렀다. 처녀는 인차 왔다.

그는 아래방에서 처녀와 단둘이 마주앉아 이것저것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작단생활에서 애로되는것은 없는가, 아픈데는 없는가고 여러모로 따져물었다. 처녀는 없다고 하였다.

《집에서는 모두 무사한가?》 스치는 말로 물었다.

《예…》
《누구한테선가 어머니가 앓는다는 소리를 들은것 같은데…》
《괜찮아요. …》
처녀는 눈길을 아래로 떨구었다.
로영무는 모두숨을 후— 내쉬였다.
《영실이… 힘들지? 음? 자주 반복련습을 요구하니까 싫지 않아?》
처녀는 억울한 오해라도 당하는듯 몹시 당황해서 얼굴을 쳐들었다.
《아니… 아니예요. 잘 안돼서 안타깝지 열번… 백번 련습해도 좋아요!》
《너무 조급해말라구. 어떤 큰 예술가도 구체적인 형상작업에서는 하찮은 세부에 걸려 며칠씩 애를 먹는 경우가 있거든. 순희를 욱박지르는 그 장면을 후에 찍고 감옥으로 찾아가는 장면을 먼저 찍을가 해…》
《아이, 그럼 어떻게 해요? 연출가동지, 밤새워 련습해서라도 꼭… 꼭 해결하겠어요. 순서대로, 계획대로 찍자요!》
처녀는 불꽃튀는듯한 눈으로 그를 쳐다보며 절절하게 간청하였다.
로영무는 울기가 오르는듯 얼굴이 화끈거렸다. 다감한 정서와 총명한 두뇌, 괜찮은 표현의 재능에 이런 열정까지 지닌 처녀가 도대체 어디에 걸려 연기가 막혔을가싶어 더욱 애가 끓어번졌던것이다.
그는 눈을 크게 뜨고 도무지 알길 없는 대상으로 여겨지는 처녀를 뚫어지게 지켜보았다. 처녀는 그 눈길을 피하여 고개를 외로 틀었는데 윤나는 머리칼이 굽이쳐 흘러내린 아담한 귀밑에 드러난 하얀 살갗이 어린 처녀의 생명감과 함께 여린 마음을 내비쳐주는듯했다.
로영무는 애끓는 마음을 터뜨려 더 캐여묻고싶었으나 애처로운 마음이 앞서 가슴을 지그시 눌렀다.
그는 처녀를 돌려보내고 웃방으로 올라가 창조성원들에게 제

작단의 녀동무들중에서 누가 손영실이와 제일 가까운가고 물었다. 누구인가 장미혜라고 하였다.

곧 장미혜가 불리워왔다.

《요새 영실동무 생활에서 느낀게 없소?》

《예?》

《동무한테 무슨 소릴 한건 없소?》

《무슨 소리요?》

《요새 기분이 왜 저렇소?》

《연기가 안돼서 그러지요 뭐. …》

장미혜는 눈을 새침하게 내리깔았다.

그날밤 자기 방으로 돌아온 미혜는 자리에 들어 모포를 푹 뒤집어썼으나 잠들지 못하였다.

연출가에게 한 대답은 거짓이였다.

손영실은 요전 촬영이 끝난 다음 잡관목들속에서 심상치 않은 소리를 하였다.

그는 인생문제에 눈이 갓 트기 시작하는 나이의 처녀로서는 지나칠 정도로 호기심을 드러내여 연출가를 찾아온 녀자에 대하여 여러모로 캐여물었다. 미혜는 한때 촬영소안에 풍설로 돌아갔던 최승진과 정은주의 사연이며 거기에 끌려든 로영무의 처사에 대하여 간추려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로파심에서 이것은 지난 세월이 오랜 예술가들의 생활에 던진 그늘이라고 덧붙였다.

《우리 연출가동지가 사망한 그 연출가한테 그 녀자 소식을 10여년동안이나 알려주지 않았다는게 사실인가요?》

《그건 아마 사실인것 같아.》

《아이 끔찍해…》

《뭐가 끔찍해?》

《그래서 그 녀자 일생을 불행하게 만들어놓지 않았어요?》

《뭐라구? 그럼 우리 연출가가 그 녀자를 불행에 빠뜨렸다는 거냐? 참 한심하구나.》

《내가 어리다고 감추지 말아요. 나도 좀 알아요.》

《누가 무슨 소릴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녀자 일생을 망쳐놓은건

물러간 저 낡은 세상이야. 예술인들을 천대하고 멸시한 일제의 식민지사회야. 우리는 그 사회를 상상도 못해. 그런데 누구한테서 무슨 소릴 들었기에 애꿎은 연출가동지를 그처럼 험하게 몰아?》

손영실은 그의 말을 듣는것 같지 않았다.

이윽고 처녀는 딴전을 부리는것인지 매우 애매한 소리를 하였다. 자기는 예술계에 갓 들어왔기때문에 아무것도 몰라서 묻는것이라면서 만약 이 세상에 랭혹하다고 할가, 비량심적이라고 할가 어쨌든 그 비슷한 예술가가 있다면 그런 사람도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훌륭한 예술작품을 창조할수 있느냐고 묻는것이였다.

미혜는 뜻밖의 물음에 의아해졌으나 한창 알고싶은것이 많을 신인배우로서는 물을수도 있는 문제라고 여겨 진지하게 대답해주었다.

그는 예술적형상이란 창작가의 사상과 감정의 솔직한 표현이고 고백이기때문에 그런 사람이 아름답고 고상한 형상을 창조할수는 절대로 없다고, 자기가 아는 한에 있어서는 훌륭한 예술작품뒤에는 언제나 훌륭한 인간, 예술가가 서있다고 하였다. 그러고도 답변이 충분하지 못한것 같아 만약 더러운 량심을 지닌 사람이 그 어떤 예술 비슷한것을 만들어냈다면 그것은 어디서 모방했거나 표절한것이지 절대 그의 독자적인 사색의 창조물일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손영실은 잠자코 생각에 잠겼다가 만약 어떤 배우가 자기 연출가한테 인간적인 의혹이 들고 믿음이 엷아지는 경우에도 그의 의도에 맞는 연기형상을 할수 있느냐고 물었다.

미혜는 더이상 참을수 없어 처녀의 팔굽을 와락 잡아쥐고 마구 흔들어대였다.

《영실아！ 영실아！ 너… 너… 어떻게 된거냐？ 너 우리 연출가를 념두에 두고 말하지？ 그렇지？… 그렇지？…》

손영실은 갑자기 울먹이며 머리를 끄덕였다.

《너 미쳤구나. 우리 연출가동지같은 사람이 어디 있게？ 그렇게 선한 사람을… 너 돌았니？ 도깨비한테 홀렸어？》

《아니… 아니예요. 그렇게… 그렇게 될가봐 두려워… 연출가

동지를 나삐 여기게 될가봐… 그게 두려워 이것저것 묻게 됐어요.》

《뭐라구？》

《우리 엄마는 선한 사람은 선한 마음이 눈빛에, 얼굴에, 걸에 풍긴다고 했어요. 그래서 초면에도 인차 믿게 되고 마음이 훌 통하게 된다고…》

미혜는 놀라서 크게 뜬 눈으로 처녀를 지켜보며 한숨을 호－ 내쉬였다.

《너… 연출가한테 그렇게 안되니？》

《안돼요. …》 처녀는 후더운 물기로 눈언저리를 적시였다.

《안돼요！… 혼자 련습할 땐 되는것 같다가도 연출가동지앞에 서면 떠올랐던 감정도 움츠러들어요. 언니, 왜… 왜 이럴가요？》

《바보… 공연히 어려워하니까 그렇지？ 꽁해서…》

《어려운건 아니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렵지도 않대… 그럼 너한테 뭐가 있구나！ 헛신경을 쓰며 말째게 생각하면서… 병들었어！ 에익, 주인공이 이 모양이니 영화는 다 망했다.》 미혜는 분을 참지 못해 마구 욕설을 퍼부었다.

고개를 숙이고 손등으로 눈물만 훔치던 처녀가 문득 얼굴을 쳐들었다.

그리고 단숨을 몰아쉬다가 놀라운 사실을 토설하였다. 동생이 엄마 병에 대하여 써보낸 편지를 언제인가 동무들한테 경솔하게 보인 일… 뿌리칠수 없는 걱정… 어디서 들었는지 강철룡부연출이 꽃동산에서 그 소식을 귀뜀했을 때 연출가의 외면…

《엿들은건 잘못이지만… 언니, 그 일때문인지… 연출가가 연기에 대한 요구를 높일수록 전 움츠러들게 됐어요. 잘하자고 애쓰다가도 저 사람이 웃으라면 웃고 울라면 우는 꼭두각시가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때도…》

장미혜는 참지 못하고 벌떡 뛰여일어났다.

《알아보자, 어째 그랬는가？ 어떻게 된 일인가？ 연출가동지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처녀는 화닥 놀라 그의 팔을 붙잡고 매달려 눈물을 휘뿌렸다.

《안돼요！ 그러지 말아요. 속상하고 신경이 약해져 공연한 소

릴 한건데…》

밤이 깊도록 모대기던 장미혜는 자리를 차고 뛰여일었다.

집집의 창문들에는 모두 불빛이 꺼졌는데 웬일인지 리려관에는 불이 환히 켜져있었다. 그 불빛에 마을길이 희미하게 드러났다. 어디서 서리가 내리는지 밤공기는 습하고 차거웠다.

리려관쪽으로 총총히 걸음을 옮겨가던 미혜는 이쪽으로 다가오던 누군가의 그림자가 앞을 막아서는바람에 주춤 멎어섰다.

《어딜 가오?》

철룡이였다.

《연출가동지한테 볼일이 있어서요.》

《열쇠는 여기로 가지고왔댔소?》

《?…》

처녀는 너무나도 중뿔난 물음에 그를 빤히 지켜만 보았다.

《열쇠… 집열쇠 말이요.》

《그건 왜 물어요?》 곱지 못한 목소리였다.

그가 아직 싱겁게도 자기 생활을 보살피려드는것 같아서였다. 그를 따끔하게 쏘아주고싶은 얄궂은 생각이 가슴에서 옴지락거렸다.

《남의 집 열쇠에까지 관심을 돌리는걸 보니 마음이 퍽 한가한게지요? 아니면 무슨 절도범의 흉내라도 내고싶은가요? 열쇠는 여기 호주머니속에 있어요.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꺼내드리지요.》

《바보!…》 철룡이 거칠게 소리쳤다.

《어떤 똑똑한 녀자두 가슴속에 맹꽁이 한마리씩은 배겨있다더니 이거야 참…》

《뭐라구요?》

《제작처장이 밤차로 왔소. 동무 어머니가 평양에 올라갔단말이요. 당에서 불러… 문을 열지 못해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있단 말이요.》

《아니 정말인가요?》

《**김정일**동지께서 한생을 깨끗하게 살아온 예술인이라고 높이 평가하시면서 어머니를 부르셨소.》

《엄마를요!》

미혜는 하늘땅이 뒤집혀지는것 같았다. 머리가 핑 돌았다.

그리고 채찍에 얻어맞은듯 가슴이 얼얼해졌다.

이윽하여 정신을 수습한 미혜는 자기앞에 철룡이가 그냥 서있으며 그의 얼굴에 미소같은것이 어려있는것을 느꼈다.

《축하하오. …》

웬일인지 그 목소리에 단념하고도 가슴태우며 바라던 그 무엇이 없는것 같았다.

《이 밤중에 연출가동지는 왜？…》

《영실이때문에 그래요.》

《저녁에는 별문제 없다더니 동무는 도대체… 연출가도 자야 할게 아니요.》

《아이,무슨 대책이 있어야지. 영실이한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두 알기나 해요？》

《정 만나겠으면 래일아침 만나오.》

철룡은 돌아섰다.

미혜는 모욕감에 입술이 떨렸다.

《좋아요. …》

6

그이께서는 전화로 박경섭을 찾아 급한 일이 생겨 오후 늦어서야 돌아올것 같다고 하시면서 혼자서 리명선을 만나라고 이르시였다.

리명선에게 기쁨과 행복감을 한껏 안겨주고싶었던 박경섭은 너무 아쉽고 섭섭하여 한동안 송수화기를 놓지 못하고 멍하니 서있었다.

그는 리명선을 인차 부르려다가 생각을 돌려 오후 늦게까지 기다려보자고 마음먹었다. 오후 3시 촬영소로부터 로영무네가 현지에서 촬영한 작업필림이 올라와 그이를 더욱 안타깝게 기다리게 되였다.

그러나 오후 5시가 지나고 창밖에 어스름이 내려도 그이께서는 돌아오시지 못하였다.

그는 하는수 없이 리명선을 불렀다.

머리를 단정히 다듬고 연한 미색치마저고리로 소박하게 단장한 리명선은 젊은 지도원에게 안내되여 조심스럽게 방에 들어섰다.

그는 문앞에까지 나와 맞아주는 박경섭에게 반겨웃으며 인사했으나 미소어린 눈에서는 기쁨과 감격뿐아니라 긴장과 불안의 빛도 느껴졌다.

박경섭은 몇마디 인사말을 나눈다음 응접탁을 사이에 두고 그와 마주앉아서는 오래간만에 만났다는 내색은 전혀 내비치지 않고 흔연하게 세태적인 이야기부터 꺼내였다.

《열쇠가 없어 집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댔는데 그래 문은 열었습니까？》

리명선은 당중앙위원회에 들어와서 자기 집 열쇠이야기를 듣게 되자 그 어떤 혈연적인 친근감을 느끼는지 눈에 물기가 어리는듯했다. 그는 눈길을 다소곳이 떨구고 마른침을 삼키고는 인차 밝은 얼굴이 되여 대답했다.

《제작처장동무랑 배우단에서랑 몇동무들이 와서 암만 곁쇠질을 해봐야 열려야지요. 그래서 죄없는 자물쇠와 미혜가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몰라요. 나중에는 제작처장동무가 화김에 쇠망치로 자물쇠를 깠습니다.》

《거 잘했습니다. 허허허…》

리명선은 따라웃다가 얼른 소매안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굽을 찍었다.

박경섭은 계속하여 건강상태며 가정형편을 물어보면서 그의 달라진 모색에 은근히 마음을 썼다.

꽃나이시절에는 조선녀성의 정신미와 비운의 모습을 상징했었고 중년이 되여서는 총을 잡은 처녀로 화면에 나타나 사람들을 원쑤격멸의 성전에로 부르던 오랜 녀배우의 얼굴은 세월이 가차없이 그려놓은 주름살들에도 불구하고 옛모색을 어지간히 간직하고있었다. 그러나 볕에 그슬린 얼굴과 손이며 엉성하게 높아진듯한 어

깨, 눈꼬리에 패인 주름살에 어리는 구슬픈 미소는 남몰래 체험한 심뇌와 좌절감의 흔적으로 느껴지면서 어딘지 모르게 산촌의 늙은 녀교원과 같은 인상을 풍기였다. 그의 넋에서 예술가의 시정은 꺼져버린듯하였다.

《촬영기앞에 다시 서볼 생각은 없습니까?》

《제가요?》

《예… 지금 로역배우들이 매우 적습니다.》

《저야 이제 어떻게…》

대답은 그랬으나 눈에는 생기가 빛났다.

《사실 오늘 **김정일**동지께서 동무를 만나시겠다고 하셨는데 사정이 생겨 제가 혼자서 만나게 되였습니다.》

리명선은 얼굴빛이 경건해져 저고리앞섶을 여미였다.

박경섭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영화예술인대오로 다시 돌아오고싶어하는 리명선동무의 심정을 깊이 헤아리시여 동무를 촬영소에 복직시키도록 하여주셨습니다. 리명선동무가 왜정때에도 광복직후 서울에서도 공화국북반부로 들어온 이후에도 량심적으로 살았으며 열정적으로 예술활동을 하였다고 높이 평가해주시면서 잘 돌봐줘야겠다고 간곡히 말씀하시였습니다.》

리명선은 고개를 떨구었다. 그의 어깨가 조용히 오르내렸다.

박경섭은 잠시 말을 끊고 격정을 눌렀다.

《이 사랑을 길이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가 자리에 앉자 리명선은 손수건으로 눈을 훔치고는 일어나서 《오고싶었습니다. …》 하고 울음섞인 목소리로 한마디 하고는 그만 설음이 터져올라 한손으로 입을 싸쥐였다. 그의 어깨가 물결쳤다. 그는 격정에 몸을 주체할길 없어 자리에 주저앉아 두손으로 얼굴을 싸쥐였다. 박경섭이도 눈언저리가 벌개져 한동안 말을 못했다.

《나도 정말 기쁩니다.》

리명선은 좀 진정이 되자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

《오늘은 늦었으니까 집에 가서 푹 쉬고 래일아침 촬영소에 나

가보십시오… 앞으로 영화에 출연하는것도 좋지만 신인배우들을 키우는데 힘을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김정일**동지의 뜻입니다.》

《저야 사실 그때 좌절감에 져서 도피해간거나 같은데 그분이 어떻게… 저한테까지 이런 관심을 돌려주십니까?》

《리명선동무가 병때문에 고생하다가 년로보장에 넘어갔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얼마나 가슴아파하셨는지 모릅니다. 남반부에서 우리를 찾아들어와 내내 혼자 지낸 녀성인데 곁에서 어떻게 보살폈으면 병을 그렇게 키웠느냐고, 병이 생겼으면 어째 제때에 대책을 취해서 고쳐주지 못했느냐고… 그리고 본인이야 정신적타격도 컸겠지만 미안해서 년로보장에 넘겨달라고 했겠는데 사람의 운명을 그렇게 실무적으로 처리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몹시 나무람하셨습니다.

나는 정말 그 의리심과 인정 앞에 머리를 숙이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저 사망한 최승진동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엔 그를 살려보자고 얼마나 애쓰셨는지 압니까.》

박경섭은 피로운 얼굴로 한숨을 조용히 내쉬였다.

《그이에 비하면 우린 정말 매정한들입니다. 나는 **김정일**동지를 가까이에 모시고 사업하면서 철두철미한 원칙성에 감동되는 경우도 많지만 다감다정한 인정때문에 몰래 눈물을 삼킨 일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만약 누가 나한테 인간으로서의 **김정일**동지란 어떤분인가고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리성과 감성, 의지와 인정이 인격속에 가장 조화롭게 체현된분이라고… 서슴없이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리명선은 그윽하게 빛나는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저는 정말 아는것이 너무 적어요.》

《명선동무, 그이께서는 수령님께서 광복직후부터 명선동무를 얼마나 귀중히 여겼는가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수령님께서 아끼고 사랑하신 인재들을 계속 보살펴주시려는것은 그이의 확고한 사업신조인것 같습니다. 나는 이 점에서도 수령님에 대한 그이의 절대적인 충실성을 느낍니다. … 정말 우리 다같이 보답해야 됩

니다.》

《예… 힘껏 일하겠어요. 어떻게나 보답하겠습니다.》

박경섭은 의자등받이에 몸을 젖힐사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는 일도 마음껏 하고 여생의 락도 한껏 누리십시오. 사위랑도 어서 맞아서… 참 미혜가 철룡이하구 관계에서 좀 곡절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리명선은 입가에 서글픈 미소를 그리였다.

《아주 남남이 된것 같아요.》

전화종소리가 부드럽게 울렸다. 전화기우의 빨간 신호등이 깜빡거렸다.

박경섭은 순간에 얼굴빛이 긴장해져 그 전화기로 가서 송수화기를 들었다.

《예… 박경섭이 전화를 받습니다! 예… 예…》

감도가 좋은 송수화기에서 울리는 음성이 리명선에게까지 흘러왔다. 그 녀자는 무례하게 엿듣는것 같아 고개를 약간 외로 돌리며 조용히 눈을 내리떴다. 듣지 않으려고 애쓸수록 흘러오는 음성이 더더욱 선명해지며 가슴을 울리였다.

《…얼굴이야 상했겠지… 목소리는 변하지 않았소?》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소? 참 다행이요! 내가 꼭 만나자고 했는데 미안하게 됐소. 미안하오…》

리명선은 비로소 이것이 자기에 대한 통화이며 저쪽에서 말씀하는분이 누구이시라는것을 직감하고 고개를 떨어뜨리며 한손으로 이마를 싸쥐였다. 가슴이 쿵쿵 뛰고 눈앞에 희부연 안개가 소용돌이치는듯하면서 좌절감으로 촬영소를 떠났던 일,영화예술과 그 벗들을 멀리하고 체험한 고독감과 가책과 온갖 괴로움들이 먼 번개빛의 희미한 번쩍거림처럼 뇌리에 어른거렸다. 뜨거운것이 억누를수 없는 힘으로 목에 차오르며 숨이 막혔다.

《…예술적감각이 아주 무디지지 않았는지… 그랬으면 야단입니다. 문학예술부문에 대한 교시들과 당정책도 공부시키고 그 사이

에 나온 영화들도 다 보여줘야겠소.》

《예… 예…》

《감각을… 예술적감각을 빨리… 완전히 회복할수 있도록 잘 보살펴줘야 하겠습니다. …》

리명선은 그만 허물어지듯이 응접탁에 엎어져 소리를 내여 흐느껴 울었다. 이마를 고인 손등에 흘러내린 재빛머리칼이 끝없이 물결쳤다.

박경섭이 언제 다가왔는지 팔을 잡아흔든다.

《아, 아 이러지 말고… 전화를 받으십시오. 출장지에 계시는 **김정일**동지께서 전화하십니다. 목소리라도 듣고싶다고 하시며 바꾸랍니다.》

그 녀자는 어떻게 몸매를 수습하고 송수화기를 받아들었는지 몰랐다.

《안녕하십니까?… 그래 건강은 어떻습니까?》

수화구에서 목소리만이 아니라 힘찬 기운과 열이 파도쳐나오는듯하여 가슴이 확 달아오르고 온몸을 후들후들 떨게 되였다.

《건강은… 건강은… 좋아졌습니다.》

《됐습니다. 그거 참 다행입니다! 그러나 년세가 있는것만큼 조심해야 됩니다.》

《예…》 리명선은 목이 점점 더 메여 간신히 대답하였다.

《자기 몸이라고 해서 자기자신의것으로만 여겨서는 안됩니다. 우리 영화예술의 귀중한 밑천이고 재부입니다. 알겠습니까? 때문에 앞으로 생활총화에서는 건강관리를 어떻게 했는가 하는 문제를 잊지 말고 자주 총화지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예… 예…》

《아니 오늘은 좋은 날인데 목소리가 왜 그렇습니까? 한번 시원하게 웃어보십시오. 좀 들어봅시다. 웃음소리를 들어보면 건강이 정말 좋아졌는가 알수 있겠는데… 허허허…》

어느덧 소녀의 마음이 된 리명선은 웃어보려고 입술을 떨다가 그만 설음같은것이 터져올라 흐느끼고말았다. 송수화기를 가슴우에 붙안은채…

어찌하여 수도의 불빛바다는 저리도 생동하게 반짝이며 불빛마다가 다정한 미소처럼 보이는것일가. 거리의 대기는 이리도 상쾌하고 감미로우며 또 하늘은 저리도 시원하게 틔여있는것인가. 아, 세상과 생활이란 이렇듯 애정에 넘쳐있고 아름답고 고상하고 백년이고 천년이고 살며 일해보고싶도록 좋은것이였는가！

박경섭의 바래움을 받으며 밖에 나온 리명선은 세상에 새로 태여난듯, 그것도 가장 행복한 운명을 지니고 태여난듯한 환희로 머리가 핑 돌았다. 이어 나이를 너무 먹었다는 한탄과 함께 오래 살아 한껏 일하고싶은 욕망이 불길처럼 피여오르며 가슴을 저릿하게 지지였다.

그가 박경섭이와 헤여져 접수실밖으로 총총히 걸어나오는데 체구가 우람한 사람이 앞을 막아서며 푸접이 좋게 허리를 굽석 꺾어 인사했다.

《리명선동지가 아닙니까？》

난생처음 보는 사람이다.

《강세룡이라고 합니다. 철룡이 형입니다.》

《아니, 그렇습니까！》 리명선은 가슴에 넘치는 행복감으로하여 이전의 감정은 잊고 반겨 인사했다.

《인사가 늦어 죄송합니다. 시내에 쫙 퍼진 소문을 듣고 촬영소에 가니 여기로 오셨다더군요. 그래 달려와서 기다렸습니다.》

《고마와요. …》

《지난날 노여웠지요？ 저를 용서하십시오.》

《다 지나간 일인데 무얼 이러십니까.》

《사실은 하고싶은 얘기도 있구해서…》

길건너 주차장쪽에서 승용차 한대가 서서히 미끄러져오더니 그들곁에 와 멎어섰다.

강세룡이 차문을 열며 어서 타라고 권하였다. 리명선은 갑자기 얼굴빛이 달라지며 걸어가겠다고 쌀쌀하게 사양하였다. 강세룡은 거의 우격다짐으로 그의 팔을 잡아끌었다. 젊은이들처럼 밀고당기는 힘내기도 할수 없어 녀자편이 지고말았다. 가볍지 않은 인생문제가 실린 차는 가로등불빛이 밝은 거리로 천천히 달려나갔다.

×

김정일동지께서는 이튿날 오후에야 돌아오시였다. 그이께서는 《꽃파는 처녀》필림이 현지에서 올라왔다는 보고를 받으시자 못내 기뻐하며 편집이 끝나면 인차 보자고 하시였다.

이튿날 오전 **김정일**동지께서 두번이나 필림현상이 끝났느냐고 물어보시였는데 오후 박경섭이 필림이 현상되여 편집실로 넘어간것을 보고드리자 흥분된 음성으로 촬영소에 나가보자고 하시는것이였다.

편집기앞에 나란히 앉아 필림을 편집하던 윤희와 철룡은 그이께서 방에 들어서시자 너무도 뜻밖이고 당황하여 의자소리를 내며 벌떡 일어났으나 인사드리는것도 잊고 엉거주춤 굳어졌다.

박경섭과 함께 그이를 따라 들어온 총장과 부총장도 어쩔바를 모르고 서성거리기만 하였다.

방안에 신선한 기운이 감도는듯하였다.

그이께서는 편집기앞에 선 윤희를 보고 못내 기뻐하시였으며 철룡이도 인차 알아보고 손을 뜨겁게 잡아주며 현지에 나가있는 연출가와 촬영가, 창조성원들이 다 건강한가고 물으시였다. 북방의 바람에 얼굴이 검스럼하게 탄 철룡은 병사처럼 차렷자세를 취하며 다 건강하다고 힘차게 대답하였다. 그 대답에 밝은 미소를 지으신 그이께서 철룡의 목에 걸린 필림을 조심스럽게 들어 불빛에 비쳐보며 아주 빨리 찍었다고, 수고스럽게 찍은건데 가위질을 주의해서 하라고 다심하게 이르시였다.

이윽고 윤희와 철룡은 그이의 손짓에 순응하여 다시 기대앞에 앉아 편집작업을 계속하였다.

그이께서는 총장이 갖다놓은 의자에 앉아 두사람의 머리사이로 편집기의 희푸르스름한 화면을 주의깊이 내다보다가 배우들의 연기며 현지의 촬영조건에 대하여 철룡에게 조용조용 물으시는가 하면 가위로 필림을 자를 때마다 너무 자르지 않는가 마음을 쓰시였다.

그이의 뒤쪽에 앉아있는 박경섭은 자꾸 목이 메여올라 마른침

만 삼키고있었다.

(얼마나 관심이 깊으면 이러시겠는가. …)

그이의 주의집중과 여느 사람들의 초긴장으로 하여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몰랐는데 소리없이 다가온 총장이 팔을 건드리며 손목시계를 가리켜서야 박경섭은 식사시간이 퍽 지났음을 깨닫고 펄쩍 놀랐다.

그는 허리를 구부정하고 **김정일**동지께로 다가가 귀속말로 시간을 알려드렸다.

그이께서는 긴장한 사색의 빛이 력연한 안색으로 돌아보며 괜찮다고, 오늘 저녁에는 내가 수고하는 동무들한테 한턱 쓰고싶어 집에 말해두었으니 이제 식사가 올것이라고 하시면서 함께 밤을 새워보자고 말씀하시였다.

모두 더 당황해지고 송구스러움과 감격에 어쩔바를 모르며 술렁거리였다.

이윽고 문이 열리며 환하게 생긴 젊은 일군이 식사가 든 지함을 들고 방에 들어섰다.

총장과 부총장이 얼굴빛까지 해쓱해져 이런 작업장에서 어떻게 식사를 하시겠는가고, 그이를 촬영소식당에 모시자고 수군수군 의논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의자에서 일어나 활달하게 걸어나오며 손을 저으시였다.

《아니… 아니… 괜찮소. 농장원들도 정 일이 바쁘면 밭머리에서 참을 드는데 여기도 좋습니다!》

그이께서는 총장과 부총장이 식탁대신으로 책상을 들어오는것도 굳이 말리시며 여기서 가정적으로 빙 둘러앉아 저녁을 들자고 하시였다.

방바닥에 전장짜리 백지 여러장을 깔고 그우에 깨끗한 보를 펴고 식사를 풀어놓으니 네댓사람분의 푸짐한 저녁상이 되였다.

그이께서는 편집기뒤에 숨은 윤희며 의자곁에 얼어붙어 서있는 철룡을 끌어다가 자리에 눌러앉히고 소탈하게 웃으며 그들에게 수저까지 쥐여주시였다.

꿇어앉아 겨우 수저를 받아든 윤희는 볼을 타고 흘러내리는것을 감추려고 고개를 깊이 숙였다.

그이께서는 윤희에게 무엇이라고 이르려다가 말고 옹송그리고 앉아있는 철룡에게 롱말을 던지시였다.

《대장부 앉음새가 그게 뭔가. 그래가지고야 먹는게 속에 떨어지겠나. 상을 좀 보라구. 반주가 없는게 좀 유감이지? 응? 그건 이제 영화만 잘 만들면 불이 펄펄 이는걸 내겠소!》

《정말입니까?》 철룡의 입에서 얼결에 튀여나온 소리에 그이께서는 무릎을 치며 호탕하게 웃으시였다.

《됐어!… 됐어!…》

윤희도 손으로 입을 가리우며 방긋 웃었다. 밥상머리에 단란한 가정의 화기가 도는듯하였다. 그이께서는 몸을 뒤로 젖혀 저만치에서서 벙글거리는 박경섭을 돌아보며 총장과 부총장은 어디 갔는가고 물으시였다.

박경섭이 복도로 나가니 문결에서 부총장과 함께 서성거리던 총장이 그의 손을 덥석 잡으며 불같은 말을 토로하였다.

《저희들은 괜찮습니다. 이 저녁… 이 밤을 일생 잊지 않겠습니다!》

안쪽에서 그이의 유쾌한 음성이 울렸다.

《거기선 뭘하오. — 또 회의요. — 그 졸장부들을 당장 끌어오오!》

밤이 깊어 편집작업이 끝나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필림을 시사실의 고성능영사기에 걸고 영화흐름을 보자고 하시였다.

아늑한 시사실에는 정숙이 깃들어있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시사실에 들어오시자 객석의 안락의자에 편안히 앉아 연출대본을 펼치고 한장 또 한장 번져가며 촬영된 장면들을 더듬어보시였다.

그이의 곁에 자리를 잡은 총장과 부총장은 물론 박경섭도 전에 없는 흥분과 긴장감에 사로잡혀 그이께서 번져가시는 연출대본에 눈길을 주고는 어떤 물음에나 대답할 차비를 하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그이께서는 표식도 하고 밑줄도 그어가며 작중인물들의 대사

들을 다 읽어보시고는 화면을 보자고 하시였다.

총장이 신호단추를 누르자 암전이 되였다.

영사막에 절묘한 바위들이 삐죽삐죽 솟은 우중충한 산발들이 흐르더니 연분홍, 진분홍의 불길이 휩쓸고있는 야산이 펼쳐진다. 그 불길들은 망울이 졌거나 활짝 핀 진달래덤불들이다.

진달래는 산꼭대기, 산중턱, 기슭, 어디에나 다 피였다. 그리고 각가지 꽃들이 애솔둘레에도 너럭바위곁에도 고목들밑에도 어느 집안 선조의 오랜 묘지곁에도 탐스럽게 피여 바람결에 야드르르한 꽃잎들을 한들거린다. 화조가 어찌나 밝은지 고개를 숙인 꽃순이며 이파리에 흐르는 이슬, 방싯 벌려진 꽃망울속의 발깃한 색조까지 다 가려보인다. 그 꽃동산에서 싱그러운 봄기운이 풍겨나와 가슴에 뭉클 안겨드는듯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저으기 놀라신 안색으로 총장을 돌아보시였다.

《저게 다 생화들이 아니요? 거기에 눈이 내렸다는데 어디서 저렇게 많이 가져왔소?》

《회성사람들이 촬영을 돕자고 피운겝니다.》

《군당책임비서는 한개 리에만 포치했다던데…》

《소문을 듣고 군안의 숱한 집에서 피웠답니다. 지어는 린접군의 가까운 마을에서까지…》

《그랬군… 아마 우리 조선사람들처럼 예술적인 민족은 세상에 드물거요.》

《당을 받드는 인민들의 지성인것 같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화면을 바라보시였다. 그이의 시선이 화면으로 옮겨지자 시사실의 공기마저 긴장된 사색의 세계에로 잠겨드는듯하였다.

가난이 흐르는 초라한 옷차림의 꽃분이가 다래끼를 옆에 안고 동산으로 걸어오른다. 눈물겨운 인생을 돕자고 앞을 다투어 피여난듯 여기저기에서 불길처럼 날름거리는 진달래를 둘러보는 처녀의 얼굴이 이름할수 없는 기쁨으로 밝아진다. 처녀는 처음에는 꽃들이 어디로 숨어버릴가봐 겁나하는듯 헤덤비며 달려나가 아무 꽃이나 마구 꺾다가 더 이쁜꽃, 더 탐스럽게 망울진 꽃들을 골라서 꺾기 시

작한다. 설레이는 꽃잎들, 자기를 먼저 꺾어달라 조르는듯 처녀의 팔이며 볼이며 치마자락에 감겨드는 꽃들, 꽃들이 잡관목덤불속에서도 애솔뒤에서도 너럭바위곁에서도 얼굴을 빠끔히 내밀며 손저어 부른다.

꽃분이는 어느 꽃을 먼저 꺾었으면 좋을지 몰라 이마에 흘러내린 머리칼을 손등으로 쓸어올리며 한숨을 호 내쉰다. 이 꽃들을 팔아 약을 사오면 어머니를 구원할수 있겠다고 생각하는듯 처녀의 얼굴이 환히 밝아진다. 꽃잎들에 맺힌 이슬은 처녀의 가슴에서 떨어진 기쁨의 눈물인듯…

꽃분이는 다시 걸음을 옮겨가며 진달래를 한가지 또 한가지 정성담아 꺾는다. 꽃을 꺾는 처녀의 눈에 미소가 어리고 희망의 빛이 반짝인다. 꽃분이는 꽃을 꺾다가 허리를 펴고 먼 마을쪽을 바라보는데 마음은 벌써 어머니의 머리말에 가있는듯 그 눈이 살뜰한 위안의 말을 속삭이며 그지없이 부드럽게 빛난다.

(저것이다. 바로 저것이다.) 하고 박경섭은 속으로 웨쳤다.

여기저기 옮겨가며 꽃을 꺾는 처녀의 그 모습들에서는 매번 그의 작은 가슴속에서 찰랑거리는 감정의 물결이 뚜렷이 느껴진다.

꽃들의 인상은 점점 흐려지고 처녀의 갸륵한 마음과 수정처럼 투명하고 아름다운 넋이 화면에 가득차서 설레이는듯하다.

박경섭은 자기의 공감과 흥분이 커질수록 그이의 평가가 어떨지 몰라 가슴을 더더욱 조이게 되였다.

꽃동산장면이 끝나자 불이 켜졌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한점의 그림자도 없는 흰 영사막에서 한동안 눈길을 떼시지 못하다가 흥분된 안색으로 박경섭을 돌아보시였다.

《저 동무가 몇살이던가?》

《17살입니다.》

《동무 보기에는 연기가 어떻소?》

《괜찮은것 같습니다.》

《아주 잘하오. 어머니를 위하는 마음이 뜨겁게 안겨오오. 어머니에 대한 효성이 진실하고 섬세하게 형상되였소. 어머니에 대한

사랑… 이것은 사람의 가슴에 제일 처음으로 움트는 감정이 아니겠소. 그리고 자라면 우정으로, 련정으로, 향토애, 웅심깊은 조국애, 아량이 넓은 인간애로 꽃펴날수 있는 심혼의 씨앗이라고 할수 있지. 때문에 이 작품에서 어머니에 대한 효성을 잘 그리는것은 주인공의 성장과 주제사상의 울림을 크게 하는데 매우 중요하오.

로영무동무하고 전체 창조성원들에게 이 문제를 특별히 강조해주어야 하겠습니다.》

《예…》 총장이 그이의 말씀을 받아쓰며 조용히 대답하였다.

《주인공이 이렇게만 연기를 해주면 괜찮겠소. 17살이라… 금년봄에 청산리에 나갔다가 처음 만나보았소. 그날 배우양성소동무들도 촬영소예술인들과 같이 청산리에 나가 모내기를 도와주고있었소. 그때는 철없는 처녀애같더니… 재능이 있군… 로영무연출가의 수고도 컸겠지만…》

박경섭이 미소어린 얼굴로 말씀드렸다.

《전국적인 판도에서 찾아보고 고른 동무가 아닙니까.》

《다음장면을 봅시다.》

영사막에는 꽃분이와 순희가 약을 사가지고오다가 비를 맞고 나무밑에서 오돌오돌 떠는 장면, 꽃분이가 감옥의 오빠를 찾아가는 장면이 흘러지나가고 마름의 생활이 비쳐졌다.

지주집뜨락에서 다리를 절뚝거리며 오락가락 서성거리는 마름… 고목밑에서 언니를 기다리는 순희… 퇴마루에 거드름스럽게 앉아있는 지주에게 무엇이라고 귀뜀하는 마름…

김정일동지께서는 웬일인지 마름장면을 다시 돌리라고 하시였다.

영사막에 마름장면이 다시 비쳐지자 그이께서는 팔굽으로 앞탁을 짚고 흘러가는 화면을 주의깊이 바라보시였다.

박경섭은 어둠속에서도 그이의 안색이 흐려진것을 느꼈다.

불이 켜졌을 때 그이께서는 의아한 안색으로 박경섭을 돌아보시였다.

《이자 그 장면들은 하루에 찍은것들이요?》

《이틀에 나누어 찍은것 같습니다.》

《이틀에？ 하루밤사이에 버짐이 옮겨질수 있는가？》
마름의 이마에 그려진 버짐을 념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인것 같았다.
《버짐 말입니까？》
《느끼지 못했소？ 두 장면에서 버짐의 위치가 다르오. 약간 흔들렸소. 분장사가 누구입니까？》
《장미혜입니다.… 리명선동무의 딸입니다.》
《그 동무가 어머니 소식을 듣고 지내 흥분된게 아닌가요？》
《알아보겠습니다.》
그이께서는 잠시 생각에 잠기였다가 말씀을 이으시였다.
《꽃분이가 감옥의 오빠를 찾아가는 장면이 좀 무의미합니다. 그 장면을 주인공의 성격발전과 밀착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오빠한테로 찾아가는 먼 길에서 꽃분이는 자기 고향마을의 범위를 벗어나 사회적모순을 더 폭넓게 느낄수 있습니다. 번개가 치고 비나 퍼붓게 해서는 의미가 뚜렷하지 못합니다. 꽃분이가 길을 가면서 철도부설장에서 고역에 시달리는 로동자들도 보고 철쇄에 묶인채로 맨발로 끌려가는 수인들도 보면서 나라없는 민족의 수난도 느끼고 왜놈들도 더 증오하게 되도록 형상하는것이 어떻습니까？ 그래야 시대상도 나오고…》
총장과 부총장은 그 말씀에 공감되여 머리를 끄덕이며 수첩장우로 펜을 달리였다.
그이께서는 총체적인 인상을 정리하시는듯 명상적인 눈으로 영사막의 웃쪽 한점을 이슥토록 지켜보시였다.
《전반적으로는 괜찮은데… 동무들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어딘지 모르게 주인공의 연기수준이 한결같지 못한것 같습니다. 어떤데서는 굳어져보이고 어떤데서는 감정… 넘치던 감정이… 잦아들고…》
그이께서는 감정의 오묘한 흐름을 만져보시는듯 약간 쳐든 손으로 허공을 어루쓸며 이야기하시였다.
《나올듯나올듯하다가 마는데… 움츠러드는지… 감정을 아주 놓치고마는지…》

그이께서 갑자기 량옆을 돌아보며 누구인가를 찾으시였다.

《부연출동무가 왜 보이지 않소?》

영사실의 뒤쪽 구석에서 강철룡이 벌떡 일어섰다.

《아니 동무는 왜 거기 있습니까? 주인인데…》

박경섭이 나오라고 손짓하였다.

강철룡은 뒤좌석들에 관중들이 앉아있기라도 한듯 허리를 구부정하고 껑충껑충 뛰여나왔다. 그가 박경섭의 곁에 오자 그이께서 부드럽게 물으시였다.

《현지촬영계획에는 꽃분이가 감옥의 오빠를 찾아가는 장면전에 순희를 윽박지르는 장면을 찍게 되여있는데 어째 그 장면이 빠졌소?》

《찍지 못했습니다.》

《못찍었소?》

《예… 연기가 영 해결되지 않습니다.》

《거기는 감정이 좀 복잡하지… 어린 동무가 그럴수 있소. … 그 동무한테 다른 애로는 없는가?》

《없습니다. …》 강철룡은 얼굴이 벌개졌다.

《없다…》

《저, 어머니가 앓는것 같습니다. 감기인지…》

그이께서는 앉으라고 손짓하고는 총장과 부총장을 돌아보시였다.

《주인공의 연기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도록 제작단에 요구해야 하겠습니다. 이 작품의 총체적인 감정흐름은 원한의 축적과 폭발입니다. 꽃분이가 지주놈에게 불화로를 던지는 장면은 억눌려 살아온 인민대중의 세기적인 원한의 폭발을 상징하고있습니다. 이 장면이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강렬한 호소성을 띠자면 꽃분이의 피눈물나는 체험세계, 그의 가슴에 원한이 쌓이는 과정이 진실하게 형상되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 영화를 통하여 력사의 주체인 인민대중은 투쟁을 통해서만 삶의 길을 개척할수 있다는 위대한 진리를 밝혀주자고 합니다. 어린 배우에게 참 무거운 짐이 실렸습니다. …》

그이께서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시였다.

7

자정이 훨씬 지나 촬영소에서 돌아오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정숙이 깃든 집무실에서 보아야 할 문건들을 다 보고 처리하여 하루일을 매듭지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심한 피로를 느꼈으나 하루동안에 토의하고 지시하고 결론하고 처리한 문제들을 다시 돌이켜보며 낱낱이 검토해보신 다음에야 탁상등을 끄고 자리에서 일어나시였다.

퇴근하려고 문쪽으로 천천히 걸어가시던 그이께서는 웬일인지 마음이 홀가분하지 못하고 무엇인가 잊은듯한 느낌에 걸음을 멈추시였다. 그이께서는 언제나 이런 느낌을 소홀히 스쳐버리지 않았으며 그 까닭을 안 다음에야 마음을 놓으시였다.

(왜 이런가. … 어디서 오는 느낌인가?…)

그 까닭을 알수 없어 몹시 불안해지시였다.

그이께서는 고요한 집무실안을 대각선으로 왔다갔다 거니시다가 창가에 멎어서시였다. 어둠에 덮여 깊이 잠든 수도의 어슴푸레한 야경이 바라보였다. 기관건물들과 주택지구들에 불빛이 다 꺼졌고 거리들에만 가로등이 외줄로 켜져있었다.

그이께서는 모두숨을 조용히 내쉬며 생각에 잠기시였다. 수백수천갈래 사업선의 어느 고리에서인가 불길한 일이 생긴듯하고 오늘 처리한 문제들중에 분명히 미흡한점이 숨어있는것 같은데 무엇인지 짚어내실수 없었다. 그이께서는 창가에서 돌아서 다시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며 한손을 허리에 올리시였다.… 착잡한 의혹의 안개속에서 문득 한 청년예술인의 얼굴이 떠올랐다. 촬영현지에서 올라온 부연출 강철룡이다. 그는 꽃분이역을 맡은 배우의 어머니가 감기인지 앓는것 같다고 하였다. 주의를 집중하여 영화흐름을 보며 수정안을 생각하느라고 그 문제를 미처 밝혀보지 못했던것이다.

(그것이다. …)

김정일동지께서는 마음이 좀 놓이시였다. 그이께서는 촬영소 총장이나 누구를 전화로 찾으려다가 그들이 이제는 깊은 잠에 들었으리라 생각하고 그만두시였다. 그것은 래일 알아봐도 될 일인데 어째서인지 또다시 마음이 점점 불안해지며 조바심까지 들어 그냥 퇴근하실수 없었다. 감기가 맞는가… 혹시 감기가 아니고 다른 중병이라면…

그이께서는 탁상등을 켜고 여러 사업수첩을 펼쳐보고 배우의 고향주소를 간신히 알아내신 다음 그곳 군당책임비서를 전화로 찾아보시였다. 군당책임비서도 무슨 시름때문인지 퇴근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그 군에 이러이러한 배우의 어머니가 살고있는것을 아는가고 물으니 기쁨에 넘친 목소리로 안다고 대답하였다.

목소리만 들어봐도 억척스러운 모습이며 걸걸한 성미가 가늠되였다. 책임비서는 옛날에는 개천에서 룡이 날아오른다는 속담이 있었는데 우리 군에서 영화배우가 났으니 산골에서 선녀가 날아오른셈이라고 군사람들이 자랑한다면서 앞으로 그의 가족을 잘 돌보겠다는 말까지 덧붙였다.

《그의 어머니가 앓고있는것 같은데 좀 알아봐주십시오. 무슨 병인지…》

《예？… 앓는건 모르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만났습니다.》

《아는 사이입니까？》

《군당에 몇번 찾아와서 알게 됐습니다. 요새 그 집에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버지는 전쟁시기 전사하고 삼촌이 그 집 살림을 떠메고 나갔댔는데 전후에 그만 행방불명이 되였습니다. …》

그이께서는 저으기 놀라시였다. 책임비서의 이야기는 전후복구건설의 어려운 시기를 상기시키면서 한 가정의 사연을 어렴풋이 떠오르게 하였다.

손영실의 어머니는 전쟁시기 서해의 영진포에서 남편이 전사했다는 비보를 받았으나 비감에 쓰러지지 않고 남몰래 눈물을 삼키며 아이들을 키워왔는데 시동생이 제대되여 집으로 돌아왔다. 기운이 장사같고 성미가 쾌활한 그는 어렵지 않게 집을 번듯하게 수

리해놓고 수산협동에 들어가 어로반장으로 일하며 가정살림을 떠메고 나갔다. 어머니한테는 의지가 생겼다.

어느덧 그늘이 드리웠던 집안에 생기가 돌고 아이들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여났다. 아이들은 삼촌이 일을 끝내고 돌아올 시간이 되면 바다가까지 달려나가 마중하군하였다. 어린것들한테는 그 총각삼촌이 아버지나 다름없는 존재였던것이다.

삼촌은 수산협동에서 성수가 나서 일했다.

조합은 전화의 피해로 령세해졌지만 작은 배들과 낡은 어구들을 수리해가지고 먼 수역에까지 나가 어로전을 벌려 복구건설이 한창인 공장지구의 후방공급사업에 괜찮게 보탬을 주고있었다.

제대군인어로반장은 몸을 아끼지 않고 그 어로전에 참가하였으며 사람들의 앞장에 섰다. 안개가 자욱하게 낀 어느날 새벽 그는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어로수역에 늘인 그물을 살펴보려 사돌배를 저어 바다로 나갔는데 영영 돌아오지 못하였다.

《갑자기 일어난 풍랑에 배가 뒤집혔는지, 무슨 불상사가 생겼는지… 그 집이 우리 군에 이사왔을 때 구구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몇해가 지나서 수산조합 관리위원장이 우리 림산에 출장왔다가 저한테 인사하러 들린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있은 동무입니까?》

《예… 이야기끝에 그의 실종에 대해 물었더니 한참 망설이다가 모든 흔적으로 보아 우리 수역에 잠입했던 간첩선에 랍치되여 남으로 끌려간게 분명하다는게 아닙니까. … 〈당위원장한테 찾아가서 갑자기 일어난 풍랑에 배가 뒤집혀 행방불명이 된것으로 말해주자구. 둘이서 짜구 랍치돼갔다는 소리는 절대 하지 말기로 했지요. 당위원장두 같은 심정이였습니다. 그후 친척들한테 의지해살라고 내륙지방 여기로 이사시켰지요.〉 환갑이 넘은 관리위원장아바이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제손을 꽉 잡고 그런 사람이 끌려갔다고 적이 됐겠는가. … 이 사실은 비서동무 혼자 알구 애들이랑 잘 보살펴달라구 부탁했습니다. 애들은 남부럽지 않게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달포전 영진포에 갔다오더니 일이 생겼습니다. 거기 누구한테선가 그때 그 어로수역에 한달이상 풍랑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된것입니다.

군당에 거듭 찾아와서 삼촌문제를 해명해달라고 청원했습니다. 어제는 저한테 찾아와서 신경이 약해졌는지 눈물까지 보이면서 그가 어디로 도주했는가, 랍치돼갔는가, 그랬으면 그랬다고 진실대로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세월이 흐른 지금에 와서 그런 사실을 터놓아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 어린 딸이 벌써 영화배우까지 됐는데 뭣이 모자라서 이러는가고 좋지 못한 소리까지 해서 돌려보냈는데 그래놓고보니 저도 속이 좋지 못했습니다. 촬영소 딸이 어머니를 달래는 편지까지 써보냈다는 말이 도는걸 보면 그 동무도 이 일을 아는것 같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 안색이 심각해지시였다.

《…행방불명이 아니라 랍치돼간게 사실입니까?》

《저희들도 따로 알아봤습니다. 사실입니다.》

얼마후 그이께서는 송수화기를 맥없이 놓고 안락의자에 가 앉아서 눈을 감으시였다.

(아, 아버지가 없는 그 어린 처녀한테 삼촌문제까지!…)

거창하게 설레이는 바다, 기슭을 들부시는 파도… 바다가에 옷자락을 날리며 서서 달빛어린 수평선쪽을 끝없이 바라보는 녀인의 구슬픈 자태가 떠오르고 밀물처럼 밀려드는 련민과 쓰리고 아픈 마음에 가슴이 터져나가는듯하시였다.

한시도 쉬임없는 파도소리는 밤마다 어린것들의 여린 마음을 얼마나 자극했겠는가. … 어머니가 홀로 자식들을 키우자니 서러운 일, 속탄 일은 얼마나 많았으랴. …

문득 배우선발때 사람들의 주의를 끌었던 나어린 처녀의 아련하면서도 구슬픔이 밴듯한 얼굴인상은 이런 슬픔이 그려낸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드시였다.

촬영소에 나가 본 영화화면들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꽃분이의 연기수준이 한결같지 못한것, 넘치던 감정이 움츠러들기도 하고 아주 잦아버리기도 한 까닭이 비로소 느껴지시였다.

(어린 마음에 그런 고민을 누르며 연기형상을 하자니 얼마나 괴

로웠겠는가. 그만큼 한것도 용치… 기특해…)

이튿날아침 **김정일**동지께서는 출근하자마자 권위있고 능력있는 한 전문기관에 랍치된 어로반장의 운명에 대하여 알아볼것을 의뢰하시였다.

닷새후 그이께서 새벽까지 대극장에서 일을 보시고 집무실로 돌아오니 놀라운 회보가 들어와있었다. 적들이 바로 그날 우리 수역에서 해적행위를 한것은 사실이나 끌어간 사람들중에서 그런 어로공은 찾을수 없다는것이였다.

《그럼 랍치된 사람이 어디로 갔소? 동무는 어떻게 생각하오?》

그이께서는 곁에 와있던 박경섭에게 흥분된 음성으로 물으시였다.

그는 얼굴빛이 심중해졌다.

《참 이상합니다. …》

《이상할건 아무것도 없소. 명백하오. 나한테는 명백하오. 남쪽수역에서 피살됐소. 그런 사람이 조국과의 인연을 순순히 끊고 끌려가자고 했겠는가. 무섭게 저항했을거요. 근거는 없지만 나는 그렇게 믿고싶소. 이건 한 사람의 정치적생명과 관련되는 문제요.》

그이께서는 또다시 수산부문과 해운부문, 해군사령부의 해당기관들에 그 실종사건의 조사를 의뢰하시였다. 이틀후부터 수산과 해운 부문에서 여러가지 조사보고가 올라왔는데 모두 믿을만한것이 못되였다. 그러나 해군사령부의 해당 기관이 보고한, 여러해전에 페기된 순찰정의 항해일지에서 찾아냈다는 자료는 주목할만한것이였다. 그 순찰정은 사건이 있은 날로부터 보름이 지나 위도 38도와 37도사이의 공해를 항해하다가 파도우에 떠있는 사람의 잔등같은것을 발견했다. 접근하여 건져보니 파도에 부대껴 넝마처럼 된 작업복저고리였다.

옛 순찰정의 정장은 매우 다감한 군관이였던지 이런것까지 적어넣었다. … 색갈은 밤색, 탄알에 구멍이 숭숭 뚫림, 근처의 수역에서 모종의 사살행위가 있은것이 분명함, 감시를 강화할것!

그이께서는 설마한 생각이 없지 않았으나 전화로 군당책임비서를 찾아 처녀의 어머니한테 어로반장이 그때 어떤 색갈의 작업복을 입고있었는지 알아보라고 이르시였다.

송수화기를 놓으신 그이께서는 갑자기 가슴이 타드는듯하여 일을 손에 잡지 못하시였다. 매우 불안하고 초조한 안색으로 방안을 거니시다가 의자에 앉아 회답을 기다리시였다.

한시간도 퍽 더 지나 전화종이 울렸다. 군당책임비서였다. 밤색이라고 했다.

곁에 있던 박경섭이 흥분하여 웨쳤다.

《그의 작업복입니다! 이제 무엇을 더 의심하겠습니까? 용감히 싸우다가 희생됐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의자에 앉으며 손수건을 꺼내 이마의 땀기를 천천히 씻으시였다. 그러시고는 담담한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내가 보증서겠습니다.… 촬영소에도 알려주고 군당에도 통보해주시오.》

《제작단에는 주영도비서가 가서 손영실동무에게 직접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주영도동무를?…》

《그럼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아니… 아니… 연출가가 말해주었으면 좋겠소. 요새 나는 연출가에 대해서 줄곧 생각해왔소. 연출가는 처녀의 어머니가 감기같은걸 앓고있는것으로 알고있었는데 이런 엄청난 문제가 있었단말입니다. 연출가와 배우사이에… 그만큼 거리가 있었소. 배우의 가슴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면서 색색의 감정을 계발해내자니 얼마나 힘들었겠소.》

《연출작업에 청산리정신을 구현하여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워야 한다고 늘 강조해왔는데 로영무동무가 아직도 낡은 연출수법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의 약점을 느끼면서도 저희들이 잘 돕지 못해 이렇게 되였습니다.》

《연출가가 이 소식을 직접 말해주도록 합시다. 서로 마음이 통하는 계기로 될지 알겠소.… 그리고 어머니를 평양으로 아주 데려옵시다. 마음고생을 많이 해왔는데 이제는 자식들과 함께 한껏 락을 누리며 살수 있도록… 그 동무가 앞으로도 아무 근심걱정없이

창조사업을 할수 있도록 해줍시다.》
창문에 새벽빛이 희읍스름하게 어리였다.

×

갱생차는 속도를 늦춤이 없이 시내물가로 뛰여들었다. 마치도 밑에서 폭발이 일어난듯 싯허연 물갈기가 차체량쪽으로 날아올랐다. 차는 물을 가르며 내달리고 일렁이는 수면에서는 해빛이 부서져 숱한 불꽃들이 날름거리는듯하였다.
로영무는 안전띠를 붙잡고 그 불꽃들의 눈부신 반짝거림을 내다보고있었다. 피로운듯하면서도 심각한, 그러면서도 격정이 물결치는 얼굴이였다.
이른아침 군당에 불리여나가 친애하는 그이의 전화를 받고오는 지금 그는 자기를 뒤에서 떠밀어주는 거대한 힘을 가슴벅차게 느낌과 함께 모진 가책으로 심장이 비틀려지는듯 아파났다. 철룡이한테서 손영실의 어머니가 앓는것 같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어째 그처럼 스쳐버렸던가.… 촬영 한곬으로만 마음이 내달렸기때문인가. 자기 혈육들중의 누가 앓는다는 소리를 들었더라면 어쨌겠는가. 손영실은 내가 아니고 남이며 그의 어머니는 더더욱 남이기때문인가…
이런 사람한테 누군들 가정사정이나 깊은 속마음까지 털어놓고싶겠는가.… 우리의 친애하는 그이… 그이께서는 인민이 곧 친혈육으로 되여있기때문에 한 전사의 근심이 곧 자신의 근심으로, 한 어머니의 아픔이 곧 자신의 아픔으로 된것이다. 그래서 그토록 심려하시고도 응당한것으로 여기며 로영무라는 이 허울만 있는 인간한테 나무람하는 말씀 한마디 없으시였다.
로영무는 그 말씀이 없는 공간에서 그이의 웅심깊은 마음과 인격을 느끼며 온 심혼을 뒤흔드는 충격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잘못이 어떤 성격의것인가를 몸서리치게 느꼈고 자기 사람됨됨이 눈앞에 뚜렷이 보이는듯하였다. 그리고 크나작으나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자기 한생에 여러번 있지 않았는가싶은 느낌과 함께 자기 생활을 깊이 숨어서 은근히 조종한 그 무엇인가

를 뒤집어엎지 않으면 안된다는 절박감에 가슴이 조여들고 숨이 막혔다. 차가 내가의 둔덕진 길에 치달아오르자 그는 운전사한테 세우라고 소리쳤다.

로영무는 차를 먼저 보내고 고르롭지 못한 농촌길을 따라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갔다. 서늘한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아침의 신선한 해빛이 눈을 찔렀다. 걸음마다 어슴푸레해지는듯한 눈앞에 한생의 일들이 언뜻언뜻 떠올랐다. 최승진이와 처음 만나던 일… 한평생 계속된 우정… 시기심의 발작… 작품을 말았다가 내놓은 일…

그는 괴롭게 한숨을 내쉬였다. 철룡이와 미혜의 관계를 알면서도 개의치 않았다. 한기석의 속심과 비행을 알면서도 체면이 깎일가봐 외면했었다. 리명선이 좌절감을 토로하며 떠날 때는 왜 호되게 꾸짖어 붙잡아두지 못했던가. …

(왜… 어째… 정은주의 소식은 전하지 못했던가. 시끄러운 말밥에 오를가봐 두려웠지… 수옥의 편지가 오는것도 부담으로 여기지 않았던가. 승진이가 내 경우라면 당장 달려와 알렸을것이다. 후에 무슨 화를 당하겠는가는 아랑곳없이 우선 심장이 시키는대로 했을것이다. 그는 심장을 설설 끓이며 불같이 살았다. 그래서 파란곡절도 겪고 실패도 있었지만 성공률이 더 컸다. 그는 어쨌든 예술가였다. 아, 나는 무엇인가. … 남의 아픔보다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자기 울타리를 쳐놓고 그속에서 소심하게, 비겁하게 살아온 속물이 아니였는가. 사람들의 관계속에 뛰여들기를 저어하고 생활의 격류속에, 조국의 벅찬 현실속에 뛰여들어 함께 숨쉬지 못하고 늘 가녁에 비켜서 바라보기만 한 관조자가 아니였던가. … 나는 겉보기에 괜찮은 인간이고 예술인 같았지만… 실속은 뜨겁지 못한… 아니… 랭담한 리기주의자가 아니였던가. 여태 나는 자신의 허점을 깊이 느끼지 못했고 자기 정신적초상을 여겨보려고도 하지 않았어… 아, **김정일**, 저 정신적거인의 태양열같은 사랑이 아니였던들 이런것을 느끼기나 했겠는가. 하루 살아도 불같이 살자. 달처럼 태양빛을 반사만 하는 차거운 위성이 되지 말자. 큰 심장, 불같은 심장, 청춘의 열정이 아니고는 저 위대한 천재의 뜻을 따를수도 받들어나갈수도 없다!)

로영무는 해빛이 눈부신 하늘가를 바라보다가 시내물쪽으로

허둥허둥 걸어갔다.

내물은 무엇이라고 조용조용 속삭이며 흘러내리고있었다. 해빛이 물속까지 비쳐들어 알릴듯말듯이 흐르는 모래들이 진귀한 보석가루처럼 반짝이였다.

그는 찬물을 욕심스럽게 퍼올려 세면을 하였다. 머리속이 찡 저려들며 마음이 좀 개운해지는듯하였다.

그가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돌아서는데 누구인가 앞을 막아섰다. 그늘진 얼굴… 한기석이다. 어디엔가 앉아있다가 다가온듯하였다.

《어디서 전화가 왔습니까? 저에 대해서 묻지 않았습니까?》

《아니네… 가자구, 가서 말하지…》

로영무는 부옇게 흐려진 눈으로 자기 아들벌이 되는 그를 지켜보았다.

《나도 말이네, 이전에는 느끼지도 못했던 흠이 자꾸 떠오르네. 해빛이 밝아지면 보이지 않던 티도 다 드러나는 법이거든. 허허…》

그의 눈에 물기가 떨었다.

그가 한기석을 데리고 걸음을 옮기는데 저 웃쪽에서 강철룡이 뛰여내려왔다.

댓걸음앞에서 멎어선 철룡은 놀란 눈으로 연출가를 지켜보며 숨을 헐썩거리였다.

《어째 걸어옵니까? 차는 먼저 보내고… 무슨 일입니까?》

《가자구, 가서 말하지. 꽃분이는 어디 있는가?》

《저—기… 저기서 연기련습을 했습니다.》

철룡이 가리키는쪽 버들방천곁에 꽃분이가 순희와 나란히 서있었는데 처녀는 벌써 무엇을 느꼈는지 한손을 볼에 대고 이쪽을 오도카니 지켜보았다.

로영무는 처녀에게 할 말을 생각하니 가라앉았던 격정이 다시 터져오르며 목부터 메여올랐다.… 말보다 먼저 그 아름다운 존재를 해빛이 눈부신 창공높이 추켜올리며 웨치고싶었다.

(우리는 어떤 품에서 예술을 하느냐! 얘야, 세상을 향해 웨쳐라. 나를 보라고… 우리를 보라고!…)

그는 처녀한테로 뛰여갔다. 내내 상념속에서 앞을 막고있던 안

개며 유리판이며 담벽이 산산 부서져 허공에 흩날리는듯한 환각을 느끼며…

8

이튿날밤 상현리마을앞 시내가에서는 두 그림자가 얼마간의 사이를 두고 어디로인가 정신없이 걸음을 다그치고있었다. 두 그림자의 움직임에서는 운명의 낭떠러지로 돌진해나가는듯한 무분별이 느껴졌다. 앞에 선것은 강철룡이고 뒤따르는것은 장미혜였다.

무엇때문에 그들이 밤중에 이런 외진데로 나왔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달빛이 환한 가을밤은 교교한 정적속에 묻혀있었다. 우중충한 버드나무들도 풀잎들도 숨을 죽이고있었다.

철룡은 단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어디라없이 허둥지둥 걸어나가다가 멎어서 터슬터슬한 버드나무그루를 한손으로 짚고 씨근거리였다. 처녀의 발자욱소리가 다가왔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위혁적으로 부르짖었다.

《다가오지 말어. 가만두지 않겠소!》

처녀는 그 험한 기상에 겁을 먹었는지 서너걸음 뒤에 와 멎어서 쌀쌀한 목소리로 말했다.

《좀 말을 하자요.》

《무슨 말을… 이자 다 말하지 않았는가. 나는 달밤을 즐기자고 나왔댔소. 들어가오.》

《한번만 더 말해요.》

《…》

《정말 절 용서해요?》

《용서했다지 않았소. 몇번 말해야 되오. 다 잊어버리겠다고 하지 않았소.》

《거짓말… 거짓말이예요.》 미혜는 떨리는 목소리로 부르짖었다.

《눈을 보면 다 알아요. 저한테서 모욕당한 일이 가슴에서 내

려가지 않아 그러지요? 동무는 하나도 용서하지 않고 어느 하나도 잊지 않았지요?》

철룡은 차거운 버드나무그루에 이마를 붙이고 단숨을 거칠게 몰아쉬였다.

(그렇다. 잊지 않았다. 하나도… 하나도… 아니, 그따위 모욕은 잊을수도 있어…)

그는 이전에는 미혜를 용서할수 있었으나 처녀가 어머니의 소식을 들은 다음 갑자기 접근해오자 이전 일들이 되살아오르며 가슴에 불이 일어 견딜수 없었던것이다.

《철룡동무… 제 사정을 좀 들어봐요. 우리가 이전처럼 될수 없다는걸 잘 알아요. … 전 신념이 없이 살았어요.》

《…》

《제작처장이 어머니편지를 가져왔어요. 그 편지를 읽고 얼마나 가책이 됐는지 몰라요. 전… 어머니처럼… 그렇게 변함없이 당을 믿지 못했어요.》

처녀는 갑자기 눈물을 삼켰다.

《신념이 없으니 아무한테나 의지하게 되더군요.》

《…》

《동무한테야 이런 하소연이 무슨 소용이겠어요. … 동무의 차거운 눈을 볼 때마다 가슴이 얼어들고 괴로와죽겠어요. 분장 사고도 그래서… 지금같아선 또 사고를 칠것만 같아요. 속이 정 안내려가면… 그렇게 안내려가면 절 때리든지 어떻게 해요!》

미혜는 눈물에 젖은 목소리로 간청하였다.

《때리라요. 밟아죽이라요!… 그리구 속을 풀어요. 동무야 남자가 아닌가요. 왜 품고만 있어요? 맘껏 터뜨려요.》

《…》

《왜 가만있어요? 때리지도 않고 용서도 안하고… 그럼 어떻게 살아요. 한제작단에서 어떻게 일해요?》

《…》

《그럼 제가 다른 제작단에 갔으면 좋겠어요? 눈앞에서 아주 사라지라요?》

(가든지 사라지든지 나한테 무슨 상관인가…)

처녀는 그의 침묵에 질겁하여 몸을 떠는듯했다. 그러다가 갑자기 원망의 부르짖음소리를 정신없이 터뜨렸다.

《왜 절 내버려뒀어요. 잘못 놀아나는걸 보면서도… 어느땐 이슬이 되면 눈에 넣고 다니겠다더니… 거기선 책임이 없어요?》

가슴을 찢는듯한 흐느낌소리가 터져올랐다.

책임이라는 그 한마디 소리가 철룡의 가슴을 선뜩 찔렀다. 그리고 까닭모를 아리숭한 가책이 들며 마음이 산란해졌다.

철룡은 버드나무곁을 떠나 앞쪽으로 스적스적 걸어나가 시내가의 모래불에 주저앉았다. 머리를 싸쥐였다. 자기네가 이렇게 된데는 형이나 미혜한테만 잘못이 있는것 같지 않았다.

시내물은 달빛에 반짝거리며 흘러내렸다. 지난날의 일들이 하나하나 떠올랐다. 미혜가 문을 닫아걸고 응대를 안하던 일,외국참관으로 떠나기전 매섭게 반발해나섰던 일… 그때 모욕감과 환멸감에 물러날것이 아니라 인내성을 가지고 그 까닭을 끝까지 캐여봤다면 모든 원인들이 밝혀지고 일이 달리 되였을지도 모른다. 외국참관에서 돌아와서도 그 후에도 얼마든지 해명할수 있는 문제인데 자존심만 날카로와져 그렇게 하지 않았다. 어찌 생각하면 그렇게 안한것이 잘한 일인것 같기도 했다. 형이 사회적 편견으로 반대하고 한기석이 훼방을 했지만 그쯤한데 흔들린 처녀이라면 헤여져 아까울게 없지 않는가. 미혜도 그렇고…

그러나 인차 다른 생각이 머리를 쳐든다.

(분장실에서 나서 분장실에서 자랐다는 저 처녀야 인생체험도 깊지 못해 흔들릴수도 있지 않는가.… 누구인가 사랑이란 향락이나 감정놀음이기전에 책임감… 한 운명에 대한 엄숙한 책임감이라고 했었지. 나한테는 과연 그런 책임감이 있었는가.…)

처녀가 옆으로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철룡동무,다 잊자요.… 형님이 우리 엄마를 찾아왔더군요. 편지에 그렇게 써있어요.》

《형이?…》 철룡은 놀라서 돌아보았다.

《우리 관계를 이야기한것 같아요. 이런 소리를 한다고 비웃

지 말아요. 이제는 형의 지지가 동무한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걸 잘 알기때문에 그저 소식으로 전하는거예요.》

《알고있소.》 그의 목소리는 좀 퉁명스러웠다.

《그럼 안심하겠어요.》

《그전에 산들에 묻었던 병들을 다 깨버리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했소? 다 깨버렸소, 어쨌소?》

《…》

《어째 못했소?》

《그걸 그렇게 원해요? 이번 올라가서 다… 죄다 깨버리겠어요. 산산 부셔버리겠어요!》

처녀는 비명비슷한 소리를 지르며 락엽이 흩날리는 버들방천쪽으로 허둥지둥 뛰여갔다.

철룡은 후닥닥 뛰여일어나 목청껏 불렀다.

《미혜!》

그 위협적인 소리에 처녀는 전기에라도 닿은듯 와뜰 놀라며 멎어섰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돌리고 겁먹은 눈으로 그를 빤히 지켜보다가 반발하듯 홱 돌아서 어둠속으로 뛰여들어갔다.

9

그후 제작단성원들은 전에없던 놀라운 열정으로 창조사업을 벌리였는데 그들이 회성에서 돌아오자 친애하는 그이께서는 예술영화 《피바다》를 창조한 젊고 쟁쟁한 연출가를 로영무한테 협조연출로 보내여 연출진영을 보강하는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시였다.

그리하여 영화촬영이 속도있게 진척되였으며 다섯달이 지나서는 촬영이 끝나고 뒤따라 인차 작업필림이 나왔다.

로영무는 작업필림을 편집기에 걸어 한번 돌려보고 마음이 여간 흐뭇하지 않았다. 영화형상이 전반적으로 수준있게 된것 같고

이제 음악과 효과음만 합성하면 그 형상효과가 완전히 나타나리라는 확신이 들었기때문이다.

작업필림이 나오기를 손꼽아기다린 총장과 예술부총장, 촬영소의 모든 예술부문 일군들은 즉시 시사실에 모여 그것을 보았다. 영화가 시작되자 모두 숨을 죽이고 화면을 보며 대사를 들었다. 영사막에 마지막 화면이 흘러지나가고 불이 켜졌을 때 장내가 갑자기 술렁거리더니 구석쪽에서 박수소리까지 터져올랐다. 그것은 무슨 경축행사날의 소고의 경쾌한 울림소리처럼 연출가의 가슴을 흔들었다.

옆에 앉은 총장이 흐뭇한 미소를 머금고 로영무의 손을 뜨겁게 잡아쥐였다.

《수고했습니다. 연출가동무, 잘됐습니다. 아주 좋소!… 오늘 점심엔 특식을 차리라고 해야겠소. 헛허… 아니… 아니 시간을 봐서 내가 옥류관에서 한상 낼테요.》

로영무는 롱말이 섞인 그 생활적인 찬사에 기분도 좋았지만 너무 과분하게 여겨져 젊은이들처럼 뒤덜미를 쓸어만지며 어줍게 웃었다.

총장은 좌중을 둘러보며 오후에 의견들을 종합하겠다고 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람들은 연출가옆을 지나가며 수고했다는 눈인사도 뜻있게 하고 어느 장면이 괜찮다는 말도 몇마디씩 던졌다.

로영무는 완전히 명절기분이였다. 오후에 종합된 의견에도 특별한것이 없었다.

그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작업필림을 보아주실수 있지 않을가싶어 저녁녘 강철룡에게 편집원 윤희와 함께 작업필림을 다시 검사해보라고 일렀다.

로영무는 조용한 연출실에 앉아 두시간남짓 연출대본을 뒤적이며 놓친점이 없는가 깐깐히 따져보고 편집실로 향하였다. 영화의 전반적흐름을 새롭게 검토해보기 위해서였다.

대사소리, 효과소리, 음악소리, 편집기 돌아가는 소리로 언제나 떠들썩한 편집실은 필림검사가 완전히 끝났는지 놀라울 정도로 조용하고 그 바깥 복도에도 괴괴한 정적이 깃들어있었다. 어찌나 고요한지 발자국소리까지 복도에 저벅저벅 울렸다.

편집실문쪽으로 다가가던 로영무는 옆쪽에서 미심쩍은 인기척

이 나 걸음을 멈추었다. 불이 꺼진 복도 저쪽의 어스름속에서 꿈속에서처럼 한 그림자가 소리없이 걸어나왔다. 한기석이였다.

《들어가지 마십시오. 아까 철룡동무도 곁에 앉아있다가 같이 볼수 없다면서 나왔습니다.》

《음?》

《혼자 보며 맘껏 울라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밖에 나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한데 동문 여기서 뭘하오?》

《생각이 많아져 그저 앉아있었습니다. 저 윤희아주머니야 병원에서 내내 대본을 필사했댔는데 낯익은 장면이 지나갈 때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로영무는 가슴이 저려들었다.

《연출가동지, 필림편집을 시작하는 날에 저 아주머니가 다른 옷을 갈아입고 나온걸 느꼈댔습니까?》

《그랬소?…》

《승진연출가가 좋아한 옷입니다. 이건… 이건… 정말 저만 압니다.》

로영무는 그 녀자가 어떤 옷을 입고 나왔던지 잘 생각나지 않았다. 그저 전혀 인상에 없는 수수한, 우유빛에 가까운 미색 옷이 아니였던가 하는 생각만 어렴풋이 들었다.

《연출가동지, 좀 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그는 돌아서 다시 어스름속으로 소리없이 사라졌다.

로영무는 잠시 서있다가 한숨을 후－내쉬고는 발소리를 죽여가며 복도를 왔다갔다 거닐었다. 편집기앞에 엎드려 눈물짓는 윤희의 모습이 눈앞에 언뜻언뜻 비껴들었다. 그리고 이 끝없는 정적속에서 자기의 우정과 의리와 량심이 검열받는듯싶으면서 마음이 불안해지고 조바심까지 들었다. 그 무슨 흠이나 죄라도 드러난듯 얼굴이 화끈거리기까지 했다.

그때였다. 무엇인가 산산 박산이 되는듯한 굉음이 정적을 깨뜨렸다. 분명히 편집실에서 울려나온 소리였다.

로영무는 화닥 놀랐다. 그는 불길한 예감에 떠밀려 방문을 황

급히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방안은 형광등불빛에 대낮처럼 환하고 아늑한데 편집기앞에서 윤희가 천천히 일어나 놀란 눈으로 그를 돌아보았다. 이마에 흘러내린 몇오리 머리칼, 이슬기에 젖은 속눈섭, 불빛이 미끄러지는 해쓱한 얼굴에 어른거리는 그늘…

로영무는 그 녀자한테로 다가갔다.

《일없소?》

《…》

《이자 무슨 소리가 났는데…》

《예?》

《내가 잘못 들었나…》

다음 순간 그 녀자의 발밑에서 은빛을 반짝 발산하는것이 눈에 띄였다. 편집가위였다. 그것이 팔굽이나 어디에 밀려 편집기에서 떨어진 소리였다. 그 소리가 어찌하여 그토록 과장되여 가슴에 메아리쳤는지… 어쨌든 안도의 숨이 나갔다.

《저… 필림에는 손상이 간데가 없소?》

《예… 깨끗해요.》

《다시 보니 어떻소? 좀 감동이 오오?》 그는 거의 비굴해진 목소리로 물었다.

《예… 선생님, 수고했어요.》

윤희는 편집기우에 널려진 필림쪼박지며 아세톤병을 대충 치우고 의자를 뒤로 밀어놓더니 무엇을 잃었는지 방바닥을 살펴보았다. 편집가위를 띄여보고는 좀 놀란 기색으로 그것을 얼른 쥐여 편집기에 올려놓았다. 그리고는 이마에 흘러내린 머리칼을 쓸어올릴념도 안하고 무슨 용무가 있는지 황황히 방에서 나갔다. 무엇엔가 쫓기듯이, 무슨 말을 더 물을가봐 두려운듯이…

이튿날 아침 작업필림을 당에 올려보내였고 사흘후에는 박경섭으로부터 뜻밖의 전화가 왔다. 친애하는 그이께서 서해안지방으로 현지지도나가시였기때문에 더 기다리라는것이였다.

로영무는 속이 달아올라 그이께로 따라나가 지도받게 해달라고 거듭 제기하였다.

×

지나간 해비에 얼룩진 포장도로가 물결치며 달려와 차체밑으로 날아들고 가로수들이 차창밖으로 휘휘 날아지나갔으나 로영무한테는 차가 굼뜨게만 달리는것 같았다.

곁에 앉은 박경섭이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작업필림을 두번 보시고도 조선소로 현지지도나가시면서 그것을 차에 싣고 가시였다는 이야기를 한 다음부터 로영무의 마음은 걷잡지 못하게 뒤설레였다.

(어떻게 되여 두번씩이나 보시고도 아무 말씀도 없으신가? 혹 어떤 때엔 너무 기뻐 거듭 보신 경우도 있었는데… 아니… 조선소로 가지고가신걸 보면 심각한 문제가 제기된게 아닌가. …)

몇달동안 고생한 결과가 이제 한시간후이면 판가리될것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더욱 초조해졌다. 불안과 긴장으로 가슴에 재만 쌓이는듯싶었다. 결과야 어떻게 되든 어서 그이를 만나뵙고싶었다. 곁에 앉아있는 박경섭은 아무 말도 안하지만 벌써 무슨 기미를 느꼈는지 불안의 빛이란 전혀 없었다. 로영무는 그가 예술에 아무리 리해가 깊다 해도 창작가로 있어본적이 없기때문에 작품을 내놓은 작자의 불안이란 어떤것인지 잘 모르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했다. 그러자 그 유한 표정에 슬그머니 반감까지 들었다.

그는 재빛이 도는 숱진 눈섭을 찌프릴사하고 침울한 눈으로 차창밖만 내다보았다.

바다가의 조선소는 2만톤급 대형화물선조립에 들끓고있었다. 바다가에 서있는 다층아빠트만한 크기의 선체에는 사람들이 새까맣게 달라붙었는데 그곁에서는 문형기중기들이 위혁적인 동음을 울리며 조립품들을 쉬임없이 들어올리고 배의 선수와 선미,현측 그 어디에서나 파란 용접불꽃들이 폭포처럼 쏟아져내렸다. 안전모를 쓰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선박공업부문의 여러 일군들과 함께 선체곁에 붙은 쇠다리를 타고 바닥으로 내려와 로영무와 박경섭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였다. 그러시고는 현지촬영에서 흙빛으로 탄 로영무의 얼굴을 다시 여겨보시였는데 언제나 여전하신 그이의 밝은 안색으로는 작품에 대한 평가정도를 전혀 가늠할수 없었다.

《의견을 인차 주지 못해 안됐습니다. 왔던김에 이 배에도 올라가 돌아보십시오. 굉장합니다. 하나의 큰 공장맞잡입니다. 우리 로동계급이 자체의 기술과 자재로 만드는것입니다. 세계 여러 대륙으로 다닐 무역선입니다.》

《예…》

《배를 한바퀴 돌아본 다음 영화를 같이 보고 토론해봅시다.》

로영무는 조선소 기사장의 안내로 배를 돌아보았는데 걸음마다 로동계급의 비상한 창조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으며 그 과정에 배무이와 영화창조를 슬그머니 비교해보게도 되였다. 배에 골조가 있다면 영화에는 이야기줄거리가 있었다. 배에 형태적양상이 있다면 영화에는 형상적양상이 있었다. 배가 기계공업,전기공업,화학공업,전자공업,건축기술의 종합적인 창조물이라면 영화는 모든 예술종류들의 종합적인 창조물이였다.

영화창조… 고분자화학의 기적인 36미리 필림에 인간생활을 반영하는 일에 한평생 골몰해온 그는 대형원양화물선이라는 이 거대한 구조물을 돌아보면서 저도 모르게 가슴이 넓어지고 담이 커지는듯했다.

땅바닥에 내려섰을 때 로영무는 그이께서 느끼는바가 있으라고 배구경까지 시켜주지 않았는가싶으면서 가슴이 후더워졌다.

그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소에서 가까운 한 초대소에서 로영무와 박경섭을 량옆에 앉히고 영화를 다시 보아주시였다.

영사막에 화면이 흐르기 시작하자 로영무는 마음이 긴장되여 숨도 편안히 쉬지 못하였다. 지주집에서 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고역에 시달리는 꽃분이 어머니… 몸져눕는 어머니… 어머니의 약값을 구하려고 꽃을 파는 꽃분이… 꽃을 판 돈으로 약을 사가지고 집으로 오다가 비를 맞는 꽃분이와 순희… 그들을 동정하는 마을사람들… 어머니의 죽음… 장면이 바뀔 때마다 로영무는 그이의 안색에 마음을 썼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내내 팔짱을 낀채 의자등받이에 몸을 기댈사하고 화면을 바라보시였는데 언제봐야 심중한 안색이였다. 한마디 말씀도 건네시지 않았다.

불이 켜졌을 때 그이께서는 명상적인 눈빛으로 연출가를 돌아보시였다.

《영화가 괜찮게 됐습니다. 이만큼 만들기가 헐치 않을것입니다. 촬영소에서는 어떤 의견들이 제기됐습니까?》
뒤좌석에 앉은 박경섭이 미소어린 얼굴로 그이께 말씀드렸다.
《별다른 의견들이 없습니다. 모두 성과작이 되겠다고 기뻐한것 같습니다. 특히 총장동무는 아주 만족해서… 롱담이겠지만… 자기가 옥류관에서 연출가한테 한상 내겠다고까지 했답니다. 허허…》
그이의 눈가에 알릴듯말듯한 미소가 어리였다.
《총장이 그랬답니까?》
《예…》
《그러니까… 의견을 낸 동무가 한명도 없었습니까? 한명도…》
로영무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씀드렸다.
《내놓고 의견을 말하지는 않았지만 저… 우리 편집원 윤희동무가 좀 불만이 있는것 같았습니다.…》
《승진동무 안해가요?》
그이께서는 저으기 놀라시였다.
《무슨 불만입니까?》
《아직 구체적인 의견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 영화가 잘되기를 제일 간절히 바라는건 아마 그 녀성일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의견을 들어봤더라면 진심이 밴 목소리를 들었을게 아닙니까. 비록 말단단위에 있는 편집자이지만… 행정직위가 높다고 다 옳게 판단하는건 아닙니다. 개성적요인이 많이 작용하는 예술작품의 경우에는 특히 그렇습니다.》
《제가 소홀했습니다.》 로영무는 자책감에 잠겼다.
《그 녀성이 어떤 불만인지 모르겠지만 불만이 있다는 그자체를 나는 좋게 생각합니다. 불만은 요구성이 높기때문에 생기는게 아닙니까.… 물론 영화는 괜찮게 만들었습니다. 미끈하게… 수준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더 잘 만들수 없었겠는가. 원작의 심오한 사상감정이 다 표현됐는가?》
그이께서 얼마나 격조높이 말씀하시는지 말이 아니라 열을 그냥 내뿜는것 같으시였다.
《모욕으로… 모욕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래 한생을 예

술에 바친 로영무연출가가 형상의 질을 이 수준으로밖에 올리지 못한단말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나는 총장의 그 무사태평한 락천주의에 분개합니다. 오작이냐, 성과작이냐 나한테 묻는다면 성과작이라고 소리치지 못하겠습니다!》

뒤좌석의 박경섭이 사태가 이렇게 뒤집히자 눈이 휘둥그래져 그이를 쳐다보았다.

《지금 우리한테서 작품평가의 기준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이전에 나온것들에 비해 한미리, 한걸음이라도 전진했으면 기여했다고 만세!… 성과작이라는것입니다. 이런 인이 배긴 관습, 이 낡은 기준을 결정적으로 타파하지 않고는 솟아오를수 없습니다. 세계를 향해 솟아오를수 없습니다! 성과작을 많이 만들고싶어하는 일군들의 공명심때문에 이런 기준이 깨지지 못합니다. 결정적으로 짓부셔버려야 합니다!》

로영무는 눈앞이 핑 돌아 눈을 감으며 한손으로 식은땀이 내밴 이마를 쓸어만졌다.

어느새 자리에서 일어서신 그이께서는 의분을 참지 못하여 의자들사이의 통로로 왔다갔다 거니시다가 로영무앞으로 다시 돌아와 두손을 격렬하게 흔드시였다.

《우리것은… 조선것은 어째 오늘도… 우리 시대에 와서도 예나 다름없는 수준에서 앉아뭉개야 합니까? 우리가 렬등한 민족인가? 우리한테 무엇이 모자랍니까!》

박경섭은 그이의 음성이 높아지자 긴장된 낯빛으로 창문쪽을 돌아보았다.

《로영무연출가는 어째 세계적인 연출가로 못됩니까? 사실 나는 승진동무가 간 다음 기대를 걸었댔습니다. 크게… 그런데 이 수준이란 말입니까? 밤낮 후줄근해져서… 소심성에 빠져서… 총장의 누거리 찬사에나 만족하는 졸부가 돼서는 안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영화의 형상수준이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로영무는 눈앞이 그냥 어지럽게 돌아갔다. 총장과 윤희의 얼굴이 떠올랐다. 자기가 어딘가 침침한 뒤골목의 움속에 있다가 해빛 밝은 세상에 나선듯싶으면서 이름할수 없는 수치심에 얼굴이 화끈

거렸다. 그리고 난생처음 자신의 개성과 인격과 무능에 대한 환멸감이 밀물처럼 밀려들며 자존심이 꺾인듯한 의분이 가슴밑창으로부터 솟구쳐올랐다.

그는 어금이를 모질게 악물고 그것을 삼키다가 끝내 참지 못하고 머리를 번쩍 쳐들었다.

《다시…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괴어번졌다.

그 눈물이며 피타는 목소리가 그이의 흥분을 진정시킨듯했다.

《결심하고 고쳐봅시다!》

그이께서는 부드럽게 말하며 로영무곁에 나란히 앉으시였다.

로영무는 고개를 수긋하고 험한 령마루로 치달아오른 사람처럼 단숨을 몰아쉬였다.

그이의 목소리가 갑자기 담담해졌다.

《연출가의 로숙한 형상수완이 흠집을 많이 감춰버렸더군요. 영화가 처음에 대본을 보고 기대했던것보다는 감동이 훨씬 적습니다. 왜 이렇게 되였는가. 여러 모로 생각해봤습니다. 도저히 마음놓을수 없어 필림통을 여기까지 싣고왔습니다.》

이때까지의 흥분은 가뭇없이 사라지고 어느덧 그이의 얼굴에 침착하고 인자하신 빛이 어리였다.

《오늘까지 세번 보니 감동이 적은 원인이 뚜렷이 알립니다.… 어떤 대예술가도 창작실천에서는 흔히 가장 초보적인 문제를 망각하기 일쑤라는데 이 영화에서도 그것을 소홀히 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왜 감동이 적은가?…》

그이께서는 시름겨운 한숨을 내쉬시였다.

《어머니의 죽음장면부터 해부해들어가면 작품의 전반적인 병집을 들어낼수 있을것 같습니다.》

로영무는 저도 모르게 눈을 감게 되였다. 그 순간 자기가 창조한 예술작품이 아니라 자신의 육체와 심혼이 번듯이 드러누워 수술칼을 기다리는듯한 긴장과 불안과 공포를 느껴서였다.

《영화에서는 꽃분이와 순희가 숨진 어머니한테 매달려 목청껏 통곡하며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물이 나지 않고 고

아로 된 두 딸한테 강한 동정심도 가지 않습니다. 그저 어머니가 없어 안됐구나 하는 정도의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이 장면부터 해부해들어가야 합니다.》

로영무는 놀란 눈으로 그이를 돌아보았다. 그이의 눈에 미소 같은것이 빛나고있었다.

《어머니가 죽었으니 딸들이 그렇게 우는것은 리해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론리적인… 리성적인 인식이고 판단이지 감성적으로는 그 울음이 가슴을 크게 울려주지 못하고있습니다. 바로 여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앙상한 론리만으로는 예술이 안됩니다. 감정에 안받침될 때, 감정적인 론리로 될 때 형상은 비로소 생명력을 가지며 사람들의 감정을 뒤흔들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됩니다. 이 장면이 왜 이렇게 되였겠습니까. 이 장면자체의 결함인가? 이 장면자체는 나무랄데 없이 형상되였습니다. 전제가… 감정적인 전제가 약하기때문입니다. 감정축적이 약합니다. 병은 썩 앞장면들에서부터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친애하는 그이께서는 그 앞장면들을 더듬어보시는듯 영사막쪽을 내다보시였는데 쪼프릴사한 눈에서 그윽한 빛이 흘러나왔다.

그이께서는 전생활에서 오가는 정이 깊어야 어머니가 숨진 다음 딸들이 그렇게 우는것이 감성적으로 울려올것이라고 하면서 가난속에서 자식들을 극진히 아끼고 사랑하는 어머니의 심정을 더 짙게 그려줘야 한다고 하시였다.

《병약한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자식들을 위해 부지런히 일해가는 어머니, 자식들을 극진히 사랑하는 어머니… 그 어머니의 노력과 사랑에 의지하여 자라나는 어린 자식들… 이런 전제가 강해야 어머니의 죽음이 산 모성의 죽음으로 되며 진실한 슬픔을 자아낼것이 아닙니까.》

그이께서는 온 심장으로 그 슬픔을 체험하시는듯 안색이 흐려졌다가 다시 환히 밝아졌다.

《어째 이런 문제를 소홀히 하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주일가와의 갈등에 치중하다나니 그렇게 된게 아닙니까?》

로영무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단재를 들쓴듯이… 전류같은것이 그의 뇌리를 찌르르 꿰지르며 지나갔다.

《둘째로 영화에 마을사람들이 꽃분이네를 동정하는 설정이 많은데 그 동정선을 거의다 잘라버려야 할것 같습니다.》
《예?》 로영무는 얼결에 이런 소리가 나갔다.
《동정자가 많으면 그만큼 관중들의 동정이 덜 가게 됩니다. 가혹한 착취와 압박으로 기를 펴지 못하고 살아가는 당시 사람들이 남을 돌봐주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자기들도 살아가기 어려운 형편에서 다른 사람을 도와줄 마음이 있어도 그렇게 할수 없었을것입니다. 이것이 생활의 엄혹한 진실입니다. 물론 우리 민족의 미풍량속을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죽지 못해 살아가는 마을사람들로서는 꽃분이일가에 대한 동정이 한갖 마음뿐일것입니다. 꽃분이네와 주위사람들의 관계가 이렇게 그려져야 진실하고 또 어머니를 잃은 자매에게 동정심이 더 가며 의지가지할데 없는 그들의 운명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는지 우려되여 극적인 기대도 생기게 됩니다. 주인공이 의지할데가 많으면 불쌍한 생각이 덜 나지 않겠습니까. 동정선들을 대담하게 쳐버립시다.》
《옳습니다. …》 박경섭이 한숨섞인 소리로 속삭이였다. 로영무는 략자를 섞어가며 그이의 말씀을 놓칠세라 수첩에 적어나갔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잠시 생각에 잠기시였다가 계속하시였다.
《불행이란 예고없이 불의에 닥치는 수가 많습니다. 영화에서도 이렇게 돼야 비극적인 감정이 강하게 폭발될것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꽃분이와 순희가 약을 사가지고 오다가 비를 맞아 나무밑에서 오돌오돌 떠는 장면이 어머니의 죽음앞에 있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불쌍하고 가련한 어린것들의 운명을 보여주자고 한것 같은데 이 장면을 결정적으로 반대로 가져가야 합니다.》
《?…》
《비를 맞아 나무밑에서 오돌오돌 떠는 장면이나 어머니의 죽음장면은 감정의 색조로 보면 다 같은 류의것입니다. 앞장면이 좀 어두운 색조라면 뒤장면은 아주 어두운, 캄캄한 색조입니다. 좀 어두운데서 아주 어두운데로 넘어가서는 강한 극적감정이 폭발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앞장면의 색조를 반대로 아주 밝게 해야 합니다.
약을 사가지고 돌아오며 이제는 어머니를 살릴수 있게 되였다

고 기뻐하는 순진하고 천진란만한 어린것들의 랑만적세계를 펼쳐보이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더 깊은 진실입니다. 기쁨에 떠서 웃고 노래하면서 그들만이 주고받을수 있는 랑만적인 꿈을 이야기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집에 와보니 어머니의 죽음… 이렇게 돌변해야 강한 극적감정이 폭발됩니다. 어린것들의 기쁨에 어머니의 죽음이라는 판이한 감정세계를 대조시켜야 그 애들에게 타격이 더 세게 가해지고 따라서 관중의 동정심도 백배로 더해질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작품은 인정심리극이기때문에 감정조직을 잘해야 합니다. 아쉽게도 감정조직이 잘되지 못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기본결함인것 같습니다. 감정조직은 감정세계의 긴장과 완화, 축적과 폭발… 이런 식으로 돼야 사람들의 심금을 틀어잡을수 있습니다!》

맥없이 처졌던 영화의 감정선이 갑자기 팽팽히 조여지며 탄력성을 띠는것이 온 신경으로 느껴졌다. 로영무는 순간에 그 어떤 탄성체의 떨림이 밀려드는듯 가슴이 후두둑 뛰였다. 그리고 기운차게 파도치는 영화의 흐름이 눈앞에 넘실거리고 연출방향이 환히 내다보였다. 숨이 차오르고 환성을 터뜨리고싶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여전히 침착하고 심중한 안색으로 휘갈겨쓴 글줄들이 엇비스듬히 비껴올라간 로영무의 수첩장을 건너다보시고는 조용히 말씀을 이으시였다.

《내 생각에는 어머니와 자식들간에 오가는 정을 강조하는 문제, 동정선들을 대담하게 자르는 문제, 약을 사가지고 오는 장면을 반대로 설정하는 문제… 이 세가지… 감정조직만 잘하면 영화가 훌륭하게 완성될것 같습니다. 연출가동무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로영무는 저도 모르게 제 무릎을 꽉 움켜잡으며 전률했다.

《고치겠습니다. 이젠 되겠습니다!》

《연출가가 흥분하니 됐소!》 뒤좌석의 박경섭이 웃었다.

그러나 **김정일**동지께서는 웃지 않으시였다.

연출가의 이른 흥분이 무슨 실책을 빚어내지 않을가 오히려 우려되시는듯 매우 진중한 안색으로 말씀하시였다.

《가서 잘 생각해보고 깊이 타산해봐야 합니다. 큰 결심을 품고

정말 손색이 없는 명작을 만듭시다!》

그이께 인사를 드리고 먼저 밖으로 나온 로영무는 가슴이 불에 덴듯 얼얼해져 한동안 현관 층계에서 걸음을 떼지 못하였다. 그는 손수건을 꺼내 이마의 땀을 씻었다. 저 멀리에 바라보이는 원양화물선선체에서 쇠메로 무슨 강판을 두드리는 소리가 쾅— 쾅— 울려오며 대기를 흔들었다. 선체가 통채로 하나의 북처럼 울리며 로동계급의 담력을 시위하는듯했다. 로영무는 가슴이 부풀어올랐다. 그리고 저 원양선의 선체처럼 자기도 하늘땅에 넘치도록 무엇이라고 함성을 터뜨리고싶은 충격에 떠밀려 바다가로 걸어나갔다. 그는 활개를 훨훨 저었다. 서쪽 하늘에 떠있는 은회색 구름장들이 흩어지며 여러가닥의 해빛이 부채살처럼 쏟아져내리고 그밑에 펼쳐진 바다는 별안간 눈부시게 반짝이며 거창하게 숨쉬였다.

(됐구나!… 되겠어! 윤희… 윤희동무, 이제는 되겠소! 좀 기다리오!)

바람에 옷깃을 날리며 걸어가는 연출가의 가슴에 그이의 말씀들이 환희의 메아리를 일으키며 울려오고 그이께 이끌려온 지난날이 한꺼번에 떠올랐다.

(아, 저 열정과 지혜! 참으로… 참으로 놀라운 지혜다. 인간의 심리와 감정을 얼마나 깊이 아시는가, 정치가들이 모두 저렇게 인간감정을 깊이 리해한다면 세상은 한결 살기 좋아지고 평온해질게다. 아, **김정일**, 저이야말로 예술의 천재, 예술적인 정치가가 아닌가!)

뒤쪽에서 누구인가 목청껏 부르는 소리가 났다. 로영무는 놀라서 돌아봤다.

박경섭이 이쪽으로 달려오며 머리우에 검은 판대기같은것을 쳐들어 흔든다.

《로영무— 이거— 이걸—》

로영무는 그제야 자기가 자리에 삼면쟈크가방을 두고 나왔다는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웬일인지 목이 꺽 메여올라 웃음도 나가지 않는다. 그의 머리우에서 흰 갈매기들만 청높이 탄성을 지르며 날아돌았다.

마　감

하루가 다르게 곳곳에서 기적이 일어났다. 사회주의대건설의 벅찬 숨결속에서 조국은 륭성번영하며 그 위용을 떨치였는데 문학예술만 하여도 국내적인 범위를 벗어나 세계 모든 대륙에로 영향력을 뻗치기 시작하였다.

1971년 10월,평양민족가극단은 중국에서 혁명가극 《피바다》를 련일 공연했으며 1972년 1월과 2월에는 피바다가극단으로 그 이름을 고치고 수만리 《원정》의 길에 올라 알제리와 로므니아,쏘련을 순회공연하였다.

한편 만수대예술단은 프랑스와 일본으로,만수대예술단 무용단은 런던과 로마로,평양예술단은 파키스탄과 에짚트로,인민군협주단은 뽈스까로 각각 진출하여 동서방의 문화권을 뒤흔들고있었다. 그 예술단들을 수행한 기자들과 예술평론가들은 주체예술에 대한 각계층 외국관객들의 인상적인 찬탄의 목소리들을 그대로 정리하여 조국에 타전하였고 그것들이 곧 신문들에 특보로 편집되여 국내인민들속에 전승의 그것과 비슷한 환희를 불러일으켰다.

박경섭은 그런 특보기사들을 읽을 때마다 영화예술부문이 무대예술부문에 뒤지는것 같아 마음이 여간 초조해지지 않았다.

1972년 7월 어느날.

박경섭은 전화기옆을 떠나지 못하였다. 까를로비 바리세계영화축전에 참가한 예술영화 《꽃파는 처녀》의 심사결과소식을 기다리고있었던것이다.

축전에서 성공하면 무대예술의 성과에 보태여져 우리 예술의 승리를 완전무결하게 보장할수 있을것이고 실패하면 자매예술이 이룩한 성과에까지 그늘을 던질것 같았다. 그래서 더욱 가슴을 조이며 초조한 시간을 보내고있었는데 그날은 어떻게 된 노릇인지 기쁘고 불쾌한 일들이 한꺼번에 닥쳐들었다.

고급당학교에서 공부하고있는 주영도가 강선제강소에 실습나가있다고 시외전화로 소식을 전해왔다. 그는 쾌활한 목소리로 자기 생활과 학습에 대하여 말하고는 촬영소소식도 물었는데 무슨 애로가 없느냐고 하자 소설책들을 좀 보내줬으면 감사하겠다고 했다. 박경섭은 서가에 꽂힌 소설책들을 아낌없이 헐어내려 지함에 넣어서 강선으로 나가는 차편에 실어보냈다. 그다음에도 기쁘거나 시끄러운 일들이 몇가지 더 생겨 일만 잔뜩 밀렸다.

그는 마음을 애써 가라앉히며 책상에 마주앉아 도당들에서 올려보낸 통보자료들을 밤늦도록 종합했다. 《꽃파는 처녀》가 제작완성된 다음 예술영화들인 《피바다》와 《한 자위단원의 운명》도 함께 가지고 전국의 모든 단위들에서 실효모임과 실효투쟁들을 벌렸는데 그 반향과 결과란 놀라운것이였다.

사회주의대건설장들과 생산기업소들의 여러 단위들에 《피바다》근위대, 《꽃파는 처녀》근위대들이 조직되여 사상, 기술, 문화—3대혁명의 앞장에 서고있었다. 영화의 사상과 서정이 사람들의 심혼속으로 스며들어 그것을 정화시키고 혁명적열의로 끓어번지게 하여 생산과 건설을 앙양시키고있었는데 각 도당들에서는 앞을 다투어 그 생동한 실례들을 통보해왔다. 통보자료철을 뒤적이던 박경섭은 지하철도건설자들속에 조직된 《피바다》근위대들의 자료에 주의가 갔다. 한 《피바다》근위대는 제일 난공사인 어느 구간의 굴뚫기를 맡아 량쪽에서 암석층을 뚫고들어갔는데 계획보다 보름이나 앞당겨 2개월 5일만에 굴을 관통하고 격동적인 상봉을 하였다는것이였다. 그 보고는 특히 강세룡부위원장이 근위대의 대원명단에 자기 이름을 정식으로 올리고 첫날부터 마감날까지 석수와 돌가루 속에서 건설자들과 한데 어울려 지내며 그들의 굴진을 기술적으로 도와준데 대하여 강조하고있었다.

박경섭은 자료들을 다 추려낸다음 벽쪽의 안락의자에 옮겨앉아서 담배 한대를 피우고는 머리를 좀 식히고싶어 등받이에 편안히 기대며 눈을 감았다가 깜빡 잠이 들고말았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던지 야무진 전화종소리가 그를 깨웠다. 화닥 놀라 눈을 뜬 그는 책상으로 얼른 달려가 송수화기를 들었다. 교환수처녀가 다급한 목

소리로 체스꼬에서 오는 국제전화라고 하였다. 체스꼬라는 그 한마디가 졸음을 말끔히 쫓아버렸다.

수화구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울렸다.

《여보시오. 평양… 평양…》

로영무의 목소리였다. 증폭기구의 좋은 성능때문인지 대동강 건너 동평양쯤에서 오는 전화소리같았다.

《로영무동무요? 박경섭이요. ―》

《안녕하십니까?》

《우리야 편안하지 않구. 거기서는 다 건강하오?》

《예… 조국에는 지금 깊은 밤중이란것을 알면서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떻게 됐소?》

《오늘 축전심사결과가 발표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화가 특별상과 특등메달을 수여받았습니다.》

《뭐요? 그 축전에 그런 상이 있던가…》

《이때까지는 없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영화의 특출한 성과를 표창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심중히 토론하고 새로 제정했습니다.》

《그래?! 대단하오, 대단해―》

《영화에 대한 반향이 아주 큽니다. 첫 상영이 끝나고 불이 켜졌을 때 심사위원들이구 관람자들이구 모두 눈물에 젖어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저를 포옹하면서 최고의 최고의 걸작이다, 이 성과는 조선의 성과일뿐아니라 우리 까를로븨 바리축전의 영예라고 웨쳤습니다. 모두 흥분을 못이겨 우리를 둘러싸고 소감을 말했는데 정말 반영이 굉장합니다. 호텔까지 찾아와 격정을 터뜨리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였습니다.》

《그래, 그 반영들을 다 적어두었소?》

《예?》

《반영들을 적어두었는가 말이요.》

《아니요.》

박경섭은 그의 정치적둔감성에 화를 냈다.

《반영들이… 특별상에 못지 않게 중요하단 말이요! 다 적어 가지고 오오, 하나 빠짐없이… 알겠소?》

《예…》

태풍에 날려가는듯 그의 목소리가 갑자기 지구의 서반구쪽으로 아득히 멀어져갔다.

박경섭은 단숨을 몰아쉬며 격하게 부르짖었다.

《여보—체스꼬—체스꼬—》

《평양—평양— 한가지 급히 결론을 받자구 전화를 걸었습니다. 프랑스, 이딸리아, 에짚트, 수리아 여러 나라 영화업자들이 우리 영화를 사가겠다고… 판매계약을 체결하자구…》

《알겠소. 내 인차 결론을 받아 알려주겠소.》

박경섭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 어서 보고드리고싶은 마음이 불같아 어쩔바를 모르고 방안에서 서성거리다가 전화기에로 달려갔다. 전화를 받고난 해당부문 일군은 그이께서 지하철도건설장에 나가계신다고 대답하였다.

돌가루며 세멘트가루의 먼지와 매연이 자욱하여 작업등들의 불빛마저도 벌겋게 흐려져보이는 보조갱도의 어귀에 들어선 박경섭은 미끼샤와 압축기, 전동기, 권양기를 비롯한 각종 기계들의 동음이며 분주히 뛰여다니는 건설자들의 웨침소리에 정신이 얼떠름해졌다.

지하건설장은 대격전장을 련상시켰다.

어스름속에서 백광을 뿜으며 펀뜩거리는 작업등들, 파쇄된 암석쪼각들을 높다랗게 싣고 바람을 일으키며 달려나오는 차들, 각종 자재들을 싣고 옆을 아슬아슬하게 스쳐지나가는 차들… 박경섭은 영화혁명의 토대가 튼튼히 마련되였다는 확신과 승리의 환희에 가슴이 벅차올라 걸음이 빨라만졌다.

그는 질척한 바닥에 널린 돌이며 나무토막들이며 쇠바줄같은데 발이 걸채며 자주 넘어질번하였다. 어떤데서는 발을 헛짚어 쭉 미끄러지며 흙탕물을 튕겨올리기도 하였다. 그때마다 안내하는 몸매다부진 지휘관이 팔을 붙잡으며 조심하라고 지하의 이런 길에 습관이 안되면 누구나 처음에는 다 그렇다고 벙글거렸다. 안

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길은 점점 더 험해지는것 같았다. 울퉁불퉁한 암벽, 천반에서 무시로 떨어지는 돌부스럭지들, 목덜미에 선뜩선뜩 떨어지는 석수방울들… 굴이 당장 허물어져내릴것 같은 무서움도 없지 않았다.

김정일동지께서 어버이수령님의 구상을 지하세계에 꽃피우려고 지난날 이런 궂은길을 수없이 걸으시였으며 오늘밤도 바로 이 길로 걸어들어가시였으리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저려들었다. 그리고 목덜미에 떨어지는 석수방울을 선뜩선뜩하게 느끼는것조차 죄스럽게 생각되였다.

어느덧 기본갱도에 들어선 그는 너무 놀라와 걸음을 멈추게 되였다. 안내자의 말에 의하면 확장굴착을 하고 콩크리트치기를 끝낸다음 초벌미장을 불이 번쩍 일게 했다는 높고 넓은 굴, 지하철도의 체모를 거의 갖춘 갱도가 앞뒤로 시원하게 뻗어있었다. 선선한 바람이 불어왔다. 궁륭식의 둥그런 천반을 따라 줄줄이 늘어선 조명등밑에서 분주히 오가는 건설자들의 안전모가 번쩍거렸다.

갱도의 량끝은 희푸르스름한 연무에 가리워 보이지 않았다.

박경섭은 이전에 친애하는 그이께서 집무실에 계시지 않을 때면 혹시 지하철도건설장에 나가시지 않았을가 하고 몇번 생각한적이 있었는데 그사이 수도의 땅속 깊은곳에 이런 지하세계가 펼쳐졌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아, 얼마나 거창한가!)

그는 환희에 넘쳐 로반을 따라 헤덤비며 걸어나갔다. 한참 걸어가니 갑자기 시야가 환히 열리며 드넓은 광실처럼 공간을 조성한 지하역이 나타났다. 거기로 달려간 그는 너무도 현란한 전경에 놀라 멎어섰을뿐아니라 자신도 모를 외마디 탄성을 지르며 주춤 물러서기까지 했다. 높은 천반에서 쏟아져내리는 촉수높은 전등의 백광에 넓은 공간이 온통 투명한 은빛으로 보이는데 그 중간에 우아하고 절묘한 무리등들이 드리워있었다. 무리등을 둘러쌌거나 그 아래에 아롱다롱 드리운 장식보석들이 미풍에 살랑대는듯 은빛, 금빛, 쪽빛으로 반짝거리며 눈부신 섬광을 날리였다.

그리고 량옆의 넓은 벽면에는 노을비낀 강물이 넘실거리는가 하면 푸르싱싱한 수양버들이 실실이 드리운 가지들을 흐느적이고 저쪽 벽면에서는 조국력사의 갈피에서 걸어나온듯한 50년대의 청춘건설자들이 이마에 손채양을 붙이고 먼 하늘가의 불타는 노을을 바라보고있었다.

박경섭은 지하세계에 펼쳐진 이 모든것이 현실로 안겨오지 않아 눈을 자꾸 슴벅이다가 앞으로 더 걸어나갔다. 한쪽벽의 쪽무이벽화앞에 여러 건설부문 지도일군들과 낯익은 미술가들,숱한 건설자들이 몰켜서 술렁거리고있는데 누런 안전모를 쓰고 수수한 작업복을 걸친 **김정일**동지께서 그들속에 서서 손을 높이 들어 벽화며 무리등을 가리키면서 열정적으로 말씀하고계시였다.

《모든 지하역들을 이렇게 예술화해야 하겠습니다. 천정밑에는 각양각색의 무리등들이 드리우게 하고 벽과 기둥들은 쪽무이벽화,조각,부각,아름다운 갖가지 무늬들로 궁전처럼 장식해야 합니다.》

그이께서 열정적으로 설명하며 두손으로 허공에 원이며 선을 그려보이실 때마다 백광이 흐르는 공간에 그자리가 몇순간씩 남아있는다. 가까이에서 듣고있는 사람들속에 강세룡과 배명준,낯익은 조각가들의 얼굴이 보인다.

박경섭은 사람들속을 비집고 조심조심 안쪽으로 걸어들어갔다. 그이의 힘찬 음성이 가슴을 뒤흔든다.

《하나하나의 역들을 모두 특색이 있게 꾸리면서도 벽화,조각,부각들에는 우리 인민의 행복하고 보람찬 생활과 지향이 생동하게 반영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21세기,22세기에 살 동무들의 후손들이 자기 선조들에 대하여 생동한 표상을 가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심취되여 듣던 건설자들은 미소를 지으며 설레이였다.

《지하역은 교통수단일뿐아니라 인민들에 대한 사상교양,정서교양에도 이바지할수 있도록 꾸려야 합니다.… 동무들,중심적인 지하역들에는 벽화에 인민들속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도 모시고… 조각상도 정중히 모셔야 하겠습니다. 인민들의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쳐오신 수령님… 이 지하철도건설을 발기하시고

이끌어오신 수령님의 영상을 여기에 모시는것은 나의 소원입니다!》

폭풍같은 박수소리가 터져오르고 환호의 선풍이 회오리쳐 올랐다.

조각가들의 뒤에 서있는 배명준이 얼결에 그를 돌아보며 격동된 얼굴에 미소를 그리였다. 그때 다음 벽화쪽으로 걸음을 옮기시던 **김정일**동지께서도 박경섭이쪽에 문득 눈길을 돌리더니 저으기 놀라시였다. 그가 이런 밤중에, 그것도 이런 아득히 깊은 지하에까지 찾아오게 된 까닭이 전혀 짐작되시지 않는듯…

×

벌써 기창으로는 이국의 그것과는 느낌이 다른 눈부시게 밝고 신선하며 친근한 해빛이 흘러들어 가슴이 설레였다.

모스크바발 평양행 대형분사식려객기는 조국의 령공에 들어선듯싶었다. 좌석들에서 려객들이 설레이고 안내원처녀가 통로로 밀차를 밀고 걸어오며 손님들한테서 화보며 잡지들을 걷고있었다.

기창쪽에 눈길을 돌리고있던 강철룡이 흘러드는 해빛속에서 무슨 냄새라도 맡는듯 코를 벌름거리다가 로영무에게 나직하면서도 흥분된 목소리로 말을 건네였다.

《비행장에 누구랑 나올가요?》

《…》

《굉장히 환영나올지도 모르지요. 당보에 크게 보도되였다니까…》

《…》

《모스크바 우리 대사관 문화참사도 그랬습니다.》

로영무는 그의 말을 전혀 듣지 못하는것 같았다. 그는 흐릿한 눈으로 기창밖을 내다보기만 했다.

지금 자기가 아니고 최승진이 특별상을 받아가지고 조국으로 돌아가고있다면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편안할가. 그의 생이 오늘에 미칠수 있었다면… 그의 미소떤 얼굴이 신문과 잡지들에 실리고 그가 특별상을 받아 그이께 드린다면…

갑자기 몸과 마음이 슬며시 앞으로 기울어지는듯한 느낌과 함께 귀가 멍멍하게 메였다. 려객들의 금발, 은발, 흑발의 머리들우로 저 앞벽에 내비친 박띠를 떠라는 빨간 글자들이 내다보였다.

객실안이 술렁거렸다.

로영무는 박띠를 떼고 무릎우에 놓인 종이철을 서류봉투에 넣으려다가 말고 펼쳐보았다. 그것은 박경섭의 요구로 종합해놓은 외국인들의 반영자료들이였다.

그는 미흡한점이 없는가싶어 한장 또 한장 번져가며 글줄들을 대충 더듬어나갔다.

《영화가 끝나고 불이 켜졌지만 나는 일어설수 없었다. 쏟아지는 눈물때문에… 무엇이 나를 이토록 감동시켰는가. 소박한 농촌소녀의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다. 나의 딸은 나를 버리고 탈가한지 다섯달이 지났지만 아무런 소식조차 없다. 우리한테서는 이그러지고 병들고 죽어버린 감정이 당신들한테서는 활짝 꽃피여나고있다.》

영국 가정부인

《한 통계에 의하면 미국어린이들은 다섯살부터 열다섯살까지 사이에 텔레비죤을 통하여 평균 1만 3천건의 살인장면을 본다고 한다. 이런것을 보며 자라난 인간이 무엇이 되겠는가는 두말할것도 없다. 〈꽃파는 처녀〉와 같은 예술을 감상하며 자라난 어린이는 가장 아름답고 고상한 인간, 인정미 있으면서도 강의한 인간으로 될것이다. 나는 오늘 서로 상반되는 문화의 두 흐름을 생각하게 되였다. 어느 흐름이 이기겠는가? 나는 지난 전쟁에서 미제에 대한 당신들의 승리를 두고도 지금 새로운 관점에서 생각해보게 된다. 그것은 인간성의 승리였다.》

쁘라하 중학교 교원 안또닌 드로다

《연출, 촬영, 미술, 배우연기… 모두 새롭고 훌륭하다. 이 작품은 인간성의 승리를 구가하는 노래이다. 나는 조선사람들이 호전적

인 민족이라는 악선전을 많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아름답고 고상한 정신력을 가진 예술적인 민족인줄은 몰랐다. 나는 오늘 조선의 민족정신을 보았다. 조선에 가보고싶다.》

프랑스영화감독 쟝 미셀

《나는 최근시기 조선예술을 여러번 감상하는 행운을 지녔는데 어느 작품이나 인간의 아름다움을 례찬하는것들이였으며 인간긍정, 인간옹호의 사상으로 충만되여있었다. 거기에는 속물도 색광도 마약중독자도 살인강도도 없었다. 보통사람들의 로동의 기쁨, 창조의 기쁨이 힘차게 노래되고 근로하는 사람들이 시대를 창조하는 영웅으로 묘사되여있었다. 당신들한테는 어떨지 모르겠으나 나한테는 이것이 매우 놀라운 경향성이다. 예술전반의 이러한 경향성에서 나는 새 예술조류의 힘찬 흐름을 느낀다. 예술이 민족정신을 표현한다고 생각할 때 당신들의 조국이 새로운 번영을 이룩하리라는것을 믿어의심치 않는다.》

핀란드문예평론가 야 케코넨

《그리스도교정신때문인지 나의 상념속에서는 언제나 아름답고 부드럽고 작은것은 약한것이였고 악하고 랭혹하고 큰것만이 강한것이였다. 그러나 당신네 꽃분이는 아름답고 부드럽고 작으면서도 악을 타승하고 징벌한다. 그지없이 아름답고 부드러우면서도 강한것이 조선의 정신력이 아닌가. 벗들, 나는 한편의 영화를 본것이 아니다. 조선을 보았다. 조선의 령혼을 보았다. 전설적인 맑은 아침의 나라, 조선의 태양을 보고싶다. 조선의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싶다.》

단마르크 대학교수 니꼴라 하켄

…

려객기가 기류를 가르며 날아내리는 쏴—하는 소리가 고막을 자극하고 은회색 날개밑으로 련련히 뻗은 산줄기들이며 풍요한 들판이 흘러갔으나 로영무는 격정에서 벗어날수 없었다. 언제, 어느때 우리 예술과 우리 민족정신이 세상사람들속에서 이런 공감을 불

러일으키고 이렇듯 절찬의 상상봉, 영예의 절정에 오른적 있었던가. 한편의 영화에 대한 반향치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요란하고 굉장한것이다. 타락과 절망, 비애와 영탄과 불안감을 고취하는 퇴페문화의 탁류속에서 비로소 인간긍정, 인간옹호의 신선한 기운을 느꼈기때문인가. 그 환희가 너무나도 컸기때문인가. … 이것은 한편의 영화에 대한 반향만이 아니다.

그이께서 찾아주고 초석으로 다져주신 우리 문학예술의 혁명전통에 대한 세계적인 공감이고 찬양이다!

갑자기 객석이 설레였다.

타원형의 기창을 통하여 날개밑에서 서서히 돌아가는 산야가 바로 눈아래에 굽어보인다. 무성한 숲, 골짜기들을 굽이굽이 감돌아흐르는 내물, 과수원에 즐비하게 늘어선 과일나무들, 산기슭을 따라 규모있게 들어앉은 농장마을들의 해빛을 반짝반짝 반사하는 창문들, 드넓은 논벌을 가로세로 줄기차게 내달리는 관개수의 흐름, 곧게 뻗은 도로로 달리는 자동차들과 뜨락또르들… 어디를 보나 조국산천에 새 비약의 기운이 약동하고있다. 갑자기 몸과 마음이 허궁 내려앉는듯하면서 귀가 꽉 메고 잉―하는 소리가 고막을 울리더니 뒤따라 아득히 먼곳에서부터 률동적인 울림소리같은것이 아스런히 들려오는듯했다. 그 소리는 점점 가까이 다가오면서 둔중한 종소리로 변하여 가슴을 울리고 온 정신을 뒤흔든다. 아, 몽마르뜨르언덕의 종소리… 《우리는 인도하는 별이 없어 시간의 파도에 떠내려가고있다.》… 비명에 간 앙드레 뻬르망로인이여, 우리에게는 있다. 인도하는 별, 향도의 별, 향도의 태양이… 우리 영화예술이 좌절의 진통을 겪고있을 때 그이께서는 혜성처럼 우리앞에 나타났다. 아니, 구원의 별, 구성으로… 과오의 진창에서 허우적거리던 우리, 절망의 어둠속에 쓰러졌던 우리, 잡사상의 때국물이 뚝뚝 떨어지는 우리를 손잡아일으켜 해빛속에 세우고 전대미문의 독창적인 사상과 열화같은 사랑으로 얼룩진 심혼을 깨끗이 씻어주시였다.

천재적이라고밖에 할수 없는 비범한 예지로 우리 영화예술의 병든 실태를 꿰뚫어보시고 전통문제를 전면에 제기하시였다.

영화혁명을 일으키고 다심한 스승이 되여 거인적인 령도력으로 우리를 이끌어오신 그이… 생각하면 할수록 참으로 놀랍다. 아직도 젊으신데 저 거인적령도력… 무엇보다도 저 천재적예지는 과연 어디서 오는것인가? 타고난 재능, 백과전서적지식… 아니 그것만이 아닌것 같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 누구도 따를수 없는 열화같은 충성심에서… 수령의 뜻을 자신이 책임지고 실현해나가시려는 자각과 후계자의 사명감으로 충만된 태양의 열정에서 끝없이, 끝없이 빛발쳐나오고 솟구쳐나오는것이 아닌가! 로영무는 문득 조국의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가슴이 든든해졌으며 그 눈부신 미래의 푸른 지평선이 멀리도 아니고 아주 가까이에 보이는듯싶어 아름찬 환희를 느꼈다.

좌석밑을 울리는 둔중한 충격… 흔들거리는 날개밑으로 질풍처럼 날아지나가는 거밋거밋한 활주로… 대지의 흙냄새가 객실로 확 휩쓸어드는듯… 순간에 로영무는 목이 꽉 메고 숨이 막혔다. 아, 조국이여!… 그는 오열같은것이 터져올라 그것을 누르느라고 턱을 한껏 끌어들이며 고개를 숙였다. 기창으로 흘러드는 해빛에 이마로 흘러내린 머리칼이며 눈섭의 서리가 유난히 반짝이였다.

비행기가 언제 멎어섰는지 야릇한 적막속에서 려객들이 웅성거리며 일어서는데 누구인가 어깨를 흔든다. 철룡이였다.

《저걸… 저걸… 좀 내다보십시오. 야, 모두 마중나왔습니다!》

총장과 박경섭 그리고 명절옷차림의 영화예술인들이 이쪽으로 달려오고있다.

예술인들속에서 하얀 달린옷차림의 처녀가 탄력있게 달려 옆으로 삐여져나오며 손을 흔든다. 그가 미혜란것을 알아본 순간 로영무는 철룡에게 흘깃 눈길을 돌리게 되였다. 그도 분명히 처녀를 알아본듯 얼굴이 벌개졌는데 눈길에 차거운 빛이란 전혀 없는것 같았다.

마중나오는 사람들의 맨 뒤에서 연분홍치마저고리차림과 은회색치마저고리차림을 한 두 녀인의 모습이 유표하게 언뜻거린다. 연분홍은 윤희이고 은회색은 좀 늙은 녀인이다. 로영무는 자기 뒤

시중에 한생을 바친 그 호방하고 활동적이고 락천적인 방조자를 인차 알아보았다.

안해 성녀는 무엇이라고 떠들며 안고나온 생화묶음을 윤희에게 내민다. 윤희는 사양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안더니 저고리고름을 어깨뒤로 날리며 총총히 달려나오다가 이쪽을 향해 손을 높이 쳐들어흔든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로영무는 그만 눈앞이 탁 흐려져 아무것도 볼수 없었다.

총서 《불멸의 향도》
장 편 소 설 예 지
제 2 판

저 자 리 종 렬 편집 량남익, 리일섭
표 지 남민우, 최영석 교정 오향옥, 김정임
콤퓨터편성 고려전자출판물사 량영희, 주인길
낸 곳 문 학 예 술 출 판 사
인 쇄 소 평 양 종 합 인 쇄 공 장
1판발행 주체79(1990)년 10월 10일
2판인쇄 주체94(2005)년 8월 5일
2판발행 주체94(2005)년 8월 10일

ㄱ—06311